

차 례

开 幕 词	1
개 회 사	3
환 영 사	6
축 사	8
축 사	9
축 사	11

-- 기초강연 --

1.망명과 상상: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의 전개양상과 의식세계	13
2.언어 변화와 어문규범, 그리고 한국어 교육	44
3.유립 (대학 전공)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미래: 몇 가지 쟁점과 과제	56

--언어학--

1.구문문법 시각에서 본 한국어“NP+ ADV+ V” 중간구문과 중국어“NP+ V起来+ ADV” 중간구문	79
2.한국어 이유·원인구문에 대한 연구	94
3.한중 가정조건문 개념영역 대조연구	107
4.한국어 모음 사이 경음과 격음의 발음 특징	120
5.한국어 동사 ‘빠지다’의 의미와 중국어에서의 대응	131
6.한국어 절단 동사 ‘끓다’ 의 의미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 분석	147
7.한국어 동사 ‘붙다’의 의미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	155
8.한·중 상향 이동동사 ‘오르다’와 ‘上’의 의미 대조 분석 연구	171
9.한·중 접사 “화” 와“化” 의 대비연구	190
10.신문보도에 나타난 어휘사용 특징 연구	210
11.한·중 화장품 광고언어의 수사법 특성 연구	226
12.「국화꽃 향기」속 팝송 가사에 대한 간접번역 연구	241

-- 문학 --

1.샤오홍과 강경애의 중·단편소설 비교연구	253
2.중·한 역사관계를 통해 본 동아시아질서의 구축	266
3.신경숙의 『외판방』 과 린바이의 『한 여자의 전쟁』 의 서사특징 비교연구	275
4.명말청초 중국문헌에 수록된 허난설현 작품 연구	293
5.「허생전」에 투영된 박지원의 경제사상	314
6.18세기 전반기 조선인의 청나라 재상(災祥)에 대한 인식	325
7.태극기에 나타난 중국 음양오행사상에 대한 연구	334

中国韩国（朝鲜）语教育研究学会2018年国际学术大会

开 幕 词

姜宝有

中国韩国(朝鲜)语教育研究学会会长

尊敬的延边大学金雄校长，
韩国国际交流财团姜荣必副理事长，
国语国文学会朴昌远会长，
国际高丽学会延哉勋会长，
国语教育学会徐赫会长，
中国朝鲜-韩国文化研究学会蔡美花会长，
中国朝鲜语学会金光洙会长，
尊敬的国内外来宾，各位会员朋友们，大家好！

我谨代表中国韩国（朝鲜）语教育研究学会，对2018年度国际学术大会在这山清水秀，民风淳朴的延吉，尤其是在坐落于卧龙山的学术殿堂-延边大学顺利召开表示衷心的感谢！

韩国国际交流财团和延边大学，以及学会共同举办的本次2018年度国际学术大会，离不开韩国国际交流财团和延边大学的大力支持。还要感谢韩国国际交流财团北京办事处李仁赫处长、延边大学朝鲜-韩国语学院金哲俊院长的鼎力支持，以及韩国语系张英美和朱松姬系主任带领的延边大学朝鲜语文学系和韩国语系全体成员的辛勤付出。在此，我对你们致以诚挚的谢意。

中国的韩国语教育自国立东方语专科学学校在重庆和南京开设朝鲜语讲座以来，已有73年的历史。1992年中韩两国建交以来，中韩两国在政治、经济和文化等方面的交流日益频繁、不断发展，中国的韩国语教育无论是质、还是量，都得到了迅猛发展。目前，中国国内已有280多所大学开设了韩国语专业。在外语专业中，韩国语系的数量和招生人数可以跻身前四、五位。

当今世界已经超越了基于互联网的第三次工业革命，进入了以大数据为基础的第四次工业革命，是人工智能的时代。传统的教育方式跟不上新时代的教育发展。面对人工智能时代和大数据时代，科学地重新设定韩国语教育是我们的使命。

在同时经历外语教育的环境变化和理念变化的当今，本年度国际学术大会以“融合与沟通：韩国语教育和人文科学的发展方向”为主体，探索新时代、新环境下的韩国语教育的发展方向。希望大家踊跃参与讨论。为了提高韩国语教育者和研究者的专门素养，本次学术活动中，年度国际学术大会将和青年教师进修和研究生论文竞赛同时举行。

今天，有来自中国、韩国、英国、日本等国家的66所大学的180余名教授和专家学者前来参会。有来自29个大学的四十多名教师参加教师培训，12所大学的19名研究生参加论文竞赛。规模盛大。

尊敬的各位会员，各位来宾：

在延边大学举办的本次学术活动具有多项深远意义。拥有70年历史的延边大学是中国韩国学发展的引领者。延边大学早在1949年就开设了朝鲜语言文学系，从而开展朝鲜语教育。又在1972年开设针对外语教育的韩国学系。延边大学一直坚持开展朝鲜语（韩国语）教育，其朝鲜语（韩国语）系也被选为国内唯一的国家重点学科。延边大学在国内的韩国语教育中发挥着先锋作用。国内大学的韩国语系的教授们有60-80%毕业于延边大学，或者与延边大学有着密切联系。由于地理上、文化上和学术上的优势，延边大学将会一直在中韩文化交流和韩国语世界化过程中发挥引领作用。

在这里，衷心感谢进行主旨演讲的延边大学金柄珉教授、首尔大学宋喆仪教授、伦敦大学延哉勋教授；和做青年教师培训讲座的首尔大学尹汝卓教授、延边大学金永寿教授、高丽大学李宽珪教授、北京大学王丹教授；以及参与论文发表和讨论的所有与会者。此外，我还要对负责研究生论文竞赛审查的复旦大学姜银国教授、延边大学金虎雄教授、梨花女子大学朴昌远教授、汉阳大学李三炯教授、釜山外国语大学宋享根教授，上海商学院的张延镐教授表示衷心的感谢。

今天，世界韩国语教育界的元老——首尔大学名誉教授朴甲洙，为了激励年轻一代的学术研究，不远万里跨海来到了这里。对朴教授的到来表达最深深的谢意。

最后，再次向大力支持本次学术活动的韩国国际交流财团和延边大学朝鲜-韩国学院全体老师同学表示衷心的感谢！

预祝本次学术活动取得圆满成功！并祝愿在座的各位身体健康、心情愉快！

祝各位在延吉、在延边大学度过一段美好的时光！

谢谢大家！

2018年 7月 21日

中国韩国(朝鲜)语教育研究学会会长 姜宝有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2018국제학술대회

개 회 사

강보유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장

존경하는 연변대학교 김웅 총장님
한국국제교류재단 강영필 부이사장님
국어국문학회 박창원 회장님
국제고려학회 연재훈 회장님
국어교육학회 서혁 회장님
중국조선-한국문학연구회 채미화 회장님
중국조선어학회 김광수 회장님
존경하는 국내외 내빈 여러분,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를 대표하여 2018 년 연례국제학술대회가 산 좋고 물 맑고 인정 많은 연길에서, 특히 와룡산(卧龙山)에 자리한 학문의 전당- 연변대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연변대학교 그리고 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2018 연례국제학술대회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연변대학교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었습니다. 이에 한국국제교류재단 북경사무소 이인혁 소장님과 연변대학교 조선-한국학학원 김철준 원장님, 그리고 장영미 교수와 주송희 한국어학과장을 비롯한 연변대학교 조선어문학과와 한국어학과 전 가족의 노고에 고마움의 인사 올립니다.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국립동방전문학교가 중경과 남경에서 개설한 조선어강좌를 시작으로 이미 73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992 년 중한 수교를 계기로 양국 간의 정치, 경제, 문화 교류가 심화, 발전, 확대됨에 따라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2018 년 현재 중국 내 대학 한국어학과는 이미 280 개에 달하여 학과 수와 학생모집 수가 4,5 위권에 들어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정보통신(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3 차 산업에서 더 발전하여 빅데이터(Big Date, 大數據)를 기반으로 하는 4 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재래식 전

통교육 방식으로 신시대 교육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와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하여 한국어교육을 과학적으로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지워진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국어교육의 환경 변화와 이념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례국제학술대회는 “융합과 소통: 한국어교육과 인문학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신시대 새로운 환경에서의 한국어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오니 열띤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본 학술행사에서는 연례국제학술대회와 함께 한국어 교육자와 연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청년교사연수와 대학원생 논문경시대회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중국, 한국, 영국, 일본 등 나라의 66 개 대학에서 교수와 전문가 180 여 명이 오셨습니다. 교사연수에는 29 개 대학의 40 여명 교수가 지원하였고 논문경시에는 12 개 대학의 19 명 대학원생들이 지원함으로써 대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내빈 여러분:

본 학술행사가 연변대학교에서 개최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깊은 뜻이 있습니다. 70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연변대학교는 중국에서의 한국학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지구촌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연변대학교는 일찍 1949 년에 조선어문학과를 세워 모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을 하던 데로부터 1972 년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를 개설하여 조선어(한국어)교육을 오늘날까지 줄곧 해왔습니다. 그 보람으로 연변대학교 조선어(한국어)학과는 중국 내 유일의 국가중점학과로 성장하였습니다. 연변대학은 또 중국에서 한국어교육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의 60-80%는 연변대학을 졸업했거나 연변대학과 깊은 학연을 맺고 있습니다. 지리적, 문화적 그리고 학문적 우세로 연변대학교가 중한 문화교류와 한국어세계화를 선도함에 있어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앞장서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부언하고 싶은 것은, 기조강연을 해주실 연변대학교 김병민 선생님, 서울대학교 송철의 선생님, 런던대학교 연재훈 선생님과, 연수강의를 해주실 서울대학교 윤여탁 선생님, 연변대학교 김영수 선생님, 고려대학교 이관규 선생님, 북경대학교 왕단 선생님, 그리고 연구발표와 토론을 맡아하시는 모든 참석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이 감사 드립니다. 더불어 대학원생 논문경시대회 심사위원을 맡으실 이화여자대학교 박창원 선생님, 한양대학교 이삼형 선생님, 부산외국어대학교 송향근 선생님, 복단대학교 강은국 선생님, 연변대학교 김호웅 선생님, 상해상학원 장연호 선생님에게도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또 세계 한국어교육의 대표적인 원로 학자이신 박갑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께서 젊은 세대들의 학문을 격려하고자 바다 건너 멀리에서 오셨습니다. 머리 숙여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전폭적으로 지지 성원해 주신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연변대학교 조선-한국학

학원 전가족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학술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연길에서 그리고 연변대학에 계시는 동안 마냥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8 년 7 월 21 일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장 강보유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2018국제학술대회

환 영 사

강영필

KF 한국국제교류재단 부이사장

존경하는

- 강보유 중국한국어교육연구학회 회장님,
- 김웅 연변대학교 총장님,
- 서혁 국어교육학회 회장님,
- 채미화 중국조선-한국문학연구회 회장님,

그리고, 중국 전역과 한국 및 해외 각국에서 참석해주신 교수님들과 한국어 교육자, 연구자 여러분, 모두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국제교류재단 기획협력이사 강영필입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공동주최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을 대표하여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18 중국한국어 교육 국제학술대회에 KF가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평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 비추어 볼 때, 한중 양국관계와 양국 국민들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되어 오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를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상호이해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중국내 한국어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동안 “중국한국어교육연구학회”가 이끌어준 중국내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과 발전적인 논의에 감사드립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1991년 설립 이래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기 위해 해외 한국학 및 한국어 교육 지원, 한국 문화예술 소개, 해외 인사 초청 및 국제행사 개최 등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한국어교육연구학회”와는 학회 설립 초기인 2002년부터 오랜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해외 한국학/한국어 진흥사업은 지난 27년간 재단의 핵심 사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1990년대 초 해외 150여 개 대학에서 한국 관련 강의를 제공했던 것에 비해, 2018년 현재 전 세계 105개국 1,340여 개 대학에서 한국학/한국어 강좌가 제공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만 270개 대학에 3천여 명의 교수진이 3만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학/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괄목할만한 성장에는 “중국한국어교육연구학회”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공고한 파트너십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중수교 이후 지난 25년간 본격 확대되어 온 중국내 한국어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재단과 학회의 협력관계도 더욱 확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각각 개최되어 오던 여러 행사와 회의를 통합하여 총회 성격으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의 의미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행사를 오랫동안 중국 내 한국 관련 연구와 교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연변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어 더없이 기쁩니다. 모쪼록 이 학술대회를 통해 중국내 한국어교육의 지속적인 발전 앞에 놓인 많은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신 학회와 연변대학교 관계자 여러분, 대회 강의자, 발표자, 토론자 분들을 비롯하여 중국내 한국어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여러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18 중국한국어 교육 국제학술대회 “융합과 소통: 한국어교육과 인문학의 발전방향”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21일

KF 한국국제교류재단 부이사장 강영필

<참고 - 중국한국(조선)어 교육연구학회>

■설립: 2001년

■회장: 강보유 5대 회장(상해 복단대 중한언어문화교육연구중심 교수/임기2년)

■구성: 부회장 4명, 연구이사 12명, 선전이사 7명, 지역이사 6명 등

(회원400여명 회비 운영)

■성격: 중국내 30개 주요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한국어교육/연구 학술단체

■KF 지원: 2002년 이후 약 30만불 지원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2018국제학술대회

축 사

노영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대독)

안녕하십니까?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노영민 대사입니다.

‘2018 중국한국어 교육 국제학술대회’를 위해 연변대학교에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해 드립니다.

중국 전역과 한국, 해외 각국에서 참석하신 250여명의 한국어 교육자, 연구자들이 이곳 중국에서 “융합과 소통 - 한국어 교육과 인문학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은 새로운 정세를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는 세계사적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평화의 희망이 싹트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한반도, 동북아 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동북아 지역내 주요국간 대화와 평화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저는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중관계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서 중국내 한국어 교육과 연구결과의 확산은 한중 양국민의 상호 이해 및 역내 안정과 발전의 소중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F가 2018년 1월 발간한 ‘해외한국학 백서’에 따르면 전세계 한국학 강좌를 운영하는 기관은 10년간 2배가 늘어 1,300곳이 넘습니다. 중국에서만 270개 대학에 교수진 3,000명, 학생수는 30,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내 한국어 교육 연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관련 인사들간의 통합과 단결이 더욱 공고해 지는 회의가 계속 되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회의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중국내 한국어 교육과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한국국제교류재단, 연변대학교, 중국한국어교육과 연구학회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2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 노영민(대독)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2018국제학술대회

축 사

서혁

국어교육학회장

존경하는 중국한국(조선)어학회 강보유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pecially 김웅 총장님, 김병민 전 총장님, 송철의 원장님, 민현식 전원장님, 강영필 부이사장님, 채미화 회장님, 김광수 회장님, 박창원 회장님, 연재훈 회장님, 강은국 교수님, 이인혁 소장님, 김철준 원장님, 장영미 교수님, 주송희 학과장님, 왕단교수님, 김영수 교수님, 박갑수 고문님, 송향근 이사장님, 윤여탁 전회장님, 이삼형 전회장님을 비롯한 국내외 내빈 여러분 모두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국어교육학회 15 대 회장을 맡고 있는 이화여대 서혁입니다. 오늘 유서 깊은 연변 대학교에서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가 “융합과 소통: 한국어교육과 인문학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국제학술대회와 함께 청년교사연수, 대학원생 논문경시대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매우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국어교육학회는 1991 년에 창설되어, 현재 한국 전역에서 1,000 여명의 전문가와 회원들이 활동하며, 연 3 회의 학술대회와 매년 5 권의 학술지 <국어교육학연구>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은 영문판으로 발행하여 한국어교육의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2 년마다 국제학술대회를 해외에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국어교육학회가 이렇게 발전해 오기까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갑수 교수님께서 고문으로 도와주시고, 이삼형 전임 회장님과 이관규 전임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애써 주셨습니다.

저희 국어교육학회는 재작년에는 대련외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7 년에는 “인공지능 시대의 한국어교육”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에서 성황리에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2018 년 2 월에는 동경에서 “자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의 국제동향”이라는 주제로 세계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어교육의 연구와 방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올해 11 월말에는 “리터러시(literacy)와 교육격차”라는 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이화여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에서 다시 한번 국어교육학회의 국제학술대회가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직전인 지난 주말에 이화여대에서 한국의 전국국어교사모임에서 주관하고 있는 우리말교육현장학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매체(미디어)교육 방안에 대

한 학술대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교사들의 국제적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연변대학교를 비롯한 중국의 여러 조선어, 한국어 학과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 초청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와 국어교육학회 모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21일
국어교육학회 회장 서혁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2018국제학술대회

축 사

채미화

중국조선-한국문학연구회장

존경하는 학자 여러분, 그리고 청년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외국문학연구회 조선-한국문학연구분회를 대표하여 중국 한국어교육연구학회 “융합과 소통: 한국어교육과 인문학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2018년 연례 국제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는 거의 20년동안 학회지 <한국(조선)어교육연구>의 간행과 한국어교육 국제연례학술대회의 개최, 그리고 한국어교육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한국어교육자 연수과정의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연례학술대회는 중국 한국학의 모태이자 국제일류의 외국언어문학학과건설을 향해 매진하고 있는 연변대학에서 성황리에 개최됨으로써 더욱 중대한 의미와 영향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와 조선-한국문학연구학회는 중국 한국어학과에서의 한국문화교육이라는 공통한 과업을 담당하면서 상호 소통과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학회는 조선한국언어문학교급인재의 양성 및 새시기 한국어학과에서의 문화교육문제를 둘러싸고 함께 토의,연구하였으며 서로 협력하여 중국에서의 한국어문화교육의 발전을 추진할데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목전 중국에서의 조선-한국언어문화교육은 엄중한 도전과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세하에서 우리는 학과발전의 출구와 도약의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대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용적인 인재양성과 국제적인 경쟁능력을 가진 고급인재양성을 동시에 실행할수 있는 교육내용을 창조하고 학과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학문적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교육내용 개발에 동참하면서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적용가능한 교육방법을 탐색해나간다면 한국어학과발전에 더욱 큰 박차를 가하게 될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중국과 한국의 저명한 학자 그리고 중국 한국어학과와 청년교원들이 함께 동참한 성대한 학술모임입니다. 중국의 한국어교육의 자세와 수준을 진단하고 한국어교육과 인문학의 접목을 시도하면서 금후 중국의 한국어학과 발전전략에 대해 사고하는 좋은 장으로 될 것

이리라 생각합니다. “융합과 소통: 한국어교육과 인문학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이 학술대회가
중국 조선-한국언어교육의 새로운 활기를 찾는 데서 큰 힘으로 될 것이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대회의 원만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2018년 7월 21일

중국조선-한국문학연구회장 채미화

망명과 상상: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의 전개양상과 의식세계

김 병 민

(연변대학교, 산둥대학교 석좌교수)

<차례>

1. 들어가는 말
2. 타자의 시각: 중국혁명서사와 가치의 재정립
3. 결사의 선택: 의열투쟁서사와 영웅적 거사
4. 저항의 주체: 항일무장투쟁서사와 중한연대
5. 존재의 이유: 망향애환서사와 한의 정서
6. 경계의 넘기: 서사의 다양성과 문화 혼종성
7.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식민지시대 한국인에게 있어서 중국은 특수한 공간이었다. 중국은 비단 식민지 한국 이민들의 생활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망명지사들의 항일독립투쟁의 정치공간이었으며 따라서 한국 근대문학, 특히는 항일문학의 발전공간이었다. 중국체험서사로 특징되는 항일문학은 한국 망명지사들에 의하여 중국에서 다양하게 발전하게 되었다. 중국체험서사에 대한 개별적 연구는 적지 않게 진행된 상황으로 광미선의 『김택영의 문학연구』(2013), 김동훈의 「예관 신규식과 그의 문학」(1998), 김병민의 『신채호문학연구』(1988), 황재민의 「박은식 ‘안중근전’의 문학사적 성격과 영향력」(2016), 강창민의 『이육사의 문학연구』(국학자료원, 2002) 등은 그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상기 연구에서는 개별 문인들의 문학 활동, 창작특징, 의식세계 등에 대하여 깊이 있게 천명하였다고는 말할 수 있겠으나 중국체험서사에 대한 총체적 조명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시각으로서의 망명문학의 성격, 특징, 가치, 위상 등에 대한 연구는 진일보 전면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기되는 망명지사란 본토에서의 정치적 억압과 생존적 어려움으로 정치활동 공간을 중국으로 옮겨온 후 장기적으로 중국에 체류하면서 문필활동과 항일구국운동을 한 문인-지사들을 가리킨다. 한국의 망명지사들은 다수가 계몽문화운동의 세례를 거친 지식인으로 항일문인인 동시에 항일지사로 그들은 망명문학의 주역들이다. 한국의 망명지사들은 중국에

와서 중국문단에 진출하여 중국문인들과 상호교류를 전개하였고 중국매체들에 작품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신문 잡지의 간행과 도서 출판, 창작활동, 사회-문학단체 활동을 통하여 망명문단을 구축해 가기도 했다. 망명문단의 형성과 발전에서 활약한 대표적 인물로는 김택영, 박은식, 신규식, 신채호, 조소앙, 류자명, 김규광, 장지락, 이두산 등을 거론할 수가 있으며 주요한 간행물로는 『독립신문』(1919), 『신대한』(1919), 『진단』(1920), 『천고』(1921), 『동방전우』(1939), 『조선민족전선』(1938), 『조선의용대통신』(1938), 『한국청년』(1939), 『한민』(1940)등을 들 수가 있다.

본 논문은 한국 망명문학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를 위한 전기(前期) 작업으로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의 전개양상과 특징, 그리고 그 의식세계에 대하여 거시적으로 조명해보려고 한다.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는 구체적으로는 중국혁명서사, 의사폭력투쟁서사, 항일무장투쟁서사, 망향애환서사 등으로 나뉘어진다. 따라서 서사양식에 있어서도 망명서사로서의 공동서사와 혼종성 등 독특성을 보여준다.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는 그 체험의 깊이와 사상의 심각성으로 하여 한국 근대 항일문학사 내지는 중한 문학교류사에서 특수한 위상과 가치가 있다.

2. 타자의 시각: 중국혁명서사와 가치의 재정립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은 그들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했고 또한 망명지사들의 중국인식은 그들의 중국혁명서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그러므로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혁명서사를 재조명해 보는 것은 20 세기 한국인들의 세계인식과 근대 가치관의 형성과 발전의 역사궤적과 특징을 살펴 볼 수도 있다.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혁명서사는 신해혁명서사와 대혁명¹서사, 항일혁명서사² 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한국 망명지사들은 신해혁명서사를 통해 근대 중국에 대한 재발견, 그리고 근대적 가치에 대한 재정립을 보여 주었다. 망명지사 신규식³의 「손중산 대통령을 축하하여」, 「손중산에게」, 「황극강에게」, 「민립보 사원 서혈아에게」, 「고우 혈아군을 애도하여」, 「천구 대계도에게 드리노라」, 「송교인에게」, 「황극강을 애도하여」, 「영사 진기미 선생을 위한 제문」, 「인형영사의 영전에」, 「벽랑호반의 원한 품은 자의 설토」, 「도야공에게」 등 일련의 시편들은 대표적 의의를 가진다.

신규식은 1911 년 중국으로 망명한 즉시로 동맹회에 가입했고 직접 무창봉기에도 참가했

¹ 대혁명은 중국의 1924-1927년 사이의 국공합작으로 전개된 국내 혁명전쟁을 지칭하는데, 북양군벌통치를 반대한 전쟁 혹은 정치운동이라고도 한다.

² 항일혁명서사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항일투쟁서사를 다루게 되므로 본 절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³ 신규식, 호는 예관, 별명으로 ‘청구한인’ 등을 썼다. 1911년 중국에 망명하여 동맹회에 참가했고 무창봉기에도 참가했으며 남사에 가입했고 중국 혁명당인들과 합작하여 신아동 제사를 건립했다. 임시정부 외무총장, 국무총리 역임. 1920년 『진단』 창간, 주요 저서로 시집 『아목루』 등이 있음.

다. 그의 신해혁명 체험은 그로 하여금 봉건 전제체제의 필연적 멸망과 새로운 근대 민족국가의 도래를 인식하였던 것이다.

共和新日月,	공화국 새 세상 만들어 내여,
重劈舊乾坤。	낡은 세상 새로이 돌려 세우니.
四海群生樂,	사해의 만백성 기뻐들하며,
中山萬世尊。	손중산 우리러 받들어 모시네.
- 「祝孫總統中山」	- 「손중산대통령을 축하하며」 ⁴

荆天荆地一身轻	촉수오산의 길 평탄치 않아도
楚水吴山路不平	그대는 가시덤불 헤쳐 왔어라.
铁血疆场当日愿	피어린 싸움으로 키워 온 포부
数千万口是同声。	만백성 모두다 그대를 환호하네.
- 「贈孫中山」	- 「손중산을 축하하여」

신규식은 위 시에서 청왕조를 뒤엎고 중화민국을 이룩한 손중산의 세기적 업적을 노래했다. 여기에는 그의 근대적 민족국가, 즉 공화제 근대국가에 대한 동경이 잘 보여진다. 신규식의 중국체험을 논할 때 가장 값진 부분은 바로 신해혁명에 직접 참가하여 중국의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과 그 필연적 추세를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을 인정하고 근대 민족국가의 발전을 지향하게 된 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 신규식은 1921 년 손중산을 만난 자리에서 신해혁명의 역사적 의의, 호법정부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중양국의 혁명은 동일하게 중요하여 중국혁명의 성공의 날은 즉 한국 독립해방의 때라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했고 “중국의 통일은 유망하고 동아의 서광은 이미 열리었습니다.”⁵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그는 투철한 정치안목으로 중국, 내지는 동아시아의 미래를 분석했는 바 망명인으로서의 특수한 시각이 돋보인다. 근대에 접어들어 중화주의 천화관의 붕괴와 함께 한국은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고 한국은 대 강대국관계에서 주체성 없이 좌왕우왕하다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었다. 한국은 대 중국관계에 있어서도 예외없이 척화파, 친화파 등 여러 갈래로 나뉘었고 제국담론에 휘말려 중국을 타자화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고 중국의 근대혁명인식에서도 투철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국면은 식민지로 전락된 후 한국지사들의 중국망명이 현실화 되면서 극복되기 시작했으나 중국의 현실, 특히는 신해혁명에 대한 인식에서도 다양하였던 것이다.⁶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신규식은 중국의 혁명에 투신하여 신해혁명에

⁴ 신규식, 「손중산 대통령을 축하하여」, 『신규식 시문집』 (김동훈 외 편역), 민족출판사, 1998, 189쪽.

⁵ 민필호, 『한중외교시화』 (일명 『중국호법정부방문기』), 『석림 민필호전』 (김준엽 편, 나남출판, 1995, 235쪽

⁶ 신규식의 경우에는 중국의 민주주의 혁명에 대해 정면으로 긍정했으나 유린석 같은 의병장은 재래 전통 사상으로 하여 공화제를 지향한 신해혁명에 대하여 긍정적 견해를 보이지 못하였다.

대한 긍정적 인식을 얻었던 것이다. 그의 시가에서 보여지는 신해혁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그대로 한국 근대사상사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재발견인 동시에 근대적 가치에 대한 재정립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왜냐하면 한국의 근대 계몽사상가들의 경우 근대적 민족국가를 지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봉건정권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민주국가를 세워야 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기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신규식의 중국체험에서 얻어진 근대 국가인식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신규식의 중국에 대한 재발견, 근대가치에 대한 재정립은 북양군벌정부를 부정하고 호법투쟁을 전개하는 신해혁명 당인들의 민주주의 혁명정신과 가치관에 대한 발견을 통해서도 잘 보여진다. 왜냐하면 신해혁명과 호법투쟁의 진두에 서서 싸우는 혁명자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은 그대로 근대중국의 정신이고 가치관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신규식은 주변에서 중심부에 왔었으나 타자화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타자화 하지도 않았으며 이중주체적 시각에서 역사현장과 그 인물들을 바라본 것이다.

시 「황극강을 애도하며」, 「인형 영사의 영전에」 등은 혁명당인들을 찬미한 대표적 작품으로 시문에서 시인은 신해혁명의 영도자 손중산을 보필하여 신해혁명과 호법투쟁을 지휘한 황극강⁷과 진기미⁸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뜻을 보여준다.

繼漁父英士血流黃歇,	어부, 영사의 뒤를 이어 상해에서 피흘렸으니,
義烈千秋,	의로움은 천추에 빛나고,
淚灑難幹,	눈물은 마를 길이 없는데,
舊雨凋零悲故我。	옛 친구 숨지어 슬프기만 하네.
同逸仙宋卿志在共和,	손일선, 송교인과 더불어 공화제에 뜻을 두고,
名齊一世,	함께 명성을 떨쳤으나,
功成不競,	영예를 다루지 않았으니,
中原寥落哭斯人	중원에 표박하는 자는 울기만 하네.

- 「挽黃克強 (黃興)」 - 「황극강(황흥)을 애도하여」⁹

시문에서는 황극강이 근대적 지향을 품고 신해혁명에 투신함과 혁명직후에 손중산만을 추대하는 대공무사한 정신, 그리고 민족국가 창출과 수호를 위한 호법투쟁에서의 변함없는 민족정신과 기개를 예찬하고 있다.

시 「영사 진기미 선생을 위한 제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⁷ 황흥은 손중산의 지기로 자산계급혁명의 지도자이다. 그는 황화강 봉기의 주요한 지휘자였을 뿐만 아니라 무창봉기를 직접 지휘한 영수로 신해혁명 승리 후 남경 임시정부의 대원수로 추대되어(후에 부원수로 되었다.) 남경 임시정부 구성을 추진한 인물이다. 그 뒤 손중산이 귀국하자 그는 손중산을 대원수로 추대했고 자신은 육군총장을 단임했다. 신해혁명이 실패한 뒤 그는 원세개를 토벌하는 호법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했다. 그 뒤 그는 일에 지치어 병들었는데 1916년 상해에서 별세했다.

⁸ 진기미는 호는 영사로 황흥과 함께 손중산을 보필한 자산계급 혁명가이다. 1913년 호법투쟁에서 강소 호법군 사령원으로 나섰다. 그 뒤 1916년 원세개의 정부각료 장종창이 파견한 자객에 의해 피살되었다.

⁹ 신규식, 「황극강(황흥)을 애도하여」, 『신규식시문집』(김동훈 외 편역), 민족출판사, 1998, 222쪽.

維公岐嶷, 공은 슬기로웠고,
 天挺英姿, 자태가 영매했으며,
 一身所系, 대국의 안위를,
 大局安危, 한몸에 지녔어라.
 過從既久, 오래 사귀노라니,
 希望無涯, 희망이 끝없었고,
 同心協力, 일심으로 협력하여,
 濟困扶衰, 난국을 이겨냈다네.
 何圖蒼昊, 야망을 품은 자가,
 驕子是恣, 분별없이 날뛰니
 公嬰國難, 공은 난국앞에서,
 改革乘時, 개혁을 실행했어라.

- 「陈先生英士誄」 - 「영사 진기미 선생을 위한 제문」¹⁰

시인은 신해혁명 지도자의 한 사람인 진기미¹¹의 혁명정신과 업적에 대해 찬미하면서 공화제 실현의 간고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신규식은 황흥, 진기미 등 혁명당인들을 통해서 민족국가, 민주주의, 민족정신 등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인식했고 한국독립에 있어서 중국의 중요성, 중국의 근대정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¹² 이외에도 신규식은 송교인, 서혈아, 대계도, 도야공 등 혁명당인에 대한 시편들을 통해 근대 중국의 혁명정신 즉 반봉건 민주주의 지향, 투철한 혁명정신, 민족적인 기개 등을 재확인하였다.

¹⁰ 신규식, 「영사 진기미선생을 위한 제문」, 위의 책, 226쪽.

¹¹ 진기미는 호는 영사라 했고 황흥과 함께 손중산을 보필한 자산계급 혁명가이다. 그는 호법투쟁의 앞장에 나섰는데 상소 호법군 사령으로 호법군을 진두에서 지휘했다. 1916년 원세개 정부 각료 장종창이 파견한 자객에 의해 피살되었다. 신규식과 진기미는 생사지우였는데 신규식은 진기미가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공의 택으로 달려가 고인을 안고 통곡했고 “**장폐**하도다, 살아서 영웅이요, 죽어서 신령이 되었으니 당중에 영사같은 자가 거의 없도다.”라고 외웠다고 한다. 진기미도 신규식의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진심으로 도와 줬는데 생활자금을 밖에서 문을 열고 집안으로 던지고는 갔다고 한다. 신규식은 선후로 위시와 함께 시 「인형 영사의 영전에」, 산문 「벽랑호반의 원한 품은 자의 설토」 등을 발표했다.

¹² 신규식의 근대적 지향은 시 「조카를 학생군단에 보내며」, 「청사를 전송하여」에서도 잘 보여지는데 나라의 독립을 이루고 자유와 민권이 보장되는 근대 민족국가 건설에 대하여 진지하게 설파하고 있다.

중국의 자산계급 민주주의혁명은 혁명세력의 선천적인 한계성과 군벌통치자들과 국민당 우익세력에 의해 온갖 곡절과 좌절을 거듭해야 했다. 신해혁명의 승리는 봉건군벌에 의해 수포로 돌아갔고 손중산을 위주로 하는 혁명당인들은 호법운동을 벌리어 피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에 대해 신규식은 자신의 시문에서 원세개를 위수로 한 군벌통치세력의 혁명당인들에 대한 탄압에 대해 비판했다.¹³ 손중산을 위수로 한 황흥, 진기미 등의 영도아래 전개된 호법투쟁에 대한 지지와 성원은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인식의 중요한 부분으로 근대적 지향의 투철성을 증명한다.

한국 망명지사들의 대혁명서사는 국공합작에 의하여 전개된 북벌혁명의 가치의 정당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공합작의 파열에 따른 중국 근대혁명의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다. 1927년 장개석과 국민당 우익세력에 의한 청당운동으로 국공합작은 파열되고 진보적인 공산당과 민중은 무참한 압제와 학살을 당해야 했고 대혁명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 뒤 남창기의, 광주기의가 일어나 공산당과 국민당은 대결상태에 있었다. 대혁명시기 중국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 그리고 부패한 군벌통치와 복잡한 현실에 대해 한국 망명지사들은 민감하게 파악했고 글로서 자신들의 시국인식과 정치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대혁명시기 시국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보여준 주요한 작품으로 신채호의 수필들과 기행문 「태항산기」, 류자명의 기행문 「적색의 비통」, 「광주를 떠나면서」, 김산과 님 웨일즈의 「아리랑」 등을 들 수가 있다.

류자명의 기행문 「적색의 비통」(1927. 4. 26), 「광주를 떠나면서」(1927.5)¹⁴등은 북벌혁명의 좌절과 그에 따른 시국인식을 서사화한 작품으로 각별히 주목된다. 작자는 상기 글에서 손중산의 영도 밑에 전개된 북벌혁명에 대하여 전면 긍정적인 전제하에서 장개석과 국민당 우익세력에 대하여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다.

기행문 「적색의 비통」에서 작자는 장개석과 국민당 우익세력에 의해 감행된 ‘4.15 광주참안’을 구체적인 묘사, 예리한 분석, 치렬한 정서로 비판하고 있다.

작자는 우선 혁명세력에 대한 국민당 우익세력의 세기말적 탄압과 무참한 살해를 구체적인 사례 이룰데면 계엄령의 반포, 계엄사령관과 공안국장의 포고, 공산당을 타도하자는 각종 포고와 표어, 공산당원과 그 영향을 받은 노동자, 농민, 학생들을 체포, 구금, 학살하는 장면들, 그에 반대한 혁명세력의 표어 등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그 한 장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5인(피살된 한 장면, 필자)의 희생자 중에는 18세의 소녀와 19세의 소녀가 있었다. ……수십 명의 군대는 범인을 압송해 묶어 세워 질풍같이 몰고 가서는 진흙가운데로 몰아넣고 총탄을 ‘탕! 탕!’ 쏘아, 그 뇌 속 혹은 가슴 속에 박아 넣었다. 한 소

¹³ 신규식은 「영사 진기미 선생을 위한 제문」, 「벽랑호반의 원한 품은 자의 설토」, 「남사에 드림」 등 시에서 혁명당인들에 대한 봉건군벌들의 탄압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¹⁴ 류자명의 기행문은 작자가 광주에서 직접 ‘4.15 광주참안’을 목격하고 쓴 것으로 「적색의 비통」은 1927년 4월 26일 타고하여 5월 13일-15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했고, 「광주를 떠나면서」는 역시 류자명이 광주를 떠나기 전인(5월 4일 광주를 떠남) 4월 말 혹은 5월 초에 타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글은 6월 3일-15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했다.

녀는 통곡을 하면서 최후에도 ‘장개석을 타도하자’를 외치며 죽었다.” 이러한 묘사에는 작자의 지대한 분노와 저주, 그리고 예리한 비판이 안받침이 되어 있다.

다음으로 작자는 장개석과 국민당 우익세력의 시대 역행성과 그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혁명세력이 정당으로 분할될 때 혁명 그것은 좌절되고 정권을 잃은 정당은 구세력 아래에서보다도 더욱 참화를 당하는 것은 역사가 가르치는 사실이다”라고 지적하여 공산당 혁명세력에 대한 장개석의 피비린 탄압의 본질은 정쟁(政爭) 즉 정치권력탈취에 있음을 투철히 분석하였다. 작자는 또한 이러한 세기말적 탄압은 국민당 우익세력의 반 삼민주의 행동이라 지적하면서 국민당 당원들의 불순결성을 비판했다. 작자는 특히 국민당우익세력들은 삼민주의와 당의 정강 등에 대해 모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도자의 열에 있는 자까지도 혁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고 민중을 위하고 혁명을 위한다는 구실 하에 실제로는 민중과 혁명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희생시키려는 자가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작자는 “장개석 일파의 손에서 연출된 모든 현상은 실로 혁명자로서는 타기할 만한 일일 뿐이다”라고 명백히 지적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작자는 장개석과 일본과의 상호 이용적인 역학관계, 그리고 음모책략에 대해서도 예리하게 통찰한 점이다. 작자는 “중국의 우경적 세력과 우의적 관계를 맺는 것이 일본의 득책(得策)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장개석은 일본의 “이 최후 정책을 받아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는 바 투사, 문인으로서의 역사적인 안목과 정치적인 통찰력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류자명은 상기 기행문의 자매편이라고 할 수 있는 기행문 「광주를 떠나면서」에서도 손중산의 세기적 업적과 황포정신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장개석과 국민당 우익세력의 시대역행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류자명의 대혁명 서사는 자신의 체험과 세계인식에 근거한 객관적 시각과 투철한 시국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시상의식 저변에는 정의와 비정의, 진보와 반동, 강권과 민중, 정치와 혁명 등에 대한 깊은 사고와 분석이 설득력있게 전개되어 있다.

류자명의 대혁명서사에서 보여준 중국인식 내지는 시국판단은 같은 시기에 국민당 당국과 국민군의 요직에 있는 궐말약의 산문 「오늘의 장개석을 보라」란 글과 혁명세력을 진압한 국민당의 노선을 반대한 노신 선생의 연설, 편지, 일기 등과 비교하여 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다. ‘4.15 광주참안’을 진실하고 적시적으로 그리고 예리한 안목으로 보여준 글은 중국문인들의 글에서도 찾기 쉽지 않다. 류자명의 기행문은 당대 한국 망명지사들의 정치적 지향과 문화적 자각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그 가치가 더욱 소중하다고 할 수 있다.

가령 류자명의 대혁명서사가 북벌혁명에 대한 전면적 긍정과 북벌혁명의 본래 취지를 배반한 장개석의 반동적인 시대역행성을 비판했다면 김산, 님웨일즈 공동작으로 되는 『아리랑』¹⁵

¹⁵ 『아리랑』은 1937년 미국기자 님 웨일즈(헬렌)가 항일투사 김산의 구술에 근거하여 쓴 김산의 자서전적인 실기문학작품으로 1941년 영문으로 출판되었다. 그 뒤 1941년대 『아리랑 노래』란 제목으로 일본어로 번역, 출판되었고 한국어로는 1984년에 한국에서 출판되었으며 중국에서는 조선문으로 1980년대에 출판되었고 중문으로는 1992년에 출판되었다.

에서는 장개석의 반동적 구테타를 비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맞서 공산당의 진보세력에 의해 격렬한 투쟁을 벌인 광주기의, 해륙풍에서의 공산정권의 건립, 그리고 국민당 우익세력의 피비린 탄압 등에 대하여 쓰고 있다. 특히 엽정, 장태퇴 등에 의하여 전개된 광주기의, 그리고 해륙풍에서의 혁명투쟁에 대한 서사는 오늘의 시점에서는 대단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

신규식 등의 신해혁명과 손중산에 대한 정당한 인식은 한국의 애국지사들과 열혈청년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였는 바 한국의 열혈청년들은 구국의 염원에 불타 올라서 광주에 달려가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했고 북벌혁명에 투신했다.¹⁶ 또한 장개석의 테러가 있는 뒤 대부분 한국 열혈청년들은 국민군에서 탈퇴하여 남창봉기, 광주봉기에 참가하여 중국 혁명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였으며 따라서 피의대가를 치렀는 바 좌우익 분열의 수난을 겪었다. 류자명의 대혁명서사와 시국판단은 역시 역사격변기의 한국 혁명청년들의 중국인식, 중국 혁명역량과의 제후, 한국의 미래인식 등에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 사료된다. 환언하면 신규식, 류자명 등의 중국혁명서사는 한국인의 근대중국에 대한 재발견, 그리고 근대가치에 대한 재정립을 보여주었다는 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

3. 결사의 선택: 의열17투쟁서사와 영웅적 거사

한국의 망국을 전후하여 수많은 애국지사들은 망국의 설움을 못 이겨내 자결-순국으로 일제침략에 항거했다. 이러한 의사들중에는 애국적인 군인, 관원, 문인 등을 망라하고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민영환, 홍범식, 황현, 박승환, 이준 등을 비롯하여 수십 명에 달한다. 또한 일제침략자와 매국노에 대한 지대한 분노를 지니고 거사에 나선 의사들도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의병장 안중근을 비롯하여 조선의열단(1919) 단원들인 김익상, 김상옥, 김지섭, 오성륜, 나석주 등, 한인 애국단(1931)의 이봉창, 윤봉길 등을 들 수가 있다. 안중근, 윤봉길을 비롯한 한국 열혈지사들의 영웅적 거사는 전세계를 진감했다. 또한 중국내에서 조선무정부주의 연맹단체를 조직하고 폭력투쟁에 나선 지사들로는 신채호, 정화암, 유수인 등이 있다. 조선의열단, 한인 애국단, 조선무정부주의 연맹 등 민족운동단체 의사들은 항일투쟁을 위한 폭력투쟁에서 서로 합류해 갔다. 이처럼 한민족의 의사들의 항일투쟁은 나라가 망하기 전후 지사들의 장렬한 순국투쟁으로부터 민족주의 투사들의 영웅적인 거사, 나아가서 무정부주의의 민중혁명폭력투쟁에 이르기까지의 가열차절한 역사과정을 거치면서 한민족의 민족정신과 영웅주의기개를 전 세계에 알리었다. 의열투쟁서사는 일제식민지시기 지사들의 자결과 거사를 소재로 한 텍스트를 가리킨다. 의열투쟁서사는 이해의 편의상 의사자결-순국투쟁서사, 의사

¹⁶ 김산의 회억에 의하면 1927년 당시 광주에 온 한국인 진보적 청년 800여 명나 되었으며 400여 명 독립군 출신자가 의용병으로 왔다고 한다. (김산, 님 웨일즈, 『아리랑』, 1984.3, 203쪽)

¹⁷ 필자는 의사투쟁서사 범위에 망국전야에 자결을 선택한 의사들의 투쟁, 식민지시대 거사에 나선 의사들의 투쟁, 또한 무정부주의 민중폭력투쟁을 반영한 작품을 포함시켰다.

폭력투쟁서사, 민중혁명 폭력투쟁서사로 나누어 볼수 있다.

의사자결-순국투쟁서사는 나라가 망하기 전후 죽음으로 일제와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보여준 순국의사들의 전기를 가리킨다. 주요한 작품으로 김택영의 「홍범식전」¹⁸, 조소앙¹⁹의 「홍범식전」, 「황현전」, 「전해산전」, 「박승환전」, 「조병세전」, 「민영환전」 등이 있다. 의사자결-순국투쟁서사는 물론 순국지사들의 유교사상에 기초한 충군 애국사상을 위주로 보여주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민족주의에 기초한 국가의식과 영웅의식 등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이준, 민영환 등에 대한 전기는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어 각별히 주목된다.

의사폭력투쟁서사 작품들은 항일구국투쟁에 나선 의사들의 영웅적 거사를 통해 한민족 특유의 민족정신과 영웅주의를 찬양하였고 일제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보여 주었다. 주요한 작품들로서는 안중근 의사의 거사를 쓴 박은식의 『안중근』, 김택영의 「안중근전」, 신규식의 「안중근전」, 이범석의 「안중근전」, 김구의 「이봉창 의사의 의거」, 「윤봉길 의사의 의거」, 조소앙의 「김상옥전」²⁰, 「이봉창전」, 「윤봉길전」 등 80여 명의 사들의 전기를 묶은 조소앙의 『유방집』²¹, 신규식의 한시로 「旅順就义」, 「哈尔滨即事」, 「挽锦山郡守」, 「弘岩先生追悼文」 등이 있으며 소설로 류자명의 「조선혁명일사」²², 김산의 「기괴한 무기」²³ 등이 있다. 의사폭력투쟁서사의 경우 안중근을 비롯하여 김익상²⁴, 오성륜²⁵, 김상옥²⁶, 이봉창²⁷, 윤봉길²⁸ 등 작품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투철한 민족정신과

¹⁸ 김택영, 『소호당문집·□정본』, 권10

¹⁹ 조소앙(1887-1958)메이지대학 졸업, 대한 임시정부 비서장, 국무위원, 대한 임시정부 외교부장, 한국 독립당 부위원장,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 주요 저서로 『한국문원』, 『유방집』, 『소앙집』 등이 있다.

²⁰ 『김상옥전』은 1925년 간행되었는데 서문, '김상옥전', '발해경', '한 살림요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 겸 발행인은 '한 살림'으로 되었다. '한 살림'은 조소앙에 의해 조직된 무정부주의 단체이다. 「김상옥전」 서문은 중국인 黃介民과 張秋白의 썼다. 『김상옥전』에서의 '김상옥전'은 『유방집』에 수록되었다.

²¹ 조소앙의 『유방집』은 식민지시대 민영환, 이준, 이상설, 김익상, 김상옥, 이봉창, 윤봉길 등 80여 명 지사들의 소전을 수록한 인물 전기집으로 1932년 중국 대동학회에서 출판하였고 중국의 저명한 인사들인 이제민, 황개민 등 40여 명이 서문과 제사를 써주어 의사들의 민족정신과 영웅주의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²² 위 적품은 1938년 『朝鮮民族戦線』 제5기에 발표.

²³ 위 작품은 1930년 『新东方』 第一卷에 발표됨.

²⁴ 김익상은 1921년 조선총독부 폭파사건을 주도한 인물, 또한 1922년 오성륜과 함께 상해 황푸탄 다나까 기이치에게 폭탄을 던지는 거사를 주도했으나 실패함. 그 뒤 체포되어 사형선고 받음.

²⁵ 오성륜(1900-1947), 1922년 김익상, 이종옥 등과 거사에 참여. 탈옥후 구소련에서 교육받고 다시 중국에 와서 항일운동에 투신. 그뒤 동북항일연군 제2군 정치위원을 역임. 1940년 변절하여 일제에 투항했다고 전한다.

²⁶ 김상옥(1890-1923), 의열단 단원. 1923년 종로경찰서 폭탄투척, 일경 수백명과 홀로 대치하면서 20여 일 싸움. 일경 수십명을 사살하고 마지막 자결함. 김상옥이 사살한 일경가운데는 경찰서장 田中長七와 경장 栗田清을 비롯한 경찰 수십명을 사살하였다.

²⁷ 이봉창(李奉昌), 이봉창 의거는 1932년 1월 8일에 이봉창이 한인 애국단의 임무를 받고 일본으로 가서 천황을 죽이고자 수류탄을 투척한 사건을 가리킨다. 일명 사쿠라다문 사건이라고도 한다.

²⁸ 윤봉길(1908-1932), 윤봉길 의거는 윤봉길이 한인 애국단의 임무를 받고 1932년 4월 29일 천황의 생일 겸 상해 전승기념식이 열리는 상해 홍구공원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져 일본 상해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百川义则)와 일본 거류민단 단장 가와바타(河端)를 즉사한 사건을 가리킨다.

영웅주의를 소유한 민족영웅들로서 거사를 준비하거나 순국하는 순간까지도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일제침략자와의 결사적인 저항, 그리고 일제의 필연적인 멸망을 낙인하고 있다.

민족정신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에 대한 신념으로 민족의 생존과 발전에 대해 궤멸하는 강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항한다. 의사폭력투쟁서사는 한민족특유의 민족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안중근전」에서의 안중근은 이토히로부미를 격사한 후 러시아검사의 심문에 항변하여 “나는 대한국인이다. 이등이란 자는 우리 독립을 약탈하고 우리 민족을 살육하였다. 나의 이번 행동은 우리 나라 독립을 회복하고 우리 민족을 보호하며 철천지 원수를 복수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사형을 받기 직전에도 안변호사에게 “내가 죽은 후 좋은 소식으로 나의 영혼을 위안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동포들 뿐입니다. 선생님은 진심 전력으로 우리 동포들을 권고하기 바랍니다. 국가독립을 회복하였다는 소식이 천국에 전해오면 나는 춤추며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오직 교육을 진흥하고 실력을 배양하며 여러 사람들의 뜻을 단합하여 독립을 회복하는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안중근은 전 근대 사회에서의 충군애국 사상을 가진 영웅인물, 더우기는 모종의 이익과 복수를 위한 험객이 아니라 근대 의미에서의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결사적인 선택을 한 민족주의자인 것이다. 이러한 민족정신은 김익상, 오성륜, 김상옥, 이봉창, 윤봉길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의사들의 민족정신은 「조선혁명일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의 김익상은 총독부폭발에 나선 열혈지사로서 1921 년 9 월 의열단 회의에서 일제의 중추기관을 분쇄할 결의가 있자 자진하여 맡아 나섰다. 그는 국경을 넘어서 먼저 집으로 찾아와 큰아버지, 형제, 아내를 만나서 자기의 거사의향을 전달한다. 그리고 거사에 나서서 성공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그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일제와의 결사적인 투쟁에 나서며 가정도 사랑도 버릴 수 있는 인물로 형상되었다. 의사들의 민족정신은 소설 「기괴한 무기」²⁹의 주인공인 오성륜도 마찬가지이다. 작자는 상해탄에서 일본육군 대신 다나카 기이치를 처단하려 나선 오성륜, 김익상, 이종옥 등의 거사에 앞서 그들의 소회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의 가정, 부모, 형제와 자매, 친척과 벗들, 연인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천여 년의 역사를 위한 조국을 위해 싸워야 한다.” 또한 체포된 후의 그들의 심경을 작자는 “다나카의 죽음은 조국회복의 징조이며 조국을 위한 복수의 첫 번째 성공이다……이제 사형을 당한다 해도 조국과 동포에게 볼 낯이 있지 않는가. 더구나 장래에 조국이 다시 서는 날이면 온 나라가 우리를 기념해 줄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의사폭력투쟁서사에서의 주인공의 민족정신은 이봉창, 윤봉길 등 형상에서도 잘 구현된다. 김구를 만나 임무수행을 요구하는 이봉창은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31 년 육신으로는 인생쾌락을 대강 맛 보았으니 이제는 영원한 쾌락을 도모하렵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사업에 현

²⁹ 작가는 작품에서 “상해에 있는 조선인 청년을 다 모아 한국 의열단을 조직했다. 이 단체가 성립되고 그들은 이것이야말로 조국의 복수를 위한 무기라고 했다”라고 쓰고 있다. 말하자면 의열단의 폭력투쟁은 무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신하겠다는 목적으로 상해로 왔습니다.”라고 말하였고 김구 앞에서 임무수행을 선서하는 윤봉길은 “ 나는 한인 애국단원임을 선서한다. 중국을 침범한 원수인 군사두목을 처단하여 우리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이루고저 한다.” 라고 말한다.

이처럼 그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달갑게 받쳐가는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사상은 ‘아’와 ‘비아’의 투쟁에서 ‘아’의 투쟁승리를 이루고 ‘아’에 있어서는 구각적인 ‘소아’를 버리고 정신적인 ‘대아’를 추구했던 근대 민족주의 사상을 체현하고 있다. 의사들의 거사정신과 생사관은 정신적인 ‘대아’를 추구했던 주체적인 한국 근대철학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즉 일제와의 혈전에서 “구각적인 소아”는 사멸될 수는 있으나 “정신적인 대아”는 영원하다는 이념에 기초한 것이다.³⁰

다음으로 의사거사폭력투쟁서사는 작품주인공들의 영웅적 기백과 슬기, 영웅적 담량과 지혜 등을 통해 의사들의 영웅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김익상의 형상창조에서 보면 김익상은 국경을 무사히 넘기 위해 두 개 폭탄을 하나는 허벅지 사이에 꽂 붙히고 나머지는 허리 띠 안에 숨겼다. 이에 작자는 “위험하면 쉽게 던질 수 있어 상당한 대가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일념이었다고 한다. 또한 소설 「기괴한 무기」에서의 오성륜은 민족인 기백과 슬기, 담량과 지혜로 충만한 인물로 형상되어 있다. 그는 옥중에서 사과 깎는 칼로 족쇄를 풀어내고 가짜 권총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죄인들을 위협해 순종하게 함으로서 슬기롭게 탈옥하게 된다.

「김상옥전」에서의 김상옥은 기백과 슬기, 담량과 지혜가 겸비한 영웅인물로 형상되었다. 종로경찰서에 수류탄을 투척한 후 뛰어 나온 그는 일경의 감시를 받았는데 선후 20 일동안 일경과 싸웠다. 그는 백발백중의 “쌍총 명사수”(双枪神枪手)로 혈혈단신으로 400 여 명 일경과 대결, 경찰서장을 비롯하여 수십 명의 일제경찰을 쓰러 눕히고 총알이 다 떨어져 한발만 남아 드디어 자결, 순국한다. 김상옥의 사건은 국내외에서 크게 영향력을 일으켰는 바 상해의 한국 지성인들은 조소앙의 「김상옥전」이 탈고되자 천부나 찍어 발행했고 중국인 황개민³¹은 친히 「김상옥전」에 서문을 써 주었고 또한 5 천부나 찍어 발행하기도 했다. 일본신문에서조차도 김상옥을 가리켜 “一骑当千之勇士”라고 했고 중국인 董育华는 친히 “万马军中奔虎勇, 叱咤一声天地宽”라는 만사를 써서 기념했다.³² 김상옥은 기백과 슬기, 담량과 지혜가 겸비한 민족영웅의 화신으로 형상되었는데 전기에서는 그가 자결한 후 일경도 감히 그의 사체부근에 다가오지를 못했다고 한다.

박은식의 「안중근」에서는 주인공의 영웅적 성격을 다각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바 어린 시절 말 타고 나는 새 쏘아 떨어뜨렸다는 이야기, 15 세에 총 들고 동학당에 따라나섰다는 이야기, 서울거리에 한인이 탄 말을 빼앗으려는 일본놈을 혼썰 낸 이야기, 그리고 의병장이 되어 의

³⁰ 김병민, 「대화와 상상: 단재 신채호의 동아시아인식과 근대상상」, 『국어국문학』, 제174호, 2016.3

³¹ 황개민(1883-1956), 신해혁명에 참가한 선구자로 구국일보 편집, 국민당 강서성 감찰위원, 국민혁명군 제14군 참의 등을 역임, 해방전 그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지했다. 해방후 강서성 감찰청 부청장 등을 역임

³² 조소앙, 「김상옥전」, 『유방집』, 대동학회, 1932.

병투쟁에 나선 이야기, 거사하기 전야의 그와 우덕순과 시를 주고받는 의기 충천하는 장면 등을 통해 부각되거나 특히는 할빈역에서 이또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영웅적 기개와 옥중에서 태연자약하게 적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통해 더욱 생동하게 부각되고 있다. 옥중에서 그가 일제의 죄행을 13 조목으로 단죄하고 「안응칠역사」, 수만 자의 「동양평화론」을 집필하여 일본인도 그를 흠모하여 필적을 구했다고 쓰고 있다. 또한 시를 써서 자신을 격려했다고 했는데 그 한구절을 보면 “남아가 비록 죽어도 마음은 철같고 열사가 죽게 되니 기가 구름 같도다.”라고 했다. 또한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미하다”라는 구절로서 자신을 반성했다고 한다. 그의 「동양평화론」은 그의 영웅적 거사는 동아시아의 평화, 내지는 세계의 평화를 위한 것임을 증명하는 좋은 증거로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의사들의 영웅적 성격은 역시 근대 진화론적 영웅사관에 기초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들의 영웅적 담략과 지혜, 영웅적 기백과 슬기는 한민족 특유의 영웅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의사들의 영웅주의는 진화론적 영웅사관에 입각함은 물론이지만 한민족의 일제에 대한 불굴의 항일의식과 필승의 신념을 만방에 알리고 진보적인 모든 진보적 역량을 규합하여 가열차절한 항일혈전으로 쫓겨나기 전에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외에도 의사폭력투쟁서사에서는 의사들의 생사관, 가정관, 의리관 등에 대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 바 거사에 출전하기 전 윤봉길과 김구의 마지막 대화는 주인공의 생사관, 의리관의 한 측면을 잘 보여주어 심히 감동적이다. “제 시계는 어제 선서식 후에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6 원을 주고 산 것인데 선생님의 시계는 2 원짜리이지 않습니까. 제계는 한 시간 밖에 소용이 없는 물건입니다.” 윤봉길은 거사를 떠나면서 김구와 시계를 바꾸었다. 그리고 차에 오르기 전 남은 돈을 김구에게 주어 준다. 김구의 물음에 “아닙니다. 차비 내고도 5-6 원은 남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³³ 이러한 장면은 윤봉길 의사의 인간성의 다른 한 측면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주목된다.

의사폭력투쟁서사 작품들은 민족주의 사상이 주도적이면서도 무정부주의 영향이 적지 않다. 특히 「기괴한 무기」에서 보면 작자가 주인공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를 평등하게 하고 오직 저 ‘피에 굶주린’ 포악한 민족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없애 버릴 수만 있다면 이 세계는 평온해진다.” 이러한 표현속에는 역시 “행동주의 선전”을 통해 모든 강권을 소멸하려는 지향세계가 드러나기도 한다. 따라서 기독교주의적 사상도 혼재되어 있는데 주인공들의 폭력투쟁은 신의 의지를 받아 나선 것으로 묘사하는 등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의사폭력투쟁서사는 비록 대중적인 기초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고 민족국가에 대한 사회지향이 아직 명확하지 못한 한계성이 없지 않으나 특수한 역사시기 한민족의 결사적인 선택—영웅적 거사를 재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의사폭력투쟁서사는 한민족 의사들의 영웅적 형상을 통하여 일본제국주의 침략자의 필연적인 멸망을 낙인했고 한민족의 결사항일의 민족정신과 영웅적 기개를 만방에 알리었다. 중국의 저명한 국민혁명 선구자 이제심은 의열지

³³ 김구, 「윤봉길의 의거」, 『백범일지』, 나남, 2002, 324-346쪽.

사들을 높이 평가하여 “열사의 피는 자유의 꽃이다”라고 했고 진정치는 의사들을 가리켜 “동아시아의 선각”이라 했으며 방정여는 의사들은 “철혈영웅”이라고 했으니 당시 한국의 의열지사들의 항일구국을 위한 영웅적 거사는 실로 그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안중근」³⁴의 출판에 102 명의 중한 문인들이 동참했다든가, 조소앙의 『유방집』출판에 40여 명의 중국 진보적 문사들이 참여했다는 점은 한국의사들의 폭력투쟁이 당시의 중국과 한국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일으켰음을 반증하기도 한다.³⁵

민중혁명폭력투쟁서사 작품들은 무정부주의 조직의 항일투쟁을 환상적 형식을 빌어 소설화한 작품으로 무정부주의 사상이념인 민중 직접혁명론을 선양하고 민중폭력투쟁과 민중의 승리를 제시하고 민중적 사회이상을 고양한 작품들이다. 의사폭력투쟁서사와의 차이점은 의사폭력투쟁서사가 민족주의 선양이 주도적이라면 후자는 무정부주의 선양이 주도적이라는 점이다. 물론 무정부주의와 민족주의는 서로 교차되어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신채호의 정론 「조선혁명선언」, 유고 작품으로 「선언」, 「조선의지사」, 「대흑호일석담」 등과 소설 「용과 용의 대격전」을 들 수가 있다. 신채호의 작품들은 일제에 대한 민중적 폭력투쟁, 민중혁명투쟁의 필연적 승리를 고취하고 있다.

신채호의 소설 「용과 용의 대격전」은 1920년대 동아시아를 풍미한 무정부주의 운동과 투쟁을 형상화한 환상적 소설로서 1928년 초에 창작된 유고 작품이다.³⁶작품은 환상적인 구조 속에서 중국 경내에서 벌어진 무정부주의 항일투쟁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각별히 주목된다. 소설은 일제침략자의 원흉의 상징적 형상-천국의 시위대장 미리와 지국의 무산민중의 상징적 형상 드레곤의 치열한 격전을 주요 갈등선으로 하며 천국에서 사는 상제와 예수, 황제며, 재산가, 대지주, 기타 순사 등의 철저한 박멸과 드레곤과 민중의 승리를 확인하고 있다. 소설에서는 민중들은 침략자들의 정치적 지배뿐만 아니라 모든 영력의 강권을 부정하며 무정부주의 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폭력적 수단” 즉 “행동에 의한 선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실천의 승리를 옹호한다. 드레곤의 형상은 “민중의 선봉”, “선각한 민중”으로 민중혁명의 선구자를 지칭한다. 작품에서는 드레곤은 정체가 불투명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일단 천국이 박멸된 이후에는 “정체적 진실이 우리 눈에 보일 것이다”라고 한다. 여기에는 민중을 역사의 주체, 혁명의 주체로 보고 “행동에 의한 선전”-폭력투쟁을 인정하는 무정부주의 사상이 구현되고 있다. 신채호는 대체로 1920년대 초에 무정부주의를 수용하기 시작하여 19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무정부주의 활동에 전격 참여했고 1928년에는 동방무정부주의 연맹에 참여했고 결사의 선택으로 직접 폭력투쟁을 위한 자금준비로 나섰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특히 그는 크

³⁴ 『안중근』은 1912년 『대동위인총서』에 간행된 바 있고 또한 1914년 상해의 대동편집국에서 출간했는데 「안중근」(滄海老坊室稿)이란 책자에는 「안중근전」과 함께 근대 중국의 저명한 문인들이 장태염의 「안근비」를 비롯하여 「제사」, 「도화」, 「서문」, 「선록」, 「부록」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자에는 중국의 저명한 문인 양계초, 황계강 등과 한국의 김택영, 신규식 등 102명이 「제사」, 「서문」, 「부록」, 「선록」 등의 집필에 참여했다.

³⁵ 조소앙, 「김상옥전」, 『유방집』, 대동학회, 1932

³⁶ 김병민 편, 『신채호 문학유고 선집』, 연변대학출판사, 1994

로봇트킨 등의 집산주의에 의한 상부상조사상, “행동에 의한 선전”, (소란, 암살, 폭동)등 사상을 수용했다. 신채호의 상기 작품은 바로 자신의 무정부주의 운동체험을 문학작품으로 승화한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작품에서 작자가 지국이 사는 민중사회를 온통 감옥이라고 한 점, 제국담론의 상징기호로 작용하는 상제가 민중의 투쟁에 의하여 쥐구멍에 살아졌다고 풍자한 점 등은 탈근대적, 탈식민주의 특징을 보여준다. 따라서 작품은 작가의 무정부주의 사상에 의하여 기획되는 미래상—세계상상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더 한층 주목된다. 작품의 저자는 “연시몽인”으로 밝혀져 있는 바 북경의 꿈꾸는 사람으로 해석될 것이다. 작품은 지극히 환상적이어서 프로이트가 말하는 “백일몽” 즉 자아의 무의식의 작동이 보여지는 바 주체의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고민이 시대적, 역사적, 민족적 고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상상이 되고 상징이 된 것이라 할 수가 있다. 자크 라캉은 “무의식은 타자의 담론”이라 했고 타자에 의해 주체는 상징적 권한을 부여받는 것임을 지적했다. 대타자—“상징계”에서 주체는 “오독”과 “변형”, “환유”와 “은유” 등으로 “욕망”을 내재화하고 변형한다. 소설에서는 주체의 “욕망”은 실제계에서 얻어진 상상과 상징을 통하여 무산민중주체의 동아시아 내지는 세계 상상을 예술적으로 보여주었다. 작품은 중국에서의 무정부주의 활동과 반일투쟁, 그리고 사회지향을 환상적 구조속에서 표현한 유일무이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4. 저항의 주체: 항일무장투쟁서사와 중한연대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된 후 한국의 독립투쟁은 중국으로 옮겨오게 되었는데 1910 년대의 의병투쟁, 1920 년대 초반에 있는 독립군의 투쟁 즉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는 그 전형적인 항일무장투쟁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 이후 한국 독립군 무장투쟁은 기본상 결속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그 뒤 1930 년대 동북지역에는 한국인 항일유격대가 창설되어 항일무장투쟁이 전개되었고 나중에 이 항일유격대는 1936 년 항일연군에 편입되어 항일무장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1938 년 국민군 소속으로 조선의용대, 1940 년 한국광복군, 1942 년 팔로군 소속으로 조선의용군 등이 창설되어 항일무장투쟁은 국민군, 팔로군, 항일연군과의 연관속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가열치절한 항일투쟁은 다양한 서사양식에 반영되었다.

항일무장투쟁서사는 독립군항일투쟁서사, 조선의용대 항일투쟁서사, 조선유격대 항일투쟁서사, 민중항일 투쟁서사 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1910 년대 한국의 항일독립투쟁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신채호의 중편소설 「꿈하늘」(1916)³⁷과 유작시편³⁸, 그리고 유린석의 시가작

³⁷ 「꿈하늘」은 신채호의 유고작품으로 독립투쟁의 복잡성과 간고성을 보여주면서 주인공 한놈의 형상을 통하여 민족의 역사정신, 민족의 문화정신, 그리고 일제에 대한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고취하고 있다. 소설은 환상소설로 되어 있다. (김병민, 「대화와 상상: 단재 신채호의 동아시아 인식과 근대상상」, 『국어국문학』, 제174호, 2016)

품들이 있으며 1920년대 초기 한국인 중국경내 연변지역 독립군 항일투쟁(청산리투쟁)을 소재로 한 실기문학으로 「한국의 분노」(이범석, 푸나이푸, 1940)가 있다. 1930년대 중국 동북 지역에서 전개된 조선유격대의 항일투쟁을 소재로 하여 창작된 작품으로 연극 「혈해지창」(까마귀, 1938년), 「밀림은 싸운다」(작가미상, 1937년) 등이 있으며 1930년대 중국 관내지역에서 조선의용대의 항일무장투쟁을 보여준 작품으로 실기문학 「전선에서의 조선의용대」(조선의용대, 1939.9) 등과 다수의 실기, 이두산, 한유한 등의 시와 수필 등 작품들이 있다. 민중의 항일투쟁을 반영한 작품으로 조선의용대의 연극 「조선의 딸」(김창만, 1939), 「두만강변」(작가미상, 1939), 가극 「아리랑」(김창만, 1939), 그리고 한국 전지공작대의 가극 「아리랑」(한유한, 1940) 등이 있다.

상기 부동한 항일무장서사 작품들은 물론 일제에 대한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중한연대, 민중항쟁 등을 보였다는데 공동점이 있으면서도 의식경향, 형식 등 면에서 일정한 부동점을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조선의용대서사는 사회주의 경향이 없지 않으나 민족주의 경향이 주도적이며 조선 항일유격대서사는 민족주의 경향이 있으나 사회주의적 경향이 주도적이며 민중항일서사는 역시 민족주의 경향이 주도적이지만 사회주의 영향도 없지 않다. 또한 조선 항일유격대서사는 역시 민중항일투쟁서사의 성격도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부동한 항일무장투쟁서사의 의식내용과 형식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독립군항일투쟁서사는 1910년대 한국인의 독립운동과 독립군의 항일투쟁을 소재로 한 작품을 가리킨다. 신채호의 중편소설 「꿈하늘」(1916)과 신채호의 유작시편들, 그리고 유린석의 시가작품들이 있으며 1920년대 초기 한국인 연변지역 독립군항일투쟁(청산리투쟁)을 소재로 한 실기문학으로 「한국의 분노」(이범석, 푸나이푸, 1940)가 있다. 「한국의 분노」는 일제에 대한 독립군의 불굴의 투쟁과 그 승리를 보여준다. 작품은 독립군의 주요한 지휘자인 홍범도 장군의 업적에 대해 비하하는 점도 없지 않아 역사사실에 어긋나는 허점도 드러내고 있다. 신채호의 환상소설 「꿈하늘」은 독립운동의 복잡성과 곡절성을 보여주면서 애국주의 사상을 고취하고 있다. 독립군 항일투쟁서사는 민족주의사상에 기초한 애국주의, 영웅주의 등을 고취하고 있으며 일제에 대한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의용대 항일서사는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주체로서의 한민족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전투적 위훈을 보여주면서 조선의용대의 대적 무장선전, 중한협동작전, 그리고 민중에 대한 교육 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일제의 동아시아침략을 분쇄하기 위한 중한연대의식이 전 편에 관통되고 있다. 조선의용대 항일서사 작품으로 『조선의용대 제1구대 혈전실기』(조선의용대 창작, 유금용 편역, 1939) 『전선에서의 조선의용대』(조선의용대 창작, 유금용 편역, 1939.9), 『전장에서 조선의용대』(왕계현 편역, 1940), 「전방에서의 제1구대」(박효삼, 1939), 윤세주의 「화평촌 통신」(1939), 양민산의 「접적행

³⁸ 유린석의 시작들은 중국 요녕성 관전 부근에서 전개된 항일의병투쟁을 반영하고 있다. 전통 문인인 유린석은 항일에 있어서는 견결했으나 근대적 지향에 있어서는 아직 보수적이었다.

군기」(1940), 한지성의 「전호에서 활약하고 있는 조선의용대」(1939), 이달의 「‘3.1’ 운동기념 감언」(1939) 등 50여 편의 실기문학이 있으며 그 외 이두산, 이달, 문명철, 약회, 김유 등의 산문과 시편들이 있다.

장편실기 『전선에서의 조선의용대』(1939.9)는 조선의용대 각 구대 선전원들이 집필하고 중국인 조선의용대 대원인 유금용이 번역한 실기문학 작품집으로 조선의용대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 조선의용대에서 출간하였다. 한국문으로 된 원본이 있었겠으나 아직 발굴이 안 되고 있다. 이 작품은 조선의용대가 국민당 군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제1전구, 제5전구, 제9전구에 여러 개 분대로 나뉘어 국민군 및 게릴라부대와 협동하여 항일전쟁의 최전선에서 대적 무장선전, 협동작전, 민중교육 등 면에서 이룩한 영웅적 업적을 서사화 한 것으로 아주 중요한 사료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 (이 작품의 중요한 부분은 당시 조선의용대에서 꾸렸던 『조선의용대통신』에 「조선의용대 제1구대 혈전실기」란 제목으로 연재됨) 작품은 당시 중한독자들과 사회각계에 광범한 반향을 일으키었다. 작품은 크게 두 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구대와 제2구대의 항일투쟁을 보여주고 있다. 첫 부분은 4장, 두 번째 부분은 5장으로 구성되었고 각장에서는 「민중이 사랑하는 게릴라부대」, 「진지에서의 연설전」, 「전장은 우리학교」 등의 소제목에 붙이고 있다. 문체는 수필, 르포, 편지, 대답, 의론 등 다양하다. 따라서 작품은 대형 실기문학집으로 그 내용이 방대하고 형식이 다양하며 뛰어난 문학적 상상력과 수사학적 특징을 보여준다.

조선의용대의 대적 무장선전은 항일담론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였는데 적진뿐만 아니라 적 점령구의 민중생활구역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대적 무장선전은 선전빠라와 표어의 산포, 적진에서의 대적 함화, 일본어 강습반 등 다양하게 전개되어 항일전쟁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적들의 전투사기를 와해시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국문인들은 조선의용대의 대적 선전을 가리켜 “혁명의 씨앗을 적군 내부에 뿌렸다”고 했고 “많은 휘황한 업적을 쌓았다”고 했다.³⁹ 따라서 조선의용대의 항일담론은 혁명성, 저항성, 연대성 등을 키워드로 하여 일제의 제국주의 담론의 반동성, 허위성, 침략성을 폭로하고 배격한 대항 담론이었다. 따라서 그 담론의 취지는 “항일구국, 전민항전” 깃발아래 항일투쟁에 총 쫓기하여 일제를 소멸하고 전면승리를 이룩하여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과 게릴라부대를 협력하여 대적 선전을 하는 한편 국민군을 배합하여 여러 차례 적과의 혈전에서 혁혁한 전공을 쌓았다. 작품에서는 통성 공격전투, 철주 항공격전투, 석산 공격전투, 잠산 공격전투 등에 대한 서사를 통하여 국민군과 조선의용대의 영웅적 모습을 생동하게 그려내고 있다. 작품에서 보여주는 영웅담론은 민족·민중영웅주의로 임전무퇴의 기개, 침략자와의 결사항전, 민족과 민중을 위한 희생정신 등에 그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다.

석산공격전에 대한 묘사는 아주 감동적이다. 석산 공격전을 위하여 결사대에 나서는 용

³⁹ 마의 편, 『조선의용대의 승리적인 4년』, 국제출판사, 1942

사들의 영웅적 모습과 공격전에서 국민군과 생사를 함께 한 조선의용대의 숭고한 정신도 보여 준다. 22 명의 결사대원들은 수류탄을 가득 메고 “내가 적을 죽이지 않으면 적이 나를 죽일 것이다. 석산을 수복하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맹세했다. 서사화자는 이런 장면을 목격하면서 중국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이 강철같이 견고해졌다고 토로했고 “이 장면을 보고 이국 사람들인 우리는 흥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우리의 몸속의 뜨거운 피가 이미 끓어 올라 22 명의 민족 영웅들과 친절히 악수하였다.”(「결사대」, 74~75 쪽)고 기록하고 있다.

실기에서는 계속하여 결사대 대원들의 영웅적 투쟁모습, 그리고 6 명의 결사대원들이 장렬하게 희생된 사실과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국민군 부상병을 구원한 사연 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국민군 88 연대 제 3 대대 제 8 중대 중대장 유운서(柳運瑞)는 병사들을 거느리고 5 겹이나 되는 적의 철조망을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3 겹까지 파괴하고 결국 적의 파편에 다리를 상하게 되었다. 조선의용대 선전대원 3 명은 그를 구원하게 된다. 실기에서는 “우리는 유중대장을 업고 이 자그마한 ‘명예전리품’들을 들고 우리의 주둔지로 돌아오면서 마음속으로 말할 수 없이 즐거웠다! 유중대장을 업은 G 동무의 옷이 비록 피에 젖고 또한 영광스러운 피가 살결에도 물들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위안을 받았으며 유쾌하였다.”라고 쓰고 있다. 이 전투에 참가했던 게릴라 선전조 제 2 대의 진한중(陳漢中), 관건(關健), 이동호(李東浩) 등은 국민군과 배합하여 석산을 공격했고 적의 군영과 탄약 창고를 불살랐으며 아울러 작전 진지에서 중상을 입은 유중대장을 구원한 戰功으로 하여 군단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고 조선의용대는 상금을 받기도 했다.

작품은 또한 주체의 이중성에 따른 정체성의 중층적 특질을 구현하고 있다. 물론 조선의용대의 정체성에서 주도적인 것은 단연 자기 민족국가·민족문화에 대한 정체성이다. 아울러 그들의 중국인식을 분석해 보면 중국 국민군에 소속된 군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내비친다. 이들의 이중주체성과 민족정체성, 군인 정체성은 민족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중한 연대를 이룩할 수 있게 된 전제이기도 하다. 조선의용대의 민족정체성은 주체의 자아인식 즉 민족의 독립과 자유, 조국의 해방과 미래에 대한 강렬한 요구, 민족문화에 대한 집요한 추구 등을 통해서 보아낼 수가 있으며 군인정체성은 중국의 항전에 대한 굳은 신념, 민중에 대한 항전교육, 민중학교의 운영 등에서 잘 체현된다. 이중주체와 그에 따른 정체성의 중층적 특징은 중국의 항일전쟁에서 중한연대를 특징으로 하는 수많은 “정착신화”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전선에서의 조선의용대」의 출간은 중한 양 민족의 연합항일 역사에서 기념비적 의의가 있는 문화전략이었고 제국주의침략과 문화패권을 전복한 20 세기 동아시아의 정신문화적 유산으로 높이 평가된다.

조선헌일유격대 항일서사는 주요하게 항일유격대의 항일투쟁을 반영한 작품으로 항일가

요⁴⁰와 항일연극을 들 수가 있다. 그 대표적 작품으로 연극 「혈애지창」(1938)과 「밀림은 싸운다」(1938)를 들 수가 있다.⁴¹ 항일유격대 연극은 공산주의사상 이념에 기초한 항일유격대의 투쟁생활과 그 혁명적 영웅주의를 반영하면서 중한연대 특히는 항일유격대에 대한 중한민중들의 지지와 성원, 나아가서 군민이 공동으로 일제와의 혈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기 두 연극작품은 작자가 까마귀로 되어 있다. 항일유격대에서 창작공연 했던 작품으로 항일유격대의 집체창작으로 볼 수도 있다.⁴² 따라서 작품에는 광복회와 김대장에 대한 대사가 나오는 바 김일성이 거느리는 유격대에서 창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두 작품은 모두 항일유격대의 영웅적 형상과 항일투쟁을 지지하는 민중들의 항전의식을 보여준 작품으로 공산주의의 혁명사상 영향이 큰 작품이다.

「혈애지창」은 일제에 의하여 피바다가 된 장백산지역의 참혹한 현실을 반영하면서 항일유격대 경찰원 삐꾸새가 민중 속에 들어가 계급교양과 항일교육을 전개하고 민중과 함께 항일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투쟁과정을 묘사하고 있으며 「싸우는 밀림」은 유격대군수부장 박민 등이 헤사즈꺼우(黑瞎子) 밀영을 포위하고 동기 대토벌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군과의 투쟁을 소재로 하고 있다. 두 작품은 극적 소재와 내용 표현에 있어서는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유격대 항일투쟁과 민중들의 각성을 반영하고 일제에 대한 불굴의 투쟁정신과 항일전쟁의 필연적 승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은 유격대 항일서사로서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우선 항일유격대의 혁명적 군인형상을 통해 공산주의 사회이념과 항일투쟁의 필연적 승리를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를테면 「혈애지창」⁴³에서의 경찰원 삐꾸새는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민중속에 들어가 계급교육과 항일교육을 하는 혁명군인으로 민중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싸운다. 그는 “우리는 칭칭 감긴 이 철쇄를 깃부시고 자유와 행복의 꽃동산을 꾸려야 합니다. 여러 분들도 땅 파던 팽이를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북간도의 피바다에 붉은 주권을 세워야 합니다. 잠자는 사자는 깨어났습니다. 승리하는 날까지 싸워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으로 민중을 무장시키고 민중을 투쟁으로 불러 일으키는 항일유격대 투사이다. 특히 그는 유격대를 이끌고 적진에서 일제 헌병 오장을 비롯한 일경과 그 앞잡이들을 일망타진한다. 또한 「싸우는 밀림」⁴⁴에서의 유격대 군수부장 박민은 공산주의 이념과 이상을 지닌 혁명군인으로 해산을 앞둔 아내 계순에게 혁명임무를 수행하게끔 하며 도깨비굴에 내려가 왕로인 등을 혁명사상으로 각성시키고 일본포로에 대한 교양을 거쳐 정보를 제공하게끔 한다.

⁴⁰ 항일가요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성과가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최옥화, 『해방전 중국조선족 가요연구』, 국학자료원, 2016년

⁴¹ 항일유격대가 창작한 작품으로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쏜다」, 「혈분만국회」, 「꽃파는 처녀」, 「성황당」, 「한 자위단의 운명」, 「경축대회」 등 다수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원 텍스트가 확인 되지 않아 본 논문에서는 잠시 다루지 않는다.

⁴² 두 작품은 1959년 연변대학교 조문학부 권철 등 선생들에 의하여 길림성 화룡현에서 발굴되었다. 따라서 작품은 김일성의 항일유격대에서 창작 공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⁴³ 「혈애지창(血海之唱)」, 즉 일제에 의하여 피바다가 된 땅 위에서도 자유의 노래 소리 들린다는 의미임.

⁴⁴ 항일 유격대가 밀림에서 일제와 영웅하게 싸운다는 의미임.

박민은 “무산자들에게는 국경이 없소. 우리 무산자의 신앙은 곧 인류 무산혁명을 실현하는데 있소. 공산사회-이것은 절대적 진리요.” “공산주의 정신이란 전 인류의 산 영혼이란 걸 알아야 하오”라고 말하거나와 자신의 모든 투쟁실천을 공산주의 이념과 결합시키고자 한다. 경찰원 뼈꼭새와 군수부장 박민은 공산주의 이념과 이상으로 민중을 교양하여 항일투쟁에 나서게 하며 자신들은 직접 항일투쟁의 최전선에서 적과英勇하게 싸워 승리하는 항일유격대의 혁명적 형상으로 당시 항일유격대의 정신세계와 투쟁실천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상미학적 가치가 있다.

다음으로 중한 민중의 각성과 중한연대를 실감있게 보여주고 있다. 예하면 「혈애지창」에서의 왕평의 가정은 항일투쟁에서英勇하게 싸운 중국인 혁명가정이다. 왕평, 왕평의 아버지, 왕평의 어머니 쑹마마는 항일혁명사상의 영향을 받아 날로 각성되었고 끝내는 항일유격대를 보호하기 위하여英勇하게 희생하는 민중영웅의 형상이다. 왕평의 아버지는 유격대를 숨겨둔 죄로 일경 오장에게 무참히 살해 되었고 왕평의 어머니 쑹마마는 남편의 뜻을 이어가는 진보적 여성으로 유격대 경찰원 뼈꼭새를 자기 집 움에 숨겨두고 보호한다. 그는 적들의 그 어떤 위협과 공갈에도 굴하지 않고 초지를 지켜 싸우다가 오장의 총에 살해된다. 왕평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 그리고 유격대의 항일투쟁의 영향을 받아 유격대 경찰원 뼈꼭새가 맡긴 임무수행에 나섰다가 체포된다. 그는 혹형에도 굴하지 않고 싸우다가 역시 오장의 총에 살해된다. 그는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도 “중조 두 민족은 다 같은 형제이니 같이 싸워야 합니다. 무산자는 모두가 같은 처지이니 저를 믿으십시오”라고 자신의 이념과 이상을 피력한다. 작품에서는 항일유격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쑹마마 일가의 민중적 영웅형상을 통하여 항일투쟁에서 형성된 중한연대의식이 중국 민중속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제시한 동시에 항일투쟁에서의 중국인들의 각성과 영웅적 투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항일유격대 투쟁서사에서는 민중들의 각성을 다양하게 보여 주는 바 「싸우는 밀림」에서의 계순은 남편 박민이 주는 임무 즉 분산된 민중을 일제와의 싸움에 나서게끔 조직동원하는 임무수행을 위해 나섰다가 적에게 체포되고 혹형을 받으며 아이를 낳아 더더욱 참혹한 현실에 직면한다. 그러나 그는 적들의 혹형에도 굴하지 않고 완강하게 싸우며 갓 난 어린애를 남겨두고 비장하게 희생된다. 그는 항일혁명가의 아내로서 무산계급사상으로 무장된 여성혁명가의 형상이다. 이와 함께 작품에서 나오는 왕로인은 항일유격대의 영향 밑에서 각성되어 적과의 싸움에서 몸바쳐 간 민중의 형상이기도 하다.

작품들에서는 당시 항일투쟁에서의 일본군포로에 대한 대적 선전사상도 보여 주어 주목된다. 「싸우는 밀림」에서의 연락병 일본군병사는 박민의 교양하게 전향하게 된다. 연락병은 항일유격대가 가지고 있던 진보적 사상 즉 포로를 학대하지 않고 교육을 선행한다는 이념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일본 연락병 형상을 통해 항일유격대에서의 일본군 포로교육은 조선의용대에서의 대적 선전 특히는 일본군 포로교육이념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항일유격대 서사에서는 이중주체로서의 항일유격대의 정체성의 복합적 특질도 잘 보여준다. “싸우는 밀림이여, 네가 낳은 이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될 때 중화민족에게는 영원히

적수가 없으리라. 우리 천만년 백두산은 중화민족과 함께 살아있다” 이는 「싸우는 밀림」의 결말에 부친 작가-화자의 독백이자 역시 주인공-항일 유격대의 지향이기도 하다. “우리 다시 싸워 이겨 돌아 올 때 온 중국 어머니들께 영원한 웃음을 안겨 줄 것이다.” 이는 「혈해지창」에서 왕평의 죽음을 두고 쫓마마를 위안하는 정찰원 뽕꼭새의 말이다. “우리의 북간도는 이런 피바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화민족의 영웅적 노래는 끝없이 중국별판에 퍼질 것입니다.” 뽕꼭새는 왕평 등의 시체우에 붉은 기를 덮어주며 이같이 말하고 있다. 상기 표현속에는 이중주체로서의 항일유격대의 정체성이 보여지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항일연군 소속으로서의 항일유격대의 군인정체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작품에서는 또한 한국인 이민들의 정체성의 변화양상도 보여주어 주목된다. 『밀림은 싸운다』에서 왕로인, 김로인, 박로인 등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고 받는다. “우리 만주에 와서 손에 피고름이 맺히도록 나무를 찍어다 기둥을 세운 뒤 밭을 옥답으로 만들어 겨우 이뤘 놓은 이 터전을 우리는 목숨으로 지켜야 할 책임이 있수다” “오늘은 이 땅에서 내 피를 뿌려 씨앗을 가꾸었으니 예가 내 고향이우” “우리의 고향은 우리가 지킵시다” 이와 같이 작품을 통해 중국으로 온 한국인들의 이민과 정착과정, 새로운 고향의식과 이중적 정체성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

민중항일투쟁서사 작품들은 중국의 항전승리와 한국의 독립을 불가분리의 관계로 인식하고 중국의 항일투쟁에 참가하게 된 역사적 과정과 항일투사들의 국내진출, 나아가서 한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싸워 나선 한국 민중의 민족적 각성과 헌신적 투쟁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민중항일투쟁서사 작품들은 주로 연극, 가극의 형식을 취했는데 조선의용대, 한국청년전지공작대, 항일유격대 등 항일부대에 의해 창작 공연되었으며 중한 민중들에게 “항일구국, 전면항전” 사상과 중한연대 의식을 고취하려는 데 주된 동기가 있었다고 보아진다. 때문에 연극, 가극 등은 상당한 선전 선동성과 대중성을 가지었다. 따라서 무장부대 군인들에 의해 창작된 연극, 가극들은 중한 공동배역, 공동공연, 이중언어 대사 등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합작과 공동서사의 형식을 취하기도 했다. 주요한 작품으로 조선의용대에서 창작공연한 연극 「도문강변」(1939), 「조선의 딸」(김창만, 1939), 가극 「아리랑」(김창만, 1939)⁴⁵, 한국 전지공작대에서 창작 공연한 가극 「아리랑」(한유한, 1940)⁴⁶, 연극 「국경의 밤」(1939, 한국 전지공작대 집체창작), 「한국의 한 용사」(한유한, 박동운, 1940)⁴⁷, 항일유격대에서 창작공연한 「꽃과는 처녀」, 「성황당」 등이 있다.

⁴⁵ 가극은 일제의 침탈에 항거하여 싸우기 위해 항일유격대 지휘 밑에 아리랑 고개를 넘나들며 적과 싸우고 나중에는 희생되는 비장한 장면을 가극으로 한 작품이다.

⁴⁶ 1940년 1월 서안에서 전지공작대에 의해 총 타이틀을 「아리랑」으로 한 공연이 있었는데 공연작품으로 가극 「아리랑」과 연극 「국경의 밤」, 「한국의 한 용사」 등이 있었다. 「아리랑」공연은 당시 중국 인들속에서 광범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국경의 밤」, 「한국의 한 용사」는 중국어로 공연되었다. 「국경의 밤」은 압록강변에서 중국 의용군과 한국 혁명군이 함께 일본군과 싸우는 과정을 묘사한 작품으로, 중조 두 나라 군대가 적의 방어선을 폭파하고 싸우다가 끝내 실패하여 희생하게 된다. 「한국의 한 용사」는 1941년 1월 일본헌병대의 통역관으로 있던 박동운이 포로가 된 중국인 유격대장과 6명의 유격대원을 구출하고 자신도 적군의 말과 무기를 가지고 적진을 탈출하여 전지공작대로 입대해 실제 사실을 소재로 한 연극이다.

⁴⁷ 「국경의 밤」은 1939년 10월 중경에서 공연된 바 있다. 「국경의 밤」과 「한국의 한 용사」는 서안

우선 민중항일투쟁서사 작품들은 한민족의 이민과 정착, 그리고 항일투쟁의 역사를 폭넓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민족적 각성을 이룩한 민중들은 직접 항일무장대오에 참가하거나 항일투쟁을 지지, 성원한다. 조선의용대에서 창작 공연한 연극 「도문강변」은 일제와의 진공전에서 부상을 입고 희생된 오빠의 손에서 총을 받아 쥔 누이동생과 수많은 동지들이 도문강변에 누워있는 투사의 시체를 넘어 적진을 향해 전진하는 민중적 형상을 통해 천백만 민중들의 각성과 투쟁을 보여준다. 또한 김창만이 창작한 가극 「아리랑」에서는 아리랑고개라는 특정된 이미지를 통해 죽음의 고개를 넘어 중국으로 와서 항일투쟁에 참가하는 한민족의 항일혁명투쟁노정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해 보이고 있다. 일제의 세기말적인 수탈에 못이겨 수많은 한국 사람들은 남부여대하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 중국 동북으로 가야했다. 물론 이러한 민족의 대이동의 앞장에는 항일구국의 뜻을 지닌 항일 애국투사들이 서 있었다. 아리랑 고개는 바로 국경에 자리 잡은 산으로 햇빛을 볼 수 없고 음산한 추운 바람이 부는 지옥같은 곳이다. 이 아리랑고개에는 수많은 민족영웅들과 전사들의 시체가 묻혀야만 했다. 가극에 등장하는 농민과 그의 딸은 유랑의 아픔을 안고 아리랑 노래를 부르며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바로 이 순간 한 청년이 권총을 들고 나타나 “당신들은 아리랑 고개를 넘을 수가 없어요. 당신들이 넘어간다면 나는 이 총으로 당신들을 죽이겠어요. 지금 아리랑은 조선인 망명의 죽음의 종착점이니 조국에서 죽어야 해요”라고 하면서 아리랑 고개를 넘지 못하게 한다. 이처럼 가극에서는 새로운 아리랑 이야기와 아리랑 민요형식을 빌어 남부여대하고 조국을 떠나는 망국노의 처참한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아리랑 산에서 희생된 무수한 혁명자들의 형상을 빌어 일제에 대한 항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아리랑 고개-죽음의 산은 혁명승리를 약속하는 혁명의 산으로 될 수 있음을 암시, 상징하기도 한다. 한유한이 창작한 가극 「아리랑」도 역시 목동과 시골처녀가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아리랑 고개를 넘어 혁명군에 참가하여 싸우다가 장렬하게 희생되는 이야기를 통해 진보적 항일 혁명투사의 성장과정과 그 비극적 역사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작품은 “주인공들의 육신은 죽지만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바탕으로 아리랑 산에 한국 국기가 휘날리며 미래의 승리를 전망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이러한 점은 아리랑 고개는 “고난과 눈물과 설움의 고개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삶, 투쟁의 삶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⁴⁸ 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상기 두 작품은 항일투쟁에 쫓겨하는 한국의 민중들의 시대적 각성, 그리고 항일혁명 군인들의 성장사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상징성이 부여된 아리랑 이미지에 새로운 희망을 부여한 점은 예술적 창조이기도 하다. 한국인 혁명가 김산은 미국기자 님 웨일즈와의 취재에 임한 자리에서 “만주벌판 어디에서나 조선인 의용병이건 중국인이건 모두가 아리랑을 부르고 있다”고 회려했고 또한 “아리랑 고개에서 기다리는 것은 죽음 뿐이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아리랑 고개에서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수많은 죽음 가운데 승리가 태어 날 수도 있다”라고 의미심장하게 말

에서 중국어로 공연되었다.

⁴⁸ 정우택, 「한국 청년 전지공작대의 가극 ‘아리랑’ 공연과 그 의의」, 『한국민요학』, 제21집, 한국민요학회, 2007.12

한 바 있다. 아리랑 고개는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찾을 수 있는 “죽음의 고개”인 동시에 “희망의 고개”로서 “탈출의 공간”인 동시에 “귀환의 공간”이다. 상기 두 작품에서의 아리랑의 상징적 의미는 민족의 현실과 정서, 이상과 신념을 민족의식의 심층으로 확장, 육박해 가는데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두 부의 가극 「아리랑」은 한민족의 항일정신과 민족성을 중국에 선양하고 중한연대를 형성함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다음으로 민중투쟁서사 작품들은 역시 중한연대로 특징되는 항일투쟁의 한 측면을 보여 주기도 한다. 연극 「국경의 밤」은 중한 열혈청년들로 조직된 동북의용군과 한국혁명군이 눈 내리는 겨울밤, 압록강 국경선에서 공동의 적인 일제와英勇하게 싸우다가 희생되는 비장한 사실을 통해 중한 군민들의 항일투쟁에서의 연대의식, 그리고 불굴의 투쟁정신을 보여주며 「한국의 한 용사」는 1941년 일본헌병대 통역관으로 있던 박동운이 포로가 된 중국인 유격대장과 6명의 유격대원을 구출하고 자신도 적들의 문건과 무기, 말 3필을 가지고 헌병대를 탈출하여 한국청년 전지공작대원이 된 사실을 통해 항일투쟁에 있어서 중한 두 나라는 운명의 공동체임을 제시해 보였다. 상기 작품들은 1930년대 후반 중국에서는 통일전선이 형성되어 항일구국, 전민항전의 기치 밑에 항일투쟁이 고조되고 따라서 반파시스트 다국 동맹이 형성되었으며 특히 조선의용대, 항일유격대, 한국 전지공작대 등이 중국의 항전에 투입하여 중국 군민과 협동작전하여 영웅적 위훈을 떨치었던 역사현실에 대한 예술적 재현이기도 한다.

또한 민중항일투쟁서사 작품들은 한국의 항일무장대오와 한국 국내 민중의 연합작전과 그 승리를 보여주어 특히 주목된다. 조선의용대의 연극 「조선의 딸」은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헌신적으로 싸우는 조선민중의 시대적 각성과 유격대의 국내진출에 따른 항전투쟁의 역사적 과정을 보여준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가 있다. 연극 『조선의 딸』은 3.1운동 20주년을 기념하여 가극『아리랑』과 함께 중국 계림에서 공연한 작품으로 중국에서 단막극 『도문강변』을 공연한데 이어 두 번째로 되는 공연된 연극작품이다. 『조선의 딸』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려 한다.

『조선의 딸』은 2막으로 된 연극으로 주제가 선명하고 인물형상이 생동하며 서사성이 강한 것으로 특징된다. 극본이 없어 그 전모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작품의 구성을 복원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일제의 약탈과 한국인의 봉기. 여주인공 애련의 각성과 카페생활, 애련의 혁명활동과 항일투사의 국내잠입, 애련의 장렬한 죽음과 일본놈 처단 등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극에서의 애련, 애련의 할아버지, 애련이의 오빠 광호, 그리고 순삼이는 긍정적 인물계열로 부각되었다. 할아버지는 민족적 양심과 항일의식을 소유한 인물로 형상되었고 광호와 순삼이는 중국으로 망명한 항일투사로 형상되었다. 연극의 여주인공 애련이는 할아버지와 광호의 영향으로 각성하여 혁명적인 대열에 들어선 인물로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발전시키는 매개자적 역할을 한다. 애련이의 성격은 할아버지에 대한 동정과 이해, 혁명 활동에 나서려하는 오빠 광호에 대한 지지, 그리고 적과의 싸움에서의 용감성과 슬기, 헌신적 정신 등을 통해 생동하게 창조되었다. 애련의 형상은 항일투쟁에서 헌신적으로 싸우다 희생된 조선의 수많은

여성혁명가의 전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연극에서의 숙부는 일제의 주구로 타카하시사 단장 및 나까무라 경찰서장과 함께 민중의 적으로 온갖 만행을 감행하지만 결국 혁명세력에 의해 처단되는 것이다.

연극은 주제의식이 선명하고 극적 갈등이 첨예하며 슈제트가 복선적이며 인물형상의 성격 창조가 일정한 깊이를 보여준다. 연극은 생동한 인물형상으로 식민지시대 조선민중의 운명과 각성, 항일구국을 위한 자아희생정신, 일제의 약탈과 패배 등 항일투쟁의 제반 역사현실을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상기 작품은 계림에서 연속 세 차례나 공연하여 당시 관중들에게서 절찬을 받았고 조선의 용대의 사회영향력을 크게 확대하였다. 특히 계림에서의 공연이 끝난 뒤 중국 문인들은 조선의 용대의 공연에 대해 높이 평가했던 바 연극 『조선의 딸』은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英勇하게 희생하는 조선 아들딸을 묘사한 역사극”⁴⁹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조선의용대 정치조 조장으로 있던 김규광도 「『조선의 딸』을 공연한 혁명의의」⁵⁰란 문장을 발표하여 공연이 가지는 혁명적 의의를 천명했다.⁵¹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연극 『조선의 딸』은 사상내용의 진보성과 예술형식의 참신성 등으로 하여 비단 조선의용대 항일투쟁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항전문예운동사 나아가서 중한 문예교류사에서도 중요한 위치가 있다. 여기서 한마디 부언한다면 중국의 무대에서 중국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란 점을 간과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중들의 열광적 환영을 받았다는 점은 상기 작품이 조선민족의 불요불굴의 항일정신을 생동한 예술형상을 통하여 깊이 있게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공연활동을 통해 주류사회로 진출하여 항일담론을 만들어 내려는 조선의용대의 그 집요한 문화정신을 읽을 수 있으며 동시에 이중적인 문화정체성과 문화적인 혼종성이 가지는 특이한 문화적 힘도 가늠하게 된다.

항일무장투쟁서사 작품들은 20 세기 전반기 일제침략과 문화패권에 맞서 싸우는 한민족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투철한 민족의식, 그리고 중한연대의식, 민중의 각성과 투쟁 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국민군에 소속된 한국 의용대와 항일연군에 소속된 항일유격대의 항일무장투쟁서사 작품들은 비록 이념의 차이를 갖고 있으나 일제에 대한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민족독립과 자유를 위한 지향, 그리고 항일전쟁에서 형성된 중한 연대의식 등 면에서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⁴⁹ 전심, 「『조선의 딸』과 「아리랑」, 『동방전우』, 제4기, 1939.4.1

⁵⁰ 김규광, 「『조선의 딸』을 공연한 혁명의의」 (『조선의용대통신』, 제 6기, 1939.3)

⁵¹ 김규광은 연극의 혁명적 의의는 우선 3.1운동을 진실하게 재현한 데 있다고 했다. 그는 연극에서 일제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중봉기는 바로 3·1운동(봉기)을 재현한 것으로 일제의 침략에 의한 조선의 참담한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했고 또한 일제와 맞서 싸우는 조선 사람들의 혁명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 공연은 조선민족의 희곡이 처음 중국 계림에서 신기록을 남기었으며 따라서 각계 사회 인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국제적 및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했다.(동상)

5. 존재의 이유: 망향애환서사와 한의 정서

한국의 망명지사들은 가열차절한 항일투쟁의 나날에 고향과 조국, 그리고 가족과 벗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마음을 달래야 했다. 이러한 고뇌와 아픔의 정서를 보여준 작품들을 망향애환서사라고 할 수도 있겠다.

망향애환서사에서 민족의 망향을 보여준 작품으로 신채호의 시 「너의 것」, 「새벽의 별」, 「무궁화의 노래」, 「고국」⁵² 등과 시 「인제 철아에게 영락정시를 드리노라」, 「이충무공 한산도 기념」, 「나의 신령을 사랑하노라」, 이두산의 시 「어머니의 비석」, 문명철의 시 「금강산에 가고파」 등을 들 수가 있다. 민족의 애환을 보여주는 작품으로는 신규식의 시 「오랜 동지이며 인제인 조완구에게 전하노라」, 「북경, 천진의 동지들이 체포되었다」, 「라공 홍암 선생을 추도하여」, 「홍암 선생을 위한 추도문」, 「추도사」, 신채호의 「도제 4 언문」⁵³, 조선의용대 김창만의 가극 「아리랑」과 한국 청년전지대의 가극 「아리랑」을 들 수가 있다.

망향애환서사 작품들의 공통한 특징은 망명인 특유의 정체성 담론, 문화무의식, 한의 정서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민족정체성은 민족에 대한 우월감 혹은 귀속감으로 특징된다. 정체성이란 “스스로 새롭게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것이며 그것은 “정체성의 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가장하는 주체 변형의 생산물이다”⁵⁴ 식민지시대 한국인에게 있어서 정체성문제는 그 무엇보다 첨예한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였다. 그것은 일제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하여 이른바 “내선일체” “동족동근”을 떠벌리면서 창씨개명 시책을 자행했고 나아가서 민족문화 말살책으로 민족역사교육과 민족언어 문자사용을 제한하였다. 바로 일제의 강권진압과 문화패권으로 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은 크게 흔들리었다. 이른 바 일제의 “황민화운동”의 선두자로 나선 문인들의 출현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가령 식민지시대 민족정체성을 두고 이야기 할 때 망명지사들은 가장 확고하게 정체성을 가진 민족 군체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그들은 중국체험서사, 특히는 망향애환서사를 통하여 한민족의 민족정체성을 보여주었다. 실로 그들은 민족문화, 민족정신의 수호신이 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신채호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그리움을 통해 민족정체성을 형상적으로 보여주었다. 시 「너의 것」은 대표적인 작품으로 주목된다.

너의 눈은 해가 되어/여기저기비치우고 지고/님나라 발가아지게//너의 눈은 꽃아 되어/여기저기 피고지고/님나라 고와지게//너의 숨은 바람되어 /여기적 불고지고/님나라 깨끗하게//너

⁵² 본 논문에서 인용된 신채호의 시문은 박정규 편역 『단재 신채호 시선집』(기별미디어, 2013)에 준함.

⁵³ 본 논문에서 인용된 신규식의 시문은 김동훈 외 편역 『신규식 시문집』(민족출판사, 1998)에 준함.

⁵⁴ 호미바바, 나병철 옮김, 『문화의 위치-탈식민주의 이론』, 소명출판, 2002, 424-425쪽

의 말은 불이 되어/여기저기 타고지고 /님나라 더워지게//살은 썩어 흙이 되고/뺨는 굳어 돌
되어러/님나라 보태지게//

시에서 시인은 님나라 - 조국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려는 뜨거운 지향을 생동한
비유와 간결하고도 아름다운 율조에 담아 진지하게 노래하고 있다. 시인은 것처럼 귀중한 존
재인 눈과 피, 숨과 말을 그대로 님나라—조국으로 하여금 더욱 밝아지게 하고 깨끗하게 하
며 더워지게 하는 해와 꽃, 바람과 불이 될 것을 갈망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인은 살
아서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자기의 모든 존재를 님나라에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과
뺨는 돌과 흙이 되어 님나라에 보태질 것을 희망한다. 시편에는 민족 내지 조국에 대한 귀속
감이 시적 정서의 율조를 타고 전해진다. 또한 시 「새벽의 별」에서도 시인은 새벽의 별이란
특정한 이미지를 통해 조국의 미래한 대한 지향과 민족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었다.
새벽을 지켜 나선 별은 구름이 끼거나 안개가 일거나 눈이나 비가 오나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며 그것은 정녕 조국과 민족의 광명을 예워 오려는 빛이다. 새벽의 지향, 그것은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자유에 대한 염원이었으며 아름다운 사회에 대한 깨끗한 희망이었다. 신채호
의 상기 작품들은 그가 기타 중국체험서사에서 자주 이야기된 담론 즉 “국가주의 시대에는
국가가 내라”, “애국자가 나라 밖에 다른 사랑이 있어도 애국자가 아니다.”라는 정채성 담론의
시적 승화로서 “노화순정”(炉火纯青)의 심리회귀이고 영혼의 불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신채
호는 이외에도 망향시 「1월 28일」, 「고국」 등에서 고향과 친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통
해 민족정체성을 생동하에 표현했었다.

망향애환서사 작품들은 또한 망명지사들의 문화무의식을 잘 보여주어 각별히 주목된다. 매
개 민족에게는 집단무의식이 있거니와 이러한 집단무의식은 흔히 문화무의식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한국 망명지사들의 문화무의식을 보여준 작품으로는 신규식의 「홍암선생을 위한 추도
문」은 주목된다. 작품은 대중교 교주인 나홍암의 죽음을 슬피 여겨 쓴 애환서사로서 시인의
문화무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이 작품에서는 나홍암을 민족정신의 상징으로 예찬하
고 있다. 시인에게 있어서 나홍암은 민족정기를 타고난 전설적인 인물로 형상하고 있는 바
시인은 그의 출현을 두고 “태백은 아아하고 신조는 장중한데/폭풍뢰를 이끌고 세상에 내렸어
라// 서울은 여럿이고 겨레는 수두룩한데/천부를 잡았으니 권위가 당당하도다”라고 한다. 시
인은 나홍암을 태초 때부터 내려온 민족역사와 민족영웅과 연결된 인물로 보면서 겨레들은
그의 주위에 뭉쳐 싸운다고 한다. 또한 그의 위용을 두고 “유유한 이 세상에 오는 이는 그
누구뇨/아아한 삼위는 신광에 휩싸였구나//천경은 정초되고 신명은 발불했으니/기린타고 상조
하면 백신이 받든다네”라고 한다. 문화무의식은 한 개 민족의 신화에 대한 당대 담론으로 기
역의 복술이며 그러한 복술은 민족적, 심리적 고뇌가 무의식으로 작동될 때만 가능하여 보인
다. 상기 시인의 민족의식의 심층에는 문화무의식이 작동함으로서 불굴의 항일정신과 민족
적 기백은 용암처럼 솟구치고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한국 망명인들의 망향애환서사는 한국인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한의 미적정서를

은근하게 보여주고 있는 바 항쟁의 울림은 민족의 한의 정서와 유착되어 있다. 한민족의 문학에 있어서의 한의 정서는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원인이 있으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동아시아 미학사에 있어서 한국인의 “한”과 중국인의 “원”, 일본인의 “애”는 물론 서로 공통점이 있으나 그 차이점으로 독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문학에서의 한의 정서는 신라향가, 고려가요, 그리고 이조 가사와 시조 등에서 나타나고 있고 현대에 있서는 본토시인들인 김소월, 박팔양 등 시에서 이어졌다. 이와 함께 망명지사들의 망향애환서사에서도 나타났던 바 그것이 항일투쟁정신과 결합되었다는 점은 특히 주목된다. 한의 정서를 반영한 작품으로서는 신규식, 신채호 이두석 등 작품들에서 잘 보여진다. 망명지사들의 민족체험-특히는 망국노로서의 이역체험이 한으로 이어졌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특히 신채호는 자기의 필명을 무애생으로 했고 신규식은 자신의 필명을 청구한인으로 했거니와 필명에서조차도 한의 정서가 한결 두드러져 있다. 주요한 작품으로 신규식의 시 「태루를 돌아보며—겸곡, 가인, 일주, 철아와 함께」, 「또다시 인제들과 함께 잔을 기울리며」, 「강서에서 배를 타고 청도로 가다—철아, 소창, 예봉이 나를 내려주다」, 신채호의 시 「1월 28일」, 「고향이 그리워」, 「임술년 가을 밤에」 등을 들 수가 있다. 신규식 시의 한의 정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나무 잎은 지고 기러기는 울어대는데
 루각의 뜨내기는 가을 철이 서글프도다
 간밤에는 기러기 생각에 눈물 흘렸거니
 이역 땅에선 망명의 설음 가실 길이 없네
 삼시에 풍운이 일어 세상이 변하는데
 하늘 땅을 휘잡을 자는 그 누구더냐
 늙은 이는 정정하고 현자들은 홀룡한테
 피안의 횡류에 우리 배를 띄워 보자

—신규식, 「또다시 인제들과 함께 시를 짓노라」

일제의 치하에서 망국노가 된 설음을 토로하면서 그러한 험악한 현실을 돌려 세우지 못하는 민족적 한을 토로하고 있다. 시 「태루를 돌아보면서—겸곡, 가인, 일주, 철아와 함께 읊는다」는 시인이 꿈결에도 망명지사인 박은식, 홍명희 등을 그리보며 애환을 달랜 시이다. “때로는 행로에 놓인 잔도가 근심인데, 그대 그리며 꿈결에 어양을 찾았어라”라고 하면서 뜻을 같이 한 망명동인들의 어려움을 근심한다. “원수를 죽이지 못함은 나의 한이여니, 교만한 자의 간섭과 광분이 오래 못가리. 누각은 아늑하고 실바람이 불어오는데, 한가로이 글재주를 부림이 부끄럽도다”라고 하면서 일제를 철저히 제거하지 못한 한스러움을 “부끄러움”이라는 말로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신채호의 망향애환시들도 한의 정서를 잘 나타내고 있다.

외로운 등잔불 바둑거리며 내수심을 돋우네
 안타까운 일편단심 다 태워 버리고저
 외로운 창을 들어 나라 운명 못 돌리고
 모지라진 붓을 가져 역사를 끄적이네
 이역방랑 무릇 십 년에 서리발 수염에 흘날고
 병석 신음 밤은 삼경에 달빛이 루에 드네
 고향의 룡어회맛 하도 좋다 말을 말아
 지금은 땅 없거니 어선을 어따매리

- 「임술년 가을 밤에」

시에서는 나라 잃은 망명인의 수심과 단심이 한의 정서속에서 절절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상에서 망향애환서사의 특징을 정체성담론, 문화무의식, 한의 정서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 보면 정체성담론, 문화무의식, 한의 정서 등은 고립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서로 교차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그러한 교차는 망명인들의 민족의식과 정감표현의 시대적, 민족적 특징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6. 경계의 넘기: 서사의 다양성과 문화 혼종성

중국체험서사는 서사양식에 있어서도 문화혼종성을 중심으로 하는 제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이중, 다중언어 창작으로 중국, 한국 독자들의 요구에 따랐고 특히 주류사회 진출과 중국 진보적 인사들과의 공동담론과 상호 인지를 보여주었다. 창작에 있어서의 근대 한문과 국문의 병행, 현대 한문과 국문의 병행, 그리고 일본어 영어, 에스페란토어 등 언어의 창작 등이 다양하다. 이를테면 신채호는 고한문 창작과 국어의 창작을 병행시켰는데 중한 연대형성과 중국인들속의 영향을 고려하여 근대 한문으로 정론과 시문을 발표했고 국내독자를 고려해서 국문으로 수필과 시문을 창작했다. 또한 류자명의 경우에도 광주기행문 같은 것은 국문으로 써서 국내에 발표했는데 목적은 국내 독자들에게 급변하는 중국시국을 알리려는 데 있었고 소설 「조선혁명일사」, 그리고 다수의 정론은 중국독자를 고려하여 현대한어로 창작 발표했던 것이다. 특히 이두산⁵⁵의 경우는 국문, 현대한어, 일어, 영어, 에스페란토어 등 다중 언어로 창작했던 바 사회영향과 독자층을 면밀하게 고려한 것 같다. 예를 들면 가사는 한국인에게 불리워져야 하는 만큼 국문으로 창작했고 기타 시가, 수필, 정론 등은 현대 한문으로 창작했던 바 중국인들속의 영향을 고려했으며

⁵⁵ 이두산은 한국어로 가사를 창작했고 중국어로 정론, 수필, 사론을 발표했으며 영어로 단평을 발표했고, 일본어로 반일선전 방송연설했으며 그것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동방전우』, 『조선의용대통신』 등을 참조)

일부 단평은 영어, 일어, 에스페란토어로 발표했는데 세계적인 영향을 고려한 것 같다. 부동한 언어는 부동한 세계를 해석, 획득한다고 할 때 한국 망명문인들의 이중 언어, 내지는 다중 언어 창작은 이중 주체신분으로 중국의 혁명에 뛰어들었던 문화적 신분과 관련되며 특히는 근대, 현대 한문창작은 중국의 주류사회에 뛰어들어 중국 지성인들과의 교류를 가지고 주류담론을 형성해 가며 그 사회적 영향을 획득하려는 망명인들 특유의 선택이라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문학창작과 번역, 출간에 있어서 공동합작, 공동공연 등 새로운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이범석과 푸나이푸의 공동서사 「한국의 분노(청산리 혈전실기)」는 독립운동가와 중국 작가와의 합작이고, 김산과 미국 님웨일즈의 공동서사 「아리랑」은 한국 독립운동가와 미국 기자와의 합작이다. 상기 합작서사는 물론 이야기의 구술자와 문인의 합작이지만 특수한 전쟁의 년대의 투사와 진보적 문인사이의 공동지향과 상호 인지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국 망명지사들의 삶, 그 자체가 문학이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번역 합작이다.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는 중국의 진보적 문인들을 크게 감동시켰고 번역 출간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조선의용대의 항일서사의 중요한 작품인 「전선에서의 조선의용대」 작품 외 다수 작품들은 조선의용대의 중국인 대원들의 번역을 통해 출간되었다. 그 주요한 번역자로 중국인 유금용, 왕계현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러한 점은 중한 연대로 이어진 중한 항일투쟁은 문학적 서사영역에까지 연대성을 체현한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는 중국인들의 지대한 관심속에서 출판되었는 바 박은식의 「안중근전」의 출간을 위해 중국의 100 여명 문인들이 동참하여 서문, 비문, 독후감 등을 써 주었고 『유방집』에는 중국인 40 여명이 서문과 제사를 써 주었다. 이는 전대미문의 문단거사로서 근대 중국문단의 “일대 사변”이라 말할 수도 있겠다. 이와 함께 한국망명자들의 가극 연극 등을 무대화 시킴에 있어서 중국 예술기관과 예인들의 전폭적인 지지, 협조를 받았는 바 조선의용대의 가극 「아리랑」, 연극 「조선의 딸」, 그리고 전지공작대가 서안에서 공연한 「아리랑」도 중국 예술인들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무대화 시켰다. 따라서 중한 예술인들의 공동배역, 공동무대 설계, 공동음악 반주 등이 있었기에 그 공연이 크게 성공하였고 따라서 사회 각계 인사들의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며 사회적 영향력도 크게 확장할 수가 있었다.

다음으로 서사주체의 다양성과 중국체험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중국체험서사의 경우 서사주체는 전문적인 문인군체가 아니라 다양한 서사사건과 내용의 직접적인 체험자들이다. 예하면 신규식은 신해혁명에 참가했고 류자명은 의열단 폭력투쟁의 조직자이며 신채호는 무정부주의 활동의 참가자이다. 이외 의용대 항일서사의 주체들인 의용대 선전원, 그리고 주요 작자들인 김창만, 이두산은 의용대의 골간인물이며 아리랑 창작의 한유한 역시 한국 청년공작대의 중견 예술인이며 조선유격대 항일서사의 주체는 역시 항일유격대 대원들이다. 타국 문인들과의 공동저자로 된 이범석 등도 독립투쟁, 항일투쟁의 체험자이며, 김산도 조선의열단 등 단체에 참가했고 중국공산당 지하활동의 인물이다. 이러한 서사주체의 직접적이고 다양한

중국체험은 인물형상창조와 사상, 정서의 전달에 진실성, 생동성을 보여 주기도 한다. 이를테면 신채호의 소설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 보면 무정부주의에 대한 투철한 이해, 그라고 형상창조를 통한 무의식의 표현 등 작자의 사상과 영혼 및 심리의 문학적 승화를 잘 보여준다. 김산, 이두산의 관련 작품도 시대와 혁명에 대한 이해 등에서도 투철성과 심각성을 보여 준다. 이와 함께 서사양식의 변천과 다양성을 보여준다.

또한 서사양식에 있어서 인물전기로부터 시가, 소설, 산문, 희곡(가극, 연극) 등 장르로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예하면 가령 망국 전후의 의사투쟁은 전기로 되었다면 의사폭력서사와 무정부주의 투쟁사사는 소설형식으로 되었다. 이러한 점은 문학적 상상력이 상당히 제고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항일투쟁서사에서의 「전선에서의 조선의용대」를 보면 주로는 전선에서 보낸 르포(보고문학)의 형식을 보여주지만 그 외에도 수필, 일기 등 다양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은 한 면으로는 전시문학적 특징을 보여주고 다른 한 면으로는 다양한 형식으로 전선의 상황을 알릴 것을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가극, 연극의 새로운 형식이 성숙되었는데 항전문예를 통해 중국 국민에 대한 선전, 선동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서방의 무대예술의 영향과도 관련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는 언어의 다중성, 공동서사와 번역협작 등 혼종성의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상기한 특징을 보여 줄 수 있는 전제로서의 서사주체, 서사양식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의 혼종성의 특징은 국가적, 민족적,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여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위한 이상을 위한 문학적 실천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식민지 망명인들의 문학이 문화적인 혼종을 거쳐 주류담론으로의 진출과 새로운 민족문화창출을 동시에 완성한 좋은 예증이기도 하다.

7. 나오는 말

한국 망명애국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는 망명문학의 성격과 특징 등을 잘 보여준다. 한국 망명지사들의 중국체험서사는 제국주의 침략과 문화패권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보여주는 반제 반식민지 저항문학이라는 데 그 성격적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담론을 통한 근대성, 항일담론을 통한 저항성, 민족담론을 통한 정체성, 평화담론을 통한 연대성, 탈경계 서사를 통한 문화혼종성 등으로 나타난다.

중국혁명서사는 중국인식을 통한 근대적 민족국가상상을 보여주며 의사투쟁서사는 중국 경내에서 벌어졌던 한국 망명지사들의 항일구국투쟁의 역사현장을 생생하게 재현했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 특유의 민족정신을 중국에 전파시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안중근전」의 영향은 문학텍스트의 역할을 넘어선 전대미문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전선에서의 조선의용대」 등 항일투쟁서사 작품은 중국 국민군과 조선 의용대의 영웅적 항전 모습을 보여준 귀중한 텍스트이며 「혈애지창」 등 작품들은 사회주의 영향하에서 형성된 한국인 항일무장대오의 성장과정과 항일투쟁정신을 보여 준다. 따라서 비록 부동한

이데올로기적인 특징을 구현하고는 있지만 조선의용대서사와 항일유격대서사가 보여주는 중한 연대의식은 근대 동아시아의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평가된다. 망명애환서사는 정체성 담론, 문화무의식, 한의 정서 표출로 민족성을 잘 보여 준다. 이와 함께 탈경계 체험과 서사적 책략을 통해 얻어진 문화혼종성은 다중언어 서사, 공동서사(공동합작 창작, 공동합작 번역, 공동합작 공연) 등으로 특징된다. 서사의 문화혼종성은 망명지사들의 문학으로 하여금 주류사회와 문단의 진출을 가능하게 했다.

한국 망명애국지사들의 중국체험 서사는 한국의 항일문학사 내지는 근대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가 있을 뿐더러 중한 근현대 문학교류사 특히는 상호 탈경계서사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망명애국지사들의 문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자료발굴과 비교문학적 연구가 깊이 있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동훈 이선했 편, 『신규식 시문집』, 민족출판사, 1998
2. 『류자명자료집』, 독립운동편,충주시 충주 mbc, 2006
3. 조소앙, 『유방집』, 대동학회, 1932
4. 김구, 『백범일지』, 나남, 2002
5. 『우등불』,철기 이범석 장군 기념사업회, 백산서당, 1940
6. 염광(장지락), 「기괴한 무기」
7. 님웨일즈, 김산, 『아리랑』, 동녘, 1984
8. 김병민 편, 『신채호문학유고집』, 연변대학출판사, 1994
9. 최봉춘 편역, 『朝鮮義勇隊血戰實記』, 밀양문화원, 2006
10. 『혈애지창』, 까마귀, 1938
11. 『밀림은 싸운다』, 까마귀, 1938
12. 김병민, 이춘광 주필, 『중국현대문학과 ‘한국’자료지총서』, 연변대학출판사, 2013
13. 『진단』, 진단보사, 1920
14. 최광식 역주, 『단재 신채호의 ‘천고’』, 아연출판부, 2004
15. 『조선의용대 통신』, 조선의용대 간행, 1939.1.21-1942.5 『조선의용대통신』은 제 34 기부터 『조선의용대』로 이름 고치였다.
16. 『조선민족전선』,제 1 기-제 6 기, 조선민족 전선동맹 기관지, 류자명, 김규광 주필, 1938.4-1938.
17. 『동방전우』, 동방전우사, 이두산 주필, 제 1 기-42 기, 1939.1-1942.4
18. 『한국청년』, 제 1 기- 5 기, 한국 전지공작대, 1940
19. 김병민, 「대화와 상상: 단재 신채호의 동아시아인식과 근대상상」, 『국어국문학』,제 174 호, 2016.3.
20. 김병민, 「저항과 상상: 망명공간과 중국체험서사—류자명의 산문의 경우」, 『한국문학과 예술』 제 21 집, 2017.3
21. 김병민, 「조선의용대 관련 항일서사에 대한 문화적 고찰」, 『통일인문학』, 제 72 집, 2017.12
22. 김병민, 「중국 망명시기 예관 신규식의 의식세계와 문학상상」, 『호서문화』, 제 5 집, 2017

언어 변화와 어문규범, 그리고 한국어 교육

송 철 의
(서울대 명예교수)

1. 머리말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므로 언어도 시간이 흐르면 변한다. 그러나 언어의 변화는 대체로 매우 점진적이어서 일반 사람들은 언어가 변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한편 어문규범이란¹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정해 놓은 규정”인데, 이 어문규범은 어문생활의 질서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개정하지 않는 한 저절로 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실 언어에 비해서는 고정적이다. 그래서 흔히 어문규범은 보수적이라고 말한다.

현실 언어는 변하는데, 어문규범은 보수적이므로, 어문규정이 제정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르면 현실 언어와 어문규범 사이에는 괴리가 생기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 현실 언어의 변화를 어문규범에 어느 정도 반영시킬 것인가? 이것이 어문정책 담당자들에게는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현실 언어와 어문규범의 괴리는 한국어 교육자들에게도 고민스러운 일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불규칙 활용의 변화와 체언어간말 자음(군)의 단순화 현상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 보고자 한다.

2. 현행 한글 맞춤법과 역사적 표기

현행 한글 맞춤법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 그 이후 소소한 수정이 있었고, 1988년에 재정비 되면서 그 명칭도 ‘한글 맞춤법’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표기법의 근간은 여전히 그 대로 유지되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본 원칙으로 삼았던 것 중의 하나는 현실 언어와 부합하지 않는 역사적 표기(다른 말로는 ‘관습적 표기’)는 배제하고 언어 현실에 부합하는 표기를 하자는 것이었다. 즉 역사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발음이 바뀐 것은 바

¹ 한국어 어문규범에는 네 가지가 있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 로마자 표기법’

편 발음대로 표기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긔차’로 표기하던 것을 ‘기차’로, ‘셔울’로 표기하던 것을 ‘서울’로, ‘녀름’으로 표기하던 것을 ‘여름’으로, ‘도션’으로 표기하던 것을 ‘조선’으로 표기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도 역사적 표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않았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역사적 표기가 남아 있는 것이다. 역사적 표기의 예로서는 [ㄷ]로 소리나는 것을 ‘ㅅ’으로 표기하기로 한 것²(덧저고리, 무릇, 얼핏)과 소위 ‘ㅅ’불규칙 용언의 어간말음을 ‘ㅅ’으로 표기하기로 한 것(짓고, 굿고)을 들 수 있다. ‘덧저고리’의 ‘덧’이나 ‘무릇, 얼핏’에서의 ‘ㅅ’ 받침은 늘 [ㄷ]로만 발음되기 때문에 ‘ㅅ’으로 적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이들을 ‘ㅅ’으로 적기로 한 것은 [ㄷ]로 발음되는 받침을 ‘ㅅ’으로 표기해 온 표기의 전통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표현을 빌리자면 ‘在來의 버릇을 따라’³ 그렇게 표기하기로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18, 19세기의 한글 표기법에서는 받침 ‘ㄷ’을 ‘ㅅ’으로 적는 강한 경향이 있었다. ‘받고, 듣고, 믿고’를 ‘밧고, 뎡고, 밋고’로 표기했던 것이다.

ㅅ-불규칙 활용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될 당시에 ‘짓다’는 [진고, 진는, 지으니, 지어서]와 같이 발음되었다. 이러한 발음 현실을 바탕으로 표기를 하였다면 ‘짓다’의 활용형 표기는 ‘진고, 진는, 지으니, 지어서’와 같이 표기했어야 한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짓고, 짓는, 지으니, 지어서’와 같은 표기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문법서들에서는 ‘짓다’류를 ㅅ-불규칙이라고 명명하였다. ㅅ-불규칙 용언들의 어간말음을 ‘ㅅ’으로 표기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첫째는 여기서도 표기의 전통, 혹은 표기의 관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 용언의 어간말음은 현대한국어에서 어떤 경우에도 [ㅅ]로 발음되는 경우가 없다. 그런데도 이들 용언어간의 어간말음을 ‘ㅅ’으로 표기한 것은 이들 용언어간 말음의 받침을 늘 ‘ㅅ’으로 표기해 온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들 용언어간 말음을 현실 발음을 고려하여 ‘ㄷ’으로 표기하게 되면 한국어에 ㄷ-불규칙 활용이 두 가지가 있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들 용언어간 말음을 ‘ㅅ’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현실 발음대로 ‘짓다’를 ‘진다’로 표기하게 된다면 ‘진다’도 ㄷ-불규칙이 되는데, ‘듣다’와 같은 기왕의 ㄷ-불규칙과는 불규칙 활용의 양상이 다르므로 이 둘을 구별해 주어야 한다.

- (1) 듣다 : 듣고 듣는 들으니 들어 들었다 (ㄷ-불규칙 1)
- 진다 : 진고 진는 지으니 지어 지었다 (ㄷ-불규칙 2)
- 믿다 : 믿고 믿는 믿으니 믿어 믿었다 (규칙 활용)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전통적인 표기법과는 달리 현실 발음을 대폭 반영한 표기법이

²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1장 제4절, 한글 맞춤법 제7항

³ 한글맞춤법통일안 제6항 참조.

었다.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말 표기를 현실 발음과 일치시키는 것이 표기법의 혼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라고 여겼다. 이러한 인식은 개화기부터 있었던 것인데, 현대 한글 맞춤법의 근간을 마련한 주시경은 우리말을 현실 발음대로 표기하되, 문법에 맞게 표기하는 것이 표기법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혹은 표기법을 통일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다. 그것은 물론 매우 타당한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실제 맞춤법 규정을 만들 때에는 부분적으로 현실 발음을 따르지 않고 역사적 표기를 받아들인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3. 불규칙 활용의 변화와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불규칙 활용의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중요한 논란거리의 하나였다. 현대 한글 맞춤법의 근간을 마련한 주시경은 불규칙 활용의 경우 조차도 본음을 밝혀 어간을 고정시켜 표기하려 하였다. ‘추워, 지어, 우는, 흘러’를 ‘츄어, 짓어, 울는, 흐르어’로 표기하려 하였던 것이다.

(2) 추워→츄어, 지어→짓어, 우는→울는, 흘러→흐르어

그리고서는 ‘츄-’의 ‘ㅄ’, ‘짓-’의 ‘ㅅ’, ‘울-’의 ‘ㄹ’은 실제로는 발음되지 않으니 까 그 ‘ㅄ, ㅅ, ㄹ’에 사선을 그어 이 ‘ㅄ, ㅅ, ㄹ’이 발음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려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맞춤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규칙 활용은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최현배도 최현배(1930)에서는 불규칙 활용을 인정하지 않다가 최현배(1934)에서 한국어 용언의 불규칙 활용을 인정하고서 불규칙 활용을 11가지로⁴ 정리하여 제시했다. 그런데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불규칙 활용을 8가지 만 언급하였다.

(3) 제3장 제4절 변칙 용언

- ① 어간의 끝 ㄹ이 ㄴ ㅂ 과 ‘오’ 우에서 주는 말 (‘ㄹ’불규칙)⁵
- ② 어간의 끝 ㅅ이 홀소리(母音) 우에서 줄어질 적 (‘ㅅ’불규칙)
- ③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 적 (‘ㅎ’불규칙)
- ④ 어간의 끝 ㄷ이 홀소리 우에서 ㄹ로 변할 적 (‘ㄷ’불규칙)
- ⑤ 어간의 끝 ㅂ이 홀소리 우에서 ‘우’나 ‘오’로 변할 적(‘ㅂ’불규칙)
- ⑥ 어미 ‘아’나 어간의 아래에 오는 ‘았’이 ‘여’나 ‘였’으로 날 적(‘여’불규칙)

⁴ 이때까지는 우-불규칙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

⁵ 불규칙 명칭은 필자가 써 넣은 것임.

- ⑦ 어미 ‘어’와 어간 아래에 오는 ‘었’이 ‘러’나 ‘렀’으로 날 적(‘러’불규칙)
- ⑧ 어간의 끝 음절 ‘르’의 다음에 어미 ‘어’와
어간 아래에 오는 ‘었’이 올 적에 ㄱ가 줄고 르이 르르로 날 적(‘르’불규칙)

소위 으-불규칙 활용은 제5장 ‘略語’⁶ 부분에서 다루었다. ‘크-+-어→커, 크-+-었다→켰다’를 준말 형성으로 본 것이다. 거라-불규칙 활용과 너라-불규칙 활용은 하나의 활용형(해라체 명령형)에서만 문제가 되는 아주 특수한 것들이어서 맞춤법 규정 속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던 듯하다.

우-불규칙 활용을 처음 언급한 것은 박창해(1946)이었다(고영근 1983:69). ‘푸다’ 한 단어에 해당되는 불규칙 활용이라서 불규칙 활용 논의에서 간과되어 오다가 박창해(1946)에 이르러 발견이 된 듯하다. 최현배(1934)에서 11가지로 정리되었던 한국어 불규칙 활용에 우-불규칙이 추가됨으로써 불규칙 활용이 12가지로 늘어났다. 우-불규칙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한글 맞춤법’으로 명칭도 개정하면 서 그 내용도 수정 보완한 1988년에 이르러서야 맞춤법 규정에 포함되었다. 맞춤법이 보수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예가 아닌가 한다. ‘한글 맞춤법’에선 종래 ‘준말’항에서 다루었던 으-불규칙 활용도 불규칙을 다루는 조항으로 가져 왔다. 그리고 으-불규칙과 우-불규칙을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서 다루었다.

(4) 한글 맞춤법 ‘제18항의 4’ 어간의 끝 ‘ㄷ, ㄴ’가 줄어질 적

푸다 : 퍼 뻤다, 꼬다 : 끼 켜다, 크다 : 커 컸다

한글 맞춤법과 현실 언어 사이의 괴리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예는 ‘그러다’류 동사와 관련된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어 문법서들에서 불규칙의 종류는 대개 12가지라고 기술되어 왔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현배(1934)에서 제시된 11가지에 박창해(1946)에서 새로이 제시한 우-불규칙이 추가된 숫자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들어서서 한국어에 또 하나의 불규칙 활용이 발생하였다. ‘그러다’류 동사들의 활용이 이에 해당한다. 규칙 동사인 ‘서다, 건너다’와 ‘그러 다’의 활용양상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5) 서다 : 서고 서는 서니 서면 서 서서 썼다
건너다 : 건너고 건너는 건너니 건너면 건너 건너서 건넜다
그러다 : 그러고 그러는 그러니 그러면 그래 그래서 그랬다

⁶ 略語(약어) = 준말

‘서다, 건너다, 그러다’는 모두 어간이 모음 ‘ㄴ’으로 끝나는 동사들인데, 위의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 동사 어간에 모음어미가 결합될 때 ‘서다, 건너다’는 규칙 활용을 하지만, ‘그러다’는 규칙 활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규칙 활용을 하는 동사라면, 그 어간에 모음어미가 결합할 때의 활용형은 ‘그러, 그러 서, 그랬다’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그러다’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그러다’류를 무슨 불규칙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어간말음 ‘ㄴ’이 ‘ㄹ’로 바뀐다고 보고서 송철의(2004)에서 이들을 어-불규칙이라고 명명 하였다.⁷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다’류는 ‘그렇다’류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독자적인 단어들이다. ‘그렇다’류가 ‘그러하다’류로부터의 발달형이라면, ‘그러다’류는 ‘그리 하다’류로부터의 발달형이다. 다만, ‘그렇다’류의 발달과정은 어렵지 않게 규명되는데, ‘그러다’류의 발달과정은 그렇게 투명하지는 못하다는 차이는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한국어에서 ‘그러다’류가 독자적인 단어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그러다’류는 분명 독자적인 단어들이고 불규칙 활용을 하는데,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글 맞춤법’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어 문법서들에서도 이 어-불규칙에 대한 언급은 최근까지 없었다. 왜 그랬을까? 이는 아마도 ‘그러다’류가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한 것이 최근의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러다’류를 독자적인 동사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도수희(1965)이다. 도수희(1965)에서는 ‘그렇다’류를 대형용사(代形容詞)로, ‘그러다’류를 대동사(代動詞)로 설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러다’류가 독자적인 동사로서의 활용을 보여 준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 이후 한국어의 대용언(代用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그러다’류를 독자적인 용언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고, 배주채(1995)에서 ‘그러다’류의 활용 양상 및 사전적 처리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표준국어대사전》(1999년)에 이르러서는 ‘그러다’류가 독자적인 항목으로 등재되고 이들이 불규칙 활용을 한다는 사실이 발음 항목에서 제시되었다⁸. 그러니까 ‘그러다’류는 1990년대에 와서야 그 독자성이 인정되고, 새로운 종류의 불규칙 활용을 한다는 것이 인정된 셈이다. 사정 이 이러했으니 1933년에 제정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나 1988년에 개정된 ‘한글 맞춤법’에 어-불규칙이 반영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어-불규칙도 ‘한글 맞춤법’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불규칙을 맞춤법 규정에 반영한다면 ‘한글 맞춤법’ 제18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될 것이다.

(6) 어간의 끝 ‘ㄴ’이 ‘ㄹ’로 바뀔 적

그러다 : 그래, 그랬다

⁷ ‘그러다’류가 ‘어’불규칙이라는 것을 처음 제시한 것은 일본에서 1993년에 간행된 《朝鮮語辭典》(油谷幸利 外 編)이었다. 배주채(2003)에서도 ‘그러다’류를 ‘어’불규칙으로 설명하였다.

⁸ ‘그러다’ 항목의 발음정보 난에 ‘[그래, 그러니]’와 같은 활용형이 제시되었다.

이러다 : 이래, 이랬다

저러다 : 저래, 저랬다

4. 체언어간말 자음의 변화와 표준 발음법

현재 한국어에서는 체언어간말 자음이 단순화되는 변화의 큰 흐름이 있다. 즉, 어간말의 자음군(子音群)은 단자음(單子音)으로, 격음(거센소리)은 평음(예사소리)으로 단순화되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단어에 따라서는 변화가 완료된 듯한 경우도 있다.

먼저 어간말 자음군을 가지는 경우부터 살펴 보기로 하자.

(7) 러 : 닭, 흙, 춥

래 : 여덟

빠 : 값

이들 어간말 자음군을 가지는 체언에 모음조사가 결합되면 어간말의 두 자음이 모두 발음되고, 자음조사가 결합되면 두 자음 중 한 자음만 발음되는 것이 표준 발음이다.

(8) 흙 : 흙이[흙기], 흙을[흙글] / 흙과[흑파], 흙도[흑또]

닭 : 닭이[달기], 닭을[달글] / 닭과[닥파], 닭도[닥또]

여덟 : 여덟이[여덜비], 여덟을[여덜블] / 여덟과[여덜과], 여덟도[여덜도]

값 : 값이[갑씨], 값을[갑쓸] / 값과[갑파], 값도[갑또]

서울말에서 자음군을 가지는 체언에 자음조사가 결합될 때에는 발음상의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모음조사가 결합될 때에는 발음상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모음조사가 올 때에도 두 자음 중 한 자음만 발음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흙이’를 [흙기]로 발음해야 하는데 [히기]로 발음한다든가, ‘닭을’을 [달글]로 발음해야 하는데 [다글]로 발음하는 예들이 많은 것이다. 그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속의 발음).

(9) 흙 : 흙이[히기], 흙을[히글]

닭 : 닭이[다기], 닭을[다글]

여덟 : 여덟이[여더리], 여덟을[여더를]

넋 : 넋이[너기], 넋을[너글]

값 : 값이[가비], 값을[가블]

위의 (9)와 같이 발음하는 것은 어간말 자음군을 가지는 체언어간들이 단자음을 가지는 어간으로 변화(재구조화)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10) 닭>닥, 흙>흑, 여덟>여덜, 녀>녀, 값>갑

체언어간말 자음의 변화는 어간말음이 격음인 경우에도 일어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ㄷ’은 ‘ㄱ’으로, ‘ㅌ’은 ‘ㄴ’으로, ‘ㅊ, ㅌ’은 ‘ㅅ’으로 변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어간말음이 격음인 체언의 예들을 몇 개씩 들어 보면 다음 과 같다.

(11) ㄷ : 부엌

ㅌ : 걸, 밀, 밭, 솔, 팔

ㅌ : 무릎, 숲, 앞, 옆, 오지랖, 잎, 형겅

ㅊ : 꽃, 낮, 돛, 뗏, 빗, 솟, 옷

이들 체언어간에 모음조사가 결합되면 어간말음이 제 음가대로 발음되는 것이 표준발음이다.

(12) 부엌 : 부엌이[부어키], 부엌을[부어글]

솔 : 솔이[소치], 솔을[소틀]

무릎 : 무릎이[무르피], 무릎을[무르플]

꽃 : 꽃이[꼬치], 꽃을[꼬출]

어간말음이 격음인 체언의 경우에도 자음조사와 결합할 때에는 발음상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모음조사와 결합할 때에 문제가 발생한다. 모음조사와 결합할 때 (12)와 같이 발음하는 것이 표준발음인데, 다음과 같이 발음하는 경우 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3) 부엌 : 부엌이[부어기], 부엌을[부어글]

솔 : 솔이[소시], 솔을[소슬]

무릎 : 무릎이[무르비], 무릎을[무르블]

꽃 : 꽃이[꼬시], 꽃을[꼬슬]

위의 (13)과 같이 발음하는 것은 ‘부엌, 솔, 무릎, 꽃’이 각각 ‘부엌, 솟, 무릅, 꽃’으로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14) 부엌>부억, 솥>솟, 무릎>무릅, 꽃>꼇

이는 앞에서 살펴 본 어간말 자음군을 가지는 체언들의 변화와 같은 성격의 변화이다. 두 자음이 하나의 자음으로 줄어드는 것이나 격음이 평음으로 변하는 것은 다 같이 복잡한 것에서 단순한 것으로 변하는 변화(단순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현대 한국어에서는 체언어간말 자음들이 단순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어간말음을 가진 단어들이라도 단어에 따라 변화의 정도는 다르다. 예컨대 어간말음이 ‘교’인 ‘무릎, 오지랴, 앞, 옆’의 경우 ‘무릎’과 ‘오지랴’는 ‘무릅’, ‘오지랍’으로의 변화가 거의 완료되어 가지만, ‘앞, 옆’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참고로 2004년도의 조사 결과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5) 무릎	: 무릎이[무르비] 58.4%,	무릎에[무르베] 63.1%
오지랴	: 오지랴이[오지리비] 74.7%,	오지랴에[오지라베] 65.25%
앞	: 앞이[아비] 5.6%	앞에서[아베서] 5.4%
옆	: 옆이[여비] 7.15%	옆에서[여베서] 5.35%

‘앞, 옆’에 대한 최근의 조사결과 보고가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서울말에서는 ‘앞이’를 [아비]로 발음하거나 ‘옆이’를 [여비]로 발음하는 경우가 아직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앞’과 ‘옆’은 거의 변화를 입지 않은 것이다.

한국어의 체언어간은 근대한국어 시기(17세기-19세기)에 이미 어간말 ‘ㄷ’이 모두 ‘ㅅ’으로 변하는(‘ㄷ’말음 어간이 ‘ㅅ’말음 어간으로 변화되는) 큰 변화를 겪은 바 있다.

(16) 못(釘)>몯, 붓(筆)>붓, 벗(友)>벗, 곳(處)>곳

이러한 변화는 ‘ㄷ’ 받침을 갖는 체언의 모든 단어에서 예외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의 한국어에는 체언으로서 어간말음이 ‘ㄷ’인 단어가 없다. 그래서 외래어를 받아들일 때에도 어간말음이 ‘d, t’인 단어를 음차(音借)하여 받아들일 경우에는 그 ‘d, t’를 ‘ㄷ’이나 ‘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robot’을 ‘로봇’이나 ‘로봣’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로봣’으로 받아들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로봇이[로보시], 로봇을[로보슬]

근대한국어 시기에 어간말 ‘ㄷ>ㅅ’ 변화를 겪은 한국어 체언은 현대한국어 시기에 와서는 어간말 자음의 단순화라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은 체언어간에서만 나타나고⁹ 용언어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 자립형식인 체언어간과 비

⁹ ‘ㄷ>ㅅ’ 변화는 부사 ‘몯’에서도 일어났다. 몯>몯

자립형식인 용언어간은 역사적인 변화에서도 이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흥미롭다.

5. 언어 변화와 어문규범 정책

앞에서 한국어 불규칙 활용의 변화 몇 가지와 체언어간말 자음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런 예들을 통해서 한국어가 현대에 들어 와서도 계속 변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은 한국의 어문규범이 제정된 뒤에 나타난 변화들이어서 어문규범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어문규범과 현실 언어 사이에 괴리가 생기게 되었다.

물론 이들 변화 중에 어떤 것은(예컨대 어-불규칙이 새로 생겨난 것) 어문규범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그 변화가 표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별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다’ 같은 경우, 불규칙 활용을 하는 동사이므로, 이 동사가 모음계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아직은 맞춤법 규정 속에 그런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이 동사의 모음계어미 활용형을 ‘그래, 그래라, 그랬다’와 같이 표기하는 것을 누구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규범에 따른 표기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은 언젠가 어문규범(한글 맞춤법)에 반영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들은 어문규범과 현실 언어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어문생활에서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는다. 어문규범에는 해당 규정이 없지만, 언중들이 암묵적으로 현실 언어 상태를 표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체언어간 말음이 단순화되어 가는 변화는 어문규범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어문규범과 현실 언어 사이에 괴리가 생기게 할 뿐만 아니라 표준발음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언중들이 일상 언어생활에서 표준발음법에 어긋나는 발음을 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 변화까지를 어문규범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언어현실을 받아들여 ‘닭, 흙’을 ‘닥, 흑’으로 표기하기로 하고 ‘부엌, 무릎, 술, 꽃’을 ‘부억, 무릅, 숯, 꽃’으로 표기로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변화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어문생활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¹⁰.

현실 언어의 변화를 어문규범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는 어문정책 담당자들에게는 늘 고민일 수밖에 없다.

6. 언어 변화와 한국어 교육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 언어를 외국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는 표준어를 가르친다. 표준어는 온 국민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이면서, 인위적으로 잘 다듬어진 언어이기 때

¹⁰ 예외적으로 이러한 변화(체언어간말 자음의 단순화)를 발음상으로는 허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 있다. ‘ㄷ, ㅌ, ㅌ, ㅍ’의 자모 이름에 모음 조사가 결합될 때 다음과 같이 발음하도록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치읓이[치으시], 키읓이[키으기], 티읓이[티으시], 피읓이[피으비]

문이다.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역시 그 외국어의 표준어를 배우려고 한다. 그 나라에서 널리 통용되는 언어는 표준어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표준어란 규범에 맞는 언어를 말하는 것으로서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도 한국어를 가르칠 때에는 한국어의 표준어를 가르치려고 할 것이다. ‘한글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쓰고,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하도록 가르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어 교육에서 표준 발음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흔히 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표준발음법에 어긋나는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는 다음의 (17ㄱ)이나 (18ㄱ)과 같이 발음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자신의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17ㄴ)이나 (18ㄴ)과 같이 발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교육 현장에서도 자신은 표준발음법대로 발음한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입에 익은 평소의 발음으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듯하다. 필자가 스스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

(17ㄱ) 흙이[흙기], 흙을[흙글]	(17ㄴ) 흙이[호기], 흙을[호글]
답이[달기], 답을[달글]	답이[다기], 답을[다글]

(18ㄱ)부엌이[부어키], 부엌을[부어클]	(18ㄴ)부엌이[부어기], 부엌을[부어글]
무릎이[무르피], 무릎을[무르플]	무릎이[무르비], 무릎을[무르블]
꽃이[꼬치], 꽃을[꼬출]	꽃이[꼬시], 꽃을[꼬슬]

따라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다른 사람들의 말과 발음은 물론이고 자신의 말과 발음도 스스로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어 교육에서 현실 한국어(자연스러운 일상의 한국어)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할 것인지, 주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런 정보를 준다면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로 주어야 할 것인지 하는 것도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어떤 분의 회고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답이, 답을’, ‘무릎이, 무릎을’, ‘꽃이, 꽃을’의 발음을 열심히 ‘[달기], [달글]’, ‘[무르피], [무르플]’, ‘[꼬치], [꼬출]’로 가르쳤는데, 서울에 1년간 교환학생으로 갔다 오더니 ‘[다기], [다글]’, ‘[무르비], [무르블]’, ‘[꼬시], [꼬슬]’로 발음하면서 서울에 갔더니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다르게 발음하는 것들이 많더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근(1983), 《국어문법의 연구》, 탑출판사.
- 국어연구소(1988), 《한글 맞춤법 해설》.
- 국립국어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주)두산동아.
- 국립국어원(2004), 《2004 표준 발음 실태 조사 3》.
- 국립국어원(2016),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
- 도수희(1965), {그러나, 그러고.../그러니, 그러면...} 等 語辭攷, 《한국언어문학》 3, 한국언어 문학 회.
- 박창해(1946), 《쉬운조선말본》, 계문사. (역대한국문법대계 1-65)
- 배주채(1995), ‘그러다’류의 활용과 사전적 처리에 대하여, 《한일어학논총》 (남학 이종철 선생 회갑기념논총), 국학자료원.
- 배주채(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 송철의(1995), 곡용과 활용의 불규칙에 대하여, 《진단학보》 80, 진단학회.
- 송철의(1996), 우리말 발음의 문제점과 그 극복 방안, 《한글사랑》 창간호, 한글.
- 송철의(2004), ‘ㅎ’불규칙과 ‘어’불규칙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조선어연구》 2, 조선어 연구회 (일본).
- 송철의(2010), 《주시경의 언어이론과 표기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유필재(2001), 서울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문(1970), 《개화기의 국문연구》, 일조각.
- 이익섭(1992), 《국어표기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희승(1959), 《한글맞춤법통일안강의》(수정판), 신구문화사.
- 정경재(2015), 한국어 용언 활용 체계의 통시적 변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선어학회(1933), 한글맞춤법통일안, 한성도서주식회사. (한국역대문법대계 3-20)
- 최명옥(1988), 불규칙동사의 음운현상에 대하여 : li-, la-, ɛ(jə)-, h- 불규칙동사를 중심으로, 《어학연구》 24-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최현배(1930), 조선어의 품사분류론, 《조선어문연구》 (연희전문학교 문과연구집 제 1 집), 연희전문학교출판부. (한국역대문법대계 1-44)
- 최현배(1934), 《중등조선말본》, 동광당서점. (한국역대문법대계 1-43)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초판), 연희전문학교출판부.
- 최현배(1955), 《우리말본》 (김고 고친 판), 정음사.
- 한수정(2014), 불규칙용언의 활용형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油谷行利 外 編(1993), 《朝鮮語辭典》, 小學館.

유럽 (대학 전공)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미래: 몇 가지 쟁점과 과제

연재훈 (Yeon, Jaehoon) (iy1@soas.ac.uk)
런던대학교 소아스
(SOAS, University of London)

1. 들어가기

- 언어를 배우는 목적 (Cook 2008: 209ff)
 - 외국 문화의 이해 (Understanding foreign cultures)
 - 언어 자체의 이해 (Understanding language itself)
 - 인지적 훈련 (Cognitive training)
 - 일반 교육적 가치 (General education values)
 - 학문으로서의 외국어 학습 (Learning the foreign language as an academic subject)
- 교사는 언어 교수와 학습 목적 숙지해야.
- 교수방법과 교과과정은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1. 언어교육에 대한 기본적 가정 (Cook 2008: 4ff)

- (1) 전제 1: 교육의 기본은 글말이 아니라 **입말**이다.
- (2) 전제 2: 교사와 학생은 교실에서 제1언어(모어)가 아닌 **목표어**를 사용해야 한다.
- (3) 전제 3: 교사는 **명시적인 문법 설명은 피해야** 한다.
- (4) 전제 4: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를 **원어민화자**처럼 만드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런 전제들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2. 의사소통교육 vs. 문법교육

- 명시적 문법 교육도 1970-80년대 '의사소통 교육'의 위세에 눌려 변방으로 밀려 났다가 1990년대 '**형태중심교육**' (focus on form)이란 이름으로 부활.
- '문법'이란 용어는 아직도 **금기어**처럼 취급받고 있고 문법을 가르치더라도 문맥 속에서 가르치든가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암묵적**으로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명시적 문법** 교육도 대학의 외국어 교육 과정에서는 필요할 수 있다.
- 또 외국인 학습자가 **원어민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며 또한 그럴 필요가 있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1.3. 국어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차이

- (a) 한국어문법은 단일한 문법 형태소뿐만 아니라 특정한 **유형, 문형, 덩어리** 들을 포함할 수 있다.
((어/아)서 : -는 바람에, -기 때문에, -는 통에; -려고 하다, -(으)ㄴ 수 있다, 등등)
- (b) 한국어 문법은 형태 중심의 문법이 아니라 **의미/기능 중심**의 문법이 될 수 있다.
(기능중심의 한국어문법 체계 (한송화 2006))

(c) 한국어 문법은 분석적인 문법이 아니라
종합적인 문법이 될 수 있다.

(예: 관형형 어미 -ㄴ, -르 : -는, -(으)ㄴ, -(으)르, -던;
보조동사: -을까 보다; 연어: -을 위해, -에 대해(서))

(d) 한국어 문법은 세부적인 면에서 **단순화된 문법**이 될 수 있다.

(예; 1. '-게 하다' 구성: 보조동사 or 복합문 동사
2. 종속절이냐 부사절이냐의 구별,
3. 내포문의 종류와 구분 등 중요하지 않다!)

2. (유럽) 대학 한국어 교육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

- 유럽의 한국어 교육은 전통적으로 대학의 **전공과정**으로서 개설되어 왔고 그 역사도 아주 길다.

- **학문 목적**으로 개설된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는 학습자의 다양한 수요와 필요에 따라서 진행되는 **실용적 한국어 교육 과정과는 다른 쟁점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1) 언어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 언어 교육의 목적.
- 한국학 전공 연구를 위한 도구 기능이나 통/번역 등이 학과의 특성상 중요시된다면 이에 따라 교육 방법과 중점이 달라질 수 있다.
- 기본적으로 언어는 **체계, 행위, 문화**의 3가지 측면이 어우러져 이루어지고 교육되어야 한다.

(2) 언어 교육의 요소: 구조적 지식 (문법)도 필요한가?

- 의사소통 교수법에서는 구조적 지식보다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지만 **대학의 한국어 교육은 구조적 지식 필요**.
- **정확성과 숙달도** 달성을 위해 문법 교육 필요. 다만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는가가 중요하다. 외국어로서의 문법은 간결하고 학습자의 교육 배경과 학습 능력을 고려해야.
- 문법 설명은 **학습자의 모어와 한국어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최대한으로 활용.
- 문법 교육은 연역적 방법보다는 **귀납적 방법**이 효과적이다.

(3) 교실 학습에서 문법 용어를 사용해서 가르칠 것인가? (주어/목적어, 자동사/타동사, copula, 관계절 등등)

대상 학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학습자가 성인일수록, 또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모국어 학습에서 문법용어를 사용한 문법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문법용어를 사용한 교육이 효과를 보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분석적인 성향**을 가진 학습자일수록 문법용어의 사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Borg 1999: 99).

(4) 교실에서 학습자의 모어 사용 문제

외국어 교실에서는 목표어만을 사용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되고 있지만, 문법이나 개념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학습자의 모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

(5) 유형 연습은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가?

유형연습은 구두·청각식 교육방법의 하나로, 일반적으로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여겨지지만, 교실 언어 수업에서 여전히 유용하고 필수적인 연습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다만 다른 연습 방법들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물론 바람직하다.

(6) 번역 연습은 필요한가?

번역 연습도 의사소통 방법론에서는 보통 기피하는 연습 방법 중의 하나이지만, 인지 능력이 발달한 성인 학습자에게 번역 연습은 축지법적인 효과.

(7) 암기는 언어 학습에 효과가 있는가?

- "주입식이나 공식적으로 '배워진' 지식은 '습득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에서 사용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암기는 모든 언어 학습의 기초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최승자 2016 등).

(8) 학습자의 실수와 오류는 바로 고쳐 주어야 하는가?

- 여기에도 정답은 없다. 오류 수정의 방법이나 빈도는 학습자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9) 교과과정(syllabus)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 문법 위주의 교과 과정에서는 단계별 지식 축적식의 방법이 이용되고, 행위나 과제 중심 교과 과정에서는 문법 소개의 단계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교수법에 따라서 교재의 특성이 차이를 보인다.

(10) 한국어 표준발음을 얼마나 정확히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 학습자가 한국어 모어화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가능한가 혹은 바람직한가? (Cf. English RP)

- 미세한 발음의 차이나 음운의 변별력은 대부분의 경우에 문맥에서 예측 가능하다. 특별히 어려운 발음의 음운 변별쌍을 가지고 모어 화자 같은 발음 연습을 강요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효과적이지 않다.
(예; 불:풀:뿔 등의 최소변별쌍)

- 학생들에게 개별적 음소에 대해서 발음을 가르치고 교정해 주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쿡(2008:81)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11) 어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네이션 Nation 2001: 16)

- 직접 학습법(설명, 정의, 사전 찾기 등)과 간접학습법(문맥, 활동을 통한 습득) 등 다양한 방법.

=====

*어휘학습과 관련된 근거없는 믿음 (myth) (Folse 2004)

신화 1: **단어장**으로 단어를 외우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신화 2: **의미장**(semantic sets)으로 단어를 배우는 것이 효과적.

신화 3: **단어 번역** 학습은 지양해야 한다.

신화 4: **문맥 추론** 방식이 효과적이다.

신화 5: **단일어사전** (monolingual) 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다양한 실험 결과는 이러한 믿음들이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다 (cf. Iwasaki (in press))**

(12) 언어 교실에서 **문화 교육**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가? (강현주 2014, 배재원 2011, 박정미 2015, 최준식 2012 등 참고)

- 문화교육은 언어 교육을 통해서 **암묵적/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화' 항목을 **별도로** 설정해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가?

- 문화 내용 전달에 치중하여 언어 교육과는 별개로 이루어지거나 언어교육을 소홀히 하기 쉽다는 점에 주의.

- **객관적이고 문화 보편적** 자세를 유지하며 학생들의 의견과 경험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문화 민족주의나 근거 없는 문화 우월주의, 혹은 현대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전통 한국 문화를 과도하게 많이 소개하는 것은 거부감 유발.

- 문화교육을 위해 **문화 교수요목을 초급-중급-고급으로 분류** 기술하는 방법도 얼마나 논리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깊이 있는 문화 수업은 언어 수업과는 별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2.1. 효과적인 언어교육 (Littlewood 2013)

1. **절충적** 방식
2. 의사소통적 방식과 기술을 전통적 방식에 **통합**
3. **목표어**를 많이 듣고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4. **의미/기능**뿐만 아니라 **형식**도 중시
5. 학습자의 **자연적** 학습기회 중시
6. 학습자의 **무의식적/자동적** 학습뿐만 아니라 **의식적** 지식도 중시
7. 학습자의 **개인적** 차이도 중시
8. 규칙뿐만 아니라 **숙어 표현** 등도 중시
9. 학습자의 **모어**를 교실에서 학습의 자원으로 사용

- 결론적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학 한국어 교실에서 사용하는 주요 학습 방법으로는 문법 설명과 번역, 묻고 답하기를 통한 유형 연습, 유형 연습을 통한 언어습관 형성, 행위나 과제 수행을 통한 의사소통 방법 습득 등 다양한 방법을 **절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유럽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보통 대학 전공 과정의 일환으로 가르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학문 목적으로 배우는 대학생 학습자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절충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교수법과 교재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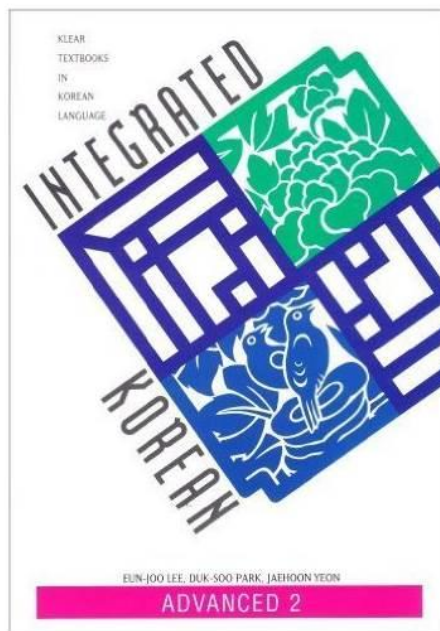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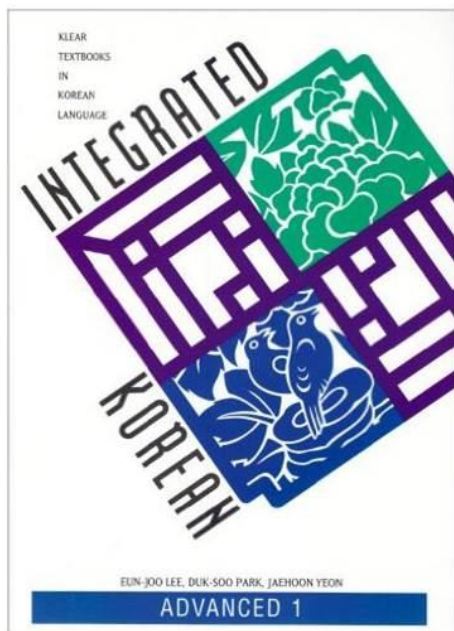
3. 적절한 교재 선택의 문제

1. 충분한 문법 구조 설명 부족
 2. 현지어 교재 부족
 3. 다양한 목적을 위한 교재 개발 필요
- 완벽한 교재는 없다.
 - 학생의 수용와 필요에 맞는 적절한 교재를 선택하고 보충하는 것이 교사의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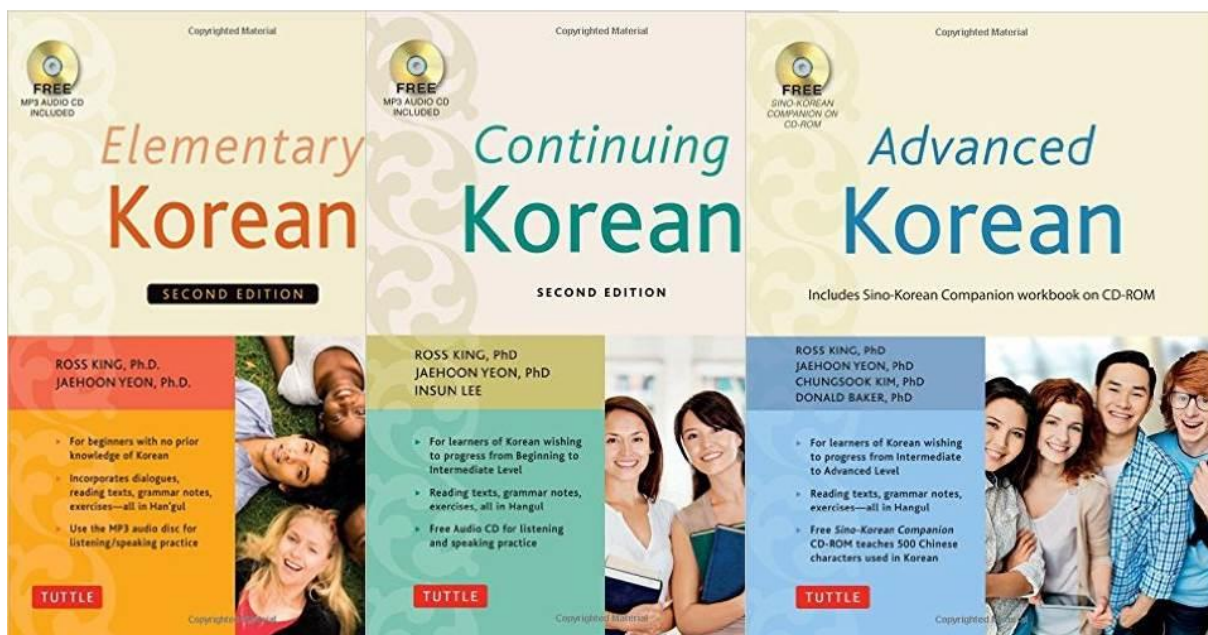
3.1. 필자가 집필한 영어권 한국어 교재

- **Integrated Korean** (Advanced 1, 2) (Lee, Park and Yeon) 2005. (UHP)
- **Elementary Korean, Continuing Korean, Advanced Korean** (King & Yeon et. al) 2000/2002/2015. (Tuttle)
- **Complete Korean** (Vincent & Yeon). 1997/2014. (TY series)
- **Get Started in Korean** (Yeon, J). 2014. (TY series)
- **Korean: A Comprehensive Grammar** (Yeon & Brown) 2011. (Routledge)
- **Routledge Intermediate Korean Reader** (Yeon, Kiaer, & Brown). 2013. (Routledge)
- **Speed up your Korean: Strategies to avoid common errors** (Brown & Yeon). 2016. (Routl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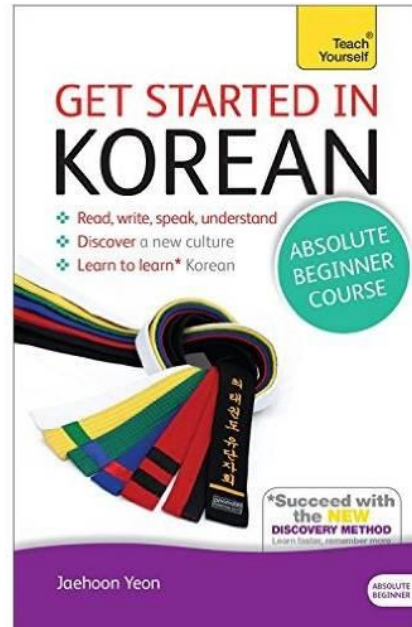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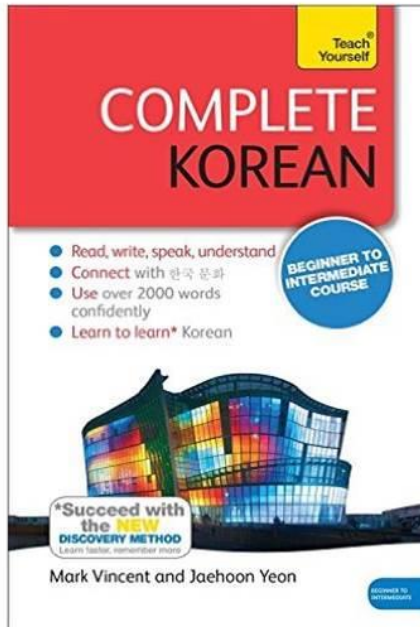
Integrated Korean (Advanced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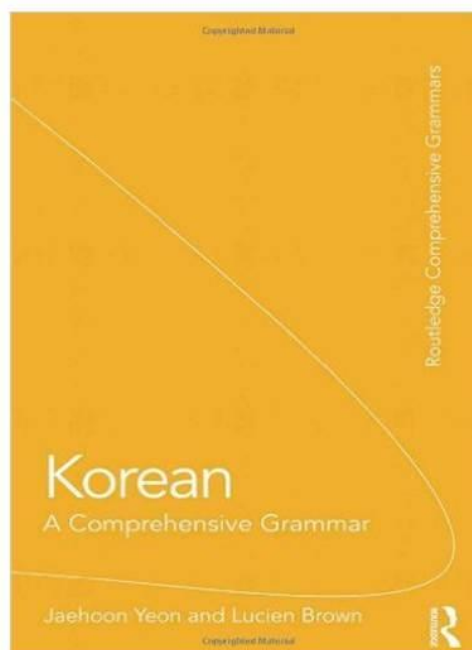
Elementary/Continuing/Advanced Kor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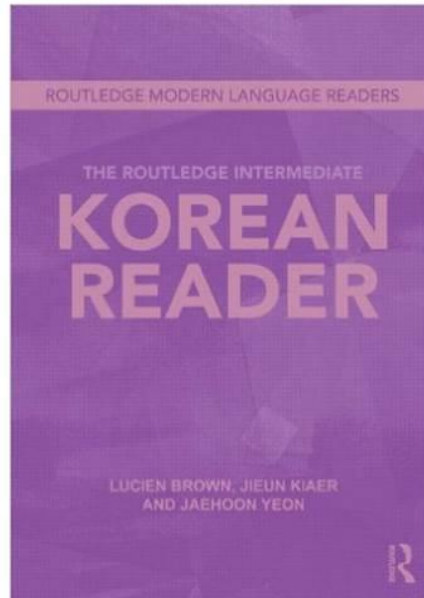
Complete Korean/ Get Started in Kor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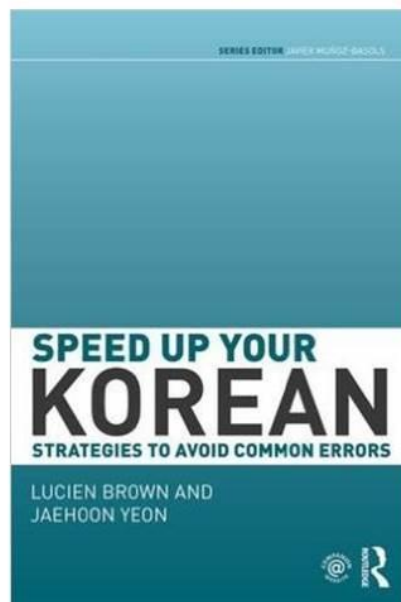
Korean: A Comprehensive Korean



The Routledge Intermediate Korean Reader



Speed Up Your Korean: Strategies to avoid Common Errors



3.2. 교재를 만들면서 고려할 사항들

1.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지역**에서 사용할 교재인가?
2. 언어 교육이 목적인가, **문화 교육**도 포함시킬 것인가?
3.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4. 대화 중심의 **의사소통 방식**인가, 체계적인 **구조 문법** 중심인가? 혹은 **과제 중심**인가?
5. **문법 용어**를 사용해서 가르칠 것인가?
6. 처음부터 **한글**을 가르칠 것인가?

7. **단어**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8. **순서** 및 **배열**의 문제:
 - 8.1 빈도수
 - 8.2. 축약형(입말)과 원형(글말)
 - 8.3. 격식(합니다)체와 비격식(해요)체
 - 8.4. 반말의 도입
 - 8.5. '이다' 동사와 일반 동사
9. 동사의 소개와 **불규칙 동사**의 접근 방법
10.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 문제
11. **여러 가지 형태가 비슷한 의미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경우: "-어서", "-니까", "-느라고", "-기 때문에", "-는 바람에"

***한국어 교재에서 존대말/반말 사용의 문제 (Brown 2010)**

1. 제한된 사회적 문맥만 제시: 대화의 60% 이상이 친구 사이의 대화. 다양한 상하관계의 대화 환경 부족.
2. 교재 대화는 대부분 존대말 (87.6%): 해요체 (59.3%), 합시다체 (28.4%) → 실제상황과 괴리
3. 반말체 부족: 대부분 중급 단계에서 도입, 한두과에서 소개.

4.1. 유럽 대학의 한국어 교육 개관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유럽 대학교> (2016년 현재): 약 25개국, 60여개 대학

독일(9), 프랑스(8), 영국(5), 이태리(3), 스페인(3), 폴란드(3), 터키(3), 체코(2), 헝가리(2), 핀란드(2), 오스트리아 (2), 루마니아(2), 아르메니아 (1), 아제르바이잔(1), 벨기에(1), 불가리아(1), 덴마크(1), 조지아(1), 아일랜드(1), 리투아니아(1), 마케도이나(1), 네델란드(1), 슬로베니아(1), 스웨덴(1), 우크라이나(1),

4.2. 영국 대학의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에 대한 전반적 검토

- 영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북미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비해서 개설 대학의 숫자나 수강 학생의 숫자에 있어서는 적지만, 한국학이 단독 **학위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상당히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런던대학 **소아스**, **세필드** 대학에서는 한국학 학사, 석/박사 학위가 주어지고, **센트럴 랑카셔** 대학에서는 학사 학위, **옥스포드** 대학에서는 한국학 석/박사 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한국학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4개 대학 중, 런던, 세필드, 센트럴 랑카셔 대학 등 3개 대학이 학위 과정의 필수 과목으로 1년 동안 한국 대학에서의 언어 실습 과정을 요구.

- 영국은 한국 이민의 역사가 북미 대륙만큼 오래지 않은 관계로, 영국 대학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북미에서와 같이 학생의 다양성이나 배경의 차이에서 오는 **계승어 학습자와 비계승어 학습자 사이의 수준 차이 문제는 없다**. 영국에서는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80% 이상이 영국 및 유럽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의 다양성에서 오는 문제는 없다.

1. 영국 내 **표준 교육과정**이 있는가?

- 영국이나 유럽 대학에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 국가의 관여나 **국가주도의 표준 교육과정 제정에 회의적**이거나 소극적인 입장
-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교재, 교육 방법 등은 학생과 교육 현장의 필요와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고 **현장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2. 교수학습 원리

- 구조주의 언어학에 근거한 구두 청각 교수법과 다양한 교수법을 통합한 **'절충적 통합 교수법'**
- 필자가 아는 한 온전한 의사소통중심/과제 중심 교수요목에 근거한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나 교재 개발은 아직 없다.
- 런던대학의 한국어 교과과정은 문법 교육 없이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입장.

4.3. 유럽 지역 한국어 교육 현황 정리

- 유럽 지역 대학들의 한국어/학 교육의 **역사**는 매우 길다. 노르웨이의 오슬로 대학(2000년 개설)이나, 이태리, 스페인 등을 제외하면 유럽 주요국가들의 한국학 역사는 1960년대 길게는 1940년대까지.
- 학생 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대부분의 대학에 **전공과정**으로 개설되어 있어 깊이 있는 교육.
- 한국 대학과의 **교환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곳이 많다. 유럽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주로 한국학 전공을 위한 문법-독해 중심의 과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한국대학의 교환과정이나 한국인 파견 교수의 수업을 통해 의사소통식 교육 방법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문법 구조 중심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초급 과정의 **교재**는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교재와 한국 대학에서 출판된 교재를 병용하는 대학들이 많고, 중급 이상의 과정에서는 각 대학 별로 자체 개발한 교재를 사용하는 대학들이 많다. 한국 대학에서 출판된 교재로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의 교과서가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있다.
- 한국어 **교수진**은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은 한국인이 많지만, 독일과 동유럽 등 그 외 유럽 지역은 현지인 교수의 책임 아래 한국인 시간 강사들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강사진의 전공은, 언어학이나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사람도 있고, 역사나 문학, 정치 등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한국어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5.한국어와 한글의 세계화?

- 1990년대 이후 한국어와 한글의 세계화라는 슬로건 등장
- 한국어 사용인구: 12-13위,
-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의 순위??
- 지난 10년 사이 TOPIK 응시인원 증가: 비자 취득의 필수 조건. 서양의 응시 인구는 아직도 소수.
- 서양 대학에서 한국어: 아직도 **one of less widely taught languages**

The ten most used internet languages today

(C. Kim 2015:66):

- 1) English: 55.7%
- 2) Russian: 6%
- 3) German: 6%
- 4) Japanese: 5%
- 5) Spanish: 4.6%
- 6) French: 4%
- 7) Chinese: 3.3%
- 8) Portuguese: 2.3%
- 9) Italian: 1.8%
- 10) Polish: 1.7%

.....

- 18) Korean (Hangul): 0.4%

5.1. 한글의 세계화?

- 찌아찌아 사람들(인도네시아 부탄섬)의 한글 사용?
- 왜 로마자가 아니라 한글인가?
- 한글은 외국어를 표기하기에 완벽한 글자인가?
- 한글로 표시할 수 없는 영어의 소리:
 /p/ : /f/ : /v/ -- pan : fan : van
 /s/ : /z/ -- seal : zeal
 /θ/ : /th/ -- thank : this
 /l/ : /r/ -- light : right etc.
- 한글세계화의 윤리적 문제 (김진우 2015)

한국어는 국제어나 세계어는 아니지만 외국어로서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The top languages studied in US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2013

	Language	Enrollments	Change since 2009
1)	Spanish	790,756	-8.2%
2)	French	197,757	-8.1%
3)	American Sign Language	109,577	+19.0%
4)	German	86,700	-9.3%
5)	Italian	71,285	-11.3%
6)	Japanese	66,740	-7.8%
7)	Chinese	61,055	+2.0%
8)	Arabic	32,286	-7.5%
9)	Latin	27,192	-16.2%
10)	Russian	21,962	-17.9%
11)	Greek, Ancient	12,170	-35.5%
12)	Hebrew, Biblical	12,551	-8.7%
13)	Portuguese	12,450	+10.1%
14)	Korean	12,229	+44.7%
15)	Hebrew, Modern	6,698	-19.4%
16)	Other languages	40,059	-2.6%
=====			
	Total	1,562,179	-6.7%

5.2. 한국어 ‘세계화’(!)에 기여한 요인들

- 1) 한국문화의 인기 (한류, 케이팝 등)
- 2) 동북아시아와 세계 경제에서 한국의 위상
- 3) 한국정부 (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지원
- 4)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 교육 장려 정책
- 5) 한국인의 역동성

5.3. 문제점과 제안

- (1) 한국 정부의 지원은 증가했지만 아직도 부족
- (2) 세종학당 예산 부족
- (3) 한류, 케이팝 보급 등 문화 교육/전파는 중립적이고 젊장게: 국가홍보주의의 관점이 아니라 수요자의 관점에서
- (4) 애국주의를 넘어서야: 대학의 한국학과는 한국 홍보 단체가 아니다.
- (5) ‘한국어 세계화’ 등 비현실적 구호보다는 꾸준한 연구와 교육, 지원 필요.
- (6) 의사소통방식, 과제중심 등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었지만 정확성을 위한 문법교육에 오면 내실있는 교육이 부족한 듯: 문법구조 교육도 필요.

6. 당면 과제

(1) 한국어 연구와 교육의 차세대 양성 문제

- 한국어학을 전공하는 차세대 유럽 현지인 박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어 교육 뿐만 아니라 한국 (응용) 언어학 분야의 박사 연구생들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한국어학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전임교수로 취직할 수 있도록 한국어학 교수직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

(2) 한국어학 교수직 설치:

- 현재 한국어학 교수 자리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들이 많지 않고 언어교육은 강의 전담 교수들에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차세대 유럽 현지인 연구자를 위한 조교수직 설치와 현지 대학의 지원을 당분간 확대해야 한다. 한국어학 교수직이 개설되었을 때 그 자리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언어학이나 응용언어학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연구 업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연구자가 있어야 한다.

(3) 한국학 내에서 한국어 교육의 위치 문제 및 언어교육자의 지위 문제

- 한국학 안에서 한국어학이 확고한 자리를 차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이 한국어학 전임 교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강의 전담 교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 과정은 석/박사 과정 학생을 교육하는 데 한계가 있고, 언어 교육자의 지위도 상대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 독자적 한국어 학습자의 수요 증가

- 한국학 연구의 기반으로서가 아니라 한국어 학습만을 필요로 하는 학습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독립적이고 고유한 프로그램이나 교육기관을 설치할 필요도 있다. 대학 내에서 한국어 디플로마 코스 등 개설, 세종학당이나 한국문화원에서 집중 한국어 프로그램 개설.

(5) 한국어 교재 문제: 현지어로 된 한국어 교재의 부족

- 영어 사용자들을 위한 현지 한국어 교재는 상대적으로 많이 개발되었지만, 독일어, 프랑스어, 폴란드어를 제외한 다른 유럽 학습자들을 위한 현지어 교재들은 많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현지어로 된 한국학 및 한국어 교재를 더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

(6) 한국학 분야별 연구자의 질적-양적 성장의 문제

- 연구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적정인원’ (critical mass) 확보 문제를 고민할 단계. 물론 과거에 비해 한국학 연구자들이 양적으로도 많이 성장했지만, 중국학, 일본학과 더불어 동아시아학 학술대회를 개최할 경우 한국학의 양적 질적 수준은 아직도 현격한 차이. 중국학, 일본학에 견줄 수 있는 한국학 연구자들의 질적-양적 성장이 필요하다.

(7) 한국학 분야별 균형의 문제:

사회과학 및 인문학, 인문학 내에서 역사 및 문학 및 어학, 전근대 및 근대 역사/문학/언어, 고전문학 대 현대문학의 균형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해야. 한국학의 분야별 균형 발전에 있어서는 북미 한국학과 유럽 한국학의 전통이나 현황이 약간의 차이를 보여 준다. 유럽은 북미에 비해서 사회과학 전문가들의 수요가 부족하고, 반면 전근대 역사 전문 연구자들이 북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한다.

(8)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 이론과의 갈등

유럽 대학에서 한국학은 보통 지역학으로 개설되어 있고, 가끔 사회과학, 언어학 등 이론 학문과 방법론 등에서 갈등을 보이기도 한다. 지역학과 이론 학문의 긴장 관계를 생산적인 측면에서 유지하면서 한국학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9) 학부 과정 전공 학생 수의 문제

유럽 대학에서 한국어 및 한국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부 과정 전공 학생들의 숫자가 충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학문적인 접근과 노력뿐만 아니라 한류나 케이팝 등 대중문화의 인기도 적절하게 활용하여 한국학의 관심을 유지하고 선도해 나갈 필요.

(10) 한국 문화 교육과 전파의 문제: 점잖고 문화 중립적 태도 유지. 한국학과는 한국 문화 홍보 학과가 아니다.

References

- Brown, Lucien. 2010. Questions of appropriateness and authenticity in the representation of Korean honorifics in textbooks for second language learners. *Language, Culture & Curriculum* 23/1: 35-50.
- Choi, Seungja. 2016. A New Paradigm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Vol. 2, No.1.
- Cook, Vivian 2008.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Language Teaching* (Fourth Edition). London: Hodder.
- Folse, Keith S. 2004. Vocabulary myths: Applying second language research to classroom teaching.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Iwasaki, Noriko. In press. L2 Vocabulary Teaching: Debunking Pervasive Myths.
- Kim, Chin W. 2015. Three notes on globalisation of hangul. Proceedings of 12th ISKS Conference.

- Kim, Minju. 2000. What you did not learn in the classroom but what you will hear frequently in real conversations. *The Korean Language in America* 5: 317-329.
- Kim, Suhee. 2005. Korean language textbooks in America [in Korean] In: H. Min. et al (eds.) *Hankuke Kyoyuklon*. 1. Seoul: Hankwuk Munhwasa.
- King, Ross. 2005. Korean grammar education for Anglophone learners. In: H. Min. et al. (eds.) *Hankuke Kyoyuklon*. 2. Seoul: Hankwuk Munhwasa.
- , 2007. Globalization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language: Preliminary thoughts. ms.
- Littlewood, W. 2013. Communication-oriented language teaching: Which way ahead? http://www.elthchina.org/wzw/kindeditor/attached/file/20130725/20130725112633_3073.pdf
- Nation, I.S.P. 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CUP.
- Sohn, Homin. 2005. Tasks and development direction in Worldwide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Korean] In: H. Min. et al. (eds.) *Hankuke Kyoyuklon*. 1. Seoul: Hankwuk Munhwasa
- Wang, Hye-sook. 1999. Speech Acts in Korean Language Textbooks: Representation and Authenticity.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10/1: 195-220
- Yeon, Jaehoon. 2008. Issue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European universities [in Korean] EAKLE website: <http://www.eurokorean.org>
- Yeon, Jaehoon and Lucien Brown. 2011. *Korean: A Comprehensive Grammar*. Routledge.
- 강현주(2014). “해외 거주 한국어 초급 학습자 대상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57: 1-24
- 박정미(2015). 다문화 소통 맥락 중심 한국문화교육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박사논문.
- 배재원(201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연재훈 (2015). “유럽 한국어 교육의 쟁점과 과제”. *국제한국어교육*. 제1권 2호: 1-32.
- 최준식 (2012) “문화를 가르친다는 것은? What Is Teaching Culture?” *한국언어문화학* 제9권 1호: 271-285
- 한송화 (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에서의 새로운 문법 체계를 위하여 – 형식 문법에서 기능문법으로” <한국어교육> 17-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구문문법 시각에서 본 한국어“NP+ ADV+ V” 중간구문과 중국어“NP+ V 起来+ ADV” 중간구문

장 엮

초록: 한국어 학계와 중국어 학계에서는 중간구문의 범주와 특징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다. 중간구문은 통사와 의미 측면에서 피동문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피동문으로 간주해도 전형적인 피동문이 아닌 피동문 원형범주의 경계 위치에 처한 특징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중간구문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기존 논의의 의견을 종합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한중 중간구문의 형식을 선택하여 구문문법(middle construction)의 시각으로 한국어 “NP+ADV+V” 중간구문과 중국어 “NP+V起来+ADV” 중간구문을 고찰했다. 중간구문의 비사건성, 필수적인 부사어, 출현하지 않고 심층 구조에 있는 행위자 등 통사와 의미 측면에 나타난 특징을 기술하고 이들의 합리성에 대해 해석한 것이다.

키워드: 한중 중간구문, 구문문법, 원형범주, 비사건성

1. 서론

중간 구문(middle construction)¹은 보통 동작을 입히는 대상²이 주어로 되고 동작 주체가 출현하지 않으며 주어의 총칭적 속성을 기술하는 구문 형식을 말한다. 중간구문은 범언어적으로 존재하는 구문 형식으로서 한국어와 중국어에 비해 영어에서의 연구가 일찍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영어 중간구문의 예문을 살펴보자.

- (1) This pen writes well. (이 만년필은 쓰기에 매우 좋다.)
- (2) This oven cooks well. (이 오븐은 굽기 매우 좋다.)
- (3) This whole wheat flour bakes wonderfully. (이 통밀가루는 굽기 아주 맛있다.)
- (4) This book sells well. (이 책은 잘 팔린다.)

¹ 중간문이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다.

² 기저 목적어라고도 한다.

위 영어의 중간구문을 통해 중간구문의 공통적인 특징을 알 수 있다. 예문(1-4)의 주어 ‘pen, oven, whole wheat flour, book’는 전부 동작을 입히는 대상이고 문장에 동작 주체가 나타나지 않으며 각 구문마다 ‘well’같은 부사어가 있는 것이다.

다음 한국어와 중국어의 중간 구문의 예문을 살펴보자.³

- (5) 이 문은 잘 열린다.
- (6) 이 방은 잘 들린다.
- (7) 이 창은 잘 보인다.
- (8) 이 책은 널리 읽힌다.
- (9) 这只烟盒摸起来很细腻。(이 담뱃갑은 만져 보면 아주 섬세하다.)
- (10) 这把刀切起来挺顺手的。(이 칼은 잘 깎인다.)
- (11) 这本书读起来很容易。(이 책은 쉽게 읽힌다.)
- (12) 这个活儿干起来很吃力。(이 일은 하기 힘들다.)
- (13) 这朵花闻起来很香。(이 꽃은 냄새 맡기가 아주 좋다.)
- (14) 这节课讲起来很容易。(이 수업은 하기가 아주 쉽다.)

위의 예문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전형적인 중간구문이다. 예문(5)과 (6)을 보면 피동사 “열리-, 들리-”를 통해 피동문으로 형성된다는 의견이 현재 보편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문장이 한국어의 피동문과 다른 점이 많다. 한국어 피동문의 예문을 살펴보자.

- (15) 도둑이 경찰에게 잡혀었다.
- (16) 이 아이는 부모에게 버려졌다.

예문(5,6)을 예문(15,16)과 비교하면 그 다른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예문(5,6)은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예문(15,16)과 달리 “경찰에게-, 부모에게-” 같은 동작 주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피동문(15,16)의 동작 주체가 구체적이고 특정된 활동체이지만 예문(5,6)의 동작 주체는 특정된 활동체가 없고 일반적인 총칭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예문(15,16)은 주어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말하지만 예문(5,6)은 주어의 일반적인 속성을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면, 예문(16)에서 아이는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사건을 표하지만 예문(5)는 문은 열기가 어렵지 않다는 속성을 나타낸 것이고 특정된 시제도 없다. 즉, 중간구문은 시제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피동문은 다 각각 대응된 능동문이 있으나 중간 구문은 대응된 능동문이 없다. 예문(15,16)이 대응되는 능동문은 다음

³ 본고의 한국어 예문과 중국어 예문은 주로 21세기세종계획말뭉치와 북경대학교 CCL말뭉치를 통해 수집한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논문에서 재인용된 예문이면 각주로 출처를 밝힐 것이다.

과 같다.

(17)도둑이 경찰에게 잡혀있다.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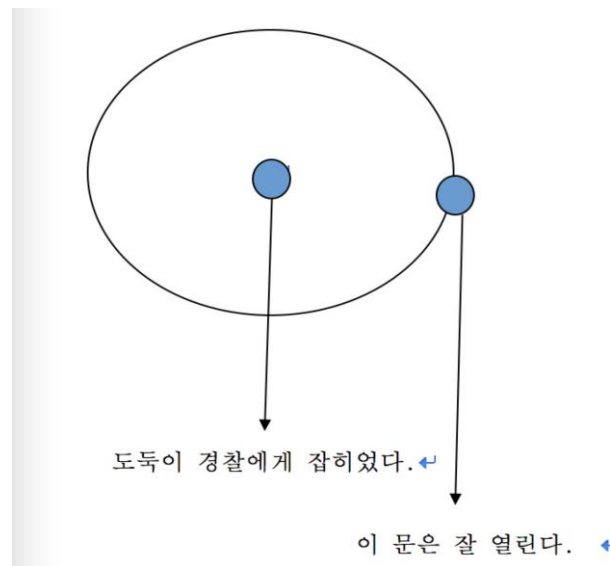
(18)이 아이는 부모에게 버려졌다. ➡부모가 이 아이를 버렸다.

그러나, 예문(5,6)은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다.

(19) 이 문은 잘 열린다. ➡ ?

(20) 이 방은 잘 들린다. ➡ ?

이런 구문 형식을 피동문의 울타리에 집어넣는 학자는 이정민(1994), 임홍빈(1998)이 있고, 중간구문의 범주로 따로 떼어낸 학자는 Park(1994), 남수경(2007, 2011)등이 있다. 위와 같은 비교에서 중간 구문은 통사와 의미 측면에서 피동문과 여러 차이를 보이는데 피동문으로 간주돼도 전형적인 피동문이 아니라고 본다. 즉, 중간구문이 피동문으로 간주될 수 있어도 원형범주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중간구문과 같은 구문 형식이 피동문 원형 범주의 경계에 근접한 위치에 처한다. 도식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1> 피동문의 원형범주

본고는 중간구문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중간구문이라고 하거나 비전형적인 피동문이라고 명명하는 것보다 이런 구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과 설득력이 있는

해석에 관한 고찰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본고는 한국어 중간구문 “NP+ADV+V” 형식⁴과 중국어 중간구문 “NP+V起来+ADV”⁵형식을 취하여 통사와 의미 측면에 나타난 특징을 기술하고 중간구문의 본질에 관한 간결하고 적합한 해석을 추출하고자 한다.

2. 한국어와 중국어 중간구문의 통사와 의미 특징

한국어 중간구문 “NP+ADV+V” 형식과 중국어 중간구문 “NP+V起来+ADV” 형식은 통사와 의미에는 피동문 등 다른 구문 형식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통사와 의미 측면에서 한국어 중간구문과 중국어 중간구문이 구현하는 특징을 기술할 것이다.

2.1 동사와 부사의 공기

한국어 “NP+ADV+V” 중간구문은 반드시 동사 앞에 상태를 표시하는 부사어가 있어야 되고 중국어 “NP+V起来+ADV” 중간구문은 반드시 동사 뒤에 상태를 표시하는 부사어⁶가 있어야 된다.

(21) 이 종이는 잘 접힌다.

? 이 종이는 접힌다.

(22) 이 칼은 잘 깎인다.⁷

? 이 칼은 깎인다.

(23) 这种收音机携带起来很方便。(사람들은 이런 라디오를 가지기가 편리하다.)

? 这种收音机携带起来

(24) 这本书读起来容易。(사람들은 이 책을 읽기 쉽다.)

? 这本书读起来

4 현재 학계에서 한국어 중간구문의 범주 자체에 대한 검토가 많고 일치한 의견이 없다. 본고는 어떠한 구문 형식이 중간구문의 범주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중간구문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기존 논의의 의견을 종합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한중 중간구문 형식을 취하여 그 특징과 형성 요인을 해석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여기서 선택한 한국어 중간구문 “NP+ ADV+ V” 형식은 Park(1994)에 따라 선택한 것이다. Park(1994)에 따르면 한국어의 중간구문은 CMC(Causative Marker Construction)구문이다. CM이란 “-이, -히, -리, -기”형태소를 지시한다. CM을 지닌 동사로는 “팔리다, 읽히다, 갈리다, 빨리다, 씻기다”등의 동사를 들 수 있다.

5 중국어 중간구문에 관하여 기존연구중에 曹宏 (2004), 古川裕 (2005), 何文忠 (2007) 등의 주요한 의견을 따라 예문(9.10)과 같은 구문 형식을 선택한다. 중국어 중간구문의 종류에 관한 논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논쟁도 많다. 본고에서 선택한 “NP+ V起来+ ADV” 형식은 대부분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중국어 중간구문의 형식이다.

6 중국어 중간구문 “NP+ V起来+ ADV”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ADV”는 중국어 문법에 의하여 “결과보어”라고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만 범언어적으로 볼 때 부사어는 중간구문에 필수로 요구하고 부사어의 일종으로서 기능상 부사어와 같으므로 본고에서 “ADV”라고 표시한다.

7 임흥빈(1998:344)의 예문을 재인용했다.

한국어 중간구문은 예문(21,22)처럼 부사 “잘” 이 반드시 동사 앞에 와야 되고 없으면 비문이 된다. 중국어 중간구문도 “V起来” 뒤에 반드시 부사어가 있어야 된다. 아래의 부분에서 이 부사어를 통해 문장의 사건 표시 기능을 총칭적 상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2.2 상태성과 비사건성

한국어의 중간구문이 사건을 표시하지 않고 한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논의로는 천호재(2002)가 있다. 천호재(2002)에 따르면 중간구문은 주어의 속성을 기술하는 문장이다.

(25)이 책은 잘 읽힌다. → 이 책은 잘 읽힌다고 하는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26)이 못은 잘 박힌다. → 이 못은 잘 박힌다고 하는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27)이 문은 잘 열린다. → 이 문은 잘 열린다고 하는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위 예문에서 보듯 중간구문은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와 같은 문장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즉, 중간구문이 어떤 사건의 발생을 표현하지 않고 주어의 일반적인 상태를 기술하므로 단순현재시제로만 구성된다.

2.3 문장에 행위자의 비출현과 행위자의 불특정의 지시

예문(21)-(24)에서 볼 수 있듯이 주어 위치에 있는 것은 행위를 시행하는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를 입히는 목적어이다. 그러나 중간구문에서는 행위자가 통사상 출현하지 않고 심층 구조에 있다. 그리고 이 심층 구조에 존재하는 행위자도 특정된 사람이나 동물체가 아니다. 즉, 행위자는 누구나 다 될 수 있고 “사람들이, 우리는”과 같은 이 총칭적인 행위자를 나타낸다.

(28)이 종이는 잘 접힌다.

→ 이 종이는 사람들에 의해 잘 접힌다.

(29)이 칼은 잘 깎인다.⁸

→ 이 칼은 사람들에 의해 잘 깎인다.

(30) 这种收音机携带起来很方便。

(사람들은 이런 라디오를 가지기가 편리하다.)

→ 对大家来说这种收音机携带起来很方便。

⁸ 임흥빈(1998:344)의 예문을 재인용했다.

(31) 这本书读起来容易。

(사람들은 이 책을 읽기 쉽다.)

➡ 对大家来说这本书读起来容易。

밑줄 친 부분은 심층 구조에 존재하는 행위자들이다. 2.2에서 이미 기술하는 중간구문의 비사건성 때문에 여기서 행위자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상태와 가능성을 표시하는 중간구문에 있어 행위자의 출현이 문장 전체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다.

3. 구문문법(construction grammar)시각에서 본 중간구문

Goldberg(1995)의 구문문법(construction grammar)⁹은 우선 인간의 인지 경험에 기반한 이론이라는 점에서 인지언어학의 기본 입장을 공유한다. 그리하여 형식 문법의 관점에서는 설명이나 기술로 그칠 수 밖에 없는 문제들에 관하여 그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지 이론의 추상적·관념적인 연구방법에서 탈피해 고도화된 형식구조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형식 문법의 장점도 갖추고 있다. 구문문법은 문법에서 구문(문법적 구성)을 핵심적인 단위로 보며 통사 원자와 원자를 결합하는 규칙은 상대적으로 덜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즉, 구문문법은 구문을 형식과 내용이 짝지어진 것으로 바라보지만 내부 구조의 복잡성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본다.

陆俭明 (2009) 에 따르면 “ 구문 자체가 특정한 문법적 의미를 표하고 이 의미는 구문의 구성 성분이나 다른 구문을 통해 알 수가 없다¹⁰ ”. 상술한 중간구문의 통사와 의미 측면의 특징도 서로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 구문의 문법적 의미에 따라 필요한 통사 수단이 선택되고 또한 통사 수단으로 구문의 의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石毓智 (2000:17) 에 따르면 문법과 의미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문법 규칙과 의미 구조는 서로 대응하는 관계이다.¹¹

본고는 구문문법의 시각을 취하여 중간구문의 양태 의미(Modality Meaning), 주어, 그리고 부사어에 대해 해석할 것이다.

3.1 양태 의미로 생긴 주관화

구문문법의 시각에서 보면 중간구문이 하나의 구문(construction)으로서 발화자가 화

⁹ 구문문법은 Fillmore, Kay, Lakoff, Goldberg 등이 참여한 1980년대 인지과학 프로젝트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1990년대에 틀 의미론에 기초한 FrameNet을 개발(1만어휘, 17만 문장)하고 전산화된 코퍼스를 활용하여 어휘 논항구조의 의미역을 표기하는 등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여주었으며 Goldberg(1995)에서는 어휘보다는 문장(구) 층위에 더 관심을 가지고 구문에서 논항-의미역 정보를 인가할 수 있는 논항구조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강병규(2012: 5-6, 11) 참조.

¹⁰ 원문: 构式本身能表示一定的语法意义且这种意义没法从构式的组成成分或已知的其他构式所推知.

¹¹ 원문: 语法和语义密不可分, 语法规则和语义结构之间存在着对应关系.

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표현하고 주어의 일반적인 특징을 기술하는 의미를 표한다. 구문 전체가 “충청적 지시”의 속성을 지닌다. 그런데 중간구문이 어느 정도 굳어진 통사 구조에 의해 이런 의미를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 그 중에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을 찾으려면 중간구문이 표하는 양태 의미(Modality Meaning)부터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양태 의미는 구문 전체의 통사구조와 의미의 근본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¹²

중간구문이 나타내는 양태 의미라면 학자들이 일치한 의견이 없다. Fagan(1992:54), Massam(1992:122)은 중간구문이 표하는 양태 의미는 “능력 혹은 가능성”이라고 하고 대략 영어의 “can”와 비슷한 의미이다. 그 중요한 증거는 중간구문에서 동사와 공기하는 부사어는 대다수 “난이도”와 “효과”를 나타내는 부사어들이다.

(32) 이 책은 잘 팔린다.

(33) 이 빨대는 잘 빨린다.

(34) 这把刀用起来很顺手。(순조롭다)

(35)这条路走起来还挺平坦。(힘들지 않다/평평하다)

(36) 这东西点起来味道很呛人。(자극하다)

한국어 중간구문 예문(32-33)은 부사 “잘”을 통해 “이 책은 많이 팔린다”, “이 빨대는 쉽게 빨린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능력 혹은 가능성”의 양태 의미에 부합한다. 앞에 제기한 한국어 중간구문 예문들도 예외 없이 해당된다. 그러나, 중국어 중간구문 예문(34-36)을 보면 (34)와 (35)이 “칼 사용하기와 길 걷기가 어렵지 않다”의 의미를 표하는 것과 달리 예문(36)은 “어떤 물건이 타는 냄새가 아주 자극하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그 것은 “능력 혹은 가능성”의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그저 특정 진술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그 외에 Halliday(1967)가 중간구문의 다른 하나의 양태 의미는 “바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다양한 의견들로 중간구문이 표하는 양태 의미에 대해 통일적이고 간략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

Davidse와 Heyvaert(2007)는 기능과 인지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Talmy(2000)의 “힘 역동적인 관계(force-dynamic relation)”라는 모델을 이용하여 중간구문의 양태 의미에 대해 통일된 해석을 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힘 역동적인 관계(force-dynamic relation)”에 존재하는 “추진(letting)”과 “저해(hindering)”의 대립적 관계로 중간구문의 주어가 “증진(conducive)”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힘 역동적인 관계”에는 “힘을 주는 쪽(agonist)”과 “힘을 받는 쪽(antagonist)”이 있고, 그들이 서로 대립한 관계를 이룸에 따라서 그들이 발휘하는 역할도 다른 것이다.

¹² 刘正光, 语言解释的维度-以中动构式为例

“힘을 주는 쪽”은 어떤 행위를 실행하려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힘을 받는 쪽”은 이런 경향성에 어떤 영향을 가한다. 이로써 합력(resultant)이 생기는 것이다. 중간구문에는 주어와 “힘을 받는 쪽”이다. Davidse와 Heyvaert(2007)는 이 원리를 근거하여 중간구문의 양태 의미는 “추진과 방해”라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예문으로 살펴보자.

(37) 이 책은 잘 팔린다.

(38) 이 빨대는 잘 빨린다.

(39) 雾天飞起来不易。

(안개 낀 날씨에 날기가 쉽지 않다.)

(40) 场地比较软, 奔跑起来比较费劲。

(운동장이 부드러워서 달리가 아주 힘들다.)

예문(37)의 주어 “책”은 “힘을 받는 쪽”이고 출현하지 않은 행위자는 “힘을 주는 쪽”이다. 예문(37,38)의 주어는 행위자의 행위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반면에, 예문(39,40)의 주어인 “雾天(안개 낀 날씨), 软的场地(부드러운 운동장)”은 행위자의 행위에 방해의 힘을 가한다. 이렇게 중간구문은 구문 전체가 표현하는 “추진과 방해”의 양태 의미 때문에 구문의 동사구도 양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동사구에 주관화(subjectivization)가 생긴 것이다. 이 주관화는 원래 사건 표현의 의미를 화자의 주관적인 평가나 판단의 의미로 변화시켰다. 여기서 말하는 주관화는 주로 인지문법에서 Langacker(1987)가 주장한 주관화이다.

주관화는 구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을 묘사함과 동시에 ‘자아의 표현 성분’을 함께 발화하게 되는 것이다. 화자는 말을 발화할 때 동시에 그 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태도나 감정을 표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주로 화자의 자기 표현 및 화자의 시각, 인식, 심리적 양상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¹³ 인지문법에서 말하는 주관화의 본질은 상관관계의 “시간성 제거”를 가리킨다.

Langacker(1991)는 문법화가 여러 변화에 구현한다고 하였다.

< 표1 > 주관화의 구현

명제 기능 ➡ 발화 기능
객관적 의미 ➡ 주관적 의미
비인식 양태 ➡ 인식 양태
주어가 아닌 문장 성분 ➡ 문장 주어

¹³ 沈家煊(2001:268-270)참조

객관적 주어 ➡ 화자 주어
자유 형식 ➡ 문법적 형식

주관화의 정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표1>의 모든 항목을 다 실현해야 주관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위 항목을 근거로 삼아 한국어 중간구문의 주관화 정도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발화 기능, 주관적 의미, 인식양태”, 이 세 가지는 앞부분에 이미 기술한 바 있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겠지만 그 중 “명제 기능 ➡ 발화 기능”의 변화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한국어 중간구문에 “이 빨대는 잘 빨린다”라는 표현이 있고 “이 빨대가 잘 빨린다”라는 표현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은/는”이 화제 표지라서 문장에 뚜렷한 화제 의미가 부가된다. “가/이”가 주어 뒤에 올 때는 전체 구문의 화제 의미가 약해지지만 구문 전체의 의미에서 명제 기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네 번째 변화 “주어가 아닌 문장 성분 ➡ 문장 주어”는 중간구문이 부합하는 것이다. 중간구문의 주어는 대부분 기저 목적어가 이고 “도구, 장소”의 의미를 표현하는 부각 성분일 수도 있다. 이 문제는 다음 절에서 상세하게 검토할 것이다.

다섯 번째 “객관적 주어 ➡ 화자 주어”의 변화는 통사적으로 구문 표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주어 앞에 “저는”을 추가해서 한국어 중간구문의 주어가 화자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 (41) ㄱ. 이 칼은 잘 깎인다. ➡ 저는 이 칼은 잘 깎인다.
 ㄴ. 이 책은 잘 팔린다. ➡ 저는 이 책은 잘 팔린다.
 ㄷ. 이 빨대는 잘 빨린다. ➡ 저는 이 빨대는 잘 빨린다.
 ㄹ. 이 안경은 잘 보인다. ➡ 저는 이 안경은 잘 보인다.

(41ㄱ-ㄹ)은 “저는”을 추가해서 화자의 주관적인 평가의 의미가 더 명백하게 나타날 수 있다. (41ㄱ)은 “저는”을 추가함으로써 “저는 이 칼이 잘 깎인다고 생각한다”는 주관 의미가 강해진다.

마지막 변화 “자유형식 ➡ 문법적 형식”은 한국어 중간구문에 아직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3.2 주어의 의미 역할

기존 연구를 보면 많은 학자들이 중간구문의 주어는 동작의 대상만으로 구성된다는 관

점을 가진다.¹⁴ 그러나, 본고에서 앞부분에 제기한 예문을 통해 중간구문의 주어가 전부 동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먼저 한국어 중간구문의 예문들을 살펴보자.

- (42) ㄱ. 이 책은 잘 읽힌다.(기저 목적어/동작의 대상)
 ㄴ. 이 뭇은 잘 박힌다.(기저 목적어/동작의 대상)
 ㄷ. 이 문은 잘 열린다.(기저 목적어/동작의 대상)
 ㄹ. 이 종이는 잘 접힌다. (기저 목적어/동작의 대상)
 ㄱ. 이 칼은 잘 깎인다.(도구)
 ㄷ. 이 방은 잘 들린다.(장소)
 ㄴ. 이 빨대는 잘 빨린다.(도구)

예문(42ㄱ-ㄴ)를 보면 (42ㄱ-ㄹ)은 주어가 기저 목적어이고 (42ㄷ)는 “이 방에서는 밖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는 의미로 “장소”를 표시하는 명사가 중간구문의 주어가 되는 예문이다. 그리고(42ㄱ, ㄴ)의 주어는 행위를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이다.

중국어 중간구문의 예문도 다시 살펴보자.

- (43) ㄱ. 这只烟摸起来很细腻。(기저 목적어/동작의 대상)
 ㄴ. 这本书读起来容易。(기저 목적어/동작의 대상)
 ㄷ. 这种收音机携带起来很方便。(기저 목적어/동작의 대상)
 ㄹ. 这把刀切起来很顺手。(도구)
 ㄱ. 这条路走起来还挺平坦(기저 목적어/동작의 대상)
 ㄷ. 雾天飞起来不易。(시간/상황)
 ㄴ. 场地比较软, 奔跑起来比较费劲。(장소)

예문(43ㄱ-ㄷ, ㄱ)의 주어는 기저 목적어이고 (43ㄹ)는 “무엇을 깎을 때 사용하는 칼”이 주어가 되므로 “도구”가 주어로 되는 예이다. (43ㄷ)는

“안개 낀 날씨에 날아오르기가 쉽지 않다”의 의미로 주어가 “시간/상황”을 표시하는 명사이다. 그리고 (43ㄴ)는 “이런 폭신평신했 운동장에서 달리기가 힘들다”의 의미로 주어가 “장소”를 표시하는 명사이다.

邓云华, 尹灿 (2014) 이 북경대학교CCL말뭉치를 통계한 결과에 따르면 주어가 “기저 목적어”인 중간구문이 제일 많고 “장소, 도구”가 주어로 된 중간구문의 수량이 적다.

¹⁴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학자는 Halliday(1967), Jespersen(1929), Sweet(1891) 등이 있다. 그 외에 한국어학계와 중국어학계에서도 동작의 대상이 중간구문의 주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2> CCL말뭉치의 중국어 중간구문의 주어

	중간구문 개수
기저 목적어/동작의 대상	1084
시간/상황	36
도구	25
장소	38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중간구문의 주어가“기저 목적어/동작의 대상”인 것이 양으로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시간/상황, 도구, 장소”를 표시하는 명사들이 중간구문의 주어가 되는 상황이 많지 않지만, 주어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 중간구문도“기저 목적어/동작의 대상, 도구, 장소”등이 주어 위치에 올 수 있다.¹⁵

이상의 분석을 통해 한중 중간구문의 주어 위치에 기저 목적어 외에 “도구, 장소, 시간/상황”도 올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중간구문에 대한 정의도 “동작의 대상이 주어로 된다”라고 하는데 그 정의는 틀린 것인가?

3.1에서 중간구문의 구문 의미(constructional meaning)는 발화자가 화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표현하고 주어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알아봤다. 구문의 전체 의미는 구문의 구성 성분에 선택과 제약을 줄 수 있다. 여기서 중간구문의 구문 의미도 역시 구성 성분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3.1에서 Talmy(2000)의 “힘 역동적인 관계(force-dynamicrelation)”를 이용하여 중간구문의 양태 의미는 “추진과 저해”라고 분석해 냈다. 즉, 중간구문의 주어는 “힘 역동적인 관계”의 “힘을 받는 쪽”으로부터 “증진”의 특징을 지닌다. 중간구문의 구문 의미와 주어의 “증진”의 특징을 함께 고려하면 주어의 의미 역할에 대해 해석을 할 수 있다. 즉, 주어가“증진”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술어의 “추진”이나“방해”의 힘과 역동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합격된 중간구문이다.

주어가 “도구, 시간/상황,장소”일 때도 “술어”의 “추진이나 방해”의 영향을 줄 수 있다.

¹⁵ 필자는 “21세기세종계획말뭉치”를 이용하여 한국어 중간구문의 주어를 통계하려고 시도해 봤는데 정확한 수치를 통계하지 못했다. 그 원인은 한국어 중간구문은 형식상 중국어 중간구문의 “-起来”와 같은 공유한 표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외에 말뭉치 자체의 설정 때문에 한국어 중간구문을 정확하게 통계내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기존연구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리고 여러 예문의 분석을 통해 비록 정확한 수치를 얻지 못했어도 한국어 중간구문의 주어가 기저 목적어 외에 도구, 장소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본고의 연구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예문(42ㄱ, ㄴ, ㄷ)와 (43ㄱ, ㄴ, ㄷ)의 주어는 바로 이런 역할을 나타낸 것이다.

학자들이 중간구문을 “기저 목적어가 주어로 된다”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주어가 기저 목적어인 중간구문이 수량이 제일 많고 전형적인 중간구문이기 때문이다. 그 밖의 적은 비전형적인 중간구문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원형범주의 관점에서 보면 기저 목적어가 주어로 된 중간구문이 범주의 중심 위치에 있어서 전형적인 중간구문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3.3 필수로 요구된 부사어

중간구문에 부사어가 필수로 요구된 현상은 범언어적으로 존재한다. 다음 예문을 같이 보자.¹⁶

- (44) ㄱ. This book reads easily. (영어)
Bureaucrats bribe easily. (Keyser & Roper 1984:384)
ㄴ. Dieses Buch liest sich leicht. (독일어)
‘This book reads easily.’ (Schäfer 2008:1)
ㄷ. Dit boek leest makkelijk. (네덜란드어)
‘This book reads easily.’ (Schäfer 2008:1)
ㄹ. Ce livre se lit facilement. (프랑스어)
‘This book reads well.’ (Fagan 1992:9)
ㅁ. Questo tavolino si trasporta facilmente. (이탈리아어)
‘This table transports easily.’ (Cinque 1988:559)

(44)는 모두 중간구문이며 밑줄 친 부분은 “잘, 쉽게”에 해당되는 부사어들이다. 중간구문에 부사어가 없으면 예문(21-24)처럼 아주 이상한 문장이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중국어, 영어 등 언어의 중간구문에서 부사가 문말에 출현하고 한국어 중간구문에서는 부사어가 동사 앞에 출현한다. 부사어의 위치도 바뀌면 안 된다.

부사어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김푸른솔(2016)은 Fellbaum(1985)와 같은 주장을 가지고 “부사어가 빠진 중간구문은 주어의 속성을 제한해주지 못하는, 즉 청자에게 충분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장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회용적인 측면에서 검토했다. 본고는 2.2에 중간구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사어는 문장의 사건 표시 기능을 상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 의견은 김푸른솔이 주장하는 주어의 속성을 제한해 주고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¹⁶ 김푸른솔(2016)의 예문을 재인용한다.

何文忠 (2007) 은 “중간구문에 동사와 공기하는 부사어는 의미상 반드시 비자주적이어야 하고 이런 제한도 개별적이거나 우연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다 ¹⁷⁾” 라고 주장했다. 예문으로 살펴보자. ¹⁸⁾

(45) 上铺睡起来很难受。(불편하다)

* 上铺睡起来很小心。(조심스럽다)

(46) 这种机器操作起来很简单。(간단하다)

* 这种机器操作起来很专心。(전심전력하다)

(47) 这种局面控制起来很困难。(어렵다)

* 这种局面控制起来很沉着。(침착하다)

(48) Bureaucrats bribe easily.(쉽다)

* Bureaucrats bribe cautiously.(조심스럽다)

(49) The novel sells well.(좋다/많다)

* The novel sells skillfully.(능숙하다)

(50) 제주산 고사리는 연하고 부드러워 잘 씹힌다.

* 제주산 고사리는 연하고 부드러워 열심히 씹힌다.

(51) 감자는 잘 갈린다.

* 감자는 깨끗하게 갈린다. ¹⁹⁾

(52) 물은 극성 물질인 이온 결합 화합물과 잘 섞인다. ²⁰⁾

* 물은 극성 물질인 이온 결합 화합물과 조심스럽게 섞인다.

예문(45-52)의 첫 번째 문장은 부사어가 의미상 비자주적이고 사람의 주관 의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각 중간구문의 부사어를“很小心, skillfully, 열심히”등 자주적인 부사어로 바꾸면 비문이 되거나 중간구문이 아닌 일반 사건을 표시하는 문장으로 된다.

중간구문의 부사어가 의미상 비자주적이어야 하는 특징은 중간구문의 구문 의미와 관련이 있다. 앞부분에 이미 밝힌 것은 중간구문의 구문 의미는 발화자가 화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표현하고 주어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즉, 중간구문의 기본적 의미 특징은 상태나 속성을 기술하는 정태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구문 전체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중간구문에 들어 있는 부사어도 화자의 주관 의지의 의미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예문(41)과 같이 “감자는 잘 갈린다”, 이 문장의 의미는 화자가 보기에 감자를 쉽게 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것은 화자의 감자의 속성에 대한 주관적인

¹⁷⁾ 원문: 中动句动词的后补成分形容词或副词必定是非自主的, 这种选择限制不是个别的、偶然的, 而是系统的、必然的.

¹⁸⁾ 여기의 중국어와 영어 예문은 何文忠 (2007) 의 예문을 재인용한 것이다.

¹⁹⁾ 이 문장은 비문이 아니지만 부사어가 변해서 주어 속성을 기술하는 중간구문이 아니고 사건을 표시하는 일반적인 문장으로 된다.

²⁰⁾ 예문(40-41)은 김푸른술(2016)의 예문을 재인용한 것이다.

판단이다. 그러나 자주적인 부사어 “깨끗하게”로 바꾸면 감자의 특징을 평가하는 문장이 아니게 된다. 이로써 부사어는 비사건성의 실현에 있어 중요한 토대가 됨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고는 한국어 “NP+ADV+V” 중간구문과 중국어의 “NP+V起来+ADV” 중간구문에 대해 검토했다. 한중 중간구문은 통사 측면에서 부사어를 필수로 요구하고 행위자는 통사 표면에 출현하지 않는 특징이 나타난다. 의미 측면에서 보면 상태성과 비사건성을 표현하고 행위자의 불특정한 지시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 구문문법의 시각에서 보면 중간구문의 구문 의미는 발화자가 화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표현하고 주어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다. 본고는 구문문법의 시각을 취하여 중간구문의 양태 의미, 주어, 그리고 부사어에 대해 해석했다. 중간구문이 총칭적 지시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중간구문의 양태의미와 연관된다고 보고 Davidse와 Heyvaert(2007)가 제기한 방안을 취하여 중간구문이 표하는 양태 의미에 대해 통일된 해석을 했다. 즉, Talmy(2000)의 “힘 역동적인 관계(force-dynamic relation)”라는 모델을 이용하여 “힘 역동적인 관계(force-dynamic relation)”에 존재하는 “추진(letting)”과 “방해(hindering)”의 대립적 관계를 통해 중간구문의 주어가 “증진(conducive)”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중간구문의 양태 의미는 “추진과 방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중간구문의 동사구는 양태 의미를 지닌 동시에 주관화가 생긴 것이다. 즉, 화자가 중간구문으로 표현할 때 자기 입장, 생각, 의견 등을 같이 표명해서 주관적인 감각이 더 심화되면서 구문 자체의 의미가 약해진 것이다. 이는 주관화의 몇 가지 구체적인 체현을 통해 한국어 중간구문의 주관화 양상을 검증했다. 그 중에 특히 ‘주어가 아닌 문장 성분’이 ‘문장 주어’로 되는 것과 객관적 주어로부터 화자 주어로 되는 것으로부터 한국어 중간구문의 주관화를 뚜렷하게 엿볼 수 있다. 그 외에 본고에서는 중간구문의 주어의 의미 역할에 대해 고찰했다. 중간구문의 주어는 기저 목적어인 것이 대다수이지만 “도구, 장소, 시간” 등 의미를 표현하는 문장 성분도 주어가 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간구문의 구문 의미와 주어의 “증진”의 특징을 함께 고려하면 해석할 수 있다. “증진”의 특징을 가지고 술어의 “추진”이나 “방해”의 힘과 역동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합격된 중간구문이다. 즉, 주어가 “증진”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술어의 “추진”이나 “방해”의 힘과 역동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면 이는 합격된 중간구문이 될 수 있다. 마지막 부분에 중간구문의 부사어를 검토했다. 범언어적으로 볼 때 중간구문은 부사어를 필수로 요구하고 의미성 부사어는 비자주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중간구문의 구문 의미와 관련된다. 즉, 부사어의 사용때문에 구문 전체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 중간구문에 들어 있는 부사어도 화자의 주관 의지의 의미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병규. 2012. 구문문법 관점에서의 중국어 어휘와 구문의 상호작용. 언어정보연구소 발표문.
- 김보영. 2012. 구문문법의 관점으로 본 중국어 이중타동구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푸른솔. 2016. 한국어 중간구문에서 요구되는 부사어. 개신어문연구, 113-143.
- 김혜경. 2011. 현대중국어 중간문(Middle Construction)에 관한 고찰. 중국어 교육과 연구, 133-154.
- 남수경. 2007. 한국어 피동문의 문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연재훈. 1989. 국어 중립 동사 구문에 대한 연구. 한글, 165-188.
- 임홍빈. 1998. 국어 문법의 심층 3: 어휘 범주의 통사와 의미, 태학사.
- 전부미. 2013. 중간구문의 구조와 성향성. 영어학, 913-935.
- 천호재. 1999. 日本語와의 對照에서 본 韓國語의 中間構文. 일본학보. 283-299.
- 천호재. 2002. 한국어의 중간 자동사 구문과 중간 수동 구문에 관한 연구. 어학연구 38:1, 211-239.
- 천호재. 2005. 일본어와 중국어의 중간문. 동북아 문화연구, 25-49.
- K. Davidse and L. Heyvaert. 2007. On the middle voice: an interpersonal analysis of the English middle. Linguistics 45-1 (2007), 37-83
- 曹宏. 中动句对动词形容词的选择限制及其理据. 语言科学 2004年第1期, 11-28.
- 古川裕. 2005. 现代汉语的中动语态句式, 汉语学报 2005年第2期, 41-56.
- 何文忠. 2007. 中动构句选择限制的认知阐释. 外语研究 2007年第1期, 17-26.
- 刘正光. 2008. 中国外语. 语言解释的维度-以中动构式为例. 中国外语 2008年第5期, 35-48.
- 沈家煊. 2001. 语言的‘主观性’和‘主观化’. 外语教学与研究 2001年第4期, 17-28.
- 徐盛桓. 2002. 语义数量特征与英语中动结构. 外语教学与研究 2002年第6期, 436-443.

한국어 이유·원인구문에 대한 연구

-'때문', '탓', '덕분', '말미암다', '인하다'

최 련

<개요>

‘때문’은 선행어로 명사와 결합하며 용언과 결합할 때는 보문자 ‘기’, 그리고 ‘-ㄴ/은’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관형절과 공기한다. ‘때문’은 후행요소로 처격조사 ‘에’와 서술격조사 ‘이다’ 그리고 부사격조사 ‘으로’와 공기한다. ‘때문’은 선어말 어미 ‘-었, -ㄴ, -겠’과 공기하며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을 구성하는 종결어미와 공기한다.

‘탓’은 선행어로 명사가 올 수 있다. ‘탓’은 용언과 결합할 때 ‘-ㄴ/은’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관형절과 공기한다. 형용사와 결합할 때는 형용사로 체언을 수식하고 ‘탓’과 공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 ‘탓’은 후행요소로 처격조사 ‘에’와 서술격조사 ‘이다’, 그리고 부사격조사 ‘으로’와 공기한다. ‘탓’은 선어말어미 ‘-었, -ㄴ, -겠’과 공기하며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을 구성하는 종결어미와 공기한다.

‘덕분’은 선행어로 명사가 올 수 있다. ‘덕분’은 용언과 결합할 때 ‘-ㄴ/은’은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관형절과 공기한다. 형용사와 ‘덕분’에는 직접 결합하지 못하며 형용사로 명사를 수식하고 다시 ‘덕분’에와 공기한다. ‘덕분’은 후행요소로 처격조사 ‘에’와 서술격조사 ‘이다’와 부사격조사 ‘으로’와 공기한다. ‘덕분’은 선어말어미 ‘-었, -ㄴ, -겠’과 공기하며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을 구성하는 종결어미와 공기한다.

‘말미암다’는 선행어로 명사가 오며 부사격조사 ‘로/으로’와 연결하여 공기한다. 후행요소로는 부사격조사 ‘로/으로’와 까닭이나 근거 따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아’와 보조사 ‘은/는’과 공기한다. ‘말미암다’는 선어말어미 ‘-었, -ㄴ, -겠’과 공기하며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을 구성하는 종결어미와 공기한다.

‘인하다’는 선행어로 명사가 오며 부사격조사 ‘로/으로’와 연결하여 공기한다. 후행요소로는 까닭이나 근거 따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여’와 공기한다. ‘인하다’는 선어말어미 ‘-었, -ㄴ, -겠’과 공기하며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을 구성하는 종결어미와 공기한다.

공정과 부정 면에서 ‘때문에’는 공정과 부정에 동시에 쓰이고 있으며 ‘부정’에 치우치는 느낌을 주면서도 완전히 긍정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덕분에’는 반드시 긍정표현에 쓰이고 ‘탓에’는 반드시 부정표현에 쓰인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 ‘말미암아’와 ‘인해’는 긍정이나 부정적인 현상을 초래한다기보다는 단지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나타내는 면에서 긍정과 부정적인 면으로 분석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구어체와 문어체 차이로 볼 때 ‘때문’, ‘덕분’, ‘탓’은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모두 쓰일 수 있는 매우 활동적인 양상을 보이지만 ‘말미암다’, ‘인하다’는 반대로 구어체에 쓰이면 어딘가 어색하고 친근한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소외감을 느끼는 언어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어체에서는 늘 사용되는 말로서 활동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핵심어: ‘때문’, ‘탓’, ‘덕분’, ‘말미암다’, ‘인하다’

1 서론

1.1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이유·원인 구문에 대해 논의하고 그것들의 통사적 특성과 화용론적 특성 그리고 인지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로 발화되는 한국어 문장을 관찰하면, 단문보다는 복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복문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접속어미의 몫인데, 한국어 접속어미는 종류도 매우 다양할 뿐더러 개별 접속어미의 문법적 기능 또한 일도일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어서 오랫동안 관심이 집중되는 연구 대상이기도 하다.

한국어에서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의 수는 많다. ‘-니’, ‘-니까’, ‘-아서/어서’, ‘- 때문에’, ‘-바람에’, ‘-탓에’, ‘-길래’, ‘-기에’, ‘-므로’, ‘-하여’, ‘힘입어’, ‘-덕분에’, ‘-말미암아’, ‘-인해’ 등 다양하다. 하지만 한 문장 속에서 같은 의미를 갖고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 쓰임이 같은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문장이 원인이나 이유를 포함한 문장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나열한 접속사들이 모두 자유롭게 대신해서 쓰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똑같이 原因・理由를 나타내는 표현이면서 그 의미나 용법 등이 비슷해서 차이점을 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조차 혼동해서 사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외국어를 학습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유의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일 것이다.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들은 해당 언어의 유의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의식적인 문법지식을 필요로 하게 된다. 즉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어를 학습할 때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에 대한 문법적 지식과

각각의 쓰임에 대하여 아는 것이 필요하다.

1.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고의 연구 대상이 한국어 이유·원인 구민인 만큼 먼저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목록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다양하다.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이 동일한 의미와 용법으로 사용된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접속사들이 필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은 연결어미와 관형표현으로 나누었다. 연결어미에는 ‘-기에’, ‘-ㄴ데’, ‘-ㄴ만큼’, ‘-ㄴ지라’, ‘-노라니’, ‘-느니만큼’, ‘-느라’, ‘-느라고’, ‘-는데’, ‘-는만큼’, ‘-는지’, ‘-니’, ‘-니까’, ‘-다’, ‘-다가’, ‘-다고’, ‘-던지라’, ‘-르지니’, ‘-라’, ‘-라고’, ‘-라기에’, ‘-라길래’, ‘-라니’, ‘-라서’, ‘-므로’, ‘-아서’, ‘-았던만치’ 등이 있다. 관용표현에는 ‘-기 때문에’, ‘-는 바람에’, ‘-는 탓’, ‘-는 통에’, ‘-로 말미암아’, ‘-로 인하여’, ‘-아 놓아서’, ‘-는 덕분에’, ‘-라고 해서’ 등이 있다.

필자는 관용표현에서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인 ‘때문’, ‘탓’, ‘덕분’과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동사 ‘말미암다’, ‘인하다’ 등을 본고의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고는 이유·원인 의존 명사와 이유·원인 동사의 각각의 통사적 특성과 화용론적 특성, 인지적 특성을 살펴본다. 통사적 특성은 주로 선행요소와의 결합 양상, 후행요소와의 결합 양상, 후문 종결형과의 결합 양상 세 가지 면으로 살펴본다.

다음 이유·원인의 의존 명사와 동사의 화용론적 특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유·원인의 의존 명사와 동사의 인지적 특성을 살펴본다.

이 글에서 제시한 예문은 종전 연구의 논저나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말뭉치를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그중 ‘철수가 밥을 먹었다.’ 등과 같은 기초적인 문장은 직접 작성하였다.

2 통사적 특성

2.1 ‘때문’

2.1.1 선행요소와의 결합 양상

먼저 체언과의 결합 양상에 대해 살펴보자.

(1) 가. 그는 빛 때문에 고생을 했다. (표준국어대사전)

나.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표준국어대사전)

다. ‘우산꼭지 하나 때문에 그만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조선일보)

*`우산꼭지 일 때문에 그만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조선일보)

‘때문’ 앞에 체언이 올 수 있으며 명사, 대명사일 경우 제한이 없지만 수사는 반드시 서수를 나타내는 수사여야 한다.

다음으로 용언과의 결합양상에 대해 살펴보자.

(2) 가. 일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다. (표준국어대사전)

나. 내가 기쁜 것은 네가 오기 때문이다. (표준국어대사전)

다. 장수 한 명이 걸린 때문으로 해서 이렇게 참패가 될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이다. (박종화, 임진왜란)

(2가) ‘때문’앞에는 ‘많다’는 형용사, (2나) ‘때문’앞에는 ‘오다’라는 동사가 왔으며 이 때 ‘-기’로 연결되었다. ‘기’는 주시다시피 불구보문(deformend sentential complement)을 형성하는 보문자(complementizer)로서 다루어 왔다¹. (2다)에서 ‘때문’앞에는 ‘-ㄴ/은’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여 관형절을 이루었으며 ‘때문’과 결합하였다.

‘때문’에 앞에는 용언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용언과 결합할 때에는 보문자 ‘기’와 결합하거나 관형절 형태로 결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시간적 요소와의 결합양상에 대해 살펴보자².

성낙수(1978)에서는 현재형, 과거형 ‘-았/었’, ‘-겠’과도 잘 쓰일 수 있다고 하였다. (3)이 바로 그 예문이다.

(3) 가. 춥기 때문에 옷을 입었다.

나. 비가 왔기 때문에 물이 불었다.

다. 비가 오겠기 때문에 안 가려는 것이다.

2.1.2 후행요소와의 결합 양상

다음 (4)은 의존명사 ‘때문’이 처격조사 ‘-에’와 서술격조사 ‘이다’와 부사격조사 ‘-으로’와 어미 ‘도’, ‘만’과 공기하는 양상이다.

(4) 가. 일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다. (표준국어대사전)

나. 내가 기쁜 것은 네가 오기 때문이다. (표준국어대사전)

다. 장수 한 명이 걸린 때문으로 해서 이렇게 참패가 될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이다. (박종화, 임진왜란)

라. 물건 값이 오른 것은 흉년이 들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중앙일보)

마. 산다는 것은 명예때문도, 돈때문도 아니다. (조선일보)

(4)에서처럼 ‘때문’은 처격조사 ‘에’와 서술격조사 ‘이다’와 부사격조사 ‘으로’와 어미

¹ 이를 최(1937)에서 “움직씨”, “어떻씨”, “잡음씨”의 “끝바꿈” 중 “감독법”으로서 “이름꼴”이라고 했다. 변형 생성론자들도 song(1967), Cook(1968), Yang(1972), 남(1973)에서는 “보문자”로 다루었다.

² 성낙수(1978)의 p167 내용을 옮겨왔다.

‘도’, ‘만’과 공기할 수 있다.

2.1.3 후문 종결형과의 결합 양상

필자는 후문의 종결형³을 ‘때문’의 선행요소가 명사일 때와 동사일 때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다음 예문 (5)는 ‘때문’의 선행요소가 명사일 경우이다.

(5) 가. 그는 빗 때문에 고생을 했다. (표준국어대사전)

나.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표준국어대사전)

다. 나에게 어떤 버릇이 있는지 생각하여 보고, 그 버릇 때문에 일어난 일을 말하여 봅시다. (초등학교 교과서)

라. 아빠, 저 때문에 다른 걱정은 마세요. (가면의 춤)

(5)에서처럼 의존명사 ‘때문’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와 특별한 제약 없이 공기할 수 있다.

다음 예문 (6)은 ‘때문’의 선행요소가 동사일 경우이다.

(6) 가. 일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다. (표준국어대사전)

나. *바쁘기 때문에 가도 괜찮아요? (성난수 1978)

다. *비가 왔기 때문에 가지 맙시다. (성낙수 1978)

라. *책이 많기 때문에 보십시오. (성낙수 1978)

성낙수(1978)에서는 후문의 종결형이 의문, 청유, 명령형이면 비문법적이라고 하였다.

2.2 탓

2.2.1 선행요소와의 결합 양상

먼저 체언과의 결합 양상에 대해 살펴보자.

(7) 가. 이번 사고는 순전히 내 탓이다. (표준국어대사전)

나. 그는 급한 성격 탓에 나와 충돌이 잦다. (표준국어대사전)

(7)에서처럼 ‘탓’ 앞에 체언이 올 수 있으며 명사, 대명사일 경우 제한이 없지만 수사가 오는 예문은 찾기 힘들며 ‘탓’앞에는 수사가 올 수 없다.

다음으로 용언과의 결합양상에 대해 살펴보자.

(8) 가. 잘못이 있다면 서울시가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탓이다. (조선일보)

나. 그는 성격이 덜렁대는 탓에 차분한 후배 10대들의 바둑에 엉뚱하게 먹이가 된다. (뉴스피플)

(8)에서처럼 ‘탓’에 앞에 오는 용언에 대해 제한이 없으며 결합할 때에는 ‘-ㄴ/는’관형

³ 종결형이란 종결어미로 끝나는 활용형을 가리키는데 동사에는 평서형·감탄형·의문형·명령형·청유형이 있고, 형용사에는 평서형·감탄형·의문형이 있다. 여기에서는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으로 나누어 다루기로 한다.

사형 어미가 결합하여 공기한다.

마지막으로 시간적 요소와의 결합양상에 대해 살펴보자.

(9) 가. 과식을 하는 탓에 소화가 안된다.

나. 과식을 한 탓에 소화가 안된다.

다. 과식을 했던 탓에 소화가 안됐다.

라. *과식을 하겠는 탓에 소화가 안 되겠다.

(9)에서처럼 현재형(9가), 과거형(9나,9다)는 가능하지만 미래형(9라)는 비문법적이다.

2.2.2 후행요소와의 결합 양상

다음 (10)는 의존명사 ‘탓’이 처격조사 ‘-에’와 서술격조사 ‘이다’와 부사격조사 ‘-으로’와 어미 ‘도’, ‘만’과 공기하는 양상이다.

(10) 가. 물가가 오르는 원인은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탓에 있다. (연세현대한국어사전)

나. 잘못이 있다면 서울시가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탓이다.(조선일보)

다. 불한순간 영웅 대접을 해준 뒤 잊어버린 세상 인심탓도 있다. (동아일보)

라. 완전 무시하고 무조건 정부 탓만 하고 있다.(조선일보)

마. 방 안은 오랫동안 밀폐된 탓으로 숨이 막힐 듯이 무덥고 컴컴했다. <홍성원, 육이오>

(10)에서처럼 ‘탓’은 처격조사 ‘에’와 서술격조사 ‘이다’와 부사격조사 ‘으로’, 그리고 어미 ‘도’와 ‘만’과 공기할 수 있다.

2.2.3 후문 종결형과의 결합 양상

(11) 가. 남 탓만 하다. /남 탓도 하다. /나쁜 탓으로 돌리다.

나. 남 탓만 하자. /남 탓도 하자. /나쁜 탓으로 돌리자.

다. 남 탓만 하니? /남 탓도 하니? /나쁜 탓으로 돌리니?

라. 남 탓만 해라. /남 탓도 해라. /나쁜 탓으로 돌려라.

(11)에서처럼 의존명사 ‘탓’은 후행요소 ‘으로’, ‘도’, ‘만’과 결합하여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와 특별한 제약 없이 공기할 수 있다.

2.3 덕분

2.3.1 선행요소와의 결합 양상

먼저 체언과의 결합 양상에 대해 살펴보자.

(12) 가. 아주머니 덕분에 저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세한국어사전)

나. 네 덕분에 많이 웃었어.

다. 7년 전 그렸던 그림 하나 덕분에 ‘2200억’ 돈방석에 앉은 화가 (인사이트 전자 파일)

(12)에서처럼 ‘덕분’ 앞에 체언이 올 수 있으며 명사, 대명사일 경우 제한이 없지만 수사는 반드시 서수를 나타내는 수사여야 한다.

다음으로 용언과의 결합양상에 대해 살펴보자.

(13) 가. 눈이 내리는 덕분에 사람들에게 들키지는 않았으나 그 대신 몸이 온통 얼어붙어 버렸다.(연세한국어사전)

나. 따뜻한 날씨 덕분에 대 청소했어요.

다. *날씨가 따뜻한 덕분에 대 청소했어요.

(13)에서처럼 ‘덕분’에가 동사와 결합할 때는 제한이 없으며 형용사와 결합할 때에는 형용사와 ‘덕분’에가 직접 결합하지 못하며 형용사로 명사를 수식하여 다시 ‘덕분’에와 공기한다. 이때 ‘-ㄴ/은’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여 관형절을 이루었으며 ‘덕분’과 공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간적 요소와의 결합양상에 대해 살펴보자.

(14) 가. 눈이 내리는 덕분에 들키지 않았다.

나. 눈이 내린 덕분에 들키지 않았다.

다. *눈이 내리겠는 덕분에 들키지 않겠다.

(14)에서처럼 현재형, 과거형은 가능하지만 미래형은 비문법적이다.

2.3.2 후행요소와의 결합 양상

다음 (15)는 의존명사 ‘덕분’이 처격조사 ‘-에’와 서술격조사 ‘이다’와 부사격조사 ‘-으로’, 어미 ‘-도’와 공기하는 양상이다.

(15) 가. 아주머니 덕분에 저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세한국어사전)

나. 서로 다른 크기의 화석 조각을 하나로 합쳐 얼굴 모습을 재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원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덕분이다.

라. 이 곳도 염려하여 주시는 덕분으로 별고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마. 귀엽고 깜찍한 외모 덕분도 있다. (조선일보)

2.3.3 후문 종결형과의 결합 양상

(16) 가. 선생님 덕분으로 생각한다.

나. 누구 덕분으로 생각하니?

다. 선생님 덕분으로 생각하자.

라. 선생님 덕분으로 생각해라.

(16)에서처럼 의존명사 ‘덕분’은 후행요소 ‘으로’와 결합하여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와 특별한 제약 없이 공기할 수 있다.

2.4 말미암다

2.4.1 선행요소와의 결합 양상

먼저 체언과의 결합 양상에 대해 살펴보자.

- (17) 가. 오늘은 폭우로 말미암아 자율 학습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표준국어대사전)
나. 난데없는 구렁이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은 삽시에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다.《윤홍길, 장마》

(17)에서 ‘폭우’와 ‘출현’은 명사이며 명사와 ‘말미암다’는 부사격조사 ‘로/으로’와 연결하여 공기한다. ‘말미암다’는 앞에 명사와 제한 없이 공기할 수 있다. ‘말미암다’는 동사와 공기할 수 없으며 관형절과 공기할 수 없다.

2.4.2 후행요소와의 결합 양상

다음 (18)은 동사 ‘말미암다’가 부사격조사 ‘-로/으로’와 까닭이나 근거 따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아’와 보조사 ‘-은/는’과 공기하는 양상이다.

- (18) 가. 오늘은 폭우로 말미암아 자율 학습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연세한국어사전)
나. 마음의 병은 탐욕으로 말미암고 탐욕은 몸의 병을 불러온다. (연세한국어)
다. 달균이가 돈을 벌어 오겠다고 절 골을 뜯 것도 그로 말미암은 가난 때문이었다.《한승원, 겨울 폐사》

(18)에서처럼 ‘말미암다’는 부사격조사 ‘-로/으로’와 까닭이나 근거 따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아’와 보조사 ‘-은/는’과 공기할 수 있다.

2.4.3 후문 종결형과의 결합 양상

(19)은 평서문, 의문문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와 공기하는 예문이다.

- (19) 가. 지방 관리들의 부정 부패로 말미암아 오히려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조선일보)
나. 생활환경의 파손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종말을 맞을까요? (조선일보)

(19)에서처럼 동사 ‘말미암다’는 평서문, 의문문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와 특별한 제약 없이 공기할 수 있다. 하지만 명령문과 청유문과 공기하는 종결어미와 공기하는 예문을 찾기 힘들다. 이로부터 명령문과 청유문을 공기하는 종결어미와 공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2.5 인하다

2.5.1 선행요소와의 결합 양상

먼저 체언과의 결합 양상에 대해 살펴보자.

(20) 가. 우리나라에는 지방간으로 인하여 만성피로를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많기도...
100% 완치가 가능하다.

나. 미치오 박사는 또한 "지구는 인류로 인하여 머지않아 스스로 자멸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20)에서 ‘지방간’과 ‘인류’는 명사이며 ‘인하다’와는 부사격조사 ‘로/으로’와 연결하여 공기한다. ‘인하다’는 체언과 제한 없이 공기할 수 있다.

2.5.2 후행요소와의 결합 양상

(21)은 동사 ‘인하다’가 까닭이나 근거 따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여’와 공기하는 양상이다.

(21) 가. 나는 가난하게 살기는 했지만 돈으로 인하여 인간성이 타락되지는 않았다.
(연세한국어사전)

나. 장기간 음주로 인하여 지방간이 형성되었다. (조선일보)

(21)에서처럼 ‘인하다’는 까닭이나 근거 따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여’와 공기할 수 있다.

2.5.3 후문 종결형과의 결합 양상

(22) 가. 장기간 음주로 인하여 지방간이 형성되었다.(조선일보)

나.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 상처받은 적 있나요?

(22)에서처럼 동사 ‘인하다’는 평서문, 의문문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와 특별한 제약 없이 공기할 수 있다. 하지만 명령문과 청유문과 공기하는 종결어미와 공기하는 예문을 찾기 힘들다. 이로부터 명령문과 청유문을 공기하는 종결어미와 공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3 화용론적 특성

3.1 긍정과 부정

(23) 가. 과학고생들은 내신의 불리함 때문에 3학년에 올라가기 전 전체의 3분의 1이 자퇴를 해 검정고시로 대학 ... (동아일보사, 동아일보사, 1999)

나. 비가 내렸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었다.

다. 매력적인 외모와 쾌활한 천성 덕분에 규혁은 늘 여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라. 나이가 많은 탓에 작업 속도도 더더 공사 일정이 당초 예정보다 20일 이상 늦어지고 ... (조선일보사, 조선일보사, 1991)

마. 부장님의 소개로 말미암아 이 글로벌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바. 리나라에는 지방간으로 인해 만성피로를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많기도... 100% 완치가 가능하다.

위에서 다섯 가지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분석해 보았다. 결과 ‘때문에’는 긍정과 부정에 동시에 쓰이고 있으며 ‘부정’에 살짝 치우치는 느낌을 주면서도 완전히 긍정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덕분에’는 반드시 긍정표현에 쓰이고 ‘탓에’는 반드시 부정표현에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말미암아’와 ‘인해’는 긍정이나 부정적인 현상을 초래한다기보다는 단지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나타내는 면에서 긍정과 부정적인 면으로 분석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3.2 긍정과 부정

21세기 세종계획’의 말뭉치 찾기에서 현대 한국어(문어)말뭉치와 현대 한국어(구어)말뭉치 중 ‘때문’, ‘덕분’, ‘탓’, ‘말미암다’, ‘인하다’등 표현들이 나타나는 검색개수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용빈도수는 ‘때문’, ‘덕분’, ‘탓’, ‘말미암다’, ‘인하다’를 구어체와 문어체로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24) 가. 너 때문에 일을 망쳤잖아.

나. 교수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 동생이 엄마한테 말한 탓에 엄마한테 혼났어.

라. *너로 말미암아 일이 시작된거야.

마. 집안 사정으로 인해 접었던 꿈을 다시 도전하고 싶어요.

이와 같이 구어체로 사용되는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들로는 ‘때문에’, ‘덕분에’, ‘탓에’등이 있지만 ‘말미암아’와 ‘인해’는 전혀 구어체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로 나타났다. (마)와 같은 경우는 매우 공식적인 장소에서 하는 말로서 친구나 가족과 대화할 때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이다.

(25) 가. 과학고생들은 내신의 불리함 때문에 3학년에 올라가기 전 전체의 3분의 1 이자퇴를 해 검정고시로 대학 ... (동아일보사, 동아일보사, 1999)

나. 매력적인 외모와 쾌활한 천성 덕분에 규혁은 늘 여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적극적으로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 (김지혜, 영언문화사,

2001)

다. 나이가 많은 탓에 작업 속도도 더더 공사 일정이 당초 예정보다 20일 이상 늦어지고 ... (조선일보사, 조선일보사, 1991)

라.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컴퓨터로 말미암아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컴퓨터미술과 컴퓨터음악이 생겨나고 컴퓨터를 잘 아는 ... (조환규, 창작과 비평사, 1992)

마. 우리나라에는 지방간으로 인해 만성피로를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많기도... 100% 완치가 가능하다. (메디컬투데이 생활/문화, 2010)

(25)에서 ' 때문', '덕분', '탓', '말미암다', '인하다'등은 모두 문어체에 쓰일 수 있다. 쓰임이 매우 자연스럽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표현방식들일 뿐만 아니라 TV뉴스나 매체, 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표현들이다.

이로부터 ' 때문', '덕분', '탓'은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모두 쓰일 수 있는 매우 활동적인 양상을 보이지만 '말미암다', '인하다'는 반대로 구어체에 쓰이면 어딘가 어색하고 친근한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소외감을 느끼는 언어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어체에서는 늘 사용되는 말로서 활동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4 인지적 특성-도상성 이론

임지룡(2008:329)에 따르면, 도상성은 ‘모방적 도상성’과 ‘구조적 도상성’으로 하위 분류할 수 있는데, 모방적 도상성은 의성어와 같이 자연 상태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기호의 주변적 성격을 띤다. 구조적 도상성은 언어형태의 어떤 특징들이 의미구조의 양상과 대응하는 것으로서 도상성의 핵심 영역이 되는데 양적 도상성, 순시적 도상성, 거리적 도상성으로 갈라 볼 수 있다. 양적 도상성의 원리는 개념의 복잡성 정도가 언어적 재료의 양과 비례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형태적 복잡성은 개념적 복잡성과 일치하고 더 긴 언어적 표현이 더 많은 양의 개념적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언어적 재료의 양은 처리되는 정보의 중요성 및 예측 가능성의 정도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26) 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기에 좀 더 지켜보겠다.

나. 아직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26가)에서는 문법형태에 어휘가 붙고 거기에 또 문법형태가 붙어서 이루어진 문법적 관용표현이 양적 도상성에 따른 강조표현 기능을 한다. (26나)에서 까닭이나 원인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때문’과 원인을 나타내는 조사 ‘-에’가 동의중복으로 이루어진 ‘-기 때문에’는 연결어미 ‘-기에’보다 원인에 대한 강조가 더 강하게 비친다⁴.

(27) 가. 선배 덕에 대학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⁴ 강보유(2014), 「인지언어학과 한국어 교육」

나. 선배님 덕분에 대학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
(27나)에서는 ‘덕’과 ‘에’사이에 존경을 나타내는 ‘분’을 추가하여 원인에 대한 강조가 더 강하게 비춰진다.

(28) 가. 자동차 배기카스로 대기가 오염되고 있다.

나. 자동차 배기카스로 하여 대기가 오염되고 있다.

다. 자동차 배기카스로 인하여 대기가 오염되고 있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28다)에서 ‘-로 인하여’는 원인을 나타내는 격조사 ‘-로’와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동사 ‘인하다’, 그리고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여’가 삼중으로 겹쳐 이루어진 것이다. 강조의미 기능으로 보면, 삼중의 ‘-로 인하여’는 이중의 ‘-로 하여’보다 더 강하고 이중의 ‘-로 하여’는 단일형의 ‘-로’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 단일형보다 복합형이 더 강한 강조의미 기능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5 결론

지금까지 이유·원인 구문 중 복합형연결어미 중에서 복합형연결어미를 구성하는 의존 명사와 동사 ‘때문’, ‘탓’, ‘덕분’, ‘말미암다’, ‘인하다’를 살펴보았다.

위 내용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이유·원인 구문에서의 연결어미의 분류를 정하고 복합형연결어미의 목록을 설정하여 개별 의존 명사들을 자세히 고찰하고, 통사적 제약을 밝히고 화용론적 특성을 밝히려 한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었다. 이유·원인 구문에서 복합형연결어미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 것이 그 의의가 될 수 있겠으나 통사적 제약에서 좀 더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고 화용론적 특성의 해석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전경과 배경, 도상성 연구, 유표성과 무표성, 아이러니 연구 등 인지언어학적으로 분석이 부족하다. 추후 이런 점들을 보완할 것을 약속하며 논문을 마친다.

<참고문헌>

- 강보유(2009), ‘한중 언어 문화-인지구조 비교로부터 본 한국어문화 교육방법 연구’, 「국제고려학」 제13호 국제고려학회
- 강보유(2011), ‘한국어 연구 시각: 언어표현의 객관성과 주관성’, 「국어국문학의학문 경계와 융합」 제5회 국어국문학회 전국 학술대회 논문집
- 강보유(2014), ‘인지언어학과 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연구」 제9호, 태학사
- 고 박(2016), 「한국어와 중국어의 원인·이유 접속문에 대한 연구」, 국내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광해(1978), ‘국어 유의어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적 연구’, 「국어교육」 61,p, 183-199, 한국국어 교육연구회
- 김동환(2013), 「인지언어학과 개념적 혼성 이론」, 도서출판 박이정
- 김희은(2017), 「한국어 이유·원인 연결표현 연구」,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 박대범(2008),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이유·원인의 연결표현 교육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 성낙수(1978), “이유,원인을 나타내는 접속문 연구”, ([한글](#), [Vol.- No.162](#), [1978])

한중 가정조건문 개념영역 대조연구

‘-(으)면, -거든’과 ‘如果’ 조건문을 중심으로

악일비

[요약] 이 논문은 인지언어학에 입각해서 沈家煊(2003)의 개념영역(概念域) 이론과 Traugott(1995)의 주관성 이론으로 한국어 ‘-(으)면, -거든’ 조건문과 중국어 ‘如果’ 조건문의 의미적 특징을 고찰, 대조하였다. 개념영역은 내용영역(行域), 인식영역(知域)과 화행영역(言域)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관성 강약에 따라 ‘화행영역>인식영역>내용영역’ 순서로 나온다. 이 3 개의 개념영역은 주관성 정도의 연속체를 구성한다. ‘-(으)면, -거든’과 ‘如果’ 중에 ‘-거든’ 조건문은 화행영역에서만 이해가 가능해서 ‘-(으)면’과 ‘如果’보다 주관성이 더 강하다. ‘-(으)면’과 ‘如果’는 의미적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내용영역에서 이해될 때 조건, 결론 사이의 논리성, 객관성에 대해 요구가 다르다. 이 외에 개념영역의 의미중첩 현상도 확인되었다.

[키워드] 가정조건문, 개념영역, 주관성, 한국어 조건 연결어미, 중국어 조건 연사

1. 서론

한중 조건문에 대한 연구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깊이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구를 보면, 한국어 조건 연결어미와 중국어 조건 관련사의 의미, 통사적 특징을 대조하는 성과가 많았다. 선행연구에서 고찰된 한국어 조건 연결어미는 주로 ‘-(으)면, -거든’과 ‘-어야’ 등이고 중국어 조건 연사는 주로 ‘如果’와 ‘只要’ 등이다.¹ 邵敬敏(2008: 247)에 따르면 조건문은 크게 가정조건문과 특정조건문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가정조건문은 다시 충분조건문, 필요조건문과 보편조건문으로 나누어진다. 이 외에 조건문을 광의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으)면, -거든’과 ‘如果’는 모두 가정조건문의 표기이다.

본 논문은 沈家煊(2003)에서 제시된 개념영역 이론과 Traugott(1995)에서 제시된 주

¹ ‘假如’와 ‘倘若’ 등을 가정 조건표기로 고찰하는 선행연구도 있다. 吕叔湘(1980: 412-413)에 따르면 이 두 단어는 문어체 성격이 ‘如果’보다 강하지만 의미 면에서 ‘如果’와 비슷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如果’의 의미적 특징만 고찰하겠다.

관성 이론으로 한중 가정조건문의 의미, 화용적 특징을 고찰, 대조하겠다.

1. 이론적 배경

沈家煊(2003: 195)에 따르면 인간의 개념체계는 영역(域)을 구성하는데 그 영역은 내용영역(行域), 인식영역(知域)과 화행영역(言域) 3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3 개의 영역은 서로 독립되어 있지만 연관성을 가진다. 단순한 사실을 기술하거나 두 대상 간의 객관적, 직접적 연관성을 기술하는 의미기능은 내용영역에 속한다. 인지능력을 통해 어떤 상황을 추측하거나 두 대상 간의 연관성을 추론하는 의미기능은 인식영역으로 분류된다. 명령, 청유, 제안 등 언어행위를 나타내는 의미기능은 화행영역으로 간주된다. 위 개념영역에서 내용영역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인식영역과 화행영역은 은유 기제에 의해 내용영역에서 확장된 것이다. 沈家煊(2003)의 개념영역 이론에 의하면 명제 ‘p 이면 q 이다’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3 가지 이해가 가능하다.

(1) 내용영역: p 라는 조건이 있어서 q 라는 결과가 나타난다. p 가 존재한다는 것은 q 가 나타나는 충분조건이다.

(2) 인식영역: p 라는 조건이 있어서 화자는 인지능력으로 q 라는 결론을 추론한다. 조건 p 는 결론 q 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 화자가 결론 q 를 추론하는 충분조건이다.

(3) 화행영역: p 라는 조건이 있어서 화자는 q 라는 구체적 언어행위를 한다. 조건 p 는 언어행위 q 를 유발하는 충분조건이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분류기준으로 한국어 ‘-(으)면, -거든’ 조건문과 중국어 ‘如果’ 조건문의 의미, 화용적 기능을 고찰, 대조하겠다.

사람이 말을 할 때 발화 내용에 대한 주관적인 입장, 태도 혹은 감정을 늘 드러낸다. 일부 언어에서 주관성 차이에 따라 사용되는 구조형식이 다른데 이런 인지적 차이로 인해 생긴 언어적 차이는 주관화라고 한다. Traugott(1995)는 주관화의 몇 가지 특징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한중 조건문과 관련된 두 가지 특징은 아래와 같다.²

(1) 명제 기능에서 화용 기능으로 전환된다.

(2) 객관적 의미에서 주관적 의미로 전환된다.

개념영역에 따라 ‘-(으)면, -거든’ 과 ‘如果’ 조건문의 의미기능을 고찰한 후, 위에서 제시된 기준으로 각 개념영역에서 조건문의 주관화 정도를 분석하겠다.

² 주관화 특징에 대한 설명은 沈家煊(2001: 273)에서 재인용된 내용이다.

2. 한국어 가정조건문의 개념영역 의미

3.1 ‘-(으)면’ 조건문의 내용영역 의미

‘-(으)면’ 조건문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내용영역에 있다. 내용영역에서 조건문은 선행절 조건 아래 후행절 결론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을 나타낸다.

- (1)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진다.
- (2) 나는 내년이면 스무 살이다.
- (3) 아기가 백날이 되면 백일잔치를 연다.

예문(1)에서 선행절은 규칙성 조건이다. ‘겨울이 되면’이라는 조건과 ‘날씨가 추워진다’라는 결론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서 내용영역에서 이해된다. 예문(2)와 (3)의 선행절은 각각 객관적 사실 조건과 사회적 관습 조건인데 후행절 결론과의 긴밀한 논리적 연관성을 가진다. 내용영역에서 이해되는 조건문은 대부분 경우에 유일하고 확정된 결론이 있다. 그리고 선, 후행절은 모두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³ 그리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등 주관성이 강한 부사 혹은 관용 표현과 공기하기 어렵다.

- (1)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진다.
*내가 알기로는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진다.
- (2) 나는 내년이면 스무 살이다.
*나는 내년이면 아마 스무 살이다.
- (3) 아기가 백날이 되면 백일잔치를 연다.
?내가 알기로는 아기가 백날이 되면 백일잔치를 연다.

조건과 결론 간의 객관적 연관성이 강해서 주관적 표기를 붙인 후 예문(1)과 (2)는 각각의미 과잉과 논리적 모순으로 인해 비문이 된다. 예문(3)의 조건과 결론은 특정한 문화에서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서 외국인이 예문(3)을 쓰면 굳이 비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 주관적인 표기를 붙여도 추측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 ‘-에 의하면/따르면, 요약하면’ 등 관용 표현이 자주 쓰이는데 그런 표현에서 선행절 내용은 후행절 내용의 근거이다. 이런 ‘-(으)면’ 계열 관용 표현도 내

³ 내용영역 조건문은 객관 세계에서 사람이나 사물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표현하는데 조건과 결과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문장이 객관적 연관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무의미해진다. 이런 문장은 화행영역에서 이해해야 한다.

용영역에서 이해될 수 있다.

- (4) 위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5) 생각해 보면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 (6) 일기예보에 따르면 다음 주에 비가 내리겠다.

예문(4)-(6)에서 선, 후행절 의미관계는 예문(1)-(3)과 다르다. 예문(1)-(3)에서 선, 후행절은 조건과 결론이라는 관계로 볼 수 있고 광의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낸다. 예문(4)-(6)의 선, 후행절은 조건과 결론이라는 관계만 있고 선행절은 후행절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 李得春(2009: 348)에 따르면 예문(4)-(6)과 같은 문장에서 선행절 내용은 후행절 결론이 나오는 근거이다. ‘원인’과 ‘근거’의 차이는 선, 후행절 내용의 호환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 (3) 아기가 백날이 되면 백일잔치를 연다.
백일잔치를 열면 아기가 백일이 되었다.
- (5) 생각해 보면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면 생각해 보았다.

‘원인-결과’ 관계를 나타내는 내용영역 조건문에서 조건과 결론이 호환되면 추론 의미를 나타내는 인식영역 조건문이 된다. 그러나 ‘근거-결론’ 관계로 된 예문(5)에서 조건과 결론은 호환되지 못한다.

예문(4)-(6)과 같은 조건문에서 근거가 된 선행절은 결론인 후행절과 직접적, 객관적 연관성이 있어서 내용영역으로 분류해야 한다. 예문(4), (5)에서 ‘요약하다’와 ‘생각하다’라는 동작은 후행절 결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예문(6)의 후행절은 추측 의미가 있지만 화자의 주관적 추측이 아니라 일기예보를 근거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부 ‘-(으)면’ 계열 조건 관용 표현도 내용영역에서 이해될 수 있다.

Traugott(1995)의 주관성 판정기준으로 보면 내용영역에서 조건문은 화용적 의미가 미약하고 주로 명제를 기술하는 객관적인 기능을 한다. 연결어미 ‘-(으)면’의 앞뒤 구절은 명확한 논리적 연관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 인과관계도 나타난다. 따라서 내용영역에서 ‘-(으)면’ 조건문은 주관성이 약하다.

3.2 ‘-(으)면’ 조건문의 인식영역 의미

화자가 조건 p를 보고 자기의 인지능력, 백과지식 등에 의해 결론 q를 도출하면 문장 의미는 인식영역에서 이해된다. 이 경우에 조건 p는 결론 q의 간접적 충분조건이다.

(7) 별들을 보면 인간의 수명이 1 초보다 더 짧게 느껴진다.

(8) 그는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 행운이 찾아올 거라고 믿는다.

예문(7)에서 조건은 결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화자는 자기가 갖추는 백과지식에 의해 후행절의 추리적인 결론을 얻었다. 예문(8)도 마찬가지인데 조건과 결론은 관련이 없는 사건이다. 인식 주체에 의해 연관성이 건립되고 조건 관계가 나타나게 된다.

조건문이 인식영역에서 이해될 때 심리동사는 반드시 나오지 않는다.

(9) 색깔만 보고 과일을 고르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10) 그가 모임에 안 오면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을 것이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으면 그가 모임에 안 오겠다.

예문(9)처럼 심리동사가 나오지 않아도 청자는 주관적인 연관성을 건립할 수 있다. 예문(10)은 앞에서 논의된 예문들과 달리 결과가 먼저 나오고 결과를 통해 조건, 원인을 추측하는 문장이다. 이런 문장은 인식영역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원인이 선행절에서 먼저 나오는 문장으로 바꾸면 내용영역에서 이해된다.

인식영역에서 조건과 결론 간의 연관성은 내용영역보다 간접적이다. 주관적 조건 의미를 표현할 때 화자는 먼저 객관적 조건 관계를 심리적 조건 관계로 확대시킨다. 심리적 조건 관계를 건립한 후, 이런 연관성을 두 사건에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으)면’과 같은 조건표기로 문장구조에서 주관적 연관성을 나타낸다.⁴

인식영역 조건문은 내용영역 조건문처럼 화용 기능보다 명제 기능을 더 많이 한다. 그러나 주관적 추론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화자의 인지를 거쳐야 조건 관계를 건립할 수 있어서 선, 후행절 사이의 연관성은 간접적, 주관적 그리고 확대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3.3 ‘-(으)면’ 조건문의 화행영역 의미

화행영역에서 조건문 후행절은 단순한 명제가 아니라 명령, 청유 등 언어행위가 수반된 것이다. 조건 p는 언어행위 q를 일으키는 충분조건이다. 이 경우에 p와 q 사이의 논리적 연관성은 인식영역보다 더 약해진다.

(11) 시간이 있으면 나를 도와 줘.

(12) 심심하면 영화를 보자.

⁴ 조건 관계의 확장, 적용 원리에 관한 내용은 徐李洁(2008:65)에서 인용된 것이다.

(13) 화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

위 예문에서 후행절에 화자의 언어행위가 수반된다. 이 경우에 선행절은 언어행위의 전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다. 화행영역에서 조건문은 명제 기능보다 화용 기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논리적 관계도 간접적이다. 오히려 화자의 언어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서 주관성이 강하다.

(14) 실례가 되지 않으면 제가 한 번 방문해도 돼요?

예문(13)과 (14)는 모두 의문 행위가 수반되는 문장이지만 차이가 있다. 예문(14)의 선, 후행절은 논리적 연관성이 더 약하고 조건이 생략되어도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 王麗超(2012: 17-18)에 의하면 ‘실례가 되지 않으면’ 등 조건 표현은 청자 체면을 지키는 화용적 기능만 있다.

‘-(으)면’ 조건문으로 화용 의미를 나타낼 때 명령, 청유 종결어미가 꼭 사용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화맥이나 상식으로 발화에 언어행위가 수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심심하면 나 재미있는 책 한 권 있어.

(16) 빨리 끝났으면 한다.

예문(15)에서 ‘심심하다’ 라는 조건과 ‘책이 있다’ 라는 결론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 그러나 청자는 상식으로 화자가 책을 읽으라는 제안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16)에서 ‘-았/었/였면 하다’ 는 화자의 주관적 희망 행위를 나타내는 관용 표현이다. 따라서 조건문이 평서문으로 끝나도 언어행위를 일으킬 수 있다.

내용영역과 인식영역에서 조건문은 객관적 연관성을 반영해서 조건과 결론은 모두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화행영역에서 조건문은 주관적인 화용 의미를 나타내서 조건과 결론에서 하나가 비현실적이어도 된다.

(17) 내가 너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

(18) 그런 일이 있으면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예문(17)과 (18)에서 비현실적인 조건과 결론이 나타났다. 예문(17)에서 화자는 비현실적인 조건으로 청자에게 충고를 하고 있다. 예문(18)에서 화자는 비현실적인 결론으로 선행절의 상황이 실제로 없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 선행절은 언어행위를 일으키는 전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일부 조건문은 내용영역 혹은 인식영역에서 이해되지만 특정한 발화상황에서 화용적

기능도 있다.

(1)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진다.

(9) 색깔만 보고 과일을 고르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예문(1)과 (9)는 각각 내용영역과 인식영역 조건문이지만 화행영역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예문(1)은 객관적 법칙에 대한 서술로 보는 것이 보통이지만 어머니가 아이에게 하는 말이면 옷을 많이 입으라고 권유하는 간접적 언어행위를 나타낼 수 있다. 예문(9)는 추론뿐만 아니라 경고의 언어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주로 주관적인 화용 의미를 나타내고 선, 후행절 간의 논리적 연관성도 간접적이어서 화행영역에서 조건문은 다른 두 개념영역에 비해 주관성이 더 강해진다.

3.4 ‘-거든’ 조건문의 화행영역 의미

‘-거든’과 ‘-(으)면’은 모두 조건 연결어미이지만 용법과 의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⁵ 세종말뭉치로 확인한 결과, 대부분 경우에 ‘-거든’ 조건문은 명령문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청유문, 의문문과 평서문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문장의 종결법과 관계없이 ‘-거든’ 조건문은 화행영역의 의미만 나타난다.

(19) 그 사람을 만나거든 저의 기쁨을 전해 주세요.

(20) 주식 값이 오르거든 이 기회에 모두 팔아버립시다.

(21) 비가 그치거든 출발할 거예요?

(22) 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가거든 이사를 하려고 한다.

(23) 군인이 되었거든 명예를 생명같이 알아야 한다.

예문(22), (23)은 평서문으로 되어 있지만 단순한 조건-결과 진술이 아니다. 선, 후행절은 일정한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고 희망이나 충고의 의미를 나타낸다. 남미정(1999: 68-70)에 따르면 ‘-(으)면’은 13세기 말, 14세기 초에 나타났다. 그 후 ‘-(으)’면 ‘의 기능 확장과 ‘-거든’의 기능 축소가 일어났다. ‘-거든’은 ‘단순 조건’과 ‘가정적 조건’을 모두 나타낼 수 있었지만 ‘-(으)면’이 나온 후 ‘-거든’의 기능은 ‘가정적 조건’으로 축소되고 ‘단순 조건’을 표현하는 기능은 ‘-(으)면’으로 넘겼다.⁶ 가정적 조건에 항상 언어행위가 수반되어서 나중에 ‘-거든’과 명령형, 청유형 중

⁵ 본 논문에서 조건 연결어미로서의 ‘거든’만 고찰하고 사실, 이유 등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거든’을 연구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⁶ 여기서 ‘단순 조건’은 객관 세계의 일반 규칙을 조건으로 하는 가리키는데 본 논문의 내용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가정적 조건’은 아직 발생하지 않는 사건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본

결어미의 공기는 고정되었다.

‘-거든’ 조건문은 조건을 나타내는 선행절에 대해서도 일정한 선택제약이 있다. 나혜숙(2011: 51)에서 ‘-거든’ 조건문의 선행절이 강한 사실성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남미정(1999: 65)에 의하면 선어말어미 ‘-거-’가 ‘완료’라는 시상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에 선행절 명제 내용은 반드시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15) 심심하면 나 재미있는 책 한 권 있어.

*심심하거든 나 재미있는 책 한 권 있다.

(17) 내가 너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

*내가 너이거든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

선, 후행절이 인과관계가 미약하고 명령, 청유 등 종결어미도 없으면 ‘-거든’ 대신 ‘-(으)면’을 사용해야 한다. 선행절이 비현실적인 조건인 경우에도 ‘-거든’을 쓰지 못한다.

‘-거든’ 조건문은 화행영역에서만 이해될 수 있어서 주관성이 강하다. 용법 측면에서 ‘-거든’은 ‘-(으)면’보다 제약을 많이 받는데 청자 체면을 유지하는 기능과 비현실적 조건이나 결론으로 남에게 권유, 거절하는 기능이 없다.

4. 중국어 가정조건문의 개념영역 의미

4.1 ‘如果’ 조건문의 내용영역 의미

陈振宁(2014: 7-9)에 따르면 고대중국어에서 ‘如’는 동사에서 유래된 환경설치(环境设置) 표기이고 ‘果’는 명사에서 유래된 불확실성(不确定性) 표기이다. 나중에 ‘如’와 ‘果’는 조건표기로 문법화 되고 ‘如果’로 융합되었다.

내용영역은 ‘如果’ 조건문의 기본적인 개념영역이다. 선, 후행절이 논리적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선행절 조건이 후행절 결론의 충분조건이 되어야 한다. ‘-(으)면’ 조건문과 비슷하지만 ‘如果’ 조건문에서 조건과 결론 간의 인과관계가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1)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진다.

(2) 나는 내년이면 스무 살이다.

(3) 아기가 백날이 되면 백일잔치를 연다.

(24) 如果到了冬天, 天气就会变冷。

논문의 내용영역 혹은 인식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25) *如果到了明年, 我就二十岁了。

(26) 如果孩子出生已有一百天, 就要办百日宴。

예문(1)과 (24), (3)과 (26)은 대응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만 예문(25)는 한국어처럼 조건표기를 붙이지 못한다. ‘겨울’과 ‘날씨’, ‘백일’과 ‘잔치’ 사이에 명확하고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내년’과 ‘스무 살’ 사이에도 논리적 연관성이 존재하지만 나이가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예문(24),(26)보다 덜 객관적이다. 따라서 내용영역에서 이해될 때 조건표기 ‘如果’가 나오지 못한다. 이 외에 ‘-(으)면’은 ‘-의하면/따르면, 요약하면’과 같은 관용 표현으로 근거 의미를 나타낼 수 있지만 ‘如果’는 이런 기능을 가지지 못한다.

(4) 위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 생각해 보면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27) 归纳上述的讨论内容如下。

(28) 仔细想想, 他不是个坏人。

예문(4),(5)와 (27),(28)을 비교하면 근거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면’은 대응된 중국어 문장에서 자주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내용영역에서 추측 표현과 공기하지 못하고 선, 후행절이 모두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如果’ 조건문과 ‘-(으)면’ 조건문의 공통점이다. 그러나 ‘如果’ 조건문은 조건과 결론 간의 주관성이 ‘-(으)면’보다 더 약하다.

4.2 ‘如果’ 조건문의 인식영역 의미

인식영역에서 ‘如果’ 조건문과 ‘-(으)면’ 조건문의 의미기능은 비슷하다. 조건과 결론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화자가 내용영역 조건관계를 확대시켜 인지능력으로 두 사건 간의 주관적 조건관계를 건립해야 한다. 인식영역에서 ‘如果’ 조건문은 항상 추리적 인과관계로 이해될 수 있는데 ‘相信, 感觉’ 등 심리동사와 같이 나타날 수 있고 ‘可能, 也许’ 같은 추측 의미를 나타내는 양태부사와도 공기할 수 있다.

(29) 如果仰望星空, 人会感到自己的生命比一秒钟还短暂。

(30) 如果光看颜色挑选水果, 可能会危害健康。

그리고 결과를 보고 원인(조건)을 추리하는 양상도 ‘如果’ 조건문의 인식영역 의미로 간주될 수 있다.

(31) 如果他不来聚会, 那可能是因为公司有急事。

인식영역에서 ‘如果’ 조건문은 ‘-(으)면’ 조건문처럼 조건과 결론이 모두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선, 후행절의 내용을 바꾸면 내용영역 의미관계가 나타나게 된다.

4.3 ‘如果’ 조건문의 화행영역 의미

화행영역에서 ‘如果’ 조건문은 다양한 언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그 언어행위는 종결어미를 통해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연상을 통해 완곡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32) 如果有时间, 你能帮我个忙吗?

(33) 如果你觉得无聊, 我这儿有一本挺有趣的书。

위 두 예문에 각각 부탁과 제안의 언어행위가 수반되는데 예문(32)은 의문사로 직접적으로, 예문(33)은 평서문으로 간접적으로 화용 의미를 나타냈다.

‘如果’ 조건문은 청자의 체면을 유지하는 기능도 있다.

(34) 如果您不介意的话, 我先走一步。

예문(34)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자기가 먼저 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선행절 조건이 없어도 문장 의미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개의하지 않으시면’이라는 조건을 붙이면 더 부드럽고 예의가 있어서 청자의 체면을 위한 화용적 기능만 있다.

이 외에 ‘如果’ 조건문은 비현실적인 사건을 조건이나 결론으로 해서 화용 기능을 할 수 있다.

(35) 如果我是你, 我不会见那个人。

(36) 如果有那种事情, 太阳就从西边出来了。

실현이 불가능한 사건을 조건이나 결론으로 하면, 조건문은 명제로서의 자질이 상실하게 된다. 이때 권유, 설득 등 화용 기능만 남는데 Traugott(1995)에서 제시된 판정기준으로 보면 문장의 주관성은 상당히 강하다.

일부 ‘如果’ 조건문에서 내용영역 혹은 인식영역의 의미가 화행영역의 의미와 중첩되어서 한 가지 이상의 이해가 가능하다.

(26) 如果孩子出生已有一百天, 就要办百日宴。

앞에서 논의된 예문(26)은 한국 민속을 단순히 기술하는 내용영역 조건문으로 이해될 수 있고 청자에게 아기의 백일잔치를 빨리 준비하자고 제안하는 화행영역 조건문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화행영역에서 ‘如果’ 조건문의 기능과 특징은 ‘-거든’ 보다 ‘-(으)면’ 과 더 비슷하다.

5. 결론

인간의 공통적인 인지패턴 때문에 한중 가정조건문의 의미, 화용 기능은 내용영역, 인식영역과 화행영역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Traugott(1995)에서 제시된 주관성 기준으로 보면 가정조건문 개념영역의 주관성 정도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화행영역 > 인식영역 > 내용영역

내용영역에서 조건과 결론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명확한 객관적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문장은 화용 기능이 거의 없고 명제를 기술하는 기능만 있다. 가정조건문의 인식영역 의미는 전형적인 조건관계에 심리적 인지과정이 적용된 결과이다. 조건과 결론은 논리적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조건이 결론의 직접적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인식영역에서 결론은 화자가 조건을 보고 주관적으로 추론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관성은 내용영역보다 강하다. 인식영역에서 조건문의 화용적 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화행영역에서 조건과 결론 간의 객관적 연관성은 진일보 약화되었고 비현실적인 사건이 화행영역에서 조건이나 결론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명제 기능보다 명령, 청유 등 화행 기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실질적인 인과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청자의 체면을 지키는 순수한 화용적 조건문도 화행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

내용영역, 인식영역과 화행영역은 의미 주관성의 연속체로 볼 수 있다. 내용영역에서 화행영역으로 발전하는 과정은 논리적 연관성에서 심리적 연관성으로, 객관적 인과관계에서 주관적 인과관계로, 명제 기능에서 화용 기능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다.

‘-(으)면’ 조건문과 ‘如果’ 조건문은 내용영역에서 ‘조건-결론’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내용영역에서 ‘如果’ 조건문은 ‘-(으)면’ 보다 선, 후행절의 객관적 인과관계를 더 엄격하게 요구하고 주관성이 더 약하다. ‘-(으)면’ 조건문의 선행절은 원인이 될 수 있고 객관적 결론의 근거도 될 수 있다. 반면에 ‘如果’ 조건문은 그런 기능이 없다.

인식영역에서 ‘-(으)면’ 조건문과 ‘如果’ 조건문의 기능이 비슷하다. 조건표기로

문장 선, 후행절 사이의 추론적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명제 기능과 화용 기능을 동시에 갖춘다.

‘-(으)면’과 ‘如果’뿐만 아니라 ‘-거든’ 조건문도 화용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거든’ 조건문에서 현실적인 사건만 조건이 될 수 있고 완료 의미가 있는 사건이 선호된다. 후행절에 항상 언어행위가 수반되는데 종결어미로 표현하는 명령과 청유가 대부분이다. ‘-거든’은 화행영역에서의 이해만 가능해서 의미중첩 현상이 없다. 화행영역에서 ‘-(으)면’과 ‘如果’ 조건문은 조건의 시제, 현실성에 대해 큰 제약이 없고 결론 부분에서 종결어미로 의문, 명령, 청유, 권유 등 언어행위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내용영역, 인식영역과의 의미 중첩이 나타난다.

<참고문헌>

1. 나혜숙,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건 관계 연결어미 습득 양상 연구: ‘-(으)면, -거든, -어야’를 중심으로[D],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2. 남미정, 접속어미 ‘-거든’의 통시적 연구[D],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3. 윤경애, 중국 대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연결어미 교육 연구: 조건 표현 연결어미를 중심으로[D], 고려대학교 국어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4. 하정문, 한국어 조건 연결어미와 중국어 조건 관련사어의 대조 연구[D],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5. 白峰子, 白峰子韩国语语法词典[M], 北京: 世界图书出版公司, 2008.
6. 陈振宁, 现代汉语条件标记语法化和条件关系研究[A], “语言的描写与解释”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C], 上海: 复旦大学, 2014.
7. 李得春, 韩国语语法教程[M], 上海: 上海外语教育出版社, 2009.
8. 吕叔湘, 现代汉语八百词[M], 北京: 商务印书馆, 1980.
9. 邵敬敏, 现代汉语通论[M],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7.
10. 沈家煊, 语言的“主观性”与“主观化”[J], 外语教学与研究, 第33卷第4期, 2001.
11. 沈家煊, 复句三域“行、知、言”[J], 中国语文, 第294期, 2003.
12. 徐李洁, 英语 IF 条件句主观化模式的建构[J], 外国语, 第31卷第1期, 2008.
13. 王丽超, 假设复句行知言三域研究[D], 哈尔滨师范大学汉语言文字学专业硕士学位论文, 2012.
14. 严莲花, 韩国语条件句的认知语用研究[D], 上海外国语大学语言学及应用语言学专业博士学位论文, 2016.

한국어 모음 사이 경음과 격음의 발음 특징

최혜화

1. 서론

한국어의 구어 발음에는 다양한 음운 현상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와 사전에 공식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모국어 화자들의 실제 발화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음운 현상 중의 하나인 ‘중성 첨가 현상’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즉 두 음절이 연쇄될 때, 실현되는 발음의 음절 구조가 ‘모음으로 끝나는 개음절+경음/격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의 경우, 선행 음절의 음절말에 중성이 첨가되어 ‘오빠[옵빠], 기차[긴차]’와 같이 V-CV 음절 구조에서 선행 음절에 중성이 첨가되어 실제 발화에서는 VC-CV 음절 구조로 발음이 실현되는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발화를 녹취한 음성 자료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화를 녹취한 음성 자료를 기반으로 실험음성학적인 방법으로 중성 첨가 현상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 이러한 실제 발화에 나타나는 음운현상에 대한 연구는 한국어의 음운 현상과 음운 규칙을 더욱 세분화하고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발음 지도 방안의 연구에도 기여도가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과 연구 자료

(1) 피험자 선정 기준

본 연구의 피험자는 총 8명으로 한국인 4명과 중국인 4명으로 구성되었다. 국적 별로 남녀 각각 2명 씩 섭외하였고 학력은 모두 대학교 이상으로, 나이는 20대로 범위를 제한하였다¹. 한국인 피험자의 선정 기준은 반드시 서울 경기권 태생으로서 표준어를 구사하고, 한국어 표준어 언어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중국인 피험자의 선정 기준은 반드시 중국 대륙 태생으로서 중국어 언어 환경에서

¹ 조사 범위를 대학교 학력 이상과 20대로 한정 한 이유는 한국어를 외국어로서 공부하는 중국인들이 20대에 비교적 집중되어 있고, 한국어를 배우는 시기가 대학교 입학전 혹은 대학교 시절이기 때문이다.

성장하였고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만 한국어를 제2언어로서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인 피험자는 한국 서울에서 언어 교육과정을 거치고, 한국어언어능력시험(TOPIK)에서 고급 등급을 취득하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일상 생활이 한국어 언어 환경으로 되어있는 한국어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이 구어 능력이 수월한 중국인을 섭외하였다². 이렇게 선정된 총 8명의 피험자 정보는 아래와 같다.

피험자	국적	성별	출생 및 성장지	나이	직업
S1	한국	여	서울	만24세	대학생
S2	한국	여	서울	만23세	대학생
S3	한국	남	서울	만22세	대학생
S4	한국	남	서울	만29세	직장인

<표1-1> 모국어 화자 정보

피험자	국적	성별	한국어 학습 기간	나이	직업
S'1	중국	여	4년	만22세	대학생
S'2	중국	여	7년	만25세	대학원생
S'3	중국	남	5년	만24세	대학생
S'4	중국	남	8년	만27세	직장인

<표1-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정보

(2) 실험 자료 선정 기준

발화 실험 자료는 두 부류의 어휘가 포함된다. 한 부류는 음절 구조가 ‘모음으로 끝나는 개음절+ 경음/격음으로 시작하는 음절’, 즉 V-CV 음절 구조의 단어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음절 구조가 ‘평음으로 끝나는 폐음절+ 동기관음³ 경음/격음으로 시작하는 음절’, 즉 VC-CV 음절 구조의 단어⁴들이다. 실험 자료로 선정된 어휘는 총 18개이고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구분		경음		격음	
		V-CV	VC-CV	V-CV	VC-CV
	ㄱ	아끼다	악기다	코코아	꼭꼭아

²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섭외할 때 최대한 수월한 한국어 구두 능력을 가진 중국인 학습자를 섭외하였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종성 유무의 발음 구분에 관련된 연구로서 한국어 구두 능력이 수월하지 못한 외국인의 경우 종성 유무의 발음 구분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³ 동기관음이란 같은 조음 위치와 같은 조음 방법에서 조음되지만 발성 유형이 서로 다른 자음을 가르킨다. 예컨대 한국어에서 /ㄱ/, /ㄴ/, /ㄷ/, /ㄹ/은 서로 동기관음이다.

⁴ 실험 자료로 선정된 어휘들은 대부분 사전적으로 유의미한 단어를 선정하였지만 개별적인 5개 단어는 무의미한 단어이다. 한국어에는 ‘바치다/받치다’와 같이 음절 구조가 비슷하고 음소 구성이 비슷한 유의미한 단어들의 수량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단어를 유의미한 단어로 선정하는 것은 실험 가능성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다.

폐쇄음	ㄷ	이따가	있다가	그토록	근토록
	ㅈ	아빠다	앞바다	커피	컵피
파찰음	ㅈ	타짜	탓짜	바치다	반치다
마찰음	ㅅ	아가씨	아갯씨	***	***

<표1-3> 발화 실험 어휘 목록

2.2. 자료 분석 방법

(1) 음성 자료 녹취

음성 자료 녹음은 피험자를 각자 단독으로 섭외하여 조용한 실내에서 실험 자료 단어들을 각각 2회씩 발화하도록 하였다. 녹음은 Awesome Voice Recorder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표본 추출률은 44000Hz로 설정하였고 녹음된 파일은 wav파일로 저장하였다.

실험 자료로 선정된 총 18개 단어를 8명의 피험자가 2회씩 발화하였으므로 검토 자료는 총 288개이다. 녹취한 모든 발화는 분석 가능한 발음으로서 본 연구에 최종적으로 사용된 분석 자료는 288개이다.

(2) 분절음 길이 측정

녹음을 통해 획득한 음성 파일은 스웨덴 왕립기술원(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소속의 음성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음성분석 프로그램 웨이브서퍼(WaveSurfer)를 이용해 분절음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음성분석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을 이용하여 단어의 총 길이, 선행 모음의 길이, 모음 사이 자음의 길이, 자음의 폐쇄 구간과 마찰 구간, VOT(voice onset time: 폐쇄음이 개방한 후 성문 마찰로 인해 소음이 동반되면서 성대가 진동하는 시간 사이) 등을 측정하였다.

분절음들의 길이 측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선행 모음은 규칙적인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을 보이는 지점에서부터 자음의 폐쇄가 시작되는 지점까지로 측정되었다. 폐쇄 구간은 규칙적인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이 끝나고 파형이 보이지 않고 스펙트로그램상 공백이 보여지는 구간이다. 여기서 모음 사이 평음, 경음, 격음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가 선행 음절의 모음이 끝난 후 자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폐쇄 구간의 앞부분에 스펙트로그램상에서 세로선이 남아 있어 성대가 여전히 떨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모음이 발음될 때 진동되었던 성대가 구강 폐쇄시 관성적으로 진동되는 현상으로 스펙트로그램상 음향 에너지가 나타나지만 이를 폐쇄 구간으로 인정하였다. 자음은 선행 모음의 끝점과 후행 모음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길이가 측정 되었고 종류에 따라 폐쇄 구간과 마찰 구간 그리고 VOT의 길이를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3. V-CV 음절 구조와 VC-CV 음절 구조의 발음 실태

3.1. 모국어 화자의 발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국어 화자의 경우 대체로 V-CV 음절 구조 단어와 VC-CV 음절 구조 단어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발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음절 구조 유형에 따라 모국어 화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음 양상을 보여주는지 <표2-1>를 통하여 살펴보겠다. <표2-1>의 수치는 피험자들의 음성 파일을 통해 측정한 분절음들의 평균 길이이다.

구분		선행 모음	어중 자음		전체 길이
			폐쇄 구간	마찰 구간	
폐쇄음	V-CV	65	148	30(VOT)	243
	VC-CV	58	167	34(VOT)	259
파찰음	V-CV	68	143	64	275
	VC-CV	64	183	70	317
마찰음	V-CV	124	0	203	327
	VC-CV	95	0	226	321

<표2-1> 모국어 화자의 V-CV와 VC-CV 음절 구조 발음 양상(단위:ms)

V-CV 음절 구조의 경우 선행 모음의 평균 길이는 약 85ms 이고 어중 자음의 평균 길이는 약 196ms 이다. VC-CV 음절 구조의 경우 선행 모음의 평균 길이는 약 72ms 이고 어중 자음의 평균 길이는 약 227ms 이다. 두가지 음절 구조에서 선행 모음과 어중 자음의 발음 양상이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두가지 경우에서 모두 어중 자음을 선행 모음의 약 2.5 배에 가깝게 발음하고 있다. 즉 모국어 화자들은 V-CV 음절 구조와 VC-CV 음절 구조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발음하지 않고 거의 동일하게 발음하고 있다.

VC-CV 음절 구조에서 어중 자음이 마찰음일 경우에 모국어 화자들의 발음에서는 폐쇄 구간이 관찰되지 않고 마찰 구간만 관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아갓씨’를 /아간씨/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아갓씨/로 발음하고 있다.

3.2.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모국어 화자들의 발음 양상과 다르게 V-CV 음절 구조와 VC-CV 음절 구조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발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음절 구조 유형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들이 어떠한 발음 양상을 보여주는지 <표2-2>를 통하여 살펴보겠다. <표2-2>의 수치는 피험자들의 음성 파일을 통해 측정한 분절음들의 평균 길이이

다.

구분		선행 모음	어중 자음		전체 길이
			폐쇄 구간	마찰 구간	
폐쇄음	V-CV	94	96	35(VOT)	225
	VC-CV	83	235	40(VOT)	358
파찰음	V-CV	101	63	52	216
	VC-CV	90	189	86	365
마찰음	V-CV	147	0	149	296
	VC-CV	82	241	186	509

<표2-2> 중국인 학습자의 V-CV와 VC-CV 음절 구조 발음 양상(단위:ms)

두가지 음절 구조에서 선행 모음과 어중 자음의 발음 양상은 아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V-CV 음절 구조의 경우 선행 모음의 평균 길이는 약 114ms 이고 어중 자음의 평균 길이는 약 131ms 이다. VC-CV 음절 구조의 경우 선행 모음의 평균 길이는 약 85ms 이고 어중 자음의 평균 길이는 약 325ms 이다. V-CV 음절 구조의 경우 어중 자음과 선행 모음을 약 1 : 1 의 비례로 발음하고 있고, VC-CV 음절 구조의 경우 어중 자음을 선행 모음의 약 3.5 배로 발음하고 있다. 즉 중국인 학습자들은 V-CV 음절 구조와 VC-CV 음절 구조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발음하고 있다.

VC-CV 음절 구조에서 어중 자음이 마찰음일 경우 중국인 학습자들은 모국어 화자들과 다르게 평폐쇄음화 음운 규칙을 정확하게 따르고 있다. 즉 ‘아갓씨’를 /아간씨/로 발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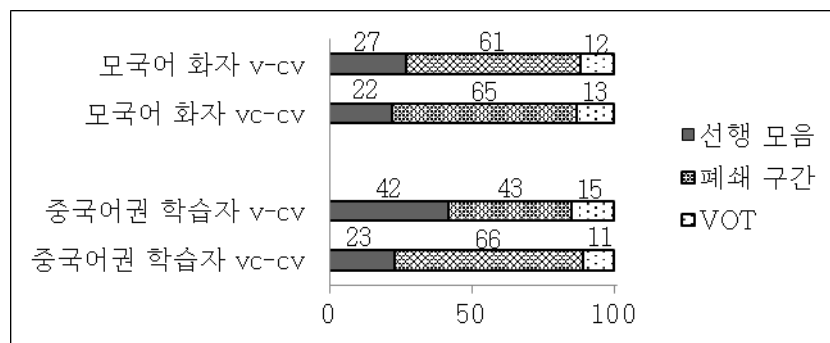
3.3.모국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차이

앞에서 논의된 두 언어권 별 화자의 발음 특징을 토대로 모국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가 V-CV와 VC-CV 음절 구조의 구별 발음 능력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여주는지 분석해보겠다. 어중 경음/격음은 자음의 발음 방법에 따라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에서 폐쇄 구간과 마찰 구간이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래 어중 경음/격음을 폐쇄음, 파찰음, 마찰음으로 분류하여 모국어 화자와 중국어권 학습자의 발음 양상을 자세하게 비교해 보겠다.

(1) 어중 경음/격음이 폐쇄음일 경우

<그림3-1>은 어중 경음/격음이 폐쇄음일 경우 피험자들의 실제 발음의 평균 길이를 비례화하여 나타낸 것으로서 모국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양상을 비교할 수 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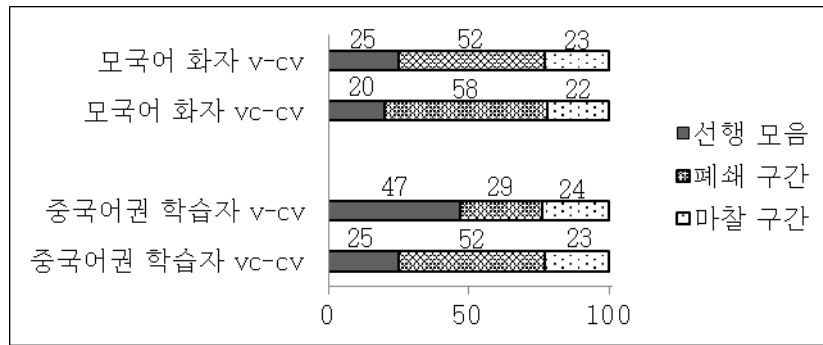
<그림 3-1> 선행 모음과 어중 폐쇄음의 비례(단위:%)

모국어 화자의 경우 어중 자음이 폐쇄음일 때 V-CV 음절 구조와 VC-CV 음절 구조에서 거의 동일한 발음 양상을 보여준다. VC-CV 음절 구조에서 V-CV 음절 구조보다 선행 모음의 길이가 약간 줄어들고 폐쇄 구간의 길이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주지만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미세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모국어 화자들도 어느정도 표기형의 영향을 받아 VC-CV 음절 구조에서 무의식적으로 선행 음절의 종성 폐쇄 발음을 길게 발음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중 자음이 폐쇄음일 경우 모국어 화자들은 V-CV 음절 구조를 VC-CV 음절 구조와 동일하게 발음하고 있다. 즉 모국어 화자들은 V-CV 음절 구조에서 어중 경음/격음이 폐쇄음일 경우 선행 음절의 종성 위치에 동기관평음을 첨가하여 VC-CV 음절 구조와 동일하게 발음한다.

중국어권 학습자의 경우 어중 자음이 폐쇄음일 때 음절 구조의 변화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발음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VC-CV 음절 구조에서는 모국어 화자와 동일한 발음 양상을 보여주는 반면에 V-CV 음절 구조에서는 선행 모음을 길게, 어중 폐쇄음의 폐쇄 구간을 짧게 발음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두가지 음절 구조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발음하는 것으로서 V-CV 음절 구조에서 선행 모음을 길게 발음하여 어중 폐쇄음의 폐쇄 구간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모국어 화자처럼 동기관평음을 추가하여 V-CV 음절 구조를 VC-CV 음절 구조로 발음하지 않고 본래의 V-CV 음절 구조에 충실하여 발음하기 때문이다.

(2) 어중 경음/격음이 파찰음일 경우

<그림3-2>는 어중 경음/격음이 파찰음일 경우 피험자들의 실제 발음의 평균 길이를 비례화하여 나타낸 것으로서 모국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양상을 비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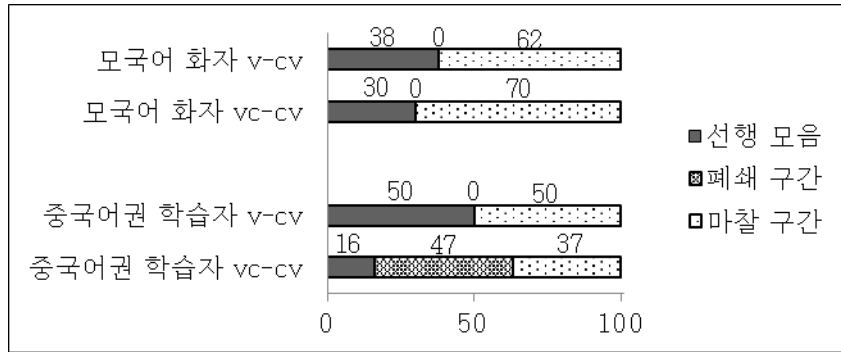
<그림 3-2>선행 모음과 어중 파찰음의 비례(단위:%)

모국어 화자의 경우 어중 파찰음은 어중 폐쇄음과 거의 동일한 발음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V-CV 음절 구조와 VC-CV 음절 구조를 구별하여 발음하지 않고 모두 선행 모음을 짧게, 폐쇄 구간을 길게 발음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중 경음/격음이 파찰음의 경우 폐쇄음의 경우와 다른 점은 선행 음절의 종성위치에 첨가되는 음이다. 폐쇄음의 경우 동기관평음이 첨가 되지만 파찰음 /ㄲ/, /ㄸ/의 경우에는 /ㄷ/ 종성이 첨가된다. 그 근거는 두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을 관찰할 경우 만약 선행 음절의 종성 위치에 파찰음의 동기관평음이 첨가되었다면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에서는 폐쇄 구간과 마찰 구간이 동시에 첨가되는 현상이 나타나야 하지만 실제로는 폐쇄 구간만 늘어난 것으로 보아 선행 음절의 종성 위치에 폐쇄음이 첨가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단어 ‘타짜’의 발음은 평폐쇄음화를 거쳐 /탄짜/로 발음하게 되는데 V-CV 음절 구조인 ‘타짜’도 단어 ‘타짜’와 동일한 발음 양상이 보여지기 때문에 선행 음절의 종성 위치에 첨가된 폐쇄음은 /ㄷ/임을 판단할 수 있다.

중국어권 학습자의 경우 어중 경음/격음이 파찰음일 경우 폐쇄음의 경우와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V-CV 음절 구조와 VC-CV 음절 구조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발음하는데 VC-CV 음절 구조에서는 모국어 화자와 동일한 발음 양상을 보이지만 V-CV 음절 구조에서는 모국어 화자와 다르게 폐쇄음을 추가하여 발음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어중 경음/격음이 마찰음일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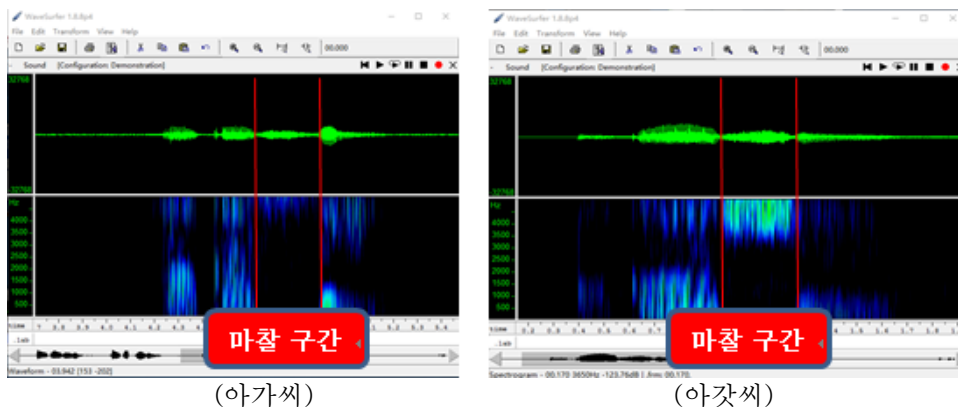
<그림3-3>은 어중 경음/격음이 마찰음일 경우 피험자들의 실제 발음의 평균 길이를 비례화하여 나타낸 것으로서 모국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양상을 비교할 수 있다.



<그림 3-3>선행 모음과 어중 마찰음의 비례 (단위:%)

모국어 화자의 경우 어중 경음이 마찰음일 때 어중 경음/격음이 폐쇄음과 파찰음의 경우와 비해 선행 모음을 조금 길게 발음하는 경향을 보여주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V-CV 음절 구조와 VC-CV 음절 구조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발음하지 않는 것으로 폐쇄음, 파찰음과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즉 어중 경음이 마찰음의 경우에도 모국어 화자들은 V-CV 음절 구조에서 선행 음절의 종성 위치에 동기관음을 추가하여 VC-CV 음절 구조와 동일하게 발음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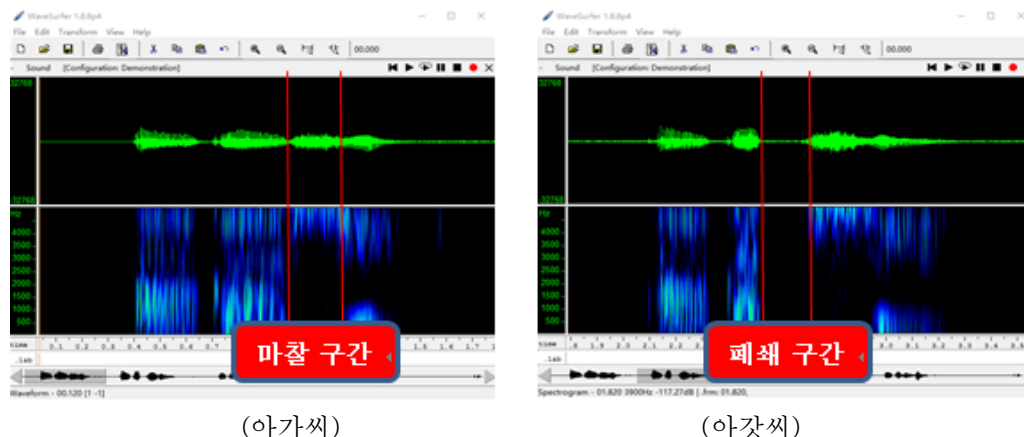
그러나 어중 경음이 마찰음의 경우에는 폐쇄음, 파찰음과 다르게 폐쇄음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마찰음 /ㄴ/이 첨가된다. <그림3-4>에 알 수 있다시피 단어 ‘아가씨’와 ‘아갓씨’는 모음 사이에서 마찰 구간만 관찰된다. 즉 모국어 화자들은 단어 ‘아가씨’와 ‘아갓씨’를 모두 /아간씨/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아갓씨/로 발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음성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모국어 화자들의 음성 파일을 관찰했을 때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에서 선행 음절과 어중 마찰음 사이에 폐쇄 구간이 관찰되지 않는다. 즉 선행 모음의 길이가 줄어드는 만큼 마찰 구간이 길어짐으로서 선행 음절의 종성 위치에 마찰음이 첨가되어 발음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림3-4> ‘아가씨/아갓씨’의 파형과 스펙트로그램(모국어 화자)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는 모국어 화자와 확연하게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V-CV 음절 구조에서는 여전히 모국어 화자와 다르게 음절 구조에 충실하여 음을 첨

가하지 않고 음절 구조 그대로 선행 모음과 어중 자음을 5:5로 발음하고 있고, VC-CV 음절 구조에서도 음절 구조와 음운 규칙에 충실하여 선행 음절의 종성 /ㅅ/이 평폐쇄음화를 거쳐 /ㄷ/으로 발음하고 있다. <그림3-5>에서와 같이 ‘아가씨’는 /아가씨/로, ‘아갓씨’는 /아갓씨/로, /ㄷ/ 종성과 /ㅅ/ 종성을 혼동하지 않고 음절 구조 유형도 명확하게 구별하여 한국어 표준발음법 규정을 정확하게 따르고 있다.



<그림3-5> ‘아가씨/아갓씨’의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중국인 학습자)

4. 종성 첨가 원인 분석

4.1.경음/격음 후두 긴장성 자질의 영향

한국어 V-CV 음절 구조에서 선행 음절에 종성이 첨가되는 현상은 어중 자음이 경음/격음일 경우에만 발생한다.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가 모두 동일한 평음, 경음, 격음은 아래 <표4-1>와 같이 긴장성 자질과 기식성 자질에 의하여 구별된다.

	평음	경음	격음
[긴장성]	-	+	+
[기식성]	-	-	+

<표4-1> 자음의 발성 유형에 관련된 자질

<표4-1>에서 나타나듯이 경음과 격음은 공통으로 [+긴장성]을 가지고 있어 [-긴장성]을 가지고 있는 평음과 구별된다. 긴장성(Tense) 자질이란 소리가 조음되는 과정에서 후두의 긴장을 동반하고 아울러 그렇지 않은 소리에 비하여 조음체가 조음점에 닿는 길이가 길고, 그 강도가 큰 특징을 말한다. 경음의 경우 조음될 때 조음 기관의 긴장도가 높은 편이고 격음의 경우도 경음보다는 긴장도가 낮지만 어느정도의 긴장성은 가지고 있다.

V-CV 음절 구조에서 선행 음절의 모음은 발음할 때 조음 기관에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성대의 진동만 동반되므로서 후두 긴장성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모음 뒤에 오는 경음/격음은 후두 긴장성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후두 긴장성 격차는 발음시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때문에 모국어 화자들은 발음상 편리를 위하여 선행 모음의 뒤에 종성을 첨가하여 긴장성 격차를 완화시키게 된다. 첨가되는 종성은 결과적으로 모두 폐쇄음으로 실현되는데 종성 위치의 폐쇄음은 [+ 긴장성] 자질을 가지고 있다. 폐쇄음은 ‘폐쇄->지속->개방’의 국면을 거치며 생성되는 소리이지만 종성 위치에서는 개방의 국면이 결여된 채 폐쇄와 지속만이 일어난다. 종성을 불파음으로 발음하며 폐쇄된 기류를 지속시키려는 과정에서 후두가 어느정도 긴장을 하면서 [+ 긴장성] 자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모국어 화자들은 선행 모음과 어중 경음/격음의 후두 긴장성 격차를 완화시키려는 목적에서 그 사이에 약간의 [+ 긴장성] 자질을 가진 불파음을 첨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2.언어 경제성 원리의 영향

한국어의 음절 구조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분되는데 음절 연쇄에서 모국어 화자들은 발음의 편리를 위하여 흔히 음운 대치, 탈락, 첨가, 축약 등 음운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서 초성과 종성 위치의 자음이 변동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분절음이 체계 내에서 음성적으로 변화를 가지는 현상은 모두 경제성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본고에서 논의된 V-CV 음절 구조에서도 모국어 화자들은 두 분절음 사이의 긴장성 격차에서 편리한 발음법을 찾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 어느정도 약간의 긴장성 자질을 가진 종성 위치 불파음을 모음과 경음/격음 사이에 첨가하여 발음기관의 편안한 움직임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 모국어 화자들이 두 음절의 연쇄에서 모음 사이에 /ㄴ+ ㅁ/, /ㅁ/이 존재할 경우 선행 음절의 종성 위치에서 /ㄴ/과 /ㄷ/을 구분하여 발음하지 않는 현상도 경제성 원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ㄷ/ 종성 뒤에 /ㅁ/ 초성을 발음하기 보다 /ㄴ/ 종성 뒤에 /ㅁ/ 초성을, 즉 모음 사이에서 중복 자음을 발음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편안하다. 때문에 모국어 화자들은 선행 음절 종성 위치의 /ㄷ/을 /ㄴ/으로 발음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역행 동화 현상으로서 발음기관의 편안함을 위한 경제성 원리에서 발생한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모국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비교를 통하여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이 ‘모음으로 끝나는 개음절+ 경음/격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의 V-CV 구조를

발음할 때 종성을 첨가하여 ‘동기관평음으로 끝나는 폐음절⁵+경음/격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의 VC-CV 구조와 동일하게 발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종성 첨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경음과 격음의 후두 긴장성 자질에 있는 것으로, 선행 모음과 경음/격음의 급격한 긴장성 격차를 완화시키고 조음 기관의 더욱 편리한 움직임을 위하여 그 사이에 일정한 긴장성 자질을 가지고 있는 폐쇄음 종성을 첨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참고문헌>

신지영(a), 한국어의 말소리, 도서출판 박이정, 2014.

신지영(b), 말소리의 이해, 한국문화사, 2014.

박시균, 한국어 음성 음운 교육론, 한국문화사, 2013.

최성원,전종호, 한국어 경음·기음은 중복자음인가? - 폐음절 모음의 단축화를 중심으로, 어학연구 제 34권 제3호,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1998.

⁵ 마찰음의 경우 폐음절이 아니고 ‘ㅅ’ 받침인 개음절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어 동사 ‘빠지다’의 의미와 중국어에서의 대응

진 기

논문개요: 본 논문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다의어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사 ‘빠지다’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 형식을 고찰하는 데 있다. 단어의 다의성은 언어 발전변화의 중요한 표지이다. 한국어의 많은 동사들은 원형의미와 확장의미를 가진다.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빠지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본고에서 먼저 한국어 ‘빠지다’가 사전에서의 많은 의미를 정리하여 그 다음으로 중국어에서의 대응형식을 분석연구하고 정리한다. 그리고 그 은유적 확장의미를 구체적 대상과 추상적 대상을 나눴다. 그리고 한국어 동사 ‘빠지다’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관계가 아닌 각각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본고에서는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 ‘빠지다’의 모두 의미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형식을 정리했다. 한국어를 배운 사람들이 제공하는 많은 도움을 통하여, 한국어 학습자들 용어의 잘못된 사용을 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키워드: ‘빠지다’, 원형의미, 은유적, 확장의미, 대응형식

1. 서론

1.1 연구목적 및 의의

한국어에서는 다의어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단어는 원형의미를 바탕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다의어를 형성하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동사 ‘빠지다’는 한국어에서 다의어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 범위가 매우 넓다. 의미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중국어도 많이 있다. 그러나 적절한 상황에서 의미에 맞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한국어 ‘빠지다’에 대하여 의미적 측면에서 구체전인 용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중국어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본다. 의미적 측면에서 ‘빠지다’의 사전의미를 기초로 구체적인 용례를 통하여 의미가 어떻게 확장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중국어와의 대응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글을 봄으로써, 한국어 학습자들이 일상생활과 학습에서 어휘선택을 더욱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다. 또한 용례를 통해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잘못된 사용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 학습자

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며, 번역이론과 언어연구에도 기초적 연구가 될 것이다.

1.2 선행연구 검토

한국어 동사 ‘빠지다’와 중국어에서의 대응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인지언어학 이론으로 쓰는 논문이 별로 많지 않다. ‘빠지다’의 의미 분석의 시작은 이영송(1993)이다. 庞月(2013)에서 이영송의 분석에 따라 ‘빠지다’의 수지적과 수평적 의미를 분석했다.

이영송(1993)의 <우리말 동사 ‘빠지다’의 의미 분석>에서는 동사 ‘빠지다’와 ‘떨어지다, 나가다’의 유의어를 분석하고 문학 작품에 나타난 ‘빠지다’의 다의성을 분석했다.

박선옥(2002)의 <국어 보조 동사 연구>에서는 보조동사 ‘빠지다, 터지다’의 의미에 대하여 분석했는데 선행 동사의 상태나 성질 등에 대해 화자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부정적인 가치 평가’의 의미와 더불어 명세 내용에 강세를 두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张晓静(2009)의 <现代汉语单音节动词研究>에서는 현대 한어의 1680개 단음절의 의미를 제시하고 분석했다. 그 중에서 ‘陷, 掉, 落’등 동사와 관련한 동사적 특징을 귀납적 방법으로 정리했다.

이상의 논문들이 그냥 직접적인 ‘빠지다’의 의미를 분석한다. 중국어에서의 대응형식도 적다. 그리고 인지언어학 시각으로 ‘빠지다’와 중국어에서의 대응 형식도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빠지다’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의미적 측면에서 은유이론으로 의미를 분석하고 ‘빠지다’와 중국어에서의 대응형식도 살펴보려고 한다.

1.3 연구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이 주로 한국어 ‘빠지다’와 중국어에서의 대응을 연구대상으로 의미적 측면에서는 인지언어학의 원형의미와 확장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빠지다’의 중국어에서의 대응 형식은 확인하기 위해서 예들을 다 사전에서 찾아서 자료로 삼는다.

본 논문의 구체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고의 연구목적 및 의미를 밝히고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과 연구 범위를 제시한다. 다음에는 다의어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다. 그 다음으로 한국에서 대표적인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큰사전>, <국어대사전>을 바탕으로 동사 ‘빠지다’의 사전적 의미를 정리한 후에 ‘빠지다’의 원형의미와 확장의미가 나눈다. 그리고 그 은유적 확장의미와 중국어에서의 대응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앞에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정리한다. 분석을 통해 다의어의 대응 양상을 더욱 잘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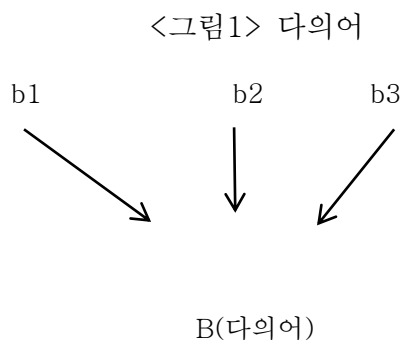
2. 다의어의 이론적 배경

이론적으로 보면, 다의관계(polysemy)는 하나의 어휘소에 유연성을 지닌 둘 이상의 복

합적 의미관계이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의미만을 지닌 어휘소를 단의어(monosemic word)라고 하는 반면, 다의관계를 맺고 있는 어휘소를 다의어(polysemous word)라고 한다. (임지룡, 2008)¹ 다의어는 원형의미와 확장의로 나눈다. 원형의미(prototype meaning)란 다의적 범주를 대표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의미를 말하며, 확장의로(extended meaning)란 파생적이고 전이된 의미를 말한다. (임지룡, 1997)² 다의어는 그 범주를 대표하는 원형의미와 확장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미확장은 대상물이 임의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직관적이고 현저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인 것인 데서 추상적인 것으로 확장 경로를 갖게 된다. (임지룡, 2009)³ 이러한 확장된 의미는 어휘 본의의 원형의미를 기반으로 확장되며 필요로 하는 논항의 의미 및 그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의미가 실현된다. ‘벗다’의 경우를 용례로 한다.

- ㄱ. 옷을 벗다.
- ㄴ. 짐을 벗다.
- ㄷ. 허물을 벗다.
- ㄹ. 의무를 벗다.
- ㅁ. 책임을 벗다.
- ㅂ. 누명을 벗다.
- ㅅ. 가난을 벗다.
- ㅇ. 촌티를 벗다.
- ㅈ. 관복을 벗다.

용례에서는 간단히 7개의 ‘벗다’는 다의관계를 이루는데, (ㄱ)은 ‘벗다’의 기본의미로서 옷따위 구체적인 사물을 벗다는 행위이며, (ㄴ-ㅈ)은 ‘벗다’의 파생의미로서 추상적인 사물을 벗다는 행위가 된다. 다의어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러므로 본고는 어휘의 원형의미 및 은유적 확장의미를 구성하는 다의어 ‘빠지다’를 중심으로 그 ‘빠지다’의 원형의미와 은유적 확장의미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형식을 분석하

¹ 본고에서 ‘다의어’의 이론적 배경은 주로 임지룡(2008)의 <국어의미론>을 기초로 분석한다.

² 임지룡(1997)의 <인지의미론>을 기초로 분석한다.

³ 임지룡(2009)의 <다의어의 관정과 의미 확장의 분류 기준>을 삼았다.

고자 한다.

동사 ‘빠지다’의 의미분석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

‘빠지다’의 정확한 의미를 추출하기 위해서 사전적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는 사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기준을 갖추어야 ‘빠지다’의 의미를 적당하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한국어의 대표적 사전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에서 대표로 한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큰사전>, <국어대사전>을 근거로 사전의 의미를 정리하고 원형의 의미와 확장의 의미를 추출한다. 원형의 의미는 한 단어의 가장 중심적이고 기본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의미의 인접성과 유사성에 근거하여 의미확장이 일어나는 것은 확장 의미이다. 그리고 동사의 원형의 의미와 확장 의미의 분류 기준은 학자에 따라 다르다. 사전들을 정리해 보면, 각 사전의 첫 번째 의미항목은 동일하며 나머지 순서나 의미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본고는 사전에서 나타난 첫 번째 의미항목을 단어의 원형의 의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확장 의미로 하였다.

3.1 동사 ‘빠지다’의 사전적 의미

‘빠지다’가 현대 한국어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큰사전>, <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의미를 분석한다. 그리고 사전에서 ‘빠지다’에 대한 품사분류는 본동사⁴ ‘빠지다’와 보조동사⁵ ‘빠지다’로 나누어 기록된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각 사전에서 나타난 의미를 정리한 후에 다음 표과 같다.

<표1>⁶ ‘빠지다’의 사전적 의미

번호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큰사전>	<국어대사전>
1	물이나 구덩이 따위속으로 떨어져 잠기거나 잠겨 들어간다.	물 속이나 구덩이 같은 곳에 떨어져 잠기다.	(물 속이나 구덩이 등에) 떨어져 들어간다.
2	박힌 물건이 제자리에서 나오다. (그릇이나 신발 따위의 밑바닥이 떨어져 나다.)	박힌 물건이 제자리에서 나오다. (밑바닥 부분이 떨어져 없어지다.)	(박혀 있는 것이) 제 자리에서 밖으로 나오다. ((그릇의 밑바닥이) 떨어져 없어지다.)
3	살이 여위다.	살이 줄어지거나 없어지다.	(살이) 여위다.
4	속에 있는 액체나 기체 또는 냄새 따위가 밖으로 새어나가거나 흘러나간다.	속에 들어 있는 기체나 액체 또는 냄새 따위가 밖으로 새어나가거나 흘러나간다.	(속에 있는 액체, 기체, 냄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간다.

⁴ 보조 용언의 도움을 받는 동사이다.

⁵ 본동사와 연결되어 그 풀이를 보조하는 동사이다.

⁶ 표의 ‘빠지다’의 의미 항목은 국립국어원(2003), 두산동아, <표준국어대사전>, 한글학회(1991), <우리말큰사전>, 이희승(1961), 민중서관, <국어대사전>.

5	때, 빗갈 따위가 씻기거나 없어지다.	때, 빗갈 따위가 빨아져서 없어지다.	(묻었거나 물든 것이) 씻기거나 없어지다.
6	차례를 거르거나 일정하게 들어 있어야 할 곳에 들어 있지 아니하다.	차례를 거르거나 일정하게 들어 있어야 할 데에 들어 있지 아니하다.	(들어 있어야 할 것이) 들지 않다.
7	정신이나 기운이 줄거나 없어지다.	ㄱ. 정신이 아주 쏠리어 헤어지지 못하다. ㄴ. 기운, 힘 따위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다.	(힘이나 기운이) 줄거나 없어지다.
8	어떤 일이나 모임에 참여하지 아니하다.	×7	(어떤 모임이나 일에) 참여하지 않다.
9	일정한 곳에서 다른 데로 벗어나다.	다른 데로 벗어나다.	(일정한 곳에서) 벗어나 딴 데로 가다.
10	남이나 다른 것에 비해 뒤떨어지거나 모자라다.	남이나 다른 것보다 모자라거나 뒤떨어지다.	(남이나 다른 것에) 뒤떨어지다.
11	×	그럴듯한 말이나 껌에 속에 넘어가다.	(껌에) 속아 넘어가다.
12	×	잠이나 혼수 상태에 들게 되다.	×
13	×	×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14	×	어려운 처지에 놓이다.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다.
15	원래 있어야 할 것에서 모자라다.	×	×
16	×	앞말이 뜻하는 성질이나 상태가 아주 심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김을 나타내는 말.	×
17	생김새가 미끈하게 균형이 잡히다.	생김새가 미끈하게 균형이 잡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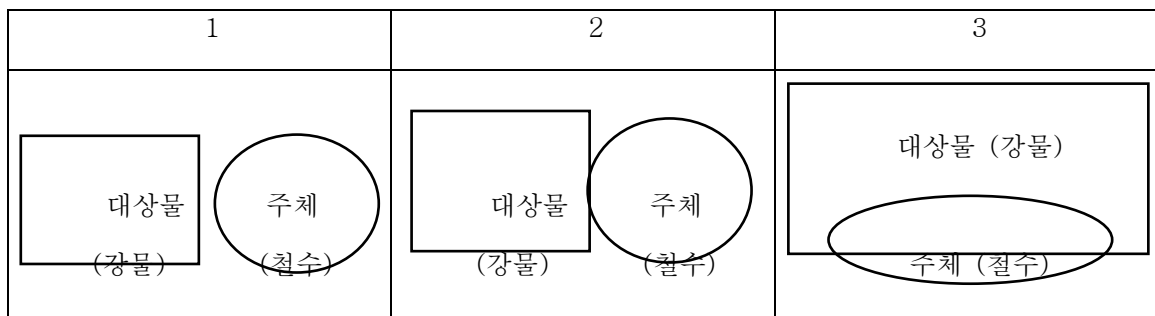
위의 정리한 의미가 보듯이, ‘빠지다’가 모두 17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각 사전에서 있는 의미가 다 다르다. 하지만 본 연구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빠지다’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 형식도 밝히고자 한다. 그 ‘빠지다’는 ‘탐닉하다, 직면하다, 속다, 혼미하다, 분주하다, 제거하다, -만 못하다, 특히, 유실하다, 유루하다, 유실하다, 유루하다’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원형의미와 은유적 확장의미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 형식이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다루겠다.

⁷ ‘×’는 각 사전에서 대응 되는 의미가 없는 것을 표시한다.

3.2 동사 ‘빠지다’의 원형의미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

원형의미⁸는 의미 중의 가장 전형적, 적절적, 중심적, 기본적, 좋은 용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전의 첫 번째 의미항목은 원형의미 혹은 기본의미를 말한다. 그리고 사전에 제일 먼저 기록된 원형의미가 거의 똑같다. 즉 ‘물이나 구덩(대상물)이 따위속으로 떨어져 잠기거나 잠겨 들어가다.’라는 의미를 제시한다. 원형의미의 대상물은 구체적인 대상물이 한정한다. 그리고 주체는 떨어져 잠기거나 잠겨 들어간다. 예문 ‘철수가 강물에 빠지다’의 원형의미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2>과 같다.

<그림2> ‘빠지다’의 원형의미의 양상도식



<그림2>를 통하여 ‘빠지다’의 대상물이 주체로부터 접근하다는 의미를 볼 수 있다. ‘빠지다’의 주체는 ‘철수’이고 대상물은 이미 밖에서 서는 행위를 통하여 몸에 안 떨어지는 ‘강물’이다. <그림1>는 ‘철수가 강물에 빠지다’의 과정을 나타낸다. 먼저 ‘강물’을 안 떨어지는 상태를 통하여 ‘철수’가 안 떨어지고 그 다음 접근하는 과정을 거친 후 마지막에 철수가 강물에 빠진다는 상태이다.

예1: ㄱ. 차가 물 속으로 빠졌다.

车掉进了水里。

ㄴ. 철수가 강물에 빠지다.

哲洙掉进了江水里。

ㄷ. 허리까지 빠지는 눈.

齐腰身的雪。

위의 보기를 보면서, ‘빠지다’는 중국어에서 대응형식이 ‘掉进, 陷没’의 의미이다. 모두 어떤 깊은 곳에 떨어져 잠기는 뜻으로 나타날 수 있다. 쉽게 분석하면 (ㄱ, ㄴ)는 ‘掉进’의 뜻을 갖는다. 원래는 ‘하향적 이동’의 의미만 가지고 근데 ‘掉进…里’ 나타날 때 같은 곳에 들어가는 의미도 있다. 이때 비주동적인 동작을 강조한다. (ㄷ)는 ‘陷没’로 제시하면 어떤 곳에 잠긴다는 상태를 더 강조한다. 앞에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과 같다.

⁸ ‘원형’(prototype)은 그 범주를 대표할 말한 가장 ‘전형적’ ‘적절한’ ‘중심적’ ‘이상적’ ‘좋은’ 보기를 말한다. (임지용(1997), <인지의미론>)

<표2> ‘빠지다’의 원형의미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

원형의미	중국어에서의 대응
물이나 구덩이 따위속으로 떨어져 잠기거나 잠겨 들어간다.	掉进, 陷没

3.3 동사 ‘빠지다’의 은유적 확장의미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

다의어의 의미확장은 원형의미의 용법을 다른 ‘국면(face)’에 적용한 것이다.⁹ 그리고 의미확장은 구체적인 근원영역¹⁰에서 추상적인 목표영역¹¹으로의 은유적 사상을 뜻한다. 은유에 의하여 의미확장의 양상은 주로 여섯 가지의 확장이 있다. 즉 다음의 도식관계와 같다.¹²

①<사람→짐승→생물→무생물>의 확장.

②<구체성→추상성>의 확장.

③<공간→시간→추상>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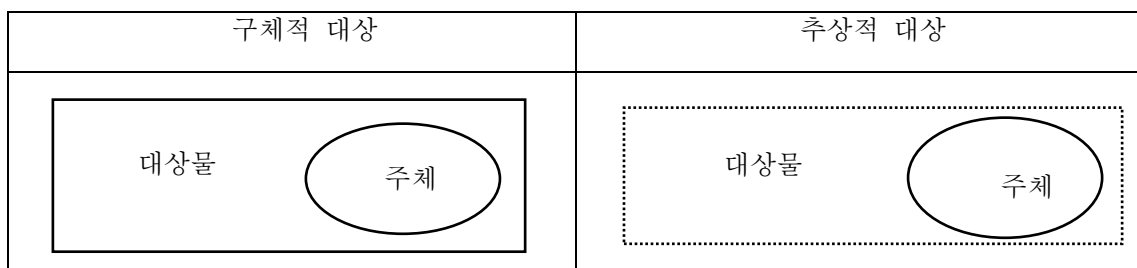
④<물리적→사회적→심리적>의 확장.

⑤<일반성→비유성→관용성>의 확장.

⑥<내용어→기능어>의 확장.

‘빠지다’의 원형의미는 대상물이 구체적인 물이나 구덩이 따위속으로 빠지다. 그런데 확장 의미는 동사 ‘빠지다’의 대상은 구체적과 추상적인 대상물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본질은 ‘존재론적 은유’(ontological metaphor)의 이론으로 쓴다. 이 이론은 추상적인 경험을 물체나 내용물에 의해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¹³ 그리고 구체적 대상과 추상적 대상으로 나눈다. 은유적 확장 의미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3>과 같다.

<그림3> ‘빠지다’의 은유적 확장 의미의 양상도식



⁹ 임지룡(1997)의 <인지의미론>을 참고하였다.

¹⁰ 근원영역은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부터 나온 것이므로 구체적 물리적이며, 명확하고 구조화된 경험이라고 한다. (임지룡(1996), <다의어의 인지적 의미 특성>)

¹¹ 목표영역은 표현하려는 영역으로서 추상적 비물리적이며 불명확하고 구조화되지 않은 경험이라고 한다. (임지룡(1996), <다의어의 인지적 의미 특성>)

¹² 이 도식관계는 임지룡(1997)의 <인지의미론>에서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¹³ 이 개념은 주요적으로 임지룡(1997)의 <인지의미론>을 삼았다.

<그림3>를 통하여 ‘빠지다’의 대상물이 구체적과 추상적인 나누다. 그리고 그 주체가 다 대상물의 안에 있다.

3.3.1 구체적 대상

사물이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도록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는 대상이다.

① 박힌 물건이 제자리에서 나오다. (그릇이나 신발 따위의 밑바닥이 떨어져나다.)

예2: ㄱ. 앞니가 빠진 아이들의 모습이 재미있어 보였다.

掉了门牙的孩子们的样子看起来很有意思。

ㄴ. 밑 빠진 그릇.

掉了底的碗。

ㄷ. 어깨가 빠졌다.

掰了膀子。

위의 예문을 보면, ‘빠지다’는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제자리에서 떨어지는 의미를 강조할 수도 있다. ‘앞니, 그릇, 어깨’ 같은 구체적인 사물로 간주한다. 중국어에서의 ‘掉…’와 대응될 수 있다. 또한 ‘어깨’등 간은 명사와 결합하면 중국어에서의 ‘掰, 拧…’와 대응된다. 일반적으로 중국어 ‘了’와 같이 사용하여 ‘掉了…’, ‘掰了…’, ‘拧了…’형식으로 나타난다.

② 속에 있는 액체나 기체 또는 냄새 따위가 밖으로 새어 나가거나 흘러 나간다.

예3: ㄱ. 물이 빠지면 모두 회복할 것 같다.

水退了, 一切都好了。

ㄴ. 음료의 공기가 빠진다.

饮料跑气了。

ㄷ. 파이프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진다.

因为有管子很容易排水。

보기를 보면서 (ㄱ)은 액체가 뒤로 물러나는 의미를 나타낸다. 중국어에서의 ‘退’와 대응된다. (ㄴ)은 음료수의 기체는 밖으로 나가는 의미이다. (ㄷ)은 물 같은 액체가 밖으로 나가는 의미를 표시한다. 중국어에서의 ‘跑, 漏排’ 이런 대응관계를 이룰 수 있다.

③ 때, 빗갈 따위가 씻기거나 없어지다.

예4: ㄱ. 이 옷의 색이 빠진다.

这件衣服掉色。

ㄴ. 바지에 묻은 얼룩들이 잘 안 빠진다.

裤子上粘的东西怎么也洗不下去。

예문에서 (ㄱ)은 옷에서 분리되어 나간다는 뜻이다. 중국어에서 ‘掉’와 대응된다. (ㄴ)은 중국어에서 ‘掉, 除’ 형식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污点, 污垢’등 명사와 결합할 것이다. 그러나 (ㄴ)에서 ‘掉, 除’와 ‘洗’결합하면 중국어에서 번역할 때 ‘洗掉’로 나타나고 ‘掉’의 의미를 표현한다.

④ 일정한 곳에서 다른데로 벗어나다.

예5: ㄱ. 잘못된 길로 빠진다.

走了错误的路。

ㄴ. 앞에 사거리로 빠진다.

奔向了前面的十字路口。

예문에서 ‘빠지다’는 ‘어떤 곳으로 돌게 되는 의미’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중국어에서의 ‘走, 奔...’와 대응된다. (ㄱ)에서 ‘길’이 현실적 의미도 있고 추상적 의미도 있다. 자세히 말하면 원래 갔던 길에서 다른 길로 들은 의미가 되고 원래의 방식을 바꾸어 다른 것을 선택하는 의미도 표시할 수 있다. (ㄴ)에서 ‘사거리’가 구체적인 방향을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중국어에서 ‘走, 奔...’와 중국어 ‘路, 途’등 명사와 같이 사용하여 이런 형식으로 나타난다.

⑤ 원래 있어야 할 것에서 모자라다.

예6: ㄱ. 구백 원만 있다면 천 원에서 백 원이 빠지는 셈이구나.

如果只有900韩元, 那么就是1000韩元少了100韩元。

ㄴ. 10만 원에서 1000원이 빠지다.

10万韩元中差1000韩元。

예문에서 ‘빠지다’는 ‘원래 있어야 할 것이 지금은 없어져다는 의미’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빠지다’와 ‘돈’이 같이 쓴다. 그때는 ‘빠지다’와 중국어에서의 ‘少, 差’와 대응된다.

⑥ 살이 여위다.

예7: ㄱ. 너 요즘 다이어트를 한다더니 살이 많이 빠졌다.

你最近减肥瘦了许多。

ㄴ. 살이 빠지다.

掉肉。

ㄷ. 앓고 나더니 얼굴의 살이 쭉 빠졌다.

病了一场, 脸消瘦了许多。

예문에서 (ㄱ-ㄷ)의 ‘빠지다’는 ‘살이 여위다’의 뜻이다. 중국어에서의 ‘掉, 瘦掉, 消瘦’와 대응된다. 항상 ‘살’등 같은 구체적 명사와 결합한다.

⑦ 차례를 거르거나 일정하게 들어 있어야 할 곳에 들어 있지 아니하다.

예8: ㄱ. 이 책에서 매우 중요한 두 페이지가 빠져 있다.

这本书上漏掉了最重要的两页。

ㄴ. 철수의 이름이 명단에서 빠졌구나.

名单上落下了哲珠的名字。

ㄷ. 빠짐없이 대답하다.

回答得没有一点遗漏。

위의 예문을 보면, ‘빠지다’는 ‘원래 있어야 할 사물이 들어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나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벌어진 상황을 의미한다. 중국어에서의 ‘漏掉, 缺少’등 형식으로 나타난다. ‘名单, 页, 字’등 명사와 결합한다.

⑧ 생김새가 미끈하게 균형이 잡히다.

예9: ㄱ. 다리가 미끈하게 빠지다.

两腿修长。

ㄴ. 잘 빠진 몸매.

修长的身材。

위의 예문을 보면, ‘빠지다’는 중국어에서의 ‘修长, 匀称’등과 대응된다. 이때는 항상 사람의 몸을 수식한다. 그리고 사람의 몸은 구체적인 대상이다.

이상 ‘빠지다’의 구체적인 대상의 8 가지 의미는 중국어에서의 대응형식으로 나타난다. 중국어에서의 대응형식은 다음 도표와 같다.

<표3> ‘빠지다’의 구체적 대상의 은유적 확장의미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

구체적 대상	중국어에서의 대응
박힌 물건이 제자리에서 나오다. (그릇이나 신발 따위의 밑바닥이 떨어져나다.)	掉了..., 掰了..., 拧了...
속에 있는 액체나 기체 또는 냄새 따위가 밖으로 새어 나가거나 흘러 나가다.	跑, 漏排
때, 빗갈 따위가 씻기거나 없어지다.	掉, 除
일정한 곳에서 다른데로 벗어나다.	走, 奔...
원래 있어야 할 것에서 모자라다.	少, 差
살이 여위다.	掉, 瘦掉, 消瘦
차례를 거르거나 일정하게 들어 있어야 할 곳에 들	漏掉, 缺少

어 있지 아니하다.	
생김새가 미끈하게 균형이 잡히다.	修长, 匀称

3.3.2 추상적 대상

어떤 사물이 직접 경험하거나 지작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대상이다.

① 정신이나 기운이 줄거나 없어지다.

예10: ㄱ. 철수는 한 말이 없어 가만히 앉아서 마치 깊은 생각에 빠졌다.

哲珠静静地坐着什么都不说好像陷入了沉思。

ㄴ. 노름에 빠져서 정신이 쏠려 헤어지지 못한다.

沉湎于赌博不能自拔。

ㄷ. 우아한 춤 속에 빠졌다.

沉醉在优雅的舞蹈中。

위에 보기를 보듯이 (ㄱ)은 ‘깊은 생각’이 추상적인 상태를 갖는다. 중국어에서의 ‘陷’과 대응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ㄱ)은 일반 정상적인 생활상태에 비해 비정상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ㄴ)(ㄷ)중에서 ‘노름’은 어떤 국체물이 사람들에게 주는 느낌이나 정서이다. 즉 어떤 느낌이나 정서속에 빠진다는 의미이다. 중국어 대응형식은 ‘沉湎, 沉溺’에 해당한다. 그리고 (ㄷ)또한 열중하는 뜻이 있다. 춤처럼 좋은 분위기를 즐겨서 나오는 의미를 표현한다. 중국어 대응형식은 ‘沉醉, 沉浸’와 대응될 수 있다.

② 그럴듯한 말이나 꾀에 속에 넘어가다.

예11: ㄱ. 사기꾼의 꾀에 빠져 재산을 날렸다.

上了骗子的当, 倾家荡产。

ㄴ. 직은 친구의 술책에 빠졌다.

直中了朋友的计。

ㄷ. 유혹에 빠지다.

陷入诱惑。

예문에서 ‘빠지다’는 ‘꾀, 술책, 유혹’등 추상적 명사와 결합하며 암수에 걸리는 뜻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중에서의 ‘빠지다’는 중국어에서의 ‘骗, 中计, 上当, 诱惑’와 대응된다.

③ 어려운 처지에 놓이다.

예12: ㄱ.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

全国都陷入了危机。

ㄴ. 궁지에 빠지다.

陷入困境。

ㄷ. 위험에 빠지다.

处于危险。

예문에서 ‘빠지다’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다’의 의미이다. 그때는 중국어에서의 ‘陷/面临/处于’와 대응된다. 그리고 ‘危机’등 명사와 결합하여 고민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도 된다.

④ 잠이나 혼수 상태에 들게 되다.

예13: ㄱ.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혼수에 빠졌다.

由于头疼而昏迷。

ㄴ. 그는 잠시 가사 상태에 빠졌다.

他暂时陷入了休克的状态。

ㄷ. 그는 너무나 깊은 잠에 빠져서 일어날 줄을 모른다.

他陷入了沉睡状态，不知道醒来。

위에 용례를 보다시피 ‘혼수 상태, 가사 상태, 깊은 잠의 상태’등 신체와 상관된 상태로 나타난다. 비정상적인 상태이다. ‘昏迷, 休克, 沉睡’와 결합하며 중국어에서의 ‘陷/进/处于’등 동사와 대응될 수 있다. 그러나 (ㄱ)에서 번역할 때 ‘昏迷’만 쓰일 수 있고 ‘处于...’생략해도 된다. 다시 말하면 ‘昏迷’ 형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⑤ 어떤 일이나 모임에 참여하지 아니하다.

예14: ㄱ. 시험때문에 저번주 수업에 빠진다.

因为考试上周没去上课。

ㄴ. 활동이 아직 안 끝나는데 그 사람이 벌써 몰래 빠져 나갔다.

活动还没有结束，这个人就偷偷溜号了。

ㄷ. 폭력집단에서 빠지다.

退出(脱离)暴力团伙。

예문을 보면서, ‘빠지다’는 항상 이런 추상적인 대상을 결합하고 사용할수도 된다. 이때는 중국어에서의 ‘缺席, 溜号...’, 退出, 脱离’등 대응될 수 있다. 항상 ‘课程, 团体, 活动’등 같은 명사와 같이 사용하여 수업등 단체에 참여하지 않는 의미를 나타낸다.

⑥ 남이나 다른 것에 비해 뒤떨어지거나 모자라다. (생김새가 미끈하게 균형이 잡히다.)

예15: ㄱ. 인물이 다른 사람에게 빠진다.

长相次于别人。

ㄴ. 이 회사 제품의 품질은 다른 회사의 것보다 빠지지 않는다.

这个公司产品的质量不次于其他公司的产品。

ㄷ. 그의 실력은 어떤 경쟁자에게도 빠지지 않는다.

他的实力绝不亚于任何竞争对手。

위의 용례를 보듯이, ‘빠지다’는 ‘다른 것에 견주어 수준이나 질이 낮다는 의미’로 뜻이다. 즉, 두 개 물건은 같은 성질을 가지지만 성질의 수준이 다르다. 항상 ‘于’을 결합하면 남보다 모자란다는 의미를 표현한다. 중국어에서의 ‘次, 亚, 不如’와 대응된다. 그리고 이때는 ‘-게’대신에 ‘잘, 제대로’ 따위의 부사어가 같이 쓰이기도 한다.

⑦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예16: ㄱ. 사랑에 빠지다.

坠入爱河。

ㄴ. 주색에 빠지다.

沉迷于酒色。

위의 용례를 보듯이, ‘빠지다’는 추상적인 명사 ‘사랑, 주색’등 같이 쓰인다. 이때는 중국어에서의 ‘坠入, 沉迷’등 대응될 수 있다. 그리고 원형의 의미가 대응하는 중국어가 같지만 수식하는 대상의 상태가 다르다. 원형의 의미는 구체적인 대상이다. 하지만 이런 추상적인 명사가 같이 쓰이면, 그러므로 이때는 추상적인 대상을 수식한다.

⑧ 앞말이 뜻하는 성질이나 상태가 아주 심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김을 나타내는 말.

예17: ㄱ. 그 아이가 정말 게을리 빠졌다.

这孩子极其懒惰。

ㄴ. 진선은 정말 늙어 빠졌다.

真善真的老的不像样。

ㄷ. 그녀가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다.

她的精神状态腐烂透顶。

예문을 보듯이 ‘빠지다’는 보조동사로 나타난다. 이때는 ‘빠지다’가 ‘어떤 상태가 몹시 심한 것을 나타내는 말은 의미’로 뜻이다. 그리고 일부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아, 어, 여...빠지다’의 형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중국어에서의 ‘极其, 异常, 透顶, 不像样’와 대응된다. 보조동사를 나타낼 때 매우 심하다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나 평가를 보인다.

이상 ‘빠지다’의 추상적인 대상의 8 가지 의미는 중국어에서의 대응형식으로 나타난다.

중국어에서의 대응형식은 다음 도표와 같다.

<표4> ‘빠지다’의 추상적 대상의 은유적 확장 의미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

추상적 대상	중국어에서의 대응
정신이나 기운이 줄거나 없어지다.	沉湎, 沉溺, 沉醉, 沉浸
그럴듯한 말이나 꾀에 속에 넘어가다.	骗, 中计, 上当, 诱惑
어려운 처지에 놓이다.	陷/面临/处于
잠이나 혼수 상태에 들게 되다.	昏迷, 休克, 沉睡
어떤 일이나 모임에 참여하지 아니하다.	缺席, 溜号..., 退出, 脱离
남이나 다른 것에 비해 뒤떨어지거나 모자라다. (생김새가 미끈하게 균형이 잡히다.)	次, 亚, 不如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坠入, 沉迷
앞말이 뜻하는 성질이나 상태가 아주 심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김을 나타내는 말.	极其, 异常, 透顶, 不像样

결론

한국과 중국은 언어문화의 측면에서 동양문화권에 속한다. 하지만 차이도 존재한다. 그래서 머릿속에 모국어의 자리를 잡고 있는 외국학생들에게 이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빠지다’의 의미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형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빠지다’에 대해서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정리했다. ‘빠지다’는 동사로서 의미가 매우 많다. 본 논문에서 ‘빠지다’는 모두 17 가지의 의미를 분석했다. 한 가지의 원형의 의미와 16 가지의 확장의 의미로 나뉜다. 그리고 중국어에서 많은 대응형식도 정리하였다. 중국어에서의 대응형식은 다음 도표와 같다.

<표5> 한국어 동사 ‘빠지다’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

		빠지다	중국어에서의 대응
원형의 미		물이나 구덩이 따위속으로 떨어져 잠기거나 잠겨 들어간다.	掉进, 陷没
구 체 적		박힌 물건이 제자리에서 나오다. (그릇이나 신발 따위의 밑바닥이 떨어져 나다.)	掉了..., 掰了..., 拧了...
		속에 있는 액체나 기체 또는 냄새 따위가 밖으로 새어나가거나 흘러 나간다.	跑, 漏排
		때, 빗줄 따위가 씻기거나 없어지다.	掉, 除
		일정한 곳에서 다른데로 벗어나다.	走, 奔...
		원래 있어야 할 것에서 모자라다.	少, 差
		살이 여위다.	掉, 瘦掉, 消瘦

은유적 확장의 미	대 상	차례를 거르거나 일정하게 들어 있어야 할 곳에 들어 있지 아니하다.	漏掉, 缺少
		생김새가 미끈하게 균형이 잡히다.	修长, 匀称
	추 상 적	정신이나 기운이 줄거나 없어지다.	沉湎, 沉溺, 沉醉, 沉浸
		그럴듯한 말이나 꾀에 속에 넘어가다.	骗, 中计, 上当, 诱惑
		어려운 처지에 놓이다.	陷/面临/处于
		잠이나 혼수 상태에 들게 되다.	昏迷, 休克, 沉睡
		어떤 일이나 모임에 참여하지 아니하다.	缺席, 溜号..., 退出, 脱离
	대 상	남이나 다른 것에 비해 뒤떨어지거나 모 자라다. (생김새가 미끈하게 균형이 잡히다.)	次, 亚, 不如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坠入, 沉迷
		앞말이 뜻하는 성질이나 상태가 아주 심 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김을 나타내는 말.	极其, 异常, 透顶, 不像样

이처럼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언어가 다의어 변화에 나타나는 대응분석의 시점으로 연구에 접근해 보았다. 그리고 본 논문은 한국어 ‘빠지다’의 원형의미와 은유적 확장의미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형식의 분석이 아직 부족하고 더욱 깊게 연구하지 못한 점도 있다. 이 다음으로 다의어에 대한 연구를 더욱 열심히 하여 계속 대응분석을 진행하기로 하겠다. 이 연구에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한국어 ‘빠지다’의 의미를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을 제공하면 좋겠다. 또한 학습자들이 한국어 ‘빠지다’의 의미에 대해서 더욱 상세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2003년
- [2]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 1991년
- [3]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1961년
- [4] 김영란, <한국어 ‘타다’와 중국어‘乘’의 대비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7년
- [5] 박선옥, <국어 보조 동사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2년
- [6] 이영송, <우리말 동사 ‘빠지다’의 의미 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1993년
- [7] 임지룡, <원형의미과 의미의 범주화>, 국어학 23, 1993년
- [8] 임지룡, <다의어의 인지적 의미 특정>, 국어학 18, 1996년
- [9] 임지룡, <다의어 ‘사다’ ‘팔다’의 임지의미론적 분석>, 국어국문학회 129, 2001년
- [10] 임지룡, <의미망 분석과 다의성 관정의 정리>, 국어와 인지 16, 2009년
- [11] 임지룡, <다의어의 관정과 의미 확장의 분류 기준>, 한국어의 의미학28, 2009년
- [12] 주문효, <한국어 ‘치다’와 중국어 ‘打’의 대비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1년
- [13] 庞月, <한국어 동사 ‘빠지다’의 특징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연구>, 延边大学硕士论文, 2013年
- [14] 张晓静, <现代汉语单音节动词研究>, 四川师范大学硕士论文, 2009年

한국어 절단 동사 ‘끊다’의 의미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 분석

강 교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한국어 절단 동사 ‘끊다’의 의미를 분석하여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을 찾는 데에 목적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한국어 절단 동사 ‘끊다’의 의미를 살펴보면 총 15 개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단어 의미가 원형의미에서 다양하게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끊다’는 기본 어휘의 하나로서 아주 빈번히 사용되는 중요한 어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절단 동사 ‘끊다’의 의미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한국어에서 ‘끊다’라는 보편적인 언어 범주가 중국어에서 어떤 범주로 실현되는지를 대조, 분석하되 인지언어학의 개념적 은유와 환유의 이론을 운용하여 연구한다. 한국어의 절단동사 ‘끊다’의 사전의미를 제시한 다음에 원형의미와 확장미별로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을 찾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은유와 환유적 관점으로 ‘끊다’의 확장의미를 중국어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1.3 선행연구 검토

한국어 절단 동사 ‘끊다’에 대한 연구는 다른 다의어에 비하여 활발하지 못하고 있다. ‘끊다’에 관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자르다’, ‘베다’와 같이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끊다’의 의미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은 거의 없다. ‘끊다’의 어휘 분석은 정병도(1986)에서 처음 나왔다. 이후에 김해연등은 기존의 연구에 따라 재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재분석한 것들이 있다.

정병도(1986) <국어 ‘나눔’ 동사의 유사성 연구>에서 한국어를 대상으로 하여 [대상의 나눔]과 유의관계에 있는 동사들의 쓰임의 차이를 밝혔는데 특히 동사가 선택하는 동작 대상과의 선택 제약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김해연(2014)<절단 동사 ‘끊다’, ‘자르다’, ‘베다’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코퍼스언어학적 분석>에서 절단 또는 분리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의어 ‘끊다’, ‘자르다’, ‘베다’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한국어 말뭉치에서 이들 어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자들의 직관에 의존한 동의어의 연구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동의어의

연구는 실제 사용된 텍스트를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코퍼스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하였다.

지금까지 절단 동사 및 중국어에서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한 논문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절단 동사 ‘끊다’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의미적 측면에서 은유이론과 환유이론으로 의미를 분석하여 ‘끊다’의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을 찾아 내고자 한다.

2. 동사 ‘끊다’의 의미적 분석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

2.1 ‘끊다’의 사전의미

한국어 사전들을 살펴보면 동사 ‘끊다’에 대한 의미해석은 다르다. 여기서는 여러 국어사전 중에서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사전으로 “표준”적인 역할을 하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을 참고하도록 한다. <표 1>에서 제시하듯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해석된 ‘끊다’의 의미를 살펴보면 총 15 개, 『연세한국어사전』에서 해석한 의미는 모두 8 개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1. 실, 줄, 끈 따위의 이어진 것을 잘라 따로 떨어지게 하다.	1. (길게 이어진 것을) 잘라 동강을 내다.
2. 관계를 이어지지 않게 하다.	2. 가) (계속 이어오던 것을)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게 하다. 나) (계속 해 오던 일을) 중간에 그만두다. 다) (늘 버릇처럼 해 오던 것을) 그만두다.
3. 하던 일을 하지 않거나 멈추게 하다.	3. (대화를) 잠시 쉬거나 그만두다.
4. 습관처럼 하던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다.	4. 통화를 마치다.
5. 공급하던 것을 중단하다.	5. [주로 ‘끊어서 읽다, 말하다’ 등으로 쓰이어] (분명히 말하기 위하여) 말의 마디를 자르다.
6. 배달하던 것을 배달하지 못하게 하다.	6. (차표나 수표 등을) 사거나 발행하다.
7. 길 따위의 통로를 막다.	7. (필로 되어 있는 옷감의 일부를) 사다.
8. 말을 잠시 중단하다.	8. (목숨을) 없애다.
9. 말이나 문장 따위에서 사이를 두다.	
10. 옷감이나 표 따위를 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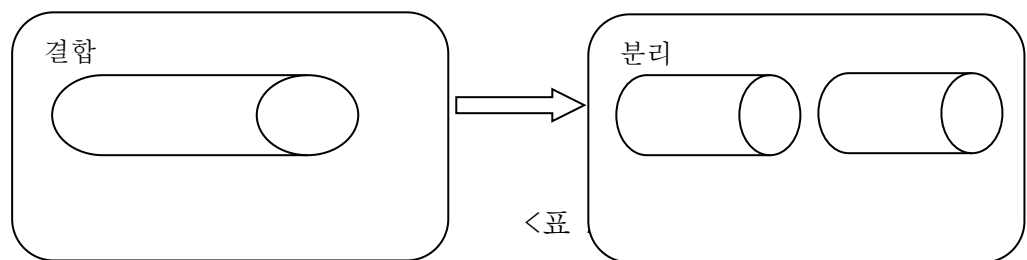
11. 수표나 어음 따위를 발행하다.	
12. 목숨을 이어지지 않게 하다.	
13. 전화 통화의 송수신을 멈추게 하다.	
14. 거래나 셈 따위를 매듭짓다.	
15. 목표 지점을 통과하다.	

<표 1> ‘끊다’의 사전의미

2.2 원형의미 분석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

단어의 의미는 원형의미와 확장의미¹로 나누어진다. 원형의미란 문맥에 물들여지거나 연상되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문맥이나 상황에서도 찾을 수 있는 객관적인 의미이다. 원형의미는 고정적이고 언어생활에서든 어휘 연구에서든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다.

‘끊다’에 대한 두 사전에서의 해석들을 살펴보면 다른 점이 있지만 중심적인 원형의미는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끊다’의 원형의미는 ‘이어진 것을 잘라 따로 떨어지게 하다.’라는 뜻이다. 이로써 ‘끊다’의 원형의미를 도식화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예:

1ㄱ. 실을 이빨로 끊다.²

用牙把线弄断

ㄴ. 뿌리를 끊다.

截断根部

ㄷ. 노끈을 손으로 잡아당겨 끊다.

用手把细绳拉断

예문 1 을 살펴보면 ‘끊다’는 구체 명사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1ㄱ)에서 “실”이라는 구체명사가 사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뿌리’, ‘끈’, ‘줄’, ‘매듭’ 등과 같

¹ 최경봉(1990)단어의 의미확장과 어휘 체계에서 단어의 의미 확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의미속성 정보와 개념적 연관성을 유지하는 전화에 의한 의미 확장이고, 또 하나는 활용적 맥락에서만 개념적 연관성이 유지되는 은유적 의미 확장이다.

² 본 논문 모든 용례 출처는 NAVER한중사전이다.

은 어휘들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끊다’의 의미는 예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보통 중국어의 ‘斷’, ‘截斷’, ‘剪’과 대응될 수 있다. 중국어 斷‘라는 동사가 항상 두음절인 단어로 나타나므로 목적어와 어울려서 ‘切斷’, ‘弄斷’, ‘截斷’등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앞의 논의한 것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원형 의미	대상물	중국어에서의 대응
이어진 것을 잘라 따로 떨어지게 하다.	실, 줄, 끈 따위의 이어진 것	剪(斷), 斷, 截(斷), 掐

<표 3> ‘끊다’의 원형의미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

2.3 ‘끊다’의 확장의미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

이 절에는 동사 ‘끊다’의 확장의미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 관계를 논의하되 주로 은유, 환유이론을 운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인지언어학중 비유는 크게 은유와 환유를 들 수 있는데, 은우는 유사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면에 환유는 인접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³

두 사전에 등재된 ‘끊다’의 의미를 보면 『표준국어대사전』에 총 15 개가 수록되었는데 『연세한국어사전』의 해석이 다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본고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라 ‘끊다’의 확장의미를 연구하기로 한다.

2.3.1 은유적 확장의미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

<표 1>중의 ‘끊다’의 확장의미가 무질서적이고 임의적인 성격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인간의 인지에 의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확장된 것이다. 은유는 다른 사물에 속하는 명칭을 한 사물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즉, ‘은유는 X는 Y에 의해 이해된다.’라는 개념적 관계이다. 의미확장은 구체적인 근원영역⁴에서 추상적인 목표영역⁵으로서의 은유적 사상을 뜻한다, 은유에 의하여 의미확장의 양상은 주로 여섯 가지의 확장이 있다. 즉,

①사람→동물→생물→무생물의 확장

②구체성→추상성의 확장

③공간→시간→추상의 확장

④물리적→사회적→심리적의 확장

⑤일반성→비유성→관용성의 확장⁶

³ Ullmann(1962)은 동가원리에 의해 유사성에 입각한비유를 은유라 하고, 인접성의 관계에 있는 비유를 환유라고 분류하였다.

⁴ 임지룡(1996)은 근원영역은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부터 나온 것이므로 구체적 물리적이며, 명확하고 구조화된 경험이라고 설명했다.

⁵ 임지룡(1996)은 목표영역은 표현하려는 영역으로서 추상적 비물리적이며 불명확하고 구조화되지 않은 경험이라고 설명했다.

⁶ 언어는 일차적으로 글자 그대로의 용법을 중심으로 쓰이며, 이차적으로 비유성을 획득하는데 비유가 한층

⑥내용어→기능어의 확장⁷

본절에서는 주로 ‘끊다’의 서술 대상을 중심으로 은유적 확장의미를 살펴보겠다. 즉, 명사와의 공기관계별로 논술하고자 한다.

첫째, ‘끊다’는 어떤 행위나 습관이 중지되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이때 ‘끊다’는 구체성→추상성의 확장 과정을 거쳐서 뜻이 확장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가 ‘전화를 ‘끊다’’, ‘말을 ‘끊다’’, ‘대화를 ‘끊다’’ 등이 있다. 다음으로 지속되는 습관을 중지를 나타내는 경우로 ‘담배를 ‘끊다’’, ‘술을 ‘끊다’’ 외에도 ‘마약/아편을 ‘끊다’’, ‘곡기/밥을 ‘끊다’’ 등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는 것이 있다. 이러한 경우는 ‘전화대화’, ‘흡연’, ‘음주’, ‘중독약품 사용’ 등의 행위를 가리킬 때 ‘끊다’가 사용되는데, ‘수도/급수를 ‘끊다’’, ‘과외를 ‘끊다’’ 등과 같이 어떤 지속적인 활동이나 공급이 중단된 사태를 나타낼 때도 ‘끊다’가 사용되고 있다.다음은 그러한 예들이다.

2ㄱ.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면 안 되지.

戒了的烟再抽是不行的。

ㄴ. 전화 일단 끊지마요, 잠시 기다리세요.

先别挂电话, 稍等一会吧。

ㄷ.현빈이 아무렇지 않은 듯 그녀의 말을 딱 끊었어.

玄彬装作没事的样子突然打断了她的话。

ㄹ. 오늘 급수 끊겠대. 물 좀 받아 놓아야 겠다.

今天说是停水, 得存点水啊。

“담배를 ‘끊다’”, “전화를 ‘끊다’”, “말을 ‘끊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끊다’는 어떤 지속적인 행동이나 활동 또는 습관을 중지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의 ‘끊다’는 중국어에서의 ‘戒(烟酒毒品等)’, ‘挂(电话)’, ‘打断(谈话)’등과 대응될 수 있다.

둘째, ‘끊다’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와 어울려서 사용되는 것이다. 추상적인 개념으로는 생명, 관계, 심리 등의 항목으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이다.

3ㄱ.그녀는 이제 남자친구과 정을 끊으려 한다.

她现在想结束和男朋友的感情。

ㄴ.겪었던 수많은 고난을 생각나서 그는 참지 못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

想起自己所经历的痛苦他忍无可忍并断送了自己的性命。

굳어져서 관용성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⁷ 어휘적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어는 기능어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문법화라고 한다. 예컨대, 보조동사놓다는 본동사에서 확장된 것이다.

ㄷ.우리 같이 8년을 했는데 이 정을 내가 어찌 끊겠어?

我们在一起八年这段感情我怎么能割舍。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끊다’가 추상명사와 같이 사용될 때는 (3ㄱ)처럼 심리상태 명사, 즉 ‘사랑’, ‘정’, ‘의지’, ‘번뇌’와 같은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의 ‘끊다’는 중국어 ‘结束’、‘绝(情)’、‘断(情)’등과 대응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3ㄴ)에서는 생명과 관련된 명사, 즉, ‘목숨’, ‘숨(통)’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이와 대응하는 중국어 양상은 ‘断(气儿)’、‘送(命)’이다. 다음으로 ‘끊다’는 관계를 나타내는 말 ‘인연’, ‘연결’, ‘연관’, ‘연락’, ‘소식’ 등과 같은 명사들과 같이 사용되어 상호교류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도 역시 ‘割舍(感情)’、‘断了(联系, 消息)’등 형식과 대응된다.

앞의 논의한 ‘끊다’의 은유적 확장 의미를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 <표4>과 같다.

‘끊다’의 대상	중국어에서의 대응
은유적 확장 의미(물리적→심리적)	
담배/술/마약	戒
전화	挂断
말	打断
수도/급수	停
정/사랑/의지	割舍
목숨	断/送
인연/연락/소식	结束

<표4>은유적 확장 의미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

2.3.2 환유적 확장 의미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

환유는 한 실재물 e1의 이름을 인접한 다른 실재물 e2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환유는 지칭기능과 인접성을 띠고 있다.⁸ 앞에 논의한 은유는 유사성을 띠고, 계열적 관계로써 존재하는 반면에 인접성은 동일한 경험 영역에서 실재물 사이에 유지되는 결합적 관계이고 서로 관련성을 지니고 의미전이가 산속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즉 ‘환유는 X는 Y를 대표한다.’라는 개념적 관계이다.

‘끊다’의 환유적 확장 의미는 이미 고정된 표현이 있다. 다음으로 살펴보겠다.

첫째, ‘끊다’는 어떠한 구매나 거래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데, ‘수표’, ‘전표’, ‘차표’ 등과 같이 경제활동과 관련되는 명사들이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 있다. 예를 들자면

⁸ 레이콘 존슨(1980)은 환유란 그 일차적으로 지칭기능을 갖는데 다른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한 실재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구별 기준을 삼았다.

다음과 같다.

4ㄱ. 24일 방학인데 너 기차표 끊었어?

24号放假, 你买火车票了吗?

ㄴ. 어머니는 시장에서 천을 끊어서 손수 옷을 지으셨다.

妈妈在市场买了布料亲手做了衣服。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끊다’는 주로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특정 증명 표지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 사용된다. 즉, (4ㄱ)에서 ‘열차표를 끊다’나 (4ㄴ) ‘천을 끊다’와 같은 표현은 열차표나 천을 구입한 경우를 말하고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차표나 천을 잘라서 한 부분은 보관하고 한 부분은 고객에게 준다는 점에서 원래 절단의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행위가 구매나 거래의 경제 활동의 일부라는 점에서 원래의 절단의 의미가 약화되고 거래의 경제 활동의 의미를 갖게 되어 ‘끊다’가 환유적 의미를 갖게 되어 사용되는 경우라 하겠다(Lakoff and Johnson 1980; Kovecses 2002; Barcelona 2003; Dirven and Porings 2003).⁹ 따라서 이런 경우에 ‘끊다’는 ‘ㅍ’와 대응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끊다’는 교재나 거래 관계를 중단한다고 표현할 때 사용되는데, ‘손’, ‘발’, ‘발걸음’ 등과 같이 신체부위 관련된 명사들이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5ㄱ. 나쁜 친구들과 손을 끊어라.

别和坏孩子交往.

ㄴ. 부모님이 계시는데 일년 내내 발걸음 끊어야 되겠어?

父母都还健在一年里还能不来往吗?

(5ㄱ)에서는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 “손을 ‘끊다’”라는 표현으로 (5ㄴ)에서 “발걸음”이라는 행위/행동을 나타내는 명사와 같이 사용되어 “발걸음을 ‘끊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비유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때 중국어에서의 ‘不和...交往/来往’과 대응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한 명사와 공기관계를 이루어서 언어유형을 만들고 이러한 유형들은 고정 숙어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테이프를 ‘끊다’와 같은 경우 개막식 행사 등과 같은 경우에 문자 그대로 ‘테이프를 끊는 행위’에 있어서 본래적 의미가 약화되고 어떠한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환유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이와 대응되는 중국어 양상은 ‘开业(剪彩)’이다. 마찬가지로 비록 용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목표를 ‘끊다’와 같이 ‘목표 지점의 테이프/결승선을 끊는 행위’가 어떠한 목표 지점에 도달, 달성한 경우를 가리키는 의미를 갖는데, 이와 대응되는 중국어 양상은 ‘达成’, ‘到达’이다.

앞의 논의한 바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⁹ 김해연(2014) 절단 동사 ‘끊다’, ‘자르다’, ‘베다’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코퍼스언어학적 분석 참고

환유적 은유	중국어에서의 대응
표/천 ‘끊다’	买 (票, 布)
손/발, 발걸음을 ‘끊다’	不交往, 不来往
테이프를 ‘끊다’	开业, 剪彩
목표를 ‘끊다’	达成 (目标)

<표 5> 환유적 확장 의미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

결론

본 논문 한국어 절단 동사 ‘끊다’를 대상으로 그의 의미 양상과 중국어에서의 대응 관계를 분석하였다. 절단 동사 ‘끊다’는 사용빈도가 높은 절단 동사로서 그 의미가 다양하고 복잡한 편이다.

‘끊다’의 사전의미를 기초로 하여 원형의 의미와 확장의 의미를 분석해 은유적 확장 및 환유적 확장별로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을 찾아 냈다. ‘끊다’의 은유적 확장 의미는 중국어에서의 ‘戒’, ‘挂’, ‘打断’, ‘停’, ‘割舍’, ‘断送’, ‘结束’ 등 양상과 대응될 수 있고 환유적 의미는 중국어에서의 ‘买’, ‘不交往’, ‘开业’, ‘达成’ 등과 대응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절단 동사 ‘끊다’의 의미를 분석하고 대조함으로써 인지언어학적 시점으로 단어 연구에 접근해 보았다. 본 논문 필자의 수준 제한으로 인해 부족한 점이 많다. 추후 연구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1] 고열, 한국어 동사 ‘벗다’의 중국어에서의 대응 연구, 연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2] 왕연, 한국어 ‘잡다’와 중국어 ‘抓’의 의미 확장 양상 대비, 연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3] 장박원, 한국어 동사 ‘달다’와 중국어 동사 ‘挂’의 대비, 연변대학교/송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4] 김해연, 절단 동사 ‘끊다’, ‘자르다’, ‘베다’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코퍼스언어학적 분석. 담화와 인지, 21(3), 1-23, 2014
- [5] 정병도, 국어 ‘나눔’ 동사의 유사성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6]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 [7] 연세한국어사전, 1998
- [8] NAVER 한중사전

한국어 동사 ‘붙다’의 의미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

장 영

요지:

다의어는 두 개나 두 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각 의미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언어학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한국어 동사 ‘붙다’는 의미를 풍부하지만 중국어의 대응 형식 ‘貼’의 의미항목은 많지않다.¹ 또한 선행연구에서 ‘붙다’와 관련된 연구는 찾지 어렵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한국어 동사 ‘붙다’를 대상으로 ‘붙다’의 확장기제를 분석하고 ‘붙다’의 의미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 형식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주로 여러 사전에 기초하여 의미론과 인지언어학의 각도에서 동사 ‘붙다’에 대한 연구한다. 의미론은 주로 한국어 동사 ‘붙다’의 의미를 살펴보고 중국어에서의 대응 형식을 연구한다. 인지언어학 중의 확장기제는 주로 어휘의 원형의미와 확장의미에 대한 살펴본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의미론과 인지언어학의 각도에서 한국어 동사 ‘붙다’에 대한 연구를 한다.

제1장은 서론이다. 본문의 연구목적 및 의미를 설명한다.

제2장은 한국어 동사 ‘붙다’의 사전적 의미를 정리하여 예문을 통해 중국어에서의 대응 형식을 살펴본다.

제3장은 제2장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동사 ‘붙다’의 원형의미와 확장의미에 대한 연구하고 ‘붙다’의 확장 기제를 살펴본다.

제4장은 결론이고 부족한 점도 제시한다.

키워드: 다의어; 동사 ‘붙다’; 대응; 확장기제

1. 서론

동사는 한 문장의 의미적 중심이 되는 것이다. 동사는 내부구조가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뜻을 가지기 때문에 어휘의미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것은 동사가 다양한 문맥속에서 의미가 어떻게 분화, 확장되었으며 의미파생의 경로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¹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동사 ‘붙다’의 의미 항목은 22 개 있고 <现代汉语辞典>(2007)에서 동사 ‘貼’의 의미 항목은 3 개 있다.

외국인이 다의어를 배운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모어 화자들은 동사를 문장 속에서 활용하는 것은 두부 끊기나 다름이 없다. 모어 화자들에게 있어서 문장 속에서 동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하지만 외국인일 경우 다의성을 가진 동사를 학습하고 활용하는데 아주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다의어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만 동사 ‘붙다’에 관한 연구는 찾지 어렵다. 또한 한국어 동사 ‘붙다’의 의미 항목은 많기 때문에 많은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동사 ‘붙다’의 확장기제를 분석하고 그 의미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관계를 밝힌 것이다.

2. ‘붙다’의 의미 분석

2.1 ‘붙다’의 사전적 의미

본 연구에서 ‘붙다’의 의미 부분은 <표준국어대사전><우리말 큰사전>을 바탕으로 한다. 먼저 두 사전에서 ‘붙다’의 의미부터 보기로 한다.

<표1> ‘붙다’의 의미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 큰사전
<1>	맞닿아 떨어지지 아니하다. ㉠: 전신주에 광고 쪽지가 붙어 있었다.	맞닿아서 떨어지지 아니하다. ㉠: 벽에 붙은 그림.
<2>	시험 따위에 합격하다. ㉠: 대학에 붙다.	(시험이나 선발 따위에 응하여)뽑히다. ㉠: 시험에 붙다.
<3>	불이 옮겨 타기 시작하다. ㉠: 산불이 여기저기에 붙었다.	
<4>	어떤 일에 나서다.또는 어떤 일에 매달리다. ㉠: 보고 있지만 말고 너도 그 일에 붙어서 일 좀 해라.	
<5>	시설이 딸려 있다. ㉠: 새마을 열차에는 식당 차가 붙어 있다.	맞닿아서 하나로 어울리거나 이어지다. ㉠: 특급 열차에는 식당 차가 붙어 있다.
<6>	조건,이유,구실 따위가 따르다. ㉠: 그 법률에는 유보 조건이 붙어 있었다.	
<7>	식물이 뿌리가 내려 살다. ㉠: 그래야 뿌리가 붙거든요.	
<8>	어떤 장소에 오래 머무르다. 또는 어떤 판에 끼어들다. ㉠: 집에 붙어 있어라.	(일정한 장소에)꽤 오래 몸을 두다. ㉠: 집에 붙어 있을 새가 없다.

<9>	주가 되는 것에 달리거나 딸리다. ㅍ: 그 논문에는 주석이 붙어 있다.	
<10>	물체와 물체 또는 사람이 서로 바짝 가까이 하다. ㅍ: 어린애가 엄마에게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어떤 물체나 대상에 바짝 가까이 하다. ㅍ: 붙어 서다.
<11>	생활을 남에게 기대다. ㅍ: 그는 지금 남의 집에 붙어서 겨우 끼니를 잇고 있는 형편이다.	
<12>	바로 옆에서 돌보다. ㅍ: 위급 환자에게는 한상 간호원이 붙어 있다.	
<13>	쫓아서 따르다. ㅍ: 권력자에게 붙다.	
<14>	귀신따위가 옳아 들어 작용하다. ㅍ: 그 집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귀신이 붙는다는 소문이 있다.	옳아 들어서 일거나 작용하다. ㅍ: 귀신이 붙다. 붙이 붙다.
<15>	실력 따위가 더 생겨 늘다. ㅍ: 이제 우리 상품에도 국제 경쟁력이 붙었는지 해외에서 잘 팔리고 있다.	
<16>	어떤 것이 더해지거나 생겨나다. ㅍ: 몸에 살이 붙다.	
<17>	목숨이나 생명 따위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ㅍ: 나에게 생명이 붙어 있는 날까지는 너를 보살필 것이다.	
<18>	이름이 생기다. ㅍ: 그 선생님에게는 딸각발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	(어떤 것에)딸리다. ㅍ: 나쁜 별명이 붙다.
<19>	겨루는 일 따위가 서로 어울려 시작되다. ㅍ: 친구와 싸움이 붙다.	어떤 일이 서로 어울리어 시작되다. ㅍ: 언쟁이 붙다.
<20>	어떤 감정이나 감각이 생겨나다. ㅍ: 부부는 살다 보면 정이 붙기 마련이다.	어떤 감정이나 감각이 생겨 떨어지지 아니하다. ㅍ:정이 붙다.
<21>	암컷과 수컷이 교합하다. ㅍ: 개 두마리가 붙었다.	암컷과 수컷이 교합하다.
<22>	(속되게)남녀가 가까이 지내거나 성교하다. ㅍ: 양반 출신인 그녀가 설마 하인과 붙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위 <표1>을 보듯이 사전에서 ‘ 붙다 ’ 는 22개 의미를 가진다. 의미 ‘<1>,<2>,<5>,<8>,<10>,<14>,<18>,<19>,<20>,<21>’는 모든 사전에서 의미를 볼 수

있다. ‘<3>,<4>,<8>,<7>,<9>,<11>,<12>,<13>,<15>,<16>,<17>,<22>’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만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여 총 10개의 의미에 대하여 예문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겠다.

2.2 ‘붙다’의 의미분석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

[1] 맞닿아 떨어지지 아니하다

본절에 나오는 의미는 다 표 ‘붙다’의 의미 중에서 <1>은 여기에 속한다. 그 중 ‘붙다’는 두 물체사이에 틈이 없이 부착하는 상태이고 두 물체는 주체와 객체를 나누어 부착하는 상태는 새로운 개체로 간주한다.

(1)턱에 밥알이 붙었다.

下巴沾上了饭粒。

(2)손에 붙은 고약을 벗기다.

揭下粘在手上的膏药。

(3)옷에 붙은 벧가락을 떼다.

把扎在衣服上的稻芒撸下来。

(4)대부분의 금속은 자석에 붙는다.

大部分金属都能吸附在磁铁上。

(5)대문 양측에 춘련이 붙어 있다.

大门两侧贴着一副春联。

(6)이 감에는 아직 서리가 붙어 있다.

这柿子还挂着霜呢。

위 예문(1-9)에서의 ‘붙다’는 다 ‘맞닿아 떨어지지 아니하다’의 뜻을 가진다. (1)에서 ‘밥알’은 ‘턱’에 묻다는 뜻이고 ‘밥알’은 주체이고 ‘턱’은 객체를 속한다. 주체 ‘밥알’과 객체 ‘턱’사이에는 틈이 없이 부착하는 관계를 속한다. 그때는 ‘밥알’과 ‘턱’의 부착하는 상태는 새로운 개체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붙다’는 중국어 ‘沾’와 대응한다. (2)에서 ‘고약’은 ‘손’에 부착하는 뜻이고 주체 ‘고약’과 객체 ‘손’사이에는 틈이 없는 상태를 속한다. 그때의 ‘고약’은 테이프의 성질과 같기 때문에 ‘붙다’는 중국어 ‘粘’와 대응한다. (3)에서 주체 ‘벧가락’과 객체 ‘옷’은 틈이 없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속하고 주체와 객체의 부착하는 상태는 새로운 개체로 간주한다. 그때 ‘붙다’는 중국어 ‘扎’와 대응한다. (4)에서 객체 ‘자석’은 자성이 있고 주체 ‘금속’을 흡착할 수 있다. ‘자석’과 ‘금속’은 긴밀하게 흡착하는 상태를 형성하고 틈이 없는 상태를 속하기 때문에 ‘붙다’는 중국어 ‘吸附’와 대응한다. (5)에서 주체 ‘춘련’은 객체 ‘대문 양측에’ 틈이 없이 긴밀하게 부착한다

는 상태이고 ‘대문’과 새로운 개체가 형성한다. 그때 ‘붙다’는 중국어 ‘贴’와 대응한다. (6)에서는 객체 ‘감’의 표면에 주체 ‘서리’가 있다는 뜻을 가진다. ‘서리’는 ‘감’에서 부착하고 틈이 없이 긴밀하는 상태를 속한다. 그때 ‘붙다’는 중국어 ‘挂’와 대응한다.

[2] 머무르다

본절에 나오는 의미는 다 표 ‘붙다’의 의미 중에서 <7><8>는 여기에 속한다. 그 중 ‘붙다’는 어떤 일정한 공간 속에 머무르고 둔다의 뜻을 가진다.

(7)잔뿌리가 땅에 든든하게 붙다.

须根牢牢地扎入土里。

(8) 옮겨 심은 나무는 뿌리가 땅에 붙을 때까지 물을 잘 주어야 한다.

移种的树在生根之前要浇好水。

(9) 그는 하루도 집에 붙어 있지 않는다.

他一天也没在家待过。

(10) 그는 밤낮 가리지 않고 노름판에 붙어 지냈다.

他不分昼夜地待在赌场里。

위 예문(7-10)에서 다 ‘두다’의 뜻을 가진다. 예문(7)에서 ‘잔뿌리’가 ‘땅’에 산다는 뜻이다. ‘잔뿌리’는 ‘땅’의 공간에 계속 머무르고 상대적으로 안정한 상태를 속한다. 그대 ‘붙다’의 의미는 중국어 ‘扎’와 대응한다. 예문(8)에서 ‘붙다’의 의미는 예문(7)와 같지만 여기에 ‘根扎入土里’를 사용하지 않고 ‘生根’로 번역한다. 예문(9-10)에서 ‘집에 붙어’와 ‘노름판에 붙어’는 다 ‘일정한 공간에 머무르다’의 뜻이고 상대적인 안전한 상태를 가리킨다. 그 중 ‘붙다’의 의미는 ‘待’와 대응한다.

[3] 합격하다

본절에 나오는 의미는 다 표 ‘붙다’의 의미 중에서 <2>는 여기에 속한다.

(11) 학교에 붙다.

被学校录取。

(12) 그가 뜻밖에 대학에 붙었다.

他居然考上了大学。

(13) 입사 시험에 붙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다.

想通过入社考试好比摘天上的星星。

위 예문(11-13)에서는 다 합격한다는 뜻을 가진다. (11)에서는 그 학교의 입학 조건을

부합하기 때문에 그 학교를 뽑힌다는 뜻이다. 그때 ‘붙다’는 중국어 ‘录取’와 대응한다. (12)에서는 그 학교의 점수를 이르는 뜻이고 시험에 합격한다. 그때 ‘붙다’는 중국어 ‘考上’와 대응한다. (13)에서 ‘입사 시험에 붙는’은 입사 시험을 통과하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붙다’는 중국어 ‘通过’와 대응한다.

[4] 가까이하다

본절에 나오는 의미는 다 표 ‘붙다’의 의미 중에서 <10><21><22>는 여기에 속한다. 그 중 ‘붙다’는 두 사물사이에 접근하고 주체와 객체사이에 아주 가까이한다는 뜻을 가진다.

(14)전화통에 붙어 있는 직원.

拿着话筒的职员。

(15)어린애가 엄마에게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小孩子紧贴着妈妈，不肯离开。

(16)배는 해안에 바짝 붙어서 움직였다.

船紧靠海岸行驶。

(17)경비실은 정문 왼쪽에 붙어 있습니다.

传达室挨着正门左边。

(18)암컷과 수컷이 붙는다.

雌雄交配。

(19)양반 출신인 그녀가 설마 하인과 붙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想不到出身两班的她竟然和下人交往。

위 예문(14-19)에서 다 ‘가까이한다’의 뜻을 가진다. (14)에서 ‘전화통에 붙어’는 ‘전화통’과 가까이하고 틈이 거의 없는 상태를 표현한다. 그때 ‘붙다’의 의미는 중국어 ‘拿着’와 대응한다. (15)에서 ‘어린애’와 ‘엄마’의 가까운 상태를 ‘붙다’로 표현한다. 그 중 ‘붙다’의 의미는 중국어 ‘紧贴’와 대응한다. 예문(16)에서 ‘배’와 ‘해안’의 거리는 가까운 상태이고 긴밀한 정도를 미치기 때문에 그 중 ‘붙다’의 의미는 중국어 ‘紧靠’와 대응한다. 예문(17)에서 ‘경비실’과 ‘정문 왼쪽’사이의 거리는 멀지 않고 가까운 상태를 속한다. 그때 ‘붙다’의 의미는 중국어 ‘挨着’와 대응한다. 예문(18)에서 ‘암컷’과 ‘수컷’은 저근하고 그들사이의 거리는 아주 가까이한다는 뜻을 가진다. 그때 ‘붙다’의 의미는 ‘交配’와 대응한다. 예문(19)에서 마음의 가까이한다는 뜻을 가리킨다. ‘그녀가 설마 하인과 붙었을’의 의미는 ‘그녀가 하인과 사귀다’이다. 그때 ‘붙다’의 의미는 중국어 ‘交往’와 대응한다.

[5] 접근하다

본절에 나오는 의미는 다 표 ‘붙다’의 의미 중에서 <4><15><16><19>는 여기에 속한다. 그 중 ‘붙다’는 어떤 기준과 접근한다는 뜻을 가진다.

(20)경쟁이 붙는다.

开始比赛。

(21)그는 지나가던 취객과 싸움이 붙었다.

他和路过的醉汉打了起来。

(22)그는 하찮은 오해로 친구와 시비가 붙었다.

他因为小小的误会与朋友发生了争执。

(23)가왕과 국제 가수가 붙었다.

歌王和国际歌手的对战。

(24)경찰과 도둑이 붙기 시작했다.

警察和盗贼交上手了。

(25)이제 우리 상품에도 국제 경쟁력이 붙었는지 해외에서 잘 팔리고 있다.

大概现在我们的产品也提高了国际竞争力，在海外销路很好。

(26)목격자의 제보로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多亏目击者的举报，调查加快了进度。

위 예문 (20-26)는 다 시작되다는 뜻을 가진다. 예문 (20)에서 ‘경쟁’과 ‘붙다’를 결합하여 ‘경쟁’은 그 시작 시간과 근접하기 때문에 경쟁을 시작한다는 뜻을 표현한다. 그때에 ‘붙다’는 중국어 ‘开始’와 대응한다. (21)에서 ‘그’와 ‘취객’은 본래 두 공간에서 존재하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독립한 두 공간은 부정적인 원인으로 어떤 사건 발생 기준과 접근하여 싸움 상태를 도달하기 때문에 ‘싸움이 붙었다’의 의미는 ‘싸움이 시작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 중 ‘붙다’의 의미는 중국어 ‘起来’와 대응한다. (22)에서 상대적인 독립적인 공간은 부정적인 원인으로 사건 발생의 기준과 접근하여 ‘시비가 붙었다’의 의미는 ‘시비를 시작한다’를 가리킨다. 그 중에서 ‘붙다’의 의미는 중국어 ‘发生’와 대응한다. (23)에서 ‘붙다’의 의미는 대결을 시작한다는 뜻을 가리키고 그 때는 두 사람은 어떤 사건 발생의 기준과 접근하여 대결은 시작할 수 있다. 중 ‘붙다’는 중국어 ‘对战’와 대응한다. 예문 (24)에서 ‘붙다’의 명사 형식 ‘붙기’와 ‘시작하다’를 결합하여 ‘경찰’과 ‘도둑’이 어떤 사건 발생의 기준과 접근하여 싸움이 시작할 수 있다. 그 중 ‘붙다’의 의미는 중국어 ‘交手’와 대응한다. 예문(25)에서 ‘경쟁력이 붙었는지’는 실력이 높은 수준과 접근 사태를 가리키

고 그 의미는 ‘실력이 늘다’와 대응한다. 그때 ‘붙다’의 의미는 중국어 ‘提高’와 대응한다. 예문(26)에서 ‘속도’와 ‘붙다’ 결합하여 그 속도는 더 높은 속도 기준과 접근 상태를 가리키고 그 의미는 ‘늘다’의 뜻을 가진다. 그때 ‘붙다’의 의미는 중국어 ‘增加’와 대응한다.

[6] 심리의 감정

본절에 나오는 의미는 다 표 ‘붙다’의 의미 중에서 <11><13><18><20>는 여기에 속한다. 그 중 ‘붙다’는 추상적이고 마음속의 생각을 가리킨다.

(27)그는 지금 남의 집에 붙어서 겨우 끼니를 잇고 있는 형편이다.

他现在只能寄宿在别人家吃饭。

(28)막내는 아직도 어머니에게 붙어서 용돈을 타 쓴다.

最下的孩子还依赖父母，从父母那儿要零钱花。

(29)다른 사람에게 붙어 성공한다.

依靠别人获得的成功。

(30)권력자에게 붙는다.

依靠掌权者。

(31)같이 살다 보면 정이 붙기 마련이다.

一起过日子必然会产生感情。

위 예문(27-31)에서 다 추상 심리적 뜻을 가리킨다. 예문(27)에서 ‘남의 집에 붙어서’는 심리상의 기대고 생활한다’의 뜻을 가리킨다. 그 중에서 ‘붙다’의 의미는 중국어 ‘寄宿’와 대응한다. 예문(28)에서 ‘어머니에게 붙어서’는 아이가 심리에서 부모님을 기대고 독립하지 못한다는 뜻을 가리킨다. 그 때 ‘붙다’의 의미는 중국어 ‘依赖’와 대응한다. 예문(29-30)에서 ‘다른 사람에게 붙어’와 ‘권력자에게 붙는다’는 사람은 심리에서 남에게 기대다는 뜻을 가리킨다. 그때 ‘붙다’의 의미는 중국어 ‘依靠’와 대응한다. 예문(31)에서 ‘정이 붙기’는 ‘정이 생기다’의 뜻을 가리킨다. ‘감정이 생기다’는 추상적 의미를 가지고 두 사람의 마음은 친밀한다는 뜻을 가리킨다. 그 중 ‘붙다’의 의미는 중국어 ‘产生’와 대응한다.

[7] 부가하다

본절에 나오는 의미는 다 표 ‘붙다’의 의미 중에서 <5><6><9><12>는 여기에 속한다. 그 중 ‘붙다’의 의미는 부가하다 또는 더하다의 뜻을 가지고 주체와 객체는 한 부분을 이룬다는 뜻을 가진다.

(32)권말에 부록이 붙는다.

卷末附有附录。

(33)눈이 크대서 왕눈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因为眼睛大就有了大眼的外号。

(34)중고차 매매에도 수수료와 세금이 붙는다.

二手车买卖中也包含手续费和税金。

(35)이 대출금은 어떤 조건도 붙지 않는다.

这笔贷款没有附带任何条件。

(36)가면 가,부면 부지,웬 조건이 그리 붙느냐?

行就行，不行就不行，为什么老附加条件？

(32)에서 ‘부록’과 ‘붙다’를 결합하여 ‘부록’은 문장 내용의 부속하는 것을 속한다. 즉, ‘부록’은 부가 내용이고 ‘권말’과 한 부분을 이룬다. (32)에서 ‘붙다’의 의미는 중국어 ‘附有’와 대응한다. 예문(33)에서는 ‘별명’은 ‘그 사람’에서 부가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한 공간으로 간주하고 ‘별명’은 그 일정한 공간에서 부가하여 ‘별명’은 ‘그 사람’과 한 부분을 이룬다. 그 중 ‘붙다’의 의미는 중국어 ‘有’와 대응한다. 예문(34)에서는 ‘수수료와 세금’이 ‘중고차 매매’ 중에 부가하고 ‘중고차 매매’와 한 부분을 이룬다는 뜻을 가리킨다. 그때 ‘붙다’의 의미는 중국어 ‘包含’와 대응한다. 예문(35)에서는 ‘아무 조건도 부가하지 않는다’의 뜻을 가리킨다. 그중 ‘붙다’의 의미는 중국어 ‘附帶’와 대응한다. (36)에서 ‘조건이 그리 붙느냐’는 다 조건이 부가한다는 뜻을 가진다. 그런 조건은 서술하는 내용의 부속 성분을 속한다. 그때 ‘붙다’의 의미는 중국어 ‘附加’과 대응한다.

[8] 생명이 있다

본절에 나오는 의미는 다 표 ‘붙다’의 의미 중에서<17>는 여기에 속한다.

(37)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너를 사랑할 거야.

只要我还活着，我就会爱你。

(38)내가 숨이 붙어 있는 한 계속 창작을 하겠다.

只要我还活着，我就要创作下去。

예문(37-38)에서 목숨이+붙다의 형식으로 나오고 ‘내’는 한 공간으로서 ‘목숨’이 그 일정한 공간과 연결하고 생명이 있다는 뜻을 가리킨다. 그 중 ‘붙다’의 의미는 중국어 ‘活着’와 대응한다.

[9] 작용하다

본절에 나오는 의미는 다 표 ‘불다’의 의미 중에서 <3><14>는 여기에 속한다. 그 중 ‘불다’는 주체 사물은 객체사물에서 작용한다는 뜻을 가진다.

(39)헛간에 불이 붙었다.

库房着火了。

(40)대형 화재로 옆 아파트에까지 불이 붙었다.

大火把旁边的公寓也烧着了。

(41)어찌나 건조한지 검불에 불이 푸르르 불다.

天太干燥了，干草都呼啦啦地着起来了。

(42)메탄가스에 불이 붙어 8명이 죽었다.

甲烷起火造成8人死亡。

(43)집안에 못된 귀신이 붙었는지 우환이 끊일 날이 없다.

家里是不是有恶鬼，背运的事老不断头。

위 예문 (39-43)에서는 다 작용한다는 뜻을 가진다. ‘불다’는 불이 타다의 뜻을 표현할 때 보통 ‘불이+ 불다’의 형식으로 나온다. 또한 ‘불이’와 ‘불다’사이에 부사를 추가할 수 있다. (39-42)에서 어떤 원인으로 불이 ‘헛간’ ‘아파트’ ‘검불’에게 작용하고 화재를 초래한다는 뜻을 가리킨다. (39-41)에서 ‘불다’의 의미는 다 중국어 ‘着’와 대응한다. (42)에서 중국어 ‘起’와 대응한다. 예문(43)에서 주체 ‘귀신’은 객체 ‘집안’에게 작용하여 나쁜 일이 자주 생기는 뜻을 가리킨다. 그 중 ‘불다’의 의미는 중국어 ‘有’와 대응한다.

[10]배치하다

본절에 나오는 의미는 다 표 ‘불다’의 의미 중에서 <5><12>는 여기에 속한다. 그 중 ‘불다’는 배치한다는 뜻을 가진다.

(44)그 곳에 몇 사람이나 붙어야 합니까?

在那需要配备几个人？

(45)위급 환자에게는 항상 간호원이 붙어 있다.

护士时刻守护(照顾)危急病人。

예문(44)에서 ‘사람이나 붙어’는 ‘사람을 부가한다’의 뜻이고 사람을 필요한 공간에서 배치한다는 뜻을 가진다. 예문(44)에서 ‘불다’의 의미는 중국어 ‘配备’와 대응한다. 예문(45)에서 ‘간호원’의 직업은 환자를 돌보라는 뜻을 가진다. ‘간호원이 붙어’는 ‘위급 환자’는 간호원이 필요하니까 ‘환자에게 간호원을 배치하고 부가한다’는 뜻을 가리킨다. 그때 ‘불다’의 의미는 중국어 ‘照顾’와 대응한다.

이제까지 ‘붙다’의 각 의미에서 중국어 대응 형식을 고찰하였다. 한국어 동사 ‘붙다’의 중국어에서의 대응 형식은 다시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2> ‘붙다’의 중국어에서의 대응 표현 정리

한국어 의미	의미 항목	중국어에서의 대응
[1] 맞닿아 떨어지지 아니하다	<1>	贴;沾;粘;扎;吸附;挂
[2] 머무르다	<7><8>	扎;生根;待
[3] 합격하다	<2>	录取;考上;通过
[4] 가까이하다	<10><21><22>	拿着;紧贴;紧靠;挨着;交配;交往
[5] 접근하다	<4><19><15><16>	开始;起来;发生;对战;交手;提高;增加
[6] 심리의 생각	<11><13><20>	寄宿;依赖;依靠;产生
[7] 부가하다	<6><9><18>	附有;包含;附带;附加;有
[8] 생명이 있다	<17>	活着
[9] 작용하다	<3><14>	着;起;有
[10] 배치하다	<5><12>	配备;照顾

3. ‘붙다’의 확장기제 분석

위에 한국어 동사 ‘붙다’의 중국어에서의 대응의미를 통해 ‘붙다’의 원형의미와 확장의미를 다 뚜렷하게 나온다. 원형의미란 다의적 범주를 대표할 수 있는 기본적인고 전형적인 의미를 말하며, 확장의미란 파생적이고 전이된 의미를 말한다.² 다음 부분에서 한국어 동사 ‘붙다’의 원형의미와 확장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3.1 ‘붙다’의 원형의미

위의 <표2>에서 ‘한국어 의미 [1]’는 원형의미를 속한다.

(46)손에 붙은 고약을 벗기다.

揭下粘在手上的膏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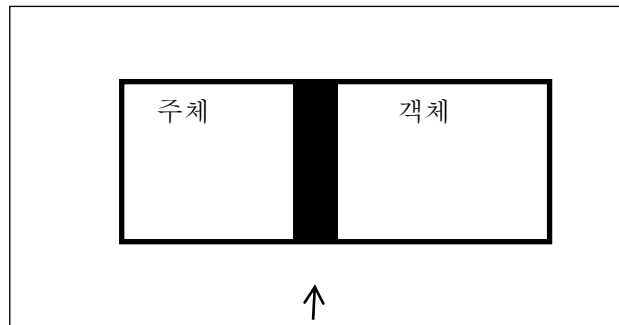
(47)옷에 붙은 빗가락을 떼다.

² 임지를 1997.<인지의미론>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把扎在衣服上的稻芒撸下来。

예문(46-47)에서 ‘붙다’는 다 한 사물은 다른 사물에 부착하고 틈이 없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46)에서 ‘손’은 객체이고 ‘고약’은 주체를 속한다. ‘고약’과 ‘손’은 부착하는 상태이고 두 사물은 아주 가까이하고 거리는 ‘0’로 표시한다는 뜻을 가리킨다. 그 때는 주체 ‘말파리’와 객체 ‘몸’은 새로운 개체로 간주할 수 있다. (47)에서 ‘옷’은 객체이고 ‘벧가락’은 주체를 속한다. ‘벧가락’은 ‘옷’에 부착하고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속하고 새로운 개체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림1>는 ‘붙다’의 원형의미를 속한다. <그림1>을 보듯이 원형의미는 세 가지 부분을 포함한다. 첫째,표면적이다. 둘째,거리는 ‘0’이다. 셋째,결합하다. <그림1>에서 검은색 부분은 주체와 객체를 부착하고 틈이 없는 상태를 표시한다.

<그림1>



3.2 ‘붙다’의 확장 의미

한국어 동사 ‘붙다’의 원형의미를 바탕으로 ‘붙다’의 확장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3.2.1 내부에서 들어가다

(48)잔뿌리가 땅에 든든하게 붙다.

须根牢牢地扎入土里。

(49)그는 밤낮 가리지 않고 노름판에 붙어 지냈다.

他不分昼夜地待在赌场里。

(50)그가 뜻밖에 대학에 붙었다.

他居然考上了大学。

예문(48-50)는 다 ‘붙다’의 원형의미로부터 확장하는 의미이다. ‘붙다’의 원형의미는 표면적 결합하여 확장의미는 내부에서 들어가는 뜻을 가리킨다. 예문(48-49)는 <표2>에서

‘한국어 의미 [2]’이다. 예문(48-49)에서 객체 ‘땅’과 ‘노름판’은 한 공간으로 간주할 수 있고 주체 ‘잔뿌리’와 ‘그’는 그 공간 내부에 들어가는 상태를 가리킨다. 예문(50)은 <표 2>에서 ‘한국어 의미 [3]’이다. 주체 ‘그’는 그 ‘학교’의 입학 기준을 달성하고 그 기준의 내부에 들어가는 상태를 가리킨다. 예문(48-49) 중에 주체와 객체는 다 구체물이고 예문(50)에서 주체는 구체물이며 객체 ‘학교의 기준’은 추상물이다. 그러므로 위의 예문에서 ‘붙다’의 원형의미로부터 구체물과 추상물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3.2.2 접근하다

(51)어린이가 엄마에게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小孩子紧贴着妈妈，不肯离开。

(52)암컷과 수컷이 붙는다.

雌雄交配。

(53)양반 출신인 그녀가 설마 하인과 붙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想不到出身两班的她竟然和下人交往。

(54)그는 지나가던 취객과 싸움이 붙었다.

他和路过的醉汉打了起来。

(55)이제 우리 상품에도 국제 경쟁력이 붙었는지 해외에서 잘 팔리고 있다.

大概现在我们的产品也提高了国际竞争力，在海外销路很好。

(56)같이 살다 보면 정이 붙기 마련이다.

一起过日子必然会产生感情。

(57)막내는 아직도 어머니에게 붙어서 용돈을 타 쓴다.

最小的孩子还依赖父母，从父母那儿要零钱花。

예문(51-57)은 다 ‘붙다’의 원형의미로부터 확장하는 의미이다. ‘붙다’의 원형의미는 거리는 ‘0’으로 간주하여 확장의미는 거리가 조금 있고 접근한다는 뜻을 표현한다. 예문(51-53)은 <표 2>에서 ‘한국어 의미 [4]’이다. 예문(51)에서 주체 ‘어린이’와 객체 ‘엄마’ 사이의 거리는 ‘0’이 아니고 두 사람은 긴밀하고 아주 가까히한다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 중에 주체와 객체는 다 구체물을 속한다. 예문(52)에서 ‘암컷’과 ‘수컷’은 두 개 독립적인 공간을 속한다. 두 개 공간은 접근하고 긴밀한 상태를 표시한다. (52)에서 주체와 객체는 유정물을 속한다. 예문(53)에서 두 개 공간 ‘그녀’와 ‘하인’은 구체적인 연결하는 뜻이 아니고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접근하는 것을 가리킨다. 두 사람은 삼리적인 친밀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주체와 객체는 다 심리 활동을 가리킨다. 예문(54-55)은 <표 2>에서 ‘한국어

어 의미 [5]'이다. 예문(54)에서 주체 '그'는 한공간에서 있고 객체 '취객'은 다른 공간에서 있다. 상대적인 독립한 두 공간은 어느 원인으로 접근하여 싸움 등 일의 발생하는 기준을 달성하면 어떤 일이 시작할 수 있다. 예문(55)에서 '경쟁력'이 더 높은 수준과 접근한다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들 중에서 주체는 구체물이고 객체는 추상적인 기준을 가리킨다. 예문(56-57)는 <표2>에서 '한국어 의미 [6]'이다. 예문(56)에서 두 사람은 실제로 접근하는 뜻이 아니고 심리적인 접근하고 친밀한 상태를 가리킨다. 정이 연결하는 것은 추상적인 확장을 속한다. 예문(57)에서 그 아이는 실제 엄마와 가까이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아이의 심리상에 엄마와 접근한다는 뜻을 가리킨다. 예문(51-57)는 '붙다'의 원형 의미로부터 구체물의 접근 상태와 추상물의 접근 상태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3.2.3 결합하다

(58)권말에 부록이 붙는다.

卷末附有附录。

(59)내가 숨이 붙어 있는 한 계속 창작을 하겠다.

只要我还活着, 我就要创作下去。

예문(58)는 <표2>에서 '한국어 의미 [7]'이다. 예문(58)에서 객체 '권말'과 주체 '부록'은 결합하여 새로움 개체를 형성한다. 그 중에서 주체와 객체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구체적인 사건을 가리킨다. 예문(59)는 <표2>에서 '한국어 의미 [8]'이다. (59)에서 객체 '신체'는 한 공간으로서 주체 '목숨'이 '신체'와 결합하고 생명이 있는 개체로 이룬다는 뜻을 가리킨다. 예문에서 주체는 추상적인 사물이고 객체는 유정물을 가리킨다. 예문들을 보면 (58-59)는 '붙다'의 원형의 의미로부터 구체물의 결합 상태와 추상물의 결합 상태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3.2.4 주변화 의미

(60)헛간에 불이 붙었다.

库房着火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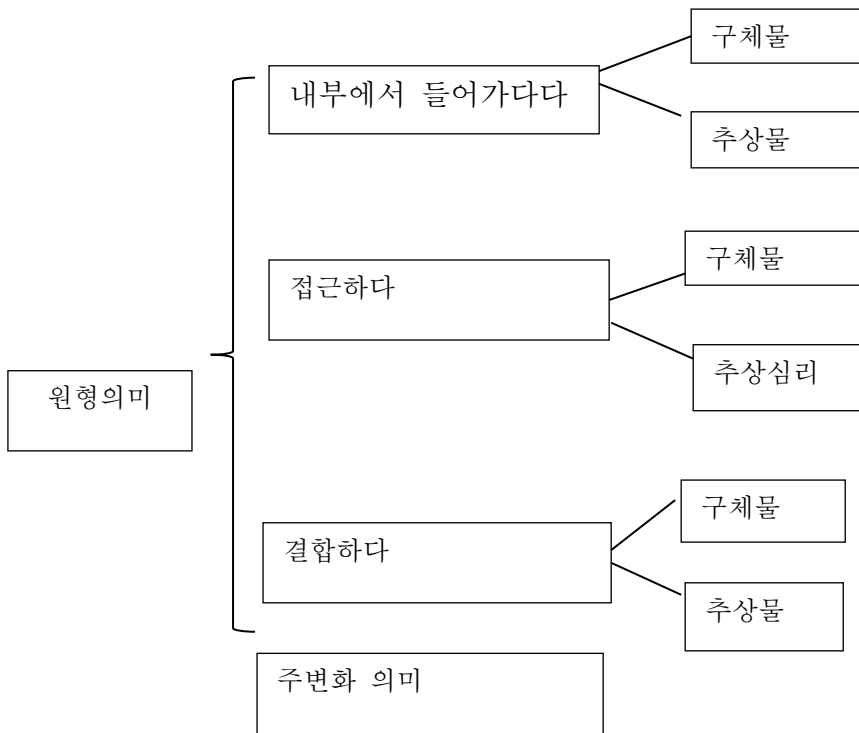
(61)위급 환자에게는 항상 간호원이 붙어 있다.

护士时刻守护(照顾)危急病人。

예문(60)는 <표2>에서 '한국어 의미 [9]'이다. (60)에서 주체 '불'은 피연물과 결합한다는 뜻을 가리킨다. 그 중에서 '불'은 피연물의 표면이나 내부도 결합할 수 있다. 즉, 주체와 객체의 결합 부분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예문(61)에서 '위급 환자'는 간호원이 필요하니까 간호원'은 환자를 돌보다는 뜻을 가진다. 그 중에서 간호원은 환자와 가을 공간

에서 있기 때문에 결합관계를 속한다. 예문(60-61)에서 표면적으로 ‘붙다’의 원형의미와 다르게 객체의 기준도 모호하는데 실제로 그들은 다 결합관계를 속한다. ‘붙다’의 확장 의미를 속한다.

<표3> 확장기제



4.결론

한국어에서 동사 ‘붙다’의 의미는 비교적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동사 ‘붙다’의 확장 의미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중국어 대응형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1장에서는 주로 연구목적 및 의의를 제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사전 두 권을 바탕으로 한국어 동사 ‘붙다’의 의미 항목을 살펴보고 동사 ‘붙다’의 의미를 분석하고 중국어에서의 대응 형식을 살펴보았다. ‘붙다’의 중국어에서의 대응 형식은 주로 10개를 분류하고 사전에서의 예문을 나열하고 그 대응 형식을 분석하였다. <표3>을 보듯이 제3장에서 ‘붙다’의 확장기제에 대한 살펴보고 ‘붙다’의 원형의미를 바탕으로 확장기제를 분류하였다.

본 논문에서 한국어 동사 ‘붙다’에 대해 의미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는 이 방면에 더 깊은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사전류: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3

<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1987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국립국어원 1999

<现代汉语辞典> 商务印刷馆 2007

2 저서류

임지률,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1997

朴奎炳, <现代韩国语基本动词500表解>, 世界图书出版社, 2009

王寅, <认知语言学>, 上海外语教育出版社, 2006

3 논문류

등소혜, <한국어 동사 ‘두다’의 중국어 대응표현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대학원 한국어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송국명, <한국어 ‘들다’와 중국어 대응 표현 대비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후성, <다의어 ‘쓰다’의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曹瑛珠, <汉韩语动词‘放’和‘ 놓다’的语义对比研究>, 延边大学 硕士学位论文, 2017

刘枷彤, <한국어 동사 ‘잡다’의 특성 및 중국어에서의 대응>, 延边大学 硕士学位论文, 2015

한·중 상향 이동동사 ‘오르다’와 ‘上’의 의미 대조 분석 연구

장레이

1. 머리말

언어에서 동사는 다른 어떤 부류보다도 의미적으로나 통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동동사(移動動詞)¹는 동사의 한 부류로서 인류가 세계를 인지할 때, 특히 공간을 감지하는 것과 방향, 행동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하게 되는 어휘이다. 다양한 이동동사 중에서 본 연구는 상향 이동을 나타내는 한국어 동사 ‘오르다’와 중국어 동사 ‘上’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의미론적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두 개의 동사를 선택한 이유로는 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고빈도, 즉 사용 빈도가 높다는 점이다. 강범모·김홍규(2009:142)에 따르면 한국어 동사의 사용 빈도 중에서 ‘오르다’는 79위를 차지하여 책에 수록된 상위 빈도 200위에서도 상위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어 ‘上’의 경우, 『现代汉语频率词典』에서는 어휘 사용 빈도수를 통계하여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중국어 어휘 8,000개를 뽑았는데, 그중에서 독립적으로 쓰인 ‘上’과 다른 동사 뒤에 붙어 보어(補語)로 쓰인 ‘上’은 각각 233위와 101위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는 다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르다’와 ‘上’은 상향 이동을 표현하는 기본 의미로부터 사람들의 인지 발전 과정에 따라 다양한 파생 의미도 생겨났다. 그중에서 ‘오르다’와 ‘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인지 방식으로 인해 서로 비슷한 파생 의미가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중 양국 문화, 생활 방식 등 다양한 면에서의 차이로 인해 ‘오르다’와 ‘上’의 파생 의미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보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선행 연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한·중 양국에서의 이동동사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한·중 이동동사에 관한 대조 분석 연구도 차츰 진행되기 시작했지만, 중·영, 중·일, 한·영, 한·일 대조 분석에 비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편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한·중 이동동사 대조 분석 연구는 ‘가다/오다’와 ‘去/來’에 집중하고 있고 ‘오르다’와 ‘上’에 관한 대조 분석은 노금송(2011), 최설남(2013), 염철(2015) 등의 세 편만 있다. 그중 노금송(2011)에서는 인지문법에 입각하여 한·중 수평 이동동사 ‘가다/오다’와 ‘去/來’, 그리고 수직 이동동사 ‘오르다/내리다’와 ‘上/下’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의미론적 측면에서 각 이동동사를 살펴보았다. 논문에서 연구자는 이동동사가 원형 의미에서 확장 의미로 파생되어 가는 양상을 논의하고 그들의 대응 관계를 분석하여 한·중 이

¹ 중국에서는 ‘이동동사’보다 ‘趋向动词’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편리성과 일관성을 위하여 ‘이동동사’라는 용어를 택하기로 한다.

동동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 주었다. 최철남(2013)에서는 의미론적 관점에서 출발해 ‘오르다/내리다’와 ‘上/下’를 대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오르다/내리다’의 교육 방안도 제시해 주었다. 그리고 염철(2015)에서는 대조언어학과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한·중 이동동사 ‘가다/오다’와 ‘去/来’, ‘오르다/내리다’와 ‘上/下’, 그리고 ‘들다/나다’와 ‘进/出’의 의미 기능에 대해 대조하였다. 논문에서 연구자는 ‘유기체의 이동’, ‘사물의 이동’, ‘추상체의 이동’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오르다’와 ‘上’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대조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에서 개별 이동동사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나 의미 대응을 이루지 못하는데 역지로 대응시킨 부분도 발견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한·중 이동동사가 의미론적 측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공존하다는 것을 밝혀 주었고, 또한 이동동사를 연구하는 데에 참고할 만한 방법론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남아 있다. 첫째, 선행 연구에서는 거의 사전에 수록된 의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언어생활에서 실제 사용하는 의미들은 분석 대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분석에 활용한 사전 자료도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현대 중국어를 분석하는 데에 『古代汉语词典』이나 『中韩大辞典』을 사용한 점이다. 둘째, 선행 연구들은 이동동사의 파생 의미만을 제시해 주고 그 의미가 기본 의미에서 어떻게 파생되었는지, 각 의미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주지 않았다. 셋째, 선행 연구들은 이동동사의 의미를 분석할 때 일반적으로 의미 항목에 따라 다시 의미 자질로 나누었고, 그리고 한·중 이동동사를 대조하는 부분에서도 의미 자질만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의미 자질이 같아도 세부적인 의미 항목이 서로 다를 수 있기에 이런 대조 분석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선행 연구들은 대조 분석을 진행할 때 모두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그러나 ‘가격이 오르다’와 ‘价格上涨’이 서로 대응을 이루는 것처럼 여기에서 ‘上’ 하나만 쓰면 안되고 다른 동사와 결합해 ‘上涨’을 사용해야 대응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앞에 언급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조언어학의 관점을 취해 더욱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며 심도 있게 ‘오르다’와 ‘上’의 의미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전과 말뭉치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사전과 말뭉치 자료

언어 자료		한국	중국
사전	01	『표준국어대사전』	『现代汉语词典』
	02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现代汉语八百词』
	03	『우리말 큰 사전』	『汉语动词用法词典』
말뭉치	01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 말뭉치	北京大学汉语语言学研究中心 CCL 语料库
	02	고려대 현대한국어 용례검색기	国家语委现代汉语语料库

2. 의미 분석을 위한 인지언어학의 주요 이론

‘오르다’와 ‘上’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영상 도식과 의미 확장을 비롯한 인지언어학의 주요 이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① 영상 도식(image schema)

영상 도식의 개념에 대해 영상 도식의 주창자인 Johnson(1987:65)은 반복되는 신체적 경험, 즉 우리의 감각 경험 및 지각 경험이 개념적 체계 내에서 ‘영상 도식’을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Gibbs(1994:233)에서는 우리의 지식은 영상 도식이라고 부르는 신체적 경험의 패턴에 기초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Ungerer & Schmid(2006:167)에서는 ‘영상 도식’은 우리가 세계와 일상적으로 상호 작용함으로써 나오는 간단하고 기본적인 인지 구조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영상 도식은 신체성이나 신체적 경험에 바탕을 둔 영상이라는 추상적 도식이라 할 수 있다.

관점에 따라 영상 도식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² 그중에 공간(위-아래) 영상 도식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위’는 긍정적인 가치로, ‘아래’는 부정적 가치로 인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몸의 규범적 형태는 ‘위’로 향한다. 사람은 태어나서 기어 다니다가 말을 배우면서 직립한 뒤 위로 자란다. 그 반면 기어 다니다가 힘이 빠지면 아래로 떨어지거나 주저앉게 된다. 이러한 신체적 경험은 ‘위’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아래’의 방향을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계기가 된다. ‘위’의 긍정적 가치는 사회 문화적인 경험에 의해서 강화된다. 곧 우리가 건강하고 기분 좋을 때는 머리와 얼굴을 위로 한 채 직립하고, 손님을 환영해 맞이하거나 그 환영에 답례할 때는 손을 위로 치켜든다. 범문화적으로, 위로 향한 엄지손가락은 상황이 좋다는 표시이다.

② 의미 확장 이론

한 단어(즉 한 가지 기호)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단어를 다의어(多義語, polysemant)라 한다.³ 다의어는 기본 의미 또는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파생 의미 또는 주변 의미로 구성된다. 임지룡(2017:375-378)에서는 다의적 의미 확장의 타당한 경로를 기술하였다. 그중에서 전형적인 확장 경로는 다음 <표 2>와 같은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표 2> 다의적 의미 확장 경로

번호	확장 경로	예시
1	사람→동물→식물→무생물	눈 ① 사람의 눈 (그는 눈이 크다.) ② 동물의 눈 (원숭이 눈) ③ 식물의 눈 (새싹의 눈) ④ 사물의 눈 (그물의 눈)
2	공간→시간→추상	깊다 ① 공간의 깊음 (계곡이 깊다.) ② 시간의 깊음 (밤이 깊다.) ③ 관계의 깊음 (인연이 깊다.)

² Vynyan Evans & Melanie Green (2008:204)과 Zeki, Hamawand(2016:94-95)에 따르면 공간, 운동력, 포함, 균형, 힘, 다양성, 일치, 그리고 존재 등의 주요 영상 도식이 존재한다.

³ 이익섭(2011:180)

3	물리적 위치→사회적 위치→ 심리적 위치	~에 있다	① 물리적 위치 (그는 방에 있다.) ② 사회적 위치 (그는 회사에 있다.) ③ 심리적 위치 (정의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
4	문자성→비유성→관용성	짧다	① 문자적 짧음 (토끼는 앞발이 짧다.) ② 비유적 짧음 (그는 외국어 실력이 짧다.) ③ 관용적 짧음 (우리 집 양반은 입이 짧다.)
5	내용어→기능어	주다	② 고양이에겐 모이를 준다. (동사) ② 인민을 행복하게 해 준다. (보조 동사)

이상의 다섯 가지 확장 경로는 원형 의미를 기준점으로 경험이나 인지의 측면에서 볼 때 구체적인 데서 추상적으로 확장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3. 한·중 상향 이동동사 ‘오르다’와 ‘上’의 의미 분석

3.1. 한국어 이동동사 ‘오르다’의 의미 분석

‘오르다’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 큰 사전』 그리고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 제시된 ‘오르다’의 의미 항목을 살펴볼 것이다. 사전을 찾아보면 알 수 있듯이, 같은 단어인 ‘오르다’에 대하여 사전마다 설정된 의미 항목 수와 제시된 뜻풀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의미 항목을 설정할 때 주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뜻풀이를 따를 것이고, 이를 기초로 하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우리말 큰 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 제시된 뜻풀이를 보충해 넣고자 한다.

(1) ‘오르다’의 기본 의미

의미 항목: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움직여 가다

의미 자질: [객관적인 이동], [상향], [생물]

예문(1): 그녀는 주말마다 북한산에 오른다.

어휘의 기본 의미는 중심 의미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파생 의미에 비해 일반적으로 생성 시기가 이르고, 사용 빈도가 높으며, 인지적으로도 단순하고 기본적인이다. ‘오르다’의 기본 의미를 설정하기 위해 그의 어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정범(2003:447)에서는 ‘오르다’의 어근 ‘올’은 산(山)의 본뜻을 지니고 있고, 고대인이 오르는 대상은 주로 산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기술하였다. 산기슭에서 정상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동 개체의 위치도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선정한 사전 자료를 살펴보면 세 사전은 모두 ‘아래에서 위쪽으로 움직여 가다’라는 의미 항목을 ‘오르다’의 첫 번째 의미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2) ‘오르다’의 파생 의미

① (사람이나 동물이) 물에서 나와 땅에 올라

의미 자질: [객관적인 이동], [상향], [생물]

예문(2): 물에 오른 물고기 신세란 바로 그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파생 의미 ①번은 앞에 제시된 기본 의미와 가장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두 의미 항목은 모두 실제 물리적인 위치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고 이동 개체의 위치가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호수나 바다 등의 물속이 수평면보다 낮기 때문에 땅에 비하여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인지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물에서 육지로 이동할 때도 ‘오르다’로 표현한다.

② 탈것에 타다

의미 자질: [객관적인 이동], [상향, 수평, 하향], [밖에서 안으로], [생물]

예문(3): 기차에 오른 것은 한밤중이 되어서였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주로 말(馬), 차(車)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했다. 말과 차는 사람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를 타려면 사람이 위로 올라가야 한다. 현대에 접어들어 교통수단이 다양해지고, 상향 이동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종종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유의 경험에 의해 이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오르다’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비행기에 오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만약에 계단을 이용해서 직접 비행기에 탑승하면 사람들은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나 탑승교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수평 이동이나 하향 이동하는 가능성도 있다.

③ 물질이나 물체 따위가 위쪽으로 움직이다

의미 자질: [객관적인 이동], [상향], [무생물]

예문(4):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른다.

‘오르다’는 사람, 동물과 같은 생명체의 상향 이동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질이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는 것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사람→동물→식물→무생물’의 확장 경로에 부합되는 것이다.

④ (음식이나 식재료가 밥상에) 놓이게 되다

의미 자질: [주관적인 이동], [전이]

예문(5): a. 모처럼 저녁상에 갈비가 올랐다.

b. 상에 오른 고등어 한 마리를 보고도 우리는 좋아서 입이 헤벌어졌다.

상에 음식을 차릴 때 음식이 상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손에서 그 아래쪽에 있는 상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는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다’라는 기본 의미와 상반된 것처럼 느껴진다. 염철(2015:106)에서는 상이 지면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여 지면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음식은 여전히 높은 곳에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는 지면을 기준으로 설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는데, 필자는 이는 옛날 한국인들이 바닥에 앉아

식사하는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2장에서 다룬 영상 도식 이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좋은 것을 ‘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음식은 당연히 사람의 머리속에서 높은 곳에 위치할 것이다. 그리고 위 예문에서 언급한 ‘갈비’와 ‘고등어’는 모두 좋고 비교적 귀한 음식들이다.

⑤ 길을 떠나다

의미 자질①: [객관적인 이동], [수평], [생물]

의미 자질②: [주관적인 이동], [상태 변화], [생물]

예문(6): a. 고달픈 여행을 마치고 귀로에 오른 사람 같구나.

b. 삼촌은 나이 마흔에 유학길에 올랐다.

‘오르다’는 ‘길을 떠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는데, ‘길’의 속성에 따라 다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길을 가리키는 경우이다. 예(6a)중에 말하는 ‘귀로’처럼 집에 가는 실제적인 도로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의 길은 ‘추상적인 길’이다. 이때 ‘길을 떠나다’는 어떤 상태나 과정에 접어들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문자성→비유성→관용성’ 확장 경로의 전 단계인 ‘문자성→비유성’에 해당된다.

⑥ 어떤 정도에 달하다

의미 자질: [주관적인 이동], [정도 변화], [무생물]

예문(7): 사업이 비로소 정상 궤도에 올랐다.

『우리말 큰 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의미 항목 ⑤와 ⑥을 합쳐서 ‘(사람이나 사업이 어떤 과정이나 길에) 다다르거나 접어들다’라고 해석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는 ⑥번의 ‘어떤 정도에 달하다’는 ⑤번의 두 번째 추상적인 의미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⑤번이 상태A에서 새로운 상태B로 변하는 것, 즉 상태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⑥번은 상태가 크게 변하지 않고 그 기초에서 좋고 나쁜 정도만 변하는 것이다. 예문(7)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운영 상황은 전에 비해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⑦ 기록에 적히다; 등재하다

의미 자질: [표면 부착], [무생물]

예문(8): 그런 단어는 사전에 올라 있지도 않다.

⑧ (때나 먼지가) 옷이나 물건 따위에 묻다

의미 자질: [표면 부착], [무생물]

예문(9): 그는 까맣게 때가 오른 와이셔츠 차림이었다.

의미 항목 ⑦과 ⑧은 모두 무생물이 어떤 물체의 표면에 부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⑦번은 주로 문자가 문서에 적히는 것이고 ⑧번은 때나 먼지가 물건에 묻는다는 것이다.

⑨ (무엇이) 어떤 표면 위로 두둑하게 솟다

의미 자질: [주관적인 이동], [부음]

예문(10): 갑상선의 붓기가 이만큼으로 오르게 되면 증세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그림 1> ‘오르다’ 파생 의미 ⑨번의 도식

⑨번은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만 제시되어 있는 의미 항목이다. 그 의미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원래 표면 밑에 있는 물질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 밖으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표면의 제약을 받아 밖으로 나오지 못해 표면 위로 불거져 나왔다. 이는 표면에 비해 조금 높기 때문에 ‘오르다’로 표현하게 된다.

⑩ 값이나 수치, 온도, 성적 따위가 이전보다 많아지거나 높아지다

의미 자질: [주관적인 이동], [증가], [무생물]

예문(11):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올라 창문을 열었다.

⑪ 실적이나 능률 따위가 높아지다

의미 자질: [주관적인 이동], [증가], [무생물]

예문(12): 판매 실적이 오르도록 연구해 봅시다.

⑫ 몸 따위에 살이 많아지다

의미 자질: [주관적인 이동], [증가], [생물]

예문(13): 어머니께서는 적당히 살이 오른 닭을 잡아 삼계탕을 끓여 주셨다.

의미 항목 ⑩~⑫번은 모두 [주관적인 이동]과 [증가]라는 공통된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⑩번에서 말한 값이나 온도, 성적, ⑪번에서 말한 실적이나 능률, ⑫번에서 말한 체중 등을 모두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 2장의 이론적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많은 것을 위로, 적은 것을 아래로 인지하는 영상 도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값이나 온도, 성적 등의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⑬ 높은 지위나 신분 따위를 얻게 되다

의미 자질: [주관적인 이동], [상승], [생물, 무생물]

예문(14): 신라 시대에는 여성도 왕위에 올랐다.

⑭ 높은 등수나 단계에 이르거나 들게 되다

의미 자질: [주관적인 이동], [상승], [생물, 무생물]

예문(15): 그는 나름대로 선전하였으나 결선에 오르지는 못했다.

‘오르다’는 ‘물리적 위치→사회적 위치→심리적 위치’라는 확장 경로에 따라 실제 물리적 상향 이동에서 출발하여 높은 지위나 신분의 상승, 그리고 높은 등수의 획득까지 의미를 확장하게 되었다.

⑮ 기운이나 세력이 왕성하여지다

의미 자질: [주관적인 이동], [확산], [무생물]

예문(16): 기세가 오른 그들은 안하무인이었다.

⑯ 어떤 감정이나 기운이 퍼지다

의미 자질: [주관적인 이동], [확산], [무생물]

예문(17): 술기운이 올랐는지 얼굴이 벌정게 되었다.

⑰ 병균이나 독 따위가 옮다

의미 자질: [주관적인 이동], [확산], [생물]

예문(18): 옴이 오르면 가려워 온몸을 긁게 된다.

⑮~⑰번은 모두 [확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운이나 감정 따위가 주로 아래에서 위로 확산하는 것이다. 술을 마시면 일반적으로 술은 사람의 위(胃)에 들어간다. 그러나 술에 취한 사람은 보통 머리가 어지럽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술기운이 아래에 위치한 위(胃)에서부터 머리까지 이동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오르다’를 쓰게 되었다. 또한 병균 등이 사람의 몸에 옮다는 것도 ‘오르다’로 표현한다.

⑱ 귀신 같은 것이 들리다

의미 자질: [추상적인 이동], [진입], [확산]

예문(19): 무당들도 신이 올라야만 작두춤을 출 수 있다고 한다.

한국어에서 신기(神氣)가 사람들의 몸에 진입하여 발과 손에서부터 머리까지 올라온다는 것을 ‘신이 오르다’라고 부른다.

⑲ 남의 이야깃거리가 되다

의미 자질: [주관적인 이동], [화제]

예문(20): 요즘 화제에 오른 그 책 이름이 뭐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사물이나 사건이 갑자기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 화제가 된다는 것을 ‘오르다’와 관련된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사람들의 인지 속에서 원래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사물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물밑에 숨어 있던 물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과 같다. 따라서 ‘물밑’인 아래에서 ‘수면’인 위로 움직이는 것을 ‘오르다’로 표현하게 되었다.

위에 기술된 사전적 의미 이외에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 말뭉치를 이용하여 ‘오르다’의 또다른 의미를 발견하였다. 즉 ‘등장하다’라는 의미 항목이다. ‘오르다’가 ‘등장하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에는 항상 ‘무대’ 등의 장소 명사와 함께 사용한다.

⑳ 등장하다

의미 자질: [객관적인 이동, 주관적 이동], [등장], [생물]

예문(21): 최근 프랑스 루블에서 열렸던 세계적 패션디자이너 샤넬의 ‘94년 여름패션쇼’에서는

3인의 톱모델이 내년에 유행할 수영복을 입고 나란히 같은 무대에 올라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3.1.2. 중국어 이동동사 ‘上’의 의미 분석

‘上’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하여 『现代汉语词典(第7版)』, 『现代汉语八百词』 그리고 『汉语动词用法词典』에 제시된 ‘上’의 의미 항목을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미 항목을 설정할 때 주로 『现代汉语词典(第7版)』에 제시된 뜻을 따를 것이고, 이를 기초로 하되 『现代汉语词典(第7版)』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现代汉语八百词』와 『汉语动词用法词典』에 제시된 뜻을 보충해 넣고자 한다.

(1) ‘上’의 기본 의미

의미 항목: 由低处到高处/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다

의미 자질: [객관적인 이동], [상향], [생물]

예문(22): 上台阶(계단에 오르다)

동사 ‘上’의 기본 의미는 명사로 쓰이는 ‘上’의 방위적 의미인 ‘위쪽, ...위에’에서 유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사 ‘上’에는 [이동] 이외에, [상향]이라는 방향 자질도 포함되어 있다. 이때 사람이나 동물 따위는 이동 개체가 된다.

(2) ‘上’의 파생 의미

① 到; 去 (某个地方) /(어떤 곳으로) 가다

의미 자질: [객관적인 이동], [수평], [생물]

예문(23): 上街 (거리로 나가다)

② 向前进/앞으로 나가다

의미 자질: [객관적인 이동, 주관적인 이동], [수평], [생물]

예문(24): 五号快上, 接球! (5번, 얼른 앞으로 나가 공을 받아라!)

③ 出场/등장하다, 출전하다

의미 자질: [객관적인 이동, 주관적인 이동], [상향, 수평], [생물]

예문(25): 这一场球, 你们五个先上。(이번 경기에는 너희 다섯 명이 먼저 나가라.)

[상향 이동]을 기본 의미로 가지고 있는 ‘上’은 [상향]이라는 방향 자질을 잃어버려 수평 이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①번 ‘(어떤 곳으로) 가다’는 두 가지의 세부적인 파생 의미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방위적 관점인 ‘상북하남, 좌서우동(上北下南, 左西右東)’의 영향을 받아 사람들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경우에 ‘上’으로 표현하게 된다. 예(26a)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쓰촨(四川)을 기준으로 정하여 베이징(北京)과 톈진(天津)은 쓰촨(四川)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징(北京)과 톈진(天津)으로 가는 것은 ‘上’으로 표현하게 된다. 그리고 중국의 지형을 보면 서부에는 산이 많아 해발이 높고 평원 위주의 동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사람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인지하여 ‘上’을 사용하게 된다. 예(26b)를

보면 동쪽에서 서쪽인 쓰촨(四川)·산시(陝西)로 가는 것은 ‘上’으로 표현한다. 또 다른 하나는 ‘上’은 크고 좋다는 인지적 영향을 받아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곳에서 등급이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경우에도 ‘上’을 표현하게 된다.

- 예문(26):** a. 从12日开始, 兵分三路, 一路在四川省内活动, 一路北上北京、天津, 另一路南下广州、深圳、珠海等市。
(12일부터 우리는 세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쓰촨(四川) 내에서 활동하고 한 팀은 베이징(北京), 텐진(天津)으로 올라가며 남은 한 팀은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주하이(珠海)로 내려간다.)
- b. 第一次国内革命战争时期我红四方面军“西上川陕”, 抗日战争时期新四军“东下苏中”。
(제1차 국내혁명전쟁 시기에 홍사방면군(紅四方面軍)은 서쪽을 향해 쓰촨(四川)·산시(陝西)로 올라갔고, 항일전쟁 시기에 신사군(新四軍)은 쑤중(苏中) 지역으로 내려갔다.)
- c. 你要上城里开个饭店, 一天少说也能赚个二十块!
(네가 도시에 가서 식당을 하나 차리면 적어도 하루에 20위안 정도는 벌 수 있겠네.)

②번은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객관적인 이동이라는 의미도 표현할 수 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피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나가서 직면하는 추상적인 의미도 가능하다. 그리고 ③번은 원래 지면보다 높은 무대로 올라갈 때 [상향]이라는 방향 자질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한 단계 확장되어 대회에 참가해 경기장으로 나가는 수평 이동의 의미도 표현할 수 있다.

④ 填补 ; 增加/더하다; 보태다; 보충하다

의미 자질: [주관적인 이동], [첨가], [무생물]

예문(27): 上肥(비료를 주다)

⑤ 把一件东西安装在另一件东西上; 把一件东西的两部分安装在一起/한 물건을 다른 물건에 설치하다; 한 물건의 두 부분을 하나로 조립하다

의미 자질: [주관적인 이동], [첨가], [무생물]

예문(28): 上锁(자물쇠를 채우다)

의미 항목 ④번과 ⑤번은 모두 [첨가]라는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인지 과정에서 항상 ‘上’과 ‘많음’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上’은 ‘첨가’ 의미를 갖게 된다.

⑥ 向上级呈递/상급에 (문서 따위를) 제출하다

의미 자질: [주관적인 이동], [제출], [무생물],

예문(29): 上书(윗사람에게 글을 올리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이때 이동 개체인 문서가 마치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다. 이는 2장에서 다룬 의미 확장 경로인 ‘물리적 위치→사회적 위치’와 부합한다.

⑦ 把饭菜等端上桌子/음식 따위를 식탁 위에 놓다

의미 자질: [전이], [생물, 무생물]

예문(30): 上菜(요리를 내다)

‘오르다’와 마찬가지로 중국어 동사 ‘上’도 [전이]라는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음식 따위가 식탁에 놓인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⑧ 涂; 搽/(약 따위를) 바르다; (물감 따위를) 칠하다

의미 자질: [표면 부착], [무생물]

예문(31): 上药(약을 바르다)/上色(색칠하다)

⑨ 登载; 出现 (在电视上) /등재하다; (TV 방송에) 나오다

의미 자질: [표면 부착], [생물, 무생물]

예문(32): 上电视(방송에 나오다)/老张的事迹上了报了。(장씨의 사적이 신문에 났다.)

⑧~⑨번은 공통적으로 [표면 부착]이라는 의미를 갖추고 있다. 벽에 색깔을 칠하면 페인트가 직접 벽의 표면과 접촉하게 된다. 그리고 약을 바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색깔과 약은 모두 벽이나 피부 표면과 접촉하면서도 사람들은 표면 위에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인지한다. 또한 종이에 적은 글자가 종이 표면 위에 있다는 것이고 사람이나 사건이 텔레비전에서 방송하게 되는 것은 영상이 스크린 표면 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⑩ 拧紧/바짝 돌리다; 짝 조이다

의미 자질: [주관적인 이동], [강화], [무생물]

예문(33): 上弦(테엽을 감다)

한 물건을 다른 물건에 설치하거나 한 물건의 두 부분을 하나로 조립할 때에는 항상 무엇을 바짝 돌리는 행동이 수반된다. 따라서 ⑩번은 ⑤번의 파생 의미로 볼 수 있다.

⑪ 到规定时间开始工作或学习等/규정된 시간에 일이나 공부를 시작하다

의미 자질: [활동 시작], [생물]

예문(34): 上了两堂课。(수업을 두 시간 했다.)

‘上’이 ‘규정된 시간에 일이나 공부를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원인은 의미 항목 ①번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 먼저 그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에 가야 한다. 따라서 ⑪번은 ①번의 ‘(어떤 곳으로) 가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⑫ 达到; 够 (一定数量或程度) /(일정한 정도·수준에) 이르다

의미 자질: [주관적인 이동], [도달]

예문(35): 上档次((보다 높은) 등급·품위에 이르다)

사람들은 도달하고자 하는 수준이나 수량이 일반적으로 현재 자신의 수준보다 높거나 가지고 있는 양보다 많다. 따라서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낮은 수준을 상징하는 아

래에서 높은 수준을 상징하는 위로 이동해야 한다.

이상으로 사전에 제시된 독립 동사 ‘上’의 의미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았다. 그 외에 北京大学汉语语言研究中心CCL语料库와 国家语委现代汉语语料库를 이용하여 또다른 네 가지 의미 항목을 찾아냈다.

⑬ 从水中到陆地上/물에서 육지로 옮다

의미 자질: [객관적인 이동], [상향], [생물]

예문(36): 弃船上岸(배를 버리고 기슭에 오르다)

‘上’은 물에서 육지로 옮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람들은 호수나 바다 등의 물속이 수평면 보다 낮기 때문에 물에서 육지로 이동하는 것은 상향 이동으로 인지한다.

⑭ 搭乘/탈것에 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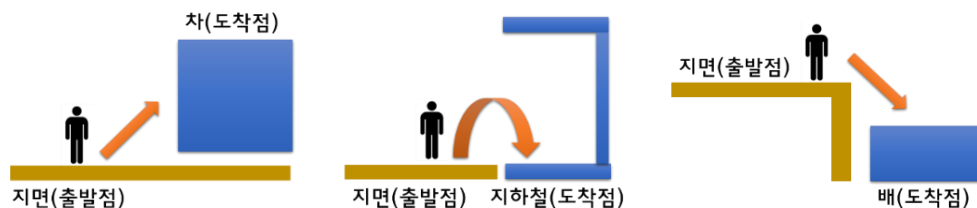
의미 자질: [객관적인 이동], [상향, 수평, 하향], [밖에서 안으로], [생물]

예문(37): a. 上车(차를 타다)

b. 刚要上地铁, 可转念一想, 还是再等一会儿吧。(지하철에 막 타려다가 다시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래도 좀 더 기다리는 게 좋겠다.)

c. 一上船就晕船了。(배에 타자마자 멀미가 났다.)

‘오르다’와 마찬가지로 ‘上’도 ‘탈것에 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때 ‘上’은 상향 이동, 수평 이동, 그리고 하향 이동 세 가지 경우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 <그림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차는 지면보다 높기 때문에 차를 타는 것은 상향 이동을 하는 것이다. 지하철은 지면과 같은 수평면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는 것은 수평 이동하는 것이다. 배를 탈 경우, 만약에 배가 지면보다 낮으면 이때 사람은 오히려 하향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다.



<그림 2> ‘上’ 파생 의미 ⑬번의 도식

⑮ 中计; 陷入/빠지다, 걸리다

의미 자질: [조우], [생물]

예문(38): 上当受骗(속임수에 걸리다)

⑮번의 의미는 ①번의 ‘가다’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청패류초(清稗類鈔)』에 따르면 ‘上当’의 원래 의미는 ‘上当铺(전당포에 가다)’이다. 따라서 지금 사용하는 속임수에 걸린다는 의미는 ‘(어떤 곳으로) 가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⑯ 穿; 披/몸에 걸치다; 입다; 신다

의미 자질: [착용], [무생물]

예문(39): 刚上身的衣裳(방금 입은 옷)/刚上脚的鞋(방금 신은 구두)

‘上’은 옷과 신발 등의 명사와 같이 쓰이며, 옷을 입거나 신발을 신다는 뜻의 [착용] 의미를 포함한다. 이는 [표면 부착]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⑰ 用心; 操心/(마음을) 쓰다; 열중하다

의미 자질: [중요시], [무생물]

예문(40): 这孩子读书不上心。(이 아이는 공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사람들은 중요시하는 일은 높은 위치에 있고 중요시하지 않는 일은 낮은 위치에 있다는 인지 경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일을 항상 마음에 두기 위해 ‘上心’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⑱ 鬼附体/귀신 같은 것이 들리다

의미 자질: [진입]

예문(41): 鬼魂上身。(귀신이 붙다.)

‘上’은 [진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귀신 같은 것이 사람의 몸에 들린다는 뜻을 표현할 수 있다. 중국인들은 귀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는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으로 인지한다. 따라서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려면 위로 향해 이동해야 한다.

⑲ (趋向) 表示由低处向高处/(추향)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다

의미 자질: [상향], [생물]

예문(42): 爬上山顶(정상에 오르다)

⑳ (趋向) 表示开始并继续/(추향) 시작하여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다

의미 자질: [상태], [생물]

예문(43): 爱上了农村。(농촌을 좋아하게 되었다.)

㉑ (趋向) 表示有了结果或达到目的/(추향) 결과가 있거나 어떤 목적을 달성함을 나타내다

의미 자질: [결과], [생물]

예문(44): 考上了大学。(대학에 붙었다.)

㉒ (趋向) 表示符合某种标准或称号/(추향) 어떤 표준이나 칭호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의미 자질: [결과], [생물]

예문(45): 他还称不上是个绅士。(그는 아직 신사라고 부를 수 없다.)

㉓ (趋向) 表示达到一定的数量/(추향) 일정한 수량에 이름을 나타내다

의미 자질: [결과], [생물]

예문(46): 最近失眠, 每天只能睡上三、四个小时。(요즘 불면증에 시달려서 매일 서너 시간 밖에 못 자.)

⑲~㉓번은 다른 동사 뒤에 쓰이는 ‘上’의 의미들이다. 주로 [상향]이라는 방향 의미, 그

리고 [상태]와 [결과] 등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중에서 ⑩번은 ‘上’의 기본 의미에서 유래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고, [상태]와 [결과]는 의미가 추상화되어 문장에서 실제적인 어휘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문법적 의미까지 갖추고 있다. 이는 어휘 의미의 확장 경로인 ‘내용어→기능어’와 부합한다.

4. 한·중 상향 이동동사 ‘오르다’와 ‘上’의 의미 대조

3장에서는 한국어 동사 ‘오르다’와 중국어 동사 ‘上’의 의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 부분에서는 ‘오르다’와 ‘上’의 의미를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거시적인 관점에서 ‘오르다’와 ‘上’의 의미 자질 대응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3> ‘오르다’와 ‘上’의 의미 자질 대응 양상

번호	의미 자질	오르다	上	번호	의미 자질	오르다	上
01	[객관적인 이동], [상향]	√	√	13	[화제]	√	×
02	[객관적인 이동], [하향, 수평]	√	√	14	[등장]	√	√
03	[밖에서 안으로]	√	√	15	[첨가]	×	√
04	[전이]	√	√	16	[제출]	×	√
05	[표면 부착]	√	√	17	[강화]	×	√
06	[상태 (변화)]	√	√	18	[활동 시작]	×	√
07	[진입]	√	√	19	[도달]	×	√
08	[정도 변화]	√	×	20	[조우]	×	√
09	[부음]	√	×	21	[착용]	×	√
10	[증가]	√	×	22	[중요시]	×	√
11	[상승]	√	×	23	[상향]	×	√
12	[확산]	√	×	24	[결과]	×	√

<표 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오르다’는 14 개의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고 ‘上’은 총 18 개의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 ‘오르다’와 ‘上’이 모두 가지고 있는 의미 자질은 [객관적인 이동][상향], [객관적인 이동][하향, 수평], [전이], [표면 부착] 그리고 [진입] 등의 7 개가 있다. 이는 전체 24 개의 의미 자질 중에서 불과 29.2%를 차지한다. 따라서 우리는 구체적인 의미 항목에 있어서 ‘오르다’와 ‘上’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다.

이어서 미시적인 관점에서 한·중 상향 이동동사의 의미 대응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오르다’의 의미 항목과 ‘上’의 의미 항목을 종합하여 다시 정리하면 <표 4>가 제시하는 바와 같다. 표의 왼쪽 부분에는 구체적인 의미 항목⁴을 제시하고 오른쪽 부분에는 해당

⁴ ‘오르다’와 ‘上’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 항목은 기본 의미와 파생 의미01-07번이다. 구체적인 의미

의미 항목의 존재 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을 설정하였다.

<표 4> ‘오르다’와 ‘上’의 의미 항목 대응 양상

의미		구체적인 의미 항목	오르다	上
기본 의미		(공간적) 아래에서 위쪽으로 움직여 가다	√	√
확장 의미	01	탈것에 타다	√	√
	02	어떤 정도에 달하다	√	√
	03	길을 떠나다	√	√
	04	물에서 육지로 옴다	√	√
	05	음식 따위를 밥상이나 식탁 위에 놓다	√	√
	06	기록에 적히다, 등재하다	√	√
	07	귀신 같은 것이 들리다	√	√
	08	등장하다	√	√
	09	몸 따위에 살이 많아지다	√	●
	10	물질이나 물체 따위가 위쪽으로 움직이다	√	○
	11	값이나 수치, 온도, 성적 따위가 이전보다 많아지거나 높아지다	√	○
	12	실적이나 능률 따위가 높아지다	√	○
	13	기운이나 세력이 왕성하여지다	√	○
	14	높은 지위나 신분 따위를 얻게 되다	√	○
	15	어떤 감정이나 기운이 퍼지다	√	○
	16	(때나 먼지가) 옷이나 물건 따위에 묻다	√	×
	17	높은 등수나 단계에 이르거나 들게 되다	√	×
	18	남의 이야깃거리가 되다	√	×
	19	평균이나 독 따위가 옴다	√	×
	20	(무엇이) 어떤 표면 위로 두둑하게 솟다	√	×
	21	(어떤 곳으로) 가다	×	√
	22	앞으로 나가다	×	√
	23	출전하다	×	√
	24	더하다, 보태다, 보충하다	×	√

항목을 설정할 때에는 주로 ‘오르다’의 의미 항목에 따르되, 파생 의미 05번처럼 한국어와 중국어의 용어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두 가지 의미 항목을 모두 고려해서 반영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한다.

25	한 물건을 다른 물건에 설치하다; 한 물건의 두 가지 부분을 하나로 조립하다	×	√
26	상급에 (문서 따위를) 제출하다	×	√
27	(약 따위를) 바르다; (물감 따위를) 칠하다	×	√
28	(TV 방송에) 나오다	×	√
29	바짝 돌리다; 꺾 조이다	×	√
30	규정된 시간에 일이나 공부를 시작하다	×	√
31	빠지다; 걸리다	×	√
32	몸에 걸치다; 입다; 신다	×	√
33	(마음)을 쓰다; 열중하다	×	√
34	(추향)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다	×	√
35	(추향) 결과가 있거나 어떤 목적을 달성함을 나타내다	×	√
36	(추향) 시작하여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다	×	√
37	(추향) 어떤 표준이나 칭호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	√
38	(추향) 일정한 수량에 이름을 나타내다	×	√

위에 정리된 <표 4>를 통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오르다’와 ‘上’은 모두 다의어이고 그들은 기본 의미 외에도 의미 확장 과정을 통해 생성된 다양한 파생 의미를 가지고 있다. 3장에서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면 ‘오르다’와 ‘上’은 기본 의미 외에 각각 20 개, 23 개의 파생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오르다’와 ‘上’의 파생 의미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위에서 정리한 의미 항목을 보면, ‘오르다’와 ‘上’이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의미 항목은 9 개 뿐인데, 이는 전체 39 개의 의미 항목 중에서 불과 23.1%를 차지한다.

셋째, 의미 대조 분석을 통해 ‘오르다’와 ‘上’은 대응 일치, 대응 불일치 그리고 대응 불완전 일치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대응 일치 현상과 대응 불일치 현상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차에 오르다’와 ‘上火车’라는 문장에서 ‘오르다’와 ‘上’이 모두 ‘탈것에 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대응 일치를 이룬다. 그러나 중국어 표현 ‘上电视’는 한국어에서 ‘방송에 오르다’라고 하지 않고, ‘방송에 나오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上’이 ‘오르다’와 대응하지 않고 다른 동사와 대응하는 경우를 ‘대응 불일치 현상’이라고 본다.

① 대응 일치(√로 표시)

예문(47): a. 아래에서 위쪽으로 움직여 가다 → 산에 오르다 - 上山

b. 탈것에 타다 → 기차에 오르다 - 上火车

② 대응 불일치(‘×’로 표시)

- 예문(48): a. 옴이 오르다 - 生疥疮/长疥疮 b. 결승전에 오르다 - 进决赛
c. 上电视 - 방송에 나오다 d. 上药 - 약을 바르다

‘대응 불완전 일치 현상’은 다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③ 대응 불완전 일치

☞ 뜻은 같지만, 중국어의 경우 동사 하나로 표현할 수 없고, 복합 동사를 사용해야 대응할 수 있다(‘○’로 표시):

- 예문(49): a. 값이나 수치, 온도, 성적 따위가 이전보다 많아지거나 높아지다 → 가격이 오르다 - 价格上涨
b. 높은 지위나 신분 따위를 얻게 되다 → 왕위에 오르다 - 登上王位

☞ 뜻은 같지만, 중국어의 경우 적용 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다(‘●’로 표시):

- 예문(50): 몸 따위에 살이 많아지다 → 살이 오르다(생명체 모두 사용 가능) - 上膘(가축만 사용 가능)

넷째, 파생 의미와 기본 의미의 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어 ‘오르다’의 파생적 의미는 원래 ‘오르다’의 기본 의미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지만 중국어 동사 ‘上’은, 특히 다른 동사 뒤에 붙어 쓰일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라는 방향 의미 외에 의미가 추상화되어 ‘상태’, ‘결과’ 등의 문법적 의미까지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오르다’보다 중국어 ‘上’은 의미 파생의 범위가 더 넓음을 알 수 있다.

5.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대조언어학과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한·중 상향 이동동사 ‘오르다’와 ‘上’의 의미 대조 분석을 진행하였다. 1장에서는 먼저 ‘고빈도’, ‘다의성’ 그리고 ‘선행 연구의 한계’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오르다’와 ‘上’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서 2장에서는 의미 분석을 하기 위해 영상 도식과 의미 확장 등의 인지언어학 관련 이론을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대표적인 사전과 말뭉치 자료를 이용하여 ‘오르다’와 ‘上’의 기본 의미와 파생 의미를 각각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4장에서는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으로 나누어 의미 대조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공통점으로는 ‘오르다’와 ‘上’은 모두 다의어이고 그들은 기본 의미 외에도 의미 확장 과정을 통해 생성된 다양한 파생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차이점으로는 첫째, ‘오르다’보다 ‘上’의 의미 파생의 범위가 더 넓음을 알 수 있다. 중국어 동사 ‘上’은, 특히 다른 동사 뒤에 붙어 쓰일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라는 방향 의미 외에 의미가 추상화되어 ‘상태’, ‘결과’ 등의 문법적 의미까지 갖추고 있다. 둘째, ‘오르다’와 ‘上’의 파생 의미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오르다’와 ‘上’의 의미 대응 양상을 살펴본 결과 대응 불일치와 대응 불완전 일치 유형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제시된 의미뿐만 아니라 사전에 수록되지 않는 일상생활

에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의미도 함께 다루었고,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으로 나누어 한·중 상향 이동동사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대조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실용적인 번역 방법과 효율적인 외국어 교수·학습 방법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인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고 문제 제기 수준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동사의 의미 자질을 나누는 부분과 의미 확장 과정을 해석하는 부분에 필자의 주관적인 관점이 다소 반영되어 있음도 인정한다. 이는 후일에 하나씩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린다.

〈참고문헌〉

- 강범모·김흥규(2009), 한국어 사용 빈도, 서울: 한국문화사.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 현대한국어 용례검색기, <http://riksdb.korea.ac.kr/>.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 말뭉치, <https://ithub.korean.go.kr/user/corpus/>.
- 노금송(2011), 한중 이동동사 대조연구, 베이징: 민족출판사.
- 변영수(2007), “오르다”의 의미 확장 연구, <겨레어문학> Vol.39, 겨레어문학회, 5-39쪽.
- 서정범(2003), 국어어원사전, 서울: 보고사.
- 왕 단(2012), 문화 간 의사소통의 시각에서 본 한,중 색채어의 의미 대조와 그 번역에 대한 연구 -기본 색채어 ‘누르다’와 ‘황(黃)’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Vol.48, 이중언어학회, 207-242쪽.
- 이익섭(2011), 국어학개설, 서울: 학연사.
- 임지룡(2017), 한국어 의미 특성의 인지언어학적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염 철(2015), 한국어와 중국어 이동동사 대조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영영(2012), 동사 오르다, ‘올리다’, ‘내리다’의 의미와 용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수태(2009), 국어 이동동사 의미 연구, 서울: 박이정.
- 최설남(2013), 한·중 이동동사의 의미 대조 분석 및 교육 방안: ‘오르다/내리다’와 ‘上/下’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글학회(1991), 우리말 큰 사전, 서울: 어문각.
- 北京语言学院语言教学研究所(1986), 现代汉语频率词典, 北京: 北京语言学院出版社.
- 吕叔湘(2015), 现代汉语八百词, 北京: 商务印书馆.
- 孟 琮(1999), 汉语动词用法词典, 北京: 商务印书馆.
-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2016), 现代汉语词典(第7版), 北京: 商务印书馆.
- 北京大学汉语语言学研究中心, CCL语料库, <http://ccl.pku.edu.cn/corpus.asp>.
- 国家语委, 国家语委现代汉语语料库, <http://www.aihanyu.org/cncorpus/index.aspx>.
- 王 寅(2007), 认知语言学, 上海: 上海外语教育出版社.
- 许余龙(1992), 对比语言学概论, 上海: 上海外语教育出版社.
- 李双梅(2010), 多义动词“上/下”的范畴化分析, 广西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 张 华(2004), “上/下”语义演化的认知考察, 华中科技大学硕士学位论文.
- 周 薇(2012), V+上/下不对称现象的研究, 南京大学硕士学位论文.
- 范立珂(2014), 时空概念对“上/下”句法语义对应关系的内在制约, <解放军外国语学院学报> 2014年02期, pp. 86-94.
- 吴向眉(2007), 动词“上”、“下”的不对称性及其认知解释, <中山大学学报论丛> 2015年03期, pp. 172-174.
- 张其昀(1995), 运动义动词“上”、“下”用法考辨, <语言研究> 1995年01期, pp. 37-43.
- Gibbs, Raymond W.(1994), *The Poetics of Mi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eki, Hamawand(2016), *Semantics: a cognitive account of linguistic meaning*, Sheffield: Equinox Publishing Ltd.
- Johnson, M. (1987), *The Body in the mind: The Bodily Basis of Meaning, Imagination, and Reas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Ungerer & Schmid.(2006),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Linguistics*, London: Routledge.
- Vynyan Evans & Melanie Green.(2008).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한·중 접사 “화” 와 “化” 의 대비연구

손문혜

국문요지

본 연구는 한국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한자 접사 “-화”를 중국어 접사 “-化” 과 대비하여 그 의미·통사론적 특성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다양한 용례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의 “-화/化”의 올바른 사용법을 드러내기 위하여 의미·통사적 특성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본고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现代汉语词典》, 《现代汉语语料库》에서 추출된 언어자료를 주로 하여 한국어“-화”1123개, 중국어“-化”673개를 기초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접사 “-화”와 “-化” 는 동형한자 접사인데 유사한 의미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다른 언어의 유형에 속해 있는 만큼 각기 다른 언어체계의 여러 제약을 받게 되므로 동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파생어 형성의 경우에도 완전히 같은 단어를 파생할 수 없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고는 접사 “-화”와“-化”를 대상으로 의미적, 결합 품사, 통사적 측면에서 그들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키워드: 접사설정논의, 의미대비, 조어법, 통사적 기능

서론

접사는 단어재생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뛰어난 결합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많은 새 단어를 만들 수 있다. “화/化”가 바로 그중의 하나이다. “화/化”는 우리 평소에 자주 쓰는데 다양한 품사성을 지닌 어근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 하고 있으며, 그 조어력은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다, 의미적 부분에서도 결합한 어근에 따라 허화정도가 상대적으로 다르다. 한국어 “화”와 중국어 “化”는 “변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사용상에 대응되지 않는 상황도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단어구조에 대해 대비하면 한국어는 발음변화, 음절중첩, 파생현상이 아주 발달한 편이고 중국어는 추상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는 편이다. 그리고 두 나라의 언어 내외적인 원인에 의해 결국 형태나 의미에서 서로 다르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접사 “화”와 중국어 접사 “化”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르게 쓰는 “화/化”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양국의 접사 “화/化”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본고는 한국어 접사 “화”와 중국어 “化”의 대비를 통하여 두 접사의 의미, 조어법, 통사적 측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 “화”와 중국어 “化”가 접사인 지 아닌 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다르다. 이익섭(1968)에서는 사전 자료에서 접사로 인정하고 있는 항목들 가운데 ‘~가(家)’ 및 ‘~화(化)’의 경우, ‘一家’ 혹은 ‘成家’, ‘근대가 화(化)하였다.’와 같이 단어의 핵심부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접미사의 예로 보기 어렵다고 논하였다. 노명희(2005:216)에서 “화”는 대표적인 한자어 접미사 중 하나로 보고 “化石”의 “化”와 접미한 한자어 “-化”가 적어도 공식적 관점에서는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吕叔湘(1978)은 《汉语语法分析问题》에서 처음으로 ‘준접사’의 개념을 언급했다. ‘化, 性, 率, 法, 界, 学, 家, 员, 人, 体, 气, 民, 物, 品, 具, 件, 子, 种, 类, 别, 度, 质, 力’ 등에 대해 접사와는 구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의미적으로 완전히 허화되지 않았고, 때로는 어근의 형태로 출현하기 때문에 접미사로 보기에는 부족하며, ‘类’자를 덧붙여 ‘类后缀’ 즉 준접사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했다. 그리고 ‘化’는 영어에서 동사어미로 쓰인 ‘-ize’를 번역한 것이고 단지 영어에서보다 더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化’는 동사의 표지라고 보았다.

위의 연구를 보면 한국어 “화”와 중국어 “化”에 대한 논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비측면에서 한국어 “화”와 중국어 “化”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고에서는 “화/化”를 접사로 간주하여 의미와 통사적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본고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십자 말뭉치 나눔터』, 『现代汉语词典』, 『现代汉语语料库』에서 추출된 언어자료를 주로 하여 한국어 “-화” 1123

¹ ‘한어에서 진정한 접사는 많지 않다. 접두사나 접미사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준접두사(类前缀)나 준접미사(类后缀)라고 지칭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것들은 어의적으로 완전히 허화되지 않고, 때로는 어근의 형태로도 나타난다.’라고 말하며 준접사라고 지칭하는 이유를 표명하였다.

개, 중국어“-化”673개를 기초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장 “화”와 “化”의 의미대비

2.1사전의미 대비

먼저 『표준국어대사전』과 《现代汉语辞典》에서 정의한 ‘-화/化’의 의미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중국어: “화”『표준국어대사전』 의미해석

『표준국어대사전』	예문
동사「1」【…으로】어떤 현상이나 상태로 바뀌다.	뱀이 용으로 화하다/큰비로 온 세상이 바 다로 화했다.
동사「2」【…에】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게 되다.	그 외국인 신부는 우리 문화에 흠뻑 취하 고 화하였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우리와 전 혀 다름이 없었다.
「접사」(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렇게 만들거나 됨’의 뜻을 더하는 접미 사.	기계화/대중화/도시화/자동화/전문화.

사전중의 의미는 “변화시키거나 그렇게 된다는 뜻이다.

중국어: “化”《现代汉语辞典》 의미해석

《现代汉语辞典》	예문
①【动】变化;使变化	-脓/-名/-装
② 感化	教-
③【动】熔化;融化;溶化	-冻/-铁炉/太 阳一处来,冰雪都-了
④【动】消化;消除	-食/-痰
⑤ 烧化	焚-/火-
⑥ (僧道)死	坐-/羽-
⑦ 指化学	理-/工/-肥
⑧后缀 加在名词或形容词之后构成动词,表 示转变成某种性质或状态	绿-/美-/恶-/电气-/机械-/水利-净-

두 사전에서 정의한 “화”와 ‘化’에 대한 의미항목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现代汉语词典》의 항목은 더 상세하다, 다만 접사 “화”와 “化”의 정의가 별로 다른 점이 없다.

“화”는 주로 변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변화는 원래 모호성과 어떤 추세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사물이 변하거나 변하지 않거나에 대해 그의 한계를 규정하

기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의 특성이 있어서 “화/化”와 결합한 단어 중어디까지가 실사 “화/化”이고 허화된 “화/化”인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며 분명하지않아서 과연 “화/化”가 이런 단어중에서 접사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2.2 의미허화분석

노명희(1998)에서는 “한자어 의존형식”을 어근과 접사로 설정하고 ‘접두한자어’와 ‘접미한자어’의 판별 기준을 설정하고 한자어 단어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한자어 접사 설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한국어 속에서 한자어의 실제 기능을 바탕으로 그 용례와 함께 반영하여 살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 예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겠다.

예를 들면:

(1). 전화 (转化), 변화 (变化), 소화 (消化), 점화 (转化)

(2). 미화 (美化), 녹화 (绿化)

(3). 기계화 (机械化), 대중화 (大众化), 도시화 (都市化), 자동화 (自动化), 전문화 (专门化)

(4). 로봇화 (机器人化), 패턴화 (模式化), 아미노화 (氨基化)

위의 예를 보면 모두 “화”로 끝나는 단어 지만, 각각 “화”의 의미와 말은 기능이 서로 다른것 같다. (1)의 “화”는 동사성 실질형태소인데 “변화”나 “변화시키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2)의 “화”는 앞에 어떤 사물을 수식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음절이 부가되기 때문에 “미, 녹”과 결합하고 분리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때 “화”의 의미는 어떤 성실이나 상태로 전변하는 뜻이고 (1)보다 상대적으로 허화된것같다. 그리고 (1)와(2) 의 “화”는 생산성 면에서도 구분할 수 있다. (3)의 “화”는 2음절 명사 어근에 결합한 것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기계, 대중, 도시, 자동,전문”은 구본과(1998:22)²이 제시한 ‘어휘강도’에 의해서 그들이 어휘강도가 높아서 화자에게는 비교적 어근과 접미사로 분리가 용이하다. 의미면에서 (3)“화”는 단순히 “변화”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경향이나 추세”를 상징하는 이차적 의미가 있다. (4)는 외래어와 활발히 결합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로 (1)(2)(3)(4)의 “화”를 구분할 수 있다.

한자어는 1음절 어근과 결합한 한자어와 2음절 어근에 결합한 한자어 접사는 동일한 형태와 의미를 갖더라도 단어 구성에서 그 기능적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² 구본과(1998:22)은 “여기의 어휘강도가 높으면 결합가능성이 높다. 물론 파생어 전체의 어휘강도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파생어의 어휘강도가 높고 그 파생어 여기의 어휘강도도 높은 경우 쉽게 분리될 수 있으므로 결합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지만, ...여기의 어휘강도가 낮아 쉽게 분리되지 않을 경우 화자에게 어기와 접사는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단위로 인식될 것이다”라고 보고, ‘어휘강도’에 따라 어근과 접사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위의 대비를 통해 우선 “화” 의미면에서는 허화되는 추세가 있다. 둘째, “화”는 어떤 단어중에서는 실제적의미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중국어 “化”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화”와 다른 접사의 가장 큰 구별이라고 할 수 있다.

2.3 화/化류 단어의 특성

접사는 언어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산물인데 “화/化”는 그중의 대표적인 허화정도 높은 접사이다. “화/化”가 본래의 “변화”하다는 의미를 “화/化”류의 파생사군(群)에서도 보존하고 있고 다만 어떤 파생어중의 “화/化”는 문법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빼고나도 단어 의미의 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화/化”와 다른 품사를 결합하여 만든 새 단어의 사용범위가 아주 높다, 다음에는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설명하겠다.

1. 사람의 성격이나 신분을 표시한다.

이상화 - 理想化, 감정적 - 情绪化, 인격화 - 人格化, 노령화 - 老龄化, (企业) 탈성숙화 - 年轻化등, ?서민화 - 平民化, 범인화 - 法人化

2. 색깔을 표시하는 단어가 “화”/化和 결합하여 어떤 추세를 표시한다.

흑화(암화) - 黑化, 녹화 - 绿化, 적화 - 赤化등

3.기계나 공업용어(“화”는 화학이란 의미도 있는데 지난 몇십년간의 사회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해왔다. 그래서 이런 사회필요에 적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화”를 붙이고 만든 새단어도 많이 나타난다.)

기계화 - 机械化, 과산화 - 过酸化, 불소화 - 弗素化, 수산화 - 水酸化, 수소화 - 水素化 등

4.어떤 사회현상을 표시한다.

(一些党员干部搞) 特殊化/특수화, 오락화 - 娱乐化, 세속화 - 世俗化

5.행위나 방식을 표현한다.

공개화 - 公开化, 사유화 - 私有化, 인위적 - 人工化, 유급화 - 有偿化, 형상화 - 形象化

6.사물의 발전방향을 표시한다.

그룹화 - 集团化, 복잡화 - 复杂化, 구조화 - 组织化, 전문화 - 专业化

7.어떤 목표나 결과를 표시한다.

표준화 - 标准化, 물개성화 - 脸谱化

위의 예를 보면, “-화/化”류 단어의 사용범위가 아주 넓다. 사람의 성격이나 신분을 표시할 수도 있고 색깔을 표시하는 단어가 “화”/化和 결합하여 어떤 추세를 표시할 수도 있다.기계나 공업용어로 쓸 수 있고 어떤 사회현상이나 행위나 방식을 표시할 수 있다. 사물의 발전방향이거나 어떤 목표나 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하지만 그중에 한국어와 중국어 대응되지 않는 형사도 나타난다.예를 들면, 중국어 “矮化”와 대응하는 한국어는 3음절

단어 “왜소화”이고, 중국어 “年轻化”의 대응 형식은 “젊어지다”, 그리고 (企业) 年轻化는 “탈성숙화”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 情绪化가 “정서적”으로 표현한다. 이러면 한국어 “화”가 한자어 접미사이지만 새단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국어 “化”와 완전히 대응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더 깊게 인식할 수 있다. 다음 조어법측면에서 분석하겠다.

제3장 “화”와 “化”의 단어 형성 참여 방식

‘化’는 《六书》에서 회의(会意)에 속하며, 甲骨文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등을 기대고 있는 형태로 묘사되었다. 史红改(2009)는 ‘化’에 대한 설명이 가장 먼저 《说文解字》에서 출현했다고 주장하였다. ‘化, 教行也。从匕, 从人, 匕亦声。’ 《说文段注》(浙江古籍1999)의 해석에 의하면 ‘匕, 变也。凡变匕当作匕。教化当作化。今变匕字尽作化。化行而匕废矣。’라고 한다. 이를 통해 ‘化’자는 초기에 ‘匕’와 ‘变’과 의미가 달랐고, ‘교화하다’라는 뜻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에 ‘化’자는 ‘变化(변화하다)’와 ‘教化(교화하다)’ 두 가지 의미가 생겼고, ‘匕’자는 점차 사라지며 이후의 ‘变化’와 ‘转化’등의 이음절 어휘가 생겨나는데 기반이 되었다. 접사 ‘化’는 주로 2음절 단어 뒤에 나타나지만 일부 단음절과 구도 결합할 수 있다.

1. 단음절과 결합하여 만든 단어는 안정성이 강해서 널리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绿化-녹화、美化 -미화 등이 있고 ,그리고 그중의 어떤단어들은 대립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미화 - 美化’와 ‘추화 - 丑化’、‘강화 - 强化’와 ‘약화 - 弱化’등이 있다.

구체적 사용은 다음 예과 같다.

(1)미화:이 이유는 폭력 영화 속에 폭력에 대한 미화가 사람의 인식 미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美化:在码头上工作的人,就将剩下的油漆带回家去,来美化自己的房屋。

2.2 음절과 결합하는 예가 많은데 예를 들면 `민주화 - 民主化、산업화 - 产业化、상업화 - 商业化、구체화 - 具体化'등

구체적 사용은 다음 예과 같다.

(1)민주화:그리고 지금의 한국적 민주화가 되는 것 같아요.

(2)民主化:年轻人能为中国民主化做什么?

(3)표준화:지금 아침차를 먹으로 찾집에 가는 것은 이미 표준화가 되었다.

(4)标准化:大部分公司都在视窗桌面系统上标准化了,还有许多公司在桌面有成效的应用程序上标准化了。

다음절과 결합하여 만든 단어는 3음절보다 훨씬 적게 나타나긴 했지만, 다음절 역시 결합능력이 뛰어난 편이다. 단지 사용빈도가 3음절만큼 높지 않아서, 예문이 비교적 적다.

고압가스화 - 高压化, 농촌버스화 - 农村汽车化, 무역자유화 - 贸易自由化, 부신성용

성화 - 副肾性雄性化, 부영양화 - 富营养化, 산업국유화 - 产业国有化, 시간양자화 - 时间量子化, 자본자유화 - 资本自由化, 재정경직화 - 财政硬直化, 지구온난화 - 地球温暖化

접사 “화/化”와 다른 음절의 결합은 간단한 의미의 합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의미의 융합한다고 하는 것더 적절한다. 양자는 하나의 총체이고 상대가 없으면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만 “화/化”가 접미사로서의 기능을 실현한다.

예를 들어: 구체화 - 具体化, 개념화 - 概念化, 현대화 - 现代化, 미화 - 美化 등은 다 하나하나 구조가 긴밀하고 의미가 완정하는 단어들인데 서로 나눌 수도 없고 다른 성분을 여기에 끼어들수 없다.아니면 단어라고 말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화/化”는 접사화하는 과정중에서 어근에 대한 부착력이 생긴다.

3.1 “화”의 단어 형성 참여 방식

한국어에서 “화”는 일반적으로 추상성을 지닌 명사와 결합하여 “게 되거나 또는 게 만듦”의 의미를 지니고 동사와의 결합도 자유롭다.

명사-화

명사성 성분이 포함하는 개념은 비교적로 복잡한데 1)구체적이나 추상적인 사물을 표시하는 명사성성분, 예를 들면: 전자, 격식, 농업, 사막등이 있고, 2)방위를표시하는 명사성성분, 예를 들면: 내부, 표면, 서방 등이 있고, 3)지명이나 인명을표시하는 명사성성분, 예를 들면: 중국, 철수, 미국 등이 있다.

김광해(1994)의 연구에서 그는 합성어의 종류를 ‘임시적 합성어’와 ‘신형 합성어’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임시적 합성어’와 ‘신형 합성어’의 구분 기준으로서 ‘생산성’, ‘모호성’, ‘상황성’의 세 가지 요소를 들었다.본고의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화’와 ‘化’파생어의 특징은 이와 같은 ‘임시적 합성어’와 ‘신형 합성어’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접미사 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임시적 합성어’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화/客观化, 과산화/过氧化, 대상화/对象化, 형상화/形象化 형식화/形式化 등과 구체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각질화/角质化, 목질화/木质化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파생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분류 상황:

1. 구체성명사와 결합하여 만든 단어.

(1) 각질화 - 角质化, 계층화 - 阶层化, 고도화 - 高度化, 공산화 - 共产化, 구상화 - 具象化, 국유화 - 国有化, 국제화 - 国际化, 근대화 - 近代化등
구체적 예문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실현하다.

(2)’ 국제화 시대에 영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다.

(3)’ 국민의 화합이 조국 근대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 부류에 해당하는 명사에는 자립성이 확보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것 같다.이는 ‘이다’가 뒤에 접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 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2)*각질하다 ,*계층하다, *고도하다, *공산하다

위의 예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어기의 해당 명사들은 단독으로 ‘하다’와 결합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류의 명사어기들은 ‘화’와 결합하여 일련의 활용이 가능하게 보인다.그리고 ‘하다’를 ‘되다’로 치환하여도 자연스러운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각질화하다, 계층화하다, 고도화하다,공산화하다 등

구체적 예문은 다음과 같다.

(1)’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산업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2)’ 베트남 • 캄보디아는 이미 공산화되었다.

이를 통하여 ‘화’와 결합하는 (1) 의 명사 어기들은 자체적으로는 서술성이 없으며‘화’의 접속으로 ‘하다’,‘되다’등과 결합하여 동사 어간의 자격을 부여 받게 되며,‘화’의 결합으로 서술성을 띠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의 ‘화’는 ‘그렇게 만들거나 됨’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하다’및 ‘되다’를 동작주의 관점에서 ‘어기와 같이 만들어지게 하거나 그렇게 되어짐’과 같 이 볼 수 있으므로 이 서술성에는 사동및 피동적 기능이 내재된 것으로 생각된다.

2. 추상성 명사와 결합하여 만든 단어

국제화 - 国际化, 근대화 - 近代化, 이상화 - 理想化,자유화 - 自由化,합리화 - 合理化

3. 상태성 명사와 결합하여 만든 단어

다양화 - 多样化, 단순화 - 单纯化, 단일화-单一化, 복잡화 - 复杂化, 영구화 - 永久化, 정당화 - 正当化, 특수화 - 特殊化,평범화 - 平凡化, 민주화 - 民主化

“민주-화”는 “민주화로 되고 그중의 의미도 사동이나 피동의 뜻을 가지게 되다. 즉 “민주화되다 (被民主化)”, “민주화하다 (使民主化)”

4. 동작성 명사와 결합하여 만든 단어

고립화-孤立化,고정화 -固定化,과격화 -过激化,부식화 -腐植化,세분화 -细分化,평준화 -平准化

각 명사의 부류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화’의 어기가 될 수 있는 명사에는 제한이 적은 것 같다.

5.부사-화

절대 (绝对) 화

(1)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6.수량사-화

일체화 (一体化), 양극화 (两极化)

(1)산업구조의 동일화 문제는 창산자요 지구의 지역일체화 과정 중에 날로 뚜렷해진다.

(2)양극화 해소가 아니라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이다.

7.외래어-화

네트워크화 - 网络化 , 가스화 - 气化 , 로봇화 - 机器人化 , 애니메이션화- 动画化 , 코드화 - 制码法 , 이벤트화 - 项目化 , 디지털화 - 数字化, 데이터베이스화 - 数据化등

(1)코드화된 신호는 위성 안테나로 수신된다.

위의 예를 보면, 화앞에 나타나는 성분이 다양하고 “화”가 구체성명사, 추상성 명사, 상대성 명사, 동작성 명사, 부사, 외래어, 구까지와도 결합하는 것보면 “화”의 조어력은 매우 강하다는 사실을 알 겠된다.

3.2 “化”의 단어 형성 참여 방식

“化”와 결합할 수 있는 품사

접사 “化”는 주로 명사나 형용사와 결합하는데 동사와 결합하여 만든 단어는 비교적 적는 편이다. 예를 들면 “文革”전에 “化”와 결합할 수 있는 명사는 100개 이상이 있고 형용사는 약 50개 정도 있고 동사는 오직 10여개가 있다. 많은 고유명사뒤에 “化”를 붙인다, 예를 들면 `中国化、日本化、美国化、菲律宾化、马歇尔化、莎士比亚化'등이 있다. “文革”후에 “化”류단어의 수가 많이 늘었다.

1.명사-접사 “化”

“化”와 명사를 결합하여 생긴 단어 가장 많고 보통명사 뿐만아니라 고유명사와도 결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推动农产品流通产业化和规模化。

(2)远远地走在马歇尔化国家的前面。

(3)节假日市场更趋活跃, 追求个性特色化的趋势明显。

(4)阿Q体现了作者对阿Q这个人物的整体认识,他绝非戏剧电影中那些小丑化和脸谱化,阿Q, 而是一个具有独立个性的人物。

2.형용사-“化”

(1)温州市的地面从硬化到洁化,从洁化到绿化, 从绿化到美化, 看得出温州在塑造城市整体优

美环境过程中的文明进程。

(2)现在舞服有不断地简朴化倾向,舞蹈的发型不随着简朴化的话就会出现不平衡。

(3)生产厂家在开发产品时,还应注意多样化、配套化、包装精美化。

(4)中美就加入世贸组织达成协议,令全球经济更趋明朗化。

3.동사-“化”

(1)再有,品牌统一化树立了整体信誉。

(2)洗钱,就是把源于犯罪而获得的收益加以处理,掩盖其犯罪来源,使其合法化。

(3)资源密集型产业的生产要素集中化,是提高资源利用效率的有效途径。

4.구별사-“化”

(1)拆借资金正由长期向短期化方面转化, 是当前资金拆借的另一特点。

(2)俄罗斯也是人口老龄化国家。

(3)物质生活享乐化,文化生活低级化,社会生活庸俗化。

5.부사-“化”

(1)不能要求一律化。

(2)冶金行业通过聚集实现了生产流程连续化。

(3)对于那种盲目性、绝对化的东西,一定要警惕起来,不要让它们搞乱了我们的思想。

(4)根本原因是公权力的任意化、随意化。

위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어 “화”와 중국어“化”는 생산성이 높은 접미사인데 단어를 만드는 과정중에도 단음절이나 다음절, 명사나 부사와 결합할 수 있다. 다만 외래어와 결합하는 것보면 한국어”화”의 사용이 더 원활한 것 같다.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화(database化-建立数据库) 로봇-화(robot化-机器人化) 마이크로캡슐-화(microcapsule化-制造微型胶囊), 애니메이션화 -动画片化, 코드화 -制码法, 이벤트화 -项目化, 디지털화 -数字化, 데이터베이스화 -数据化등이 있다.

한국어에서는 단순히 외국어를 음역하고 직접 뒤에 “화”가 붙이는데 중국어의 형식과 의미, 구조단위와 결합형식이 상대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항상 외래어에 대해 강한 동화력을 가져서 외국어의 음을 따지 않고 뜻으로 번역하고 사용하는 것더 강조하는 편이다.

새단어를 만드는 형식은 별로 차이점이 없지만 의미와 실제사용측면에서 분석하면 다른점이 많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중국어 “化”는 변화이나 어떤 추세를 의미하는 것외에 ‘어기의 속성이 풍부하게 있음’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 科学化研究

과학적인 연구

(2) 想的很理想化

이상적으로 생각하다

(3) 男性化倾向

남성적 성향

(4) 神秘化倾向

신비적 경향

(5) 不要太教条化

너무 교조적일 필요 없다.

(6) 个性化的表现

개성적 표현

(7) 今年比较公开化

올해는 비교적 공개적이다.

(8) 国际化的都市

국제적인 도시

(9) 对人性化的待遇感到满意

인격적 대우에 만족하다.

(10) 具有程式化的框架

공식적인 틀을 갖추다.

(11) 这本小说写得很一般化

이 소설은 매우 일반적이다.

(12) 要求更加人性化的对待

보다 인격적으로 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13) 人类都兼具不同程度的女性化及男性化的特征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여성적 특징과 남성적 특징을 함께 지니고 있다.

(14) 与都市化倾向相比, 今年的秋装更有田园化的倾向。

을 가을 의상은 도시적 성향보다는 목가적 성향이 유행할 것이다

(15) 幸福是相当的个性化的东西。

행복이란 아주 개인적인 것이라고 답했다

사전에서 “화”와 관한 많은 예문중에 중국어 “化”와 대응되는 한국어접사가 “적”로 바꾸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때 중국어 “化”는 앞에 어기의 속성을 풍부하게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要求更加人性化的对待/보다 인격적으로 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幸福是相当的个性化的东西。/행복이란 아주 개인적인 것이라고 답했다

여기의 “化”는 앞에 人性、个性을 강조하며 속성을 풍부하게 하는 역할을 맡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한국어 “화”대신 접사 “적”로 더 이런 특성을 표현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여 접미사로서의 “화”가 “적”로 바꿀 수 있는 용례는 총94개를 찾았다, 아래와 같다.

사회적 -사회화 구체적 -구체화 일반적 -일반화 적극적 -적극화 본격적 -본격화 세계적 -세계화 현실적 -현실화 전통적 -전통화 합리적 -합리화 객관적 -객관화 예술적 -예술화 미적 -미화 과학적 -과학화 법적 -법화 공식적 -공식화 정상적 -정상화 체계적 -체계화 전형적 -전형화 장기적 -장기화 이론적 -이론화 전통적 -전통화 인간적 -인간화 군사적 -군사화 제도적 -제도화 국제적 -국제화 전문적 -전문화 이상적 -이상화 보편적 -보편화 집중적 -집중화 객관적 -객관화 구조적 -구조화 민주적 -민주화 합법적 -합법화 일반적 -일반화 현실적 -현실화 의식적 -의식화 일상적 -일상화 극적 -극화 상징적 -상징화 예술적 -예술화 제도적 -제도화 기술적 -기술화 보편적 -보편화 규칙적 -규칙화 자율적 -자율화 이론적 -이론화 집단적 -집단화 민주적 -민주화 상식적 -상식화 상징적 -상징화 기계적 -기계화 기술적 -기술화 일상적 -일상화 적극적 -적극화 조직적 -조직화 주관적 -주관화 비정상적 -비정상화 안정적 -안정화 대중적 -대중화 실용적 -실용화 자동적 -자동화 개방적 -개방화 근대적 -근대화 민중적 -민중화 의무적 -의무화 현대적 -현대화 특징적 -특징화 상업적 -상업화 실천적 -실천화 표면적 -표면화 군사적 -군사화 습관적 -습관화 평균적 -평균화 내면적 -내면화 직업적 -직업화 모범적 -모범화 민주주의적 -민주주의화 상업적 -상업화 세속적 -세속화 규범적 -규범화 전설적 -전설화 형식적 -형식화 직업적 -직업화 차별적 -차별화 체계적 -체계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화”와 “적” 접미사가 어기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며 접미사로서의 각각의 의미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조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접사로서의 본 의미와 함께 의미의 확장은 자유롭지만, 그만큼 어기의 특성에 따라 의미의 투명도면에서는 높지 않거나 탁할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다음의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보편화/普遍化,이상화/理想化,합리화/合理化

(1)의 예는 “화”와 추상 명사와 결합하여 파생단어들이다. “적”와의 결합도 자연스러운 경우이다. ‘보편적인 정도’, ‘이상적인 정도’, ‘합리적인 정도’등과 같은 의미 속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2)계량화 ,고립화 ,고정화

(2)의 예는 동작성 명사의 속성을 가진 어기가 “화”파생어가 된 예이다. “적”파생어도 될 수 있으며 ‘수량을 헤아리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거나 사귀지 않고 도움을 받지 못하여 외톨이로 되는’, ‘한번 정한 대로 변경하거나 되지 않는’ 혹은 ‘한곳에붙어있거나 그러한’등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고립화’의 의미에는 ‘고립적인 처지로 됨’과 같이 “적”의 의미 속성이 나타나며 ‘고립적’에서는 ‘고립화되는’과 같이 “화”의 의미 기능을 보인다.

그래서 위의 분석을 통하여 “화”와 “적”은 어기를 공유할 수 있는 사실을 알겠된다. 이런현상이 이기 때문에 중국어 “化”와 대응 된 번역중에서 한국어 “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깊게 알 수 있는 것 같다.

2.한국어 “화”는 “앞에 어기로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이라는 뜻을 더 강조하는 편이다.

예를 들면,

영화화

소설이나 전기 따위를 각색하여 영화로 만들.

(1) 소설의 **영화화**는 읽을거리를 볼거리로 단순히 전환시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어로 표현하면 电影化대신 “改编成电影”더 적절하다. “电影化”로 표현하는 경우가 없다.

(2) 巴金《家》改编成音乐剧电影, 那些经典句子你知道多少?

회곡화

회곡으로 만들.

(1)중국 원나라 때의 회곡. 당나라 때 원진(元稹)이 지은 <회진기(會真記)>에서 취재한 <동서상>을 **회곡화**한 것으로, 장군서라는 청년이 최앵앵이라는 미인을 사모하여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이때 중국어로 표현하면 改编成戏剧더 자주 쓰는 것이다.

(2)改编成戏剧后首次搬上省城舞台 万荣笑话剧洒下一地笑声。

중국어”戏剧化”라는 단어도 일상생활중에서 자주 쓰는데 이때 “-化”는 그렇게 되게 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고 앞의 “戏剧”의 과장효과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적”과 대응된다. 예를 들면,

(3)索契冬奥会短道速滑500米上演戏剧化一幕。

(4)《中国诗词大会》戏剧化一幕 外卖小哥胜北大才子夺冠。

“戏剧化一幕”는 예상하지 못한 일을 나타날 때의 과장감을 강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휴지-화

휴지처럼 쓸모가 없게 됨. 또는 그렇게 만듦. 약속이나 조약, 법령 따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그 의의나 효력이 없어지거나 없어지게 하는 일을 이른다.

(1)각하께서 제출하시고 국왕이 재가한 제2차 내정 개혁안 자체가 휴지화됐습니다.

중국어에서는 “成为一纸空文”로 표현할 수 있다.

(2)不要让室内禁烟成为一纸空文。

공원-화

공원으로 만들거나 공원처럼 꾸밈.

(1)주민들의 반대로 **공원화** 계획이 취소되었다.

(2)시의회는 역 광장을 **공원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3)改造棚户区，打造城市公园，未来几年巴城将大变样。

(4)点赞成都建设美丽宜居公园城市。

상습화

늘 하는 버릇처럼 반복함

(1)마약 복용이 상습화되다/택시 합승은 이곳에도 이미 상습화되어 있었다.

(2)상습화한 탈세/마약 복용을 상습화하다.

중국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3)坚持久了，就成了习惯。

전설화

전설적인 것이 됨. 또는 그렇게 만듦.

(1)역사적 사건은 기록을 통해서만 후대에 정확히 전달된다. 구전된 역사는 곧 전설화 될 뿐이다.

(2)선배의 용감한 행동은 이제 전설화하여 가고 있다.

중국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3)是什么让历史成为了传说。

(4)我们的回忆终将都变成传说。

이런 단어는 구락부화(俱乐部化), 사가-화(死街化), 소설-화(小说化), 전장-화(战场化), 회신-화(灰烬化), 불모-화(不毛化), 활자-화(活字化), 식민지-화(殖民地化) 등이 있다.

또한 “现代化” 이런 중국에서도 자주 쓰는 단어는 항상 ‘实现’ 등을 수반해야 “그렇게 되게 함”의 뜻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中国基本实现现代化分“三步走”战略。

全市有94%的中小学校舍为新建、改建, 教学设备基本实现标准化。

村镇自来水普及率达到60%, 至2020年底农村基本普及自来水, 其中乡镇实现自来水化。

3. ‘ABAB’ 식으로 중첩하는 중국어 “어기-化”, 한국어는 이런 상황이 없다.

(1) 门面当然需要好看一点, 我并不反对花点钱适当美化美化大门, 但不能舍本逐末。

(2) 严格执行‘三审两签一批’程序, 进一步强化强化社会保险内控审核。

(3) 为进一步优化优化发展环境, 提高办事效率, 2008 年济南市对原有市级行政审批事项进行了全面清理。

4.중국어 “化”가 탈락하는 상황이 있다. 한국어 “화”는 이런 현상이 없다.

예를 들면,

(1)装修的新家是欧式风格, 我觉得有种清新优美的感觉, 朋友却说, 太一般化了。

……朋友却说, 太一般了。

(2)经理说“那样一来, 就更现代化一些, 可是成本就增加多了, 乡下人哪个买得起。

那样一来, 就更现代一些, 可是成本就增加多了, …

어근이 형용사성의 단어라면 “化”의 허화정도가 더 높아서 쉽게 빠질 수 있다. 특히 앞에 정도 부사가 있거나 “-화” 류단어가 관형어가 되는 경우.

다음에 정도부사 “-化”의 파생어의 품사 및 탈락여부에 관한 구체적 고찰이다. (통계 결과는 现代汉语平行语料库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명사성어근 수	“化”탈락 수	형용사성어근 수	“化”탈락 수
很-“어근-化”	9	0	0	0

十分-“어근-化”	1	0	1	1
比较-“어근-化”	4	0	4	4
非常-“어근-化”	8	3	4	3
太-“어근-化”	9	0	8	8
更-“어근-化”	7	4	4	4
위의 각류형 수량 통계	38	7	21	20
“化”탈락비율	18.42%		95.24%	

다음 “化”탈락여부에 관한 구체적 예를 살펴보겠다.

“化”탈락 가능한 경우

여기가 명사일때

(3)从全国性的新闻到更专业化的领域,像工业、体育、甚至业余爱好,几乎每一个领域都有出版物。

여기가 형용사일때

(4)太过于正规化的简历往往收不到预期想象般的效果。

위의 专业化,正规化的 化가 떨어져도 문장의 의미가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

“化”탈락 불가능한 경우

여기가 명사일때

(5)太生活化了也就没有艺术了。

(6)人工智能其实很生活化,它已经发展到了我们之前无法想象的地步。

여기가 형용사일때

(7)世界对你不残忍,只是你认为的世界太理想化了。

위의 분석을 통해 여기가 형용사성단어일때 “-化”의 허화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탈락하는 가능성도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의 분석을 통해 접사 “화”와 “化”가 의미 측면이나 구조측면이나 다 차이점이 있다.

제4장 “화”와 “化”의 통사적 기능 분석

본절에서는 접사“-화/化”문장중에서 어떤 통사적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 예를 통하여 분석하겠다.

(1)세계화

요즘 세계화된 사회에서는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관형어)

통신 기술 발달으로 말미암아 세계화로 변하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역 자유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부사어)

요즘 우리는 세계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관형어)

全球化

以更多企业引领经济全球化。(목적어)

加上国际政治形势趋于缓和, 企业经营的国际化或全球化已成为一种发展趋势。(관형어)

全球化、计划化、法制化,是日本经济运行的三大主要特征。(주어)

(2)시장화

신규 주식 가격문의 제도의 실질은 주식 정가제도의 시장화이며 증권시장발전에 실질적 의미를 지닌 조치이다.(술어)

중국이 담배전매제도를 폐지하고 연초엽 시장화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최근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관형어)

市场化

非市场化的等级制与市场机制碰撞的结果, 使得经济运行中贿赂启动与贿赂润滑初见端倪。(관형어)

这就要求国家的经济职能应该进一步市场化、参数化, 这种转变和市场体系完善的时序应该是同步进行的。(술어)

(3)산업화

특히 개발 도상 국가들이 자기 나라의 발전을 다른 선진국처럼 더 좋게 만들려고 많은 공장들을 짓고 있고 산업화를 계속 시키고 있다.(목적어)

요즘은 도시화와 산업화가 심화되다보니 그로 인해 현대사회의 가족의 형태가 변하고 있다.(주어)

대규모로 보면 산업화로 인해 서울시는 많이 발전되었다.(부사어)

产业化

为使高技术领域的科研成果产业化, 解决国民经济发展中的紧迫问题, 1988年, 国家科委开始组织实施“火炬计划”(술어)

从产业化到品牌化的转型之路。(부사어)

(4)구체화

프리먼 교수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케임브리지 교수 동료와 의논한 후에 그 막연한 아이디어가 점차 구체화되었다.(술어)

이후 미·일 갈등은 1920년을 전후하여 해군력 경쟁으로 구체화되었고, 미국 내 배일 감정과 인종적 편견, 이민법 등은 일본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다.(술어)

그러나 얼마 전에 내가 한 살 차이의 나의 남동생의 모습을 보고 인생에 대한 생각과 인생의 목표가 구체화된 것 같다.(관형어)

具体化

三好中学根据学校实际,列出了十个项目,由师生共同检查,使《中学生守则》教育具体化、经常化,收到了良好的效果。"(술어)

劳动人民的生产资料所有权在这里具体化了(술어),

在衡量某项投资的经济效果时,有些指标需要进一步具体化,有的还须要采用补充指标。(술어)

위의 예를 보면 접사 “화/化”와 결합한 뒤에 술어,부사어,관형어,목적어,주어를 담당할 수 있다.문장중에서 통사기능을 거의 비슷한데도 앞에 있는 구체적 단어에 따라 다른점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한국어 “-화”가 술어와 관형어기능을 할때 뒤에 “되다”나 “하다” 붙는 것이 보통이다. 중국어 “产业化”、“具体化”는 일반 동사적기능을 더 강조하여 항상 “农业产业化”、“加快产业化”、“概念具体化”、“思维过程具体化”와 같은 방식으로 쓴다. 하지만 한국어 “화”와 결합한 뒤에 부사의 수식을 받으면 좀 어색한 것 같다.

世界经济逐渐全球化 *점차 세계화

投资趋势更加产业化 *더욱 산업화

结构参数十分复杂化的系统 *애우 복잡화

装修风格十分现代化 *아주 현대화

앞에 부사가 있을 경우 항상 아래 “这本小说写得很一般化/이 소설은 매우 일반적이다. 매우 현대적이다. 더욱 복잡해진다.”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더 적절하다. 위에 분석을 총결하면 다음표와 같다.

문법기능	술어	부사어	관형어	목적어	주어	부사의 수식
세계화	+	+	+	+	+	+
全球化	+	+	+	+	+	-
시장화	+	+	+	+	+	+

市场化	+	+	+	+	+	+
산업화	+	+	+	+	+	+
产业化	+	+	-	+	+	-
구체화	+	+	+	+	+	+
具体化	+	+	-	+	+	-

위의 분석을 보면 통사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공통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5장 결론

한자어 접사가 단어의 재생과정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한국어“-화”와 중국어“-化”의 의미,조어법과 통사적 측면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했다.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단어형성의 참여방식을 분석하면 거의 차미점이 없는데 단음절이나 다음절, 명사나 부사등과 다 결합할 수 있다. 다만 외래어와 결합하는 것보면 한국어”화”의 사용이 더 원활한 것 같다.

의미측면에서 접사“-화/化”는 다 변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상에서 중국어“化”는 “화”대신 “적”과 많이 대응된 예문을 보면 접사“-化”가 앞에어기의 속성을 풍부하게 만드는 기능을 가지는 사실도 알 수 있다, 한국어“-화”는이런 의미가 약하다.그리고 한국어“-화”는 앞에 “어기”로 되거나 그렇게 되게 함이라는 의미를 더 강조하는 편인데 중국어“-化”가 이 의미기능이 약해서 항상“改编成”나“实现、成、为”를 수반해야 그렇게 되게하다는 뜻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다.

한국어“-화”와 중국어“-化”가 모두 변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단어형성의 과정중에서 본의가 점차 허화된다. 어떤 단어중에 변화의 의미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많은 단어중에 이미 의미가 없어진다. 특히 중국어 “형용사성 어근-化”라는방식으로 만든 단어중의 “-化”는 허화정도가 높아서 탈락하는 상황이 생긴다. 한국어는 항상 “하다”나 “되다”가 뒤에 붙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없다.

중국어 “어기-化”가 ABAB’식으로 중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국어는 이런 현상이 없다. 통사적 측면에서 “명사, 형용사, 동사성어기-화/化”가 문장중에서 주어,술어,부사어등 기능을 하고 있는데 한국어 “화”류 파생어가 앞에 부사가 있을 때 중국어 “-化”류 파생어 보다 좀 어색해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더 좋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접사 “-화”와 “-化”가 의미나 실제사용이나 다 공통점도 많지만차이점도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 남기심(1982) 「국어의 공식적 기술과 형태소의 분석」 『배달말』 Vol.7, 배달 말학회, pp.1-10
- 노명희(1997), 「한자어 형태론」, 『국어학』 pp, 309-339.
- 이익섭(1968), 「汉字语 造语法의 类型」, 『李崇宁博士颂寿纪念论文』, pp475-483
- 김광해(1994), 「한자 합성어」 『국어학』 24, 국어학회, pp.468-471
- 유미상(2013),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학습을 위한 한자어 접사 및 파생어 선정에 관한 연구 -말뭉치를 기반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최성혜(2013), 「현대중국어 ‘X化’형식의 어법 특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윤영민, 「현대 한·일어 접사의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现代汉语词典》(2012), 吕叔湘、丁声树, 商务印书馆
- 吕叔湘(1978), 《汉语语法分析问题》, 商务印书馆
- 胡裕树(1995), 《现代汉语》, 上海教育出版社
- 许慎 (2001), 《说文解字》, 北京, 中华书局
- 李 刚(2011), 〈现代汉语类词缀‘非、准、性、化、家’的发展演变与特点〉, 首都师范大学, 석사학위논문
- 尹海良(2007), 〈现代汉语类词缀研究〉, 山东大学, 박사학위논문
- 冯 灿(2011), 〈以‘化’为例浅析现代汉语类词缀在对外汉语中高级词汇教学中的策略〉, 首都师范大学, 석사학위논문
- 史红改 (2009), 〈词尾‘化’的来源, 意义及‘X化’的动词语义特征〉, 《北京广播电视大学学报》

신문보도에 나타난 어휘사용 특징 연구

중국 제19차 당대표대회 보도문을 중심으로

등제비

국문요지: 본 논문은 중국과 한국 신문에 게재된 2017 년 10 월 18 일 중국공산당 제 19 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식 상황에 관한 시사보도에 나타난 어휘를 대상으로 언어학적 특징을 밝히려고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첫부분에는 연구의 목적과 의미를 밝히고 기존연구성과를 검토하여 연구의 방법을 정한다. 그리고 조선어 어휘 사용 특징에 관한 선행연구 자료를 검토한다. 다음 보도문에서 나타난 어휘를 빈도수와 품사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한 다음 구체적으로 어휘의 사용 특징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조선어 신문의 시사보도에 나타난 어휘와 표현의 사용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키워드: 신문보도 제19차 당대표대회 어휘 특징

1. 서론

1.1.연구 목적

어휘란 단어의 집합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일정한 개념아래 정의된 단어의 집합으로서 현범어휘, 색채어휘, 신문어휘 등과 같이 나눌 수 있으며 넓은 의미로는 한국어 어휘, 중국어 어휘 등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어휘는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므로, 언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신문 어휘는 그 시대의 언어생활을 가장 잘 나타내며 신문에 표현되는 어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적 어휘 사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은 중국의<연변일보>와 한국의<조선일보> 2017 년 10 월 18 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 19 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식 상황에 관한 보도에서 나타난 어휘를 대상으로 중국 조선어와 한국어의 어휘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최근 인터넷 및 음악, 드라마, 신문 등의 대중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언어를 학습하는 방식도 다양해져서 젊은 세대들도 자연스럽게 이를 통해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시사보도에 나타난 어휘를 수집하며 고빈도 어휘를 품사별, 어종별로

분류함으로써 비교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시사보도에 나타난 어휘의 사용 특징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조선어 학습자에게 신문 시사보도를 활용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검토

본 논문은 중국 조문판 신문의 조선어와 한국어 심문의 대조 분석 연구에 따라 선행연구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유춘희(2002)는 '중국, 조선, 한국'의 '연변일보, 로동신문,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조선어' 어휘 사용을 계량적 연구 방법과 대비 언어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어휘 사용량과 어휘 운용 비율, 어종별, 품사별 분포와 어휘 구성, 단어 형성법등에 대해서 비교하여 언급하고 있다.

김소희(2013)는 신문의 모도문 중 정치·경제 사회 주제의 기사와 문화 주제 기사의 언어적 특징과 각 주제별 변화 양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보도문 중에서도 경성 기사와 연성가사는 장르가 구분되며, 기자의 작성 방식에 따라 역피라미드 기사와 내러티브 기사로 구분됐다. 주제별 언어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로그공산비¹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임옥규·신호철(2014)에서는 중국의 한글 신문을 중심으로 조선족 동포의 신문 읽기에 나타나는 어휘 양상을 분석했다. 중국 동북 3 성 지역의 8개 신문사의 한글신문 최신 기사를 대상으로 중국 조선어의 어휘 사용 양상을 조사하여 추출한 어휘, 표현을 대상으로 한국어 어휘, 표현과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는지, 한국어 어휘, 표현 의미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분석하여 유형화했다.

이선홍(2016)은 신문기사 내용에서 나타난 어휘와 문장들을 추출하여 한국어 어휘, 표현 및 의미와 어떻게 다른지, 한국어의 문장과의 표현 방식이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상으로 보다시피 1992 년 한·중 수교 이후부터 한국에서 중국 조선어에 관한 연구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신문보도에 나타난 어휘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은 편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과 한국 신문보도에 나타난 어휘를 대상으로 어휘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겠다.

1.3. 연구대상 및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은 중국 조문판<연변일보>과 한국의<조선일보>이다. 자료 수집은 중국 조문판<연변일보>에서 2018년 10월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 19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식에 습근평의 연설문에 나타난 어휘와 한국<조선일보>에서 2018년 10월중에 중국 제19차 당대표대회 보도문에 관한 어휘를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선정한 이유는 신문은 당시 화제가 되었던 사건에 대해 문자로 기록된 대중매체로서

¹ Log-likelihood ratio, G2

그 영향력이 매우 크며, 문장표현이 일정하게 규정화되어 있는 형식의 글이라는 점에서 조선어 신문 시사보도에 어휘 사용 특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공산당 제 19 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식 상황에 관한 보도 내용을 구체적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번 대회가 시사보도로써 관심이 가장 높으며 영향력이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이다. 추출한 어휘를 대상으로 한국어 어휘의 표현 방식이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는지, 한국어 어휘, 표현 및 그 의미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장에서 더 자세한 신문에 나타난 시사보도 어휘 특징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밝혔고 기존연구성과를 검토하고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선어 어휘 사용 특징에 관한 선행연구 자료를 검토한다. 다음 보도문에서 나타난 어휘를 빈도수와 품사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는 오피스 프로그램에 입력된 텍스트에 대해 형태소 분석을 진행하려고 한다. 분석된 어휘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빈도수 순위에 따라 배열하여 상위 50 개 고빈도 어휘를 추출했다. 빈도별로 뽑은 어휘들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의 품사에 따라 나누어 정리하며 한자어, 고유어, 혼종어인 어종별로 나누어 정리한 후에 구체적으로 어휘의 사용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 신문에 중국공산당 제 19 차 전국대표대회에 대한 보도에 나타난 어휘의 사용 특징을 비교해 본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2. 중국과 한국신문에 나타난 어휘 특징 분석

본장에서는 <연변일보>와 <조선일보>에 중국공산당 제19 차 전국대표대회에 관한 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추출된 어휘를 빈도수 순위에 따라 각자 상위 50 개 고빈도 어휘를 뽑으며 품사별로 나누어 특징을 밝히는데 주력하는 한편, 비교하여 이 신문의 어휘 사용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주력하였다.

신문에 사용된 어휘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타난 빈도수 순위로 각자 상위 50 개만 뽑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다음 <표1>는 중국<연변일보>에 나타난 고빈도 어휘이다.

<표1>:

순위	어휘	형태소	빈도수
1	하다	하다/VV	141
2	우리	우리/NP	68

3	중국특색	중국/NNP+ 특색/NNG	63
4	위대하다	위대하다/VA	53
5	인민	인민/NNG	50
6	당	당/NNG	48
7	전면적	전면/NNG+ 적/XSN	46
8	반드시	반드시/MAG	43
9	대하다	대하다/NNP	42
10	더욱	더욱/MAG	41
11	새롭다	새롭다/VA	39
12	견지하다	견지하다/VV	34
13	나라	나라/NNG	30
14	끊임없이	끊임없이/MAG	29
15	것	것/NNB	26
16	중화민족	중화/NNG+ 민족/NNG	26
17	발전	발전/NNG	24
18	수	수/NNB	24
19	중대하다	중대하다/VA	24
20	및	및/MAJ	22
21	그러므로	그러므로/MAJ	19
22	되다	되다/VV	19
23	등	등/NNB	19
24	실현하다	실현하다/VV	19
25	국가	국가/NNG	18
26	데	데/NNB	17
27	모든	모든/MM	17
28	추진하다	추진하다/VV	17
29	그	그/MM	16
30	더	더/MAG	15

31	부흥	부흥/NNG	15
32	새시대	새시대/NNG	15
33	가장	가장/MAG	14
34	아름답다	아름답다/VA	14
35	전략적	전략/NNG+ 적/XSN	14
36	단호히	단호히/MAG	13
37	의하다	의하다/VV	13
38	있다	있다/VX	13
39	기본적	기본/NNG+ 적/XSN	12
40	깊이	깊이/MAG	12
41	력사적	력사적/NF	12
42	보다	보다/MAG	12
43	초요사회	초요사회/NF	12
44	개혁	개혁/NNG	11
45	뚜렷이	뚜렷이/MAG	11
46	주인공적	주인공/NNG+ 적/XSN	11
47	총체적	총체/NNG+ 적/XSN	11
48	강화하다	강화하다/VV	11
49	사회주의	사회주의/NNG	11
50	세계	세계/NNG	11

위의 표를 보면 <연변일보>에서 뽑은 고빈도 어휘를 품사별로 나누어 점유율이 모두 명사.동사.형용사.부사.관형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통계를 통해,명사는 총 25 개,고빈도 어휘의 50 퍼센트를 차지하고 동사는 총 9 개,고빈도 어휘의 18 퍼센트를 차지하며 형용사는 총 4 개,고빈도 어휘의 8 퍼센트를 차지하고 부사는 총 10 개, 고빈도 어휘의 20 퍼센트를 차지하며 관형사는 총 1 개,고빈도 어휘의 2 퍼센트를 차지한다.

다음 <표2>는 한국<조선일보>에 나타난 고빈도 어휘이다.

<표2>

순위	어휘	형태소	빈도수
1	중국	중국/NNP	26
2	주식	주식/NNG	20
3	당	당/NNG	18
4	시진핑	시진핑/NF	13
5	대하다	대하다/VV	10
6	등	등/NNB	10
7	것	것/NNB	9
8	공산당	공산당/NNG	9
9	있다	있/VX+ 다/EF	9
10	핵실험	핵/NNG+ 실험/NNG	9
11	때	때/NNG	7
12	하다	하다/VV	7
13	말하다	말하다/VV	6
14	베이징	베이징/NNP	6
15	새	새/MM	6
16	영도	영도/NNP	6
17	나오다	나오다/VV	5
18	두다	두다/VV	5
19	상무위원	상무/NNG+ 위원/NNG	5
20	수	수/NNB	5
21	장쩌민	장쩌민/NNP	5
22	정치국	정치국/NNG	5
23	또	또/MAJ	4
24	북한	북한/NNP	4
25	사드	사드/NNP	4
26	아니다	아니다/VCN	4
27	외교	외교/NNG	4
28	위하다	위하다/VV	4

29	이후	이후/NNG	4
30	정상회의	정상/NNG+ 회의/NNG	4
31	집권	집권/NNG	4
32	통하다	통하다/VV	4
33	특색	특색/NNG	4
34	하지만	하지만/MAJ	4
35	개막일	개막일/NNG	3
36	공보	공보/NNG	3
37	교수	교수/NNG	3
38	국유기업	국유/NNG+ 기업/NNG	3
39	그	그/MM	3
40	당장	당장/MAG	3
41	대사	대사/NNG	3
42	대회	대회/NNG	3
43	더	더/MAG	3
44	동맹	동맹/NNG	3
45	만들다	만들다/VV	3
46	모두	모두/MAG	3
47	밝히다	밝히다/VV	3
48	보다	보다/NNG	3
49	사회주의	사회주의/NNG	3
50	서기	서기/NNG	3

위의표를 보면 <조선일보>에서 뽑은 고빈도 어휘를 품사별로 나누어 점유율이 모두 명사.동사.형용사.부사.관형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통계를 통해,명사는 총 35개,고빈도 어휘의 70 퍼센트를 차지하고 동사는 총 10 개,고빈도 어휘의 20 퍼센트를 차지하며 형용사는 총 2 개,고빈도 어휘의 4 퍼센트를 차지하고 부사는 총 15 개,고빈도 어휘의 10 퍼센트를 차지하며 관형사는 총 1 개,고빈도 어휘의 2 퍼센트를 차지한다.

다음에는 고빈도 어휘를 품사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2.1명사

명사의 경우는 <연변일보>에 나타난 고빈도 어휘의 26퍼센트를 차지하고 <조선일보>에 나타난 고빈도 어휘에 56퍼센트를 차지한다.명사는 모든 신문 어휘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품사이고,간결한 문장 안에 주제를 명료하게 독자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신문의 어휘에서 나타나는 일반화된 특성으로 시사보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연변일보>와<조선일보>의 고빈도 어휘 중 명사인 어휘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표3>:

연변일보	빈도수	조선일보	빈도수	조선일보	빈도수
중국특색	63	중국	26	외교	4
인민	50	주석	20	이후	4
당	48	당	18	정상회의	4
나라	30	시진핑	13	집권	4
것	26	등	10	특색	4
중화민족	26	것	10	개막일	3
발전	24	공산당	9	공보	3
국가	18	핵실험	9	교수	3
부흥	15	베이징	6	국유기업	3
새시대	15	영도	6	대사	3
개혁	11	상무위원	5	대회	3
사회주의	11	장쩌민	5	동맹	3
세계	11	정치국	5	사회주의	3
		사드	4	시기	3

<표3>를 보면,<연변일보> 50개 고빈도 어휘에서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명사인 어휘는 중국특색,인민,당,나라,것,중화민족,발전,등과 같이 총 13개가 있다. <조선일보> 50개 고빈도 어휘에서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명사인 어휘는 중국,주석,당,시진핑,것,공산당,핵실험,베이징,영도,등과 같이 총 26개가 있다.

또한 <연변일보>에서는 일반명사(NNG)가 18개, 고유명사 (NNP)가 2 개, 대명사(NP)가 1 개, 의존명사(NNB)가 4개로 차지하고 있고,<조선일보>에서는 일반명사(NNG)가 26개, 고유명사 (NNP)가 6 개, 의존명사(NNB)가 3 개로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고유명사 소속인 인명과 지명의 사용 특징을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신

문에서 뽑은 대표적인 인명과 지명을 예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연변일보>:지명: 중국(中国) 베이징 (北京)

정치 고유명사: 중국특색 사회주의

<조선일보>:인명: 시진핑(習近平), 장쩌민 (江泽民)

지명: 중국(中国) 베이징 (北京) 북한 (朝鮮)

위의 어휘를 보면 신문은 모두 인명과 지명 표기 원칙을 따라 어휘를 표기한다. 즉 '인명, 지명, 국명은 원음에 따르고 습관을 존중함을 원칙으로 한다.

(1)인명 표기의 특징

<습근핑>은 조선어 표기로서 한자식 독음이다. 한국어에서는 <시진핑> 으로 표기한다.

(2)지명 표기의 특징

<중국><베이징>은 한자어 음독에 따라 표기하였다. <북경>은 조선어에서 한자음의 음독에 따라 표기하며 한국어에서 <베이징>으로 표기돼 원음의 발음에 따라 표기한다.<조선>은 중국어 표기로서 한자식 독음이다. 한국어에서는 <북한> 으로 표기한다.

2.2.동사

동사는 신문에서 나타난 모두 명사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품사이다.동사의 경우 <연변일보>에 나타난 고빈도 어휘 중18퍼센트를 기록하고 <조선일보>에 나타난 고빈도 어휘 중20퍼센트를 기록하고 있다.

<연변일보>와<조선일보>의 고빈도 어휘 중 동사인 어휘가 다음과 같다.

<표4>:

연변일보	빈도수	조선일보	빈도수
하다	141	대하다	10
대하다	42	하다	7
견지하다	34	말하다	6
되다	18	나오다	5
실현하다	19	두다	5
추진하다	17	위하다	4

의하다	13	통하다	4
보다	12	만들다	3
강화하다	11	밝히다	3
		보다	3

신문 상위 50 개 고빈도 어휘에서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동사인 어휘는 하다(VV), 대하다(VV)이다.

2.3.형용사

형용사의 경우 <연변일보>고빈도 어휘 중8퍼센트를 기록하고,<조선일보>고빈도 어휘 중4퍼센트를 기록하고 있다.<연변일보>와<조선일보>의 고빈도 어휘 중 형용사인 어휘가 다음과 같다.

<표5>:

연변일보	빈도수	연변일보	빈도수
위대하다	53	있다	9
중대하다	24	아니다	4
아름답다	14		
있다	13		

신문 상위 50 개 고빈도 어휘에서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형용사인 어휘가 없다.

위의 내용을 통해 중국<연변일보>는 중국공산당 제 19 차 전국대표대회에 관한 시사 보도에서 사용된 어휘는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초요사회 전면 실현의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새로운 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승리를 전취하며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분투하자" 라는 주제와 매우 맞는 특징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조선일보>는 중국공산당 제 19 차 전국대표대회에 관한 시사보도에서 사용된 어휘는 신문 보도의 객관성과 실시성을 지닌 객관적인 특성을 볼 수 있다.

2.4.부사

부사의 경우 <연변일보>고빈도 어휘 중20퍼센트를 기록하고,<조선일보>고빈도 어휘 중10퍼센트를 기록하고 있다.<연변일보>와<조선일보>의 고빈도 어휘 중 부사인 어휘가 다음과 같다.

<표6>:

연변일보	빈도수	조선일보	빈도수
반드시	43	또	4
더욱	41	하지만	4
끊임없이	29	당장	3
그러므로	19	더	3
단호히	13	모두	3
기본적	12		
력사적	12		
뚜렷이	11		
주인공적	11		
총체적	11		

위의 표를 보면 부사인 수식어를 시사보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2.5.관형사

관형사 품사 고빈도 어휘의 경우 <연변일보>와<조선일보>의 고빈도 상위 50 중에 하나만 관형사를 나타나는 것을 보인다.

<연변일보>와<조선일보>의 고빈도 어휘 중 관형사인 어휘가 다음과 같다.

<표7>:

연변일보	빈도수	조선일보	빈도수
모든	17	새	5

위의 표를 보면 신문의 시사보도에서 관형사의 사용빈도가 많지 않은 특징을 볼 수 있다.

3.중국과 한국 신문 어휘의 특징에세 반영된 의미 대비

본장에서는 정치·문화·사회 기사의 경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국<연변일보>와 한국<조선일보>에 나타난 어휘의 정치·문화·사회 의미를 비교하여 추출된 핵심어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한다. 우선 고빈도 어휘를 정리하여 얻은 어휘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8>:

품사별 품사별 신문 신문	연변일보	조선일보
명사	우리,중국특색,인민,당,나라, 것,수,등,데,중화민족,발전,국 가,부흥,데,새시대,초요사회,개 혁,사회주의,시계	중국,주석,당,시진핑,것,공산당, 핵실험,베이징,영도,상무위원, 장쩌민,정치국,북한,외교,이후, 정상회의,집권,특색,개막일,공 보,교수,국유기업,대사,대회,동 맹,사회주의,시기
동사	하다,대하다,견지하다,되다,실 현하다,추진하다,의하다,보다 강화하다	대하다,하다,말하다,나오다,두 다,위하다,통하다,만들다,밝히 다,보다
형용사	위대하다,있다,중대하다,아름 답다	있다,아니다
부사	반드시,더욱,끊임없이,가장,그 러므로,단호히,기본적,력사적, 깊이,뚜렷이,주인공적,총체적	또,하지만,당장,더,모두
관형사	모든	새

<표8>를 보며,주로 중국 조문판 신문에서 나타난 중국 조선어 어휘 사용 양상을 살펴 보고 아울러 조선어와 한국어의 어휘 특징을 볼수 있다.통계를 통해,<연변일보>에 명사는 고빈도 어휘의 50퍼센트를 차지하고 동사는 총 9개,고빈도 어휘의 18퍼센트를 차지 하며 형용사는 총 4개,고빈도 어휘의 8퍼센트를 차지하고 부사는 총 10개,고빈도 어휘의 20퍼센트를 차지하며 관형사는 총 1개,고빈도 어휘의 2퍼센트를 차지한다.<연변일보>에 명사는 총 35개,고빈도 어휘의 70퍼센트를 차지하고 동사는 총 10개,고빈도 어휘의 20 퍼센트를 차지하며 형용사는 총 2개,고빈도 어휘의 4퍼센트를 차지하고 부사는 총15개, 고빈도 어휘의 10퍼센트를 차지하며 관형사는 총 1개,고빈도 어휘의 2퍼센트를 차지한 다.

위를 보면,명사는 모든 신문 어휘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품사이고 관형사는 모든 신문 어휘중에서 비중이 가장 작은 품사라는 것이다.본장에서는 주로 중국과 한국 신문보도의 명사.동사.형용사.부사 그리고 관형사의 사용특징 분석을 통해 신문에 반영된 정치·문화·사회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3.1.중국 신문 어휘 특징에서 반영된 긍정성

중국<연결일보>에 나타난 보도는 대부분은 긍정적인 명사.동사.형용사 와부사등 어휘로 구성되어 있다.중국 신문에 나타난 문장도 대부분 형용사와 부사어, 명사.수사와 어미 결합하고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 문장에서는 관형와 부사어로 쓰인다.관형어로 쓰이는 문장은 대부분은 형용사와..접미사로 구성되고 “위대한,승고한,새로운”등과 같다, 또한 명사와 어미”의”연결하고 구성된다.”불멸의, 승리의 그리고 부흥의” 등이 바로 그것이다.부사어로 쓰이는 대부분은 부사로 구성된다. “가장.깊이.영원히” 바로 그것이다.또한 일부분은 형용사와 어미”게”연결하고 구성된다.”힘있게,세차게 뜨겁게”등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면:전당 동지들은 반드시 영원히 인민과 한마음이 되어 호흡을 같이하고 운명을 같이 하며 인민이 지향하는 아름다운 생활을 영원한 분투목표로 삼고 영원히 지칠 줄 모르는 정신상태와 두려움 모르는 분투자세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웅위로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 밖에 추상 명사등 어휘도 나타난다.이 명사들은 정신과 의지를 표시한다.”부흥, 존엄” 등이 바로 그것이다.우리나라의 국가 사상과 관련된 보도문에'중화민족,중국특색,사회주의'등 몇몇 사회 집단 명사들이 있다.일부 사회단체와 관련된 “인민.민족.당”등 명사도 있다.전문 명사들은 '중국,베이징,제19차 당대표대회'등을 예로 들었다.또'조국, 개혁,개방'등이 그것이다.

예를 들면,지난 5 년간 우리가 이룩한 성과는 달증양이 강력하게 령도한 결과이며 더우기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공동으로 분투한 결과입니다. 저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전국 여러 민족 인민과 여러 민주당파, 각 인민단체, 각계 애국인사, 항항특별행정구 동포, 오문특별행정구 동포와 대만동포 및 광범한 교포 그리고 중국의 현대화 건설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여러 나라의 벗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연변일보>에 고빈도 어휘에 정치영역에 나타난 어휘가 많다.”중국특색.당.사회주의”등이 꼽혔다.경제 전문 용어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공유제”등이 쏟아져 나왔다.또 일부 지역도 포함된 국가의 명칭 및 고유 명사 “중국,베이징”등 지명과 “시진핑”등 이름이 쏟아져 나왔다.

예를 들면,중국특색의 사회주의가 새시대에 들어선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발전력사와 중화민족의 발전력사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세계 사회주의의 발전력사와 인류사회의 발전력사에서도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전당은 신념을 확고히 다지고 분발노력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가 더욱 강한 생명력을 과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사.관형사등 부사어 어휘가 비교적 적지만 대체로 긍정적 감정 색채 의미를 지니고

있다.부사 어휘는 "반드시,더욱,끊임없이"등 있고 관형사 어휘는 “모든”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그러므로 반드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하며 국정관리체계와 국정관리능력의 현대화를 끊임없이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위대하다,있다,중대하다,아름답다”등 긍정적인 형용사 어휘도 포함되어 있다.

3.2.한국 신문 어휘 특징에서 반영된 객관성

한국<조선일보>에 나타난 보도는 대부분은 신모보도의 객관성특징을 표현하는 명사.동사.형용사 와부사등 어휘로 구성되어 있다.객관성과 정확성은 한국신문 언어의 생명이라 한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의 전달이 신문 언어의 기능이라면 신문 언어는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매개체이기 때문이다.한국신문에 나타나는 문장의 대부분은 짧은 구절을 포함한 복합문이고 짧은구절은 또 많은 어휘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19차 공산당 대회에서 국간 간에는 동반자로서 새로운 교류의 길을 가야한다고 밝혀 향후 북핵 문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밖에 신문보도에 많은 명사 어휘도 나타난다.이 명사들은 실시과 상황을 표시한다.”정치국.개막일” 등이 바로 그것이다.한국의 정치과 관련된 보도문에'북한.외교'등 몇몇 정치 명사들이 있다.일부 국가단체와 관련된 “핵실험”등 명사도 있다.전문 명사들은 '중국, 베이징,북한'등을 예로 들었다.또한'주석, 시진핑'등이 그것이다.

예를 들면,중국 베이징 린민대의 북한 전문가인 청샤오허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브릭스 정상회의 개막일에 핵실험을 단행한 타이밍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보다 급진적인 행동을 취 할 준비가 됐는지 여부를 이번 핵실험이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에 고빈도 어휘에 정치영역에 나타난 어휘도 많다.”중국특색.공산당.사회주의”등이 꼽혔다.경도 일부 지역도 포함된 국가의 명칭 및 고유 명사 “중국,베이징”등 지명과 “시진핑”등 이름 등이 쏟아져 나왔다.<연변일보>에 나타난 고빈도 어휘와 유사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중국 베이징 린민대의 북한 전문가인 청샤오허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브릭스 정상회의 개막일에 핵실험을 단행한 타이밍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보다 급진적인 행동을 취 할 준비가 됐는지 여부를 이번 핵실험이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사,형용사,부사등 부사어 어휘가 비교적 적어서 대체로 특별한 감정 색채가 없으며, 일반적인 서술 의미를 지니고 있다.동사 어휘는 "밝히다,말하다,위하다,보다"등 있고 서술 의미를 지닌 형용사 어휘는 “있다,아니다”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 말고는 “또,하지만,당장,더,모두”등 서설성 부사도 있다

예를 들면,시 주석은 이 발언을 하면서 “국가 간에는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협상하며 냉전 사유와 강권 정치를 단호히 버리고 대항이 아닌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협상을 통해 의견차이를 해소하는 원칙을 견지해야한다”고 밝혔다.

4.결론

본 논문은 중국과 한국 신문의 대표적인 <연변일보>.<조선일보>에서 2017 년 10 월 18 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 19 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식 상황에 관한 시사보도에 나타난 어휘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언어학적 특징을 밝히는 논문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 1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의미를 밝히고 기존연구성과를 검토하여 연구의 방법을 정했다. 그리고 조선어 어휘 사용 특징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조선어 어휘 사용 특징에 관한 선행연구 자료를 검토하였다. 기존연구성과를 검토하는 것에 기초하여 조선어 어휘 사용 특징에 대한 논문들을 많이 참고하여 선행연구자들의 이론성과를 종합해서 제 자신의 이론주장과 의견을 창조적으로 밝히고 조선어 신문 시사보도에 나타난 어휘 사용 특징에 대해 더 깊게 진일보로 연구하였다.

제 2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선정한 내용에서 추출된 어휘를 빈도수 순위에 따라 각자 상위 50 개 고빈도 어휘를 뽑으며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의 품사에 따라 나누어 정리한 후에 구체적으로 어휘의 사용 특징을 분석했다.

제 3 장에서는 중국<연변인보>와 한국<조선일보>에 중국공산당 제 19 차 전국대표대회에 대한 보도에 나타난 어휘의 사용 특징을 비교해 본 결과를 정리하였다.정리를 통해 중국<연변일보>는 중국공산당 제 19 차 전국대표대회에 시진핑의 연설문에 사용된 내용에 중국인민의 정신과 의지를 표시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어휘 특징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조선일보>는 중국공산당 제 19 차 전국대표대회에 관한 시사보도에서 사용된 내용에 신문 보도의 객관성과 실시성을 지닌 객관적인 특성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신문의 조사기간이 짧으며 범위가좁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데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조선어 신문의 시사보도에 나타난 어휘와 표현의 사용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향을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논문]

- [1]김소희,<신문 기사의 주제에 따른 언어적 특징과 변화>,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3.12
- [2]이선흥,<중국 조문판 신문의 조선어와 한국어의 대조 분석 연구>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6.2
- [3]최영자,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조선어판 신문과 잡지에 나타난 어휘를 중심으로.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2
- [4]金春姬, 朝鲜文报纸词汇使用现状分析及改善方案研究—以朝鲜文四大报纸为中心, 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4.3

[간행물]

- [5]“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한 보고”, <연변일보>, 2017.10
- [6]“중국 19차 당대회 개막”,<조선일보>,2017.10
- [7]毕玉德·赵岩, <基于新闻语料库的朝韩词汇对比研究>, 现代语言学研究, 2016.3, P37-39

[저서]

- [8]임옥규·신호철,<중국 조선족 신문 읽기에 나타나는 어휘 양상 분석>,2014
- [9]崔允甲, 朝鲜语在中国、朝鲜、韩国使用上的差异之研究, 延边人民出版社, 1994
- [10]崔相哲, 中国朝鲜族新闻出版研究, 香港亚洲出版社, 2007
- [11]金祥元. 现代朝鲜语研究. 延边大学出版社, 2005
- [12]张兴权. 接触语言学与朝鲜语(韩国语) 语言学研究, 北京民族出版社, 2013

[사전]

- [13]汉韩时事用语词典编译组, 汉韩时事用语词典, 北京外文出版社, 2000
- [14]朝鲜社会科学院语言科学研究所, 现代朝鲜语词典,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3

한·중 화장품 광고언어의 수사법 특성 연구

여채워

논문요약: 소비자들에게 화장품의 내용을 전달하고 구매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화장품 광고언어는 표현 형식이 아주 다양하다. 특히 화장품 광고 언어에서 보여지는 수사법은 그 특징에 있어서 광고하려는 상품의 기능이나 효과를 부각시켜 소비를 자극하며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한·중 양국 10 여 년간의 화장품 광고에 나타난 언어 표현을 대상으로 하여 수사학 측면에서 대비 분석하면서 양국 화장품 광고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할 것이다.

키워드: 화장품 광고, 수사법, 한·중 대비

본 논문은 한·중 양국의 화장품 광고언어에 사용된 수사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과 중국 화장품 광고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대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광고는 마치 상품과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다리인 것 같다. 성공적인 광고는 사람들에게 시각 및 청각 등 감각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간단하지만 잊히지 않는 인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런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해서는 수사학의 관점에서 상품의 언어적인 특징을 광고에 적절하게 융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사학이란 언어 수단을 이용하여 사상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언어의 표현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법칙을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분과이다¹. 즉 다시 말하면, 수사학은 언어의 표현적 효과를 연구하는 것이다.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한·중 화장품 광고의 주제, 내용, 형식은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화장품 광고는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수사법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화장품 광고에 나타난 수사법 특성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오래 전부터 학자들은 화장품 광고언어에 대해 많은 학문적인 연구를 하였다. 지금까지 중국어 학계에서의 화장품 광고에 대한 연구는 한국보다 다양하며 주로 수사학 및 광고학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화장품 광고언어에 대한 대비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 중에서 수사학 각도에서 연구한 학자들의 기존의 연구된 상황을 살펴보겠다.

이옥분(2010)의 <한·중 광고언어 비교 분석>에서는 수사기법을 소리에 따른 수사법, 의미에 따른 수사법, 형식에 따른 수사법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한·중 두 나라에서 수사법

¹ 김기종(2005), <현대조선어수사학>,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p1.

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언어학 각도에서 그 원인을 찾아봤다. 왕봉정(2011)의 <한·중 화장품 TV 광고언어의 수사법 비교 연구>에서는 소리에 따른 수사법, 구조변화에 따른 수사법, 의미에 따른 수사법 그리고 기타 수사법 네 부분으로 분류하여 한·중 TV에 나온 화장품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江雪飞(2015)의 <韩中广告语言修辞的对比研究>에서는 어휘문체론적 수사법, 문장문체론적 수사법, 그리고 기타 수사법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한·중 광고에 담긴 언어 사용의 법칙과 특성을 제시하였다.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 화장품 광고의 수사법 표현에 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어 있다. 본문에서도 주로 한·중 양국의 화장품 광고를 대상으로 하여 두 나라의 화장품 광고언어 표현에 나타난 수사법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한·중 인터넷 사이트²를 통해 최근 10여 년간의 화장품 광고 자료를 중심으로 각 60편을 수집하였다.

2. 광고언어의 특징과 수사법

2.1 광고언어의 특징

광고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상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목표를 추구한다. 상품의 특성, 가격의 합리성, 사용 후의 효과성 등 다양한 부분들이 광고언어에 반영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현대 광고언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광고언어는 개성화된 언어를 사용한다. 광고언어가 개성을 가지면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지속적으로 기억될 수 있다. 광고언어는 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광고언어는 간결해야 한다. 문구를 최소한으로 줄여 소비자들은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고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게 만들 수 있다. 간결한 광고는 복잡한 광고보다 더 성공적인 효과를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광고언어는 중점에 대해 강조함을 추구한다. 강조는 일종의 의지이기 때문에 중요하거나 의미가 있는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될 수 있다. 광고언어는 소비자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상품 정보를 빠르게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동시에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도 만든다.

이상 광고언어의 특징을 통해 광고언어는 광고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본다. 즉 다시 말하면 광고는 제작부터 홍보까지 광고언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광고는 언어의 구체적인 수식을 통해 도움을 받아 광고홍보의 목적에 도달한다. 광고언어의 우열에 따라 광고가 표현하는 효과도 달라진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아 제품을 받아들이게 하고 구매를 촉진시키는 것이 광고의 핵심부분이 된다. 만약 광고언어가 제품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소비자들은 광고에 관심을 가지기가 매우 어렵다. 때문에 광고언어는 광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

2.2 광고언어와 수사학의 관련양상

² 한국 화장품 광고는 <http://www.tvcf.co.kr> 과 <http://www.naver.com>를 참조함.
중국 화장품 광고는 <http://www.baidu.com>과 <http://www.aiqiyi.com>를 참조함.

정보 시대에 있어 광고는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주요 수단으로서 생활속의 일부분이 되어 있다. 이 중에서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 광고언어는 광고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다. 광고언어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동시에 제품, 그리고 제품의 브랜드까지 홍보할 수 있다. 좋은 광고언어는 수사학을 떠날 수 없다. 수사학은 수사법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수사법은 언어나 문구 효과를 강화하는 예술 기법이다. 인간은 언어의 형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수사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된다. 사람들은 수사를 통해 언어를 수식하며 시선을 끌어 모으고 문구에 대한 인상과 서정적 효과를 높인다. 이에 따라 수사는 광고를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광고언어의 수사는 광고주가 제품 및 제품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광고에 대한 창의성도 중요한 현실 가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화장품 광고언어를 연구하려면 수사학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언어학에서의 수사학에 대한 정의는 학계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중 언어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이나 중국의 조선족 언어학자들의 수사법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다. 문희선(2001:17)은 ‘수사학이란 언어를 매개로 사상이나 감정을 주고받는 사람, 즉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 읽는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의 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말 또는 글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또는 그 방법을 가르치는 학문이다’라고 한다. 김옥동(2003:20)은 ‘수사학이란 말을 잘하는 재주, 곧 말로써 남을 설득시키는 기술을 뜻한다. 남을 설득시킬 때 비로소 화자는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김기종(2005:137)은 ‘수사법이란 언어의 표현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언어실천 가운데서 형성된 수사방식이다’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언어의 통신적 기능보다도 표현적 기능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언어의 표현적 기능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충해 준다는 견해는 일치하다.

중국의 언어학자들이 수사법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张弓(1963)은 ‘수사란 효과적으로 취지를 표현하고 사상을 교류하기 위해 언어를 현실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민족언어의 각 요소를 이용하여 언어를 미화하는 것³⁾’이라고 한다. 王希杰(1996)에서는 ‘수사는 언어의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각종 규칙의 총이거나 집합이다⁴⁾’라고 말한다. 吴礼权(2004)에서는 ‘수사란 표현자(글쓴이)가 특정한 교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제와 관련된 상황을 접하고 언어를 조정하여 가능한 한 좋은 표현 효과를 얻는 일종의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언어 활동이다⁵⁾’라고 말한다.

이상 한·중 수사법의 개념에 대해 다시 정리하면 수사법은 언어의 사용 과정에서 각종 언어 수단을 이용하여 표현 효과를 인상시키는 일종의 언어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³ 修辞是为了有效地表达意旨, 交流思想而适应现实语境, 利用民族语言各因素以美化语言。

⁴ 修辞是努力提高语言的表达效果的种种规则的总, 或叫提高语言的表达效果的规则的集合。

⁵ 所谓“修辞”, 就是表达者(说写者)为了达到特定的交际目标而应合题旨情境, 对语言进行调配以期收到尽可能好的表达效果的一种有意识的、积极的语言活动。

한·중 양국의 수사법에 대한 분류는 학자마다 다르다. 한국의 수사법은 크게 비유법과 강조법으로 이분된다⁶. 비유법에서는 직유법, 은유법, 대유법, 의인법, 풍유법, 의성/의태법 등이 있고 강조법에서는 과장법, 대조법, 반복법, 반어법, 점층법, 열거법, 영탄법 등이 있다.

김옥동(2003:차례)에서는 수사법을 소리에 따른 수사법, 의미 전이에 따른 수사법, 문장 구조에 따른 수사법, 감정에 호소하는 수사법, 그리고 상호텍스트적 수사법 다섯 부분으로 나눈다.

김기종(2005:137)에서 수사법은 이루어지는 수단에 따라 어음론적 수사법, 어휘론적 수사법, 그리고 문장론적 수사법 세 갈래로 나뉜다.

한편, 중국의 수사법에 대한 분류도 학자마다 다르다. 陈望道(1930)에서는 수사법을 材料上的辞格(문장에 따른 수사법), 意境上的辞格(언어 환경에 따른 수사법), 词语上的辞格(어휘에 따른 수사법), 그리고 章句上的辞格(구절에 따른 수사법) 네 부분으로 분류된다. 张弓(1963)에서 수사법의 분류는 ‘(比喻)비유, (拟人)의인, (夸张)과장, (代替)대체; (对照)대조, (对偶)대구, (反复)반복, (层递)층접, (倒装)도장, (错综)교칠배열; (同语)동어, (反语)반어, (问语)문어, (引语)인어, (讽刺)풍자, (双关)쌍관’ 등이 있다. 陈汝东(2000)은 수사법을 형식적 수사법과 의미적 수사법으로 이분된다. 형식적 수사법은 주로 음성 문자 및 문법구조 등으로 구성되었고 의미적 수사법은 표현하려고 하는 의미를 형상화하는 것이다.

위에서 한·중 수사법에 대한 여러 분류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학자마다 수사법의 분류에 대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김기종(2005)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3. 한·중 화장품 광고언어의 수사법 대비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장에서는 수사법을 어음론적 수사법, 어휘론적 수사법, 그리고 문장론적 수사법으로 나누고 연구를 진행하겠다.

3.1 어음론적 수사법

화장품 광고는 주로 음성이나 동영상을 통해 상품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광고언어는 시각적이고 생동감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광고주는 흔히 어음론적 수사법을 사용하여 화장품 광고를 만든다. 어음론적 수사법이란 말소리를 이용하여 만든 수사법⁷인 것인데 주로 각운법, 동음이의법 등이 있다.

1) 각운법

각운법은 각 구절에서 마지막 음절이나 소리를 서로 일치시키는 수사법을 말한다⁸. 한국어에서 구절의 끝에 오는 운을 ‘각운(韵脚)’이라 하는데 중국어에서는 ‘운모(韵母)’라고 한다. 각운법은 화장품 광고언어를 더 리듬감이 있게 만들고 소비자들도 화장품 광고를

⁶ 김현(1994), <수사학>, 문학과지정사, p2.

⁷ 김기종(2005), <현대조선어수사학>,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p138.

⁸ 왕봉정(2011), <한·중 화장품 TV광고언어의 수사법 비교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읽을 때 쉽게 발음할 수 있다.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가. 뽀샵빨? 잉크빨? <페리페라>

나. 순하면서도 강력하게, 햇살보다 눈부시게. <오휘>

다. 살짜 가려주고 활짜 살려주고 마몽드. <마몽드>

(2)가. 勇敢晒(shai), 放肆白(bai). <丁家宜>

나. 7分差(yang), 3分妆(zhuang). <韩束>

다. 卸到零(ling), 美更灵(ling). <芭妮兰>

한국 화장품 광고의 경우, (1가)의 ‘빨’은 의존명사로서 ‘일이 되어 가는 형편과 모양’의 뜻을 가진다. 이 화장품 광고에서는 ‘빨’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포토샵의 기능을 잉크 튜브, 즉 이 상품의 효능과 비교하여 상품이 더 낫다는 것을 강조한다. (1나)는 ‘게’가 반복된 광고이다. ‘게’는 형용사의 뒤에 붙어 부사를 형성하는 것인데 화장품 광고 안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많이 사용한다. (1다)도 마찬가지로 ‘짜’와 ‘주고’가 반복되면서 화장품 광고를 더 리듬감이 있게 만들고 소비자들이 쉽게, 재미있게 광고를 읽도록 한다. 한편, 중국 화장품 광고도 한국과 같이 각운법을 사용한다. (2)의 예를 보면 구절의 끝에 각각 ‘ai, ang, ing’이 반복되는 것이다.

위의 예를 통해 한·중 양국은 모두 각운법을 사용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압운(押韵)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다. 沈德潜의 《说诗啐语》에서 ‘诗中韵脚，如大厦之有柱石。此处不牢，倾折立见.’라고 하는 것처럼 중국인은 음운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각운법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 중국 화장품 광고는 한국 화장품 광고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동음이의법

동음이의어는 글자의 음은 같으나 뜻이 다른 낱말인데 동음이의 현상은 일종의 객관적인 존재이며 매우 흥미로운 언어 현상이다. 화장품 광고언어에서 동음이의어를 사용하게 되면 쌍관(双关) 구실이 형성할 뿐만 아니라 문구도 정연하고 음률도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3) 이 세상에 그는 많아야 한다, 공유하고 싶은 남자. <오휘>

(4)가. 摆平细纹 我有年轻小心 “肌”。<梦妆>

나. 秋季烦 “燥” 不难破，吹弹可破吃出来。<相宜本草>

다. “眼” 技飙升敢发光。<兰蔻>

라. 花漾 “膜” 法，全新上市。<梦妆>

(3)의 예문을 보면 화장품 광고에서 ‘공유’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앞에 언급한 ‘쌍관’이다. ‘공유’는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함’인 뜻으로 한자의 ‘共有’와 대응되는 동시에 한국에 유명한 남자 배우의 이름이기도 하다. 즉 다시 말하면 ‘공유’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3)의 화장품 광고도 두 가지 의미가 담긴다.

(4가)를 보면 화장품 광고에서 단어 ‘小心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원래 ‘小心机’라고 해야 하는 것이 정확하다. ‘肌’와 ‘机’는 같은 발음이지만 의미는 완전 다르다. 전자는 ‘피부’를 가르키고 후자는 ‘꾀’를 가르키면서 주로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机’를 ‘肌’로 바꿔 화장품이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나)도 마찬가지로 ‘烦躁’를 ‘烦躁’로 바꿔 열을 내릴 수 있다는 것, (4다)는 ‘演技’를 ‘眼技’로 바꿔 눈 부위에 일정한 효과가 있다는 것, 마지막 (4라)는 ‘魔法’를 ‘膜法’로 바꿔 화장품이 ‘팩’인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위의 예문(3)와 예문(4)를 보면 중국 화장품 광고는 한국 화장품 광고보다 동음이의법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이것은 ‘쌍관어’의 사용에 대해 중국의 역사가 더 오래 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 글자를 사용하여 두 가지 이상의 뜻을 나타내는 쌍관어는 중국문학의 표현기법이다. 이러한 쌍관어는 중국 문학에서 노골적으로 묘사하기 어려운 남녀관계를 표현하는 한 방식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되므로 그만큼 풍부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고도의 문학 수법으로서 오늘날의 광고언어에도 적용될 수 있다.

1. 머리말

3.2 어휘론적 수사법

어휘론적 수사법은 어휘적 단위에서 단어와 그 뜻을 이용하여 만든 수사법⁹인데 주로 비유법, 의인법, 의성의태법, 과장법 등이 있다. 어휘론적 수사법의 기능은 흔히 형상적 색채와 관련되어 있다.

1) 비유법

비유법이란 일정한 사물, 현상을 어느 한 표식의 유사성에 의하여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비교하여 표현하는 수사법을 말한다. 비유법은 흔히 비유하는 사물(A), 비교되는 사물(B), 보조적 수단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¹⁰. 예를 들어 ‘그의 눈은 하늘처럼 맑다.’에서 ‘눈’은 A이고 ‘하늘’은 B이며 ‘처럼’은 보조적 수단이다. 한국어에서는 ‘처럼, 듯, 같은’ 등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중국어에서는 ‘如, 好像, 般, 似’ 등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비유법에서도 직유, 은유, 인유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따로 제시하지 않겠다.

(5)가. 보석처럼 빛나는 입술. <라네즈>

나. 조각한 듯 살아나는 얼굴. <CLINIQUE>

다. 매일 애플한 듯 수분이 샘솟다. <마몽드>

라. 꿀찬 보습으로 여왕의 피부처럼 촉촉하게 빛나는 보습라인. <스킨푸드>

(6)가. 肌如雪, 薄如纱. <自然堂>

⁹ 김기종(2005), <현대조선어수사학>,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p152.

¹⁰ 김기종(2005), <현대조선어수사학>,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p152.

나. 给肌肤来一场钻石般亮丽。〈珂妃〉

다. 肌肤好像剥了壳的鸡蛋。〈玉兰油〉

라. 肌肤如玫瑰般粉嫩鲜活。〈兰蔻〉

(5가)에서 ‘입술’은 A이고 ‘보석’은 B이며 ‘처럼’은 보조적 수단이다. 보석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립스틱을 바른 후에 입술도 보석처럼 빛날 수 있는 것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5나)는 ‘얼굴이 조각한 것’처럼 이 화장품의 기능을 직접 드러낸 것이다.

중국의 화장품 광고도 비슷하다. (6가)를 보면 이 화장품 광고에서는 비유법을 두 번이나 사용했다. 먼저 보조적 수단 ‘如’를 사용하여 ‘피부’가 ‘눈’처럼 ‘하얗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그다음 다시 ‘如’를 사용하여 ‘피부가 얇다는 것’을 ‘실’로 비유한다. 이처럼 비유법을 이용해서 화장품이 피부를 하얗고 얇게 만드는 효과를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위의 예문(5)과 예문(6)을 통해 한·중 화장품 광고에서 사용하는 비유법의 두 가지 표현적 효과를 귀납할 수 있다. 첫째, 비유법을 적절히 사용하면 화장품의 특징과 효과를 두드러지게 할 수 있다. 둘째, 표현하려는 화장품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준다.

2) 의인법

의인법은 물건, 동식물, 현상, 추상적 개념 등에 인물의 표식을 부여하는 수사법인데 이는 반드시 사물 자체의 특징에 부합되어야 하며 인물의 심정과 환경의 기분에 부합되어야 한다¹¹.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7가). 피지잡는 수분크림은 처음이에요. 〈더페이스샵〉

나. 자연이 만든 천연 온천수. 〈버쉬〉

다. 피지잡는 복숭아. 〈스킨푸드〉

(8가). 会呼吸的保湿气垫。〈兰蔻〉

나. 肌肤喝饱水小肌密, 用对爽肤水。〈兰蔻〉

다. 肌肤爱喝的水。〈自然堂〉

라. 新鲜的力量, 肌肤满鲜复活。〈一叶子〉

(7가)는 수분크림을 인격화하여 사람의 특징을 부여하면서 피지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생동감이 있게 표현하는 화장품 광고이고 (7나)와 (7다)는 각각 자연과 복숭아 크림을 의인화하여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표현하는 화장품 광고이다. 중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8가)는 쿠션을 인격화하여 사람처럼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을 묘사함으로써 이 쿠션은 보습 효과를 가지는 동시에 다른 화장품보다 더 가볍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8나)와 (8다)는 모두 피부를 의인화하여 사람처럼 물을 마시는 것을 표현하고 (8라)는 피부가 다시 생기를 찾아온 것을 표현한다.

예문(7)과 예문(8)를 종합해 보면 한·중 화장품 광고에서 사용하는 의인법은 두 가지

¹¹ 김기중(2005), <현대조선어수사학>,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p169.

특징이 있다. 첫째, 언어에 형상성과 생동성을 부여한다. 둘째, 감정적 정서를 높이는 데 크게 작용한다.

의인법은 수사법 조성의 기초에 비유가 놓이는 바 대상이나 현상들 간의 표식의 유사성에 기초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의인법은 비유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양자는 차이점도 있다. 비유법은 한 사물을 다른 사물에 비기지만 의인법은 사물, 동식물, 현상 등을 사람으로 간주한다. 비유법은 두 가지 사물을 비기므로 두 사물 간의 계선이 명확하지만 의인법은 한 사물을 사람에 견주어 아주 융합시킨다¹².

3) 의성의태법

의성의태법이란 사물의 실태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물의 각종 특성을 그대로 모방하는 수사법¹³을 말하는데 주로 형상성의 요구와 관련되어 있다. 의성의태법의 구조 형식은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그것이 언어적 표현에서 노는 역할은 크고 중요하다.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9)가. 땀? 그게 뭐죠? 언제 어디서나 방금 샤워인 듯 뽕송뽕송하게. <에뛰드하우스>

나. 살짝 가려주고 활짝 살려주고 마몽드. <마몽드>

다. 수분의 힘으로 얇고 촉촉한 한 겹 밀착. <클리오>

(10)가. 咕嚕咕嚕, 7秒满足, 补水我用温碧泉。<温碧泉>

나. 带来嘭嘭鲜养能量, 肌肤鲜润・鲜活・鲜亮, 再现水润光采! <温碧泉>

다. 嘀嗒一下, 绘出个性唇色。<自然堂>

(9가)의 ‘뽕송뽕송하다’는 ‘보송보송하다’의 센 느낌을 준 표현으로서 ‘살결이나 얼굴이 곱고 보드랍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광고에서는 의태법을 통해 화장품을 사용한 후의 피부 상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9나)의 ‘활짝’은 원래 꽃잎 따위가 한껏 핀 모양을 가리키는데 이 광고에서는 화장품이 사람의 얼굴을 다시 예쁘게 만들 수 있고 생기를 줄 수 있는 것을 알려 준다. 그리고 (9다)의 광고에서는 ‘촉촉하다’를 사용하여 수분이 가득 찬 것을 생동감이 있게 표현하는 것이다.

중국의 화장품 광고를 보면 (10가)의 ‘咕嚕咕嚕’는 사람이 물을 마실 때 내는 소리이고 (10나)의 ‘嘭嘭’는 사물이 서로 부딪쳐 내는 소리이며 (10다)의 ‘嘀嗒’는 물방울이 떨어지거나 시계가 흔들리는 소리를 뜻한다. 예문(10)은 모두 의성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광고이다. 광고주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화장품을 사용할 때 자기의 감정이나 정서를 의성어를 통해 묘사하여 광고를 생생하게 만든다.

예문(9)과 예문(10)을 보면 의성의태어는 기본상 같거나 비슷한 어근의 반복으로 되어 있고 같은 자음이나 모음이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있는 것이 다수적이다. 따라서 한·중 화장품 광고에서 사용하는 의성의태법의 세 가지 표현적 효과를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화장품의 특징을 여실히 표현할 수 있고 글의 형상성, 생동성을 보장한다. 둘째, 감정 정서

¹² 김기중(2005), <현대조선어수사학>,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p170.

¹³ 김기중(2005), <현대조선어수사학>,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p179.

를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쓰인다. 셋째, 음악적 율동을 조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쓰인다.

4) 과장법

과장법이란 객관적 현실보다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형상적으로 표현하는 수사법을 말한다¹⁴. 즉 다시 말하면, 과장법에서 이야기되는 내용은 실지 사실보다 확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다.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1)가. 속탄력을 채우면 나이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아이오펜>

나. 물 하나로 안티에 이징하다. <이니스프리>

다. 화장이 마르지 않는다. <더샘>

(12)가. 让时光停驻, 让年龄成迷。<娇兰>

나. 细腻光采, 宛若新生。<倩碧>

다. 一扫沉积, 清透立现。<倩碧>

(11가)에서 피부를 아무리 잘 관리해서도 나이는 어릴 수 없는데 피부에 속탄력을 채울 수 있는 화장품의 효과를 과장 표현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다. 중국 화장품 광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2가)에서 시간은 멈출 수 없지만 과장적으로 시간을 정지시켜 화장품의 효과를 확대하는 것이다.

예문(11)과 예문(12)를 다시 보면 과장법은 주로 강조하거나 생동한 느낌을 주기 위해 쓰인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과장법은 표현하려는 내용을 더욱 강조하고 감정적 고조를 일으키게 한다. 陈望道¹⁵(1930)에서 과장법은 ‘주관적인 정서를 나타나고 객관적인 사실을 중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관적인 정서를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사실을 생동하고 형상적으로 느끼게 한다. 셋째, 사실을 함축성 있게 집약적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표현법은 화장품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과장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소비자들의 신뢰도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광고주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춰 화장품 광고를 만들 때 여러 방면을 걸쳐 깊이 고려해야 한다.

3.3 문장론적 수사법

문장론적 수사법은 여러 가지 문장론적 특성을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수사법¹⁶인데 주로 영탄법, 의문법, 대구법, 전치법 등이 있다.

1) 영탄법

영탄법이란 심오한 사상과 격렬한 감정을 정서적인 감탄으로 표현하는 수사법을 말한다

¹⁴ 김기중(2005), <현대조선어수사학>,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p171.

¹⁵ 陈望道(1930), 《修辞学发凡》, 复旦大学出版社, p128. ‘夸张法着重在主观情意的畅发, 不重在客观事实的纪录。’

¹⁶ 김기중(2005), <현대조선어수사학>,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p206.

다¹⁷.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화장품을 구매할 때 자신의 정서, 개성, 동기 등의 심리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광고주는 그들의 감정적 공감을 얻기 위하여 영탄법을 자주 쓰는 편이다. 적절한 표현 방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3)가. 촉촉하게 TOUCH, 수분 충전UP! <에뛰드하우스>

나. 가볍게 깊숙이! 다시 처음 피부로. <su:m>

다. 세계를 뒤흔든 소녀들! <이니스프리>

(14)가. 防晒力MAX! 这个夏季enjoy柔雾水感防晒! <兰芝>

나. 我动, 水动; 我停, 水润不停! <玉兰油>

다. 你, 值得拥有! <欧莱雅>

(13가)에서는 영어 ‘TOUCH’과 ‘UP’를 사용하면서 뒤에 마침표 ‘!’가 붙어 이 화장품이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뛰어난 기능성을 강조하고 있고 (13나)에서는 부사 뒤에 마침표 ‘!’가 붙음으로써 화장품의 강한 효과를 가지는 동시에 가벼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을 강조한다. (13다)의 광고 문구 전체가 감탄문으로서 화장품이 소녀의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한다. 중국의 화장품 광고를 보면, (14가)와 (14나)는 각각 자외선 차단, 보습 효과를 강조하고 (14다)의 광고 문구 전체가 감탄문으로서 소비자들에게 화장품의 품질을 확보하여 구매를 설득시키는 것이다.

위의 예문에서 어떤 광고는 화장품에 대한 강렬한 칭찬이고 어떤 광고는 화장품을 사용한 후의 느낌이다. 이러한 광고는 각종 언어 수단을 통해 감정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구매 욕망을 쉽게 일으킬 수 있다. 영탄법의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화장품의 특정 효과를 부각시킬 수 있다. 둘째, 광고주의 의도를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다. 셋째,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다.

2) 의문법

의문법은 의문문의 형식으로써 표현하려는 사상 감정을 보다 감정적으로 나타내고 여운을 남기는 수사법¹⁸이다.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하는 문장을 말한다. 하나의 질문으로 소비자의 주의력을 끌어들인 후에 해당된 답도 자연스럽게 화장품 광고 제품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형식은 소비자들을 자극할 수 있으며 화장품의 효능에 대해 고려하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5)가. 너 잠만 자니? 난 자는 동안 더 환해진다. 폭잠에센스로! <바닐라코>

나. 내 노트에 하이라이트는? 형광펜! 내 얼굴에 하이라이트는? 발광펜! <조성아뷰티>

다. 들어볼래? 태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자연 이야기. <더페이스샵>

(16)가. 轻薄与长效水润, 不可兼得? <倩碧>

¹⁷ 김기중(2005), <현대조선어수사학>,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p224.

¹⁸ 김기중(2005), <현대조선어수사학>,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p250.

나. 水润不持久, 无缘水光肌? <兰蔻>

다. 女人是天生的? 我说是有机的. 女人有机会更美. <韩后>

(15가)의 광고에서 먼저 ‘너 잠만 자니?’라는 질문을 제기하여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어들이고 그 후에 질문에 대해 답을 밝혀준 것이다. 이처럼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여 주의와 사고를 환기시킨 후에 스스로 해답하는 수사법을 자문자답법이라고도 한다. 의문문은 흔히 답변을 요구하지만 자문자답은 다른 사람의 해답을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답변을 주기 때문에 일종의 의문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위의 예문 (15나)와 (15다), 그리고 (16다)도 자문자답법에 속한다.

(16가)와 (16나)를 보면, 전자는 화장품이 얇고, 가볍고, 장기적으로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를 암시하고 있으며 후자는 장기적으로 수분을 공급하여 물빛처럼 빛난 피부를 만들 수 있는 효과를 암시한다.

위의 예문을 통해 화장품 광고에서 사용하는 의문법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심리적 측면에서 보면 질문은 소비자들의 주의력을 쉽게 끌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화장품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지는 것이다. 둘째, 언어적 측면에서 보면 의문문은 어려운 문법 구조와 복잡한 문장을 더욱 간단하게 변화시켜 소비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3) 대구법

대구법은 구조가 서로 같거나 비슷하고 뜻이 서로 관련되거나 비슷하거나 대립되는 두 구절을 짝을 맞춰 나란히 놓아서 서로 조응되거나 보충하는 수사법¹⁹이다.

(17가). 수분은 진해지고 미백은 깊어지다. <후>

나. 느리게 만든 만큼 피부의 대답은 빠를 거예요. <su:m>

다. 밖에서는 채워지고, 안에서는 작용하는 워터. <라네즈>

(18가). 内在力, 外在美. <相宜本草>

나. 晚安 整夜补水修护; 早安 水活肌 <兰芝>

다. 一瓶价钱, 两瓶功效, 持续滋养, 瞬间美白. <玉兰油>

한국 화장품 광고의 경우, (17가)에서 ‘수분’은 ‘미백’과, ‘진해지다’는 ‘깊어지다’와 조응되고 (17나)에서 ‘느리다’는 ‘빠르다’와 대립되고 (17다)에서 ‘밖’은 ‘안’과 대립된다. 중국 화장품 광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一瓶’과 ‘两瓶’은 조응되고 ‘内’와 ‘外’, ‘晚安’과 ‘早安’은 서로 대립된다.

예문을 보면 한·중 양국은 모두 대구법을 사용하지만 조응되거나 대립되는 방향에 대해 약간의 차이가 난다. 한국 화장품 광고는 주로 기능이나 느낌을 강조하는²⁰ 반면 중국 화장품 광고에서는 주로 시공간이나 실질 사물이 강조된다. 한·중 화장품 광고는 대조하

¹⁹ 김기중(2005), <현대조선어수사학>,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p223.

²⁰ 왕봉정(2011), <한중 화장품 TV광고언어의 수사법 비교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는 방면이 다르지만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끌어 시선을 집중시키는 데에 있어 공통점이 보인다.

위의 예문을 통해 화장품 광고에서 사용하는 대구법의 두 가지 표현적 효과를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구의 정제성을 보장하며 언어적 표현의 내적 운율을 조성할 수 있다. 이것은 대구법의 본질적 기능이다. 둘째, 사물의 내재적 연계를 제시하고 내용의 논리적 연관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며 화장품의 본질을 뚜렷이 알게 한다.

4) 전치법

전치(轉置)법은 단순히 문장 성분들의 위치를 바꾸는 수사법이다. 화장품광고에서 광고주는 언어의 표현적 효과를 얻기 위해 흔히 어순을 바꿔 광고를 인상 깊게 만든다.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피테라 에센스. <SK-II>

나. 삶이 더욱 아름다운 이유, 클라란스. <클라란스>

다. 건강은 피부로 표현됩니다, 비쉬. <비쉬>

(20)가. 薇姿・健康皮肤的源泉。<薇姿>

나. 全新的迪奥魅惑唇膏，光泽点亮色彩。<迪奥>

다. 与娇韵诗共享美丽人生。<娇韵诗>

예문 (19)와 예문(20)을 보면 한국과 중국 화장품 광고의 상표 표현 위치가 다른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보통 한국의 화장품 광고는 상표의 명칭을 문장 뒤에 두고, 중국은 상표의 명칭을 광고 용어 앞에 둔다. 이것은 양국의 언어습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어는 먼저 주체의 내용을 설명하고 뒤이어 주체의 표현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비교적 잘 사용한다. 그러나 중국어는 언어습관이 먼저 주체를 말하고 주체의 내용을 묘사한다. 또한 주체어의 앞에 긴 수식어를 쓰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인은 항상 마음이 통해야 일이 성사된다. 우리는 광고를 일종의 설득시키는 예술이라고 자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광고 안에서 어떻게 소비자를 설득하느냐가 최고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만약 한국인에게 상품의 좋은 점을 말하지 않는다면, 직접적으로 바로 상품의 명칭을 강조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한국인은 그 제품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광고주는 먼저 상품 묘사를 하여 소비자의 마음을 얻고, 후에 다시 상품의 명칭을 알리기를 희망한다. 이 점에 대해 한·중 양국의 전치법의 사용은 완전히 다르다.

지금까지 화장품 광고에 자주 사용된 수사법을 어음론적 수사법, 어휘론적 수사법, 그리고 문장론적 수사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국과 중국의 화장품 광고에서 사용하는 수사법 유형은 크게 비슷하다고 본다. 그러나 각 수사법의 사용함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인다.

첫째, 한·중 양국은 모두 각운법과 동음이의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중국은 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것은 중국인이 오래 전부터 음운의 미(美)와 조화로우에 대한 추구이고 ‘쌍관어’의 사용에 대해 중국의 역사가 더 오래 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중 양국은 모두 비유법, 의인법, 의성의태법, 과장법, 영탄법, 그리고 의문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비유법과 의인법의 사용 빈도수는 보다 높은 편이다. 셋째, 한·중 양국은 모두 대구법과 전치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양상은 다르다. 대구법의 사용에 있어, 한국 화장품 광고는 주로 기능이나 느낌을 강조하지만 중국 화장품 광고는 주로 시공간이나 실질 사물을 강조한다. 그리고 전치법의 사용에 있어, 한국 화장품 광고는 흔히 상표의 명칭을 문장 뒤에 두고 중국은 상표의 명칭을 광고 용어 앞에 둔다.

4. 결론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한·중 양국 10여 년간의 화장품 광고언어 표현을 대상으로 하여 수사학 방면에서부터 대비 분석하였다. 양국은 어떤 수사법을 사용했는지 또한 어떤 표현적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차이점이 생긴 원인을 밝혔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문에서는 화장품 광고에 자주 사용된 수사법을 어음론적 수사법, 어휘론적 수사법, 그리고 문장론적 수사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어음론적 수사법에서는 각운법, 동음이의법이 있다. 한·중 양국은 화장품 광고에 있어 모두 각운법과 동음이의법을 사용하지만 중국은 한국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 이것은 중국인이 오래 전부터 음운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쌍관어’의 사용에 대해 중국의 역사가 더 오래 된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론적 수사법에서는 비유법, 의인법, 의성의태법, 과장법이 있다. 한·중 양국은 이 수사법들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우선, 비유법을 적절히 사용하면 화장품의 특징과 효과를 두드러지게 할 수 있고 표현하려는 화장품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준다. 의인법은 언어에 형상성과 생동성을 부여하고 감정적 정서를 높이는 데 크게 작용한다. 의인법은 수사법 조성의 기초에 비유가 놓이는 바, 이 점에서 의인법은 비유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양자는 차이점도 있다. 비유법은 한 사물을 다른 사물에 비기므로 사물 간의 계선이 명확하지만 의인법은 사물, 동식물, 현상 등을 사람으로 간주하여 계선이 아주 융합시킨다. 의성의태법은 화장품의 특징을 여실히 표현할 수 있고 글의 형상성, 생동성을 보장한다. 뿐만 아니라 감정 정서를 높이는 데, 음악적 율동을 조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쓰인다. 과장법은 표현하려는 내용을 더욱 강조하고 감정적 고조를 일으키게 한다. 게다가 사실을 생동하고 형상적으로 느끼게 하면서 함축성 있게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과장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소비자들의 신뢰도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야 한다.

문장론적 수사법에서는 영탄법, 의문법, 대구법, 전치법이 있다. 한·중 양국은 이 수사법들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영탄법은 화장품의 특정 효과를 부각시킨다. 이는 광고주의 의도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다. 의문법은 소비자들의 주의력을 쉽게 끌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고 어려운 문법 구조와 복잡한 문장을 더욱 간단하게 변화시켜 소비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대구법은 문구의 정제성

을 보장하며 언어적 표현의 내적 운율을 조성할 수 있고 사물의 내재적 연계를 제시하고 내용의 논리적 연관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며 화장품의 본질을 뚜렷이 알게 한다. 그러나 대구법의 사용에 있어, 한국 화장품 광고는 주로 기능이나 느낌을 강조하지만 중국 화장품 광고는 주로 시공간이나 실질 사물을 강조한다. 전치법의 사용에 있어, 한국 화장품 광고는 흔히 상표의 명칭을 문장 뒤에 두고 중국은 상표의 명칭을 광고 용어 앞에 둔다. 이것은 양국의 언어습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한·중 양국 화장품 광고에서 나타난 수사법 특징을 볼 수 있는 동시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두 나라의 언어적 특색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1] 김옥동(2003),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 [2] 김기종(2005), <현대조선어수사학>,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 [3] 문희선(2001), <중국 광고언어에 대한 수사학적 고찰과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이옥분(2010), <한·중 광고언어 비교 분석>,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왕봉정(2011), <한중 화장품 TV광고언어의 수사법 비교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陈望道(1930), 《修辞学发凡》, 复旦大学出版社.
- [7] 张弓(1963), 《现代汉语修辞学》, 天津人民出版社.
- [8] 王希杰(1996), 《修辞学通论》, 南京大学出版社.
- [9] 陈汝东(2000), 《对外汉语修辞学》, 广西教育出版社.
- [10] 吴礼权(2004), 《现代汉语修辞学》, 复旦大学出版社.
- [11] 江雪飞(2015), 《韩中广告语言修辞的对比研究》, 延边大学硕士学位论文.

「국화꽃 향기」속 팝송 가사에 대한 간접번역 연구

허예령

초록: 사람들은 흔히 간접번역(轉譯)을 중역(重譯) 혹은 재번역(復譯)이라 여기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3자의 출현의 필연성과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고 심지어 3자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이런 불명확한 구분은 번역학의 체계성에 큰 오점을 남기고 있다. 그러므로 간접번역, 중역 및 재번역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들의 다른점을 밝혀내는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김하인 작가의 소설 ‘국화꽃 향기’속 수록된 팝송의 가사, 중국에서 번역·출판된 ‘菊花香(국화꽃 향기)’속 해당 번역 텍스트, 그리고 팝송의 원천 텍스트(영어 가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도출해 내 간접번역이 번역 텍스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한다.

키워드: 간접번역(轉譯), 중역(重譯), 재번역(復譯), 국화꽃 향기

1. 서론

2000년에 출판된 김하인 작가의 장편 소설 ‘국화꽃 향기’는 번역가 원쑤샤오(荀寿潇)에 의해 2002년 ‘남해출판공사(南海出版公司)’에서 번역, 출판 되었다. 국화꽃을 머금은 잉크로 인쇄된 ‘菊花香(국화꽃 향기)’는 주인공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와 함께 중국 독자들에게 전해졌고 많은 사랑을 받았다. 또한 ‘번역 작품은 잘 팔리지 않는다’는 기존의 틀을 깨고 당당히 베스트셀러로 등극하기도 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매 장(章) 들어가는 부분에 주인공 승우와 미주의 이야기를 담은, 그래서 그들이 함께 부르고 들었던 노래들의 가사가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총 19개의 노래 가사 중 4개는 한국 가요이고 나머지 15개는 팝송¹인데 모든 팝송은 원래 가사에 ‘충실’되게 그리고 주인공들의 이야기와 ‘조화롭’게 번역되었다. 이 15개의 팝송 가사는 중역본에서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 이는 한국어로 번역된 팝송에 대한 번역인 셈이다. 다시 말하면 영어-한국어-중국어로의 번역이 이루어진 것이다.

¹ 4개의 가요는 각각 ‘즐거운 편지’, ‘이별노래’, ‘저녁에’, ‘우리가 어느 별에서’이고 15개의 팝송은 각각 ‘봄, 여름, 겨울 그리고 가을’, ‘다야애나’, ‘당신은 나의 세계’, ‘애니의 노래’, ‘고엽’, ‘장미’, ‘바르카롤라’, ‘묘비명’, ‘사랑이 오네’, ‘여름철’, ‘에텐은 마법의 세계’, ‘회전 목마에 달린 중’, ‘시간을 병 속에’, ‘흰 비단 속의 밤’, ‘마지막 초읽기’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원천 텍스트가 아닌 번역 텍스트를 원천 텍스트로 사용하고 진행한 번역은 무엇이라 칭해야 옳바른 것일까? 어떤 이들은 중역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재번역이라 하며 또 다른 이들은 간접번역이라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3자는 모두 각자의 내용과 특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정확히 구분해내기 어려워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간접번역을 중역이라 하거나 재번역이라고 함으로써 간접번역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그릇된 관점은 3자의 발전은 물론이고 전체 번역학 발전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해 간접번역, 중역, 재번역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3자의 차이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또한 본고는 본 연구의 중심에 서있는 간접번역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간접번역이 번역 텍스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 장편소설 ‘국화꽃 향기’속 팝송의 원천 텍스트 그것의 한역본 그리고 중역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람들이 헛갈려 하는 간접번역, 중역, 재번역의 개념과 차이점을 정확히 밝혀냈다는 점에서, 간접번역의 미흡한 연구에 보탬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특정된 연구 대상을 통해 간접번역이 번역 텍스트에 대한 영향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간접번역, 중역, 그리고 재번역

2.1 간접번역, 중역, 재번역의 개념 및 차이점

본 장에서는 간접번역, 중역, 재번역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3자의 차이점을 정확히 밝혀내고자 한다. 간접번역, 중역, 재번역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은 주로 다음과 같은 그릇된 관점에서 비롯된다.

첫째, 간접번역은 곧 중역이다.

둘째, 간접번역은 곧 재번역이다.

셋째, 중역은 곧 재번역이다.

우선 ‘간접번역은 곧 중역이다’라는 관점에 대해 토론해보자. 불과 몇십여 년전까지만 해도 간접번역은 실제로 중역이라고 불려졌다. 그 대표적이 예가 바로 중국 유명한 작가이자 언어학자였던 지샨린(季羨林)이 그의 저서 「지샨린, 번역을 논하다(季羨林谈翻译)」(2007)에서 루쉰이 소련의 문학과 예술에 대한 작품의 일역본을 다시 중국어로 번역하는 방식을 중역이라 칭하고 있다. 보다싶이 여기에서의 ‘중역’은 동일한 역자가 자신의 번역문에 대한 수정이나 윤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작품의 번역문에 대한 번역을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전자를 ‘중역’이라 하던 그 당시에, 확연히 다른 개념인 후자 역시 같은 명사인 ‘중역’이라 명명하는 것은 지극히 과학적이지 않은 접근이다.

하지만 근래에 번역 이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번역 현상으로서의 간접번역, 중역, 재번역 또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도 이루어지

기 시작했다. 천언(陳言)은 자신의 논문²에서 ‘간접번역이란 원전이 아닌 번역문에 근거해 진행된 번역이다’라고 명확히 규명하고 있다. 쉰원(許先文)은 그의 논문³에서 중역을 ‘동일한 역자가 자신의 번역문에 대한 수정, 윤색 및 재번역.’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상술한 개념에서 보아낼 수 있다싶이 간접번역의 참고 텍스트는 이미 한번 심지어 그 이상의 번역을 거친 번역문인 반면 중역이 참고한 텍스트는 작품의 원전이다. 이러한 큰 차이점은 ‘간접번역은 곧 중역이다’라는 관점이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두번째 관점인 ‘간접번역은 곧 재번역이다.’에는 어떤 문제점이 존재할까? 간접번역과 재번역간의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그 논쟁은 주로 부동한 번역 방식에 대한 논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번역에 사용된 텍스트가 원전 텍스트인가 번역 텍스트가 하는 논쟁은 직접번역과 간접번역이라는 번역 방식을 생성했고 번역에 사용된 텍스트는 모두 원전 텍스트이지만 번역물이 나타난 시간이 다름에 따라 그 용어도 달라져야 한다는 논쟁은 최초번역과 재번역을 형성했다.

쉰원(許先文)은 자신의 논문⁴에서 재번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재번역이란 이미 번역이 되어있는 텍스트를 동일한 도착어로 새롭게 번역하는 것이다.’ 천언(陳言)의 간접번역에 대한 개념과 쉰원(許先文)이 재번역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생성된 근원이 다르다. 간접번역은 번역문에 사용한 텍스트에 의해 생성된 개념이고 재번역은 번역문이 나타난 시간에 따라 형성된 개념이다. 둘째, 번역문이 참고한 텍스트가 다르다. 간접번역의 참고 텍스트는 이미 한번 심지어 그 이상의 번역을 거친 번역문인 반면 재번역이 참고한 텍스트는 작품의 원전이다.

세번째 관점인 ‘중역은 곧 재번역이다.’ 역시 틀린 관점임을 중역과 재번역의 3가지 차이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첫째, 개념이 다르다. 위에서 언급했다 싶이 중역이란 동일한 역자가 자신의 번역문에 대한 수정, 윤색을 의미한다. 반면 재번역은 이미 번역이 되어있는 텍스트를 동일한 도착어로 새롭게 번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번역을 진행한 주체가 다르다. 중역의 경우 번역을 진행한 주체는 동일한 번역가이지만 재번역은 모두 다른 주체가 진행한다. 셋째, 번역 동기가 다르다. 중역과 재번역은 번역 동기면에서 매우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역은 자신의 번역문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기 때문에 그 동기가 비교적 단일하다. 중역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외부적인 요소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재번역의 번역 동기는 내부적 요소(전 번역문에 대한 불만족), 외부적 요소(이데올로기, 후원자 등), 번역시장의 맹목성 등의 영향을 받으며 중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동기가 비교적 복잡한 것으로 나타난다. 임순정⁵에 의하면 재번역은 기존 번역의 오류와 결함, 시간의 흐름에 의해 낱아버린 부분, 번역 시점의 도착어 국가의 사회상과 문화상, 도착어 국가의 독자들의 수요 및 요구의 변화, 출판문화계의 상업 논리 등 다섯가지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이 결론과 위에서 상술한 세가지 차이점을 종합해보면

² 陳言, 《20世纪中国文学翻译中的“复译”, “转译”之争》(2005), 100쪽

³ 許先文, 《话语语言学视角下的科学名著重译和复译》(2010), 183쪽

⁴ 許先文, 《话语语言学视角下的科学名著重译和复译》(2010), 183쪽

⁵ 임순정, 「문학 작품의 재번역 현상 연구: 스타달의 적과혹을 중심으로」(2010)

위에서 제기된 세번째 관점 ‘중역은 곧 재번역’ 또한 잘못된 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2 간접번역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했다 싶이 간접번역이란 원천 텍스트가 아닌 번역문에 근거해 진행한 번역을 가리킨다. 이는 ‘원천 텍스트를 직접 도착어로 번역한’의미에서의 직접번역과 대응된다.

간접번역은 시대를 초월한 오래된 번역 현상이며 중국의 경우 3번의 휘황기를 맞았다. 그 첫번째 휘황기는 바로 불전 번역이 진행된 당나라 시기이고 두번째는 과학기술 번역이 급속히 이루어지던 명나라 말, 청나라 초기이며 세번째는 서양 학문이 번역되기 시작한 아편전쟁이 끝난 시점이다.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간접번역은 5·4운동 이후 많은 언어에 능통한 번역 인재들이 등장함에 따라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룽리위(荣立宇)는 논문 「간접번역 및 그 유형(间接翻译及其类型刍议)」⁶에서 간접번역을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번째는 원천텍스트(a)-매개 텍스트(c)-도착어 텍스트(b)(a,b,c는 모두 각각 다른 언어를 의미한다.)이고 두번째는 원천텍스트(a)-매개 텍스트1(c)-매개 텍스트2(d)-도착어 텍스트(b)이며 세번째는 원천텍스트(a)-매개 텍스트1(c), 매개 텍스트2(c)...매개 텍스트n(c), 도착어 텍스트(b)이다. 네번째는 원천 텍스트(a)-매개텍스트(b)-도착어 텍스트(b)이며 다섯번째는 원천 텍스트(a)-잠재적 매개 텍스트(통역)(c)-도착어 텍스트(b)이다.

오늘날까지도 간접번역에 대한 번역가들의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들은 간접번역의 존재 필요성, 단점, 보완점 등 문제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내놓고 있다. 그중 일부 번역가들은 간접번역이 번역 텍스트에 가져다 줄 오역 등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심지어 간접번역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중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번역가인 량스치우(梁实秋)이다. 그는 1928년 발표한 문장에서 ‘역자가 간접번역을 선택하는 것은 오직 쉬운 길을 가기 위함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간접번역을 비판했다. 또한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5개 언어에 능통한 위다푸(郁达夫) 또한 ‘직접번역을 선택할 수 있다면 무조건 직접번역을 선택해야 한다. 중역(이론이 미성숙했을 당시 간접번역은 중역이라 불려졌다)은 부득이한 상황에서만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간접번역은 결코 추천할만한 번역 형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간접번역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일부 학자들과 달리 그것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학자들도 있다. 특히 간접번역의 열렬한 옹호자 루쉰(鲁迅)은 ‘만약 중역(이론이 미성숙했을 당시 간접번역은 중역이라 불려졌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영국, 미국, 일본의 문학 작품 밖에 접하지 못했을 것이고 헨리크 입센의 작품은 물론 안데르센의 동화, 세르반테스의 「돈케호테」도 만나 볼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간접번역의 출현의 필연성과 존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⁶ 荣立宇, 《间接翻译及其类型刍议》(2015) 33-34쪽

기존의 간접번역에 대한 개념과 그것의 특성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간접번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간접번역이란 원천텍스트가 아닌 그것의 번역 텍스트를 참고텍스트로 선정한 일종의 번역 방식으로 주로 도착어 국가 독자들의 수요, 출판문화계의 수요, 역자 자신의 수요 등 다양한 동기로 인해 진행된다.

3. 「국화꽃 향기」속 간접번역 사례

서론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국화꽃 향기」속에는 15개의 팝송이 수록되어있다. 본장에서는 15개 중 비교적 대표성을 띠고 있는 4개의 팝송 즉 ‘봄, 여름, 겨울, 그리고 가을(Spring, Summer, Winter And Fall)’, ‘다이나나(Diana)’, ‘당신은 나의 세계(You’re my world)’, ‘에덴은 마법의 세계(Eden is a magic world)’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사례1:

영어 텍스트: Spring, Summer, Winter And Fall - Aphrodite's Child

Spring summer winter and fall/Keep the world in time/Spinning around like a ball never to unwind/Spring summer winter and fall are in everything/I know in love we had them all Now our love is gone /This last thing is passing now /It takes me and wakes me now/Like seasons I'll change and then arrange somehow.(출처:멜론www.melon.com)

한역본: 봄, 여름, 겨울, 그리고 가을

봄, 여름, 겨울, 그리고 가을|세상이 세월 속에 흐르게 하라.|공처럼 빙빙 돌면서 결코 풀리지 않게|봄, 여름, 겨울, 그리고 가을은 만물 속에 있으니|나는 사랑 속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갖고 있다는 것을 아노라.|이제 우리의 사랑은 지나가 버렸지.|이제 이 마지막 것이 지나가고 있지.|여름이 봄으로 가듯이 그것은 이제 나를 흔들어 깨운다.|계절처럼 나는 변하고 어떻게든 새롭게 되리라.(국화꽃 향기 I 13쪽)

중역본: 春、夏、冬和秋

春、夏、冬和秋，|将世界卷入时光之流，|周而复始，无止无休。|万物皆有春、夏、冬和秋，|故我曾以为，有了爱，|我们便有了一切。|但如今，我们的爱一去不回，|但如今，仅存的也在消逝。|夏将重归于春，|我被惊醒，不再迷惘，|如同四季交替，我涅槃重生。(菊花香 6页)

사례1에서 소개된 노래는 아프로디테스 차일드(Aphrodite's Child)가 1968년 발표한 ‘봄, 여름, 겨울 그리고 가을(Spring, Summer, Winter And Fall)’이라는 곡이다. 이 노래의 가사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미주의 상황, 그걸 지켜보는 승우의 마음과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곡이며 「국화꽃 향기」에서는 가장 먼저 소개된 곡이다.

3개의 텍스트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중역본은 한역본의 ‘공처럼 빙빙 돌면서 결코 풀리지 않게’를 ‘周而复始，无休无止’로 번역하고 있다. 보다싶이, 중역본은 참고한 텍스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쓰지 않고 유사한 의미의 ‘周而复始’와 ‘无休无止’를 연속 사용함으로써 텍스트의 내용은 약화하고 그 형태와 운율을 강조하고

있다. 한역본은 ‘공처럼 빙빙 돌다’, ‘결코 풀리지 않다’ 등 모션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중역본의 ‘周而复始’, ‘无休无止’는 모션의 본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즉 형상화된 구절이 비교적 문학적인 문장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무릇 문장에는 맥락이 있는 것이 존재하고 노래가사도 이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위 구절인 ‘Spring summer winter and fall, Keep the world in time’에 대한 설명이고 확장인 ‘Spinning around like a ball never to unwind’ 을 ‘周而复始’와 ‘无休无止’로 번역하기에는 가사의 내용과 노래의 정취를 약화하고 있다.

사례1에서 이와 비슷한 경우를 또 찾아볼 수 있었다. 중역본은 한역본의 ‘그것은 이제 나를 흔들어 깨운다’를 ‘我被惊醒，不再迷惘’으로 번역하고 있다. 보다싶이 ‘不再迷惘’은 추가 번역된 부분으로서 참고한 텍스트는 물론 원천 텍스트의 ‘It takes me and wakes me now’와도 어느정도의 거리를 보이고 있다. 추가 번역은 흔히 도착어 텍스트의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도착어의 표현방식이 출발어와 현저히 다를때 사용되는 번역 방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본 사례에서는 그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적절치 않다.

이렇듯, 종종 역자는 사자성어나 4글자로 구성된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 ‘끼워맞추기식’ 번역을 감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탄생된 번역 텍스트는 독자들이 접근하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참고한 번역 텍스트와는 큰 차이가 나는 수준은 아니지만 원천 텍스트와 비교해보았을때 흔히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도착어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사례2:

영어 텍스트:

Diana - Paul Anka

I'm so young and you're so old/I don't care just what they say/Oh, please, stay by me, Diana/
Thrills I get when you hold me close / Can't you see I love you with all heart /
Oh, my darling, you're the most/Only you can take my heart/Only you can take my apart/
When you hold me in your loving arms/I can feel you giving all your charms.

한역본:

다이애나

그녀는 나보다 나이가 많지요|하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다이애나여! 내 곁에 머물러 주오.|그대가 근처에만 와도 온몸이 얼어붙어요.|이런 내 마음을 그대는 왜 몰라주 나요.|나에겐 당신밖에 없어요.|지금껏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이처럼 빼앗아 간 적이 없었어요.|오직 당신만이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요.|그대가 한번만 나를 포옹해 준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국화꽃 향기 I 44쪽)

중역본:

戴安娜

这个女孩大我几岁，|但我从来都无所谓。|戴安娜，留在我身边！|当你拥我入怀，|我知道你是我的最爱。|你为何不懂我的心？|我愿与你永不分离。|只有你，能占据我灵魂，|只有你，能撕裂我的心，|当你拥我入你爱的怀抱，|我感受到你无上之美好。(菊花香 24页)

‘1987년 여름 경포대 근처 안목 백사장에서 승우가 미주에게 불러줬다’ 라는 글귀와 함

게 소개된 이 노래는 15살의 폴 앵카(Paul Anka)가 부른 다이애나(Diana)라는 곡이다. 승우에게 있어 자신보다 몇살 많은 미주의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곡이며 승우의 지고지순한 사랑이 시작되는 소설의 내용과 복선을 이루고 있다.

사례2에서도 간접번역으로 인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는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 난 결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아요’라는 의미의 ‘I’m so young and you’re so old, I don’t care just what they say’가 ‘그녀는 나보다 나이가 많지요. 하지만 난 그런 것에 신경쓰지 않아요’로 오역되었다. 「국화꽃 향기」속 팝송 가사 번역에 대한 특징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는 주인공들의 이야기와 조화롭게 편역(編譯)된 경우일 수 있지만 ‘다이애나’ 가사에만 충실해 본다면 오역이 틀림없다. 한역본을 참고한 중역본 또한 ‘这个女孩大我几岁, 但我从来都无所谓’로 번역되고 있으며 매개 텍스트의 오역을 그대로 옮겨오고 있다.

10번째 팝송 로빈 깁(Robin Gibb)의 ‘회전 목마에 달린 종(Saved by the bells)’에서도 오역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한역본은 ‘I died for two(나는 우리 둘을 위해 죽겠습니다)’를 ‘나는 당신 때문에 죽겠습니다’로 오역하였고 중역본 또한 ‘死去是为你’로 번역되면서 오역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사례3:

영어 텍스트: Eden Is A Magic World - Oliver Toussaint

I open my eyes look around/I stand up I walk/Yes, I walk can't see the sky/But I feel, what I feel alone/I can see a flower, look around /And the sun up in the sky/All around it's full of life/ Though I feel alone my wind/Eden is a magic world, Eden is a magic world/Eden is a magic world, Eden is a magic world/And the trees are by my side/No one else seems to be there/ Though I feel happy in my wind/Eden is a magic world, Eden is a magic world/Eden is a magic world, Eden is a magic world

한역본: 에덴은 마법의 세계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고|벌떡 일어나 걷기도 해보고|걷다가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외로움을 느껴요.|도처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창공에는 태양이 금빛 찬란하고 |대지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지만|내 마음속에는 고독이 자라고 있어요.|에덴은 신비의 세계, 에덴은 마법의 세계|에덴은 비밀의 세계, 에덴은 선경의 세계.|푸른 바다가 매 두 눈 속에 가득 차고|푸른 나무들이 내 곁에 무성하지만|아무도 그곳에 없는 것 같아요.|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행복이 자라고 있어요.|에덴은 신비의 세계, 에덴은 마법의 세계|에덴은 비밀의 세계, 에덴은 선경의 세계. (국화꽃 향기Ⅱ 60쪽)

중역본: 伊甸园是个魔法世界

我睁开眼睛四下望|我站起身来走一走|我边走边看着天空|看到百花齐放|看到艳阳当空|到处生机勃勃|我却心灵孤独

伊甸园是个神奇世界|伊甸园是个魔法世界|伊甸园是个神秘世界|伊甸园是个仙境世界

藍藍的海在我眼前|綠綠的樹在我身邊|沒有一個人在那里|而我的心滿是幸福

伊甸園是個神奇世界|伊甸園是個魔法世界|伊甸園是個神秘世界|伊甸園是個仙境世界

(菊花香188頁)

사례3에서 소개된 노래는 프랑스 뮤지션 올리비아 투생(Oliver Toussaint)의 ‘에덴은 마법의 세계(Eden Is A Magic world)’라는 곡이다. 이 노래는 화자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련의 감정과 생각들을 ‘에덴’이라는 환상적인 곳에 빚대어 그곳을 노래하고 있다. 소설속에서는 주인공들이 조용히 머물렀던 시골 학교를 가리키고 있다.

이 노래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가사는 단연 4번 연속 반복되는 ‘Eden is a magic world’ 이 부분이 아닐까 싶다. 한역본은 ‘Eden is a magic world, Eden is a magic world, Eden is a magic world, Eden is a magic world.’를 ‘에덴은 신비의 세계, 에덴은 마법의 세계, 에덴은 비밀의 세계, 에덴의 선경의 세계.’라고 번역하고 있다. 보다싶이 역자는 4번 출현한 ‘magic’ 을 ‘신비’, ‘마법’, ‘비밀’, ‘선경’ 등 다양한 단어로 번역함으로써 자칫 모두 똑같은 단어로 번역돼 뻔할 수 있고, 똑같은 구절이 반복돼 지루할 수 있는 있는 부분을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고 있다. 따라서 한역본을 참고한 중역본 또한 ‘伊甸園是個神奇世界, 伊甸園是個魔法世界, 伊甸園是個神秘世界, 伊甸園是個仙境世界’로 번역되었고 한역본 역자의 지혜로움을 그대로 옮겨오게 된다.

사례4:

영어 텍스트: You're my world - Helen Reddy

You're my world, you're my every breath I take/You're my world, you're every move I make/
Other eyes see the stars up in the sky/But for me they shine within your eyes/As the trees
reach for the sun above/So my arms reach out to you for love/With your hand resting in mine/
I feel a power so divine/You're my world, you are my night and day/You're my world, you're
every prayer I pray/If our love ceases to be/That is the end of my world for me/End of my
world/End of my world for me

한역본: 당신은 나의 세계

당신은 나의 세계, 나의 숨결|당신은 나의 세계, 나의 움직임|다른 이들은 하늘 한가운데서
저 별들을 찾아내지만 |나는 당신의 눈 속에서 드 별들을 본답니다|나뭇가지가 태양을
향해 손을 펼치는 것처럼|나의 손은 사랑을 향해 펼칩니다.|당신의 손을 내 손 위에 포개
놓을 때면|신성한 힘이 솟구치지요.|당신은 나의 세계, 나의 낮과 밤.|당신은 나의 세계,
나의 기원.|우리의 사랑에 끝이 온다면|그건 나의 세계의 종말을 의미하지요.|그래서 당신
은 아, 세상의 끝이랍니다.|끝이랍니다.(국화꽃 향기 I 62쪽)

중역본: 你是我的世界

你是我的世界, 我的每一次呼吸|你是我的世界, 我的每一个举止|人们看到的星星挂在天际
 我却看到它们在你的眼睛里亮起|树枝的手臂伸向太阳|我的手伸向你, 我的爱|若你手覆于我手
 之上, |便会产生神圣的力量|你是我的世界, 我的每一个日夜|你是我的世界, 我的每一个祈祷
 若我们的爱宣告止息|我的世界便看到末日|世界末日 (菊花香 38页)

사례4는 1977년 발표된 헬렌레디(Helen Reddy)의 ‘당신은 나의 세계(You’re my world)’라는 곡이다.

한역본은 ‘You’re my world, you’re my every breath I take, You’re my world, you’re every move I make’를 ‘당신은 나의 세계, 나의 숨결, 당신은 나의 세계, 나의 움직임’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번역의 ‘충실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을 때, 원천 텍스트 중 ‘every’라는 단어가 번역 텍스트에선 생략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절 대응 부분에서도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You’re my world, you are my night and day, You’re my world, you’re every prayer I pray’이 부분이 ‘당신은 나의 세계, 나의 낮과 밤.당신은 나의 세계, 나의 기원.’으로 번역된 것이다. ‘every’가 생략된 한역본과는 달리 중역본은 원천 텍스트를 그대로 재현해 각각 ‘你是我的世界, 我的每一次呼吸, 你是我的世界, 我的每一个举止’와 ‘你是我的世界, 我的每一个日夜,你是我的世界, 我的每一个祈祷’로 번역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중역본의 참고텍스트는 한역본 뿐만 아닌 한역본과 원천 텍스트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천 텍스트와 한역본을 모두 참고한 사례를 또 찾아볼 수 있었다. 바로7번째 팝송인 ‘장미(The Rose)’에서 한역본은 ‘When the night has been too lonely and the road has been too long and you think that love is only for the lucky and the strong’ 을 ‘밤이 무척 외롭고 인생이 험하게만 느껴질 때 사랑만이 행복을 주고 힘을 준다는 것을 생각하세요’로 오역했지만 원천 텍스트와 매개 텍스트를 모두 참고한 중역본은 ‘当夜太寂寞, 而路太漫长。当你觉得爱只为幸运和强壮的人准备’로 다시 정확하게 번역되고 있다.

4. 결론

본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 헛갈려하고 있는 중역, 재번역, 간접번역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 차이점을 정확히 밝혀냈다. 동시에 본 연구의 중심에 서있는 간접번역의 역사, 유형 그리고 득과실을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나아가 간접번역이 번역 텍스트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국화꽃 향기」속 비교적 대표성을 띠는 4개의 팝송 즉 ‘봄, 여름, 겨울, 그리고 가을(Spring, Summer, Winter And Fall)’, ‘다이애나(Diana)’, ‘당신은 나의 세계(You’re my world)’, ‘에덴은 마법의 세계(Eden is a magic world)’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에 대해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첫째, ‘간접번역된 텍스트≈매개 텍스트, 간접번역된 텍스트≠원천 텍스트’. 이는 간접번

역된 텍스트가 비록 참고한 매개텍스트와는 어느정도의 등가 전환을 이루고 있지만 원천 텍스트와 비교·분석 해보았을 때 현저한 차이가 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도착어 역자가 번역문의 형태나 운율에 지나치게 무게를 둘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본고의 분석 대상의 경우, 텍스트가 물론 노래 가사이긴 하지만 이는 소설의 내용을 풍부히 하고 낭만을 더하기 위한 수단이고, 원작의 곡에 의해 불러질 염려가 없다는 점에서 굳이 원작과 같은 형태에 목을 맬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를 제외한 모든 문학 장르의 번역을 함에 있어 그 원작과 같은 운율을 보존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

둘째, ‘매개 텍스트≠원천 텍스트, 간접번역된 텍스트≠원천 텍스트’. 이는 간접번역된 텍스트가 오역된 텍스트를 그대로 옮겨씀으로써 원천 텍스트가 의도한 뜻과는 완전히 다른 문장으로 재현된 경우이다. 이 현상은 간접번역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론하고 있는 포인트이자 간접번역의 한계를 가장 많이 드러내고 있는 포인트가 되고 있다.

셋째, ‘매개 텍스트>원천 텍스트, 간접번역된 텍스트>원천 텍스트’. 이 경우는 매개 텍스트가 원천 텍스트에 대한 ‘창조적 반항(创造性叛逆)’은 번역문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주었고 이를 참고한 간접번역된 텍스트 또한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을 말한다. ‘창조적 반항’은 원전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기초에서 역자가 보여준 대담함이고 노하우이며 지혜이다. 비록 위에서는 오역이 발생함으로 인해 간접번역은 한계를 드러냈지만 텍스트에 생명력과 활력을 불어 넣어줌에 있어 분명 직접번역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기능, 의미, 효과를 생산하고 있다.

넷째, ‘매개 텍스트<원천 텍스트, 간접번역된 텍스트=원천 텍스트’. 이는 매개 텍스트는 원천 텍스트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현되지 못했지만 매개 텍스트와 원천 텍스트를 모두 참고 텍스트로 삼은 간접번역된 텍스트는 원천 텍스트와 등가의 표현으로 전환되는 경우이다. 이는 주로 역자가 능통한 매개 텍스트 언어와 능숙한 원천 텍스트 언어와 마주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한편으로 매개 텍스트의 장점을 취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원천 텍스트와 매개 텍스트 사이에서 생긴 틈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요컨대 위에서 종합한 간접번역의 득과실은 향후 간접번역을 진행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다.

<참고문헌>

- [1] 김하인, 「국화꽃 향기 1」, 생각의 나무, 2002
- [2] 김하인, 「국화꽃 향기 2」, 생각의 나무, 2002
- [3] 荀寿潇 (译), 《菊花香》, 南海出版公司, 2004
- [4] 张伯然, 许钧, 《从文学翻译到翻译文学》, 上海译文出版社, 2006
- [5] 임순정, 「문학 작품의 재번역 현상 연구: 스탕달의 적과혹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6] 余协斌, 陈静, 「我国历史上的转移及其利弊得失」, 上海科技翻译, 2004
- [7] 荣立宇, 「间接翻译及其类型刍议」, 河北科技师范学院(社会科学版), 2015
- [8] 荣立宇, 「复译浅谈」, 语言教育, 2017
- [9] 陈言, 「20 世纪中国文学翻译中的“复译”、“转译”之争」, 四川外语学院学报, 2005
- [10] 王友贵, 「中国翻译传统研究: 从转移到从原文译 (1949~1999)」, 中国翻译, 2008

샤오홍과 강경애의 중·단편소설 비교연구

-하층민 캐릭터를 중심으로

정단단

개요: 샤오홍과 강경애는 각각 중국과 한국의 30년대 문단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두 작가는 비슷한 인생경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여러 인물캐릭터 중 두 작가의 중·단편 소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층민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캐릭터 양상을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키워드: 샤오홍, 강경애, 하층민, 비교연구

<목차>

1. 서론
2. 하층민 캐릭터의 비교
 - 2.1. 체념과 순응으로 일관된 삶의 형태
 - 2.2. 고통과 시련으로 관통된 삶의 양상
3. 결론

1. 서론

1930년대의 시대상황은 한·중 양국 문학의 다양성과 중첩성을 구현하는 데에 영향을 끼쳤다. 한국에서 1930년대는 허무주의, 리얼리즘, ‘모던’담론 등이 유행하던 시기이다. 식민지의 혼잡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마르크스주의가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는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용된 대중문화가 거세게 사회 지형을 개조해 나가던 때였다. 또한 천황제 파시즘의 강압에 의해 일상의 삶이 철저히 파괴되었다. 이러한 혼란과 ‘폐허’ 위에서 문학의 꿈을 견지했던 작가들의 ‘위기의식’은 불안정함과 방황 속에서 퍼져나가 당시 문학의 다양성을 형성하였다.

한편, 1930년대의 중국사회는 분열과 내전, 서구 자본주의의 침탈로 인해 격변을 겪고 있었다. 중국사회는 굴절된 근대화의 과정 속에 벌어지는 정치혼란, 군벌의 난립, 국민당

과 공산당의 대립, 외국의 침략이 더해져 복잡한 다층적(多層的) 구도의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좌익작가연맹(左翼作家聯盟)¹을 중심으로 한 이념적 문학단체가 다수 창립되어 발전하였으며, 문학의 발전방향에 대해 상호 단체 간의 치열한 논쟁과 경쟁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다양한 작가군(作家群)과 문예지가 출현하였다.

1930년대 한·중 양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서 벌어진 여러 현상들은 도시와 농촌의 급격한 물질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지식인으로서의 작가들은 직접 사회의 변화를 경험하는 동시에,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삶에 대해 고찰한 바를 소설 작품을 통해 표출하였다. 당시의 문단은 이런 지식인 작가들 중에서 특히 남성작가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여성작가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가부장제를 비롯한 봉건제도 하에서 여성작가들은 자유로이 활동하기 어려운 시대적인 분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작가들은 꾸준히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당시의 문단에 큰 기여를 하였다. 여성작가들이 사회에 대해 가진 문제의식은 남성작가에 비해 더 세밀하고 생동감이 있었으며 인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도 더 구체적이고 다양하였다. 즉 여성작가들은 1930년대의 시대상황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 본고에서는 이런 차별성에 주목하여 여성작가의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삼기로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의 강경애와 중국의 샤오홍의 주요 작품을 택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2. 하층민 캐릭터의 비교

30년대 소설들의 주된 특징은 하층민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하층민들의 운명과 생활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서사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현상은 그와 같은 서사를 통해 자신들의 사고를 표현하고 싶은 작가들의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작가들은 사회에서 본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 자아역할 및 자신들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하층민들의 운명에 대해 깊이 사고하고 이를 글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샤오홍과 강경애 두 작가의 소설을 보면, 그들이 직접 겪거나 목격한 사회의 궁핍상과 그로 인해 빚어진 절망에 대한 묘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녀들이 쓴 소설들은 대부분 “못가진 자”가 처한 참상을 그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도 하다. 그녀들은 인간다운 삶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가난”에 주목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자들의 가난하고 비참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남달리 뜨거운 연민의 정을 표시하였다.

2.1. 체념과 순응으로 일관된 삶의 형태

¹ 좌익작가연맹은 1930년대 중국에서 설립된 무산계급을 대표하여 봉건계급, 부르주아계급, 소부르주아계급에 반대하는 연맹으로서 무산계급의 문학을 적극적으로 선전하는 조직이다.

샤오홍은 1933년 5월 21일 하얼빈 『국제협보(國際協報)』에 단편소설 「왕 씨 아줌마의 죽음(王阿嫂之死)」을 발표하면서 정식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이 소설은 중국의 농촌에 살고 있는 소작농의 삶을 묘사한 작품이다. 왕 씨 아줌마의 남편은 장 씨 지주집의 소달구지를 몰다가 실수를 저질러 지주에게 맞았고, 그로 인한 분노로 끝내 미쳐버렸다. 결국 지주는 왕씨 아줌마의 남편을 살해하였고 왕 씨 아줌마도 지주의 구타로 인한 난산끝에 죽음을 맞이한다.

소설 중에서 장 씨 지주는 임신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왕 씨 아줌마에게 폭력을 가했다. 그 다음 날 너무 배가 아파 집에서 쉬기로 한 왕 씨 아줌마는 자기를 보러 온 친구 왕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향후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

왕 씨 아줌마는 코를 풀면서 갈비뼈를 실룩거린다. 임신한 배가 보이지 않았다면 너무 마른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마리 용과 같았을 것이다. 그녀의 손은 용의 발바닥과 똑같이 생겼고, 한 평생 풀을 베고 뽑아온 그녀의 뼈관절은 기괴하리만치 굵다. 그녀의 비애는 가라앉은 전분과 비슷하게 농도가 짙으며 녹아 없어지지 않는다. 그녀는 말한다.

“동생, 나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제 밭에서 장 씨 지주가 나를 발로 찼어. 그 야수 같은 인간 때문에 정신을 잃을 뻔했어. …(중략)… 애기아빠가 지주의 손에 목숨을 잃었어. 나도 그들의 손에 죽게 되겠지. 누구도 지주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중략)… 왕 씨 친구는 말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매일매일 일이나 하면서 살다가, 죽는 거 아니겠어? 일찍 죽든 늦게 죽든 다 똑같지 않겠어?”²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지주의 억압을 받는 왕 씨 아줌마는 너무 말라서 뼈만 남았다. 그녀의 용모도 추하게 변해버렸다. 샤오홍은 그녀를 통해 당시 농촌에 살고 있는 소작농여성들의 상(像)을 그리고 있다. 그들은 생활고에 시달려서 여성의 “미(美)”를 상실했을 뿐더러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었다.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밭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 왕 씨 아줌마는 남편을 비롯하여 본인의 목숨도 지주의 손에 달려 있음을 토로한다. 그리고 지주의 손에서 탈출할 시도를 하기도 전에 포기한다. 이는 여성으로서 애초에 자신과 지주의 위치를 대립시키고 피통치자-통치자의 고정적인 관념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이런 고정적인 관념이 오랫동안 노동자들의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왕 씨 아줌마를 문병 온 친구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결국 모두 죽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죽는가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단지 죽음의 형식이 다를 뿐 그 결과는 다 똑같은 것이며,

² 蕭紅, 「王阿嫂之死」, 『蕭紅全集』, 哈爾濱出版社, 1991년, 3-4쪽.

원문: 王阿嫂拧着鼻涕, 两肋抽动, 若不是肚子突出, 她简直瘦的像一条龙。她的手也正和爪子一样, 因为拔草割草而骨节突出。她的悲哀象沉淀了的淀粉似的, 浓重并且不可分解。

她在说着自己的话: “王妹子, 你想我还能再活下去吗? 那个野兽, 踢得我简直发晕了。 …(중략)… 他爸爸的性命是丧在张地主手里, 我也非死在他们手里不可, 我想谁也逃不出地主们的手去!”

…(중략)… 王妹子又转过话头来:

“人一辈子就是这样, 都是你忙我忙, 结果谁也不是一个死吗? 早死晚死不是一样吗?”

가난한 자에게 죽음은 공포스러운 일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결과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같은 여성으로서 다른 소작농 여성들이 왕 씨 아줌마에 대해 “우리는 같은 무리이다.”³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생활의 지속을 위해 지주에게 반항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들은 왕 씨 아줌마에 대해 동정을 표하고 있으나 그 동정이 자기의 생활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걱정으로 인해 의론할 때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 “지주가 올 때 그녀들은 머리 숙여서 일을 하고, 지주가 간 후 그녀들은 다시 머리를 들었다. 바람이 지나면 누웠던 보리가 다시 서듯이, 그들은 바람 때문에 쓰러진 보리와 같았다.”⁴와 같은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같은 처지인 왕 씨 아줌마에게 공감을 표하긴 하지만 지주를 불쾌하게 만들면 자신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무리”내에서만 이 동정을 표현하고 있다.

한편으로 그녀들이 지주의 숨은 본성을 알아보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그 녀들은 지주가 왕 씨 아줌마의 남편을 죽인 사실을 모른 채, 사람을 시켜 왕 씨 아줌마의 남편을 물어주는 지주를 보면서 “역시 장 씨 나리, 자비심 있으시네. 무슨 일이든 장 씨 나리는 다 도와주시네.”⁵라고 한다. 지주가 왕 씨 아줌마의 남편을 불로 태워 죽일 때 마을 사람 중 그를 구하러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며 오히려 그가 죽은 후에 시체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흥성흥성하였다. 샤오홍은 여기서 소작농의 “군상(群像)”을 그렸다. “마을에서 왕동생(王妹子), 룡산(楞三), 주산예(竹三爺)를 비롯한 모든 고용계급이 다 이런 간단하고 변함없는 이름을 사용한다. 이게 바로 노동자계급의 천연적인 표지이다.”⁶ 그녀는 또한 “기름때가 묻은 각양각색의 옷을 입는 왕 씨 아줌마와 동일한 계급의 사람”⁷들을 보여줌으로써 연민을 표하고, 그와 동시에, 지주의 진실한 흡혈귀(吸血鬼) 면목을 드러냄으로써 지주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샤오홍은 지주에 대해 “음험하고 악독한 독수리가 날갯짓하듯이 행동한다.”라고 서술하였으며, 그 생김새에 대해서는 “눈알은 툭 튀어나오고 코가 굽었으며 보폭이 일정하고, 느릿느릿 위시하듯이 걷는다.”라고 묘사하였다.⁸

30년대 중국에서는 지주계급의 억압이 심하였으며, 소작농들은 지주에 의지하여 겨우 생존을 유지하였다. 그들은 지주를 하늘처럼 우러러 보고 있고 반항하지 않았다. 소설이 묘사하는 것처럼 진정한 생명본체-개성이 뚜렷하고 존엄이 있는 사람-가 등장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단체의 형태로만 존재하였으며, 억압을 당하는 생활방식에 익숙해져 대

³ 蕭紅, 앞의 책, 7쪽.

원문: 她是我们的同类呀!

⁴ 蕭紅, 위의 책, 7쪽.

원문: 张地主来了, 她们都低下头去工作着。张地主走开, 她们又都抬起头来; 就象被风刮倒的麦草一样, 风一过去, 草梢又都伸立起来。

⁵ 蕭紅, 위의 책, 6쪽.

원문: 总是张老爷子, 有多么慈心; 什么事情, 张老爷子都是帮忙的。

⁶ 蕭紅, 위의 책, 3쪽.

원문: 在村里, 王妹子, 楞三, 竹三爷, 这都是公共的名字。是凡佣工阶级都是这样简单而不变化的名字。这就是工人阶级一个天然的标识。

⁷ 蕭紅, 위의 책, 9쪽.

원문: 穿着种种样样擦满油泥的衣服, 这正表示和王阿嫂同一个阶级。

⁸ 蕭紅, 위의 책, 6쪽.

원문: 和一只阴毒的老鹰一样, 振动着翅膀, 眼睛突出, 鼻子向里勾曲着, 调着他那有尺寸有阶级的步调从村前走来。

대로 내려오는 전통만 변함없이 지키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인생에 대해 깊이 성찰하지 않고 인간의 생과 사를 당연한 과정으로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샤오홍은 이런 무감각한 사람의 모습을 「왕 씨 아줌마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었다. 이상 이 소설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하는 소설의 글쓰기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소설은 ‘대화적’이며 다양한 글쓰기나 목소리들을 수렴하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서로 대화하거나 텍스트 바깥의 다양한 목소리-문화, 사회 전체의 여러 담론들-와 대화한다. 가장 단순한 단계에서는 서술자의 목소리가 등장인물들의 목소리와 교차되어 나타난다. 이때 인물들의 목소리에는 그들의 계급, 지역, 직업, 젠더 등에 상응하는 다양한 표현이 부여된다.⁹ 샤오홍의 소설 속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서로 대화를 나눈다. 그들은 지주와 자신들이 다르다는 인식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주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운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단지 묵묵히 이 다름을 받아들이고 별다른 반항 없이 사는 것이다. 하나의 “집단”으로서 그들은 자기와 같은 계급의 왕 씨 아줌마에 대해 “동정하는 자”이면서 “보는 자”이기도 하다.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지주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샤오홍은 이런 각성하지 못하는 소작농의 군상을 그리면서 그녀의 계몽의식을 드러냈다. 즉 소설 속에 한명의 관찰자이자 서술자로서 그녀는 계급과 관련한 계몽적인 의식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샤오홍은 여성하층민캐릭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임과 동시에 남성하층민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그녀의 단편소설 「뒷뜰(後花園)」이 바로 그런 작품이다. 소설의 주인공 풍알청즈(馮二成子)는 지주 집 뒷뜰에 있는 방앗간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는 매일 혼자서 방앗간에서 시간을 보낸다. 풍알청즈의 생활은 고독과 빈궁으로 가득 찼다.

방앗간의 그 일꾼은 고독한 사람이다.

그에게는 하루 종일 찾아오는 친구도 없고, 그도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않는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흐릿해지고, 현재 그의 삶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나이가 서른을 넘었지만 그는 결혼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머리는 절반이 하얗게 썩고 이빨도 벌써 몇 개나 빠졌다. 딱 봐도 늙은이 같다. 날이 어두워지는 것도 비가 오는 것도 그는 인지하지 못한다. 봄여름가을겨울이 그에게는 모두 똑같은 날이다. 그는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의 이웃이 얼마 동안 그곳에 살았는지도 기억하지 못 한다.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 살았었는지는 더욱 기억하지 못한다.

그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신선한 일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모든 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는 단지 자신이 방앗간 일꾼이라는 사실, 그리고 방앗간 일꾼은 맷돌질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뿐이다. 그 이외에는 무엇도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¹⁰

⁹ 데이비드 로지 지음, 김경수·권은 옮김, 『소설의 기교』, 역락, 2010년, 209쪽.

¹⁰ 蕭紅, 「後花園」, 앞의 책, 636쪽.

원문: 可是磨房里的磨倌是寂寞的。

他整天没有朋友来访他,他也不去访别人,他记忆中的那些生活也模糊下去了,新的一样也没有。他三十多岁了,尚未结过婚,可是他的头发白了许多,牙齿也脱落了好几个,看起来象是个青年的老头。阴天下雨,他不晓得;春夏

풍알청즈는 자신만의 세계 속에 살고 있고, 단일한 노동은 그를 무감각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의 생활은 마치 방앗간에서의 당나귀와 다름이 없었다.

방앗간 안의 당나귀는 둥그런 청색 돌의 둘레를 돈다. …(중략)… 당나귀의 눈에는 눈가리개가 채워져 있다. 그래서 당나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계속 돌고 돌 뿐이다. 당나귀의 입에도 굴레가 채워져 있다. 이는 당나귀가 맷돌 위의 보리를 훔쳐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¹¹

풍알청즈는 하루하루가 변함없는 빈궁한 생활을 허무하다고 느끼지 않고 그저 자기의 삶을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이런 생활은 조상들도 똑같이 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원히 변함없는 생명의 윤회속에 마치 동물과 다름없이 먹고 싸고 잠자면서 생로병사의 자연과정을 완성해간다. 그들은 묵묵히 참기만 하면서 자기의 생명의 의의에 대해 자각적으로 사고해보지도 않고, 이 궁핍과 어려움에 반항하여 극복할 길을 구해보지 않는다.

샤오홍은 소설 「뒷뜰」에서 방앗간의 “맷돌”에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 맷돌은 침체된 역사와 유사하다. 맷돌은 한 바퀴 한 바퀴 돌며 끊임없이 순환한다. 변화가 없이 수 천년, 수 만년이 지나도 그 무거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빈궁한 생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우매와 보수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익숙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이런 “고독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는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무감각과 타락을 드러낸다. 그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풍습의 영향 하에 무지몽매하게 생존하고 번식한다. 그들은 이런 삶을 바꿀 의지를 갖기는커녕 삶의 합리성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다. 그들은 이런 빈곤한 환경 속에 나름대로 본인만의 인생철학을 형성시키고, 자신을 마취시키는 동시에 이런 생활을 즐긴다. 이러한 과정 중에 사람들은 점차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어버리게 된다. 존엄성도 없이 정제된 생활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생존은, 사람들로 하여금 외부의 환경에 굴복하게 만들고 이런 생활을 개조할 용기를 소멸시킨다. 사람이 더 이상 환경의 지배자(支配者)가 아니고 환경의 순응자(順應者)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왕 씨 아줌마의 죽음」과 비슷하게 샤오홍은 이 소설에서도 역시 하층민의 “군상”을 그렸다. 작가가 “군상”을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대신 「뒷뜰」에서 주인공 풍알청즈의 눈을 통해 군상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다.

秋冬, 在他都一样。和他同院的住些什么人, 他不去留心; 他的邻居和他住了多久, 他没有记得; 住的是什么人, 他没有记得。

他什么都忘了, 他什么都记不得, 因为他觉得没有一件事情是新鲜的。人间在他是全呆板的了。他只知道自己是磨倌, 磨倌就是拉磨, 拉磨之外的事情都与他毫无关系。

¹¹ 蕭紅, 위의 책, 636쪽.

원문: 磨房里, 一匹小驴围着一盘青白的圆石转着。 …(중략)… 小驴的眼睛是戴了眼罩的, 所以它什么也看不见, 只是绕着圈瞎走。嘴上也给戴上了笼头, 怕它偷吃磨盘上的麦子。

풍알청즈는 길에서 차를 미는 사람, 짐을 짊어지는 사람을 이상한 눈빛으로 힐끗 보았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몰라. 당신들은 한 평생 마누라랑 애들만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건 다 헛 사는 거야. 그걸 당신들만 모르고 있지.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당신들은 대체 뭘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면서도 이렇게 좋다고들 살고 있군! …(중략)… 풍알청즈가 길 위에서 본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무리들이었다. 그는 비판의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¹²

풍알청즈가 길에서 본 사람들도 역시 자기와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가 이 사람들의 생존의 목적에 대해 갖는 의문은 바로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풍알청즈는 “지주가족들이 아직 달콤한 잠을 자고 있”을 때 일어나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하루 종일 방앗간 안에 갇혀 있으면서 단순하고 힘든 일만 한다. 결국 그는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지 자기도 모른다. 단지 습관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다. 그러나 풍알청즈는 “길에서 본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비판적으로 인식할 뿐 그들과 똑같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샤오홍은 풍알청즈의 눈을 빌려서 이런 봉건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풍알청즈를 비롯하여 가난한 하층민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생명의 본체-인격과 가치존엄이 구비된 개인-라는 것이 없다. 사람들은 고유적인 전통관습과 봉건사상을 반복하여 고정시킨다. 그들의 삶에 변화와 발전이 없을뿐더러 생명력과 새로운 활기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일종의 죽음과 비슷한 고독한 생명유지상태만 보이고 있다. 샤오홍은 풍알청즈의 눈으로 농후한 비극적인 삶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비극적 삶 속의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자이며, 각성하지 못하고 단지 숨만 쉬며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다. 풍알청즈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혹을 품는다.

이 막막한 세상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인가? 누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 사람을 낳기만 하고 나아갈 길은 가르쳐주지 않은 채로 내버려두다니. …(중략)… 그는 마치 혼이 빠진 사람처럼 결국 방앗간으로 돌아갔다.¹³

풍알청즈는 짝사랑하는 조 씨 아가씨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림으로써 유일한 꿈을 잃게 되었다. 그는 탈출하고 싶었으나 갈 곳이 없었다. 풍알청즈는 내면에서 무거운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허무감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진다. 그는 허무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이 궁핍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생각의 끝에 결국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없음을 깨닫는다. 이 세상에 하층

¹² 蕭紅, 앞의 책, 647쪽.

원문: 路上他遇上一些推车的, 挑担的, 他都用了奇怪的眼光看了他们一下: 你们是什么也不知道, 你们只知道为你们的老婆孩子当一辈子牛马, 你们都白活了, 你们自己还不知道。你们要吃的吃不到嘴, 要穿的穿不上身, 你们为了什么活着, 活得那么起劲! …(중략)… 冯二成子这一路上所看到的几乎完全是这一类人。他用各种眼光批评了他们。

¹³ 蕭紅, 위의 책, 648쪽.

원문: 这样广茫茫的人间, 让他走到哪方面去呢? 是谁让人如此, 把人生下来, 并不领给他一条路子, 就不管他了。…(중략)… 他好象失了魂魄的样子, 回到了磨房。

민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 다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입고 싶은 것을 못 입고, 헛산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두 편의 소설을 보면 결국 왕 씨 아줌마는 난산으로 죽고 풍알청즈는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방앗간으로 돌아간다. 두 사람의 운명이 다 비극으로 결말을 맺는다. 하층민으로서 그들의 삶은 억압을 받고 가정은 파괴되며 좋아하는 사람과의 사랑을 실현하지 못한 채, 결국 본인도 죽거나 생활의 원점으로 돌아감으로써 더욱 비극적인 양상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이러한 궁핍은 가진 자의 부당한 착취, 나라의 현실, 그리고 봉건적인 사상과도 연결되어 드러남으로써 하층민이 제도적 모순 가운데 깊이 관여되어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로써 하층민 여성과 남성이 당면하고 있는 비극적 상황이 절실하게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불행을 당하고 있음에도 그 근본적인 원인인 봉건적인 사회 제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묵묵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당시 대부분의 하층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그들은 결국 자성하지 못하고 자신을 구원할 길을 찾을 용기가 없어서 사회의 틈새에서 억압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

2. 2. 고통과 시련으로 관통된 삶의 양상

위에서 샤오흥의 단편소설 중에 드러나는 하층민캐릭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동 시기 강경애의 작품 중에도 이런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강경애의 소설 「소금」은 간도라는 긴박한 배경 하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은 봉염 어머니가 지주에게 겁탈당하고 내쫓긴 뒤 가난 속에서 두 아이를 모두 잃는 겹쳐진 고통의 과정을 그리는 작품이다. 봉염 어머니 가족은 수많은 가난한 간도 이주민들 중의 하나이다. 당시에 조선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은 내고 남이고 모두 죽어야 그 고생을 면할 게야, 별수가 있나, 그저 죽어야 해”라고 탄식하면서 “사람의 목숨이란 끊기 쉬운 반면에 역시 끊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여 삶의 터전을 바꿔서 다시 살아보고자 한다. “그들이 바가지 몇 짝을 달고 고향서 떠날 때는 마치 끝도 없는 망망한 바다를 향하여 죽음의 길을 떠나는 듯 뭐라고 형용하여 아픈 가슴을 설명할 수 없었다.”¹⁴ 봉염 어머니 가족은 간도에서 중국인의 땅을 얻어 농사를 짓게 되었으나 불안한 환경 속에서 “아침 일어나는 길로 하늘을 향하여 오늘 무사히 보내기를 빌”곤 한다. 온 가족이 궁핍한 생활을 하며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족들을 보고 있는 봉염 어머니는 마음 속에 슬픔을 품고 있으며 특히 “하늘같이 떠받치”는 남편에게 가책을 느낀다.

끼니때가 되면 그는 남편의 얼굴부터 살피게 되고 어쩐지 맘이 송구하였다. 남편은 입 밖에 말은 내지 않으나 번번이 얼굴을 찡그리고 밥술이 차츰 느려지다가 맥없이 술을 내놓곤 하는 때가 종종 있었다. 이 모양을 바라보는 그는 입안의 밥알이 갑자기 돌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슬며시 술을 놓고 돌아앉았다. 그리고 해종일 들에서 일하다가 들어온 남편에게 등허리에 땀이 훈훈하게 나도록 훌훌 마시게 국물을 만들어놓지 못한 자기! 과연 자기를 아내라고 할 것

¹⁴ 강경애, 「소금」, 『강경애전집』, 소명출판, 1999년, 492쪽.

일까?¹⁵

봉염 아버지가 죽은 후에 봉염 어머니는 갈 데가 없어 지주 팽둥 집에 가서 도움을 청해 결국 집안일을 도와주면서 팽둥의 집에서 살기로 한다. 그러나 봉염 어머니는 팽둥에게 유린을 당해 아이를 임신한다. 봉염 어머니는 임신한 사실 알게 된 후 갖은 시도를 통해 아이를 유산시키려고 했다.

그가 뱃속에 애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유산시키려고 별 짓을 다하여 보았다. 배를 쥐어박아도 보고 일부러 각 넘어지기도 하며 벽에다 배를 탕탕 부딪쳐도 보았다. 그러고도 유산이 되지를 알아서 나중에는 양젓물을 마시려고 캄캄한 밤중에 그 몇 번이나 일어 앉았던가. 그러면서도 그 순간까지도 냉면은 먹고 싶었다. 누가 곁에다 감추고서 주지 않는 것만 같았다. 더구나 봉염이를 생각하고는 그만 양젓물 그릇을 쏟고 말았던 것이다.¹⁶

그러나 여성으로서 지닌 본능적인 모성으로 인하여 그녀는 양젓물을 마시는 것을 포기하고 봉염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이어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출산의 고통과 먹고 싶은 것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 따끈한 미역국 한 사발이면 그의 몸은 가뿐해질 것 같다. 미역국! …(중략)… 비에 젖고 또 피에 젖은 헛간 바닥에서는 흙내에 피비린내를 품은 역한 냄새가 물큰물큰 올라왔다. 어떡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먹고 살아야 저것들을 키울 터인데, 무엇을 먹나. 누가 지금 냉수라도 찰찰 끓여다가만 주어도 그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릴 것 같다. 그러나 그는 흙을 주워 먹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지 않은가. …(중략)… “내가 왜 죽어, 꼭 산다. 너희들을 위하여 꼭 산다.”

…(중략)…이제 몇 시간만 더 이 모양으로 굶었다가는 그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이러한 생각에 겁이 떨쩍 났다. ‘무엇을 좀 먹어야 할 터인데.’ …(중략)… ‘웁다! 아무거나도 좀 먹으면 정신이 들겠지.’하고 얼른 몸을 솟구어 파뿌리를 뽑았다. …(중략)… 마침내 그는 파를 입속에 넣었다. 그리고 우썹 씹었다. 그때 이가 시끄럽다(시큰하며: 인용자) 딱 맞질린다. 그래서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입을 짹 벌린 채 한참이나 벌리고 있었다. 침이 턱밑으로 흘러내릴 때에야 그는 얼른 손으로 침을 몰아넣으며 이 침이라도 목구멍으로 삼켜야 그가 살 것 같았다.¹⁷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바, 헛간에서 비를 맞으며 아이를 낳은 봉염 어머니는 먹을 것이 없어서 차가운 파를 삼키며 턱 밑으로 흐르는 침까지 삼킨다. 궁핍으로 인해, 아이를 낳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보장받지 못하는 하층민 여성의 어려움이 절실하게 표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봉염 어머니가 간절히 살고자 하는 이유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을 위해서이다. 곧 “모성애” 때문이다.

¹⁵ 강경애, 앞의 책, 495쪽.

¹⁶ 강경애, 위의 책, 508쪽.

¹⁷ 강경애, 위의 책, 514-516쪽.

「소금」에는 모성체험이나 아내로서의 역할 그리고 해산의 고통과 같은 여성만의 독특한 체험이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봉염 어머니의 고통이 더욱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봉염 어머니는 단지 “광둥집으로 달려 들어가서 모조리 칼로 찢러 죽이고 자기들도 죽고 싶은 충동”만을 느낄 뿐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는 “하느님”¹⁸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녀는 역시 본인의 운명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원인이 사회제도와 남권의 침해이라는 것에 대해 각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강경애의 「소금」은 식민지 사회 속 하층민 여성으로서의 비극적 삶을 절실하게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작품 중에는 이런 억압 속에 살고 있는 남성의 상도 등장하고 있다. 「지하촌」 중의 칠성이 바로 이런 인물이다. 칠성은 불구의 몸으로 이웃 동네에 동냥을 다녀서 살림에 보탠다. 칠성은 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릴 때 병을 앓았는데 돈만 아는 의사가 가난한 집 자식 칠성을 제대로 치료해 주지 않아 “병신”이 된 것이다. 그는 병신이기에 농사를 지을 수는 없고 동냥을 다녀 성냥, 과자 부스러기, 식은 밥 등을 얻어 식구들을 먹인다. 소설은 궁핍 그 자체에 대한 묘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현실에 대해 가장 무력하고 아무런 대응할 길이 없는 칠성의 동생 영애에 대한 묘사는 유독 비침하고 끔찍하다.

아기의 조 머리엔 종기가 지질하게 났고, 거기에는 언제나 진물이 마를 사이 없다. 그 위에 가늘고 노란 머리카락이 이기어 달라붙었고 또 파리가 안타깝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아기는 자꾸 그 가는 손가락으로 머리를 쥐어 당기고 종기 딱지를 떼어 오물오물 먹고 있다.¹⁹

어머니는 영애를 낳은 후 몸이 좋지 않아 모유도 없는 상태이다. 젖먹이인 영애는 항상 먹지 못해 울기만 한다. 너무 힘이 없어서 울 때도 단지 “입모양”만 우는 것이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애기가 너무 배가 고프니 나머지 종기 딱지까지 떼어 먹는 장면을 통해 이 가족의 궁핍한 현실은 더욱 비참하고 가혹한 것으로 보이게 된다. 「지하촌」에서는 특히 먹는 장면을 자주 묘사하고 있다. 아래는 칠성이 밥을 먹는 한 장면이다.

그는 파리를 건져 내고 밥을 푹 떠서 입에 넣었다. 밥이란 도토리뿐으로 밥알은 어찌다가 씹히곤 했다. 씹히는 그 밥알이야말로 극히 부드럽고 풀기가 있으며 그 맛이 달콤해서 기침을 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 맛은 잠깐이고 또 도토리가 미끈하게 씹혀 밥맛이 쓰디쓴 맛으로 변한다.²⁰

¹⁸ 강경애, 앞의 책, 494쪽.

아무리 마음만은 지독히 먹고 애를 써서 땅을 파나 웬일인지 자기들에게는 닥치느니 불행과 궁핍이었던 것이다. ‘팔자가 무슨 놈의 팔자야. 하느님도 무심하지. 누구는 그런 복을 주고 누구는 이런 고생을 시키고……’

¹⁹ 강경애, 「지하촌」, 위의 책, 604쪽.

²⁰ 강경애, 앞의 책, 605쪽.

제대로 씹히지도 않는 도토리 밥을 어른뿐만 아니라 애기 영애도 너무 배가 고플 나머지 먹게 된다. 그러나 “썩썩하고 게워 놓는다. 깨느르르한 침에 섞이어 나오는 도토리 쪽은 조금도 씹히지 않은 그대로였고 그 빛이 약간 붉은 기를 띤 것으로 보아 피가 묻어 나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었다.” 이처럼 고통스러워하는 동생을 보는 칠성이는 그저 가슴 속이 분하여 애기를 번쩍 들어 문밖으로 내놓았다. 이렇게 온 가족들이 지긋지긋한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칠성이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듯 그렇게 고적하고 분하였다.” 인생에 대한 아무 희망도 가지지 못한 그에게 단지 유일하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의 불구된 몸을 보지 못하는 장님 큰년이를 바라보고 묵묵히 좋아하는 것이다. 그가 동남에서 얻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숨겨두었다가 큰년이에게 주는 것이 그의 은밀한 기쁨이다. 그러나 이 유일한 기쁨조차 잃어버리게 되었다. 칠성이는 큰년이가 읍내 부잣집에 아들 낳아 줄 첩으로 팔려간다는 소문을 듣고 모아 둔 돈으로 옷감을 꿰어다주면 큰년이가 자기에게 시집오려고 하지 않을까 꿈꾼다. 마침내 옷감을 꿰어올 때 이미 큰년이는 팔려 간 뒤였다. 게다가 동생 칠운이는 눈병에 괴로워하고, 앓던 영애는 엉뚱한 민간 처방으로 상처가 더 악화되는 등 집안이 온통 아수라장이었다. 이 모든 광경을 보는 칠성이는 “묵묵히 저 하늘을 노려보고 있었”을 뿐이다.

이 소설에서 행한 궁핍에 대한 ‘지긋지긋한’ 묘사는 이 소설을 읽은 독자로 하여금 이 소설을 잊을 수 없게 하는 동시에 두 번 다시 읽고 싶지 않게 한다.²¹ 소설에서 묘사되는 칠성의 집은 빛이라고는 조금도 스며들 여지가 없는 “폐쇄되고 절망적인 공간”으로 설정되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칠성이는 현실에 대한 아주 절망적이며 무감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궁핍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샤오홍의 「뒷뜰」 중 풍알청츠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 그들은 다 이 세상에서 고립된 인간들이며 현실에 대해 단지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3. 결론

상기에서 샤오홍과 강경애의 소설 중에서 궁핍한 하층민들의 삶에 대해 살펴보았다. 1930년대 두 작가의 작품 중의 등장인물들의 삶은 그들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반봉건·반식민지 중국과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상적인 생활이었다. 실제로 많은 하층민들이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고, 돈이 없어서 질병으로 인해 죽는 등 극단적인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녀들은 그 시대에 살고 있었으며 목격한 상황을 기록한 것이었다. 그녀들의 작품을 보면 비슷한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샤오홍과 강경애 소설 속 하층민들에게 궁핍은 그들의 삶을 전면적으로 파괴할 만한 힘을 지닌 억압적 요인이다. 그리고 이러한 궁핍이 가진 자의 부당한 착취와 더 나아가 봉건사회나 식민지 현실과도 연결되어 드러남으로써 계급적이거나 가부장적인 억압이 제도적 모순 가운데 제시되는 깊이를 획득하고 있다. 이로써 하층민이 당면하고 있는

²¹ 이상경, 『강경애-문학에서의 성과 계급』, 건국대학교출판부, 1997년, 137쪽.

비극적 상황을 더욱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성으로서의 현실은 경제적인 요인 외에도 남성에 의한 또 다른차원의 압박을 받게 된다.

둘째, 하층민에게 구원의 빛은 어디서도 비치지 않는다. 주인공이 자신과 가족들의 운명에 대해 불만을 느끼기는 하나 그 원인에 대해 각성하지 못하며 단지 그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소설은 일종의 묵묵하고 무감각적이며 답답한 분위기로 둘러싸여 있다. 대책이 없는 하층민들이 결국은 죽거나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

셋째, 글쓰기의 특징이다. 두 작가의 작품에서 ‘병든 애기’, ‘죽은 애기’ 등이 많이 등장한다. 애기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저항력이 없는 상징적 존재이다. 작가는 남편을 잃은 어머니에게 병든 애기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의 가장 구석지고 그늘진 상황을 설정하였으며, 애기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현실의 참혹성을 부각시킨다. 다른 한편, 글쓰기에는 두 작가의 차이점도 존재한다. 샤오홍은 인물을 동물로 비유하는 수법을 선호하는 반면, 강경애의 작품에서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하층민이 많이 등장한다.

소설 속에는 작가들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단지 그 표현방식에 있어서 샤오홍은 군상(群像)의 묘사를 통해 일종의 계급적인 계몽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강경애는 특수한 상황의 설정을 통해 식민지 현실을 폭로하고 있다.²²

²² 강경애는 「지하촌」에서 칠성이 부잣집 개에게 물리고 비를 피해 들어간 마을 헛간에서 과거 공장노동자였던 남자와 만나는 장면을 통해 계급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남자는 칠성에게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하는 놈이 저 하늘인 줄 아우? 이 땅인 줄 아우?” “내 다리를 꺾게 한 놈두, 친구를 저런 병신으로 되게 한 놈두, 다 누구겠소? 알아들었수?”라고 물어봤다. 이상경은 이런 대목의 설정은 “소설의 전체 구성에서는 군더더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왜냐하면 이런 설정은 “아주 추상적이고 칠성이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이상경, 『강경애론』, 138-139쪽.) 작가 강경애는 이 남자의 대사를 통해 여러 가지 사회 상황들은 자본주의 그리고 식민지통치로부터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1. 강경애, 『강경애전집』, 소명출판, 1999년,
2. 김윤식, 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15년,
3. 데이비드 로지 지음, 김경수·권은 옮김, 『소설의 기교』, 역락, 2010년,
4. 이상경, 『강경애-문학에서의 성과 계급』, 건국대학교출판부, 1997년,
5. 蕭紅, 『蕭紅全集』, 哈爾濱出版社, 1991년,

논문:

6. 김연희, 「강경애 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년,
7. 김윤정, 「강경애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년,
8. 梁旭, 「「生死場」與「人間問題」的人文類型與藝術表現手法比較論」, 吉林大學 석사학위논문, 2007년,
9. 孫鶴雲, 「蕭紅與姜敬愛的小說創作比較研究-以小說「生死場」和「人間問題」爲中心」, 對外經濟貿易大學 석사학위논문, 2004년,
10. 吳香美, 「蕭紅與姜敬愛小說的女性意識研究-以小說「生死場」和「人間問題」爲主要文本」, 中央民族大學 석사학위논문, 2006년,
11. 閻紅, 「社會性, 女性, 人性-蕭紅創作三重主題研究」, 河北大學 석사학위논문, 2004년.

중·한 역사관계를 통해 본 동아시아질서의 구축

상 형

초록

19세기 이전의 동아시아세계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국가와의 사이에 책봉과 조공을 통해 종주국(宗主國)과 번속국(藩屬國)이라는 국제관계가 맺어졌다.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논한 각종 이론이 있는데 대부분 “중국중심론”이나 “중국위협론”을 내세우며 역사적 중·한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인류역사에서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는 서로를 선택하는 것과 같이 나라 간의 관계 또한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중·한 관계의 역사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다룰 수 있는데 바로 명나라때까지의 사대(事大)의 시기, 명청 교체기를 지나 청나라 세운 후의 전략적 사대(事大)시기, 개항 이후 이중적인 질서에 처해 있는 전근대시기의 소원(疏遠)시기이다. 알렉산더 벤트의 구성주의 이론에 의하면 행위자와 국제체제의 구조간의 관계가 상호구성적이라고 한다. 즉 국가들의 인식이나 국가 간 상호작용에 따라 국제관계도 달라진다. 또한 국제정치 구조는 관념적 구조이며 가변적인 구조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구조주의 이론으로 중·한 관계의 역사에 접근하여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는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또한 앞으로의 끈끈한 중·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념적으로 상호인식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할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키워드: 구성주의, 중·한 관계, 상호인식, 동아시아 국제질서

근대 이래 중국과 주변국가의 상호인식 및 역사인식 문제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거론되어 왔다. 최근에 흥해지고 있는 “주변국을 통해 중국을 바라본다”(从周边看中国)는 학술연구도 그 축에 든다. 각 역사시기에 있어서 주변국들은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및 역내 질서를 어떻게 인식했느냐가 바로 연구의 관건이다. 갈조광(葛兆光)은 중국의 역사를 세 단계로 나누었는데 “첫 단계는 ‘천하관’(天下观)과 ‘조공체제’(朝贡体制)를 바탕으로 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시대, 두번째 단계는 서양만 바라보는 “단일한 거울상”시대, 세 번째는 다면거울로 자아를 알아보는 시대다”라고 귀납하였다. 이처럼 중국과 주변국의 상호인식을 연구하는 것은 타자를 통해 자아를 알아내는 중요한 수단이자 근대 동아시아질서를 검토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일환이 되었다.

국제질서를 언급하면 베스트팔렌체계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 이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동아시아 안에 이미 상당히 안정적인 체계가 형성되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조공체제”가 바로 그것이다. 중국 본토 학자들은 주로 “화이사상”(华夷思想) 및 “천하관”(天下观)과 같은 중국 고대사상 측면에서 해석하고 페어 뱅크를 비롯한 서양 학자들은 국력 차원에서 다루었고 일본 학자 하마시타 다케시(滨下武志)의 경우 경제적 이익 면에서 고대 동아시아의 질서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점은 대부분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한 연구들이라 “대국중심주의적” 시각에 빠지기 쉽다. 국제질서는 국제관계가 맺어지면서 서로 교류하며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고대 동아시아 질서를 언급할 때 나라간에 상호작용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넘어서 구조주의라는 국제정치 패러다임은 기존 연구의 일원적인 사유를 극복하기 위해 나서기 시작했다.

알렉산더 웬트(Alexander Wendt)는 『국제정치의 사회적 이론』(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이라는 획기적인 논저에서 현실주의적 전제와 자유주의적 과정을 비판이론적 관점에서 수용하며 보다 포괄적인 구성주의 이론(constructivism)을 구축하였다. 웬트가 유물론을 인정하면서 관념, 규범,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국익, 정체성, 권력 등은 관념에 의해 구성되고 이런 관념들은 간주관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국가간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념이 비롯된다. 따라서 웬트의 이론에 따르면 국제정치의 본질은 구조에 의해 좌지우지하기보다는 과정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구성주의의 틀에서 고대 동아시아 질서를 규명하는데 중국과 주변국가와의 국제관계가 어떻게 상호작용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페어뱅크는 “동아시아”란 세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지리적으로 고산지대와 사막지대로 갈라진 아시아의 동부지대, 인종학적으로 몽골인종의 거주지대, 그리고 문화적으로 중국고대문명의 영향을 받은 지역 즉 일본, 조선 및 베트남이다.¹ 지리적인 원인으로 중국과 가장 일찍 잦은 교류를 한 동아시아국가는 바로 고대 한국이다.² 따라서 고대 중국과 한국의 관계속에서 국가 관념의 형성, 신분의 구축 및 이익의 구성은 상호작용으로 인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화이사상의 구성 및 조공체제의 확립

구성주의에 의해 제도는 행위자의 행동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인식에 따라 구성되기도 한다. 국제체제라는 구조는 행위자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행위자간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행위자의 정체성은 행위단위 간에 동일한 목적을 위해 공유되면서

¹ 费正清, 《传统与变迁》, 世界知识出版社, 2002年, p. 4.

² 본 논문은 중·한 역사관계를 다루는 과정에서 명칭 통일하기가 어려우므로 “한국”을 사용할 때 역사상의 한반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각 시대상을 다룰 때 시대별에 따라 명칭을 사용할 거시다.

집합적인 정체성이 형성된다. 하드 파워와 달리 이런 집합적 정체성은 문화적 요소로 행위단위의 정체성과 이익을 집단적으로 구성하고 행위단위 간의 협력을 현실화시킨다. 따라서 집단적 정체성은 국제질서 유지에 필수적 조건이 된 것이다.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는 갈등 해소와 질서 동요를 막기 위해 행위단위는 어떤 방식으로 문화적 공동체에 참여하여 공유 문화 기반을 마련하고 조화적 집합 정체성을 만드는지에 관심을 갖는다.³ 이런 구조-정체성 측면에서 초기의 동아시아 질서 속의 중·한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화(華)와 이(夷)는 고대 중원지역과 변방지역의 이민족을 구분 짓기 위해서 대내적으로 사용했던 말이다. 한나라때부터 흉노와의 몇 차례의 전쟁을 통해 “守中治邊”과 “守在四夷”라는 성숙한 변방 통치 정책이 이미 완비되었다. 이민족에 대한 인식은 “其地不可耕而，其民不可臣而蓄也，是以外而不內，疏而不戚，政教不及其人，正朔不加其國，來則懲而御之，去則備而守之”인데 따라서 “其慕義而貢獻，則接之以禮讓，羈縻不絕，使曲在彼，蓋聖王制御蠻夷之道也⁴”라는 식으로 주변민족과 관계를 유지해 왔다. 후에 중국 중심의 천하관념을 다른 지역으로 확장시키는 규범적 국제질서로 부각시켰다. 이런 천하관은 바로 유교문명을 기초로 한 “君君臣臣父父子子”라는 위계적 질서인데 주로 주변국들은 천자가 제공하는 유교문명을 받고 자발적으로 내화(來化)함으로써 예(禮)관념에 부자간의 상하관계와 효관념을 부가하여 대외관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⁵ 이를 규범으로 “遠人不服，則修文德以來之。既來之，則安之”⁶라는 식의 국가 간의 관계를 구축하며 사대자소(事大字小)의 예와 함께 조공과 회사(回賜), 책봉과 봉삭(奉朔)의 예로 제도화되었던 것이다. 이런 화이질서는 오랜 역사를 걸쳐 징벌이 아닌 평화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대외정책으로 부상하였다.

한국은 주나라때부터 중화문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周武王이殷을 멸망시킨 후 “封箕子于朝鮮，箕子教以禮儀田蠡，又制八條之教，其人終不相盜，無門戶之閉”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⁷ 1세기~ 7세기경의 삼국시대에는 유교경전을 선호하였고 적극적으로 중화문명을 받아들였다. 당나라시기에 신라, 백제 및 고구려는 중국으로 유학생을 대량 파견하여 당나라의 예의범절 등 문화를 습득하기도 하였다. 신라의 경우, 관제(官制)와 학제(學制)는 전반적으로 당나라를 본 따고 “衣冠同于中國”，심지어 음악도 “東方風華”가 풍기고 있다. 신라왕이 당으로 사신을 파견하여 “奏請札記並文章”했는데 唐玄宗은 신라왕에게 “衣冠知奉禮，忠信識尊儒⁸”라는 답시까지 지어 주었다.

³ 남궁곤, <동아시아 전통적 국제질서의 구성주의적 이해>, 《국제정치논총》 43(4), 2003년, pp.11-12.
재인용: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266-278.

⁴ 出自《汉书》卷94下《匈奴传》

⁵ 최연식, <조공체제의 변동과 조선시대 중화사대 관념의 굴절>, 《한국정치학회보》 41(1), 2007.3, p.103.

⁶ 出自《论语·季氏》

⁷ 《后汉书》卷151《东夷列传》

⁸ 《三國史記》第卷九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 모화(慕華)사상이 한층 더 심화되었다. 당시 일부 학자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고려 성종때의 최승지는 “華夏之制，不可不遵，然四方習俗，各隨土性，似難盡便。其禮樂詩書之教、君臣父子之道，宜法中華，以革鄙陋；其餘車馬衣服制度，可因風土，使奢儉得中，不必苟同⁹” 라고 당시 고려에서의 모화 정도는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원·명 교체 시기에 고려 국내에서 사대의 대상을 두고 논쟁을 했지만 결국 명분론적 입장에서 사대의 대상을 친원에서 친명으로 바꾸었다. 정몽주, 정도전 등 학자들은 주자학을 도통으로 간주하면서 중화문화 우월주의적 화이관을 내세웠다. 정도전은 명의 건국을 천명에 따라 죄인의 나라를 정벌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명이 문명으로 주변 야만 민족을 교화한다는 것을 찬양했다.¹⁰ 또한 공민왕의 친명 사대정책은 중화 의리를 사모한 결과라고 평가까지 했다.¹¹

이처럼 한국과 중국은 상호작용 과정에서 정체성을 공유하고 유교이념을 집합 정체성으로 구성했다. 집합정체성이 화이질서의 보편적 이념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행위단위들 간에 정신적 연결고리가 생긴 것이다. 이런 국가들간의 정체성은 내재적으로 조절되면서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며 경쟁보다는 협력과 공감대가 생기기 시작한다.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의 왕조교체 시기에 마침 중국의 원·명 교체시기이다. 신정권 간의 상호승인의 과정에서도 조선은 명을 정치적인 강대국 그 이상인 문명선진국으로 여겼다. 심지어 대중화(大中華)에 버금가는 소중화(小中華)를 건설하겠다는 의지까지 갖고 있었다.

조선 시기에 이르러서 조선은 혁명으로 정권을 바꾸었고 대외관계 및 국내에서 직면할 안보 문제와 통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성계는 명으로부터 정통성 승인과 지정학적 이익 추구 방법을 모색했다. 따라서 즉위 이후 “권지고려국사”의 명의로 표문을 보내 명에 건국의 승인을 요청했다.¹² 명의 “관할할 바가 아니며, 변방의 혼란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호적인 외교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태도에 조선은 즉시 사신을 보내 국호를 요청하여 명이 선택한 “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고려의 금인을 반납했다.¹³ 조선 건국 초에 개국공신 정도전은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의 국호를 기자 조선과 연결시키고 자국의 위상은 주변의 이(夷)와 달리 중화문명을 이어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의 승인으로 조선과 명 사이에 공식적인 조공책봉관계가 성립되었다.¹⁴ 위정자들은 조공에 대해 “소국이 대국을 섬기는데는 마땅히 조빙(朝聘)과 공헌(貢獻)의 예의를 차려야 될 것이고 조공은 신하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중국에

⁹ 최승로 시무 28조

¹⁰ 《三峯集》, 권3, 贈任鎮撫詩序

¹¹ 《三峯集》, 권정용화, 3, 上遼東諸位大人序

¹² 《太祖實錄》, 1년 8월 戊寅

¹³ 《太祖實錄》, 2년3월 甲寅

¹⁴ 《三峯集》권7, 朝鮮經國典 上, 國號

대한 조공은 문명 나라의 상징이라고 여기기도 했다. 따라서 사대는 외교적 관행이 아닌 도덕적 의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서 확대되고 있었다. 명의 사신을 영접하기 위해 모화루(慕華樓)를 건설하기까지 사대는 모화의 연장선에 서게 되었다. 태종 이후 인신무외교(人臣無外交)의 원칙을 철저히 수행하며 대외관계에 있어 세종대왕 시기부터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문화적 질서로 부상시키려고 노력했다. 조공체제속에서 일본, 여진, 류구와 이중적 상하관계를 수립하면서 “사대교린”적인 정책을 내세웠다.¹⁵ 명나라의 든든한 후원으로 조선은 정치적인 안정을 확보했고 명에 대한 숭배는 임진왜란때의 구원으로 인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동아시아질서가 평화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조공체제가 제도의 구실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함축되어 있는 유교사상이 이념적 기반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은 공유된 관념과 지식과 같은 사회적인 측면이 주관적 인식을 형성하게 한다. 핵심변인인 국가들의 관념적 정체성을 강조되고 국가들은 자신의 행동이 정체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행동한다. 문화의 공유로 중화적 사대 관념이 형성되고 조공관계가 더욱 규범화·절대화되며 관념적 정체성은 조공체제를 다시 구성하고 반대로 이런 구조에 의해 국가의 정체성과 이익이 구성되기도 한다. 즉 이런 국제체계 내에서 주체와 구조가 상호구성하면서 구조는 행위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기본 성질도 구성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에 중·한 관계는 중국의 문화적 우월성과 한국의 모화사상으로 조공관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고 경제적인 교류와 규범의 확립, 이념의 공유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화사상”이 강화되고 한국은 중국의 정치적 보호를 요구하게 되었고 속국의식이 정립되었다.

2. 사대관념의 굴절

이런 비교적 평화적인 중·한 관계에는 명나라가 멸망한 17세기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후금을 세운 여진족이 1636년 대청국을 건국하여 1644년에 명을 멸망시켰다. 여진족의 연경(燕京) 입성과 함께 청나라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새로운 주도자가 되었다. 병자호란의 패배로 조선은 어쩔 수 없이 청과 남한산성 조약을 맺었고 명과의 관계 단절을 서약했다. 그런데 기존의 군신관계를 좀처럼 단절하지 않았고 조선은 여전히 명의 연호를 사용하고 숭명(崇明)의식을 갖고 있었다. 조선 후기의 문신 송시열은 임진왜란때 명의 “재조지은(再造之恩)”을 “존주양이론(尊周攘夷論)”과 결합시켜 조선의 대외이념을 다시 정립하였다. 그는 “소국이 대국을 섬기는 것은 천리(天理)이며, 치욕을 참고 원수를 섬기는 것은 인욕(人欲)”이라고 하면서 명에 대한 사대는 도에 부합한 행위이고 청에 대한

¹⁵ 정용화, <조선의 조공체제 인식과 활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7(2), pp.9-10
재인용: 『태종실록』 8/4/2

사대는 원수를 섬기는 굴욕이라고 해석했다. 이처럼 이 시기에 명을 섬기는 존주론(尊周論)과 청에 대한 복수론 즉 북벌론(北伐論)이 병존했다. 청에 대한 북벌론은 비현실적인 논리라는 것을 인식하자 조선의 소중화의식이 대두되고 대외관념으로 내재화되기 시작했다. 송시열은 “중원 사람들은 우리 동방을 동이라고 지칭하여 그 명칭이 비록 단아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문명의 작흥(作興)”여부라고 하고, 순임금과 문왕이 각각 동이와 서이 출신인데도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화이의 구별은 지리적·혈연적이 아닌 문화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송시열의 유훈에 따라 만동묘(萬東廟) 및 대보단(大報壇)이 설립되고 조선의 소중화의식은 18세기의 지배적인 대외이념으로 부상되었다.¹⁶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대내적으로 숭명의리론(崇明義理論)을 계승한 소중화의식이 계속 주류 관념이었지만 대외적으로는 청에 대한 전략적인 사대를 유지하는 이원적 지향이 보였다. 이런 이중적인 인식은 18세기 후반 즉 연행사의 파견과 함께 바뀌기 시작했다. 청의 문물에 먼저 눈을 뜬 연행사들은 북학운동을 일으키며 화이의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홍대용은 지리적 상대주의를 내세우면서 “중국과 오랑캐는 한가지”라는 화이일체관(華夷一體觀)을 제기했고 박지원, 박제가 등은 연행 경험을 바탕으로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청나라에 대해 지리적인 중화의식이 아닌 문화적인 중화의식을 구축하였다.

조선의 대청관계는 안정적이지만 관념적으로는 청을 배격하면서 실제로 청이 구축한 동북아 질서에 편입되어 있었다. 모순속에서 조선의 조공사대가 다시 탈중화의 형태로 바뀌고 있었다. 청을 문화적으로 인식하면서 구별하려는 의식은 후에 민족적 구별의식을 자연스레 이어지게 한다.

3. 양절체제의 부상

조선 후기 실학이 등장하면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 후 경제적 부국강병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또한 서학의 유입은 전통적 화이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다. 화이관의 흔들림과 동시에 전통적 동아시아 질서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병자호란 이후 동아시아의 평화질서는 조공체제의 구조 속에서 오래 유지되었지만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 붕괴되기 시작했다. 중·한 조공관계는 청의 위력에 근거하여 유지되었던 국제질서였기 때문에 청의 위력이 존재하는 한 중화관념과 사대관념은 공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42년 청나라는 아편전쟁에서의 패배로 영국과 불평등한 남경조약을 맺었고 조선 지식인들이 바야흐로 정치적으로 친중국적 입장에서부터 서양에 대한 관심 증폭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¹⁷ 1866년의 병인양요와 1871년의 신미양요를 겪은 시기에 대원군은 인신무외교의 사대 원칙을 엄격히 수행하면서 청의 중재를 요청하였다.

¹⁶ 최연식, 앞의 논문, p.112

¹⁷ 장현근, <한국에서 대중국관념의 변화>, 아태연구18(2), 2011.8. p.113.

일시적으로 열강의 침략을 막아 내기 위해 쇄국정책을 시행했고 위정척사파의 유림과 서양 및 일본의 침략을 대처하기 위해 화이적 세계관에 입각한 내수외양론(內修外養論)을 내세웠다.¹⁸ 하지만 두차례 양요를 걸쳐 조선은 서구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지만 서세동점(西勢東漸)의 파죽지세와 구미 열강의 침략에 굴복한 중국의 행세는 조선 대외관념에 큰 영향을 미쳤다. 1870년대 이후 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일본과 서양세력이 조선의 개국을 요구하게 되자, 조선의 대외정책은 전통적인 사대교린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자 왜양일체론에서 벗어나 왜양분리론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이양선의 출몰과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정한론 등으로 사대교린관계로 엮어진 기존의 동아문명공동체가 해체 직전에 이르렀다. 조선은 1882년 사대사행을 폐지하고 조공형식에 기반한 양국간의 호시교역을 근대적 통상관계로 전환하는 등 조청간 조공관계의 재조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청은 “허락하면 조선의 사신이 열국공사와 함께 평등의 예로 상대하려 할 것이며 장차 신복하지 않게 될 것”을 우려하며 조선의 사대사행 폐지 요청에 당황했다. 따라서 청은 통상장정 체결의 기회를 이용하여 속방관계의 근대적 변용을 추진했다. 조선에 대한 지배 권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라는 내용을 전문에 삽입하여 내외에 천명했다. 박규수의 강대국에 의한 전략적인 사대정책을 이어 김윤식은 중국과의 사대관계와 미국과의 국제법관계를 “양편”이라는 이중적 국제질서로 구성했다. 당시 조미수호통상조약에 조선은 청국의 속국이라는 항목을 넣으라고 이홍장이 제의하자 김윤식은 “폐방(弊邦)은 중국에 대해서는 속국이지만 각국에 대하여는 자주라고 하는 것이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리에 맞아 실제와 이치 양쪽 모두 편리하다”고 수용하였다. 이는 조선이 중국의 속국을 인정하면서 열강의 침략 앞에 자주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 두 나라 모두 전통적으로 인정하여 왔던 종속관계를 이 시기에 이르러 굳이 명문화한 것은 조공관계의 끈끈한 구조가 이미 명존실망의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조선의 정체성은 이미 조공체제 아래 사대관념을 공유했던 행위자가 아닌 자주독립을 모색한 행위자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때 조공체제라는 구조는 전과 같이 사대의 관념이나 모화의 관념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서로 공유지식(문화)의 부재(不在)로 오로지 힘에 위주로 유지한 것이다. 이런 국제체제하에 평화를 유지하기 어렵고 협동이 이루지 못 할 것이다. 결국 청일전쟁이라는 권력현상이 조공제도의 소멸을 유발하면서 제도적 사대는 종언을 고하게 되고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완전 주권체를 지향하는 자주독립이 추구되었고, 민족주의의 부상과 함께 “사대주의”에 대한 비판도 도마에 오르기 시작했다.

결론

¹⁸ 최연식, 앞의 논문, p.118.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대한 재검토는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에 나아가 미래 동아시아가 직면할 문제를 새로운 접근법을 제기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은 중·한 관계를 3개 시기로 나누어서 두나라 관계에 구축에 있어서 중국의 이미지는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파악하는 데 중국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주변나라가 구조에 참여해서 어떤 행동을 하며 서로 상호작용 과정에서 간주관성이 어떻게 확립되는 지를 구성주의 이론으로 해석했다. 역사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구성주의 접근법은 역사적 문서 등 다양한 문서를 사용하는데 설득력이 강하다. 주체의 관습적 행태와 국제체제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를 통해 국가의 상호작용에서 각각의 행위자가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행위 기준을 가지는 지를 파악할 수 있다.

웬트의 구성주의 이론은 국가의 행동을 9 가지로 귀납했다. 1 단계의 문화적 주관화가 된 상태의 홉스적 문화로부터 시작하여 3 단계의 문화적 주관화가 된 칸트적 문화까지가 있다. 1 단계의 문화적 주관화는 행위자가 규범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힘에 의해 강제적으로 따르는 경우이고 이때 사회적으로 공유된 지식이 형성된 문화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의미와 힘의 강요로 행동한다. 행위자에게 주어진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이와 달리 2 단계의 문화적 주관화에 이르면 행위자가 선택의 여지가 생기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면 문화적 규범을 따르게 된다. 하지만 이득이 되지 못할 경우 행위자는 즉시 행동을 바꾼다. 마지막 3 단계에서는 행위자는 규범이나 규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따르며 이 과정에서 문화가 행위자의 정체성과 이익을 구성한다. 이 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행위자의 정체성과 이익은 문화에 의해서가 아닌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국제구조에서는 세가지 문화가 있는데 그것은 홉스적, 로크적, 칸트적 문화라고 할 수 있다. 홉스적 문화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행위자는 적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적대심은 특정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서, 모든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모두 적으로 간주한다. 홉스적 문화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발생하고, 구조에 적응하지 못하는 행위자들은 도태되며,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비동맹이나 중립을 어렵게 만들어 모든 국가들을 그 소용돌이에 말려들게 한다. 반면 로크적 문화는 더 이상 죽고 죽이는 홉스적 문화가 아니다. 자신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경쟁 문화가 로크적 문화인 것이다. 국가들은 비록 경쟁은 하지만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삶과 자류를 빼앗아 가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로크적 문화에서는 전쟁이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제한되고, 극히 소수의 국가들만 도태되며, 세력균형이 발생하고, 중립이나 비동맹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마지막 칸트적 문화에서는 상대방을 친구로 간주하는 상황이다. 이 문화에서는 국가들이 상대 국가를 자신의 이득을 위한 도구로 보지 않고, 상대의 이득과 안전이 자신의 이득과 안전이 되는 존재로 본다. 이 경우 국가들은 두 가지 규칙이 지켜질 것으로 예측한다. 첫째, 분쟁은 전쟁이나 전쟁의 위협이 없이 해결될 것이다. 둘째 제 3 세력에 의해 어떤 국가가 위협을 받는다면 모든 국가는 협동해

서 싸운다. 이와 같은 칸트적 문화에서는 국가 간의 진정한 협동이 가능하다.¹⁹

중·한 관계의 변용과정을 보면 1단계의 홉스적 문화에서 시작해서 2단계의 로크적 문화에 그쳤다. 이는 조공관계 구조에서 양국 관념의 변화로 구조가 평화적이고 협동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서세동점 이전의 동아시아는 정치적 행위자들이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구성한 국제사회였다. 그 시기의 조공체제는 단순히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인 제도적 행위가 아니라 소중화이념 등 다양한 관념적인 것이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행위자가 제도상 규정된 규칙을 통해 제도를 만들고, 제도도 다시 새로운 주체성을 갖게 되는 사회적 구성의 과정에서 기능을 한다. 제도규범은 공동체의 행위단위로 하여금 일정한 국제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구속한다. 공동체 규범은 일종의 관성을 가지며 규범이 형성된 뒤에도 공동 규범의 유지를 뒷받침하는 탄성이 있다. 그러므로 서양 근대성의 출현은 전통적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흔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인 조공체제는 그 전에 벌써 만주족의 통치라는 현실과 고대로부터 공유했던 중화주의의 뿌리 깊은 인식이 맞물려 모순이 생기기 시작했고 현실과 명분 사이에 조선 왕조는 큰 갈등을 맞이했다. 따라서 행위자의 정체성이 바뀔으로써 서양 근대성 앞에 전통 유교이념의 구속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었다. 동서양의 만남에서 행위자들은 관념과 이익의 변화로 조공체제에서 양절체제로 재구성했다. 결국 청일전쟁의 패배로 조공체제가 붕괴되고 한국은 조약체제에 편입되었다.

중·한 역사관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본 것과 같이 조공체제가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중국 일방에 의해 유지해 온 것이 아니라 양국 공동적으로 구축해 온 것이다. 웬트의 주장에 의하면 국제체제는 국가가 서로간에 가지고 있는 믿음과 기대에 결정되고, 그 믿음과 기대는 많은 부분 물질적인 것이 아닌 사회적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는 홉스적 문화화 경쟁자로 보는 로크적 문화 또는 친구로 보는 칸트적 문화는 국가 정체성과 이익에 의해 구성되고 반대로 이런 구조는 주체를 다시 구성하는 상호구성적인 체계가 이룬다. 따라서 앞으로 평화적 안정적인 중한 관계를 구축하고 협동적인 동아시아질서를 유지하려면 이념적인 구축과 평화적이고 믿음직한 간주관성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¹⁹ 양준희, <윌츠의 신현실주의에 대한 웬트의 구성주의의 도전>, 국제정치논총 41(3), 2001.11. p.44.

신경숙의 『외딴방』과 린바이의 『한 여자의 전쟁』의 서사특징 비교연구

허 결

초 록

신경숙과 린바이는 중국과 한국의 90년대 여성문학에서 대표적 작가이다. 한국여류작가 신경숙의 『외딴방』과 중국 여류작가 린바이의 『한 여자의 전쟁』을 본 논문의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두 소설작품은 작가의 자서전적 성격이 진한 것이 특징인데 이들은 서로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중 두 여성작가의 작품을 비교하면서 주로 이 두 작품의 서사수법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연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제1장 서론에서 중한 양국의 여성문학의 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하며 본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및 연구의 의미를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 두 작품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외딴방』은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성장기에 처하고 있었던 한 소녀의 내밀한 정신세계의 성장과정을 보여 주면서 그 성장기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성장이 미완성했던 어린 ‘나’를 현재 시점에서 그 상처를 극복하고 나가는 과정도 함께 보여준 자서전 성장소설이고 『한 여자의 전쟁』은 아버지 부재의 상황에 처하여 있는 여성으로서의 성장과정을 성에 대한 여성의 인식, 혼자 갔던 기이한 여행, 사랑의 환멸, 사랑하지 않지만 자신을 받아 준 늙은 남자와의 결혼 등을 통하여 여성으로서의 성장과정을 여성의 경험을 통하여 그대로 보여 주었다.

제3장에서 두 편 소설의 플롯(구성)의 면에서 연구 분석했다. 플롯에 의한 주인공의 성장 서사, 주변 인물들이 주인공에게 미친 영향 등을 위주로 분석하여 두 작품의 플롯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즉 신경숙의 『외딴방』에서 한 사람의 성장을 ‘나’와 관련되는 여러 인물의 연상과 추억으로 플롯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데 반하여 린바이의 소설 『한 여자의 전쟁』은 주인공 한 인물의 추억과 연상을 통하여 비교적 단일하게 플롯이 짜여졌다.

제4장에서 두 작품의 서사수법상에서의 특징을 본격적으로 분석하였다. 두 작가는 다 회고와 추억에 의한 서술 방식을 이용했는데 신경숙에게서는 회고의 시작은 섬관광을 간 것이고 린바이의 회고의 입구는 변화가 많은 거울이다. 이런 매개물을 통하여 작가는 시

공적 공간적의 구속에서 해방하여 의식의 흐름 수법을 이용하게 된다. 그리고 심리적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신경숙은 1인칭을 선택하여 주인공의 심리공간을 보여주는 반면에 린바이는 린다미라는 주인공의 삶을 서술하면서 제3자의 시각으로 그녀의 심리공간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제5장에서 여성의 개성적 서사언어, 여성 경험과 역사재구성 측면에서 분석했다. 여성들이 예민한 시각과 및 역사에 대한 색다른 해석 등은 두 작가의 작품에서 보여준 공통점이다. 또 소설의 서술언어면에서 린바이는 파격적인 언어 풍격을 보여주는 반면에 신경숙의 서술언어는 비교적 보수적이고 남권주의의 구속에서 해탈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제6장 결론에서 두편 작품에 관한 연구 결과를 서술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개괄하였다.

주제어: 한중여성소설, 서사수법 비교, 의식의 흐름, 서술언어

서론

문학이란 한 나라와 민족 및 그 사회의 의식형태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가 처한 시대의 예술의 수준의 정도도 반영해준다. 소설문학에서 형식연구는 예술미학의 한 영역에 속하는데 이는 그 시대와 민족의 예술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문학에서의 형식연구는 내용과 주제 연구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문학이란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총체라고 할 때, 형식연구는 또한 내용과 주제연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 근래에 와서 우리는 형식연구에 중시를 많이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역으로 내용과 주제의 연구에 적극적인 의의를 부여하기 때문인 것이다.

소설작품에서의 서사방법과 수단에 대한 연구도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문학작품에서의 서사란 작가가 말하려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특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소설의 경우, 서사란 작품의 내용과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하다. 특히 전통적 소설작품의 경우는 서사의 방법은 비교적 고정적인 틀을 가지고 전개되어 왔으나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서는 서사의 방법은 다양한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모더니즘 소설에서는 전통적인 서사의 방법은 해체되고 회상이나 추억, 의식의 흐름 등에 의한 심리적인 공간에 의해 서사가 재구성되어 복합적이고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중한 두 여류 작가의 90년대 창작한 소설작품을 선정하여 그 서사적 면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두 작가의 창작은 비록 동시대에 살면서 서로 주고 받은 영향관계는 없지만 작가적 경력이나 서사풍격 등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은 것으로서 비교연구의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특히 중한 현대문학의 여성소설의 서사적 특징에 대한 비교연구는 두 나라의 여성문학의 발전면모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자못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0년대 한국의 여성문학의 대표적인 여성작가들로 박완서, 공지영, 신경숙, 김인숙, 은희경 등을 들 수 있다. 90년대 중국의 대표적인 여성작가들로는 린바이(林白), 천량(陳染), 홍잉(虹影), 쉬쿤(徐坤), 하이난(海男), 쉬란(徐兰) 등을 들 수 있다.

백낙청은 “신경숙은 흔히 서정적인 문체로 ‘시적’인 소설가라는 평을 듣는다. 하지만 실은 어느 특정 대목이나 묘사의 서정성보다 ‘상징’의 신축과 섬세한 구사를 포함하여 언어가 가진 잠재력을 -- 마치 시인이 단순히 ‘산문적인 의미’뿐 아니라 연(聯)과 행의 구조, 운율, 비유, 상징 등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듯이 -- 최대한 활용한다는 뜻으로 ‘시의 경지’를 추구하는 작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신경숙의 작품 가운데서도 그러한 노력이 가장 확실한 성공을 거둔 것이 아직은 『외딴방』이 아닐까 한다”¹고 높이 평가했다.

린바이는 중국 90년대 초기에 대표 작가이며 그의 창작은 ‘개인적 창작’, ‘사적 창작’이라고 읽히는데 그의 창작은 중국 90년대의 문학중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그의 소설작품『한 여자의 전쟁』속에서는 뚜렷한 여성의 시각으로 세계를 관찰하여 여성의 성장과정에서 나온 삶의 경험과 욕망 등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소설작품은 또 ‘자전적’ 글쓰기의 특성도 가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².

따라서 본고는 비교문학의 평행비교의 연구방법으로써 신경숙의 『외딴방』³과 林白(린바이)의 『한 여자의 전쟁』⁴을 연구대상으로 소설의 형식적 구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두 작품은 서사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검토

90년대 한중 여성 문학이 큰 발전을 이루었는데 21세기 전까지는 여성성장소설을 평행연구의 연구방법으로 연구된 결과는 거의 없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성장소설에 관한 비교연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4년까지 한중 여성 성장소설의 비교연구는 거의 없었는데 그 이후 학술논문, 석사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한 연구는 상승세로 보이지만 90년대 여성 성장소설의 양에 대비하면 연구의 결과는 여전히 부족하다.

백낙청은 『외딴방』은 독특한 형식의 실험을 수행한 소설이고 소설의 짜임에서 과거는 현재형으로, 현재는 과거형으로 서술된다는 특이한 사실도 주목을 끈 바 있다고 했다.⁵

김영찬은 『외딴방』을 자기의 상처에 대한 민감함과 자기연민이 자기중심적인 폐쇄화

¹ 백낙청, 『창작과 비평』, 『외딴방』 해설, 문학동네, 1999(2판, 합본).

² 90年代最先成为一种重要现象的, 是所谓‘女性写作’。林白、陈染、徐坤、徐小斌、海男、须兰等, 在90年代前期风光无限, 文学界耳熟能详的“个人写作”“私人写作”, 就是他们所引领。——洪子诚 著, 『中国当代文学史』(洪子诚学术作品集),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10.1 p447-448

³ 신경숙, 『외딴방』, 문학동네 장편소설, 2015.06.05

⁴ 린바이, 『一个人的战争(한 여자의 전쟁)』, 花城出版社, 2015.03

⁵ 백낙청, 『외딴방』이 묻는 것과 이룬 것, 『창작과 비평』, 1997가을, 『외딴방』 해설, 문학동네, 1999(2판, 합본).

로 감하지 않고 역사 속에서 소외되고 잊혀진 존재들에 대한 공감과 가치 부여로 확장되
다고 평가했다.⁶

천쇼밍은 린바이는 자아독백의 방식으로 여성의 독특한 경험을 세밀하게 묘사함으로
써 여성의 은밀한 세계를 밝히고 린바이한테 여성의 몸은 단지 여성의 심령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경로이라고 평가했다.⁷

우춘화(吴春花)⁸는 한중 1990년대 대표적인 여성 성장소설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신경숙의 『외판방』, 은희경의 『새의 선물』, 林白의 『한 여자의 전
쟁』, 천량(陳染)의 『개인 생활』, 홍잉(虹影)의 『붉은 여자』를 비교분석하여 양국의 여
성작가들이 작품을 통하여 표현된 여성 성장의식, 성장체험 및 서사구조면에서의 관련영
상을 연구분석하고 나아가 양국 여성 성장소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하여 양국 여성
성장소설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혀보기 데 주목했다.

그 후 중국에서 张慧莲⁹은 90년대 한중 양국 여성 성장소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양국
의 여성 성장소설에서 표현된 공통의 이론자원, 사상내용, 서사의 예술, 민족적인 특색,
차이점을 이론 외부요소, 비교연구의 가치 6가지 측면을 분석함으로써 양국 90년대 여성
작가들의 성장의식과 성장체험을 검토하고자 하고 또 이런 성장의식과 성장체험이 서사
구조에 끼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양국에서 여성 성장소설에 관한 학위논문¹⁰은 여성의식, 자전적 요소, 성장의식, 서사
교육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연구분석을 시도했다. 본고에서 자전적 색채를 띤 린바이(林
白)의 『한 여자의 전쟁』과 신경숙의 『외판방』 두 편 여성 성장소설에 관하여 평행연
구의 방법으로 그 서사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전문적으로 서사방면의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연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탐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작가의 작품 내용 검토

2.2 신경숙의 『외판방』

⁶ 김영찬, 「글쓰기와 타자 -- 신경숙의 『외판방』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02.06호

⁷ 陈晓明, 「不说, 写作和飞翔--论林白的写作经验和意味」, 『当代作家评论』, 中国, 2005年第一期, p24-p27

⁸ 吴春花 (오춘화), 「한·중 여성 성장소설 비교연구」, 한국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교육학 박사 논문, 2009.01

⁹ 张慧莲, 「90年代以来韩中女性成长小说比较研究」, 中国辽宁大学博士学位论文, 2014.05

¹⁰ 년대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정희, 「1900년대 여성 서장소설 연구 - 은희경 『새의 선물』과 신경숙 『외판방』을 중심으로-」, 한국의
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01

노미연, 「1900년대 여성소설의 자전적 글쓰기 연구 - 박완서, 신경숙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11

黄洗希, 「申京淑『单人房』中的成长主题研究」, 中国云南大学比较文学与世界文学硕士学位论文, 2011.12

熊 骄, 「从身体书写走向历史回望—管窥林白小说世界中的女性形象」, 中国西南大学中国现当代文学专业硕士学位论文, 2013.05

신건옥, 「여성 성장소설 연구 - 신경숙 『외판방』, 오정희 『유년의 뜰』의 여성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국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4.01.03

王艳蕊, 「在禁中飞翔—论林白作品的女性文学特征」, 中国河南大学中国现当代文学专业硕士学位论文, 2014.04

한혜진, 「자전적 소설을 통한 서사교육 연구 - 신경숙의 『외판방』을 중심으로」, 한국 상명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02

손 제, 「왕안이(王安忆)와 신경숙의 소설 중에 여성 의식 비교 - 『푸핑(富萍)』과 『외판방』을 중심으로 -」,
한국 건국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문학 석사학위논문, 2015.06

신경숙의 『외판방』은 자전적 서사방식을 이용하여 작가 자신에 해당하는 ‘나’의 1978년부터 1981년까지, 즉 16살때부터 19살까지 구로공단 동남전기 주식회사에서 일하면서 산업체 특별학급을 다녔던 경험을 재구성한 이야기이다. 작가는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 있는 과거의 낯선 경험과 희재언니 죽음으로 인한 충격, 사회 변동의 큰 사건들을 성인이 되어서야 객관화시켜서 글쓰기로 극복하게 된다.

『외판방』은 두개의 성장 이야기가 병행하면서 펼쳐진다. 즉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다. 과거 시점에서 보며 열여섯 살부터 열아홉 살까지, 농촌에서 도시 변두리에 정착하여 글쓰기의 꿈을 꾸면서 공장 노동자로 일을 하고 성장하는 열여섯 살인 ‘나’의 성장이야기가 있다. 현재시점, 즉 작가가 작품을 창작한 시점으로 보면 그때의 동창인 하계숙의 전화를 받아 ‘넌, 우리 얘기는 쓰지 않더구나’, ‘넌, 우리들하고 다른 삶을 사는 것 같더라.’라는 말을 듣고 기억속에 ‘외판 방’의 공간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돼서 희재 언니의 죽음으로 인한 과거의 상처와 다시 화해하고자 혹은 성장하고자 하는 작가의 32살의 성장이야기다. 외판 방에 있었던 시절에 ‘나’는 고난, 시련을 겪어오고 어렸을 때의 꿈인 작가로 된 것을 미루어 일면적으로 보면 성장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희재언니의 죽음으로 인한 관계 맞기 어려운 문제는 상처로 남았다. 이런 상처를 가진 과거의 ‘나’를 구조하려면 그 시절로 다시 회귀해야만 서른 두 살의 ‘나’의 성장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글쓰기로 표현했다.

신경숙의 말로 ‘나의 큰 오빠, 나의 외사촌. 지난 79년에서 81년까지 영등포여고 산업체특별학급에 다녔던 그녀들, 최홍이 국어 선생님. 그리고 나, 여기 머무는 동안, 내게 과거가 될 수 없는 희재언니에게’¹¹ 이 글을 창작했고 그 사람들 관한 이야기를 했다.

2.2 린바이의 『한 여자의 전쟁』

린바이(林白)는 『혼자만의 전쟁』에서 린다미(林多米)의 이름을 창작하여 5,6 살 때부터 지금까지(서른 살)의 성장과정을 회고하는 방식으로 한 여자의 내적인 정신세계의 성장과정을 서술했고 여성의 욕망, 사랑, 생명, 남녀간의 성, 여성으로서의 육체적 욕망 및 자신의 꿈에 대한 욕망으로 일관된 성장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작품에서 여주인공 린다미는 3살때 아버지가 돌아갔고 의사직업에 종사한 엄마는 중국 ‘下乡 (하향)’의 정책 때문에 다미와 함께 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어렸을 때 부터 부모의 사랑 결핍으로 주인공의 성격이 괴벽해지며 자폐증 증상을 보인다. 다미는 출세의 욕심을 가지고 항상 대도시로 가고 싶어했는데 시인 되고 싶은 욕심을 부려서 19살 때 남의 시를 표절한 일로 다미는 고향으로부터 도망가게 된다. 후에 린다미는 고시(高考)에 통과하여 도서관 학과에 붙었다. 난단 (南丹)라고 하는 여자는 다미의 성장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린다미는 난단 때문에 여성의 자신감을 얻게 되고 자매관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 N성의 도서관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19살 때 시를 표절한 일 때문에 하지 못했던 영화 제작 작가의 일을 29살 때 다시 하게 되어 30전까

¹¹ 신경숙, 『외판방』, 문학동네 장편소설, 2015.06.05, p5

지는 ‘미친 듯한 사랑’을 느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영화 감독 N라는 남자와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독신주의자라는 거짓말 하는 그 남자 위해 아이를 뱉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N는 주인공을 배신하고 떠나 버렸다. 마지막에 린다미는 사랑하지 않는데 결국은 자기를 받아준 늙은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 즉 자기한테 결혼을 하게 된다.

요컨대 『한 여자의 전쟁(한 여자의 전쟁)』 이 작품에서 아버지 부재의 상황에 처하여 있는 여성으로서의 성장과정을 성에 대한 여성의 인식, 혼자 갔던 기이한 여행, 사랑의 환멸, 사랑하지 않지만 자신을 받아 준 늙은 남자와의 결혼 등을 통하여 여성으로서의 성장과정을 여성의 경험 그대로 보여 주었다. 린바이의 말처럼 ‘한 여자의 전쟁은 한 여자가 자신이랑 결혼하는 것 의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²

3. 『외판방』과 『한 여자의 전쟁』 플롯 비교

스토리는 시간의 연속대로 정돈해 놓은 사건의 진술이요, 플롯이란 이야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건들을 적절히 재배치하고 재미있고 예술성을 띠도록 스토리를 변형시키는 일이다.¹³ 이로써 플롯과 스토리는 구별된다. 그러므로 플롯은 단지 내용적 서술이 아니고 이야기의 인과관계를 포함한 서술이다. 소설의 플롯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소설 중 잠재된 인과관계를 잘 이해해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신경숙과 린바이의 소설은 일련의 유기적인 시간순서에 따라 이야기를 서술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의 형식으로부터 해방하여 의식의 흐름에 따라 짜여지고 또 다양한 플롯을 교차시킴으로써 한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등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

3.1 『외판방』의 플롯

신경숙 소설의 플롯은 3부분으로 즉 과거 시점의 외사촌과 큰 오빠 같이 살아왔던 16살부터 19살까지 ‘나’의 성장이야기, 희재언니의 비극인생 이야기와 그녀의 죽음으로 인한 ‘나’의 심리문제의 형성 및 현재의 시점에 32살의 재회귀로 자아구조를 이루는 이 3가지 플롯으로부터 분석할 것이다. 인과관계로 검토하면 하나는 희재언니의 죽음으로 인한 ‘나’의 심리문제의 형성, 또 하나는 하계숙의 전화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잠기게 된 어린 ‘나’를 무시할 수 없게 하여 자신을 구조하고 정체성을 얻게 된다.

3.1.1 16살부터 19살까지 ‘나’의 성장

평범한 시골 소녀의 서울행

78년 ‘우리나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별 특징 없는 통통한 얼굴 모양을 가진 소녀’ 고등학교를 진학을 못한 열 여섯의 ‘나’는 고향에서 심심하게 보내고 있었고 서울에 있는 큰오빠에게 ‘오빠, 어서 나를 여기에서 데려가줘요’라는 말을 편지로 써서 오빠한테 보

¹² ‘一个人的战争意味着一个巴掌自己拍自己，一面墙自己挡住自己，一朵花自己毁灭自己。一个人的战争意味着一个女人嫁给自己.’ 林白, 『한 여자의 전쟁』, 花城出版社, 2015.03, p3

¹³ 金奉郡、李尚佑、李正淑 共著, 『文学概论』, 韩国開文社

내고 답장을 기다렸던 일을 섬에서 회고하면서 소설의 플롯을 전개해 나아가고 있다. ‘나’는 도시에 관한 묘사로 도시 생활을 낯설게 하여 독자한테 새로운 느낌을 주면서도 스토리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일하기 위해 ‘나’의 이름 아닌 이름을 사용

서울로 온후 돈을 벌어야 하고 학교 다녀야 된다. 그러므로 구로공단에서 취직하여 산업체특별학급에 다닐 수 있게 된다. 그 때 열여섯이라서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짜 신분으로 회사에 들어갔다. 이 일이 뒤에 발견되었지만 처음에 ‘나’는 ‘내’ 이름을 공장에서 쓰지 못했었다. ‘나’의 이름이 아니고 다른 모르는 사람, 즉 ‘이연미’라는 이름으로 ‘나’의 열여섯 해를 보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나’

열 여섯의 ‘나’는 구로공단의 직업훈련원이 된 후에 익숙하지 않은 생활방식으로 삶을 지내고 있었다. 혼자서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돈으로 시골 집에 부치고 살아 온 사람들이다. 세 사람 같이 한 외판방에서 사는 것도 힘들고 게다가 큰오빠는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 이런 경제상황에서 그녀들이 생활필수품을 사고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어느 때나 나는 우리 가족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부유하다고 느낀 적은 없지만 가난하지도 않다.’라는 생각을 가진 ‘나’는 도시로 나오니 ‘하층민’으로 된다. 그녀의 큰오빠가 이미 이런 것을 소화했지만 열 여섯의 그녀한테는 이런 갈등을 처음으로 겪어 봤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나’는 그 이상한 밥을 먹은 것처럼 현실과 조화를 이루하려고 그 갈등을 소화하려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하고 있다.

작가로 되고 싶은 욕망의 노출

노조에 가입하고 또 어쩔수 없이 탈퇴하고 또 노조원들이 잔업 거부 활동을 진행할 때 ‘나’와 외사촌은 학교에 다니고 싶어서 어쩔수 없이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잔업 거부하던 노조원들에게 ‘수치’스러운 느낌을 받았는데도 열 일곱인 ‘나’는 외사촌에게 ‘나는 작가가 될 것’이라고, ‘나는 글 쓰는 것 이외의 다른 일을 아무래도 관찮다구, 지금도 하나도 안 부끄러워. 아무렇지도 않아!’¹⁴라고 했다. 남의 시선이 어떻게 되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것이라고, 수치 같은 것 받아도 ‘나’아무렇지도 않다고, 눈 앞에 처하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의 꿈은 절대로 포기 안 할 것이라고 결심을 냈다.

창과 이론 순수한 사랑

창이라는 시골 남성은 친구간의 편지를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시골 집에 있었을 때 엄마가 창이 유전병 때문에 둘이 같이 다니지 말하라고 했지만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서울로 와 가지고 외판방에서 살기 시작한 후에는 창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둘이 서로에게 편지로 많이 했다. 그후에 ‘나’의 엄마의 간섭 때문에 창이 편지를 못 받게

¹⁴ 신경숙, 앞의 책, p103

되어 둘이 서로 멀어졌다. 창이 대학교에 붙은 후에 연애하여 ‘나’와 창은 남녀간의 사랑과 같이 앓는 첫사랑을 했고 이별같이 앓은 이별로 서로 멀어지게 된다.

3.1.2 회재언니의 비극 인생과 ‘나’한테 남은 상처

..... 외판방들이 있는 그 집 중앙 수돗가에.....

무표정한 작은 얼굴. 무심한 작은 얼굴. 조용한 작은 얼굴.....

햇볕같이 표정이 없는 무심한 얼굴이다.¹⁵

무표정하고 무심하고 조용하고 작은 얼굴을 가진 그녀는 항상 희미한 웃음을 띠고 다녔다. 그런 희미한 웃음은 마치 그녀의 생명처럼 ‘희미하게’ 사라진다.

평범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회재언니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그녀는 생활을 사랑했는데 그녀는 머리에 파마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다니고, 탄 맛이 거의 없는 커피도 마시고, ‘우리’ 그녀의 집에서 온종일 TV도 보았다. 그녀의 집은 깨끗하고 부엌에 있는 주방 가구들도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생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 남자의 떠남으로 희망까지 없어졌다.

‘나도 모르게 내가 개입해버린, 그녀의 죽음에 내게 남긴 상처는 나를 한없이 멍하게 했다. 아직까지도 내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녀의 흔적들. 나는 그녀 이후에 관계맺기에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쉽게 친해지나 더 깊이 친해지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녀는 내 마음의 폐허였다.....’¹⁶

‘왜 하필이면 나였’을까? 그녀의 죽음으로 ‘언니는 나의 장애’로 되었다. 회재언니랑 옥상에 보냈던 시절은 ‘나’의 소중한 추억으로 되고 빨래를 하는 모습도 뇌에 적혀 있었다. 회재언니와 같이 있을 때 ‘내’가 하지 못했던 말들이 속속 나왔다. 이런 사이에 ‘나’는 그의 죽음에 개입해버린 것을 아예 몰랐으며 심리적 장애를 이루게 된다.

3.1.3 서른 둘의 자아구조

‘너는 우리 얘기는 쓰지 않더구나.’¹⁷

‘혹시 네게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걸 부끄러워하는 건 아니니?’

.....

넌, 우리들하고 다른 삶을 사는 것 같더라.”¹⁸

서른 둘 되는 나이에 하계숙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 이후로 어디가든 이 말들이 ‘내’ 몸에 입는 느낌이 오면서 힘들었다.

너. 는. 우. 리. 들. 얘. 기. 는. 쓰. 지. 앓. 더. 구. 나. 네. 게. 그. 런.

¹⁵ 신경숙, 앞의 책, p145-146

¹⁶ 신경숙, 앞의 책, p402

¹⁷ 신경숙, 앞의 책, p35

¹⁸ 신경숙, 앞의 책, p36

시. 절. 이. 있. 었. 다. 는. 걸. 부. 꼬. 러. 워. 하. 는. 건 아. 니. 니. 년.

우. 리. 들. 하. 고. 다. 른. 삶. 을. 사. 는. 것. 같. 더. 라. ¹⁹

작가가 이런 독특한 방법으로 그때의 느낌을 보여주었다. 32살의 ‘나’는 하계숙 그녀들에 관한 얘기는 쓰지 안 하는 것 아니고 그 시절로 다시 회고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고백했다. 회재언니는 그 중간에 가로막아서 못 돌아가게 하였다고, 그 시절을 겨우 지내왔는데 다시 그 상처를 꺼내서 고통속으로 들어가는 게 ‘나’한테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그 시절의 얘기를 하려면 회재언니 죽음으로 인한 상처를 꼭 넘어야만 할 수 있는데 그녀는 ‘나’의 상처로 남는 걸 다른 사람들이 몰랐을 것이다. 정면대결의 결심 내리는데 ‘나’로 하여금 혼란하게 힘들게 만들었고 글을 쓰는 매개로 그 상처를 부딪히게 된다.

3.2 『한 여자의 전쟁』의 플롯

린바이의 소설 『한 여자의 전쟁』은 한 인물의 추억과 연상을 통하여 비교적 단일하게 플롯이 짜여졌지만 린바이는 여성 다미의 한 사람의 성장과정을 여러 플롯으로 나눴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설의 플롯은 4부분 즉 성에 일찍 눈뜨고 자매관계 이루기, 실패와 성공, 혼자 여행가서 첫밤을 빼앗김, 사랑의 환멸으로 나눌 수 있다. 인과관계를 검토하면 하나는 성에 일찍 눈뜨기 때문에 성에 관한 관심이 많아져서 나중의 남녀관계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표절의 실패로 인한 도망가기, 남장의 배신을 당한 후 도망가기로 결심, 드디어 자신이란 결혼한다는 각오를 얻게 된 것이다.

3.2.1 성에 일찍 눈뜨고 자매관계

유년시기에 성에 대해 일찍 눈뜨기 시작

유년기에 호기심을 가진 다미는 성기 모형을 관찰하여 만지기도 한다. 6살 때 莉莉라는 여자아이와 함께 성에 관한 게임을 했다. 다미의 변원에 있었던 임신하는 장면을 여러번 구경하려고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7살인 莉莉와 함께 임신이라는 게임을 했다.

...处于漫长黑暗而孤独中的多米常常幻想被强奸.....在疼痛中坠入深渊, 在深渊中飞翔与下坠。 ²⁰

다미는 어렸을 때부터 강간을 환상해 본 적이 있다. 외로운 밤에 다미는 강간을 당하는 장면을 환상해 본 적이 있다. 이런 환상은 다미가 대학교를 다녔을 때 진실로 변했다. 대학교 때 한 남자는 갑자기 나타나서 산 언덕에 앉아 있는 다미한테 성행위를 하자는 명령을 했는데 결국은 둘이 그런 성관계를 이루지 못했다.

자매관계의 이루기

.....我用的第一支口红是南丹送给我的, 而她本人就像这种口红一样, 对我有划

¹⁹ 신경숙, 앞의 책, p45

²⁰ 林白, 앞의 책, p25

时代的意义。²¹

다미가 27살 때 21살인 젊은 난단(南丹)을 알게 되어 그녀 때문에 다미는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난단은 다미를 예쁘게 보고 다미와 함께 춤을 추고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잤다. 두 사람간의 관계는 난단이 다미에게 동성애의 찬미를 써어진 편지를 보내준 것으로 끝나 버렸다.

작가는 성에 일찍 눈뜸과 자매관계의 플롯을 통하여 다미가 여성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 칭찬을 받아 여성적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을 암시하였다.

3.2.2 실패와 성공

소설의 제2장에서는 19살 어린 다미한테 동풍이 불어온 후에 표절로 실패를 초래하고 또 이로하여 다미는 성공의 길이 멀어지게 되어버리고 입시(高考)의 찬스를 잡고 고향으로부터 도망간 플롯을 엮었다.

19살, 다미에게 모든 일이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순조롭기 보이지만 표절한 일 때문에 다 망해버렸다. 영화제작회사에서 시를 잘 쓰는 다미한테 극작가로 될 기회를 줬는데 표절때문에 다미를 포기했다. 그때의 상황에서 일을 찾는 것이 몹시 어렵고 극작가로 된다는 것도 일반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런데 다미는 이런 기회를 얻고 잃어버렸다. B진이라는 고향에서 그렇게 오만했던 대단한 여자아이인 다미가 남의 시를 표절한 일로 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을 받고 이 지역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심지어 대학교를 다닐 기회까지 포기할 뻔했다. 다행히 입시(高考)에 통과하여 이 지역을 떠나버렸다. 그리고 다미는 성공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은 29살 때 영화에 관한 일을 다시 하게 되는 계기를 얻은 다음부터다.

3.2.3 혼자간 여행 첫밤을 빼앗김

대학교 졸업하여 N성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 다미는 항상 여행을 떠나간다. 그녀의 여행은 기차, 버스, 자전거등 교통도구를 이용했을 뿐만아니라 걸음까지 이용하였다. 혼자서 여행 떠나는 것은 위험하지만 다미한테 위험은 전혀 무섭지 않으며 오히려 다미는 위험을 마법가진 미녀처럼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她开始意识到,她毫不被怜惜,她身上的这个男人丝毫不在乎她的意愿,他是一个恶棍和色狼,她竟眼睁睁地就让他践踏了自己的初夜。²²

그녀가 혼자서 여행을 떠나가는데 거기서 그는 익숙하지 않는 유부남인 선원에게 첫밤을 빼앗겼던 것 있다. 첫밤 경험은 다미한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하며 심리적

²¹ 林白, 앞의 책, p48

²² 林白, 앞의 책, p201

드라마를 이루게 했다.

3.2.4 사랑의 환멸

소설의 주인공 린다미는 29살 때 30살전에 꼭 미친듯 사랑을 느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N라는 영화 감독이랑 첫눈에 사랑에 빠져 그 남자와 비참하게 연애를 시작했다. 독신주의자라는 핑계로 다미의 결혼 생각을 거절했던 그 남자가 다른 여자아이한테 고백하고 프로프즈까지 하여 다미를 배신했다. 미친듯한 사랑을 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했는데 그 남자한테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 그 남자를 잡으려고 아이를 뗐지만 결국은 그 남자한테 품었던 모든 기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져 상처를 가지고 자신을 받아준 늙은 남자에게 도망가버렸다.

.....当初我是不是真正爱过? 我爱的是不是他? 我想我根本没有爱他, 我爱的其实是我自己的爱情, 在长期平淡单调的生活中, 我的爱情是一些来自自身的虚拟的火焰, 我爱的真是这些火焰。²³

그 후에 30살 때 미친듯 사랑한 것이 그 남자가 아니라 ‘나’ 만의 사랑을 사랑했을 뿐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린바이의 말로 표현하면 다미는 결국은 자신이랑 결혼했다.

3.3 『외판방』과 『한 여자의 전쟁』 플롯의 차이점

신경숙 소설의 플롯은 총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즉 과거 시점의 외사촌과 큰 오빠와 같이 살아왔던 16살부터 19살까지 ‘나’의 성장이야기, 그 남자의 버림으로 죽음을 선택한 희재언니의 이야기 및 그녀의 죽음으로 인한 ‘나’의 심리문제의 형성, 현재의 시점에서 32살의 재희귀로 자아구조를 이루는 이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린바이의 소설은 한 사람의 성장을 중점으로 하였다. 이 단일한 성장으로부터 또 성에 일찍 눈뜸과 친밀한 자매관계를 이룬 것, 19살 때의 표절의 실패로 고향으로부터 도망간 것, 혼자서 여행을 가서 첫밤을 빼아긴 것, 남자한테 사랑의 환멸을 겪어 보고 결국은 늙은 남자와 결혼하고 결국 자신과 결혼하게 되는 플롯을 4부분으로 나누어 엮었다.

신경숙의 소설에서는 주변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다시 자아치료하는 과정을 중점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이 작품을 쓰게 된 이유로 되기도 한다. 희재언니의 이야기는 소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린바이의 소설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외판방』에서처럼 희재언니라는 인물처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에 관한 플롯은 없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가가 자신만의 성장에 관한 플롯에 더욱 많은 관심을 두었다. 즉 신경숙의 『외판방』에서는 한 사람의 성장을 ‘나’와 관련되는 여러 인물의 연상과 추억으로 플롯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데 반하여 린바이의 소설 『한 여자의 전쟁』은 주인공 한 인물의 추억과 연상을 통하여 비교적 단일하게 플롯이

²³ 林白, 앞의 책, p261

짜여졌다.

‘의식의 흐름’ 수법의 이용과 시공간의 교차

‘의식의 흐름’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정신(mental) 영역에 대해서 사용된다. 정신분석학에서 의식은 무의식(unconscious)과 대립하며, 현상학에서 의식은 대상들의 중심이며 언제나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이다. ‘의식의 흐름’은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1890년에 사람의 정신 속에서 생각과 의식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처음 쓴 말이다. 현대소설, 특히 심리주의 소설의 창작 기법인 ‘의식의 흐름’은 소설 속 인물의 파편적이고 무질서하며 잡다한 의식세계를 자유로운 연상작용을 통해 가감없이 그려내는 방법을 말한다. ‘의식의 흐름’ 수법을 사용하는 소설은 외적 사건보다 인간의 내적 실존과 내면세계의 실체에 관심을 집중한다.²⁴

신경숙의 『외판방』과 린바이의 『한 여자의 전쟁』은 전형적인 의식의 흐름의 창작 기법을 활용한 작품이다. 회고하는 구성방식으로 자신의 성장을 그려내며, 교차된 다양한 플롯으로 소설 전개하여, 현재의 시점과 과거의 시점을 교차시킴으로써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섬세하게 노출하고, 또 1인칭과 3인칭의 서술방식의 자유로운 교차 등은 그들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서사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는 이 두 작품에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플롯을 짠 것이 아니라 인물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심리적인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전형적인 모더니즘의 표현수법을 활용한 것이다.

4.1 시공간의 교차

신경숙과 린바이의 소설은 자서전적인 소설이고 완전한 픽션은 아니고 사실도 아니지만 그 중간 쪼이고 대부분은 사실대로 짜였다. 두편 소설은 다 추억을 소설의 소재로 삼아 회고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는데 신경숙은 하계숙의 전화를 받고 하계숙이 하던 말들이 그를 구속 받게 만들어서 그는 섬관광으로 떠나가 거기에서 과거의 추억들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소설의 회고 입구로 된다. 린바이는 소설에서 거울을 매개체로 과거를 회고하기 시작한다. 즉 작품에서 주인공 린다미의 거울을 매개체로 지난 시기의 추억들을 무의식적으로 노출했고 대학교 시절의 이야기들을 서술하였다.

현재와 과거 시점의 교차를 보기로 하자.

시점은 소설문학의 연구에서 중요한 기법요소이다. 통상적으로 소설문학에서 또는 쫓점이라고 한다. 신경숙의 『외판방』에서는 두 가지 성정과정을 포함되고 있다. 즉 과거 16살에서 19살까지의 어린 시절의 ‘나’의 성장 이야기와 현재의 시점에서 자아구조를 이룬 성장의 이야기가 있다. 린바이의 작품 『한 여자의 전쟁』중 역시 현재와 과거의 시점을 교차함으로써 스토리를 서술했다. 과거의 시점으로 보면은 린다미의 성장 이야기고 현재의

²⁴ 한국 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01.30

시점으로 보면은 작가가 그때 이런저런 일을 겪어 본 마음으로 독자한테 린다미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1인칭과 3인칭의 교착을 보기로 하자.

신경숙은 『외판방』에서 두 개의 성장이야기로 구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내용적으로 보면은 제1인칭의 서술방식으로 서술했다. 즉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주관적으로 서술했다. 반면에 린바이는 『한 여자의 전쟁』에서 ‘나’시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제3인칭의 시각으로, 즉 린다미의 형상을 창조하여 남의 일을 이야기하듯 자기의 성장과정을 서술했다. 이를테면 작가 린바이는 소설작품에서 주인공을 린다미로 바꾸어 남의 일을 서술한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도 자신을 그 사건의 관찰자로 되게 했다. 그래서 린바이의 소설작품을 읽을 때 혼란스럽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신경숙의 소설작품은 제1인칭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성장 이야기를 서술하고 동시에 또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에 관한 자신의 느낌을 노출하는 데 유리하게 했다. 신경숙은 과거의 시점의 ‘나’와 현재의 시점, 즉 소설작품의 창작시점인 ‘나’에 관한 이야기들을 교차시켜 ‘나’의 신분을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어 주었다. 신경숙은 제1인칭의 시각으로 주인공의 내면세계의 변화 및 주변 인물들의 주인공에게 끼친 영향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주요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통하여 표현하였다.

想象与真实，就像镜子与多米，她站在中间，看到两个自己。

真实的自己，

镜中的自己。

二者互为辉映，变幻莫测，就像一个万花筒。²⁵

소설작품에서 린바이는 ‘나’의 목소리로 스토리를 엮어갔는데 이런 과정에서 신경숙과 달리 주인공에게 ‘린다미’라는 이름을 만들어 주고 3인칭의 시점으로, 즉 남의 이야기를 서술한 방식으로 자기의 성장 이야기를 서술했다. 린다미라는 인물은 마침 작가가 거울을 보는 것 같았고 그것은 또한 작가가 창작한 과거의 자신이다. 린다미와 ‘나’는 린바이의 이중 신분의 하나를 대표하는 것이다. ‘나’라는 인물은 성장을 완성한 작가이고 ‘린다미’는 바로 성장기에 처했던 작가의 분신이다. 『한 여자의 전쟁』에서 작가는 3인칭을 선정하고 주인공 린다미의 형상을 창작한 동시에 주인공에 관한 독백, 대화, 및 ‘나’의 서술 등을 통하여 주인공의 인물 형상을 구체화시킨다.

공간적 이동과 교착을 보기로 하자

공간의 교착을 말하면 시간적 교착이랑 관련이 있는 것 분명하다. 시점의 변화와 시간적 이동으로 공간의 이동을 일으킨다.

신경숙의 『외판방』에서 과거의 이야기 하면서 중간에도 현재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들을 얘기하였다. 이런 장면들은 계속 바꾸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일어난 일들은 과거

²⁵ 린바이, 앞의 책, p3

시점의 일을 회고하게 만든 계기이자 상징이다. 그중에 외사촌이 보여줬던 사진첩에서 있는 ‘백로’는 그 대표이다. ‘나’는 언제든지 백로를 보러 가자고 해놓고 결국은 한번도 가지 못했고 제주도에 와 가지고 제주도 해안의 백로가 아니지만 비슷한 상징물인 새들의 울림으로 과거의 공간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린바이의 『한 여자의 전쟁』 작품은 더욱 그렇다. 과거인지, 현재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착되어 있다. 예를 들면, 린바이는 소설 첫장에서 성에 관한 인식을 얘기해 주면서 8살의 일, 대학 불인 후에 난단이랑 발생한 일들을 교착시켜 서술했다. 모기장 이장소는 다미에서 안전감을 주고 즈녀에게 구속을 받게 된 상징이기도 한다. 모기장을 통하여 린바이는 어렸을 때와 대학 시절간의 공간 이동과 교착을 이루는 바 있었다.

요컨대 신경숙과 린바이는 소설에서 시공간적인 교착으로 스토리를 낚설게 만들어 주인공의 심리세계 성장과정을 보여 주었다. 신경숙은 과거와 현재의 시점에 발생한 성장 이야기를 병행시켜 1인칭의 서술방식으로 두 개의 성장과정을 보여 준 반면에 린바이는 3인칭의 서술방식으로 즉 과거의 이야기들과 과거 시점에 처하고 있는 린다미의 내면세계를 서술하고 동시에 현재의 시점에 처하고 있는 이미 성장을 완성한 ‘나’를 기점으로 스토리를 엮었는데 이 점에서 두 소설작품은 서술방식에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4.2 내면세계의 발굴

‘의식의 흐름’의 수법을 활용한 소설은 ‘내면세계’의 발굴에 중시하는데, 이때 인물의 행동은 그의 심리적 동기를 설명하는 증거로 활용되며 인상, 회상, 기억, 반성, 사색과 같은 심적 경험이 소설의 주된 내용을 이루게 된다. 인물의 속생각—언어화된 생각은 “그는 생각했다”와 같은 부가구절을 동반하는데, 내적 독백의 경우는 이런 부가구절이 생략됨으로써 이야기 순간과 담화 순간이 동일하게 되는 효과를 발산한다.²⁶ 신경숙과 린바이의 소설에서 ‘그는 생각했다’는 말은 거의 없어도 대화, 행동, 생각 등으로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자세하게 보여 주었다.

“같은 집에 산다면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집에서 살면서 우리가 왜 자주 만날 수 없는지 나도 영문을 모르겠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나는 다른 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면으로 바라다본 기억도 별로 없다. ²⁷

신경숙은 소설에서 1인칭의 서술방식으로 주인공의 내면세계 변화를 인물의 행동, 대화 및 생각을 통하여 그대로 보여주었다. 사소한 말 한 마디로 주인공의 심리적인 움직임 일으키고 작중 주인공과 다른 인물의 관계를 연상시켜 독자들로 하여금 주인공의 내면세계로 들어가서 이해하게 만들었다.

²⁶ 한국 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01.30
²⁷ 신경숙, 앞의 책, p236

也许事情真的没有那么严重, 但对于一个未经世事的十九岁的女孩来说, 就是天要塌下来了, 从此她背负着她自身构成的阴影, 步履蹒跚。²⁸

이처럼 린바이의 『한 여자의 전쟁』에서는 작가는 제3자의 시점에서 작품에 끼어들어 다미라는 여자 아이의 생각 및 심리변화를 서술했다.

요컨대, 신경숙의 『외딴방』에서는 제1인칭 시점으로 자연스럽게 인물의 내면세계를 노출하는 심리묘사방식을 이용한 것과는 달리 린바이의 『한 여자의 전쟁』에서는 제3자의 시점으로 주인공의 내면세계(심리묘사)에 대하여 깊이 있게 발굴하였다. 작가가 이런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작중 인물의 내면세계를 깊게 발굴하여 독자들에게 인물(주인공)의 성장과정 및 정신세계를 펼쳐보였다. 이처럼 두 작가는 모두 인물의 내면세계에 대한 발굴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였다. 그런데 두 작가가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노출하는 데 이용한 방식에서는 서로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신경숙의 작품중에 ‘나’는 ‘나’의 행동, 대화, 생각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보여주었다면 린바이 작품은 내면세계를 주로 인물의 행동과 대화 및 생각 등에 의해 발굴하였다. 뿐만 아니라 작가의 전지적 시점으로, 즉 제3인칭의 시점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린다미의 심리도 발굴하였는데 이로써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풍만한 서정과 여성적 서사언어

소설의 언어는 전통적으로는 개관적인 묘사체가 위주로 되었다면 모더니즘에 와서는 그 언어적 특징은 주관적인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색채가 다분히 뚜렷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언어적 변화는 모더니즘 소설의 서사적 특징을 좌우하는 데 한 몫의 역할을 한다. 신경숙과 린바이 이 두 작가는 모두 생활화된 서술언어로 소설을 완성했다. 그들은 번잡하고 자질구레하게 보이지만 주변에서 발생된 사소한 일상생활을 섬세하게 서술했다.

또한 신경숙의 『외딴방』과 린바이의 『한 여자의 전쟁』은 여성적인 섬세한 언어를 사용하였고 그들은 문장의 일반적인 형식을 무시하면서 그녀들만의 언어서술 풍격을 이룩하였다. 이를테면 신경숙의 소설작품의 언어는 그 풍격상에서 비교적 무겁고 억압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반대로 린바이의 소설 언어풍격은 비교적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대담하게 여성의 신체에 대한 묘사를 직감적으로 표현하여 일반적인 묘사언어의 계선을 파괴해 버렸다. 비록 두 작가의 언어는 여성적인 섬세함을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다하더라도 그들의 언어풍격면에서 비교적 뚜렷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외사촌의 외모와 몸매에 관한 묘사, 희재언니의 첫인상, 용감한 유채옥에 관한 묘사, 인형같은 큰오빠의 여자친구에 관한 묘사, 미스 명 치마 밑의 매끈한 종아리, 및 희재언

²⁸ -- 林白, 앞의 책, p113

니가 학교를 그만둔 후의 의상변화 등에 관한묘사들을 보면 신경숙은 여성에게 관심을 많이 보였지만 그 언어사용면서는 린바이에 비해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스 명이 선이 분명한 눈썹을 치뜨고 햇볕 아래서 웃으면 치아가 하얗게 반짝인다. 미스 명이 서류가 담긴 노란 파일을 옆에 끼고 화단 밑에 걸어가면 치마 밑의 매끈한 종아리도 생기롭게 움직인다.²⁹

린바이는 여성을 묘사할 때 남성의 심미관에서 벗어나 여성의 시각으로 여성들의 몸매와 외모의 미를 묘사했다. 이런 언어적인 차이는 린바이의 작품에서 자신의 성 경험과 요경(姚琼)이라는 여자를 묘사한 언어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在B镇.....姚琼身材修长,披着一头黑色柔软的长发,她的腰她特别的细,乳房的形状十分好看。.....³⁰

중국에서 린바이의 소설작품의 언어에 대한 평가는 양면으로 나눈다. 야하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성의 진정한 느낌을 전달해서 찬성하는 평가도 받았다. 陈晓明은 린바이의 서사에 관하여 ‘린바이의 서가는 여성들이 숨겨둔지 오래 된 심리를 새롭게 보여주기 시작하게 하여 여성자위의 행위 방식으로 여성들의 다원성을 보여주었다. 린바이처럼 여성의 자아인정, 여성끼리 끌림, 감상, 고립의 아름다움이 묘사에 대하여 관심을 그만큼 준 사람은 없다.’³¹라고 평가하는 바 있다. 姚琼의 가슴, 몸매, 피부를 묘사했을 때 쓴 언어와 자기의 성 경험을 묘사한 데 적용된 언어들을 통하여 린바이의 용기를 엿볼 수 있다. 린바이는 여성의 몸을 묘사하는 것과 자신의 성 경험을 묘사한 언어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풍격을 보여주었는바 여성시점에서 남성중심중시점을 벗어나 리얼하게 전달했다.

결론

본고는 신경숙의 『외판방』과 린바이의 『한 여자의 전쟁』 서사특징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귀납하였다.

첫째, 『외판방』과 『한 여자의 전쟁』은 모두 자서전적인 소설작품이다. 신경숙의 『외판방』과 린바이의 『한 여자의 전쟁』 자신의 인생 경험을 방탕으로 하여 다시 문학 작품으로 짜여진 자전 소설이기 때문에 공통성을 가진다.

둘째, 『외판방』과 『한 여자의 전쟁』은 모두 모더니즘 소설작품에서 잘 쓰는 의식의 흐름의 수법을 이용하여 플롯을 엮은 것이 특징적이다. 회고하는 방식, 해체된 플롯, 교차된 주제 등은 작가 의식의 흐름에 따라 시간적 공간적인 영역을 뛰어넘어 자유롭게 이

²⁹ 신경숙, 앞의 책, p99

³⁰ 린바이, 앞의 책, p39

³¹ 林白的叙事从新开启了女性封存已久的心理角落, 她以女性自慰的方式敞开女性的多元性。没有人像林白那样关注女性的自我认同, 女性相互之间的吸引、欣赏, 女性的那种绝对的、遗世孤立的美感。--- 陈晓明, 「不说, 写作和飞翔——论林白的写作经验和意味」, 『当代作家评论』, 中国, 2005年第一期

루어졌다. 신경숙의 섬관광에 과거의 일을 생각나게 되고 린바이는 거울이란 매개물로 과거의 추억을 끌어들이고 또 어느 특별한 시점에서 가담가담 인물의 의식속으로 들어가는 데 이는 모두 다 의식의 흐름의 서사 방식을 활용한 것이다.

셋째, 신경숙의 소설『외딴방』에서는 주로 ‘나’의 1인칭 시점으로 플롯을 짠 반면에 린바이의 『한 여자의 전쟁』에서는 3인칭으로 소설의 플롯을 편성하였다. 신경숙은 작품에서 형식상은 1인칭이지만 그 중에 한부분의 ‘나’는 ‘그’가 되어 사라지기 바란다고 한다. 린바이의 작품은 ‘다미’의 이름을 창작하여 3인칭의 시점을 선택했지만 심리적 변화를 전달하는 데 역시 부족하지 않았다. 린바이는 내려다보는 시각으로 다미가 겪고 있는 상황, 그일로 초래된 결과 및 독자들에게 느끼기 어려운 심리적인 변화를 1인칭으로 섬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인물심리를 깊이있게 펼쳐보였다.

넷째, 두 소설작품의 플롯은 비록 의식의 흐름 수법을 주로 활용하였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그 차이가 매우 크다. 신경숙의 소설『외딴방』은 ‘나’와 관련되는 여러 인물의 연상과 추억으로 플롯이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반하여 린바이의 소설 『한 여자의 전쟁』은 주인공 한 인물의 추억과 연상을 통하여 비교적 단일하게 플롯이 짜여졌다.

다섯째, 90년대의 대표적 여성 작가, 예민한 여성의 시각으로, 보기에 번거롭지만 실은 생활의 진정한 모습이 녹아 있는 여성의 세밀한 언어로 그 시대 배경 아래서 여성들의 생활모습, 생활의 장면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다만 서술언어 풍격측면에서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즉 남녀의 성적 태도나 묘사에서 볼 것 같으면 신경숙은 보수적인 경향을 보여 주는 반면에 린바이는 반전통적인 개방경향을 보인다. 린바이는 신경숙보다 남성중심주의의 영향으로부터 해방되는 파격적인 언어들을 많이 이용했다.

〈참고문헌〉

저서 :

- [1] 신경숙, 『외딴방』, 문학동네 장편소설, 2015.06.05
- [2] 林白, 『一個人的戰爭 (한 여자의 전쟁)』, 花城出版社, 2015.03
- [3] 林白, 『说吧, 房间』, 春风文艺出版社, 2004.05
- [4] 林白, 『空心岁月』, 中国青年出版社, 2011.11
- [5] 洪子诚 著, 『中国当代文学史』(洪子诚学术作品集),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10.1
- [6] 김시준 저, 『中國當代文學思潮史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7] 조셉 칠더즈·케리 헨치 편저, 황종연 역, 『현대문학·문화 비평용어사전』, 문학동네, 1999
- [8] 문덕수, 신상철 공저, 『신상철 공저, 文學一般의 理解』, 시문학사 문학 연구총서:4, 시문학사

논문 및 평론 :

- [9] 류보선, 「두 개의 성장과 그 의미 - 『외딴방』과 『새의 선물』에 대한 단상」, 문학동네
- [10] 백낙청, 「『외딴방』이 묻는 것과 이룬 것」, 『창작과 비평』, 1997 가을, 『외딴방』해설, 문학동네, 1999(2 판, 합본).
- [11] 김영찬, 「글쓰기와 타자 -- 신경숙의 『외딴방』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02.06 호
- [12] 陈晓明, 「不说, 写作和飞翔—论林白的写作经验和意味」, 『当代作家评论』, 中国, 2005 年第一期
- [13] 魏开琼, 「经验: 女性主义理论的重要概念」, 中国『河南学刊』, 2011.2.
- [14] 양종근, 「타자를 바라보는 아픈 시선 - 신경숙의 『외딴방』」, 한국『문예미학』 제 11 호, 문예미학회, 2005
- [15] 于东晔, 「女性主义文学理论在中国」, 中国, 苏州大学博士学位论文, 2003.04.
- [16] 남미영, 「한국 현대 성장소설 연구」, 숙명여자대학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 [17] 吴春花 (오춘화), 「한·중 여성 성장소설 비교연구」, 한국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교육학 박사 논문, 2009.01
- [18] 张慧莲, 「90 年代以来韩中女性成长小说比较研究」, 中国辽宁大学博士学位论文, 2014.05
- [19] 양 회, 「성장소설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20] 문나형, 「林白의 『一個人的戰爭』 속에 나타난 페미니즘 연구」, 한국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중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5.12
- [21] 梁香伟, 「陳染、林白创作与女性主义之关系探微」, 中国山东大学比较文学与世界文学专业硕士学位论文, 2006.05.10
- [22] 林娟, 「论林白的创作及其创作转型」, 中国华中科技大学中国现当代文学硕士学位论文, 2008.06.05
- [23] 黄洸希, 「申京淑『单人房』中的成长主题研究」, 中国云南大学比较文学与世界文学硕士学位论文, 2011.12
- [24] 熊 骄, 「从身体书写走向历史回望—管窥林白小说世界中的女性形象」, 中国西南大学中国现当代文学专业硕士学位论文, 2013.05
- [25] 王艳蕊, 「在禁中飞翔—论林白作品的女性文学特征」, 中国河南大学中国现当代文学专业硕士学位论文, 2014.04
- [26] 손 제, 「왕안이(王安忆)와 신경숙의 소설 중에 여성 의식 비교 - 『푸핑(富萍)』과 『외딴방』을 중심으로 - 」, 한국 건국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문학 석사학위논문, 2015.06

명말청초 중국문헌에 수록된 허난설헌 작품 연구

- 『蘭雪軒集』 과의 字句대비와 분석을 중심으로

양희문

1. 서론

허난설헌(1563-1589)은 유명한 여자 시인이고 조선 여성 문학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27세라는 짧은 생애 속에서 천부적 문재를 발휘하여 주옥같은 빼어난 시문을 창작하여 한국한문학사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허난설헌이 죽기 직전에 남긴 유언에 따라 모든 작품을 다비에 부쳤지만, 동생 허균에 의해 기억되거나 남아있던 작품을 모아 『蘭雪軒藁』를 편찬했다. 곧이어 발생한 임진왜란으로 그동안 모았던 자료가 일부 유실되었으나, 나중에 허균의 노력으로 다시 새롭게 편찬되어 1608년(선조 41) 『蘭雪軒集』을 판각되었다. 오늘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허난설헌 문집은 모두 1608년(선조 41) 조선간행본 『蘭雪軒集』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

허난설헌 작품은 명 万历 년간 두 번 중국으로 들어왔다. 한번은 丁酉亂 계기로 중국으로 전입되고 다른 한번은 朱之蕃 같은 사신을 통해 중국에 들어오고 또 이름이 날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찾을 수 있는 중국 문헌은 吳明濟 편찬하는 『朝鮮詩選』을 비롯하여 총 11 가지가 있다. 실은 허난설헌 작품을 수록하는 시선집은 이보다 훨씬 많다.¹ 하지만 아쉬운 것은 많은 자료가 유실되었다. 중국문헌에 실려 있는 허난설헌 한시가 총 65제 173수가 있고 그 중에 조선각본 『蘭雪軒集』에 수록하지 않는 한시가 19제 22수 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 허난설헌 작품의 제반 모습을 보다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고 그녀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문에서 허난설헌 작품은 중국으로 전입한 과정과 중국 문헌의 수록상황을 정리하고 그 중에 실려 있는 한시들과 조선각본 『蘭雪軒集』에 수록된 것이 서로 비교해 보고 중국문헌에 수록하는 허난설헌 작품의 유행을 귀결해 보겠다.

2. 허난설헌 작품의 중국 유입과정

허난설헌의 작품은 주로 명 万历年간 두 번이나 중국으로 들어왔다. 첫 번째는 万历 26년(선조 31년, 1598)부터 万历 28년(선조 33년, 1600)까지이다. 그때는 조선반도에 정유

¹ 예를 들면 賈維倫의 『古今詩』, 沈無非의 『景樊集』, 朱之蕃각본 『蘭雪軒集』 등.

난이 일어났는데 명나라가 조선에게 원병을 많이 파견했다. 그 중에서 유격장군 藍芳威와 贊画 徐中素의 參軍인 吳明濟가 한반도에 온 뒤 전투를 하면서 조선 문인과 교제하고 그들에게서 조선 유명한 시문을 많이 얻어냈다. 둘이 귀국한 뒤 각각 『朝鮮詩選』을 편찬하였고 발간했다. 이 두 책은 모두 허난설헌의 작품을 많이 수록했다. 이 계기로 허난설헌의 시문이 중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 두 책의 편찬 과정을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먼저 남방위의 『朝鮮詩選』 편찬과정을 보자. 藍芳威는 호가 雲鵬, 자가 萬里이고, 江西 饒州府 江西縣 사람이다. 그는 游擊將軍이라는 신분으로 병사 4천명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한반도에 왔다. 선조 31년(萬曆 26년, 1598) 3월에 그는 제독 劉綎 소속의 유격장군으로 서쪽을 맡아 남원으로 갔고, 8월에 咸陽에서 적군을 습격하여 승전을 올렸으며, 9월에 남강 전투에서 승리했다. 다음 해 3월에 泗川 전투에서 中路先鋒으로 나섰다가 패하여 본국으로 소환되어 후에 변방으로 좌천되었다. 5월에 남원에서 상경했으며, 6월에 귀로의 장도에 올라 7월에 압록강을 건넜다.² 남방위가 전란 와중에도 『朝鮮詩選』을 편찬하겠다고 생각한 것을 보면 그가 시가에 소양과 관심이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남방위가 전란 속에서 조선 시가를 선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유격장군 신분 덕분이다. 당시 조선의 대명 군사 지원체제를 보면 유격장군 이상인 자에게 조선 接伴使가 필히 따르게 되어 있었다.³ 그래서 그는 전쟁을 수행하는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학자들이 제공한 조선 시작품을 접할 수가 있었다. 이런 도움으로 인해 남방위가 전쟁 속에서도 자료를 많이 수집하여 조선 시선집을 편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吳明濟의 『朝鮮詩選』 편찬과정을 고찰하자 한다. 吳明濟는 자가 子魚이고, 호가 玄圃山人이며, 會稽 사람이다. 선조 30년(萬曆 25년, 1597)에 參軍 신분으로 조선 원정에 나가게 되었다. 선조 31년(萬曆 26년, 1598)에 평안도 義州와 서울에서 한동안 머물다가 장안으로 귀국했고, 이듬해 장안에서 다시 서울로 와서 한동안 머물렀다.⁴ 조선에 있는 동안 吳明濟가 조선 시인의 시를 많이 뽑아서 결국 『朝鮮詩選』을 편찬했다.

선조 33년(萬曆 28년, 1600)에 吳明濟가 편찬한 『朝鮮詩選』이 간행되었다. 吳明濟는 「朝鮮詩選序」⁵에서 그가 『朝鮮詩選』을 어떻게 편찬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했다.

이 서문을 통해 吳明濟가 처음부터 『朝鮮詩選』을 편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우연

² 朴現圭, 『중국 명말 청초인 조선시선집 연구』, 태학사, 1998, p.12.

³ 조경남, 『난중잡록』 권3, 무술년 3월 11일 자주: 「游擊以上, 皆有接伴」

⁴ 朴現圭, 『중국 명말 청초인 조선시선집 연구』, 태학사, 1998, p.36.

⁵ 萬曆丁酉之歲, 司馬公贊畫東援朝鮮, 明濟以客從. 戊戌季春, 涉鴨綠, 軍于義州. 孟夏, 從司馬公獵於城南, 及坎馬敗. 值雨, 休于村舍, 遇李文學, 能詩, 解華語. 次日訪我于龍灣之館, 賦詩相贈. 於是文學輩稍稍引見, 因訪東海名士崔致遠諸集, 辭曰“小國喪亂, 君臣越在草莽幾七載, 首領且不保, 況於此乎?” 然有能憶者, 輒書以進, 凡二百篇. 及抵王京, 館於許氏. 伯仲三人: 曰簪, 曰箴, 曰筠. 以文鳴東海, 筠敏甚, 能誦東詩數百篇, 復得其妹氏二百篇. 而尹判書根壽亦多搜殘編, 所積盈篋. 己亥, 余自長安, 復征朝鮮, 館于李氏, 朝鮮議政德馨也, 雅善詩文, 益請搜諸名人集, 自新羅至今朝鮮, 共百餘家. 被覽之, 凡兩月, 得佳詩若干篇, 類而書之.

한 기회에 조선 문인을 만나면서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선조 31년(1598) 4월에 義州에서 李文學을 만나 시문을 수창했고, 일단의 조선 문인들이 기억해 적었던 조선시 2백편을 얻었다. 얼마 후 서울에서 허균 형제를 통해 허난설헌 시 2백수와 조선시 수백 편을 수집하게 되고, 다시 尹根壽로부터 많은 자료를 얻었다.

이듬해 그가 다시 조선을 방문했을 때 이덕무 집에 머물면서 신라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백여명의 시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게 되었다. 두 달이라는 열람 시간을 통해 『朝鮮詩選』이라는 책의 골격을 완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吳明濟는 『朝鮮詩選』을 계속 보충하여 인쇄 출판했다.

두 번째 전입은 萬曆 34년(선조 39년, 1606)에 발생했다. 그 해 명나라 정사 朱之蕃과 부사 梁有年은 皇長孫이 태어난 조서를 가지고 조선에 왔다. 조선 조정은 사신들을 맞으러 접반사인 柳根과 종사관 許筠을 보냈다. 3월 27일 朱之蕃이 嘉山 控江亭에서 허균에게 그의 누나의 시에 대해 물어보자, 허균이 『蘭雪軒集』을 그에게 주었다. 4월 20일 朱之蕃이 조서를 반포하는 임무를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碧蹄館에서 「蘭雪軒詩集小引」을 지어 허균에게 주었다. 부사 梁有年은 바빠서 귀국 도중에 『蘭雪軒集』의 서문을 쓰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중국으로 돌아간 뒤 허균이 보낸 『蘭雪軒集』을 받았고 그 해 12월 16일에 「蘭雪軒集題辭」을 작성했다. 『名媛詩歸』와 『列朝詩集』에 실려 있는 허난설헌 小傳에 따라 朱之蕃이 허난설헌의 시집을 중국으로 가져온 뒤 『蘭雪軒集』을 판각한 적이 있고 그 당시에 널리 전해졌다. 이를 통해 바로 朱之蕃와 梁有年 덕분에 허난설헌의 시와 문장이 중국에서 널리 유전되고 그녀도 중국 문단에 이름을 날리는 것을 알 수 있다.

3년 후, 즉 광해군 1년(萬曆37년, 1609) 명나라 사신 劉用 등이 조선에 가고 허균이 종사관의 신분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5월 10일에 劉用의 종사관 徐明이 허균에게 말하길, "북경에 있을 때 조선 허난설헌의 시가 천하제일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권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기에 책 한 권을 받고 싶다."고 하였다. 그래서 허균이 『蘭雪軒集』을 그에게 선물로 주었다. 다음날 劉用, 田康, 楊有土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허균에게 한 권을 달라고 했지만, 허균이 한 권만 가지고 있어서 먼저 劉用에게 주었다. 서울에 도착하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주겠다고 약속했다⁶.

이상의 사실을 통해 허난설헌의 작품이 남방위와 吳明濟를 통해 중국으로 전입되고 또 朱之蕃 같은 사신을 통해 중국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럼 중국 문헌에 수록된 허난설헌 한시가 대체 어떤 모습일 까? 우리가 다음 장에 살펴보도록 하자.

⁶ 朴現圭, 「明末清初文獻所錄朝鮮許蘭雪軒作品實況」, 『明清文學與性別研究』, 2002. p.427.

3. 허난설헌 작품의 중국문헌 수록상황

명말청초 허난설헌 작품이 수록된 중국 문헌은 총 11가지가 있다. 각각 吳明濟 편찬한 『朝鮮詩選』, 藍芳威 편찬한 『朝鮮詩選』, 『聚沙元倡』, 『蘭雪詩翰』, 『名媛詩歸』, 『古今名媛彙詩』, 『古今女史集』, 『列朝詩集』, 『明詩綜』, 『譯史記餘』, 『名媛詩緯初編』이다. 이런 문헌들은 허난설헌 한시 총 65제 173수, 문 한편 <廣寒殿白玉樓上梁文>를 수록했다. 한시의 형식은 주로 오언고시, 칠언고시, 오언율시, 칠언율시, 오언절구, 칠언절구 6가지가 있고 내용상 여자로서 낭군을 그리운 마음을 토로하는 것부터 도교사상이 많이 드러내는 것까지 아주 다양하다. 본절에서 시간순서와 중요성에 따라 허난설헌 작품을 수록하는 중국문헌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가. 吳明濟 편, 『朝鮮詩選』

吳明濟는 선조 32년(1599)에 『朝鮮詩選』의 기본 골격을 갖추고 서문을 작성하였다. 그 후 선조 25년(1602)까지 계속 증보하였으며, 그 해 초에 인쇄 출판하였다. 이 책은 몇 달 후에 조선 사신을 통해 한반도에 유입되어 조선 학자들이 열람했다. 지금 세상에 남아 있는 吳明濟의 『朝鮮詩選』은 朝鮮刊本이며, 북경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⁷

그 중에 수록되어 있는 허난설헌 작품은 다음과 같다.

형식	시제	수량
오언고시	感遇(3); 寄伯氏簪; 莫愁樂; 貧女吟; 築城怨	7
칠언고시	望仙謠; 湘弦曲; 四詩歌(4)	6
오언율시	寄女伴; 送兄箴謫甲山; 效李義山(2)	4
칠언율시	次伯氏望高臺; 塞上次伯氏; 贈星庵女冠; 宿慈壽寺贈女冠; 送宮人入道; 次孫內翰北里韻	6
오언절구	效崔國輔(3); 江南曲(2); 雜詩(3)	8
칠언절구	遊仙曲(14); 塞上曲(5); 宮詞(4); 竹枝詞; 楊柳枝詞(3)	27
총계		58

⁷ 朴現圭, 『중국 명말 청초인 조선시선집 연구』, 태학사, p.55.

나. 藍芳威 편, 『朝鮮詩選』

지금 세상에 전해지는 藍芳威 편, 『朝鮮詩選』의 판본은 淸抄本이며, 북경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서지사항을 살펴보면, 정유란 동안에 자료를 수집한 남방위의 『朝鮮詩選』은 당시 중국 문인 祝世祿·吳知過·韓初命의 교열을 거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장본은 남방위의 稿本이 아니고, 청초에 다시 초록한 것이다. 권수제에 ‘조선고시’라고 쓰여 있고, 판심제에서 ‘朝鮮詩選’이라고 기술되어 있다.⁸

남방위의 『朝鮮詩選』에 수록되어 있는 허난설헌 작품은 다음과 같다.

형식	시제	수량
오언시	有所思; 望仙謠; 鳳凰曲; 古別離; 感遇(3); 宿伯氏筠; 莫愁樂; 筑城怨; 貧女吟(2)	12
칠언고시	望仙謠; 湘弦曲; 四詩歌(4); 弄潮曲; 山鷓鴣詞; 山嵐	9
오언율시	寄女伴; 送兄箴謫甲山; 效李義山(2); 出塞曲(2)(허균 항목에 수록됨)	6
총계		27

다. 『聚沙元倡』

허난설헌의 작품인 『聚沙元倡』 부분은 萬曆간본 『亘古鈔』 중 「外篇」 권3 「仙倡」에 수록되어 있다. 萬曆간본 중 권3수제의 편교자 부분에 '天都逸史冰華生輯/涵清閣主人子木校' 라고 적혀 있다.

편수에 萬曆 무신(36년, 선조 41, 1608)에 기록한 반지항의 「朝鮮慧女許景樊詩集序」가 있고, 그 옆에 한 단 낮추어 공사가 추록한 서문이 있다. 그 다음에 '聚沙元倡 朝鮮士女許景樊著'라고 기술되어 있다.⁹

그 중에 수록되어 있는 허난설헌 작품은 다음과 같다.

형식	시제	수량
오언고시	望仙謠; 有所思; 風台曲; 古別離; 感遇(3); 雜詩(2); 寄伯氏筠; 少年行; 哭子; 遣興(2)	14

⁸ 鄭志良, 「金英淑, 「潘之恒所刊朝鮮許蘭雪軒的作品《聚沙元倡》」, 『古籍研究』 제3집, 2001.p44.

⁹ 朴現圭, 「1597년 허균(許筠) 선록본 허난설헌 『난설시한(蘭雪詩翰)』 고찰」, 『漢文學論集』 제43집, 2016.p.224.

칠언고시	望仙謠; 湘弦曲; 洞仙謠; 翠袖啼痕; 四時歌(4); 弄潮曲; 山鷓鴣詞; 山嵐	11
오언율시	寄女伴; 送兄箴謫甲山; 效李義山(2); 出塞曲(2)	6
칠언율시	次伯氏原野望(3); 贈見星庵女冠; 宿慈壽宮贈女冠; 送宮人入道 次孫內翰北里韻; 次伯氏籍; 送伯氏籍朝天; 步虛詞; 春日有懷; 天壇; 次仲氏高原堂台韻; 次仲氏見星庵韻	14
오언절구	效崔國輔(3); 江南曲(4); 雜詩(3); 長干行; 賈客詞(2); 相逢行; 怨情(2); 莫愁樂; 筑城怨; 貧女吟(2)	20
칠언절구	塞上曲(5); 宮詞 (18); 游仙曲(51); 步虛詞(7); 竹枝詞(4); 楊 柳枝(4); 閨情; 映月樓; 聞笛; 橫塘曲; 秋禱詞(2); 閨怨(2); 秋恨; 塞下曲(2); 入塞曲; 青樓曲; 城上行	103
총계		168

라. 『蘭雪詩翰』

『蘭雪詩翰』은 1597년(선조 30)에 허균이 선록한 또 하나의 허난설헌 작품집이다. 청 관庭芬이 초록한 『待淸書屋雜鈔』에 수록되어 있고 지금 중국 天津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待淸書屋雜鈔』는 동치 초에 관庭芬이 여러 차례 나누어 자신의 장서나 주변 장서가의 책자를 빌려 중요한 부분을 뽑아 초록하여 성책한 것이다. 1862년(동치 1) 11월에 성책한 『待淸書屋雜鈔·보편』에 허난설헌의 시집인 『蘭雪詩翰』이 수록되어 있다.¹⁰⁾

『蘭雪詩翰』에 수록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형식	시제	수량
오언고시	有所思; 鳳臺曲; 古別離;	3
칠언고시	弄潮兒; 山鷓鴣詞; 山嵐; 次伯氏箴	4
칠언율시	送伯氏箴; 步虛詞; 望高臺次伯氏	3
오언절구	長干行; 賈客詞; 相逢行; 江南曲; 閨情	5
칠언절구	映日樓	1

¹⁰⁾ 朴現圭, 「明末淸初文獻所錄朝鮮許蘭雪軒作品實況」, 『淸明文學與性別研究』, 2002, p.429.

총계	16

마. 『名媛詩歸』

『名媛詩歸』는 후대 시선집에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이다. 편집자 鍾惺은 자가 伯敬이고, 호가 退穀이며, 竟陵 사람이다. 이 책은 총 36권이고, 역대 여성 시작을 수록한 시가총집이다. 이 책의 간행 시기는 주지번이 사신으로 조선에 갔다 온 뒤로 추정된다. 지금 북경도서관, 산서성도서관 등 여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¹¹

그리고 이 책의 작품 배열방식은 한시 형식별 아니고 작가별이다. 이 책에 수록된 허난설헌의 시작품은 다음과 같다.

형식	시제	수량
오언고시	有所思; 望仙謠; 古別離; 寄仲氏箴; 遣興; 少年行	6
칠언고시	山嵐; 弄潮曲; 四時歌(4); 湘弦謠; 洞仙謠	8
오언율시	效李義山体(2); 效沈亞之體; 寄女伴; 出塞曲	5
칠언율시	送伯兄箴朝天; 皇帝有事天壇; 步虛詞; 次仲兄筠見星菴韻; 次伯兄高原望高台韻; 次仲兄筠高原望高台韻; 望高台次伯兄箴韻; 送宮人入道; 次仲氏箴; 贈見星菴女冠; 宿慈壽宮贈女冠; 次孫內翰北堂韻	12
오언절구	相逢行; 雜詩(3); 效崔國輔; 貧女吟	6
칠언절구	步虛詞; 宮詞(6); 塞下曲; 楊柳枝詞; 竹枝詞(2); 閨情; 映月樓; 秋恨; 登樓; 游仙詞(16)	31
총계		68

바. 『古今名媛彙詩』

『古今名媛彙詩』는 명대 문인 鄭之昂이 편찬한 것이다. 鄭之昂은 자가 季卿이고, 閩中 사람이다. 이 책은 총 20권이고, 張正岳이 명 泰昌 원년(광해군 12년, 1620)에 판각한 것이다. 지금 북경도서관, 북경대학교도서관 등 여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¹²

¹¹ 朴現圭, 「明末清初文獻所錄朝鮮許蘭雪軒作品實況」, 『明清文學與性別研究』, 2002, p.430.

¹² 朴現圭, 「明末清初文獻所錄朝鮮許蘭雪軒作品實況」, 『明清文學與性別研究』, 2002, p.432.

이 책에는 许兰雪轩, 俞汝舟妻, 李淑媛, 成氏 등 조선여성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허난설헌의 작품은 다음과 같다.

형식	시제	수량
오언고시	有所思; 望仙谣; 古别离; 寄仲氏箴	4
칠언고시	山嵐; 湘弦谣; 洞仙谣	3
오언율시	效李義山体; 效沈亚之体; 寄女伴	3
칠언율시	次仲氏箴; 皇帝有事天坛; 次仲氏高原望高台韵; 送宫人入道 次仲氏见星菴韵; 又次仲氏高原望高台韵	6
오언절구	雜詩(3)	3
칠언절구	登楼; 游仙词(12); 塞下曲; 宫词(4); 闺情; 映月楼; 竹枝词; 秋恨	22
총계		41

사. 『古今女史集』

명나라 문인 赵世杰이 편찬한 『古今女史集』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역대 여성 산문작품을 모은 『古今女史前集』이고, 두 번째 부분은 시를 수록한 『古今女史诗集』이며, 세 번째 부분은 작가 생애를 기록한 『姓氏里詳節』이다. 주요 편집자인 赵世杰은 자가 問奇이고, 武林 사람이다. 이 책도 朱錫綸, 江之進, 周上傑의 교열을 거쳤다. 서수에 명 崇禎 원년(인조 6년, 1628)에 朱錫綸의 서와 赵世杰의 범례가 적혀 있다. 이 책은 지금 북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남경도서관에는 『古今女史前集』만 남아있다.¹³

『古今女史前集』에 수록된 조선 여성 작품은 허난설헌의 「廣寒殿白玉樓上梁文」뿐이고, 『古今女史诗集』의 조선 여성 시 작품은 모두 『古今名媛彙詩』로부터 나왔다. 허난설헌의 시작은 아래 표와 같다.

형식	시제	수량
오언고시	有所思; 望仙谣; 古别离; 寄仲氏箴	4

¹³ 朴现圭, 『중국 명말 청초인 조선시선집 연구』, 태학사, 1998, p.65.

칠언고시	山嵐; 湘弦謠; 洞仙謠	3
오언율시	效李義山体; 效沈亞之体	2
칠언율시	次仲氏筇; 皇帝有事天坛; 次仲氏高原望高台韵; 送宫人入道 次仲氏见星菴韵; 又次仲氏高原望高台韵	6
오언절구	雜詩(3);	3
칠언절구	登樓; 游仙詞(12); 塞下曲; 宮詞(4); 閨情; 映月樓; 竹枝詞; 秋恨	22
총계		40

아. 『列朝詩集』

『列朝詩集』은 명 대학자 錢謙益이 편찬한 것이다. 錢謙益은 자가 受之이고, 호가 牧齋, 虞山이며, 常熟 사람이다. 그의 『列朝詩集』은 전6집인데, 금 元好問의 『中州集』을 좇아 명대 시인 약 2천여 명의 대표작을 수록한 시선집으로 순치 9년(효종 3년, 1652)에 편찬되었다. 지금 북경도서관, 상해도서관 등 여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¹⁴

『列朝詩集』운집 제6편에는 <조선>이라는 편명이 있다. 여기에는 고려, 조선 시인 42명의 시 170수가 수록되어 있다. 허난설헌의 작품은 다음과 같다.

형식	시제	수량
오언고시	古別離; 感遇(3); 寄伯氏筇; 凤台曲	6
칠언고시	望仙謠; 湘弦曲; 四時歌(4)	6
오언율시	寄女伴; 送兄箴謫甲山	2
칠언율시	次伯兄高原望高台韵; 塞上次伯氏	2
오언절구	效崔國輔	1
칠언절구	塞下曲; 西陵行	2
총계		19

¹⁴ 朴現圭, 「明末清初文獻所錄朝鮮許蘭雪軒作品實況」, 『明清文學與性別研究』, 2002, p.435.

자. 『明詩綜』

『明詩綜』은 총 100권이고, 朱彝尊이 강희 44년(숙종 31년, 1705)에 편찬한 대형 명시 선집이다. 朱彝尊은 자가 錫鬯이고, 호가 竹垞이며, 浙江 秀水 사람이다. 이 책의 편집 동기는 이전에 錢謙益이 편찬한 『列朝詩集』이 자의적으로 선별하여 문호에 얽매어 공정치 못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¹⁵ 이 책은 당시에 매우 유명하여 『四庫全書』와 『四庫全書薈要』에 수록되었다. 지금 중국과학원도서관 등 여러 공공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¹⁶

『明詩綜』 권95에 <高麗>, <朝鮮>(上, 下) 편목으로 나누어 해동시인 90여 명의 시작이 수록되어 있다. 허난설헌의 시작은 <朝鮮>(下)에 있고 다음과 같다.

형식	시제	수량
칠언고시	望仙謠	1
칠언율시	次仲兄筠高原望高台韵; 次仲兄筠高原望高台韵	2
오언절구	效崔国辅; 杂诗	2
총계		5

차. 『譯史記餘』

『译史记余』는 청초 학자 陸次雲이 편찬한 것으로, 해외문학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지금 남경도서관과 상해도서관 등 여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译史记余』 권2에는 조선시인 23명의 시 총 42수가 수록되어 있다. 그중에서 여성 시인은 허난설헌, 이숙원, 성씨, 유여주의 아내, 덕소씨 등 5명이 있다. 허난설헌의 작품은 다음과 같다.

형식	시제	수량
오언고시	古別離; 感遇; 凤台曲	3
칠언고시	湘弦曲	1
오언율시	送兄箴谪甲山	1
칠언율시	无题	1

¹⁵ 朴现圭, 『중국 명말 청초인 조선시선집 연구』, 태학사, 1998, p.84.

¹⁶ 朴现圭, 「明末清初文献所录朝鲜许兰雪轩作品实况」, 『明清文学与性别研究』, 2002, p.440.

칠언절구	游仙曲; 宫词(3)	4
총계		10

카. 『名媛诗纬初编』

『名媛诗纬初编』은 명 대학자 王思任의 딸인 王端淑이 편찬한 것이다. 王端淑은 자가 玉映이고, 호가 映然子이며, 山陰 사람이다. 이 책은 전 42집이고, 여성문인이 편찬한 여성 시선집이다. 이 책의 편찬은 명 崇禎 12년(인조 17년, 1639)부터 시작하여, 청 康熙 3년(현종 5년, 1664)에 완성됐다. 지금 북경대학교도서관, 사천성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¹⁷

『名媛诗纬初编』 권28(外集)에는 허난설헌, 이숙원, 성씨, 유씨의 아내, 덕소씨 그리고 여자로 오인한 월산대군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허난설헌의 시작품은 다음과 같다.

형식	시제	수량
오언절구	雜詩; 貧女吟	2
칠언절구	宫词(2); 塞下曲; 杨柳枝词; 竹枝词	5
총계		7

4. 중국문헌과 조선각본 『蘭雪軒集』의 자구대비와 분석

1). 자구대비

중국문헌과 조선각본 『蘭雪軒集』을 서로 비교해 보고 詩題 차이 예시와 字句 차이 비율, 그리고 『蘭雪軒集』 미수록 작품 이 세부분으로 나뉘 다음 표와 같이 정리했다.

번호	중국 문헌	詩題 차이 예시	字句 차이 비율	『蘭雪軒集』 미수록 작품
1	吳明濟 『朝鮮詩選』	1. 送兄箴謫甲山→效李義山 2. 塞上次伯氏→次仲氏	11.37% (246/2164)	없음

¹⁷ 朴現圭, 「明末清初文獻所錄朝鮮許蘭雪軒作品實況」, 『明清文學與性別研究』, 2002, p.440.

		高原望高臺韻		
2	藍芳威『朝鮮詩選』	1.宿伯氏筠→寄荷谷	12.67% (130/1026)	<有所思>,<望仙謠>,<鳳凰曲>,<古別離>,<弄潮曲>,<山鷓鴣詞>,<山嵐>
3	『聚沙元倡』	1.湘絃曲→湘絃謠 2.次伯氏高原野望三首→次仲氏高原望高臺韻(4) 3.贈見星庵女冠→次仲氏見星庵韻 4.天壇→皇帝有事天壇 5.城上行→堤上行	10.49% (511/4872)	<望仙謠>,<有所思>,<鳳台曲>,<古別離>,<翠袖啼痕>,<弄潮曲>,<山鷓鴣歌>,<山嵐>,<次伯氏筠>,<送伯氏筠朝天>,<步虛詞>,<次仲氏高原堂台韻>,<怨情>,<宮詞> 중 1个,<遊仙曲> 중 3个,<閨情>,<映月樓>,<聞笛>
4	『蘭雪詩翰』	望高臺次伯氏→次仲氏高原望高臺韻	30.88% (42/136)	<有所思>,<鳳台曲>,<古別離>,<弄潮兒>,<山鷓鴣歌>,<山嵐>,<次伯氏筠>,<送伯氏筠>,<步虛詞>,<閨情>,<映日樓>,<望仙謠>,<有所思>,<鳳台曲>,<弄潮曲>,<山嵐>,<送伯兄筠朝天>,<步虛詞>,<次仲氏筠>,<閨情>,<映月樓>,<登樓>
5	『名媛詩歸』	1.次仲兄筠見星菴韻→次仲氏見星庵韻 2.次仲兄筠高原望高台韻→次仲氏高原望高臺韻其二 3.望高台次伯兄筠韻→	9.05% (205/2266)	

		次仲氏高原望高臺韻 其四 4.贈見星菴女冠→次仲氏見星庵韻		
6	『古今名媛集詩』	次仲氏見星菴韻→次仲氏見星庵韻	4.18% (52/1244)	〈望仙謠〉, 〈有所思〉, 〈古別離〉, 〈山嵐〉, 〈登樓〉, 〈閨情〉, 〈映月樓〉
7	『古今女史集』	次仲氏見星菴韻→次仲氏見星庵韻	3.90% (47/1204)	〈望仙謠〉, 〈有所思〉, 〈古別離〉, 〈山嵐〉, 〈登樓〉, 〈閨情〉, 〈映月樓〉
8	『列朝詩集』	感遇(其三)→遣興 送兄箴謫甲山→送荷谷謫甲山 次伯兄高原望高臺韻→次仲氏高原望高臺韻其一	6.20% (50/806)	〈古別離〉, 〈鳳台曲〉, 〈望仙謠〉, 〈湘弦曲〉
9	『明詩綜』	塞上次伯氏→次仲氏高原望高臺韻 其三 次伯兄高原望高台韻→次仲氏高原望高臺韻	13.54% (13/96)	〈望仙謠〉, 〈次仲兄筠高原望高台韻〉
10	『譯史記餘』	无題→步虛詞	18.18% (40/220)	없음
11	『名媛詩緯初編』	없음	5.56% (10/180)	없음

이 표를 통해 중국문헌에 수록된 허난설헌 작품과 『蘭雪軒集』에 있는 것이 차이가 많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원인에 대해 다음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그리고 중국문헌에 있고 『蘭雪軒集』에 나타나지 않는 한시 19제 22수를 찾아냈다. 각각 〈望仙謠〉, 〈有所思〉, 〈鳳台曲〉, 〈古別離〉, 〈翠袖啼痕〉, 〈弄潮曲〉, 〈山鷓鴣歌〉, 〈山嵐〉, 〈次伯氏箴〉, 〈送伯氏箴朝天〉, 〈步虛詞〉, 〈次仲氏高原堂台韻〉, 〈怨情〉, 〈宮詞〉, 〈遊仙曲〉, 〈閨

情>, <映月樓>, <聞笛>, <登樓>이다. 그 중에서 <宮詞>와 <遊仙曲>는 『蘭雪軒集』에 있는 시제이고 각각 20수와 87수를 수록되어 있었다. 중국 문헌에는 <宮詞>18가 수록되고 그 중에서 한 수가 『蘭雪軒集』에 없다. 그리고 <遊仙曲> 51수가 수록되어 있고 그 중에 3 수가 『蘭雪軒集』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 연구할 여지가 있고 허난설현의 문학세계를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한다.

2).분석

중국 문헌에 수록된 허난설현 작품들을 분석해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한 부류는 조선각본 『蘭雪軒集』에 보이거나 자구 차이가 있는 것이고 다른 한 부류는 타인의 작품을 취하여 변형시킨 것이다.

먼저 전자인 조선각본 『蘭雪軒集』에 보이거나 자구 차이가 있는 부류의 작품을 살펴본다. <보허사> (『蘭雪軒集』 <夢作>), <망고대차백씨> (『蘭雪軒集』 <次仲氏高原望高臺韻>), <장간행>, <상봉행>, <강남곡>등이 여기에 속한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두드러진 예로 3편의 시만을 들어서 설명하도록 한다.

첫째, 조선각본 『蘭雪軒集』에 수록된 <四時歌·秋歌>이다. 이 시는 원래 16구가 있는데 중국문헌에는 전 12구만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은 총 5개의 선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자구 차이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선 제1구 “紗厨寒逼殘宵永”의 경우, “紗厨爽氣殘宵迥”(吴明济 『朝鮮詩選』), “紗厨爽氣殘宵迥”(藍芳威 『朝鮮詩選』), “紗厨爽氣殘宵迥”(『聚沙元倡』), “紗厨爽氣殘宵迥”(『名媛詩歸』), “紗厨爽氣殘宵迥”(『列朝詩集』)이다. 다음으로 제11구 “含啼寫得一封書”의 경우, “含啼自草別離難”(吴明济 『朝鮮詩選』), “含啼自草別離難”(藍芳威 『朝鮮詩選』), “含啼却寫別離輕”(『聚沙元倡』), “含啼却寫別離輕”(『名媛詩歸』), “含啼自草別離難”(『列朝詩集』)이다.

둘째, 조선각본 『蘭雪軒集』에 수록된 <寄女伴>이다. 이 작품은 총 6개의 선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자구 차이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선 경련의 출구 “寒沙初下雁”의 경우, “寒沙新過雁”(『吴明济 『朝鮮詩選』), “寒山新過雁”(藍芳威 『朝鮮詩選』, 『聚沙元倡』, 『名媛詩歸』, 『古今名媛彙詩』, 『列朝詩集』)이다. 다음으로 미련의 출구 “一夕紗窓閉”의 경우, “寂寞窓紗掩”(吴明济 『朝鮮詩選』, 『聚沙元倡』), “寂寞紗窓掩”(藍芳威 『朝鮮詩選』), “一夕紗窓閉”(『名媛詩歸』, 『古今名媛彙詩』), “寂寞窓紗掩”(『列朝詩集』)이다.

셋째, 6개의 중국 시선집에 수록된 <雜詩>이다. 이 시는 조선각본 『蘭雪軒集』에의 이름이 <遣興>이고 형식이 오언율시이다. 중국문헌에는 그 중에 4구만 뽑아서 오언절구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雜詩·其一¹⁸>(『吴明济 『朝鮮詩選』)는 <遣興·其一¹⁹>의 제1구, 제

¹⁸ 许兰雪軒, <雜詩>, 『朝鮮詩選』. “梧桐生嶧陽, 鳳取爲鳴琴, 一彈再三嘆, 舉世無知音”.

4구, 제5구, 제6구를 뽑아 만든 것이다. 그 중에 제5구“琴成彈一曲”의 경우, 吳明濟 편찬한 朝鮮詩選에는 “一彈再三嘆”이다. 그런데 중국 시선집간의 자구차이가 별로 없다.

위와 같이 중국문헌과 조선각본 『蘭雪軒集』에 기술된 동일 작품을 대비해보면 글자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같은 중국 시선집으로서 문헌이나 판본에 따라 글자가 달리 기술된 현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그 차이의 정도가 통상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다.

허난설헌 작품을 수록하는 중국 문헌과 조선각본 『蘭雪軒集』은 모두 직접이나 간접으로 허균을 통해 편찬한 것이다. 특히 吳明濟의 『朝鮮詩選』, 藍芳威의 『朝鮮詩選』, 『蘭雪詩翰』 같은 책은 모두 허균이 관여한 책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자 차이가 크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이겠지만, 허균이 편찬한 허난설헌 문집의 과정에서 단서를 찾아본다.

1589년(선조 22) 허난설헌이 죽기 직전에 恨 많은 세상과 함께 모든 것을 떠나보겠다는 심정으로 자신의 모든 작품들을 다비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허균이 누이의 작품이 불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 자신이 암송하고 있거나 다른 곳에 남아있던 작품들을 찾아 정리하여 『蘭雪軒藁』를 편찬했다. 『蘭雪軒藁』는 시기적으로 먼저 편찬된 책자이기에 초편본이라고 칭한다.

이듬해에 허균은 『蘭雪軒藁』를 柳成龍에게 보여주고 발문을 청했고, 곧이어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황급히 피난을 떠나는 바람에 유성룡 발문을 잃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란이 끝난 근 10년이 되는 1608년(선조 41)에 허균은 扶安 披香堂에서 그동안 모았던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여 『蘭雪軒集』이라는 책명으로 판각했다. 『蘭雪軒集』은 시기적으로 나중에 편찬된 책자이기에 후편본이라고 칭한다.

허균은 평생 누이 허난설헌의 작품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각고의 노력을 펼쳤다. 허균은 명조 인사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허난설헌 작품을 소개하였다. 정유재란 시기에 많은 명군들이 한반도로 들어오자, 허균은 조선시에 관심을 많은 명군 인사들과 만나 허난설헌 작품을 건네주었다. 당시 명군 남방위, 吳明濟는 허균 또는 제삼자를 통해 허난설헌의 자료를 입수했다.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 똑같이 1598년(선조 31)에 편찬되기 시작하여 1600년(선조 33)에 완성 간행되는 吳明濟의 朝鮮詩選과 藍芳威의 朝鮮詩選, 그리고 1597년(선조 30)에 편찬되는 『蘭雪詩翰』 모두 초편본 『蘭雪軒藁』 계통이다. 『聚沙元倡』은 대체 1611년에 완성 간행됐지만, 책에 실려 있는 서언에 따라 潘之恒이 책을 편찬할 때 藍芳威의

¹⁹ 許蘭雪軒, <遺興> 제1수, 『蘭雪軒集』. “梧桐生嶧陽, 幾年傲寒陰, 幸遇稀代工, 勵取爲鳴琴, 琴成彈一曲, 舉世無知音, 所以廣陵散, 終古聲埋沈.”

朝鮮詩選을 참고했다. 그래서 『聚沙元倡』 또 초편본 계통에 속하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해 이 4 권의 책들이 『蘭雪軒集』과의 자구 차이율도 높다. 그 후에 나타나는 시선집들은 거의 모두 주지번이 조선에서 돌아온 뒤에 편찬하기에 주지번 가져온 『蘭雪軒集』과 전에 나타나는 다른 시선집을 동시 참고하고 작성하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 시선집들이 모두 후편본에 속하고 자구 차이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초편본과 후편본은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허균이 『蘭雪軒集』을 판각할 때 허난설헌 작품을 대폭 손질을 가했음을 알 수 있다.

『蘭雪軒集』에서 허균이 손질을 가한 내역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저자 논란이 있는 작품을 삭제했다. 앞서 타인의 작품을 따서 변형한 전자 부류의 작품이 여기에 속한다. 허균이 혹시 향후 저자 논란이 야기될까봐 삭제시켰지 않았나 생각된다. 다른 하나는 수록 작품의 글자를 손질했다. 앞서 조선각본 『蘭雪軒集』에 보이거나 자구 차이가 있는 후자 부류의 작품이 여기에 속한다.

다음으로 후자인 타인의 작품을 취하여 변형시킨 부류의 작품을 살펴본다. <유소사>, <봉대곡>, <고별리>, <산자고사>, <산람>, <영일루>, <규정> 등이 여기에 속한다. 예를 들어,

<有所思>

朝亦有所思 아침에도 임 생각

暮亦有所思 저녁에도 임 생각

所思在何處 사모하는 임은 그 어디에 있는가

萬里路無涯 만리 길이라 끝이 없네

風波苦難越 고된 풍파에 건너가기 힘들고

雲雁杳何期 구름과 기리기도 기약하기 묘연하네

素書不可託 편지를 맡겨 부칠 곳이 없어

中情亂若絲 속마음은 실타래처럼 엉켜버렸도다

허난설헌의 <유소사>는 고대 문학에 널리 사용된 악부체를 활용해서 임을 기다린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노래했다. 사랑하는 임이 만 리나 멀리 떨어져 있고, 소식이라도 전할 수 있는 길도 없다. 오로지 기약할 없는 만남을 무작정 기다리는 여인의 속마음은 실

타래처럼 엉켜 풀어갈 수 없다. 이 시는 月山大君 李婷의 <有所思>²⁰를 변형한 것이다. 제1구와 제2구는 당 劉雲의 <유소사>에서 사용한 문구인데, 이정, 허난설헌도 습용했다. 제3구는 이정의 <유소사>와 일치하고, 제4구, 제5구, 제6구, 제8구는 한 두 글자만 차이가 있다. 제7는 다르게 기술되었으나, 내용 전개가 비슷하다.

<鳳臺曲>

秦女侶簫史 진나라 여인 弄玉이 簫史와 짝이 되어

日夕吹參差 아침저녁으로 불어되네

崇臺騎彩鳳 높다란 누대에서 고운 봉황을 타고 가니

渺渺不可追 아득하여 쫓아갈 수 없도다

天地以永久 천지가 영구하다고 하지만

那識人間悲 인간의 슬픔을 어찌 알리오

妾淚不可忍 첩의 눈물은 참을 수 없으니

此生長別離 이 생애에서 오래 이별해 있네

허난설헌의 <봉대곡>은 악부체를 활용해서 이별의 아픔을 노래했다. 시속의 여인은 한 때 낭군과 함께 弄玉과 簫史처럼 통소를 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낭군이 떠나간 이래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낭군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여인은 천지가 영구하다고 하지만 오랜 이별에 처 있는 인간의 아픔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하며 몸부림쳤다. 이 시는 金宗直의 <鳳臺曲 昭帝上官后>²¹를 변형한 것이다. 제1구~제2구, 제5구~제10구는 김종직의 <鳳臺曲 昭帝上官后>와 일치하거나 한자 정도 다르다.

위와 같이 중국 문헌에 수록하는 작품이 타인의 작품에 비해 변형된 자수는 적게는 1자, 많게는 2십여 자가 된다. 변형된 자수가 많은 작품은 제외하더라도 자수가 적은 작품은 필경 문제가 있다며 논란의 가십거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를 들면 <고별리>는 최

²⁰ 李婷, <有所思>, 『續東文選』 권3: “朝亦有所思, 暮亦有所思, 所思在何處, 千里路無涯, 風潮望難越, 雲鴈託無期, 欲寄音情久, 中心亂如絲.”

²¹ 金宗直, <鳳臺曲 昭帝上官后>, 口佔畢齋集口 권19. “秦女儷簫史, 日夕吹參差, 崇臺遺鏡匳, 巾袖雲披披, 暮伴鳳凰宿, 朝侶鳳凰嬉, 天地以永久, 那識人間悲, 妾淚不可忍, 此生長別離.”

경창의 <고의> (제1수)와 전체 30자 중 29자가 똑같고, 오직 1자만 다르다. 또 <규정>은 이달의 <송인>과 전체 20자 중 19자가 똑같고, 오직 1자만 다르다. 각각 두 작품 사이의 다른 1자도 의경이 비슷하여 동일한 작품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까? 혹자는 후대 편찬자의 단순 오류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타인의 작품을 취하여 변형시킨 작품의 숫자가 꽤나 많고 일부는 타인의 작품과 의경이 똑같은 점에서 혹시 표절의 의혹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예로부터 허난설헌 작품이 표절 또는 허균의 위작설에 휩싸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조선 金時讓, 洪萬宗, 金萬重, 명 沈無非, 청 錢謙益, 柳如是 등이 표절 또는 위작설을 제시했다.

표절이라는 판단 기준이 여러 가지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자가 의도적으로 타인의 작품을 취할 생각을 가졌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존 자료만으로 표절 여부나 귀책 책임자를 가려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허난설헌의 모든 작품은 허난설헌이 스스로 남긴 것이 아니고, 허난설헌이 자신의 작품을 다비하라는 유언 이후에 허균이 머릿속에 기억해내었거나 타처에 남아 있는 작품을 모아 편집한 것이다. 또 허균이 어떠한 의도성이 없이 문제가 있는 작품을 허난설헌의 작품으로 오인해서 선록했을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설령 상기 일부 작품이 표절이라고 판단하더라도, 허난설헌이나 허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가 힘들다.

옛 사람들이 창작을 임하는 태도는 오늘날과 무척 다르다. 시를 지을 때 옛사람의 구절을 습용하더라도 몇 글자를 바꾸어 자신의 감정을 담아 의경을 달리 해서 환골탈태하여 새로운 작품으로 바뀌게 된다. 변형된 작품 가운데 몇 글자를 바꾸어 놓아 의경을 새롭게 창출해내는 작품도 있다. 예를 들면 <봉대곡>가운데 변형된 제3구~제4구의 의경은 김종직 <鳳臺曲 昭帝上官后>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피리의 아름다운 선율이 봉새를 타고 멀리 떠나버려 인간이 쫓아갈 수 없다는 안타까운 모습을 담고 있다. 또 <차백씨봉> 의 둘째 단락이 허봉의 <次舍兄韻> 둘째 단락을 따왔지만, 다른 단락은 모두 의경을 새롭게 창출했다.

종합하면 중국 문헌에 수록된 허난설헌 작품 중 일부 작품은 전인의 작품을 거의 똑같이 차용했기에 표절 의혹의 논란에서 완전 벗어나기 힘들다. 다만 이들 작품이 반드시 표절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할 필요가 없다. 독자에 따라 새롭게 창출해내기 위해 부분 차용했다고 달리 생각해볼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적자면 현존하는 허난설헌의 일부 작품이 표절 경계선의 안팎에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허난설헌의 모든 작품이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필요가 없다. 허난설헌의 상당수 작품이 주옥같이 빼어난 수준을 구사한 창작품이다. 앞으로 표절 논란이 되는 작품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한 옥석을 가려서 허난설헌 작품의 진가를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5.결론

허난설현은 조선조 여성 문학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녀가 살았던 조선 중엽은 여성은 아무리 능력이 대단하더라도 문학활동이 허용되지 않던 시기였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허난설현은 자유로운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과 자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고뇌로부터 작가의식을 싹틔워 뛰어난 작품들을 창작하였고 한국 한문학사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허난설현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에 따라 모든 작품을 다비에 부쳤지만, 동생 허균에 의해 기억되거나 남아있던 작품을 모아 『蘭雪軒藁』를 편찬했다. 곧이어 발생한 임진왜란으로 그동안 모았던 자료가 일부 유실되었으나, 나중에 허균의 노력으로 다시 새롭게 편찬되어 1608년(선조 41)에 『蘭雪軒集』이 관각되었다. 오늘날 유통되고 있는 허난설현 문집은 모두 1608년 조선각본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 선조 31년(萬曆 26년, 1598)에 援軍의 신분으로 조선에 온 남방위와 吳明濟를 통해, 허난설현의 작품이 처음으로 중국 시선집인 『朝鮮詩選』에 수록되어 중국 문단에 등장했다. 광해군 원년(萬曆 37년, 1609)에 사신으로 조선에 온 정사 주지번은 허균에게서 『蘭雪軒集』 한 권을 얻고 귀국 도중에 「蘭雪軒詩集小引」을 지어 허균에게 주었다. 부사 梁有年은 바빠서 귀국 도중에 『蘭雪軒集』의 서문을 쓰지 못했지만 그가 중국으로 돌아간 뒤 허균이 보낸 『蘭雪軒集』을 받았고 그 해에 「蘭雪軒集題辭」을 작성했다. 주지번과 梁有年 때문에 허난설현 작품에 정식적으로 중국에서 이름을 날리게 됐다. 이후에 허난설현 작품을 수록한 시선집이 중국에 끊임없이 나타났다.

허난설현의 전문적인 시집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1597년에 허균이 선록한 『蘭雪詩翰』이고 다른 하나는 반지향이 편찬한 『聚沙元倡』이다. 『蘭雪詩翰』은 청 管庭芬이 초록한 『待淸書屋雜鈔』에 선록되어 있고 그 속에 허난설현 한시 16수가 있다. 『聚沙元倡』은 萬曆 각본 『互古鈔』중 「外篇」 권3 「仙侶」에 수록되어 있고 그 안에 총 169수 허난설현의 한시가 있다.

광해군 12년(태창 원년, 1620)에 鄭文昂이 편찬하고 장정악이 관각한 『古今名媛彙詩』가 나와 책 속에 허난설현 작품 총 68수 수록되었다. 순정 원년(1628)에 조세걸이 『古今名媛彙詩』와 당시 유행한 『蘭雪軒集』을 참조하여 『古今女史集』을 편찬했다. 『古今女史集』은 『古今女史前集』, 『古今女史詩集』, 『姓氏里詳節』이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허난설현의 「廣寒殿白玉樓上梁文」과 한시 40수를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명대 대학자 종성의 『名媛詩歸』는 허난설현 작품 68수를 뽑히고 가장 많은 작품이 수록된 시선집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책 속에 허난설현에 대한 인물 해제가 후대 시선집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다.

명말 청초 王端淑이 편찬한 『名媛詩緯初編』에 수록된 허난설현 한시는 총 68수 이고

대부분 시가 『名媛詩歸』에 나왔다. 청 순치 9년(효종 3년, 1652)에 판각한 錢謙益의 『列朝詩集』은 허난설헌 한시 19수를 수록하고 주로 吳明濟 편 『朝鮮詩選』과 鍾성의 『名媛詩歸』 등 여러 시선집을 참고하여 편찬한 것이다. 청초 陸次云이 편찬한 『譯史記餘』 중에 있는 허난설헌 작품은 총 10수 이고 주로 錢謙益의 『列朝詩集』에서 나왔다. 강희 44년(숙종 31년, 1705)에 朱彝尊이 편찬한 『明詩綜』은 주로 『名媛詩歸』와 『列朝詩集』을 저본으로 삼고 허난설헌 한시 5수만 수록했다.

중국 문헌에 수록하는 허난설헌 작품은 총 65제 173수이고 그 중에 19제 22수가 조선각본 『蘭雪軒集』에 실려 있지 않았다. 수록되는 작품의 유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온다. 하나는 타인의 작품을 취하여 변형시킨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각본 『蘭雪軒集』에 보이나 자구 차이가 있는 것이다. <유소사>, <봉대곡>, <고별리>, <산자고사>, <차백씨봉>, <산람>, <영일루> 등은 타인의 작품을 취하여 변형시킨 전자 사례에 속한다. 변형된 작품을 분석해보면 원작과 거의 똑같고 변경된 글자의 의경도 비슷하여 표절 판단의 경계선 안팎에 놓여있는 것도 있고, 반대로 타인의 작품을 취하데 의경을 달리하고 환골탈태하여 새로운 창작품으로 보이는 것도 있다. <보허사>, <망고대차백씨>, <장간행>, <상봉행>, <강남곡> 등은 조선각본 『蘭雪軒集』에 보이는 후자의 사례에 속한다. 吳明濟 편찬한 『朝鮮詩選』, 藍芳威 편찬한 『朝鮮詩選』 그리고 『蘭雪詩翰』 등과 조선각본 『蘭雪軒集』은 모두 허균이 직접 관여한 문집인데, 문헌들 사이의 글자 차이가 크다. 이러한 현상은 1608년(선조 41)에 허균이 후편본 『蘭雪軒集』을 판각할 때 기존 작품에다 대폭 손질을 가했던 데에서 나왔다.

참고문헌

- 許蘭雪軒, 『蘭雪軒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藍芳威, 『朝鮮詩選全集』, 미국 버클리대학장 조선각본.
 吳明濟, 『朝鮮詩選』, 중국 국가도서관장 조선각본.
 許蘭雪軒, 『蘭雪詩翰』, 중국 천진도서관장 管庭芬초록본.
 潘之恒, 『亘古鈔』, 철강성도서관 명각본
 托名鍾惺, 『名媛詩歸』, 명각본, 《四庫全書存目叢書》 제339집
 鄭之昂, 『古今名媛匯詩』, 태창6년 장정악 각본.
 趙之杰, 『古今女史集』, 남경고서관장 명각본.
 錢謙益, 『列朝詩集』, 上海古籍出版社, 1983年版.
 朱彝尊, 『明詩綜』, 上海古籍出版社影印四庫全書本, 1993.
 陸次云, 『譯史記餘』, 叢書集成初編, 제375집, 1985.

- 王淑端, 『名媛诗纬初编』, 청 강희년간 청음당 각본.
- 朴现圭, 『중국 명말 청초인 朝鮮詩選집 연구』, 태학사, 1998.
- 朴现圭, 「明末清初文献所录朝鲜许兰雪轩作品实况」, 『明清文学与性别研究』, 2002.
- 朴现圭, 「1597년 허균 선록본 허난설헌 『蘭雪詩翰』 고찰」, 『漢文學論集』 제43집, 2016.
- 郑志良, 「金英淑, 「潘之恒所刊朝鲜许兰雪轩的作品《聚沙元倡》」, 『古籍研究』 제3집, 2001.
- 董景玲, 「许兰雪轩诗歌创作研究」, 中央民族大学硕士论文, 2011.
- 杨玉, 「朝鲜才女许兰雪轩的诗作及其在中国的流传」, 『烟台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1999.
- 俞士玲, 「朝鲜许兰雪轩诗与明清中国女性文学——以徐媛诗歌创作为中心」, 『深圳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2015.
- 刘学军, 「东亚文学交流视野中的许兰雪轩与朱之蕃——《列朝诗集小传》“许妹氏”条发微」, 『文学遗产』, 2015.
- 金鲜, 「韩中女性的死别研究——许兰雪轩与丁宁的比较」, 『温州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6.
- 张宏生, 「模拟之风与主流意识——许兰雪轩诗歌新论」, 『中国文化研究』, 2008.
- 张伯伟, 「朝鲜时代女性诗文集的文献问题考论」, 『中山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0.
- 이원상, 「허난설헌의 한시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석사논문, 2016.
- 金仁貞, 「許蘭雪軒의 漢詩 研究 : 僞作是非 및 作品 再解釋에 主眼하여」, 단국대학교석사논문, 2003.
- 김계숙, 「許蘭雪軒 研究 : 漢詩를 中心으로」, 전주대학교석사논문, 1989.
- 최승옥, 「許蘭雪軒의 漢詩 研究」, 조선대학교석사논문, 2002.
- 김명희, 「許蘭雪軒 詩文學研究」, 東國大學校박사논문, 1987.
- 장인애, 「허난설헌의 시문학 연구」, 세종대학교박사논문, 1995.
- 김상남, 「許蘭雪軒의 漢詩 研究」, 全南大學校석사논문, 1981.
- 임현주, 「蘭雪軒 文學研究」, 全南大學校석사논문, 1987.
- 김희정, 「許蘭雪軒 漢詩의 素材 研究」, 東國大學校석사논문, 2002.

「허생전」에 투영된 박지원의 경제사상

--서구경제학이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李雪景

<목 차>

1. 서론
2. 독점경제의 위험성 제시
3. 자유무역 발전에 대한 동경
4.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
5. 결론

요 약

본고는 연암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에 투영된 그의 경제사상을 독점경제, 자유무역, 분산투자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서구 경제학이론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당시 서구 사회의 경제번영을 이끌었던 경제학 이론들은 오늘날까지도 인류사회발전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연암의 경제사상은 당시 사회적, 문화적 요소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경제문제를 해결 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문학작품속 담론으로 소비되는 데 그쳤다는 등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농주의 사상이 지배적이었던 폐쇄된 동양에서, 특히 조선이라는 불모지에서 서구 경제학이론과 일맥상통하는 그의 경제사상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그 가치는 높이 평가받을 만 하다. 이러한 연암의 경제사상이 그저 실학사상의 한 갈래로만 평가되고 더 넓은 세계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며 본고는 서구 경제학이론과의 비교를 통해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키워드: 허생전, 박지원, 경제사상, 경제학이론

1. 서론

조선후기 특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구조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는 사람들의 세계관 및 의식체계가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봉당정치가 심화되었고 취약한 경제구조는 백성들의 삶을 피폐해지게 하였으며 성리학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질서의 해체가 시작되면서 실학이 등장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시기에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상을 고민한 지식인—연암 박지원의 경제사상을 서구 경제학이론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폐쇄적이었던 조선에 반해 당시 서양사회는 그야말로 대변혁, 대변화의 시기였다.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선언 등 세계사에서 굵직한 사건들을 시작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하기 시작하였고 기계가 본격적으로 생산에 도입됨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유럽사회는 계몽운동 시대에 들어서면서 수많은 사상가와 학자들이 배출되었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애덤 스미스¹의 『국부론』을 시작으로 경제학이 성립되었고 수많은 경제학 이론들이 오늘날까지도 인류사회발전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서구의 경제학 이론이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개항기에 이르러서였지만 경제사상은 꾸준히 발전되어 왔고 특히 실학과의 경제사상은 상당히 체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그중 연암의 단편소설인 「허생전(許生傳)」에 투영된 그의 경제사상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연암의 경제관은 동시대 서구 경제학자들의 이론과 비슷한 부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방면의 비교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연암은 소설에서 독특하고 풍자적인 표현수법으로 당시 조선사회의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²고 보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선행연구는 주로 연암의 실학사상이 작품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가³ 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중한 양국을 중심으로 경제사상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되었지만⁴ 세계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연암의 경제사상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그 한계가 있다. 하여 본고는 독점경제, 자유무역, 분산투자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서구 경제학 이론과의 비교를 통해 「허생전」에 녹아있는 연암의 경제사상, 그 특징과 의의에 대해 재조명하고 그의 사상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고찰하기 위함 그 목적을 두려 한다.

「허생전」은 연암 박지원(燕巖 朴趾源, 1737-1805)의 대표작중 하나인 『열하일기(熱河日記)』 「옥갑야화(玉匣夜話)」에 수록되어 있는 한문 단편소설로서 가난한 선비 허생원

¹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 최초로 경제학 분야를 개척한 스코틀랜드의 철학가이자 경제학자이며 그의 저서인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은 지금까지도 경제학의 교과서 역할을 한다.

² 郝君峰, 陈冰冰. 朝鲜文人朴趾源“以兵喻文”的文学创作观. 2013, 30(4):12-16.

심재구, 「박지원의 소설에 나타난 풍자대상과 성격 고찰」, 2011, 31쪽.

³ 陈冰冰. 论朴趾源的实学思想. 2013, (1): 109-117.

송혁기, 「연암문학의 발견과 실학의 지적 상상력」, 2009:457쪽.

⁴ 李丹. 韩国古典小说解读-浅析「许生传」中所反映的经济现象. 2006, (237): 214.

양재석, 「연암 박지원의 경제사상」, 2007, 11쪽.

이 부자 변씨에게서 만냥을 빌려 매점매석(買占賣惜)⁵을 통해 큰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도적들을 무인도에 불러모아 이상사회를 만들려고 시도하다 그만두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 북벌론을 주장하는 무능한 관리를 비판하고 사라지는 이야기를 줄거리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허생전」은 上海書店出版社의 『熱河日記』를 근간으로 하되 고미숙의 『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에 수록되어 있는 한글번역본을 중심으로 한국고전번역원(한국고전종합DB)의 한문원본 및 한글번역본을 참고할 것이다.

2. 독점경제의 위험성 제시

「허생전」에서 허생이 매점매석을 통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사회, 경제 구조적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허생전」 작품내 시대배경은 조선 효종(재위 1649~1659) 연간이지만 연암이 실제로 살았던 작품 창작시기는 정조(재위 1776~1800) 연간으로 전후로 한세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작품에 정조 때 상황 역시 많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조선은 경제구조가 폐쇄적이었고 국내 여러 마을 역시 서로 고립되어 있어 상품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독점경제의 타격에 특히 취약했다. 허생이 선택한 물건들은 대추, 감, 배 등 과일과 말총이었는데 이런 양반계급의 생활 필수품들은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수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물자를 독점하여 쉽게 폭리를 취할수 있었던 것이다. “고작 돈 만금에 한 나라가 휘청거리니, 이 나라 경제 규모가 얼마나 얇박한지 짐작할만하구나.⁶” 혹자는 “산물 여러가지 중에서 어떤 그 하나를 슬그머니 독점해 버린다면 ...중략... 뒷세상에 나랏일을 맡은 이들이 행여 나의 이 방법을 쓰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 나라를 병들게 하고 말 걸세.⁷”등 표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연암은 기초 물자들마저 이토록 쉽게 독점할 수 있고 고작 만금(萬金)이라는 소규모 자본에도 힘없이 흔들리는 취약한 조선의 경제구조와 참담한 조선의 경제상황을 우려하였다. 또한 연암은 소설에서 누구나 손쉽게 물자를 독점하여 물가를 좌지우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조선의 경제체도를 폭로하였고 지배계층이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은 결국 나라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고 하며 독점경제의 위험성을 경계(警戒)하였다. 부자 변씨라는 캐릭터의 설정도 흥미롭다. 「허생전」에서 변씨는 변승업(卞承業)이라는 사람의 조부로 나오는데 변승업은 역관 우두머리 신분으로 일본에 다녀온 바 있는 실존 인물이다. 당시 역관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원인도 바로 무역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허생의 조력자로서 등장하는 변씨 가문 역시 독점에

⁵ 매점매석은 독점을 목적으로 물자를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그 물자가 부족하여 가격이 올랐을 때 매각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⁶ 『熱河日記』. 上海書店出版社. 1997.310頁.

“許生喟然嘆曰, 以萬金傾之, 知國淺深矣”

⁷ 『熱河日記』. 上海書店出版社. 1997.311頁.

“一貨潛藏, 百買涸, 此賊民之道也, 後世有司者, 如有用我道必病其國”

의해 원시자본의 축적을 이룩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당시 소수사람에 의한 독점경제가 만연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독점경제가 위험한 이유는 그 피해가 결과적으로 피지배계층에게 간다는데 있다. 물가가 올라가면 지배계층은 자신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 부담을 고스란히 피지배계층에게 전가할 것이고 세수부담의 증가는 백성들의 삶을 궁핍해지게 하여 결국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제약한다. 이렇게 연암은 「허생전」을 통해 당시 조선의 경제구조의 취약성과 독점경제의 폐단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암의 경제사상은 서구 경제학 이론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고전경제학파의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독점경제의 위험성을 밝히고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시장경제구조를 만들 것을 주장하였다. 스미스는 자본에 대해 논할 때 산업자본이 요구하는 자유경쟁이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에 인도되어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킨다고 설명하여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하였다⁸. 또한 신고전 경제학의 대표인 마셜⁹등 학자들의 주장 역시 스미스 이론의 계승과 발전으로서 그들은 수요와 공급, 생산자와 소비자에 입각하여 동태적으로 시장경제이론을 발전시켰다.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자유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새로이 부각시킨 바 있는 경제학자 하이에크¹⁰도 그의 저서인 『노예의 길(Road to serfdom)』에서 생산수단이 특정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독점되는 것은 위험하며 경제발전을 제약한다고 주장하였다¹¹. 총체적으로 보면 2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서구 자유주의 경제학 이론은 독점경제를 반대하고 자유방임과 시장경쟁을 추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경제이론은 서구사회에서 봉건경제의 해체와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형성에 촉매제 역할을 하였고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한 역사시기에 부동한 역할을 발휘했던 그들의 경제이론은 지금에 와서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하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서구 경제학 이론중의 일부 주장이, 특히 18세기 당시 서구 사회에서도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스미스 등 학자들의 경제사상이 동시대를 살았던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조선의 문인이었던 연암의 「허생전」에 반영된 견해와 일치한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성리학을 건국이념으로 세워진 봉건왕조의 문인으로서 연암은 그 시대적 사회적 한계도 보여주는데 바로 이상적인 경제구조와 독점경제의 위험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스미스로부터 하이에크에 이르는 경제학자들은 체계적인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이론을 완성하였고 후세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지만 연암은 문학작품에서 자신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데 그쳤으며 당시 보수적인 조선 사회에서 그의 주장은 비주류였고 널리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데 그 차이가 있다. 그

⁸ Robbins L. The Theory of Economic Policy in English Classical Political Economy. 1978.

⁹ 알프레드 마셜 (Alfred Marshall, 1842~1924): 신고전과 경제학의 창시자로서 경제학을 인문복지를 위한 학문으로 파악하며 고전과 경제학 이론에 입각, 동태적으로 이를 분석했다.

¹⁰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 1899~1992): 오스트리아 경제학자로 화폐적 경기론과 중립적 화폐론을 전개하였고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모든 계획경제에 반대하였다.

¹¹ 고재철,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경제사상에 관한 연구』, 2009: 74쪽.

러나 서구 경제학 이론이 개황기에 이르러서야 한국에 전파 되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연암의 경제사상이 얼마나 진보적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소수의 대기업에 의해 자본과 시장이 독점되어 있고 최근 대기업의 횡포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권위 있는 옥스퍼드 사전에 한국의 대기업 형태로 ‘Chaebol(재벌)’이라는 단어가 따로 등재된 사실만 보아도 한국의 독점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이 바로 200여년전 연암이 고민했던 것들이며 이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경종(警鐘)을 울려주고 있다.

3. 자유무역 발전에 대한 동경

「허생전」에서 연암은 해외무역과 통항을 통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허생이 말한 바와 같이 “조선은 배가 외국과 통하지 못하고, 수레가 국내에 두루 다니지 못하여 모든 물자가 그 안에서 생산되고 그 안에서 소비되었다¹²⁾”. 즉 조선은 당시 해외무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통이 불편하여 경제활동은 주로 자급자족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허생은 과감히 무인도에서 “삼년 먹을 식량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長崎島)에 가서 팔았다. 장기도는 일본(日本)의 속주(屬州)로서 호수(戶數)가 31만이나 되는데, 마침 큰 흉년이 들었다. 허생은 가지고 간 식량을 풀어 사람들을 먹이고는 은(銀) 백만 냇을 얻었다¹³⁾”. 바로 농사를 지어 얻은 소출을 해외에 파는 대외무역을 하여 큰 수익을 낸 것이다. 또한 그는 무역을 진행할 때 일본의 장기도에 흉년이 들어 곡식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을 예측했고 수요에 따른 공급책을 마련하여 해외무역이라는 방식으로 원시자본을 상업자본으로 재활용하여 더 큰 부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내소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외국과의 무역을 통하여 경제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해외판로를 개척했다는 것은 연암의 시대를 앞서가는 국제적인 안목과 실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무인도에서 허생이 지향했던 이상사회는 바로 농업생산에 기반을 둔 상품경제와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조선은 여러 항구도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경제구조와 정책으로 인해 해외무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크지 않은 내수시장으로 인해 경제발전이 침체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무역은 경제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당대 진보적인 지식인이었던 연암은 이러한 조선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했고 해외무역이라는 대안을 그의 소설을 통해 표현하였던 것이다.

「허생전」을 통해 본 연암의 이러한 자유무역 사상은 서구 경제학자들이 제일 관심있

¹²⁾ 『熱河日記』. 上海書店出版社. 1997. 311頁.

“此易知耳，朝鮮，舟不通外國，車不行域中，故百物生于其中，消于其中”

¹³⁾ 『熱河日記』. 上海書店出版社. 1997. 310頁.

“留三年之儲，餘悉載舟往糶長崎島，長崎者，日本屬州，戶三十一萬，方大饑，遂賑之，獲銀百萬”

게 다루었던 이슈중의 하나였다. 자유무역 이론의 시초인 애덤 스미스는 산업자본의 마지막 단계로 해외무역을 지목하면서 각국이 다른 나라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만 생산해서 서로 교환하면 무역쌍방이 모두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절대우위론’을 제시하였고 리카도¹⁴는 스미스 이론을 더욱 구체화하여 해외무역을 경제발전의 제일 큰 동력이라고 인정하였다. 또한 그는 「정치경제학 및 과세원리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에서 처음으로 ‘비교우위론’을 도입하여 자유무역이 보장되는 전제하에서 한 국가의 자본과 노동력은 그 국가에 가장 유익한 영역으로 흘러갈 것이고 불리한 영역은 수입으로 대체할 것이며 이를 가장 이상적인 경제상태로 보았다. 훗날 하벌러¹⁵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s) 관점에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진일보 발전시켰고 이는 ‘비교생산비의 법칙’이라고도 불리운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올린¹⁶은 모형에 자본을 추가하여 고전적 무역이론을 확장, 개선하였으며 이를 통해 비교우위의 발생원인과 생산요소의 소득분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자유무역 이론의 근대화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¹⁷. ‘헥셔-올린 모형 (Heckscher-Ohlin model)’에는 대외무역의 패턴을 설명하는 ‘헥셔-올린 정리 (Heckscher-Ohlin Theorem)’, 경제성장과 대외무역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립진스키 정리(Rybczynski theorem)’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자유무역 이론들은 탄생된 순간부터 서구사회 주요 경제정책으로 채택되어 국제무역의 핵심 이론으로서 지금까지도 국제무역의 발전방향을 좌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 글로벌화, 무역 자유화가 심화됨에 따라 GATT, WTO 등이 세계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또한 자유무역이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경제이론과 사상이 중농주의 사상과 폐관쇄국 정책이 지배적이었던 18세기 조선이라는 나라의 문학작품에 등장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연암의 자유무역 사상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에서도 당시 조선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날 한국경제 역시 제한적인 국내시장으로 인해 해외무역을 매우 의존적이며 한국의 글로벌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가 이러한 자신의 경제사상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없을 것을 알아서였을까, 연암은 자신의 해외무역을 통한 발전을 도모할데 관한 경제사상을 치국(治國)을 위한 견해가 아닌 소설의 한 부분으로만 취급하였다. 서구 경제학 이론과의 비교를 통해 바라보면 연암의 경제사상이 가지는 의의는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 다만 서구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 사상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 관

¹⁴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 노동가치설을 주장하였던 영국의 경제학자로서 애덤 스미스의 뒤를 이어 고전 경제학을 완성 하였다.

¹⁵ 하벌러(Gottfried von Haberler, 1900~1995): 오스트리아 출생의 미국 경제학자로서 기회비용 개념을 도입, 비교생산비 이론의 근대화에 이바지하였다.

¹⁶ 올린(Bertil Gotthard Ohlin, 1899~1979): 스웨덴의 경제학자로 북유럽학파에 속해 있으면서 '헥셔-올린의 정리'로 무역이론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고 197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¹⁷ Eaton J, S. Kortum, F. Kramarz. An Anatomy of International Trade: Evidence from French Firms. 2008.

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외무역을 격려할 것, 각국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하는 상품을 생산하여 무역할 것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런 이론들은 서구사회에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으며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연암의 경제사상과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4.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

「허생전」에서 주인공 허생은 상업활동을 시작할 때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분산투자를 진행한다. 부자 변씨가 허생에게 백만냥의 수익을 얻은 비결에 대해 물었을 때 허생은 “대체로 천 냥이란 적은 재물이어서 물건을 마음껏 다 살 수는 없겠지만 이를 열로 쪼갠다면 백 냥짜리가 열이 될지니 이를 가지면 아무래도 열 가지 물건이야 살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물건의 무게가 가벼우면 돌려 빼기 쉬운 까닭으로 한 가지 물건이 비록 밀졌다 하더라도 아홉 가지 물건에 이문이 남는 법이니 이는 보통 이문을 내는 길이요¹⁸⁾”라고 답한다. 다시 말해서 투자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한곳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 종목에 투자하라는 중요한 상업활동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는 흔히 수익과 손실의 가능성이 다 존재함으로 한가지 상품에 집중하다 보면 그 상품시장이 이상적이지 않을 경우 큰 손실을 보게 되는 반면 여러 곳에 투자를 한다면 그 중 몇가지 상품에서 손해를 본다고 해도 다른 상품에서 얻은 수익으로 손해를 대체 할 수 있다. 당시 조선사회를 살펴보면 경제정책이 폐쇄적이고 내수시장이 불안정하여 투자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만약 한 상품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였다면 불리한 시장추세를 미리 파악하고 그 자본을 전이하려 해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여 투자를 할 때 한 상품에 집중하지 말고 부동한 유형의 상품에 분산투자를 하여 수익과 손해가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라는 것이 연암의 주장이다.

이는 현대 금융학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중의 하나인 투자시 여러 종목에 위험분산을 하여 개개 종목의 위험을 서로 상쇄, 완화 하도록 하는 투자방법인 분산투자(diversified investments)이론과 매우 비슷하다. 바로 한곳에 투자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러곳에 분산투자하는 방법인 마코위츠¹⁹⁾의 ‘포트폴리오 이론 (Portfolio Theory)’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포트폴리오 이론²⁰⁾이 나오기 전만 해도 사람들은 높은 위험은 높은 수익률을, 낮은 위험은 낮은 수익

¹⁸⁾ 『熱河日記』, 上海書店出版社, 1997, 311頁.

“夫千金, 小財也, 未足以盡物, 然析而十之, 百金十亦足以致十物, 物輕則易轉, 故一貨雖絀, 九貨伸之, 此常利之道”

¹⁹⁾ 해리 마코위츠(Harry M. Markowitz, 1927~): 현대 투자이론의 기본을 이루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최초로 제시한 미국의 경제학자로서 1990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²⁰⁾ Markowitz, Harry M. Portfolio Selection. Journal of Finance. 1952.

를 기대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text{기대수익률: } E(R_p) = w_1 E(R_1) + w_2 E(R_2) \dots\dots\dots \text{식(1)}$$

$$\text{위험: } \sigma_p^2 = w_1^2 \sigma_1^2 + w_2^2 \sigma_2^2 + 2w_1 w_2 \text{cov}(R_1, R_2) = w_1^2 \sigma_1^2 + w_2^2 \sigma_2^2 + 2w_1 w_2 \rho_{12} \sigma_1 \sigma_2 \dots\dots \text{식(2)}$$

위의 식(1)과 같이 2개의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있을 때 w_1 은 자산1이 차지하는 비중, $E(R_1)$ 은 자산1의 기대수익률, σ_1 은 자산1의 분산, $\text{cov}(R_1, R_2)$ 는 두 자산의 수익률 간 공분산, ρ_{12} 는 두 자산수익률 간 상관계수를 나타낸다. 이 두 수식에 따르면 기대수익률은 각 자산 기대수익률의 가중합이고 위험은 각 자산수익률 표준편차에 가중치를 준 것의 제곱합과 각 자산수익률 간 공분산 혹은 상관계수에 의해 결정된다²¹. 포트폴리오 이론을 진일보 정형화한 제임스 토빈²²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는 말로도 유명한데 그는 소비함수에 대한 유동자산가설, 신고전과 성장이론의 정식화 등 경제학자로서 수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의 이론들은 투자시 위험분산을 권고하는 분산투자 사상을 기본으로 한다. 오늘날에 이르러 수많은 실제 투자 사례들이 이러한 분산투자 이론의 정확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 이론은 사람들의 투자행위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20세기에 이르러서야 학계에 등장하기 시작한 분산투자 사상이 200여년전 조선의 지식인-연암의 작품속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연암은 비록 체계적인 분산투자 이론을 제시한것은 아니지만 그의 소설 「허생전」에는 분산투자를 지향하는 경제사상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서구 사회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경제사상이 나타난 시기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사상의 불모지였던 당시 조선에서 연암의 투자관은 매우 진보적인 생각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당대 선비로서의 연암은 봉건사회 사대부의 상업사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허생이 분산투자자로 많은 돈을 벌고도 변씨에게 “그대는 어찌 날 장사치로 대우한단 말인가.”²³라고 화를 내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역시 당시 상업과 상인들을 비천하게 바라보는 성리학 사상의 영향력 범위에서 탈출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금융과 투자에 대한 개념이 생소했던 당시 조선에서 그의 진보적인 투자사상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그저 소설 중의 이야기 흐름을 타고 문학작품으로만 소비되었다는 사실은 서구 금융경제학 학계에서 분산투자 이론이 차지하는 영향력과 대조적이다. 포트폴리오 이론은 현재까지도 기초적인 투자학 이론으로 국제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의 투자행위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

²¹ 네이버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7565&cid=40942&categoryId=31825>, (2018.6.4 15:23pm)

²² 제임스 토빈(James Tobin, 1918~2002): 자산 선택 이론을 창시한 미국의 경제학자로서 금융시장 분석 관련 업적을 인정받아 198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²³ 『熱河日記』.上海書店出版社. 1997.311頁.
“君何以賈豎視我”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처음으로 증권시장이 개설되었던 1956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증시의 눈부신 변화와 발전이 분산투자 사상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투자관련 기초지식으로 여전히 포트폴리오 이론을 배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개념조차 희미했던 당시 조선에서 이러한 발상을 했다는 자체가 연암은 투자 및 상업활동에 있어 남다른 혜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고는 연암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을 통해 바라본 그의 경제관을 서구 경제학 이론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암의 당시 조선 경제구조의 취약성과 독점경제의 위험성에 대한 견해, 자유무역을 통한 발전을 이룩할 데 대한 판단,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 등 경제사상은 정약용, 박제가 등 학자들을 대표로 하는 실학과 경제사상의 한 부분으로 정조때 경제개혁과 조선후기 마지막 성세를 위해 이바지하였다. 조선시대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개혁군주의 돌연사(突然死)로 인해 조선의 마지막 불꽃은 그대로 사그라져 버리게 되었지만 연암의 경제사상은 그의 작품과 함께 오늘날까지 전해져 동아시아 문학과 사상계의 소중한 보물로 남았다.

연암의 이런 경제사상과 일맥상통하는 서구 경제학이론들이 인류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다. 고전경제학과, 신고전파, 신자유주의학과 등 경제학자들의 이론은 지난 몇세기 동안 서구 자본주의 경제번영을 이룩하였고 서구사회 변혁에 일조하였다. 또한 서양국가들로 하여금 대외확장의 길을 걸어 인류사회에 식민지 역사의 아픔을 남겨주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세계각국을 개방과 경제발전의 길로 인도하였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과 사상으로부터 자양분을 섭취하고 있다. 분산투자를 주장하는 포트폴리오 이론 또한 현대 금융학의 기저(基底)를 이룬 이론으로서 금융시장의 활성화와 투자행위의 규범화를 이끈 20세기 금융학계의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된다. 이에 비해 연암의 경제사상은 당시 사회적 문화적 요소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체계적인 경제이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그저 문학작품속 담론으로 소비되는 데 그쳤고, 경제문제를 해결 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전통 사대부의 사(士)의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등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성리학을 기반으로 중농주의 사상이 지배적이었던 폐쇄된 동양에서, 특히 조선이라는 불모지에서 자본주의 성격을 띤 그의 경제사상은 굉장히 진보적이며 그 가치는 높이 평가받을 만 하다. 또한 오늘날 한국의 독점경제가 만연하고 분산투자를 지향하며 해외무역에 의존적인 경제상황 등 양상에는 18세기 조선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서구에 비해 경제학 연구가 늦게 시작된 동아시아에서 그의 경제사상과 더불어 「허생전」이라는 작품은 더욱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연암의 경제사상이 그저 실학사상의 한갈래로만 평가되고 더 넓은 세계적인 시각에서 다뤄지지 않

았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며 본고는 서구 경제학이론과의 비교를 통해 그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미약하게나마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더욱 다양한 시선에서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고미숙, 『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 북드라망, 2013.
朴趾源著. 『熱河日記』. 上海書店出版社. 1997.

<국내문헌>

1. 陈冰冰. 论朴趾源的实学思想[J]. 当代韩国, 2013, (1): 109-117.
2. 陈晓文. 国际贸易理论发展思路及新趋向[J]. 国际商务(对外经济贸易大学学报). 2010(06).
3. 郝君峰, 陈冰冰. 朝鲜文人朴趾源“以兵喻文”的文学创作观[J]. 东疆学刊, 2013, 30(4): 12-16.
4. 李丹. 韩国古典小说解读-浅析「许生传」中所反映的经济现象[J]. 甘肃农业, 2006, (237): 214.
5. 刘旭蕊. 西方自由主义经济思想的演进及对经济发展的影响[D]. 云南: 云南财经大学, 2011. 10-15.

<국외문헌>

1. 강미현, 「박지원의 소설에 나타난 문학사상 고찰 -- <허생전> <양반전> <호질>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0, 8쪽.
2. 고재철,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경제사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73-87쪽.
3. 서영빈, 「중국의 시장경제체제와 조국통일」, 경기대학교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사상연구, 2000: 189-198쪽.
4. 송혁기, 「연암문학의 발견과 실학의 지적 상상력」, 한국실학연구, 한국실학학회(N/A), 2009: 447-484쪽.
5. 심재구, 「박지원의 소설에 나타난 풍자대상과 성격 고찰」,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31쪽.
6. 양재석, 「연암 박지원의 경제사상 - <한민명전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1쪽.
7. 하성란, 『조선후기 문학의 화폐경제 반영 양상』,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10쪽.
8. 두산백과, 포트폴리오 이론[DB/OL],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7565&cid=40942&categoryId=31825>, (2018.6.4 15:23pm)
9. Eaton J, S. Kortum, F. Kramarz. An Anatomy of International Trade: Evidence from French Firms. 2008.
10. Markowitz, Harry M. Portfolio Selection. Journal of Finance . 1952.
11. Marshall, Alfred, Pigou, A.C. Memorials of Alfred Marshall. The Present Position of Economics. 1885.
12. Robbins L. The Theory of Economic Policy in English Classical Political Economy. 1978.

18세기 전반기 조선인의 청나라 재상(災祥)에 대한 인식

왕미소

1. 서론

재상(災祥)은 재이와 상서를 가리킨다. 예전 사람들은 천인감응(天人感應) 사상의 영향을 받아 재상이 현실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¹, 또한 고대의 임금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여겼다². 즉 재상을 통해 권력자나 국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조선인의 청나라 재상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재상관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그들의 대청인식, 특히 청나라 국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으로 반영될 수 있었다.

18세기 전반기 청나라에는 재이와 상서 현상이 빈번히 나타나 조선 사신들도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조선 사신들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 뒤 조선 국내로 전파하였던 것이다. 현존하는 조선의 청나라 재상과 관련된 문헌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승정원일기> 중의 기록이다. 이런 기록들은 청나라에서 돌아온 사신들이 임금에게 복명할 때 재상을 직접 구술한 것이다. 그 외에 조선 역관(譯官)들은 1731년 청나라에서 <대의각미록(大義覺迷錄)>을 구입해 조선 국내로 들여왔다.³ <대의각미록>에는 청나라 재상의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⁴ 따라서 사신이 보고 들은 바와 <대의각미록>은 조선 군신들이 청나라 재상을 운운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둘째는 연행록 중의 기록이다. 이런 기록들은 조선 사신들이 연행길에서 직접 본 것이거나 몸소 체험하게 된 재상을 글로 서술하고 기록한 것이다. 이 기록들은 전파 과정에서 당대와 후세 사람들에게 청나라의 재상을 알리게 되었던 것이다. 셋째는 조선인의 개인 문집이다. 조선 문인들은 사신에게 배푸는 송별시와 증연서(贈燕序)에서는 청나라의 재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던 것이다. 본 논문은 이상의 조선 문헌에 비교적 많이 기재된 지진, 황하청(黃河淸), 천변(天變), 기린과 소생한 고목(枯木生) 등을 통해 재상에 관한 기록을 검토할 것이다.

¹ 朱熹:《四書章句集注》,《中庸章句》,北京:中華書局,1983年,33頁,“國家將興,必有禎祥;國家將亡,必有妖孽。”

² 沈約:《宋書》卷十四,《禮一》,北京:中華書局,1974年,352頁,“災祥之發,所以譴告人君。”

³ 승정원일기 717책 (탈초본 39책) 영조 7년 1월 25일 기축 12/12 기사,“覺迷錄,彼人,極其秘諱,雖頒佈於其國,外國則不欲示之,而首譯金益成,軍官韓門燦兩人,以私貨極力購得,誠為可尙。”

⁴ 沈雲龍:《近代中國史料叢書》第三十六輯,雍正《大義覺迷錄》,台北:文海出版社1966年,93-94頁,“朕即位之初,孝陵著草叢生,六年之秋,景陵芝英產於寶城山上,以至雙岐五秀之嘉禾,九穗盈尺之瑞穀,五星聚於奎壁,黃河淸於六省,駢實連株之應,卿雲甘露之祥,朕雖不言禎符,而自古史冊所豔稱而罕觀者,莫不備臻而畢具。”

2. 조선인의 청 재상에 대한 인식

조선인들이 재이를 청나라의 망국적 조짐으로 해석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청나라 상서에 대한 인식은 특별했다. 예로부터 상서는 공자와 같은 성인이 출현하거나, 하늘이 집권 위정자들에 대한 찬양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선인에게 있어서 청나라의 상서는 진인(真人)이 나온다는 징조일 수도 있으나, 이는 결코 하늘이 청황제에 대한 찬양이 아니었다. 본 연구는 조선인의 청 재상(災祥)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네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2.1 망할 징조인 재변

1730년쯤 북경에서는 대지진이 연이어 두 차례나 발생하였다. 그 지진에 대해, 그해 11월 영조는 재자관 이추(齎咨官李樞)의 수본(手本)을 본 뒤 매우 비정상적일 뿐 아니라 고대 사료를 살펴보아도 이번 지진만큼 심각한 전례가 없었다고 하였다.⁵ 판부사 이대좌(判府事李臺佐)는 고대의 일에 비추어 이번 지진을 왕께 고하였다. 원순제(元順帝)대 상도(上都)에 땅이 함몰되었는데, 그 일이 발생한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원나라가 망국하였다고 했다. 이번 청나라의 지진 역시 그때와 마찬가지로 매우 위중한 재난이라고 하였다. 영조는 청나라 황제가 반성을 잘했다면 어떻게 이토록 큰 재이를 초래했을까 하면서 단순한 수성(守成)인 책략만 취하지 않고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교하였다.⁶ 영조는 두 나라가 분야(分野)가 서로 같으므로, 전부터 치란(治亂)이 대부분 서로 관계가 있었다고 여겼던 것이다.

상술의 지진 이외에 조선 문인 안중관(安重觀)은 대사(臺史)와의 대화에서도 혜성, 일식 등 천문 현상의 이변을 언급하였다. 안중관이 보기에 혜성은 바로 옛것을 제거하고 새 시대를 펼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청나라가 망국할 징조였다. 뿐만 아니라, 정양의 달(正陽之月)인 4월에 나타난 일식도 청나라가 망국할 조짐이었다. 안중관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평소의 음양 경계선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식(日食)은 양(陽)이 음(陰)에 의해 억눌리고 있음을 뜻한다. 대사는 오랑캐가 천하를 차지했지만, 원래 음(陰)에 속한다고 했다. 반면 안중관은 이하(夷夏)의 구별대로 오랑캐는 물론 음에 속하지만, 한때의 존비(尊卑)대로 임금이 된 자는 양에 속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오늘날 오랑캐는 모든 백성들을 굴복시켜서 양에 속해야 하는데 일식의 징조대로 망국할 것이라고 했다.⁷

⁵ 승정원일기 714책 (탈초본 39책) 영조 6년 11월 24일 기축 10/10 기사.

⁶ 승정원일기 714책 (탈초본 39책) 영조 6년 11월 17일 임오 24/25 기사.

⁷ 安重觀:《梅窩集》卷七,《三星問答》,韓國文集叢刊續65, 2011年, 393-394頁.

2.2 청주(淸主)가 아닌 진인(眞人)을 위한 상서

“俟河之淸，人壽幾何”⁸라는 옛말처럼 사람이 황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리지 못한다. 영조 3년 조선 군신들은 황하청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민진원은 이 일을 지극히 이례적인 일로 치부하고 있었으며 영조는 황하청이라는 소문을 듣고 나서 하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하였다.⁹

견양(犬羊) 같은 무리들의 통치 하에 있는 황하가 어떻게 맑게 변할 수 있었을까? 만약 황하가 정말 맑아졌다면 청황제를 위한 것일까? 황하청에 대해서 옹정제는 표면상으로만 신하의 축하를 받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영조는 이런 실질적 의미가 없는 옹정제의 겸손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옹정제 스스로도 그의 통치 하에서 황하청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여겼다.¹⁰ 따라서 영조는 황하청은 청황제를 위해서 맑게 변한 것이 아니라고 여겼는데 이것은 그가 청황제가 황하를 맑게 할 수 있는 품성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¹¹

영조 외에도 청나라에 출사를 간 이의현(李宜顯)¹²과 한덕후(韓德厚)¹³는 기린의 소문을 들었을 때 중원이 이미 함락되었고 더러운 노린내를 확연히 맑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린이 탄생할 리가 없다고 여겼다.

만약 상서가 청황제를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면 누구를 위해 나타난 것인가? 그것은 진인을 위한 것이다.

안중관과 대사의 대화에서도 삼성이 순화(鶡火)에 모이게 된 것은 일종의 상서라고 언급하였다.¹⁴ 안중관은 유신(庾信)의 “值五馬之南奔，逢三星之東聚”¹⁵라는 말을 인용하여 삼성취(三星聚)는 진(晉)나라가 부흥하게 된 징조임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이번의 삼성취는 중화가 부흥하고 진인이 나올 조짐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삼성취를 제외하고 소생한 고목도 곧 진인을 가리킨다. 조선 사신들은 여행길에서 고목 한 그루를 발견하였는데 이 고목은 시들어 죽은 지 오래 되었지만 요즈음 다시 생기가 넘친다고 전해졌다. 또한 이 고목이 되살아나면 진인이 나오고, 진인이 나오면 여기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했다.¹⁶ 다른 상서들과 달리 고목은 공식적으로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신들이 청나라 현지인으로부터 듣고 난 후 다시 조선 국내로 전해지게 된 것이다. 필자는 공식 자료에서는 나무가 되살아나는 기록을 찾지 못했고, 후세의 사신들도 이 나무가 원래 마르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18세기 전반기의 조선인들은 이에 대해 상당

⁸ 楊伯峻：《春秋左傳注》，《襄公八年》，北京：中華書局，1990年，957頁。

⁹ 승정원일기 635책 (탈초본 34책) 영조 3년 윤 3월 2일 무오 28/28 기사.

¹⁰ 승정원일기 635책 (탈초본 34책) 영조 3년 윤 3월 2일 무오 28/28 기사.

¹¹ 승정원일기 714책 (탈초본 39책) 영조 6년 11월 17일 임오 25/25 기사.

¹² 李宜顯：《陶穀集》卷三十，《壬子燕行雜識》，韓國文集叢刊180-181，2005年，40-41頁。

¹³ 韓德厚：《承旨公燕行日錄》，《燕行錄全編》2輯8冊，2012年，359-360頁。

¹⁴ 安重觀：《悔窩集》卷七，《三星問答》，韓國文集叢刊續65，2011年，393-394頁。

¹⁵ 庾信撰，倪璠注：《庾子山集注》卷二，《哀江南賦》，北京：中華書局，1980年，104頁。

¹⁶ 閔鎮遠：《燕行錄》，《燕行錄全編》2輯4冊，2012年，328頁

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를테면, “농연양선생(農淵兩先生)”¹⁷ 중의 한 명인 김창흡(金昌翕)은 청나라에 한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고목의 존재를 굳게 믿고 있었으며 또한 황하와 같은 상서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¹⁸ 안동 김씨는 마치 정조의 말처럼 절의있는 인물이 많기로는 덕수 이씨와 연안 이씨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¹⁹ 1726년 김창업의 아들인 김신겸(金信謙)은 꿈 속에서도 황하청을 생각하였다.²⁰ 그만큼 안동 김씨를 비롯한 조선인들의 진인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상서들은 공자가 태어나기 전에 나온 기린과 같다.²¹ 오랑캐의 통치하에 있더라도 황하청 등 상서는 청주(淸主)가 아닌 청나라를 물리칠 수 있는 진인을 위해 나온 것이고 “성인이 나타나는 조짐(聖作之征)”²²이라 할 수 있다.

2.3 상서가 아닌 망할 징조인 재이

황하가 맑게 변하면 진인이 나오게 되고 고목이 되살아나도 진인이 나오게 되며 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조선인들이 보기에 이러한 상서는 새로운 왕조가 탄생할 조짐이자 청나라가 망국할 징조이기도 하였다. 즉 이런 상서는 청나라에 대한 재앙이지, 상서로운 징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18세기 전반기 청나라는 황하청, 기린, 소생한 고목, 오성취, 경운 등 상서들이 빈번히 나타났는데 이럴 때마다 청나라 조정에서는 중앙과 지방으로 하여금 효유(曉諭)하도록 하였다. 한덕후는 이에 대해 “何甚福祥之多也”라는 의구심을 나타냈으며 이런 상서들을 “白雉亡吳,黃犀死莽”이란 조짐으로 보았다. “白雉亡吳,黃犀死莽”이라는 두 사건이 일어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한덕후는 또 다시 원나라의 예를 들었다. 원나라 마지막 몇 해 동안 전국 각지로부터 황제에게 상서의 뜻을 지닌 공물들을 바쳤던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원나라가 망하고 명태조 주원장(朱元璋)이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한덕후는 청나라의 상서들이 아마도 청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여겼다.²³

한덕후 외에도 민진원(閔鎭遠)과 같은 경우는 고목 소문을 들은 후 “설마 이 소문이 ‘삼호망진(三戶亡秦)’이라는 예언과 유사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고목과 “삼호

¹⁷ 농연에 대해서 홍직필(洪直弼)은 <梅山集>에서 “農淵兩賢” “農淵二先生” “農淵兩先生”이라고 어유봉(魚有鳳)은 <杞園集>에서 “農淵夫子”라고 불렀다.

¹⁸ 金昌翕:《三淵集》卷十一, 韓國文集叢刊165-167, 2005年, 230頁.

¹⁹ 正祖:《弘齋全書》卷百七十一,《日得錄十一》, 韓國文集叢刊262-267, 2005年, 357頁, “信乎前後罕有之名閥, 而節義之多, 德水延安之李, 亦所不及也.”

²⁰ 金信謙:《櫓巢集》卷四,《雨淹蓮池村旬餘, 居人畫出, 柴扉寂然. 乍晴輒就溪上逍遙而歸, 適值濁醪新熟, 主媼歡飲, 隨感雜詠, 仿次飲酒韻. 二十首 其二十》, 韓國文集叢刊續72, 2011年, 171-172頁, “丙午冬, 夢遊河源, 水甚清淺. 手弄淪漪, 忻愛不已. 明年聞鞏洛間, 河清百餘裏.”

²¹ 승정원일기 714책 (탈초본 39책) 영조 6년 11월 17일 임오 25/25 기사, “非爲雍正而來, 有若麟出於孔子之時, 似徑先而來矣.”

²² 승정원일기 801책 (탈초본 44책) 영조 11년 5월 26일 을축 20/20 기사.

²³ 同13, “黃河清, 靈芝產, 慶雲出, 甘露降, 奏瑞相續, 隨輒表賀, 何甚符祥之多也. 是亦白雉亡吳, 黃犀死莽之類歟? 胡元之末, 郡縣爭報奇祥. 未幾太祖高皇帝應運開國. 今茲之瑞亦有所待出者歟? 是未可知也.”

망진”²⁴이라는 예언을 함께 연상시켰던 것이다. 삼호는 진승(陳勝), 항우(項羽), 유방(劉邦) 등 세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진(秦)나라를 멸망시킨 주역들이다. 민진원이 고목을 삼호망진이라는 예언에 비추어 생각한 것은 그 의미가 자명하다. 민진원은 직접 목격한 청나라가 세금이 매우 가벼워 백성들이 통치자를 별로 원망하지 않고, 조정이 군인에게 잘해줘 사병들의 투지가 하늘을 찌를 듯 높음으로써 국정이 안정적이고 멸망하기에 아직 멀었다고 판단했지만, 관료들이 뇌물을 요구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청나라 전역에서 재물을 탐하는 풍조가 크게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민진원은 청나라가 나중에 무너질 것이라고 단정했으며 이 소생한 고목은 바로 청나라의 국세가 불안정한 징조라고 하였다.²⁵

위의 서술을 간략히 요약하면 조선인이 보기에 청나라의 상서는 단순히 상서로운 조짐이 아니라 청나라에 다가올 멸망의 징조였던 것이다.

2.4 사실이 아닌 조작된 상서

조선 군신들은 상서 자체가 상서로운 조짐인지 아니면 재앙인지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상서를 통해 청나라 군신의 황당하고 무도한 행실도 주목하였으며 그들은 청나라 상서들은 군주에게 아부하기 위해 신하들이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일 수도 있다고 여겼다.²⁶ 이것은 청나라 조정은 황제가 상서를 좋아하고 신하가 아첨을 좋아하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1735년 5월 26일 영조는 각도의 구관 당상(句管堂上)에게 입대를 명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한선제(漢宣帝)대 봉황이 빈번하게 출현하는 일을 거론하였다. 사리 사욕을 꾀하고 자 한 한선제는 스스로 그 정사가 잘된 것으로 기뻐하였으며, 신하도 그러한 마음을 엿보고 앞다투어 상서를 바쳤다.²⁷ 이처럼 위에서 좋아하는 바가 있으면 아래에서는 반드시 더 심함이 있으니 참새라도 봉황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²⁸

이 대목에서 조선 군신들은 상서가 여러 차례 출현한 것을 선포한 옹정제 군신을 연상하게 되었던 것이다.²⁹ 1731년 동지사 서장관으로 출사를 다녀온 이일제(李日躋)는 유식한 사람들이 한선제대 만들어진 봉황과 같이 빈번히 나타난 청나라 상서를 비웃었다고 하였다. 영조도 이 말에 동의했으며, 청나라가 선전하는 황하청과 오성취 등의 징조가 성인을 위해 태어났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실제로 상서는 청황제가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

²⁴ 司馬遷:《史記》卷七,《項羽本紀》,北京:中華書局,1959年,300頁。

²⁵ 閔鎮遠:《燕行錄》,《燕行錄全編》2輯4冊,2012年,328頁,“第觀此地賦民甚輕,少無怨上之心。養兵甚厚,皆有欲戰之志,事勢似難動搖。但聞貪風大振,賄賂公行。不但宰執如此,皇帝亦然。昨聞齋咨官之言,曾前則所謂朝士者,雖有索賄之意。陽為作梗之狀。給賂後彌縫矣。今番則戶禮部郎中公言於渠曰必有賂物然後汝可速歸,渠無所齋不得應副,則牢鎖三十三日始給文書。臨發至欲搜檢行裝,以驗銀貨之有無,他胡有止之者,不果。此實前所未有之事,極可寒心雲。以此等事觀之,則枯樹或可有應耶?痛哉痛哉。”

²⁶ 승정원일기 714책 (탈초본 39책) 영조 6년 11월 17일 임오 25/25 기사.

²⁷ 승정원일기 801책 (탈초본 44책) 영조 11년 5월 26일 을축 20/20 기사.

²⁸ 승정원일기 801책 (탈초본 44책) 영조 11년 5월 6일 을사 23/23 기사.

²⁹ 승정원일기 801책 (탈초본 44책) 영조 11년 5월 26일 을축 20/20 기사

고팠던 그 마음만을 가졌기 때문에 신하들이 황제의 뜻에 영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더욱 인정하고 싶어했다.

마찬가지로 이의현은 소가 낳은 기린에 대한 논평에서도 청나라 신하들이 “妄飾奇跡, 極意媚悅”이라고 하였다. 그는 신하들이 아첨하고 군주가 우둔하면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³⁰

3. 조선인의 청 재상에 대한 인식의 연유

조선인의 청나라 재상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려면 그들의 대청인식과 재상관으로부터 논의해야 한다. 먼저, 조선인의 이러한 청나라가 필연적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인식은 호무백년(胡無百年)설인 역사 경험과 무산된 북벌을 대체한 일종의 희망 사항에서 기인하였다.

호무백년설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유래된 것으로 적지 않은 전적(典籍)에 기록되어 있다. 조선인들도 이에 대해 상당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특히 청나라가 건국된 지 백년이 된 18세기 전반기에 이 설은 매우 성행하였다. 사신들이 돌아온 뒤 영조는 청이 망할 조짐이나 황하가 맑게 변하였는지를 물었다.³¹ 문운(文運)이 세운(世運)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조선 사대부들도 사신에게 문운에 신경을 쓰라고 신신당부하였다.³² 조선 사신들은 이러한 심리적인 암시 속에서 적극적으로 청나라 망국 조짐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백년의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의 국력은 여전히 강했다. 따라서 호무백년설을 천리라고 여겼던 조선인은 백년이 지나가도 망하지 않는 청나라를 위해 다른 합리적인 설명을 찾아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테면 백년의 기한을 순정황제가 돌아간 해로 계산하면 안 된다고 여기거나³³, 혹은 청나라가 명나라의 법률과 문물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국운을 지탱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³⁴.

호무백년설 이외에, 재상이 망국의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은 무산된 북벌을 대체하는 조선인의 일종의 희망 사항에서 기인하였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계속 북벌을 시도하였는데 북벌이 조선 현실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막론하고 모두 조선 사회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효종의 죽음과 삼번의 난(三藩之亂)이 평정됨에 따라 청나라의 국력은 이미 조선으로서는 필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은 몽골이 청나라를 물리칠 수 있기를 바라고 시작하였다.³⁵ 하지만 몽골의 이

³⁰ 李宜顯:《陶穀集》卷三十,《壬子燕行雜識》,韓國文集叢刊180-181, 2005年, 40-41頁。

³¹ 肅正元일기 743책 (탈초본 41책) 영조 8년 5월 22일 무인 11/11 기사。

³² 李夏坤:《頭陀草》卷十八,《送徐平甫命均赴燕序》,韓國文集叢刊191, 2005年, 554-555頁;金信謙:《櫟巢集》卷八,《送黃子直赴燕序》,韓國文集叢刊續72, 2011年, 269-270頁。

³³ 金相定:《石堂遺稿》卷一,《桃樹問答》,韓國文集叢刊續85, 2011年, 25頁。

³⁴ 肅正元일기 1094책 (탈초본 60책) 영조 29년 5월 14일 기사 20/20 기사,“顯重曰, 卽今淸人, 專用明制, 而濟之以寬, 雖云胡無百年, 而至今保存, 蓋以此也。上曰, 盡用明制, 可謂智矣。”

³⁵ 英祖실록 31권, 영조 8년 2월 13일辛丑 3번째기사; 肅正元일기 808책 (탈초본 45책) 영조 11년 9월 14일 경술 20/20 기사。

단 소요 사태가 진압되면서 그 희망도 무너지게 되었다.³⁶ 따라서 출병하여 청나라를 토벌하고자 했던 소망은 의식 차원의 제사로 바뀌게 되었고 북벌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이때부터 조선인은 하늘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청나라가 스스로 망국을 자초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호무백년설과 북벌이 무산된 이후의 대체 심리 외에 조선인 자신의 재상관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또한 災異, 祥瑞, 災祥, 天人一理 등과 관련하여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 영조 부분에서 자료를 검색하였다. 그 검색 결과는 다음 표4-3과 같다.

표 3-1 영조대 재이와 상서를 언급한 횟수

	災異	祥瑞	災祥	天人一理
承政院日記	965	28	62	92
英祖實錄	138	1	5	6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인들은 천인합일(天人合一) 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재이란 하늘이 내린 경고라고 간주하였다. 따라서 재이가 생기면 신하들은 국왕에게 수성(修省)을 잘 하라고 권장하였고 국왕은 재앙을 그치게 할 수 있도록 신하들에게 구언하였던 것이다. 소위의 상서는 사실 국가를 다스리는 것과는 무관하고, 실제로 신하들이 군주에게 아첨하고 군주들이 스스로 자찬하는 데 쓰이는 도구일 뿐이었다.³⁷ 그들이 보기에 진정한 상서는 국태민안이었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주로 인군의 수성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³⁸ 따라서 조선인들은 청나라의 재해에 대해서는 자아 수성을 연상하게 되었으며, 청나라의 일련의 상서에 대해서는 위에서 좋아하는 바가 있으면 아래에서는 반드시 더 심하다고 비판하였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18세기 전반기 조선인들이 청나라 재이와 상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 왜 이런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였다. 다만 조선인이 본국에 대해서는 상서가 아닌 재이를 많이 이야기하며, 실무적이고 인군 수성을 중요시하는 반면에 이웃 나라에 대해서는 황하가 맑게 변하고 진인이 나오길 바라면서도 길가의 한 고목을 상서로 여기기도 하였다. 즉 조선인들은 결코 상서를 마다

³⁶ 成大中:《青城集》卷二,《見獵胡。次王右丞居延城外獵天驕韻》,韓國文集叢刊248, 2005年, 362頁,“未應胡運遞苻姚”。

³⁷ 승정원일기 656책 (탈초본 35책) 영조 4년 2월 22일 계묘 40/42 기사.

³⁸ 승정원일기 768책 (탈초본 42책) 영조 9년 11월 27일 갑진 23/24 기사.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이 상서는 오랑캐를 쫓아내는 진인에게 있어야 하며 상서가 누구를 위해 나타나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그들은 가정(嘉靖) 3년의 오성취(五星聚)인 상서는 율곡선생, 사계선생과 우암선생이 태어나고, 조선 이학이 크게 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³⁹ 따라서 조선인들은 상서를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말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상서는 자신이나 이웃 나라의 진인을 위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때의 국왕이나 자신들이 원망하는 청 황제를 위하면 안 된다고 여겼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인의 재상관 자체가 유연성과 자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영조 군신의 황하청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은 해석, 한원진의 오성취가 조선 도학이 크게 일으킬 징조라는 해석, 안중환의 음과 양에 대한 정의 등 예가 그 증거이다. 따라서 조선인의 재상관은 고정 관념이 아니라 조선 사대부 의사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조선 재상관은 사대부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인들의 상서에 대한 태도는 실제로 전부 ‘거부’로만 요약하면 안 된다. 조선 재상관은 방대하고도 체계적인 테마이다. 필자가 고찰한 것은 빙산의 일각인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조선 재상관, 특히 상서관의 변천사에 대해 더욱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³⁹ 韓元震:《南塘集》卷三十八,《外篇下》,韓國文集叢刊201-202, 2005年, 315-316頁。

<참고문헌>

1. 《朝鮮王朝實錄》
2. 《承政院日記》
3. 《韩国文集丛刊》
4. 《韩国文集丛刊续》
5. 司马迁：《史记》，北京：中华书局，1959年。
6. 沈云龙：《近代中国史料丛书》，台北：文海出版社，1966年。
7. 沈约：《宋书》，北京：中华书局，1974年。
8. 杨伯峻：《春秋左传注》，北京：中华书局，1990年。
9. 庾信撰，倪璠注：《庾子山集注》，北京：中华书局，1980年。
10. 朱熹：《四书章句集注》，北京：中华书局，1983年。

태극기에 나타난 중국 음양오행사상에 대한 연구

조철순

[요약]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서 서로 다른 문화가 늘 함께하는 시대이다. 문화 전쟁시대에 문화갈등도 빈번히 발생하며 인류평화를 위협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문화의 힘이 아주 필요할 때가 왔다.¹⁾ 또한 문화갈등을 없애고 인류평화를 수호하려면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할 때다. 이러한 시대 배경 아래 필자는 본 논문에서 태극기에 나타난 중국 음양오행사상을 팔괘, 태극원, 색채 등 세 가지 면으로 나누어 현대적 시각에서 분석, 연구해 보았다. 중국의 음양오행사상은 조화사상으로서 서로 낳고 낳으며, 서로 살리고 살리는 사상이다. 또한 음양오행사상은 지구촌의 다문화를 이해하고 상생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열쇠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태극기에 나타난 중국 음양오행사상을 통해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찾아낸 태극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제대로 밝혀 그 속에서 중국의 음양오행사상을 살피고 한중 양국의 안정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주제어] 태극기, 주역, 태극, 중국 음양오행사상

1. 서론

중국은 4대 문명 발상지 중의 하나이다.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 중국의 전통문화는 한국·베트남·일본 등 주변 국가의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한국은 역사적, 지리적인 관계로 인하여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 속의 다른 나라들보다 중국 문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본 논문은 한국 태극기에 나타난 중국 음양오행사상에 대해 분석, 연구해 본다. 이에 중국 주역에서 나타나는 태극의 의미와 동양 철학의 핵심어가 된 중국 음양오행사상에 대해 연구하고, 태극기를 통한 음양오행사상에 담긴 철학이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갈등과 위기를 해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필자는 믿고 이 논문을 쓰게 되었다.

1) 김동국 著,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시각으로 본 <열하일기>』, 2015.

태극기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태극기의 기원과 그것의 제도화, 국기(國旗)적 의미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기로서의 태극기에만 집중하여 태극기에 담긴 절묘한 중국 철학사상의 이치를 다루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들의 문제에 주의하여 필자는 본 논문에서 태극기에 나타난 중국의 음양오행사상에 대해 분석, 연구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또 태극기에 담긴 중국의 음양오행사상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요즘 들어 조선과 미국 쌍방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로의 관심을 해결하는데 힘을 쓰며 조선반도의 비핵화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조·미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더욱 기대되고 남북 교류와 협력도 갈수록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태극기에 나타난 중국 음양오행에 대한 연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더 나가서는 평화 통일에도 그 의미가 크다.

2. 본론

2.1 태극기

나라별로 국기는 그 나라의 건국이념이나 가치, 역사를 담은 독특한 상징이다. 한국 사람들에게 남겨진 보물지도가 여러 것이 있지만 그 중 오늘날까지 한국 사람 곁에서 생생히 숨쉬고 있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주 변화의 원리로서 동양 철학의 핵심인 중국 음양오행사상이 담겨 있다는 태극기이다.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대외적인 압박과 조약이 이어지면서 한국을 표방할 국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당시 조선 왕조의 통치자인 고종²⁾은 일본의 압박 속에서도 한국 고유의 정신성과 가치를 내걸 수 있는 태극기를 국기로 내세웠다.

태극기 전체로는 우주와 영원히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는 한민족을 상징한다. 태극기는 흰색 바탕의 중앙에 음(陰, 靑)·양(陽, 紅) 양의(兩儀)가 포함된 일원상(一圓相)의 태극이 있고 건(乾)·곤(坤)·감(坎)·이(離)의 4괘가 네 귀에 배치된 구조이다. 흰색 바탕은 순일무잡(純一無雜)한 한민족의 동질성과 결백성 및 평화애호성을 상징한다. 태극기 중앙부의 태극에서 위의 붉은 부분은 양을, 아래의 푸른 부분은 음을 나타낸다.³⁾ 삼일독립만세운동⁴⁾과 상하이 임시정부⁵⁾ 수립 이후 지금까지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휘날리고 있다. 특히 명절이나 기념일이 되면 한국 집집마다 다 태극기를 게양한다. 일반가정의 대문에는 집 밖에서 보아 왼쪽에 세우고 아파트에서는 밖을 향하여 베란다 오른쪽에 게양한다.

2) 조선 제 26 대 왕이자 대한제국 제 1 대 황제(재위 1863-1907)이다.

3) 李承梅 李龍海 著, 『韓國社會與文化』, 2007.

4) 1919 년 3 월 1 일을 기해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이다.

5) 3·1 운동 직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조직하여 선포한 임시정부이다.

2.2 음양오행사상

2.2.1 음양사상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 변화의 중심에 음양이 있다. 예전 사람들은 자연의 질서는 음과 양이 가장 조화로운 상태를 이루고자 하는데 양은 음에 의해 과도하게 왕성해지지 않고 음은 양에 의해 과도하게 쇠퇴하지 않는 원리로 음양은 서로 대립하고 보완하며 균형을 이룬다고 보았다. 낮에서 밤으로 이어지는 하루도 음양의 변화요, 봄·여름·가을·겨울 사시(四時)도, 나라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로병사도 한번 양이 되었다 음이 되는 음양의 변화이다. 커다란 생명인 은하가 그 모습을 잘 보여주 듯이, 일체의 자연, 생명, 우주의 작용은 이와 같이 돌고 돌며, 상반된 음과 양 이 두 가지 힘이 분리되고 서로 작용하면서 만물의 발생, 성장, 수렴, 소멸을 일으킨다. 즉, 음양의 작용은 네 가지 사상을 띠게 된다. 또한 그 것이 여덟 가지 구체적인 현상, 즉 팔괘로 나타난다. 이런 음양사상의 연구와 기록은 중국의 <주역(周易)>에서 처음 나타났는데 이미 동양 철학사상의 기초가 되었다.

2.2.2 오행사상

우선 오행의 원리를 밝히자면 그 연원(淵源)을 밝히는 것이 먼저 일 것이다. 오행에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글은 중국 상고시대의 <서경(書經)>⁶⁾ 홍범(洪範)편에서 자연적 개념으로 첫 모습을 보인다. 오행은 음양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우주만물을 변화시키는 데 그 변화의 모습을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표현한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힘을 쓰려는 모습이 겨우내 속에 품고 있던 생명 에너지를 발산하는 봄의 모습과 같다는 ‘목’, 거대한 줄기 속에 있는 에너지를 각 가지로 내뿜는 모습이다. 여름에 자신의 에너지를 마구 발산하면서 일을 하는 것을 또한 ‘화’의 기운으로 본 것이고,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있는 대로 쓰는 것이다. 그러다 가을이 되면 슬슬 일을 마무리하고, 성과를 거두어 가는 모습이 ‘금’과 같다. 마침내 그 것이 끝난 모습, 그리고 그것을 다시 다음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겨울이 ‘수’와 같다. ‘토’는 바로 목화와 금수의 사이에 존재한다. 분열과 수렴의 사이에 딱하니 버티고 있는 것이 ‘토’의 존재이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이런 오행사상의 연구와 기록은 최초로 중국의 <서경> 홍범편에서 나왔는데 이미 동양 철학사상의 기초가 되었다.

2.3 태극기에 나타난 중국 음양오행사상

대한민국의 국기—태극기 고안은 뜻밖에도 중국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하였는데 이는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나라 중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희귀한 일이다.⁷⁾ 태극기는 도안과 그림의 형식이거나, 도안과 그림의 이념이거나 모두 중국 전통문화

6) 오경(五經) 중의 하나로, 중국 상고시대(上古時代)의 정치를 기록한 유교 경전이다.

7) 李炬, 《韩国太极旗与汉文化因素》, 固原师专学报, 1994 年第 2 期。

의 근원인 역(易)문화⁸⁾ 요소가 포함되어서 그 가운데에서 중국의 주역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즉, 태극기는 주역에 의탁하여 <서경>의 문화 요소를 바탕으로 천인합일의 사상과 길흉화복의 문화심리를 집약적으로 반영했다. 음양과 오행은 자연의 현상과 인간의 삶에 필요한 다섯 가지 재료를 나타내는 의미에서 전국 시대 중엽에 이르러 음양오행이 하나의 결합된 체계로 인간과 만물이 상호 연관성을 가진 상관적 관계로 이어주는 핵심개념이 되었다.

아래에 태극기에 나타난 중국 음양오행사상을 팔괘, 태극원, 색채 등 세 가지 면으로 나누어 현대적 시각에서 분석, 연구해보고자 한다.

2.3.1 팔괘

태극기 모퉁이의 네 가지 문양은 바로 팔괘 중에서 기본적인 네 가지 괘, 즉 ‘건, 곤, 감, 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들 괘는 각각 일차적으로는 하늘과 땅, 물과 불을 나타낸다. 하늘을 상징하는 ‘건’은 ‘태양’ 중에서도 양적인 것이며, 불을 상징하는 ‘리’는 ‘소음’ 중에서도 양적인 것이다. 땅을 상징하는 ‘곤’은 ‘태음’ 중에서도 음적인 것이며, 물을 상징하는 ‘감’은 ‘소양’ 중에서도 음적인 것이다.

태극 옆에 있는 4괘는 각각 3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선들은 각각 양(-)과 음(--)을 나타낸다. 우선 건괘(왼쪽 상단)와 곤괘(오른쪽 하단)는 가장 대표적인 괘로 각각 하늘과 땅을 의미한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감괘는 물이나 남성을 뜻하고, 왼쪽 하단에 있는 리괘는 불이나 여성을 뜻한다. 이렇게 보면 태극기 속에는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하늘과 땅에 인간이 들어 있는 셈이다.

현대 풍수지리학적 시각에서 보면 이사할 때거나 점포를 열 때거나 모두 중국 주역의 팔괘를 통해 방위(方位)를 잘 표시함으로써 택지(擇地)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풍수를 응용한 집안 꾸미기도 유행하고 있다. 이처럼 팔괘를 기반으로 한 인테리어 풍수는 홍콩에서 시작되어 유럽과 아시아 국가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오늘날 팔괘는 태극기에서만 아니라 그 이론의 유용성을 인정받아 다양한 분야에서도 풍수이론과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2.3.2 태극원

태극기의 중앙에 있는 둥근 원 안에 그려진 태극은 뜨거운 불을 상징하는 홍색인 혈과 차가운 물을 상징하는 청색인 액을 합하여 혈액이라고 부르는 수와 화의 화합물이다. 여기에는 우주 만물의 운행 원리를 나타내는 중국의 음양오행설이 바탕이 되어 있다.

태극은 태극도형 원 속에 음과 양이 일직선으로 나타나지 않고 순환하는 선회운동을 하는 것이다. 태극의 성질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생성과 소멸로 음의 극에서 양이 있고, 양의 극에서 음이 잇는 중국의 태극사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하루의 밤낮처럼 태극의

8) 역(易)이란 우주자연과 천지만물의 생성변화를 뜻하는 동시에 그 근본원리 또는 괘효(卦爻) 경문(經文)으로 풀이한 글의 명칭이다.

선회운동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어지며 만물을 생성하는 자연의 이치를 담고 있다.

현대 건강의학적 시각으로 보면 많은 현대인들은 몸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중국의 태극권에 열중하고 있다. 이는 태극권이 맨손으로 태극원의 둥근 모양을 그리는 방식을 채택하여 만물의 운행원리와 결합하기 때문이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선회운동이 가지는 의미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에 와서는 생활을 선회운동이란 각도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다. 태극원은 현대 건강의학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2.3.3 색채

동양 학문의 핵심인 중국 음양오행사상이 담겨 있는 태극기의 태극 무늬에서 위의 붉은 부분이 ‘양’이고, 아래의 푸른 부분이 ‘음’이다. 음과 양이 만나는 경계선이 직선이 아니라 부드러운 S라인 곡선이라는 데에 고도의 상징성이 있다. 즉, 음과 양이 서로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조화롭게 서로를 보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양은 외향적인 것이고, 음은 내성적인 것인데 이러한 음과 양의 상호 작용 속에 만물의 변화를 일구며 그 변화 속에 순환의 이치를 담고 있다.

태극기의 바탕 흰 색은 자연계의 모든 빛을 수용하는 포용과 평화를 사랑하는 한민족의 민족성을 대변한다. 흰 바탕의 가운데 태극은 끊임없이 순환하여 생명을 낳고 낳으며, 살리고 살리는 자연의 진리를 담고 있다.

현대 미학적 시각에서 분석해 보면 청과 적의 배색은 단청이라고 한다. 단청은 ‘丹(붉을 단)’과 ‘靑(푸를 청)’을 의미하는데 붉은 색과 푸른 색을 주로 칠한다. 이 두 가지 색깔은 자연에서 쉽게 채취할 수 있었던 채료이며, 특히 붉은 색은 주술적 상징성이 부여된 색채이기도 한다. 단청은 태극기의 태극원에서뿐만 아니라 그 색채와 이미지는 현재 궁궐이나 사찰의 건축에서도 잘 활용하고 있다.

3. 결론

우주생명의 근원인 태극은 음양이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합쳐진 모습이기도 하고 중국 주역의 범주인 역(易)·태극·음양·사상(四象)·팔괘와 음양오행 등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본 논문은 현대적 시각으로 태극기의 원리를 논의하고 태극기에 나타난 중국 음양오행사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평화 속에서 찾아낸 태극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제대로 밝혀 태극기에 나타난 중국의 음양오행사상에 대해 분석, 연구해 보았다.

조선반도의 남북관계는 서로 다투지 않는 S라인 곡선처럼 우호적인 경쟁과 통합협력을 통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다.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 이러한 조화는 바로 태극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이다. 단군신화는 고조선 건국의 과정을 다룬 이야기로, 공동체 구성원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것은 태극기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특히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이 내포하고 있는 음양오행사상, 즉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연 환경과 조화로

운 상태를 이루는 동시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낳고 낳으며, 살리고 살리는 사상을 행하는 조화사상을 가장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 음양오행사상이 한국 태극기에 미친 영향은 자연과 인간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평화의 음양 S라인 곡선처럼 서로 다투지 않고 조화롭게 잘사는 사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문화적 공감대에 있어서 양국은 고대와 근대, 현대와 당대를 막론하고 모두 비슷한 점이 많았으며 일종의 떼려야 뗄 수 없는 문화적 모형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영향 모델은 중국 문화의 근원을 더욱 탐색하고 중한 양국의 지속적인 오행 문화 계승,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 韩永贤, 《周易探源》, 中国华侨出版公司, 1990年11月第1版。
- 李炬, 《韩国太极旗与汉文化因素》, 固原师专学报, 1994年第2期。
- 萧元, 《周易大辞典》, 中国工人出版社, 1992年2月第1版。
- 朱月荣, 《礼法事典》, 修学社, 1990年2月版。
- 金聖基,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에 있어서 東夷文化의 지위. 유교사상문화연구, 2015.
- 박중도, 「太極旗에 내재된 太極思想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7.
- 이기동, 『仁문화와 원류와 東夷와의 관계』. 유교사상문화연구, 2008.
- 오병무, 한국 성리철학에 있어서 《태극》의 의의. 한국건지철학회. 1991.
- 원홍식, 「태극기 원리에 대한 인식실태 연구」. 서경대 석사학위논문, 2014.
- 장재우, 태극의 개념과 논변의 재검토. 「민족문화」 한국고전번역원. 1981.